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V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V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V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V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공저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투르크학의 새 지평을 열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Turkology) 이해에 필요한 인문 분야 전 영역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이다. 투르크학은 유라시아 대륙을 발상지이자 근거지로 삼고 있는 투르크 민족들의 언어, 역사,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 인문·사회과학을 망라한 전 영역에 걸친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 분야이다. 투르크학의 지역적 범위는 러시아에서 중국, 중앙아시아를 지나 동서양이 만나는 튀르키예까지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른바 ‘투르크 벨트’라 불리기도 한다.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연방 내 알타이·투바·하카스·사하·바시키르·타타르스탄 공화국 그리고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한다.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튀르키예로 이어지는 이 광대한 투르크 언어·문화권은 과거 유라시아 초원 유목문화와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방대한 에너지 및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투르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것은 이런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확대 때문만은 아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형성된 유라시아 투르크 벨트 국가들의 인문학적 유산은 ‘다국적 문화유산’이라는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국경 및 초민족적’ 정체성 형성의 근거가 되는 문화적이며, 철학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투르크 벨트 국가들과 언어 문화적 좌표상에서 그 어떤 민족 집단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이른바 친연성(親緣性)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상호연관성과 언어·문화적 친연성을 규명하여 상호이해의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인문학 연구의 확대 강화는 필수적이다. 한국문화의 원류와 실크로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정치·경제적 교류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면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

‘투르크 벨트’ 국가들이 지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르크 인문학 연구는 아직 빈약한 상황이어서 투르크 문화에 관한 진일보된 연구는 물론, 일반인들은 기본 지식 습득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르크학 및 관련 인문 분야에 접근 가능한 ‘투르크학’ 인문사전이 필요하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5년간(2018년 8월~2023년 6월) 추진한 토대연구지원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필자가 연구책임자인 이 프로젝트는 ‘투르크인문 백과사전 DB 구축’이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는 국내 투르크학 연구자들을 총동원했고, 외국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DB를 구축했다. 이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투르크 인문학에 대한 정보와 연구 공백이 적지 않았고, 투르크학 연구자들이 넘어야 할 편견과 인식 부족의 장벽도 높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많은 분들의 협력 속에 DB 구축이 이루어졌기에 DB 차원에만 머물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예산을 아꼈고 DB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으로 만들어보려고 결심했다.

DB를 사전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는 연금술이었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다. 고통스러웠지만 사전을 만드는 인고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 준 것은, 이 사전이 미약하나마 국내 투르크학의 정보 공백을 메우고, 우리 사회와 투르크 국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 연구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연구자들과 기업 관계자, 시민들에게 투르크학 관련 주요 인문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 서비스는 향후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관계 발전 그리고 한국인들의 시야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이 대사전에서 다룬 투르크 인문학의 영역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종이책과 pdf 전자책으로 출판되고 보급되는 이 대사전은 2,020개의 표제어로 총 8권, 4,00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구성된 방대한 자료이다. 또한 이 대사전의 모든 내용은 〈NAVER 지식백과〉에서 정보 제공되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에 여러 어려움들도 감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실수와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필자와 연구진의 몫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커다란 은혜를 입었고, 마음의 빚을 지게

된 분들이 너무도 많다. 사전작업에 참여한 집필진은 물론 번역, 멀티미디어 자료수집, 감수에 이르기까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자문위원과 연구자 등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셨다. 누구보다도 'DB에 머물지 않고 사전을 발간하겠다'는 필자의 고집스러운 추진력에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렸던 최선아 박사, 장주영 박사, 구잘 미흐라예비는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함께 수행해주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함께 해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특히, 이 사전이 종이와 디지털로 그야말로 '사전'의 모습을 갖추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편집과 교정, 교열, 디자인 영역에서 창의적인 제안은 물론 헌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류수 박사님이야말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의 숨은 주역이다. 이 사전은 이렇듯 투르크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해준 많은 이들의 고통과 인내의 결실이다. 사전이 발간될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을 선물해준 모든 분들께 '소외 학문' 투르크학 연구자로서 오직 감사할 뿐이다.

이 대사전은 '한국 최초'이지만, 사실 '세계 최초'이기도 하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투르크학 인문 사전'은 아직 발간된 바가 없다. 앞서 대한민국의 투르크학 연구가 빈약하다고 했지만 그런 한국에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이 발간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인문학의 저력이기도 하다. 이 대사전이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이 함께 펼쳐갈 미래를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사전 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대신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

2023년 12월

모든 연구진과 집필진을 대표해서

연구책임자 **오은경** 씀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Azerbaij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 교수

Nükhə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 Balkans, Eurasia Turkish Literatures Organization)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교수

집필 · 멀티 미디어 ·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연구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 · 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 관장

Кайрат Жадьра(카이라트 자디라) L. 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교수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 박사수료

Leyla Masi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일러두기

1. 한국어 표제어 및 인명, 지명, 용어 표기 원칙 및 예외

한국어 표제어 항목과 내용 안의 인명, 지명,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립국어원 표기 원칙과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외국어 표기법(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에 준하여 표기하되 다음 사항을 예외로 한다.

1.1. 인명, 왕명, 지명은 소속 국가, 출신 국가, 해당 국가의 원어에 맞추어 최대한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내에 이미 널리 퍼져있거나 외교부에서 공인되어 사용될 경우 여기에 맞춘다.

- 〈예〉 앙카라(Ankara)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안카라'가 맞으나 '앙카라'로 표기
- 부하라(Buxoro)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부허라'가 맞으나 '부하라'로 표기
- 시바스(Sivas)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시와스'가 맞으나 '시바스'로 표기
- 튀르키예(Türkiye)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튀르키이에'가 맞으나 '튀르키예'로 표기
- 카라바흐(Qarabağ) :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가라바그'가 맞으나 '카라바흐'로 표기

1.2. 왕조, 과거 국명, 조직이나 기타 용어는 최대한 원어 발음에 맞추거나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표기법이 없고 국내 학계에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그에 맞춘다.

- 〈예〉 셀주크 조(Selçuklular)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셀츠크루라르' 혹은 '셀츠크 조'가 맞으나 '셀주크 조'로 표기
- 예니체리(Yeniçeri)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이에니체리'가 맞으나 '예니체리'로 표기
- 샤이바니 조(Şayboniylar)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샤이버니 왕조'가 맞으나 '샤이바니 조'로 표기
- 압바스 조(Abbasi)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아바스 조'이나 '압바스 조'로 표기
- 칸국(汗國)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한국'이나 '칸국'으로 표기
- 괭(gök)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괴크'가 맞으나 '괭'으로 표기

1.3. 우즈베크어로 된 인명의 한국어 표기의 경우,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표기법에 따르면 Mahmud/Mahmut은 '마흐무트', Muhammad/muhammat는 '무함마트'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마흐무드/마흐무트' '무함마드/무함마트'로 표기했다.

1.4. 인명 무함마드(Muhammad)는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이지만 모두 '무함마트'로 통일했다. 고유명사에 압드-(Abd-)가 들어갈 경우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아브드-',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압드-'이나 모두 '압드-'로 통일했다. 예를 들면 'Abdulla'는 압둘라로, 'Abdülhamid'는 '압뿔하미드'로 어느 나라 말인지에 관계없이 표기했다.

1.5. 우즈베크인 인명 중 러시아어에서 차용된 인명은 그 어미가 -ov로 끝나는 경우 실제 발음은 '-오프'에 가까우나 원칙에 맞춰 '-어브'로 표기하였다.

* 여러 표기법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에서 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게 했다.

2. 라틴 문자 표기

- 2.1. 라틴 문자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라틴 문자 표기를 말한다. 라틴 문자의 경우 최대한 원어 표기에 맞춘다.
- 2.2. 원어가 키릴 문자나 아랍 문자의 경우 라틴 문자 전사법에 맞추어 표기한다.
- 2.3. 표제어가 학술이나 이론, 개념, 이미 널리 알려진 용어 등의 경우 영어로 표기한다.
〈예〉 신붓값: Bride Price. 각종 투르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kalın, qalın 등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영어로 표기
- 2.4. 여러 투르크 사회가 공유되는 개념이 각 투르크어로 달리 표기되는 경우 집필자가 하나로 정하여 사용하되, 어느 나라 언어인지 내용에서 밝힌다.
- 2.5. 모스크, 마드라사, 미너렛 등과 같은 용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표제어의 경우 검색의 용이함을 위해 고유명사는 해당 언어로, 그 외 부분은 영어로 표기한다.
〈예〉 Süleymaniye mosque: 원어는 Süleymaniye camii이지만 검색과 이해의 용이함을 위해 Süleymaniye mosque로 표기

* 사용자가 라틴 문자 이외에 다른 문자로 검색해도 찾을 수 있도록 '다국어 표기'를 통해 검색의 용이성을 높였다.

3. 시대 구분

- 3.1. 기본적인 시대 구분은 다음과 같이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B.C. ~ A.D. 1000년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A.D. 1800년 ~ 현대
기타
- 3.2. 시기 구분은 이슬람 역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대 구분법을 차용한 것으로 현대 투르크 인구 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것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3.3. 시대 구간이 위의 시기 구분 여러 개에 걸쳐 있을 경우 통합하여 표기했다.
〈예〉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 A.D. 1000년 ~ A.D. 1800년
- 3.4.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시기가 필요 없는 이론, 여러 시기를 걸쳐 공유될 경우에 사용된다.

4. 지역 구분

4.1. 지역은 다음 다섯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북아시아
- 동아시아
- 서아시아
- 중앙아시아
- 기타

4.2.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지역이 불분명하거나, 지역 구분이 의미가 없을 경우,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시된 지역 외의 지역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캅카스는 서아시아에 포함했다.

5. 국가

국가는 해당 표제어의 내용이 존재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대표 국가를 의미한다. 이 국가는 현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표제어를 대표하는 국가를 표기함으로써 검색의 편의성을 위하여 표기한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과 관련한 표제어의 경우 현대 기준으로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발칸 반도의 일부 국가,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 아랍 일부 국가를 포함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튀르키예만 표기하였다.

6. 유형

6.1. 유형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 7개 항목으로 분류한다.

6.2. 유형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했다. 유형 분류는 집필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에 기반하여 정해졌다.

〈예〉 쉴레이마니이에 모스크의 경우 '종교' 유형과 '예술' 유형이 가능한데 '예술'로 분류했다.

6.3. 유형 소분류 1, 2는 유형의 하위 분류이다. 유형 소분류 1은 대체로 유형 소분류 2의 상위 항목이나, 아닌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 소분류 2가 작성되지 않았다.

7. 집필자

집필자는 해당 표제어를 작성한 저자이며, 이 집필자가 2명 이상인 것은 공동집필한 것이다. 집필자 이름 옆에 표기된 '자문위원'은 해당 표제어를 작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해외의 학자들이다.

8. 멀티미디어 링크

멀티미디어 링크는 표제어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 링크이다. 다만, 이 링크는 인터넷상의 자료로 집필진이 작성한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자료의 저작 및 관리 책임은 해당 자료의 소유주에게 있으며,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9. 다국어 표기

다국어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외국어 표기를 말한다. 이 표기는 주로 투르크어(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등)를 위주로 표기했으나 해당 투르크어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기타 다른 외국어로 표기했다. 다른 외국어는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등 표제어와 관련이 깊은 언어를 주로 제시했다.

10.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참고문헌으로 표기 방식은 저자의 의사를 따랐다. 인용하는 문헌들의 출판 국가가 다양하고, 참고문헌 표기법도 상이하여 통일된 표기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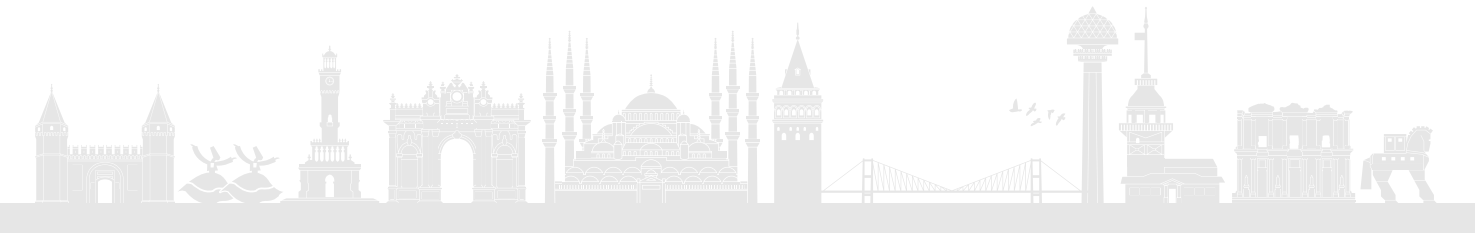
온라인 참고문헌의 경우,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온라인 문서로 경우에 따라 해당 링크에 연결된 문서가 소멸될 수 있음을 밝힌다.

11. 링크(link)의 연결

멀티미디어, 참고문헌(온라인) 등에서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PDF 전자책에서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한다. 단,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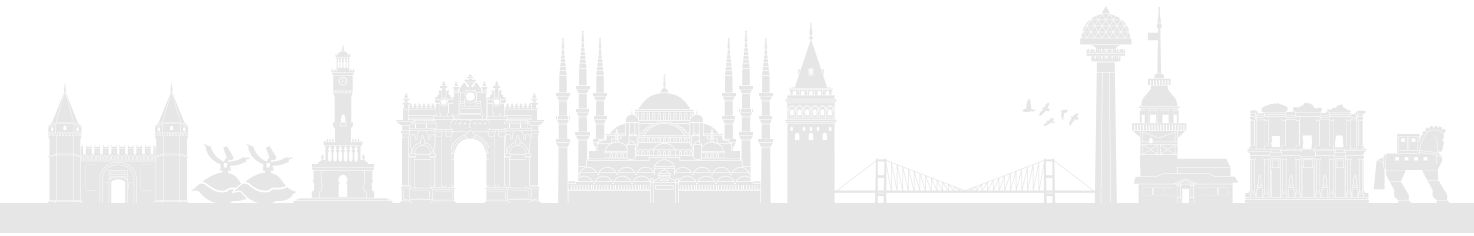
12. 사진 Source

Source를 별도로 밝히지 않은 사진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나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거나, 집필자 및 자문위원이 기증한 사진, RF123, Shutterstock 등에서 구입한 사진이다. Source를 밝힌 사진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UNESCO 등 공적 기구, 대학교, 연구기관, wikimedia 등 비영리단체, amazon 등 온라인 커머스 회사 자료들이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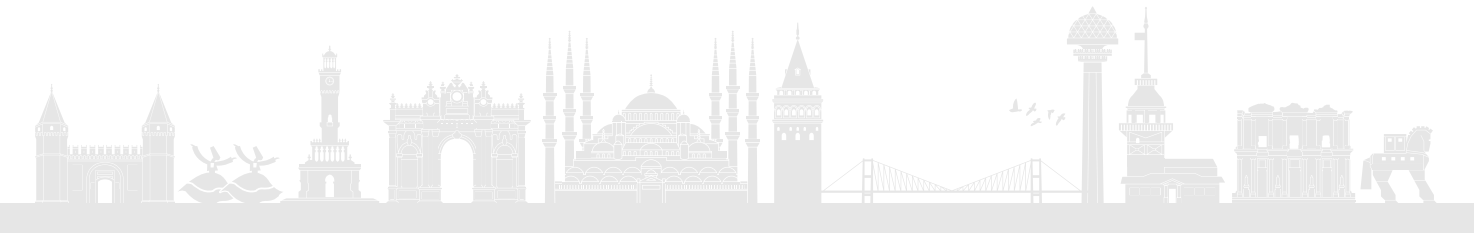


Contents

서문	003	E021 아르바인	057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006	E022 아르산-두올라이	059
일러두기	008	E023 아르수리	060
		E024 아르슬란 자집 영묘	061
I E001 아가	021	E025 아르콘 토르트쉬	062
I E002 아가무사 아훈도브	022	E026 아리스탄-바프	065
I E003 아가스 이지	025	E027 아린트시	066
I E004 아고프 딜라차르	026	E028 아무다리야	067
I E005 아나르 르자예브	028	E029 아미르 티무르	070
I E006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	030	E030 아민 우마리이	072
I E007 아나톨리아 민속극	032	E031 아바르 조	074
I E008 아나톨리아 아시아 예술	034	E032 아바시	076
I E009 아드트카비르	036	E033 아바야흐	077
I E010 아달레트 아아오올루	038	E034 아바이의 길	078
I E011 아라버타 영묘	041	E035 아바자 메흐메드 파샤	080
I E012 아라타	042	E036 아바즈 여타르	081
I E013 아란출라	043	E037 아바칸	082
I E014 아랍인들을 위한 투르크어 교육 문법 사전	044	E038 아바칸 강	084
I E015 아랍 칼리프국(아제르바이잔)	045	E039 아바칸 투르크	086
I E016 아레이파부라커 무덤군	049	E040 아베스타	087
I E017 아루차이딩	050	E041 아부 만수르 알 마투리디	089
I E018 아르다빌	051	E042 아부쉬카 사전	091
I E019 아르메니아 킵차크 투르크어	054	E043 아불거지 바허디르 칸	092
I E020 아르민 밤베리	056	E044 아불파즐 알라미	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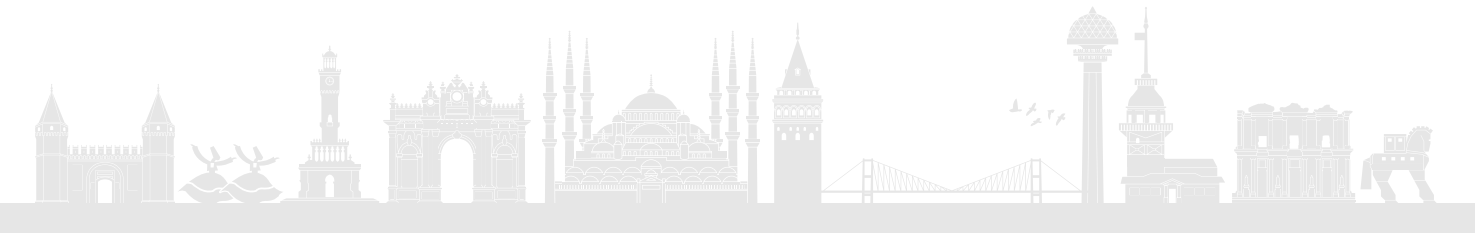
E045 압달.....	096	E069 아샤마이가 밍기주.....	140
E046 압테스트.....	099	E070 아슈라.....	141
E047 압두라힘비이.....	100	E071 아스카드 무흐터르.....	143
E048 압둘라 바드리이.....	102	E072 아스크하브 영묘.....	144
E049 압둘라 아블러니이.....	103	E073 아스키야.....	146
E050 압둘라 알라비이.....	106	E074 아스키즈.....	148
E051 압둘라 어리퍼브.....	107	E075 아스판디요르 칸.....	150
E052 압둘라 카흐허르.....	109	E076 아속 아투.....	151
E053 압둘라 칸 2세.....	112	E077 아슴 베지르지.....	152
E054 압둘라 칸 티미.....	114	E078 아시나.....	154
E055 압둘라 커드리이.....	115	E079 아시옥.....	156
E056 압둘라흐 칸 마드라사.....	118	E080 아시옥 문학(튀르키예).....	161
E057 압둘아지즈 칸.....	120	E081 아시옥 파샤 영묘.....	163
E058 압둘아지즈칸 마드라사.....	121	E082 아시옥 웨이셀.....	165
E059 압둘카림비이.....	122	E083 아시옥 혼드 맴매트.....	171
E060 압뮐메지드(술탄).....	123	E084 아시카이딘.....	172
E061 압뮐아지즈(술탄).....	125	E085 아알 루우크 마스.....	173
E062 압뮐카디르 이난.....	126	E086 아야소피아.....	174
E063 압뮐하미드 1세.....	128	E087 아우다르스팍.....	179
E064 압뮐하미드 2세.....	130	E088 아이나.....	181
E065 압뮐하크 쉬나시 히사르.....	133	E089 아이니 미너렛 모스크.....	182
E066 아비르.....	136	E090 아이튼 공국.....	183
E067 아빈 후흐 울 유적.....	137	E091 아이락 고즈고르-1유적.....	185
E068 아살라.....	138	E092 아이박.....	186



E093 아이샤 비비 영묘	187	E117 아크코윤루(백양 조)	239
E094 아이안	189	E118 아크하크-콜라	241
E095 아이으	192	E119 아큰	242
E096 아이캡	194	E120 아키나케스	244
E097 아이트스	195	E121 아타베틸 하카이으크	245
E098 아인잘루트 전투	197	E122 아타벵	247
E099 아자미	199	E123 아태시가흐	249
E100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202	E124 아드	252
E101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	204	E125 아트로파테네	253
E102 아제르바이잔 아시아 예술	206	E126 아틸라	254
E103 아제르바이잔 아시아 예술의 유파	209	E127 아파나시예보 문화	256
E104 아제르바이잔 아타배일래르	214	E128 아팍 호자 영묘 복합단지	257
E105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	217	E129 아프라시압(인물)	261
E106 아즈-이-야	219	E130 아프라시압(지명)	262
E107 아즈흐 동굴	221	E131 아프라시압 계말마즈	264
E108 아지나	223	E132 아하탄헬 크림스키	265
E109 아지다르하	224	E133 아흐마트 더니쉬	267
E110 아지즈 네신	225	E134 아흐마트 알 파르커니이	269
E111 아지즈 마흐무드 휘다이이	229	E135 아흐메드 1세	270
E112 아지즈 압두라저크	232	E136 아흐메드 2세	272
E113 아지즈현 카유머브	233	E137 아흐메드 3세	274
E114 아카투이	236	E138 아흐메드 낙시	276
E115 아크 코바	237	E139 아흐메드 웨피크 파샤	277
E116 아크부자트	238	E140 아흐메드 제브데트 파샤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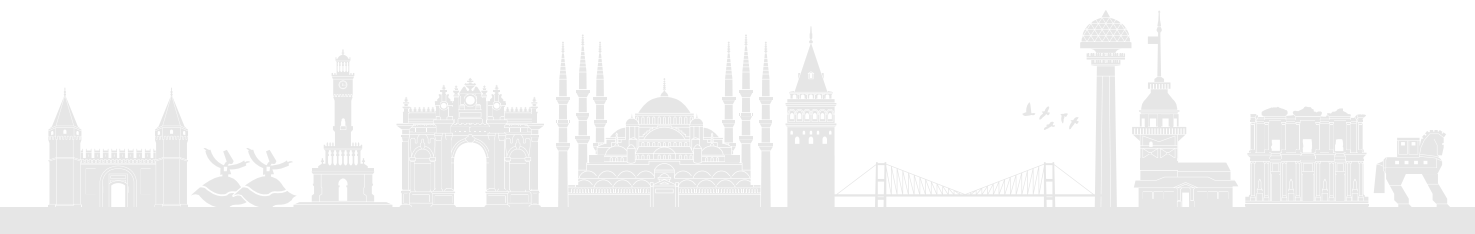
E141 아흐메드 파키흐.....	280	E165 안드레아스 티체.....	330
E142 아흐메드 하셈.....	281	E166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코노노프.....	332
E143 아흐메트 무히프 드라나스.....	284	E167 안디잔 봉기.....	333
E144 아흐메트 카바르.....	287	E168 안바르 어틴.....	335
E145 아흐메트 쿠트시 테제르.....	289	E169 안장.....	336
E146 아흐메트 함디 탄프나르.....	292	E170 안탈리아.....	338
E147 아히.....	297	E171 알-구리 복합단지.....	341
E148 악 마자르.....	298	E172 알 누르 모스크(모슬).....	344
E149 악 사라이 궁전.....	300	E173 알 파라비.....	346
E150 악 치벡 아르그.....	303	E174 알기스.....	348
E151 악 타스.....	304	E175 알-나시르 무함마드.....	349
E152 오타니 고즈이.....	305	E176 알다르와 주흐라.....	352
E153 악령들의 잔치.....	307	E177 알도 갈로타.....	353
E154 악사라이 대모스크.....	309	E178 알라웃 딘 칼치 영묘와 마드라사.....	354
E155 악사라이 술탄 한.....	313	E179 알라거우.....	356
E156 악사칼.....	316	E180 알라만 베이계.....	357
E157 악순쿠르 모스크.....	317	E181 알라만과 즐라만.....	358
E158 악시.....	320	E182 알라엠티던 저택.....	359
E159 악시암 나마즈.....	321	E183 알라이.....	362
E160 악오르다.....	322	E184 알라이 다르와자.....	363
E161 악체.....	324	E185 알라이 미나르.....	366
E162 악타반 슈브룬드.....	326	E186 알라잔 강.....	367
E163 안개 낀 슈샤 산 꼭대기.....	327	E187 알레비.....	369
E164 안개 낀 태브리즈.....	328	E188 알렉산더 콘스탄티노비치 보로브코프.....	372



E189 알렉세이 그리고레비치 칼킨	373	E213 암바르 오나	423
E190 알렘다르 무스타파 파샤	376	E214 압돌 카디르 길라니	424
E191 알리 베이	378	E215 압둘라 칸 칼라	425
E192 알리 에미리 에펜디	379	E216 압사 타스	427
E193 알리 쿠쉬치	381	E217 압자르 이야세	428
E194 알리 파샤(메흐메드 에민)	384	E218 앓파자리 오스만 파즐르	429
E195 알리세르 나버이이	386	E219 앙카라	431
E196 알리프티그 니마흐	390	E220 앙카라 전투	433
E197 알림 가스모브	391	E221 에이누어	435
E198 알바스티	393	E222 애지재 재페르자대	436
E199 알빈지	395	E223 애흐매드 베이 아가오글루	438
E200 알 아나	396	E224 애흐매드 자바드	440
E201 알타이 제어	397	E225 애흐매트 재페르오글루	442
E202 알타이산맥	399	E226 엘리 베이 휘세인자대	446
E203 알타이인	401	E227 엘리샤 니자트	449
E204 알타이적 현상	402	E228 엘리와 니노	451
E205 알탄 우룩	404	E229 앵뒤래힘 베이 하그베르드예브	453
E206 알트바칸(그네타기)	405	E230 앵뵐가디르 마라가이	455
E207 알틴체츠	407	E231 야르후토	458
E208 알파 강	408	E232 야틀릭	460
E209 알퍼므쉬	410	E233 야만 우수	461
E210 알퍼므쉬 콘크로트 판본	413	E234 야샤르 가라예브	462
E211 알프 아르슬란	419	E235 야샤르 케말	464
E212 알프 에르툽가	421	E236 야시 조약	466



E237 아쿠티야(사하공화국)	467
E238 아쿠트어/사하어	470
E239 아쿠트인	471
E240 아쿠프 카드리 카라오스만오을루	472
E241 아쿱 베그	476
E242 아흐발라하 3세	477
E243 아흐야 케말 베야틀르	479
E244 악탈혼	481
E245 앓스 나마즈	483
E246 어가히이 무함마드 리저	484
E247 어딜 요쿠버브	486
E248 어먼 맛전	487
E249 어순	489
E250 어쉬 가립과 셔흐사남	490
E251 어시퍼브 봉기	492
E252 어이딘	493
E253 어이벡	495
E254 어타울리	497
E255 어타전 허셈	499
E256 얼림 칸	500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505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508



제1권 A001 13세기 이전 투르크어원 사전 ~ A284 리파이 중단

제2권 B001 마고키 아타리 모스크 ~ B284 밀레트

제3권 C001 바기르의 검 ~ C150 빌헬름 피터 그린베크

제4권 D001 사가이 ~ D215 심판의 날

제5권 E001 아가 ~ E256 얼림 칸

제6권 F001 에게해 분쟁 ~ F270 잉판 유적

제7권 G001 자디드운동 ~ G348 킵차크어파

제8권 H001 타가르 문화 ~ H310 히스랏

I E001 | 아가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칭호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gha

아가의 어원은 ‘형’이라는 의미의 몽골어 아카(aka)이다. 칭기즈 칸(Genghis Khan, 재위: 1206년~1227년) 이후 몽골 왕조에서 아카와 동생을 의미하는 이니(ini)는 왕조의 일원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또는 고귀한 혈통 출신은 아니더라도 큰 공적을 달성해 중요한 위치에 오른 존경받을 만한 정치가에게 아카라는 호칭을 사용하곤 했다. 일 칸국 시대 이후부터 군사 사령관이나 영주(noyan, bey)가 아닌 정치가들에게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때때로 귀족 출신 노얀들을 아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아나톨리아 투르크 국가에서는 13세기 이래로 아아(ağa)의 형태로 영예의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술탄 왈라드(Sultan Walad)가 아나톨리아의 몽골 총독인 사마 가르 노얀(Samagar Noyan, 13세기)에게 쓴 편지에도 그를 사마가르 아아(Samagar ağa)라고 쓴 적이 있다. 티무르 조의 경우 남성 권력자가 아닌 귀족 여성들에게도 아주 드물게 사용되었다. 백양 조의 경우 페르시아어에서 발음하듯 아아(ağa)로 발음했을 확률이 높으며, 다루가(darughā), 뇌케르(nöker), 타바즈(tavacı)와 같이 관리에게도 최초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통치자가 알현을 받는 일을 감독하는 관리의 경우 예시크 아아스(Eşik ağası)라고 부르기도 했다.

사파비 조에서도 아카는 아아의 형태로 발음한다. 사파비 조 시대에는 우선적으로는 부족의 장로들과 리더를 표현하거나, 일부 대사나 궁전의 일부 내시, 군대의 일부 직책을 아아라고 호칭했다. 카자르 시대에서는 공무원들을 아아라고 불렀으며 그 이후 현대에 와서 이란어에서 아가(آقا)가 ‘신사’의 의미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집트 맘루크의 경우에는 조직에서 연공서열이 높은 맘루크, 젊은 맘루크를 교육하던 교사들, 군인으로 복무하던 맘루크, 술탄을 섬기는 맘루크 등을 ‘아아’로 불렀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아아(ağa)의 형태를 군사 조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다. 속주와 산작(sancak)의 군인 총독들인 파샤(paşa)와 베이(bey), 군사 조직에 소속된 모든 아미르에게도 사

용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 궁전 조직의 기관장이나 일부 신민을 대표하는 이에게 이 칭호를 사용했다. 간혹 궁전 조직 내에서 크즈라르 아아스(Kızlar ağası)와 같이 업무를 설명하는 단어와 함께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말기로 접어들며 국내 행정력이 약해지자 지방 마을의 행정력이 유력 가문이나 인사들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국가는 통제하지 못한 채 그들을 아얀(âyan)이라고 부르며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아아’라는 칭호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2차 입헌 군주 개혁(1906년~1920년) 시기에 이르면 오스만 군대 내에서 대위와 소령 사이에 콜 아아스(kol ağası)라는 계급을 두거나 중위~소령과 같은 장교들을 ‘아아’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아
- 다국어 표기 Ağa(튀르키예어), Afa(카자흐어), Ağa(아제르바이잔어), Og'a(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크즈라르 아아스, 아얀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aqa-or-aca>
- 참고문헌(오프라인) Bowen, H. "AGHA", Encyclopaedia of Islam VOL. I (ed. H. A. R. Gibb, J. H. Kramers, E. Lfivi-Provengal, J. Schacht) Leiden; Brill, 1986, pp.245~246.
Sümer, Faruk. "AĞ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 İstanbul: TDV, 1988, pp.451~452.

I E002 | 아가무사 아훈도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Ağamusa Axundov

아제르바이잔의 국립 과학 아카데미 정회원이었던 아가무사 아훈도브(Ağamusa Axundov)는 1932년 2월 2일 아제르바이잔 퀴르데미르 주에서 태어났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1950년~ 1955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의 철학학부 언어학과에서, 1955년~1958년에는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1958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1959년~1965년 아제르바이잔 외국어 교육학 연구소의 서유럽 언어학부에서 공부했다. 1964년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67년 교수로 임명되었고, 2007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국립 과학 아카데미의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아가무샤 아훈도브
Source: <https://science.gov.az>

그 외에도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아제르바이잔 국립 과학 아카데미의 언어학 연구소 소장직을 역임했으며, 2001년~2011년에는 국립 과학 아카데미의 인문 사회학부 연구자로 역할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국립 과학 아카데미의 상임위원회 고문, 아제르바이잔 국립 과학 아카데미 전문 용어 위원회 부회장, 아제르바이잔 최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지명위원회 위원, AzərTAC(아제르바이잔 국영 통신사)의 번역위원회 위원, 아제르바이잔-아랍 우호 협회의 이사회 회원, 소련-미국 우호 협회의 바쿠 지부 회장 등을 맡았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는 활발히 활동했다. 대표적으로 소련 투르크학 위원회(Sovet Türkoloqları Komitəsi) 위원, 독일의 국제 과학 이론 저널인 <음성학, 언어학: 의사소통연구>의 편집위원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1965년~1966년에는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한 아인샴스 대학교, 1967년 프라하, 1972년 앙카라, 1984년 베오그라드, 1986년 부다페스트, 1990년 튀르키예 카이세리 등에서 아제르바이잔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다. 또한 그는 1975년 뉴욕에서 열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30주년 기념 회의 및 1992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 과학 회의에 참석했으며, 소련-미국관계 연구소 특별 위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원로학회의 초청으로 도쿄 대학교에서 한달 동안 아제르바이잔어를 가르쳤으며, 고베 대학교와 도쿄 동양문고(東洋文庫)에서 아제르바이잔어의 발전을 주제로 한 두 차례의 학술회에 참석했다.

이처럼 그는 풍부한 학술 활동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교육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 언어학과 문학 비평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아제르바이잔 언어와 문학 연구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공헌했다. 무엇보다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새로운 조건에서 국가의 국어를 건설하는 과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국민들의 자의식을 형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음소체계에 대해 연구한 최초의 학자였으며, 그 밖에 그의 문법, 이론언어학, 음성학사, 어원학, 언어사, 방언학 및 언어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높은 이론적 및 방법론적 해석을 내놓았기에 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이에 1986년에 ‘아제르바이잔 언어의 음성학’으로 국가상을 받았으며, 2000년에는 명예 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언어 개발 및 조정위원회 의장, ASE 자문위원회와 조지아 과학 아카데미 언어학 연구소 및 바쿠 주립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전문 국방위원회,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아제르바이잔 지부 위원이었으며, <Sovetskaya tyurkologiya>, <Ulduz> və <Azərbaycan> 저널의 편집위원직도 수행했다.

이러한 수많은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는 1987년 미국의 ‘Friendship Forse’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우정 협회의 명예졸업장을 수상했으며, 미국 뉴올리언스의 명예 외국인이자, 루이지애나주의 배턴 루지 시의회 명예회원이 되기도 했다.

2015년 9월 5일, 84세의 나이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주요 저서는 『일반언어학』, 『언어학 입문』, 『아제르바이잔어』, 『아제르바이잔어의 역사 및 어원 사전』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가무사 악훈도브, 아아무사 악훈도프
- 다국어 표기 Ахундов, Агамуса Агасы оглы(러시아어), Ağamusa Axundov(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양카라, 바쿠
- 참고문헌(온라인) <http://science.gov.az/forms/skonchavshiesya-deystvitelnyie-chlenyi/3236>
<http://old.xalqazeti.com/az/news/social/61731>
- 참고문헌(오프라인) Musaoğlu, Mehman. “AĞAMUSA AHUNDOV’UN ARDINDAN”, *Dil Araştırmaları*, 2015, ss. 304~308.

I E003 | 아가스 이지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Aghas Eezi

아가스 이지는 남(南)시베리아의 하카스인들의 전통 신앙인 샤머니즘에 등장하는 숲에 사는 주령 혹은 정령이다. 하카스인들은 아가스 이지 즉, 나무의 정령이 나무 밑에서 잠이 든 여행자들을 보호해준다고 믿는다. 그들은 예로부터 나무(숲) 숭배 전통에 따라 해가 진 후에 숲 혹은 타이가에서 나무를 자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주의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나무줄기를 도끼의 뭉뚝한 부분으로 두드려 나무의 정령을 깨운 다음 정령에게 나무 베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곤 했다.

이런 샤머니즘 의식을 통해 알 수 있는 나무 숭배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나무는 마른 나무였다. 마른 나무는 하카스어로 *tını çoh ağas* 즉, 숨이 없는(생명이 다한/ 죽은) 나무라고 불리기에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할 때도 베어진 나무는 해가 뜨는 방향인 동쪽을 향해 넘어져야 한다. 그리고 밤에는 나무의 일부 혹은 나무를 베는 행위가 금지된다. 땀감 준비는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집 안 뜰의 특별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카스인들은 통나무(잘린 나무)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밤중에 통나무에 도끼가 꽂힌 채로 두면 안 된다고 여긴다. 만일 통나무에 도끼를 꽂아둔다면 통나무가 밤새도록 괴로워할 것이며, 이로 인해 그 집안의 행복도 앓아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가스 예지
- 다국어 표기 Ağas Eezi / Ағас ээзи(하카스어), Aghas Eezi(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Бутанаев, В. Я. & Торбостаев, К. М., “Ағас ээзи”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Т. 1, Абак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2007, С.27.

I E004 | 아고프 딜라차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Agop Dilacar

아고프 딜라차르(Agop Dilaçar, 1895년~1979년)는 저명한 튀르키예의 언어학자이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하고프 마르타얀(Hagop Martayan)으로 투르크계 아르메니아인이다.

1910년 이스탄불의 로버트 칼리지(Robert Kolej)에 입학하여 독일어,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 등을 배우고 1915년 졸업했다. 이후 디야르바크르주 오스만 육군 제2사단 장교로 복무하다가, 바그다드 남부 쿠트(Kut) 지역에 포위로 억류된 영국군 포로들의 튀르키예군 통역관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 뒤 영국 죄수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다마스쿠스로 호송되었다가, 그곳에서 당시 오스만 육군 7사단장이었던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장군과 처음 만나게 된다. 무스타파 케말은 딜라차르의 충명함에 감명받아 그를 사면한 후 자신의 본부로 데리고 들어갔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그는 레바논으로 이주하여 베이루트의 아르메니아 학교 교장직을 맡았고, 또한 베이루트에서 최초로 발간된 아르메니아 신문 <Louys>의 편집장이 되었다. 1919년부터는 이스탄불로 돌아와 로버트 칼리지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으며 1922년 아내를 만나 결혼한 뒤 불가리아의 소피아 대학교로 가서 오스만 투르크어와 위구르어를 비롯한 고대 동양어를 가르쳤다.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책을 출간했고, 계속해서 튀르키예어에 관한 연구를 이어갔다. 1932년 9월 22일, 튀르키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열린 제1회 튀르키예 언어 컨퍼런스에 초청받게 되는데, 이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Türk Dil Kurumu, TDK)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다.

딜라차르는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초대 사무총장 겸 수석 전문가로 활동했고, 1934년에는 튀르키예에서 성씨법이 발효되면서 본명인 아고프 마르타얀을 버리고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제안한 성 ‘딜라차르(Dilaçar: 언어개설자)’를 수여받았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무스타파 케말의 ‘아타튀르크’(Atatürk)라는 국부(國父)의 의미를 지닌 성(姓)을 국회에 제안한 인물이 바로 아고프 딜라차르이다.

그는 아르메니아어와 튀르키예어 외에도 영어, 그리스어, 스페인어, 아제르바이잔어, 라틴어, 독일어,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등 22개 국어에 능통했다. 또한 돌궐어 연구뿐만 아니라 고대에서 중세, 현대로 이어지는 튀르키예어 역사 전반에 걸친 연구에 매진했고, 이와 관련한 언어 이론 연구에도 참여했다. 그 밖에도 1936년부터 1951년까지 앙카라 대학교 언어 역사 지리학부에서 투르크학 강의를 맡아 가르쳤으며, 기존 오스만 튀르크어 아랍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바꾸는 튀르키예어 문자 개혁의 일환 작업에서 새로운 튀르키예어 알파벳을 만드는 데 참여하기도 했다.



아고프 딜라차르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1942년~1960년에는 튀르키예 백과 사전 준비 수석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했다. 아고프 딜라차르의 대표적 저서는 『태양 언어 이론의 생물-심리적 기원(Les bases Bio-Psychologiques de la Théorie / Güneş Dil Teorisi'nin Biyopsikolojik Kökenleri, 1936)』,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어(Azeri Türkçesi, 1950)』, 『서부 투르크어(Batı Türkçesi, 1953)』, 『투르크 제어의 쓰기 방식, 투르크어 및 투르크 제어 분류 문제(Lehçelerin Yazılma Tarzı, Türk Dil ve Lehçelerinin Tasnifi Meselesi, 1954)』, 『국가어로서 튀르키예어(Devlet Dili Olarak Türkçe, 1962)』, 『빌헬름 톰슨과 오르콘 비문 해석(Wilhelm Thomsen ve Orhon Yazıtlarının Çözülüşü, 1963)』, 『튀르키예어 총론(Türk Diline Genel Bir Bakış, 1964)』, 『튀르키예에서의 언어 순화(Türkiye'de Dil Özleşmesi, 1965)』, 『말, 언어 그리고 언어학자(Dil, Diller ve Dilcilik, 1968)』, 『쿠타드구 빌리그 연구(Kutadgu Bilig İncelemesi, 1972)』, 『모국어 원칙 및 튀르키예 밖에서의 적용(Anadili İlkeleri ve Türkiye Dışındaki Uygulamalar, 1978)』 등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곱 딜라차르
- 다국어 표기 Agop Dilâçar(튀르키예어), Agop Dilacar(영어)
- 연관 검색어 오스만 투르크어, 돌마바흐체, 아제르바이잔어, 튀르키예어, 문자개혁, 이스탄불,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오른 콘비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 멀티미디어 링크 딜라차르가 아타튀르크에 대해 인터뷰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H4uWXYyMZw>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4/Agop_Dila%C3%A7ar.jpg

- 참고문헌(온라인) Özfatura, İ. Dilimizi dilim dilim... Agop Dilâçar, Türkiye Gazetesi, 2011년 4월 1일 기사
<https://www.turkiyegazetesi.com.tr/Genel/a485921.aspx><https://www.aydinlik.com.tr/bir-anit-adam-agop-dilacar-ozgurluk-meydani-eylul-2019#1>
- 참고문헌(오프라인) Alkayış, M. F., *Türkolojinin kırkı*. İstanbul: HiperlinkYayınları, 2019.

I E005 | 아나르 르자예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Anar Rzayev



아나르 르자예브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아나르 르자예브(Anar Rzayev)는 아제르바이잔을 대표하는 주요 작가이다. 그는 1938년 3월 14일 바쿠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문인 집안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는 시인 래술 르자(Rəsul Rza)이고, 어머니는 시인 니가르 래피베일리(Nigar Rəfibəyli)이다.

그는 1945년~1955년에 바쿠의 10년제 음악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학교의 현재 이름은 나이팅게일 음악학교(Bülbül adına məktəb)이다. 이후 1991년 3월에 11회 작가 총회에서 아제르바이잔 작가연맹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현재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국회 문화위원회 의장직을 맡았다.

그는 1960년부터 문예창작을 시작했다. 첫 작품부터 독자들의 관심을 폭넓게 끌어 모았던 그의 작품들은 심도 있는 사회적 내용뿐만 아니라 서정적이고 심리적인 풍부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의 소설은 『흰 항구(Ağ liman)』, 『5층 집의 6층(Beşmərtəbəli evin altıncı mərtəbəsi)』,

『기회(Macal)』, 『접촉(Əlaqə)』, 『단테의 기념일(Dantenin yubileyi)』, 『호텔 룸(Otel otağı)』, 『백양(白羊), 흑양(黑羊)(Ağ qoç, qara qoç)』, 『악마의 눈(Göz muncuğu)』 등이 있다. 산문 (povest)집으로는 『나, 너, 그 사람 그리고 전화기(Mən, sən, o və telefon)』, 『좋은 왕 이야기 (Yaxşı padşahın nağlı)』, 『조지아인의 성(Gürcü familiası)』, 『공황(Vahimə)』, 『빨간 리무진(Qırmızı limuzin)』 등이 대표적이다.

『사람의 사람(Adamın adamı)』, 『작년 마지막 밤(Ötən ilin son gecəsi)』, 『도시의 여름날 들(Şəhərin yay günləri)』, 『집의 절반(Evləri köndərən yar)』, 『도시의 겨울밤(Şəhərin qış gecələri)』 등은 그가 쓴 희곡이며, 아제르바이잔의 여러 무대에서 상연되었다.

이외에 시나리오도 다수 집필했다. 영화 「하루가 지나갔다.(Gün keçdi)」, 「현자 고르구드 (Dədə Qorqud)」, 「긴 인생의 화음(Uzun ömrün akkordları)」, 「슬픔의 창문(Qəm pəncərəsi)」, 「자비드의 생애(Cavid ömrü)」, 「태흐미네(Təhminə)」 등이 그가 시나리오를 쓴 작품이며, 일부 영화는 감독을 맡기도 했다. 이런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창작과 폭넓은 활동과 더불어 그는 학술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1500년 오구즈 시 문집』은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민족작가라는 칭호와 더불어, 독립훈장, 명예훈장, 헤이다르 알리에프 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나라 르자예브, 아나르

● 다국어 표기 Anar(영어, 튀르키예어), Анар(러시아어), Anar Rzayev(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바쿠,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2/Anar_Rzayev_%28cropped%29.png/800px-Anar_Rzayev_%28cropped%29.png

● 참고문헌(오프라인) Cəfərov Nizami, *Anar*, Bakı: AzAtam nəşriyyatı, 2004.

Əfəndiyev Əmin, *Anar: ömür yolu, yaradıcılığı*, Bakı: “Oskar” nəşriyyatı, 2011.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Ənvəroğlu Himalay, *Azərbaycan ədəbiyyatının yaradıcılıq problemləri*, Bakı: Elm nəşriyyatı, 2004.

Gülxani Pənah, *Anar və folklor*, Bakı: Elm nəşriyyatı, 2014.

Tanrıverdi Əzizxan, *Anarın nəsi*,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3.

Ulusel Rahid, *Global düşüncə məkanında Azərbaycan ədəbiyyatı Anar yaradıcılığı ilə*, Bakı: Elm nəşriyyatı, 2005.

I E006 |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박물관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Museum of Anatolian Civilizations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튀르키예어: Anadolu Medeniyetleri Müzesi)은 튀르키예 앙카라에 위치한 박물관이다. 앙카라 성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튀르키예의 초대 대통령인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mustafa Kemal Atatürk)의 지시로 건설되었고, 주로 히타이트 문명에 관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구석기시대 유물로는 안탈리아(Antalya)에서 북서쪽으로 27km 떨어진 야오자(Yağca) 마을에 있는 카라인(Karain) 동굴에서 출토된 석기류가 있다. 신석기시대의 유물로는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인 차탈회이위크(Çatalhöyük)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있는데 점토로 된 지모신상이 백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의 지모신상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 내부

미이다. 청동기시대의 유물로는 호로즈 테페(Horoz tepe)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있다. 특히 히타이트 시대의 유물들이 주를 이루는데 보아즈 콰이(Boğazköy)와 아슬란 테페(Aslan tepe) 등에서 출토된 유물들이다. 히타이트는 세계 최초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오리엔트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으로 동시대 강국들이 황금 왕좌에 앉아 좋아할 때 히타이트의 왕은 철의 왕좌에 앉아 제국을 다스렸다.

프리기아 시대의 유물로는 고르디온(Gordion)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있다. 고르디온은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중서부에 있는 유적으로 고대 프리기아 왕국의 수도였던 앙카라 서방 94km의 사카루야 강변에 위치한다. 왕국이 전성기를 누릴 때 통치자였던 왕 미다스(Midas)의 묘가 이곳에서 발견됐는데, 견고한 목조 묘실 내에서는 나전장식(螺鈿裝飾)을 한 옥좌가 자리잡고 있다. 바로 이 미다스 왕의 복원된 무덤 유적이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 있다.

그밖에 우라르투(Urartu) 시대 유물들도 있는데 이 왕국은 B.C. 9세기~B.C. 6세기경 아르메니아 공화국과 튀르키예 동부를 지배한 고대 왕국으로 야금술(冶金術)이 뛰어났으며, 독자적이고 훌륭한 청동 제품이 많다. 이에 이 모든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은 본래 행정도시로 관광지가 많지 않은 앙카라의 대표 관광지로 1990년대 말 유럽의 최고 박물관 중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나톨리아 박물관
- 다국어 표기 Anadolu Medeniyetleri Müzesi(튀르키예어), Museum of Anatolian Civilizations(영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7/7f/Museum_of_Anatolian_Civilizations025_kopie.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Temizer R., *Museum of Anatolian civilizations*, s.n. 1981.
Temizsoy İ., *Anatolian Civilizations Museum*, Dönmez, 1997.

I E007 | 아나톨리아 민속극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연극 ● 유형 소분류2 민속극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Anatolian traditional folk drama

튀르키예(아나톨리아) 민속극에는 카라괴즈와 하지바트, 오르타 오유누, 즉흥극, 시골 연극, 그림자 인형극, 만담극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전통적인 민속극은 각각 저마다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반면 공통적인 특징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주로 시골과 농촌에서 공연하며 옛날 유목민이나 목동들의 신앙과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전통적인 연극이기에 도시적인 느낌은 전혀 없다. 둘째, 대중의 욕망이 반영된 작품들이다. 셋째, 변함없이 등장하는 상황과 주요 맥락이 존재한다. 따라서 반복되는 대사나 연기 그리고 사건이 정해져 있다. 네 번째, 완전히 같은 대사를 가능하게 하는 대본이 따로 없다. 정해진 대본 대신 그때그때 상황에 맞

춰 광대들이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토대로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주제에 맞게 대사를 지어낸다.

민속극을 포함한 대부분의 투르크 민속전통은 중앙아시아에서 아나톨리아로 전해진 후, 아나톨리아에서 융합되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관련 세시풍속과 결혼과 명절 등 여러가지 의례와 의식으로 표현된다. 특정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일상생활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골 사람들의 자연환경,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처럼 직접적인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점은 전통 시골연극의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특징이다.

아나톨리아 민속극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투르크인들이 이주하기 이전부터 아나톨리아 반도에 이미 존재했던 고대 문명은 튀르키예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미 수 세기 동안 도시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튀르키예 각 지역은 고대 문명에서부터 전승되어 오던 의례와 의식들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 그 정신을 담은 민속극의 명분과 의미 그리고 목적과 다양한 의식들 역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전통과 관행을 엄격히 지키는 튀르키예 지역 주민들은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다시 말하면 프리기아나 히타이트 그리고 리디안과 같은 위대한 아나톨리아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야말로 아나톨리아의 다양한 민속극과 같은 수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기본토대였던 것이다.

아나톨리아인들은 축산과 농업에 기반한 경제였기에 그만큼 자연의 변화를 잘 관찰해야 했다. 사람들은 기후와 자연현상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변화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동시에 출생, 사춘기, 결혼처럼 인생의 통과의례가 주는 희로애락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인류는 생애주기를 인지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미래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했고, 이러한 내용을 연극에도 담았다. 예를 들면, 목동이나 목동 후계자와 관련된 공연에서는 동물들의 건강과 번식이 주요 내용이였다. 농사와 관련된 공연에서는 경제 질서가 반영되었다. 또한 사람들은 농산물을 심고 베면서 수확물의 풍요와 자연재해(홍수, 우박 등)로부터 보호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고대 종교에 담아내기도 했다.

민속극에 참여하고 공연하는 사람들은 전문 연극배우가 아니라 일반 농민이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모방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다. 의상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입고, 분장도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그을린 냄비, 아궁이의

재, 밀가루처럼 색을 낼 수 있는 물질로 간단하게 꾸몄다. 그리고 음악은 시골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북, 피리, 징과 같은 전통 악기로 표현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나톨리아 민속 극예술, 튀르키예 전통 민속극
- 다국어 표기 TRADITIONAL VILLAGE THEATER(영어). KÖY SEYİRLİK OYUNL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오르타 오유누
- 참고문헌(오프라인) And Metin, *Geleneksel Türk Tiyatrosu*, Bilgi Yayınevi, Ankara, 1969.
Boratav Pertev Naili, *100 Soruda Türk Halk Edebiyatı*, 2. Baskı, İstanbul: Gerçek Yayınevi, 1973.
Elçin Şükrü, *Anadolu Köy Ortaoyunları*, 2. Baskı, Türk Kültürünü Araştırma Enstitüsü Yayınları, Ankara, 1977.
Karadağ Nurhan, *Köy Seyirlik Oyunları*, İş Bankası Yayınları, Ankara, 1978.

I E008 | 아나톨리아 아시옥 예술

- 시기 A.D. 1500~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명창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Anadolu Aşıklığı

중세 투르크 이슬람 세계에는 16세기가 되자 아시옥이 등장했다. 이들은 고대 투르크 사회에서 음유시인이며, 명창이고, 샤먼킹의 역할을 했던 오잔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아시옥이 공연 예술가이며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부각되어 예술가의 지위를 확보한 후에도 얼마 동안은 아시옥과 오잔의 예술은 공존했다. 그런데 이들의 경쟁적 공존은 아시옥의 승리로 끝났다. 아시옥은 오잔을 예술 분야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오잔을 전면 대체하게 되었다. 이것은 고대부터 전승해오던 캄(Kam)-샤먼 전통과 알레비(Alevi)나 벡타쉬(Bektashi)와 같은 수피 이슬람 종파 시스템 간의 유기적이며 화학적 융합작업이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파비 왕조와 오스만 제국이 주도하던 중세 투르크-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슬람-수피즘에 기반한 아시옥 예술이 오잔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명사적 대변혁이었으며, 필연적인 역사적 과정이기도 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던 13세기 아나톨리아에는 수피문학인

테케문학이 무르익고 있었고, 오스만 왕조 수립 이후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되었다. 테케문학 중 가장 번성한 것은 벡타쉬 문학이었다. 벡타쉬 문학이 수피 테케문학에서 분리되어 나오자 아시옥 문학이 등장했다.

이렇게 아시옥 예술이 대중들 사이에서 큰 명성을 얻고 패권을 장악하자 오잔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좁혀질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오잔들이 아시옥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예술 세계와 정체성을 전환하는 방법이었고, 나머지 선택지는 아시옥 예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예술계를 떠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아시옥들은 출신 그룹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는 수피 출신 아시옥들이다. 이들은 원래 수피즘 종파와 종단에 소속된 수피였다가 ‘아시옥’으로 발전한 예술가 그룹이다.

두 번째는 오잔 출신 아시옥들이다. 이들은 원래는 오잔이었으나 선교사 수피나 수피 출신 아시옥에게서 영향을 받아 아시옥으로 전환한 예술가들이다.

아시옥이 된 오잔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그들만의 고유한 예술전통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에 연주방법이나 낭송 및 행동 스타일 면에서 수피 진영에 속한 아시옥의 스타일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차이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많은 아시옥들의 창작 스타일로 전승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나톨리아에서는 아시옥들의 전통 현악기인 사즈를 앉아서 연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코카서스와 이란에서는 일어서서 움직이거나, 걸거나 혹은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연주한다. 앉아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은 오잔 스타일에 속한다.

아나톨리아 아시옥들이 이러한 오잔 스타일 연주와 낭송 방식을 보존해오고 있다는 것은 아나톨리아에 오잔 출신 아시옥 그룹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아나톨리아 아시옥의 창법 및 연주 스타일을 보면 오잔들 영향이 더 크고 중요한 비중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나톨리아 아시옥은 코카서스와 이란의 아시옥보다는 노래하고 낭송하는 오잔예술에 더 가깝다. 코카서스와 이란의 아시옥은 수피 수도승, 즉 종교 의식 및 의례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창법 및 연주 스타일 또한 동작이 크고, 춤을 통한 엑스터시가 강조된다. 이러한 부분은 아나톨리아 아시옥 예술에서는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우즈 투르크인들의 오잔-박스(Ozan-Baksı) 전통은 명창과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었고, 아나톨리아 아시옥 예술의 경우 의례나 의식이 강조되는 공연예술적인 측면보다는 시작(詩作)과 스토리텔링이 강조된 문

학으로서 발전했다.

아나톨리아에서 16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아시옥 예술은 아시옥 문학(Aşık Edebiyatı)을 형성했고, 튀르키예 문학을 주도했다. 한때 서민문학으로 받아들여지기 했지만 오스만 제국 시대에 아시옥들은 모든 계층에서 배출되었고, 청중 또한 모든 계층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궁(Saray)밖의 모든 사람들이 향유했던 민중문학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통을 고수하고자 했던 민중들의 바람이 반영되어 전통시 형식은 4행시와 마니가 기본 시 형식으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순수 투르크였던 오스만어로 창작이 이루어졌다. 또한 오스만 제국의 아시옥들은 상당부분 벡타쉬 종단과 관계가 있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나톨루 아시옥, 튀르키예 아식 전통
- 다국어 표기 Anadolu Aşıklığ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오잔, 바흐쉬, 아시옥 문학, 아시옥,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예술
- 참고문헌(오프라인) 오은경, 「아제르바이잔 무형문화유산 아식예술과 지역유파 형성배경 고찰」, 『중동연구』, 2020년, 제 39권 2호, pp.125~152.
오은경, 「터키 명창 아식(Aşık)과 아식문학 형성 고찰」, 『국제언어문학』, 2020, 통권 46호, pp.95~135.
Qasımlı Meherrəm, *Ozan-Aşık Saneti*; Bakı: Uğur Nəşriyyatı, 2011, s.11.
Turan Metin, *Ozanlık Gelenekleri ve Türk Saz Şiiri*, Ankara: Başkent Matbaacılık, 1997, s.13.

I E009 | 아인트카비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nıtkabir

아인트카비르는 독립 전쟁의 지도자이며, 튀르키예 공화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의 영묘이다. 이 영묘는 앙카라에 있는데 건축가 에민 오나트와 아흐멧 오르한 에르다가 디자인했다

이 영묘의 반대편에는 1973년 사망한 이스메트 이뇌뉘(İsmet İnönü)의 묘가 있다. 이 영묘가



아니트카비르(앙카라, 튀르키예)

있는 장소는 라살테페(Rassaltepe)라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곳이 앙카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앙카라 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지였기에 선택되었다. 이 영묘는 1944년 10월의 기공식 이후 9년이 지난 후에야 완공되었다. 아니트카비르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자의 길, 기념광장, 명예의 전당, 그리고 평화공원이다. 이곳은 튀르키예를 찾는 국가 정상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타투르크 영묘, 아니트카비르
- 다국어 표기 the mausoleum of Mustafa Kemal Atatürk(영어)
- 연관 검색어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앙카라, 에민 오나트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anitkabir.tsk.tr/index_eng.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Pevsner, Nikolaus. *A history of building typ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I E010 | 아달레트 아아오울루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Adalet Ağaoğlu

아달레트 아아오울루(Adalet Ağaoğlu)는 1929년 10월 13일 포묵상 아버지의 네 자녀 중 둘째이자 외동딸로 태어났다. 초등교육은 튀르키예 조그만 시골마을 날리한(Nalihan)에서 받았고, 1938년 가족들이 앙카라로 이사해오면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앙카라에서 받은 후 앙카라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에 진학했다.

그녀의 문학과와의 인연은 고교시절 시작되었다. 첫 데뷔작품은 희곡이었는데, 본격적인 작가생활을 시작했던 것은 1946년 <울루스(Ulus)> 신문에 희곡비평이 게재되면서부터이다. 1948년~1950년에는 <카이낙(Kaynak)> 문예지에 시를 연재했고, 1951년부터 1970년까지 국영방송 TRT에서 다양한 일을 했다. 앙카라 라디오에서 라디오 방송극 <사랑의 노래>의 대본을 썼으며, 이후에도 희곡과 연출가 친구 4명과 함께 앙카라 최초 사설 극단 '메이단 극단'을 창립했다. 그리고 뒤이어 <메이단 극단 문예지(Meydan Sahne Dergisi)>를 발간했다. 1953년에는 희곡 공부를 하기 위해 파리로 유학을 떠났고, 같은 해 세빔 우준괴렌과 함께 쓴 희곡작품 「희곡 한편 써봅시다」를 앙카라에서 무대에 올렸다.

그녀는 1954년 공학자 할림 아아오울루와 결혼했고, 소설을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 희곡을 쓰면서 작가생활을 지속했다. 그런데 1970년까지 계속 일했던 국영방송국 TRT의 자율권이 사라지면서 그녀는 결국 본부장직을 사직해야 했다. 그 이후에는 작품 활동에만 몰입했다. 그 결과 1960년대~1970년대에 튀르키예 문단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희곡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소설 「죽으려고 눕다(Ölmeye Yatmak, 1973)」는 크게 화제가 되었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곧이어 발표한 「어느 결혼식 날 밤(Bir Düğün Gecesi, 1979)」과 「아니오(Hayır, 1987)」와 함께 아달레트 아아오울루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그밖에도 소설, 희곡, 단편소설, 에세이 등을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튀르키예 문단의 거장에 오르며 여러 주요 문학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내 얇은 사고의 호수(Fikrimin İnce Gülü)』는 출간 직후 금서로 지정되었으며, 군사혁명을 비난하고 폄하했다는 죄목으로 1981년 기소되어 2년간 시달리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결국 그 작품들은 그녀를 여러 번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도 만들었지만, 한편으론 소송으로 인한 심적 고통에 처하게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단편소설, 평론, 회고록과 같은 장르를 집필했던 그녀는 1983년부터 이스탄불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계속했고, 1991년 <너무 멀지만 지나치게 가까운>이라는 작품으로 다시 희곡작가로 돌아왔다. 2003년에는 작가 데뷔 5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열리기도 했다.



아랄레트 아아오을루

그녀는 작품활동 외에도 1986년 인권협회를 창립했다. 그녀는 이 단체를 20여년 동안 이끌며 오랜 기간 활동했지만 이 단체가 지나치게 쿠르드 노동당 정치노선을 따른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또한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대한 튀르키예 정부의 공식 사과 요구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작가의 모든 작품은 그녀의 강하고 지적인 면모와 명확한 정치적인 견해가 느껴진다. 그녀는 감히 사람들이 언급을 꺼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지적하고 비판했으며, 튀르키예의 사회문화적인 측면 매우 중요한 두 가지에 주목했다. 첫 번째는 튀르키예의 공화국 프로젝트의 허점과 단점이다. 두 번째는 튀르키예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폭력적인 태도 그리고 이중적인 잣대 적용이다. 그녀가 여성작가로서 창조해낸 여성 주인공 인물들은 튀르키예 사회에 페미니즘에 대한 욕망과 갈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단순히 여성신장이라는 구호에 머물지 않고, 여성해방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시도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반정부, 반정권적인 시위 현장과 민주화 투쟁에서 주역으로 활동했다. 1988년에는 1970년대 이후로 테러와 반정부 세력으로 몰려 수감된 2만 5천여 명의 예술가나

좌파, 민주화 세력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스탄불 시위를 주도했다. 또한 쿠르드족의 인권운동에도 가담했다. 그로 인해 작가 역시 정부로부터 반정부세력으로 분리되어 신변위협과 협박에 시달렸으나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정치범들의 사면을 위한 서명운동에 앞장섰다. 그리고 2000년 12월 인권주간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쿠르드 제조자들의 석방을 위한 항의 집회에도 가담했다.

그녀는 고문, 사형,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연설을 했으며,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취지로 정부의 정의부 장관과 독대를 시도하기도 했다. 2001년 8월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위를 주도하면서 언론, 출판, 지식인의 자주적인 삶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결국 8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말았다.

이런 아달레트 아아오울루의 투쟁적이고 열린 사고와 진보 지식인 작가로서의 삶은 서구 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1998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는 그녀의 이러한 작가정신을 치하하면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모더니즘과 사회변화’라는 주제로 아달레트 아아오울루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녀는 튀르키예 작가협회 명예회원이자 튀르키예 작가노조 창립 멤버이다.

그녀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20년 7월 14일 사망했고, 제베지 아스리(Cebeci Asri) 묘지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달레트 아아오울루, 아달레트 아아오울루, 아달레트 아가오굴루, 아달레트 아가오굴루
- 다국어 표기 Adalet Ağaoğlu(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죽으려고 늑다(Ölmeye Yatmak)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2/Adalet_Agaoglu_.jpg/1024px-Adalet_Agaoglu_.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Moran Berna, *Türk Romanına Bir Bakış*, İletişim, İstanbul, 1991.
Akuz Kenan, *Türk Edebiyatının Ana Cizgileri*, İnkilap Kitapevi, İstanbul, 1990.

I E011 | 아라버타 영묘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rab Ata Mausoleum

아라버타 영묘는 987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에 있는 팀(Tim) 마을에 건설되었다. 건설 시기는 사만조의 통치자 누흐 만수르(Nuh Mansur, 재위: 976년~997년)의 시대에 건설되었다는 학설과 카라한 조 시기에 건설되었다는 학설 등 여러 주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만조를 위한 작품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영묘는 5.60m x 5.60m 크기의 정사각형에 네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싱글 돔으로 덮여 있다. 클로버 형태의 스킨치와 거대한 돔을 뒤로 숨긴 대문 또는 피슈타크(Pishtaq)가 있는데 후대의 작품들과 달리 피슈타크가 돔을 완전히 가리고 있다. 이 피슈타크까지 포함하는 넓이는 8.0m x 8.70m이다.

대문 상단에는 세 개의 첨두아치(pointed arch)형 벽감이 늘어서 있으며 문 주변 역시 기하학무늬로 장식된 첨두아치형 벽감이 있다. 대문 주변을 장식한 글로 장식된 띠가 대부분 훼손되어 있어 영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양식 자체가 후대 영묘 건설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영묘 내부는 초기 형태의 무카르나스 장식을 사용하여 스킨치와 돔을 이어준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초기 형태의 무카르나스로서 마치 클로버 형태처럼 보이는데 이 역시 셀주크 건축과 티무르 건축 양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영묘는 정통 투르크 계통의 건축물은 아니다. 하지만 후대 중앙아시아에 건설된 영묘 건축에 많은 영향을 끼친 만큼 투르크 미술사를 다룰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임시 목록에 등재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랍 아타 영묘
- 다국어 표기 Arabota maqbarasi(우즈베크어), Arap Ata Türbe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 멀티미디어 링크 아라버타 영묘_전체

https://architekturkompass.de/images/upload/3/3245_normal.jpg

아라버타 영묘_대문

<https://media-cdn.tripadvisor.com/media/photo-s/08/01/32/d0/caption.jpg>

아라버타 영묘_내부

<https://media-cdn.tripadvisor.com/media/photo-s/08/01/37/f1/caption.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hc.unesco.org/en/tentativelists/5290/>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Knobloch, Edgar. *Monuments of Central Asia*, I.B. Tauris Publishers, 2001.

I E012 | 아라타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Aratta

아라타 국은 최신 연구에 의하면 B.C. 3천년 전 아제르바이잔의 투르크족이 세운 국가이다. 위치는 우르미아 호수(Urmiya gölü)의 남쪽과 남동쪽에 세워졌으며, 경계로는 디알라 강(Diyala çayı) 상류와 잔잔-개즈빈(Zəncan-Qəzvin) 지역의 남쪽이다.

아라타 국은 오래 전부터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와 긴밀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수메르 서사시」에는 보석(청금석)을 아라타에서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수메르인과 우루크, 아라타 국 사이는 때로는 적대적이고 때로는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 셈족이 우루크를 포위했을 때 우루크 왕인 엔메르카르(EnMerkar)가 아라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하면, 우루크에서 사원을 짓고 복원할 때 장식용 돌을 아라타에서 구매하기도 했다.

아라타는 ‘순수한 전통의 나라’라고도 불렸는데 엔시, 성직자, 사절들이 다스렸으며, 서기들은 궁전의 중요 업무를 담당했다. 서기들은 수메르의 왕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번역하고, 회신하는 일을 도맡아 했다. 그리고 아라타에서 수메르 도시 국가들로 금, 은, 납, 구리, 보석 및 장식

용 돌이 수출되는가 하면 곡물 및 기타 제품을 수입한 시기가 있었다.

아라타에서는 다신교를 믿었으며, 수메르의 여신 인안나(Inanna)와 라마 여신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다. 그들이 라마(Lama) 여신을 숭배했던 이유는 라마 여신이 아라타를 지키고 보호해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라타

● 다국어 표기 Aratta dövləti(아제르바이잔어), Aratta(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Yeddi cildə. Birinci cild (Ən qədimdən – b.e. 3-cü əsri). Bakı. “Elm”. 2007. 520 səh.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Firidun, Ağasioğlu. *Qədim Türk Eli (Saqa-Qəmər Boyları)*. Bakı, “Çıraq”, 2006, 128 s.

Firudin, Ağasioğlu. *Azərbaycan Türklərinin İslamaqədərkə Tarixi*. (Doqquz Bitik); 3-cü Bitik: Azərbaycanda Qurulan Qədim Dövlətlər. Bakı, 2014, «Ağrıdağ» nəşriyatı, 310 s.

İsmayıl, Mahmud. *Azərbaycan Xalqının Yaranması*. – Bakı, 1995.

Ömərov, Vahid. *Azərbaycan Dövlətçiliyi Tarixində Qədim Dövlətlər*: Aratta dövləti, “Səs” qəzeti, 2012-ci il, 10 iyul.

Qeybullayev, Qiyasəddin. *Azərbaycan Türklərini Təşəkkül Tarixindən*, Bakı, 1994.

Solmaz, Qaşqay. *Qədim Azərbaycan Tarixi mizi Yazılı Qaynaqlarda*, bakı 2006.

I E013 | 아란출라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생물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Aranchula / Arançula

말은 유목생활을 했던 투르크인들의 영웅신화 혹은 서사시에서 항상 등장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예를 들어 샤머니즘을 믿는 하카스인의 민간 신화에는 ‘아란출라’라는 전설적인 날개 달린 말이 등장한다. 이 날개 달린 말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에 버금가는 지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곤경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며 동시에 인간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조언해 주는 동반자와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서사시에 등장하는 아란출라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인간 친구를 구하기 위하여 인간의 목소리로 말을 하며, 다른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만일 인간(기수)이 부상을 입게 되면 그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는데 이때 인간이 죽을 경우 그를 위해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기도 한다. 기수와 말의 이러한 영적 유대 관계는 실제 투르크 전사와 말을 함께 문었던 투르크인의 풍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말 매장은 고대 투르크인으로부터 내려온 관습으로 투르크인들은 타종교로 개종을 한 후에도 이런 샤머니즘적 매장 방식을 계속 유지했다. 투르크인들의 무덤에서 매장된 말의 머리는 망자의 땅인 북쪽 혹은 서쪽의 저승을 향하는데 이 역시 그들이 가진 고유한 샤머니즘적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란출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мзараков, П. Б., “Роль лошади в жизни кочевников Саяно-Алтая по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м и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данным.” Наследие хакасского ученого, тюрколога, доктора сравнительного языкознания, востоковеда Николая Федоровича Катанова: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ённой 15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учёного. 16-19 мая 2012, г. Т. I. Абакан: Хакасское кн. Изд.-во. С:74~75.

I E014 | 아랍인들을 위한 투르크어 교육 문법 사전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사전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El-Kavânînü’l-Küllîyye Li-Zabti’l-Lügati’t-Türkiyye

『아랍인들을 위한 투르크어 교육 문법 사전』은 킵차크 투르크인들의 문화를 추론할 수 있는 작품으로 꼽힌다. 이 사전의 저자와 집필 연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15세기 초 이집트에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는 자신이 투르크인이 아님을 밝히며 투르크 국가를 방문해본 적도 없지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 작품을 ‘감히’ 쓴다고 밝히고 있다.

처음엔 아랍어로 쓰였으며 이후 아랍어에서 투르크어로 다시 번역되었기 때문에 작품에 사

용된 어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학문적 가치가 매우 크다. 또한 당대에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 보았던 투르크인과 관련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은 총 169페이지로 만들어졌다. 현재 단 한권의 판본만이 전해지며 이스탄불 설레마니에 위치한 도서관의 '셰히트 알리 파샤' 섹션에 2659번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푸아트 쿠피룰뤼'의 서문과 함께 '르파트'(Kilisli Muallim Rifat)에 의해 1928년 출판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엘 카와니닐 켈리에 리 자브틸 루가티트 튀르키예

● 다국어 표기 El-Kavânînü'l-Küllîyye Li-Zabti'l-Lügati't-Türkiyye(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Er, O., "El-Kavânînü'l-Küllîyye Li-Zabti'l-Lügati't-Türkiyye'De Yer Alan Kültürel

Ögelerin Değerlendirilmesi." *Uluslararası Türkçe Edebiyat Kültür Eğitim (TEKE) Dergisi*, 4 (1), 294~304, 2015.

Biçer, N., "Kıpçak Dönemi Eserlerinin Yabancılara Türkçe Öğretimi Açısından İncelenmesi." Yayınlanmamış Yüksek Lisans Tezi, Erzurum: Atatürk Üniversitesi Eğitim Bilimleri Enstitüsü, 2011.

Toparlı, R., Çölgenli, M. S. ve Yanık, N. H., *El-Kavânînü'l-Küllîyye li-Zabti'l- Lügati't-Türkiyye*. Ankara: Türk Dil Kurumu Yayınları, 1999.

I E015 | 아랍 칼리프국(아제르바이잔)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eli Şamil) ● 라틴 문자 Azərbaycan və İslam xilafəti

아랍 칼리프국은 아라비아에서 기원하고, 창시자도 아랍인이지만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국가 정책을 펼쳤으며, 100개 이상의 국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제국 형성과 운영에 참여하며 제국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에 투르크를 비롯한 다른 국가와 민족이 아랍인 못지않은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에 제국의 이름을 이슬람 제국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먼 옛날, 예언자 무함마드는 새로 국가를 건립했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정규군과 행정 체계를 갖춘 다음 다른 제국들로 진군해 대부분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

은 우선 사절을 보내 이슬람을 소개하고 이슬람을 믿을 것을 요청했으며 그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전쟁을 벌여왔다. 당시 요청을 받은 나라 중 사산 조가 이슬람을 거부하면서 곤란에 빠졌던 대표적인 나라였다. 결국 요청 거부는 전쟁으로 이어져 632년부터 시작된 아랍의 침공에 알바니아의 자반시르(Cavansir, 재위: 642년~681년)가 사산 조를 원조하기 위해 3천 명의 군대와 함께 왔음에도 사산 조 군대는 대패하고 자반시르 역시 알바니아로 돌아갔다.

아랍 장군 후자이파흐 이븐 알 야만(Hudhayfah ibn al-Yaman) 역시 639년 아제르바이잔으로 진군했다. 이후로도 칼리프 군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사산 조의 매르즈반 이스펜디아르 이븐 펠루흐자드(Mərzban İsfəndiyar İbn Fərruxzad)는 아르다빌 부근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힌다. 결국 칼리프 군의 부카이르 이븐 압달라흐(Bukayr ibn Abdallah)는 포로로 잡았던 이스펜디아르와 644년 평화 조약에 서명했고 아제르바이잔은 칼리프 국에 합류하게 된다. 협정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은 세금으로 연간 80만 디르함을 지불하고 칼리프 사령관이 ‘아제르바이잔의 평야, 산, 오지 및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재산, 종교 공동체 및 법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칼리프는 여성, 어린이, 병자, 빈민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징수된 세금은 사산 조 시절보다 훨씬 적었다.

칼리프국의 경계는 이후 대르밴트(Dərbənd)까지 확장되었지만 칼리프 우마르(Umar, 586년~644년)는 만족하지 않았다. 우마르는 부카이르 이븐 압달라흐에게 군대를 더 파견하여, 대르밴트(Dərbənd)를 지나 하자르 카간국까지 이슬람을 전파하고, 하자르 카간국과 협정 체결까지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653년에 대르밴트(Dərbənd) 북쪽에 위치한 벨랜제르(Bələncər) 인근에서 아랍인들은 하자르 칸국과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에 반해 남쪽으로 진격하는 칼리프 군대는 비잔틴과 아르메니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644년 현재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에 도착했다. 그리고 트빌리시와 그 주변을 포함하여 아란(Arran, 현재 아제르바이잔)까지 점령했다.

우마이야 왕조의 집권은 제국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지만, 진군은 멈추지 않았다. 661년 4대 칼리프 알리(Alī ibn Abī ṭalib, 601년~661년)가 암살당하고 칼리프의 정치 혁명까지 일어났다. 730년에는 하자르인들이 30만 명 규모의 군대로 아랍인들을 아르다빌에서 몰아내고, 사발란 산(Savalan dağı) 인근에서 승리했다. 그들은 디야르바크르(Diyarbakır)와 모술(Mosul)로 도착한 하자르인들의 공격을 완 호수(Van gölü) 부근에 있는 할라트(Hilat, 지금의 아흘라트

(Ahlat))에서 간신히 방어하는 데 성공한다. 그렇게 하자르인들을 아제르바이잔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협정을 체결한 하자르인 중 일부는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칼리프를 돕는다는 조건으로 교회는 세금이 면제되었고 국가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종교적으로 이슬람 칼리프 국가에 편입되기 전까지,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불교를 비롯하여 고대 신앙이 존재했다. 그중에서도 이슬람교는 아제르바이잔의 정치적 안정과 국가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공헌한 바가 있었기에 아제르바이잔 남부, 무간(Muğan), 밀(Mil), 카스피해 연안, 퀴르 강(Kür çayı)과 아라즈 강(Araz çayı) 유역, 특히 도시에 비교적 빠르게 전파되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산간 지역과 산기슭 지역에는 많이 퍼지지 않았다. 투르크인들의 대부분이 천신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랍인들은 정복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칼리프가 임명한 아미르가 통치하는 토후국 제도, 즉 아미르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토후국을 더 작은 행정 단위인 마할과 구역으로 나누었다. 각 마할에는 12개의 구역이 있고 각 구역은 다시 12개의 마을로 나누었다. 당시 아제르바이잔의 북쪽 국경은 대르밴트(Dərbənd), 남쪽 국경은 해매단(Həmədan)까지였는데 바시르, 쿠파, 시리아와 아라비아에서 1만 호의 아랍인이 아제르바이잔의 아랍화(또는 이슬람화)를 위하여 이주했다.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특권과 토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지지 속에 이슬람이 전래된 후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칼리프의 지배를 받는 다른 국가와 무역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타국의 상인들 역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물품, 원활한 유통으로 아제르바이잔과의 무역 관계에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행정 업무가 아랍어로 진행되었으며, 아르다빌, 마라가(Marağa), 타브리즈(Təbriz), 샤마흐(Şamaxı)와 같은 대도시에는 교육 기관, 도서관, 모스크 및 웅장한 기념물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7세기~9세기에 이르러서는 문학, 법학, 자연과학, 수학, 천문학, 과학, 철학, 역사, 건축, 도시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잠시였고, 8세기 우마이야 조가 압바스 조로 대체되는 시기가 되면서 사회는 다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725년에 인구와 토지와 함께 소(牛)의 수가 조사되어 등록되었고, 이전에 사라진 세금이 다시 등장했다. 거둬들이려는 세금의 총액이 증가하자 이제 막 15세 남짓의 소년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하면 토지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하기도 했고, 과실수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갑자기 늘어난 세금을 내지 못해 파산하는

영주까지 생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부담이 증가했다. 결국 이런 우마이야 조의 정책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그 봉기의 중심에 이슬람 분파 중 하나인 하리지 파(xaricilər, 영어 표기: Kharijites, 아랍어 표기: al-Khawārij)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칼리프를 선거로 선출할 것을 요구하며 748년부터 752년까지 무려 4년 동안 아제르바이잔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748년 베일래간(Beyləqan)에서 시작된 봉기는 배르대(Bərdə), 아르다빌을 비롯하여 다른 지방과 도시들로 퍼졌다. 이 봉기의 지도자는 뤼사피르(Müsafir)였다. 시위대는 아르다빌과 배르대에서 아랍 아미르를 살해했으며, 압바스 조는 이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그러나 8세기 후반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칼리프에 대한 반발이 다시 거세지면서, 베일래간과 배르대를 중심으로 15회 이상 봉기가 일어났다.

아제르바이잔에서 휘르래미(Xürrəmi, 영어 표기: Khurramites, 고대 팔라비어로 영원한 불, 태양이라는 의미)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휘르래미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랍 칼리프의 일부였던 시기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시작되어 길란(Gilan), 마잔다란(Mazandaran), 루리스탄(Luristan), 이란으로 확산된 아랍에 대항하는 민중운동을 의미한다. 그들은 지배 계급의 의존에서 벗어나 토지와 생산 수단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사회적 평등, 모든 계층의 청년들의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와 재화의 균등 분배를 요구했다. 휘르래미 운동은 자비단(Cavidan), 애부 임란(Əbu İmran, 8세기~816년) 및 바백(Babək)이 이끌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슬람 할리페, 이슬람 칼리파와 아제르바이잔

● 다국어 표기 Azərbaycan və İslam xilafəti (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바백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Yeddi Cildə. 2-Ci Cild.* Bakı. "Elm". 2007. 608 Səh.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Bünyadov, Ziya. *Azərbaycan 7-9-Cü Əsirlərdə*, Bakı, 2008.

Nuriyeva, İradə. *Azərbaycan Tarixi (Ən Qədim Zamanlardan-XXI Əsrin Əvvəllərinədək). Ali Məktəblər Üçün Dərslik.* - Bakı: Mütərcim, 2015, 336 Səh.

Şərifli, M.X. *9-Cü Yüzlün Yarı - 11-Ci Yüzlərdə Azərbaycan Feodal Dövlətləri.* Bakı, 2013.

Vəlixanlı, Nailə. *Ərəb Xilafəti və Azərbaycan. Azərneşr*, Bakı, 1993.

I E016 | 아레이파부라커 무덤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Alepabulake

유적의 위치는 신강성 알타이 지구(阿勒泰地區) 부얼진현(布爾津縣)의 산 사이의 초원지대로 근방 1.2km 내에 14기의 다양한 양식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주로 돌을 사용한 무덤으로 상부에 돌을 덮는 적석(積石)무덤은 남쪽, 무덤 상부의 봉분 주변에 돌을 둘러싼 무덤은 주로 북쪽에 위치한다. 석판을 방형으로 쌓아 올려 장방형으로 둘러돌이 되게 만든 다음 그 둘러돌의 중심에 석판 1장을 남겨 두고 서쪽과 남쪽 면에 걸쳐서 석판이 설치되었다.

이들 무덤군에는 석인이 세워져 있다. 무덤의 둘러돌 사면이나 동쪽 면에 세워 두었고 어떤 것은 무덤에서 약 70cm 떨어진 곳에서 서쪽 면으로 기울어진 곳에 세워졌다. 화강암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과 팔을 표현했고, 허리띠 드리개 장식 등이 조각되어 있다. 상부에는 얼굴을 조각해서 전체 형태가 사다리꼴형이며 이마는 넓고 턱은 둥글고, 눈썹은 가늘고 길게 표현되었다. 코는 좁고, 눈은 둥글고 입은 음각해서 일자형으로 나타냈다. 팔은 돌의 측면에 새겨졌는데, 오른팔은 구부러져 흐릿하게 남아 있고 용기를 잡고, 손에는 용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하게 알아보는 것은 어렵다. 또한 붉은 칠을 한 흔적도 남아 있다. 석관의 남동쪽에 석인이 남북 방향으로 2개가 세워진 경우도 발견된다. 두 석인은 마주 보고 세워져 있었는데 동체에는 조각의 흔적이 없었고 얼굴이 조각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석인의 형태로 추정하건데 BC 4~2세기로 흉노 시기의 유적으로 유추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레이파부커
- 다국어 표기 阿勒帕布拉克墓群(중국어)
- 연관 검색어 阿勒泰地區, 布爾津縣,
- 참고문헌(오프라인)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局 編, 『新疆維吾爾自治區第三次全國文物普查成果集成-新疆草原石人與鹿石』, 北京: 科學出版社, 2011.

I E017 | 아루차이덩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Ar Tsaudam

아루차이덩 유적은 오르도스 고원의 내몽골 자치구 항진(杭錦)시에 위치하고 있다. 흉노 왕으로 추정되는 무덤 2기가 이미 파손된 채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독수리가 장식된 금관을 비롯해 200여 점의 금과 은제 유물이 출토되었다.

금관은 관대와 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다리를 구부리고 앉은 양과 말이 장식되어 있는데, 직경이 16cm이고, 무게가 1,022g이다. 관 하단의 직경 크기로 보아 머리 상부에 올려놓았던 것으로 보이며 관식은 네 마리의 늑대가 네 마리 양을 공격하는 장면이 부조기법으로 그려져 있다. 그 위에는 반구형의 금장식이 있는데, 날개를 펴고 아래의 동물을 움켜쥐고 있는 듯한 독수리 형태로 장식되었다.

독수리의 머리는 녹송석(터키석)이고, 몸통은 금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 독수리가 이 무덤이 전국시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데 결정적 단서 역할을 한다. 평양의 석암리 9호분에서 발견된 청동향로에도 ‘아루 차이덩 금관’의 독수리 장식과 비슷한 모습의 새가 장식되어 있어서 관련성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금관은 유일한 호(胡)관인데 이는 전국시대 조나라 무령왕이 호복기사(胡服器射)를 한 후에 중원으로 전래되어 독수리가 철쭉미, 적치장미로 바뀌었다. 이런 관식은 전사의 관으로 특히 이런 독수리 모양의 금관식은 흉노왕이나 추장의 장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로채등

● 다국어 표기 阿魯柴登(중국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田廣金·郭素新, 「內蒙古阿魯柴登發現的匈奴遺物」, 『考古』, 1980년 4期.

程曉英·賈璽增, 「中國古代冠類首服的造型分類與文化內涵」, 『紡織學報』, 紡織學報出版部, 2008년 10期.

I E018 | 아르다빌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Ardabil

아르다빌(Ardabil)은 이란 북서부에 위치한 아르다빌 주의 수도이다. 동북쪽으로 카스피해와 약 40마일(약 64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가 약 1,500m인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서쪽에 위치한 사발란 산(Sabalán)은 높이가 4,810m에 달하여 근방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남아 있다. 이란의 북서부에 있는데다가 지대도 높아 이란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 기후 역시 건조하고 토질도 백악질(석회암)이어서 주변에 아라스강의 지류인 강(발릭수, Baliq-su)이 흐르고 있음에도 농경을 위해서는 별도의 관개 시설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이 사발란 산에는 많은 온천과 낮은 키의 꽃밭이 형성되어 있어 관광지로도 개발되어 있다.

이슬람 이전의 아르다빌에 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일부 학자들은 화폐학적 증거를 이용하여, 사산 조 및 우마이야 조 초기의 화폐 일부에서 발견되는 'ATRA'라는 주소 이름이 아르다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명확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도시명의 어원도 명확하지 않은데, 미노르스키(Minorsky)는 '성스러운 법의 버드나무', 에버렛허트(John Everett-Heath)는 아베스타의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Artavil'에서 유래했다고 보았다. 도시의 기원에 관해서는 이슬람화 이후의 학자들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페르도시(Firdawsi)나 야쿠티(Yakut) 등은 이 도시가 사산 조의 왕인 페로즈(Peroz, r. 457년~484년)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보았다. 그밖의 의견으로는 저자 미상의 지리서 『Hudud al-Alam』에는 'Ardawil'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인접지역인 아르메니아의 역사가들은 Artavet이라 불렀음을 기원으로 본다.

이 도시는 칼리프 우마르 시대에 이슬람 세력과의 계약을 통해 이슬람권에 편입되었으며 총독이 주재하고 마스지드(Masjid : 예배당)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조로아스터교도들은 여전히 근교의 타흐타 술레이만(Takht-i Sulaymān)에 위치한 조로아스터교 성전에서 신앙을 이어 나갔다.

우마이야 조 시기에는 마라가(Marāgha)와 함께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기능을 했다. 다만 위



아르다빌(이란)

치가 다소 북쪽이고 캅카스 산맥 너머에 위치한 남(南)러시아 초원의 유목 세력 및 아르메니아, 조지아인들의 거주지와 가까웠기 때문에 우마이야 조 후기에 하자르 투르크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또한 압바스 조가 들어선 초기에는 아르다빌 북서쪽에 위치한 바드(Badd)를 근거지로 한 신 마즈다키즘 계의 종교자유운동, 호람딘(Korram-din)을 이끄는 바다크(Badak)의 반란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이를 진압하기 위한 칼리프 군대의 거점이 되었다.

10세기 초반, 압바스 칼리프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곳에 아제르바이잔의 자치 세력인 사지드(Sajid)가 자리 잡게 되었는데, 아르다빌 역시 사지드 세력의 수도가 되었기에 이때 사지드 인들이 주조한 동전이 이슬람화 이후 아르다빌에서 주조된 첫 번째 현존 동전이 되었다. 그 후 사지드 조는 929년 무렵까지 이곳에 머물렀고 그 이후부터 10세기 중반까지 다일람 계의 모사파르 조(Mosaferid)가 자리를 잡았고 쿠르드인과 스칸디나비아계 러시아인, 조지아인들이 간간히 침공한 적이 있다.

아르다빌이 쇠퇴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은 13세기 초반에 몽골의 침입이 일어나면서부터였다. 1220년 몽골이 이곳을 침공하기 직전까지도 상당한 번영을 누렸으나, 몽골이 침공하고 일



셰이흐 사피의 영묘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칸국이 이란에 건설된 후에는 아제르바이잔의 중심지가 타브리즈와 술타니야로 옮겨갔기 때문에 수도의 기능을 잃기 시작했다. 대신 향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사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는데, 바로 1252년 사파비 조의 조상인 셰이흐 ‘사피 앳 딘 이스학’(Shaykh Ṣafi al-Dīn Īshāq)이 탄생하면서 아르다빌에서 수피 종단인 사파비 종단(Safavid Order)을 세웠던 것이다. 이후 1499년 ‘사피 앳 딘 이스학’의 후예이자 사파비 조의 시조인 샤 이스마일(Shah Ismail) 1세는 길란에서 아르다빌로 돌아와 아크코윤루(백양조)와의 결전을 준비하는 한편 사파비 조(Safavid dynasty)를 건설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타브리즈로 수도를 이전하기는 했으나 이곳은 여전히 국가의 발원지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고, 여러 사파비 조 군주들은 이곳에 건설된 셰이흐 사피의 영묘 및 마스지드 등의 복합단지(Complex)에 많은 선물을 바쳤다.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수입된 고가의 도자기나 비단 등이 모여있는 건물을 키타이-하나라 부르기도 한다.

사파비 조가 쇠퇴할 무렵 오스만도 잠시 이곳을 차지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1730년 아프샤르(Afshār) 조의 나디르 샤(Nādir Shah)가 재탈환했고 나디르 샤가 수니파였으므로 시야계 수피 종단이었던 아르다빌의 성묘에 배당되어 있던 와크프를 수거해갔다. 그리하여 이곳은 19세기

초, 카자르 조의 초기까지 파괴된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카자르 조가 들어선 후 아제르바이잔의 총독이 된 왕자 압바스 미르자가 이 도시에 자신의 수도를 두었고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는 성벽을 건설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카자르 조의 유명 군주인 나시르 앳 딘 샤(Nāṣir al-Dīn Shāh, r. 1848년~1896년)가 이곳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많은 유적들은 테헤란으로 이전하여 보관했다. 특히 1827년 이후로 셰이흐 사피 성묘에 있던 도서관의 많은 장서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전되었다. 하지만 1917년 제정 러시아의 붕괴 직전까지도 카자르 조를 지속해서 공격했으므로 파괴가 연이어 발생했다.

현재 아르다빌은 이란의 31개 주(Ustān) 중에 하나인 아르다빌 주의 수도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르다빌, 에르데빌
- 다국어 표기 Erdebil(튀르키예어), اردبیل(페르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4/49/Sheikh_Safi_Al_Din_Tomb.jpg/1024px-Sheikh_Safi_Al_Din_Tomb.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ardabil>
- 참고문헌(오프라인) Frye, R. N.. “Ardabil,” *Encyclopaedia of Islam* 1, Leiden: Brill, 1986, pp.625~626.

I E019 | 아르메니아 킵차크 투르크어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르메니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Armenian Kipchak Turkish

아르메니아 킵차크 투르크어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비아, 크림 타타르, 튀르키예에서 약 150여년간 아르메니아인들에 의해 사용된 킵차크계 투르크어이지만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사어(死語)이다.

아르메니아 보그라티스 국가가 11세기 중반 무너질 당시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크림반도에 이주하여 정착했다. 이후 그곳에 정착한 아르메니아인들은 킵차크 투르크어를 그들의 언어로

채택하여 공식 서신과 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 16세기~17세기 그레고리 기독교 종파에 속한 아르메니아인들이 서부 우크라이나에서 아르메니아 문자를 사용하여 킵차크 투르크어를 표기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시 킵차크 투르크어로 남긴 연대기(역사서), 종교 및 법률 문서들은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으며 투르크어사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559년~1664년 사이에 이 언어로 쓰인 문학작품들은 12세기 ‘쿠만의 서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음성학 및 문법학적 측면에서 카라임, 쿠만, 우룸 및 크림 타타르어와 큰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 킵차크 투르크어의 시대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

- 13세기 말~15세기: 구어로서의 킵차크 투르크어 정착기
- 16세기~17세기 전반: 문어의 출현과 문어의 전성기
- 18세기 이후: 16세기~17세기의 확산 이후 쇠퇴기

특히 1521년~1669년 사이에 아르메니아 알파벳으로 텍스트를 표기하기 시작해 문어(文語)로서 확실한 자리를 다지기 시작했으며, 그 당시 아르메니아인들이 남긴 112편의 텍스트들은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 아랍어, 페르시아어, 아르메니아어 및 슬라브어(폴란드, 우크라이나어 및 러시아어)등의 외래어 차용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아르메니아 킵차크 투르크어로 쓰인 작품들은 현재 키예프(텍스트 28개, 궁정 도서관), 상트페테르부르크(사전 1권, 기타 문서 26개), 예레반(9개의 사본), 비엔나(사전 3개, 기타 텍스트 13부), 베니스(필사본 10부), 크라쿠프, 바르샤바 및 브로츠라프(필사본 11개), 파리(필사본 4개), 라이덴(기도서 1권) 등에 보관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르메니아 킵차크 튀르크어
- 다국어 표기 Ermeni Kıpçakçası, Ermeni harfli Kıpçak Türkçesi(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rıkan, İ. “Ermeni Harfli Kıpçak Türkçesi”, *Modern Türük Araştırmaları Dergisi*, 4, 2006.
Chirli, N. “Ermeni Kıpçakçasının Söz Varlığındaki Slavca Kelimeler Üzerine”, *Çukurova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Dergisi*, 14(1), 137~151, 2005.
Çengel, H. K.. “Ermeni Harfli Kıpçak Türkçesi”, *Journal of Dil Arastırmaları*, (10), 2012.

I E020 | 아르민 밤베리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헝가리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Ármínus Vámbéry



아르민 밤베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아르민 밤베리(Ármínus Vámbéry)는 부다페스트의 북서쪽 두나체르다헬리 부근 독일 밤베르크에서 헝가리로 이주한 저소득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어릴 적부터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며 경제활동을 했다. 특히 언어에 엄청난 소질을 보였는데, 20세가 되기 전에 이미 16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20세 무렵, 그는 새롭게 배운 튀르키예어를 계기로 헝가리어의 기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타타르어가 헝가리어와 그 기원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요제프 부덴츠’와 같은 학자들의 헝가리어가 핀-우고르 언어에 속한다는 주장에 반하는 것이었기에 결국 논문을 포기한다. 하지만 이후 그 견해가 그를 범(汎)투르크주의의 아버지로 인정

받게 하는 계기가 된다.

아르민 밤베리는 비엔나에서 잠시 만난 폰 해머 푸르그스탈(J. F. von Hammer-Purgstall)의 조언으로 1857년 이스탄불로 넘어간 후 헝가리 태생의 ‘이스마일 파샤’를 통해 ‘휘세인 다임 파샤’의 저택에 머물며 그의 자녀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파샤가 그에게 부여한 ‘레쉬드 에펜디’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리고 1858년 이스탄불에서 처음으로 독일어-튀르키예어 사전을 출판했다. 그리고 1859년부터 외무장관 중 한명인 ‘사득 리파트 파샤’(Sâdı́k Rifat Pasha)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누루오스마니에 마드라사에서 이슬람 신앙과 아랍어, 페르시아어를 배웠다. 또한 일정기간 외교부에서 번역가로 근무한 적도 있었다.

그가 이스탄불에서 머물던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꾸준히 중앙아시아 투르크 언어를 연

구해 나갔으며 그 결과 『아부슈카(Abuşka Lugati)사전』번역을 완성했다. 그리고 1861년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된 후 1863년 3월부터 아카데미의 지원을 받아 중앙아시아 탐험에 나서게 된다. 테헤란을 지나는 동안 그는 이란의 샤(Shah)로부터 그의 연구 성과 및 업적을 인정받아 메달을 받기도 했으며, 이후 런던으로 돌아가 왕립지리학회에서 여행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1865년 부다페스트 대학교 강사로 부임한 밤베리는 1970년 동 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투르크학 분야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후 35년간 교수로서 근무하다 1905년 은퇴했다. 그의 제자로는 율리우스 게르마누스(Julius Germanus), 이그나즈 골드지허(Ignaz Goldziher), 이그낙 쿠노스(Ignác Kúnos), 베느라 몽카시(Bernat Munkacsi)가 있다. 1913년 9월 15일 사망한 밤베리는 총 38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투르크학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학자로 손꼽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르미니우스 밤베리
- 다국어 표기 Árminius Vámbéry(헝가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0qWT>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vambery-arminius>
- 참고문헌(오프라인) Tschudi, R., “Hermann Vámbéry”, *Isl.*, V 1914, s.107~108.
Vámbéry A., *Arminius Vámbéry: His Life and Adventures*, London 1883, I-II.

| E021 | 아르바인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라크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명절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Arba'in

아르바인(Arba'in)은 아랍어로 숫자 40을 뜻한다. 이슬람 이전 아랍인과 이슬람 이후 무슬림인들은 모두 40을 성숙의 상징으로 보았다. 이슬람력 61년 무하르람(Muharram)월 10일(서



아르바인 의례 때의 카르발라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기 680년 10월 10일에 지금 이라크의 카르발라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당시 시아파의 3번째 ‘이맘 후세인’을 우마이야조 칼리프 야지드의 군대가 살해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날 후세인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 시아 무슬림이 다시 카르발라 후세인 성묘에 모였던 의례를 아르바인이라고 한다.

아르바인 전통은 후세인 순교 직후부터 지켜졌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순례자가 카르발라에 해마다 집결하여 기네스북 등재를 요청하고 있다. 순례자는 각기 이라크 도착지에서 걸어서 카르발라까지 오는데, 대체로 바스라나의 첫 번째 이맘 알리의 성묘가 있는 나자프에서 순례 행진을 시작한다. 나자프에서 카르발라까지 거리는 약 80km이며 투르크 국가 중에서도 시아파 인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아제르바이잔은 국민들이 핫스 순례와 함께 아르바인 순례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는 순례 참가 열정이 정치적 이슬람의 발흥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르바인
- 다국어 표기 Arba'in(아랍어), Erbain(튀르키예어), Arba'in(우즈베크어), Ərbəin günü(아제르바이잔어), Chehelom(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시아, 아슈라, 이맘 후세인, 이맘 알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4/4f/Kerbela_Hussein_Moschee.jpg/1024px-Kerbela_Hussein_Moschee.jpg
- 참고문헌(온라인) Baku Research Institute
<https://bakuresearchinstitute.org/az%C9%99rbaycanlilarin-%C9%99rb%C9%99in-ziyar%C9%99ti/>
- 참고문헌(오프라인) Conrad, Lawrence I. "Abraha and Muḥammad: Some Observations Apropos of Chronology and Literary Topoi in the Early Arabic Historical Tradition." *Bulletin of the School of the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50 (1987), pp.225~240.
Rovshanoglu, Kanan. "Azerbaijani Shi'is and the Arbaeen Pilgrimage." *Baku Research Institute*, April 25, 2018.

I E022 | 아르산-두올라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악령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Arsan-duolay

‘아르산-두올라이’는 세계를 지하, 중간, 천상계로 나누는 야쿠트 민족의 세계관에서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우두머리이다. 야쿠트 신화에 따르면, 지하세계에는 여덟 종류의 악령이 있는데 그중 아르산-두올라이가 우두머리다. 그는 거미도 달라붙을 정도로 질퍽한 진흙으로 된 지하 왕국의 가장 아래에 살고 있다.

아르산-두올라이의 아내와 일곱 아들은 각각 악령 씨족의 우두머리이기에 여러 불행을 불러오는 이 악령을 피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은 아르산-두올라이나 그를 따르는 악령에게 가축을 희생양으로 바쳤다. 신화에서는 아르산-두올라이를 부오르 말라하이 토이온(Буор Малахай тойон)이나 부오르 만갈라이(Буор Мангалай)라고 부르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르산 두올라이이, 알산 두올라이
- 다국어 표기 Арсан-дуолай(러시아어), Arsan Dolay(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 ред. Мелетинский Е.М.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 Аурика Луковкина Сверхъестестве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людей. Litres, 2017.

I E023 | 아르수리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Archura

‘아르수리’는 추바시 신화에 나오는 숲 귀신이다. 아르쥬리(арзюри)로 표기하기도 하고, 타타르어로는 아르수리(арсури), 튀르키예어로는 아르추라(arçura)로 표기하기도 한다. 아르수리는 슬라브 신(神) 슈르(Шур)처럼 오래된 기원을 가진 단어이다. 또 다른 표기법인 ‘아르쥬리’는 추바시어로 ‘숲의 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카잔 타타르나 서시베리아 타타르 민족의 ‘숲의 주인’이란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기도 하다. 남추바시 민족은 아르수리를 ‘우베데’(убедэ)의 아내로 여기기에 ‘숲의 어머니’로 부르기도 한다.

또 다른 의미로 아르수리는 파렴치한 여인을 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신화에서 아르수리는 검은 얼굴을 하고 긴 머리카락에 세 개의 손, 세 개의 발과 네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눈의 경우 두 개는 앞쪽에 두 개는 뒤쪽에 달려 있다. 신화 속에서 늘 나쁜 장난을 좋아해서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들거나 기분 나쁜 소리로 놀라게 하고 간지럽히거나 이를 뽑기도 한다. 하지만 물을 무서워해서 말을 타고 돌아다닌다고 하며 흔히 하는 말로 요절한 사람이나 살해를 당한 사람의 영혼이 아르수리로 변한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투르크 계열의 신화에서 아르수리는 카잔 타타르나 바시키르의 수랄레(шурале)나 시베리아 타타르의 피첸(пицен)에 상응하는 귀신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르추라
- 다국어 표기 Arçora(아제르바이잔어), арзюри(러시아어), Arçur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수랄레, 피첸, 추바시, 추바시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под ред. Токарева С. А.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7, г. - т.1 - 671 с.

I E024 | 아르슬란 자집 영묘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ausoleum of Arslan Jadhhib

아르슬란 자집 영묘는 현재 이란의 쉹베스트(Seungbest) 지방에 건설되었다. 가즈나 왕조 투스의 총독이었던 아르슬란 자집(Arslan Jadhjib)의 영묘로, 아르슬란 자집은 자신의 탄생지인 쉹베스트에 리바트(Ribat)를 건설했고 그 리바트 내에 영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다른 건물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영묘의 건설 시기에는 아르슬란 자집이 아직 투스의 총독으로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1028년 그가 사망한 후 묻히게 되었다.

영묘는 주로 벽돌을 사용해 건축했으며 12.50제곱미터 넓이의 정사각형 형태로 높이는 약 22m 정도이다. 지붕에는 트롬프 위에 얹힌 돔이 있고, 전체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정사각형 몸체와 돔 사이에 팔각 면에 가까운 드럼이 있다. 돔의 하단은 벽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외관에는 장식이 없다. 돔과 몸체 사이의 팔각형 드럼의 각 면에는 원호 아치형 창과 벽감으로 장식되어 있다. 특히 이 아치 벽감은 벽돌을 교차로 배치해 장식성을 돋보이도록 했으며 벽과 팔각면 사이에도 쿠픽 서체 비문이 드러나도록 벽돌을 배치했다.

내부 벽면은 석고로 표면처리를 한 후 굽어내 각진 파도 문양을 내었다. 벽 상단부에는 쿠픽 서체 장식 띠가 둘러져 있다. 그리고 띠 위에 가즈다란 덩굴 문양을 그리고 다양한 바탕 색상을 칠한 다음 그 위에 흰색으로 글씨가 쓰여 있다.

현재 영묘에는 원통형의 미너렛이 있다. 미너렛은 벽돌을 교차 배치해 장식되어 있으며 상단

에 글이 적힌 띠로 둘러싸여 있다.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지금은 미너렛의 남동쪽에 벽면 조각의 흔적 정도가 남아 있다. 예전엔 포털에 붙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상단부가 훼손된 상태이다. 이 미너렛의 내부 계단을 통해 미너렛 발코니로 나갈 수 있으며 발코니는 무카르나스 장식으로 떠받쳤던 흔적이 남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슬란 자지브 영묘
- 다국어 표기 Arsalan-i Jazib Gunbad(페르시아어), Aslan Cazip türbe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가즈나 조

● 멀티미디어 링크 알슬란 자지브 영묘 전경

https://s3.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42635/original/IMG11500.jpg?1384712939

알슬란 자지브 영묘 내부

https://s3.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42644/original/IMG11509.jpg?1384712945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thoughtco.com/thmb/vtgLwNrr13q1-elq->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Schroeder, Eric. "The Seljuk Period". *In A Survey of Persian Art from Prehistoric Times to the Present*, (edited by Pope, Arthur Upham and Phyllis Ackerman (assistant editor)), Vol. 3 Architecture, Its Ornament, City Plans, Gardens, 3rd ed., Tehran: Soroush Press, 1977, pp.986~988.

I E025 | 아르콘 토르트쉬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민속놀이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Arkon Tortish

‘아르콘 토르트쉬’는 중앙아시아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 줄다리를 말한다. 우즈베크어는 ‘아르콘 토르트쉬’, 카자흐어로 ‘아르칸 타르트스’, 키르기스어로 ‘아르칸 타르티시’라고 불린다. 어원을 살펴보면, 아르콘은 튀르크어로 ‘줄’이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줄 당기기’라는 뜻이다.

‘아르콘 토르트쉬’는 주로 나브루즈에 연희되었던 경합 형태의 민속놀이이다. 경기는 먼저 마을 공동체의 남성 대 여성의 시합으로 시작된다. 남성과 여성이 동수로 줄을 잡고 마주보고 선다. 그리고 양털을 엮어 만든 밧줄의 한 가운데에 표시를 한 다음 양쪽에서 잡고 줄을 당긴다. 이때 가운데 표시가 어느 팀 쪽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승자가 결정된다. 이 시합의 심판은 공동체의 ‘억서컬’이라고 불리는 원로가 맞는다. 세 번을 겨뤘 두 번을 먼저 이긴 팀이 승리하게 된다.

경기는 대체로 여성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정석이다. 여성들이 승리하지 못하면 보통 재경기를 치러서 여성의 승리를 유도한다. 여성들의 승리 자체가 나브루즈가 봄을 맞이하는 절기를 상징하는 것처럼 어두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놀이가 열리던 나브루즈 자체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봄 축제이며, 설 명절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대결로써 봄맞이 및 신년의식도 함께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공동체 대표를 1명씩 정해 대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 남성들은 줄을 입에 물고 줄을 가랑이 아래로 빼낸 다음 심판이 신호를 보내면 각각 반대편으로 줄을 당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줄을 이마에 걸고 서로 원심력을 이용해 바깥 쪽으로 당기는 경우나 가슴에 걸고 당기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줄이 목에 걸리게 되면 질식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과 유사한 줄다리기 놀이는 대체로는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즈베키스탄 일부에서도 드물게 열렸다. 경기에 따라서는 내기를 하기도 하는데 당일 먹을 음식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를 제안할 수도 있다.

정리해보면, ‘아르콘 토르트쉬’에서 경기를 남자와 여자가 팀을 나눠 치렀던 이유는 어둠과 빛, 선과 악, 신과 악마, 풍요와 빈곤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적 의미를 시합에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성이 승리하도록 유도했던 이유도 여성의 승리가 봄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간혹 마을과 마을 공동체 사이의 경쟁이 주요 테마가 되기도 했는데 대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두 공동체의 더 긴밀한 화합과 조화를 이뤄 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립과 대결을 통해 승패를 겨루지만 최종 우주의 음양의 합과 조화이자 총체적인 화합이 이 줄다리기 시합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은 대결 구도를 취하기는 하지만 놀이로써 경쟁을 즐겼고, 결과적으로 누가 승패를 하는지 간에 화해의 구도로 끝이 나도록 유도했다. 본질적으로 줄다리기는 공동체적 삶을 내재화하고 다지는 의식이자 행위였던 것이다.



아르칸 타르트스를 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남자들

나아가 중앙아시아 ‘아르칸 토르트쉬’ 줄다리기에는 인간과 자연, 우주의 법칙과 음양의 조화를 이해하려는 당대 사람들의 우주관이 반영되어 있다. 인간은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들의 신앙과 삶의 철학이 줄다리기에 반영되어 있었기에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에서 줄다리가 봄맞이 춘분 설 명절인 나브루즈 기간에 마을 축제를 통해서 진행되는 이유와 제의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아르칸 토르트쉬’ 줄다리에 담긴 제의적 의미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1) 묵은 해에서 새해로의 이동
- 2) 순환적 우주와 인간의 삶의 조화
- 3) 추위/어둠/죽음의 극복, 따뜻함/빛/생명의 세계로의 진입

전통적으로 시간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순환하는 절기와 주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절기와 설 명절을 통해 과도기와 통과 의례를 거쳐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정착 문화와 농사가 발달한 우즈베키스탄에서 특히 봄은 농사의 시작이라는 큰 의미가 있지만, 유목사회에서도 목초지에 풀이 나고 가축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 봄의 의미가 무엇보다 각별한 것은 매한가지였다. 봄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생명의 소생을 뜻한다. ‘아르콘 토르트쉬’ 줄다리기는 생명을 존중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기원하는 일정의 생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생각해볼 만한 점은 ‘아르콘 토르트쉬’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팀의 구성과 대결에 어둠/빛, 겨울/봄, 죽음/생명 등의 상징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본래 이슬람 문화권에서 관습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접촉과 놀이가 자유롭지 않았지만, 이날은 전통 놀이와 봄을 맞이하고 ‘봄의 승리’라는 상징을 재현하고자 이러한 상징적 행위가 허용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르칸 타르트스, 아르칸타르티시

● 다국어 표기 Arkon Tortish(우즈베크어), Arkan Tartish(영어), аркон тортиш(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나브루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youtu.be/n7YVhnSjCsA>

<https://youtu.be/pOIQJurWITo>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бдуллаев АА, Миллий халқ ўйинлари ва соғлом авлод тарбияси/Соврем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Узбекистан, 2017.

Жалилов ЗБ-Шарқ мутафаккирлари меросини ўрганишнинг дидактик методлари/ Соврем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Узбекистан, 2017.

I E026 | 아리스탄-바프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Aristan-bab

‘아리스탄-바프’(‘바프’는 특출한 사람을 뜻함)는 12세기 중앙아시아 지역의 수피즘 지도자인 ‘호자 아흐메드 야사비’의 종교적 스승으로 추정되는 지도자이다. 그를 기리는 묘는 카자흐스탄 남쪽 오토라르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투르키스탄에 있는 ‘아흐메드 야사비’의 영묘와 함께 카자흐인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성지이기도 하다. 아리스탄-바프는 전설적인 인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그가 태어나서 활동한 기간, 생존 기간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 시기에 태어나 350년을 살았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실체는 불분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수피즘을 전파한 ‘아흐메드 야사비’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실존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부 카자흐스탄 지역의 중심 고도인 투르키스탄에 가면 ‘아흐메드 야사비’의 영묘가 있는데 무슬림들은 메카 순례처럼 그곳을 방문한다. 그 지역의 전설에 따르면 ‘아리스탄-바프’는 12세기에 오토라르 부근에서 사망했고 그의 제자들이 묘를 건립했지만 12세기 초에 침입한 몽골군에 의해 오토라르가 폐허가 되자 원래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14세기에 ‘아미르 티무르’가 그의 묘소를 찾아내어 복원했다고 하는 설이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티무르 때 복원된 묘소 역시 후대에 지진으로 인해 파괴되고 말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리스탄-바브
- 다국어 표기 Арыстан баб(카자흐어), Арыстан-баб(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르슬란-바브, 수피즘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bPdpouttFQ>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engrinews.kz/mixnews/aryistan-bab-jizn-sotkannaya-iz-legend-353609/>
<https://tengritravel.kz/my-country/aryistan-bab-mavzoley-gde-jivut-predaniya-451257/>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1, Алматы, 2004.

I E027 | 아린트시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Arintsy

‘아린트시’는 (러시아어 Arintsy 복수, Arinets 단수) 남(南)시베리아에 거주하는 하카스인으로 구성된 부족명 중 하나로 ‘아아라(aara)’로도 알려져 있다. 그들은 오늘날 하카스 땅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시 근처의 훔티게이(Hum Tigey, 모래주머니) 산기슭에서 하카스 땅으로 이동했으며, 이동 이후에도 훔티게이 산을 신성하게 여겼다.

17세기 크라스노야르스크 타타르인이라고 알려진 투르크 족의 부족인 카친(Kaçın)들과 함께 살았던 아아라(Aara)족은 20세기 이전 완전히 투르크화가 되었다. 이후 외모, 사회구조, 전통경제, 일상생활 면에서 유목사회 생활형태와 매우 흡사했으며 특히 가축과 농업 면에 있어서 뛰어난 두각을 드러냈다.

18세기에 남하하여 하카스 영토에 정착했는데 러시아 연구원 ‘밀리’ (G. F. Miller)에 의하면, 아아스인의 민족명은 튀르키예어의 ‘an(별)’에서 유래한다. 그 외에도 「하카스 투르크 샤먼 신화」에는 고대 아아스인들을 놓고 인구 수가 많으며 군사력이 강력하다며 매우 호전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화에서 아아스족은 꿀벌 떼처럼 군집적으로 이동하며 적을 물리쳐 나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또한 신화에는 아아스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훔티게이 산 주변에 많은 뱀들이 살았다고 적혀 있다. 그래서 하카스어로 ‘뱀의 왕’을 의미하는 ‘출란 한(Çılan Han)’은 훔티게이 산 주변의 모든 뱀들을 잡아먹은 아아스족과 전쟁을 벌였으며, 이 전쟁으로 인해 아아스족이 전멸했다고 한다. 이런 신화적 모티프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뱀과 싸워 패한 스키타이인들의 전설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린트스

● 다국어 표기 Arintsy / Аринцы, Ariny / Арины(러시아어), Aara / Aapa(하카스어)

● 연관 검색어 스키타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Бутанаев, В. Я. & К. М. Торбостаев, “Аринцы.”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 1*, Абак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2007, С.47.

I E028 | 아무다리야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강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mu Darya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다. 총 길이가 2,540km, 유역면적이 46만 5,500제곱킬로미터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옥수스강이라고 불렀다. 발원지는 파미르 고원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및 아프가니스탄의 경계를 이루며 내려오면서 많은 지류와 합류한다. 그리고 아랄 해안에 길이 150km, 넓이 10만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삼각주를 형성한다. 강 전체 2/3가



아무다리야강 상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본 아무다리야 강
Source:<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평야로 흘러내리지만, 주변 일대에 카라쿰과 키질쿰 등 넓은 사막지대가 전개되어 있기에 도중에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류는 없고, 관개용수와 증발 때문에 유량의 25%를 상실한다. 중하류 지역은 풍요한 오아시스로, 멜론·포도·쌀 등을 재배하고, 하안(河岸)은 갈대·버드나무·포플러 등이 무성한 녹지대를 이룬다. 강 유역에는 큰 댐이 축조되었으며, 댐의 좌측으로 카라쿰 운하를 만들어 아시아바드 방면에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데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운하의 건설 이후 근방 일대가 풍부한 농경지와 방목지로 변화했다. 상류에는 발전소도 많이 건설되었다.

아무다리야의 상류 연안은 오아시스 행로였기에 역사적으로도 많은 오아시스 도시가 자리를 잡았다. 근방의 여러 지역에서 아이하눔·쿤두즈·아일탐·아지나테페·테르메즈·딜리베르진테페 등 헬레니즘과 불교문화의 유적들이 발견되었던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현재 영국 대영박물관에는 ‘옥수스 유물보고(遺物寶庫, Treasure of Oxus)’라는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아무다리야 유역의 여러 지역에서 출토된 귀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오랜 기간 아무다리야는 아랍-이슬람 제국의 동방 경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로가 되었으며 아무다리야와 시르다리야(Syr Dar'ya) 사이의 지역, 즉 트란스옥시아나(Transoxiana)를 아랍어로는

‘마워라알나흐르’(Mā Warā’ al-Nahr, 하외지역(河外地域))라고도 부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므다라 강, 아므다리아, 아무다리여
- 다국어 표기 Oxus(라틴어), ὠξος(그리스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3/35/Amudaryasunset.jpg/1024px-Amudaryasunset.jpg>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아무다리아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0923&cid=40942&categoryId=40082>
네이버 지식백과 실크로드사전 ‘아무다리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83211&cid=62093&categoryId=62093>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2.
Curzon, George Nathaniel. *The Pamirs and the Source of the Oxus*. London:Royal Geographical Society, 1896. Reprint: Elibron Classics Series, Adamant Media Corporation. 2005.
Toynbee, Arnold J. *Between Oxus and Jumn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I E029 | 아미르 티무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Amir Temur

아미르 티무르는 티무르 제국의 창시자이다. 본명은 ‘아미르 테무르 이븐 타라가이 바코’(Amir Temur ibn Taragay Bakho, 1336년~1405년; 재위: 1370년~1405년)이다. ‘테무르’는 ‘철(鐵)’을 의미하는 돌궐어이다.

그는 현재 샤흐리샤보르로 알려진 고대도시 케쉬(Kesh)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로 타라고이’(Amir Taragoy)로 바르라스 부족의 아미르들 중 한 명이였다. 어머니는 ‘타키나 허튼’(Takina xotun)으로 부하라 출신이다. 아미르 티무르는 어린 시절부터 군사 훈련과 위대한 사상가들로부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 ‘아부바키르 자이니딘 토요보디’(Abubakir



아미르 티무르 동상(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Zayniddin Toyobodiy), ‘삼시딘 쿨랄’(Shamsiddin Kulol), ‘버하르지이’(Boxarziy)와 같은 사상가들이 그의 스승이었다. 나이가 든 후부터는 ‘아미르 후사인’과 함께 몽골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나서 모바루나흐르(Movarounnahr, 1364) 해방에 공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명한 로이전투(Loy, 1365)를 치른 이후 마지막 ‘칭기즈 칸’의 후손인 ‘일요스 호자’(Ilyos Xoja)까지 물리치고 나서는 ‘아미르 후사인’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결국 ‘아미르 후인’을 제거하고 권력자 커전헌(Qozonxon)의 딸 사라이물크허눔(Saroymulxonim)과 결혼하여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1395년에는 몽골 칸이며, 백장 칸국(白帳汗國)의 마지막 칸 ‘토크타미쉬 칸’을 물리쳤다. 139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도를 비롯한 넓은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당시 몽골계 전통에 따라 징기스칸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칸(汗)’이라는 호칭 대신에 ‘아미르(장군, 지휘관)’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아미르 티무르’는 중앙아시아 역사에서 위대한 국가 창시자 및 건축가로도 이름을 남겼다. 그는 방대한 영토를 지배했는데, 바그다드에 마드라사, 이이로스(Ийроз)에 궁전, 타브리즈에 모스크, 투르크িস탄에 호자 아흐메드 야사위의 영묘를 건축했다. 그 결과 케쉬, 사마르칸트 같은 수 많은 도시들을 번영시켰으며, 예술과 학문을 사랑하여 과학과 문화의 번성기를 이루었다. 특히 여러 문학가들을 후원했다.

아미르 티무르의 저서 『티무르 법전(Temur tuzuklari)』은 국가통치, 군사력 확장, 군대조직, 협상법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학과 문화에 관한 문제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원전은 페르시아어로 작성되었으며 나중에 투르크어로 번역되었다. 1836년에 코칸트, 1856년~1858년에 히바에서도 번역본이 출간되었는데,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아미르 티무르는 중국 원정길에 우트로르(Utror) 시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사마르칸트 구르 아미르 영묘(Gori Amir)에 안치되었다. 소비에트 시기에는 아미르 티무르라는 인물 및 그의 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세계사적으로 그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작된 것은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가 잔인한 정복자인지, 위대한 통치자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아미르 티무르를 다룬 소설, 비디오, 영화, 연극, 시와 같은 예술 작품 창작도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아흐메도브’(Ahmedov)의 소설 『아미르 티무르(1996)』, 오리로브(A. Oripov)의 연극 「서힉크런(Soxibqiron)」, 커디로브(P. Qodirov)의 에세이집 「아미르 티무르 시이모스(Amir Temur siymos, 2007)」, 무함마드 알리(Muhammad Ali)의 「위대한 왕조(Ulug' saltanat)」와 같은 작품들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미르 티무르

● 다국어 표기 Amir Timur(영어), Amir Temur(우즈베크어), Amir Temur, Amir Temur ibn Taragay Bakho(영어)

● 연관 검색어 구르 아미르 영묘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мир Темур,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его жизни, походы, остановки, сражения и миры Т., 1891.

Уложение Тимура, Пер. с тюркского Н.Ликошина, Изд. Н.Остроумова, Казань, 1894.

Темур тузуклари (форс т.дан А.Соғуний, Х-Кароматов тарж.), Т. Е.Тулом номидаги нашр, 2011.

Каримов И., Амир Темур – фахримиз, гуруримиз, Асарлар, 5-ж, Т. Уз-н, 1997.

Ч.А., Персидская лит-ра, Био-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й обзор, Ч.П. М.: ИВЛ, 1972, 791~797.

Ибн Арабшоу, Ажойиб ал-мақдур фи тарихи Таймур (Темур тарихида гақдир ажойиботлари, Т. Нур, 1992.
 Муминов И, Амир Темурнинг Урта Осиё шрихида тутган урни ва роли, Т. Фан, 1993.
 Низомиддин Шомий, Зафарнома, Т.: Уз- 11, 1996.
 Ахмедов Б., Амир Темур, Т., 1996.
 Мууам. маджонов А., Темур ва темурийлар санъати., Тарихий очерк, Т., 1996.
 Шоймардонов И., Амир Темур жахон тарихида, Т. Шарк НМАК, 1996. Шарафуддин Али Яздий, Зафарнома, Т. Шарк НМАК, 1997.

I E030 | 아민 우마리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Amin Umariy

소련시대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 작가 중 한명인 ‘아민 우마리이’(Amin Umariy)는 1913년 코칸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은 봉기와 파업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다. 또한, 코칸트에서 ‘무키미이’(Muqimiy), ‘푸르캣’(Furqat), ‘자브키이’(Zavqiy), ‘안바르 어틴’(Anbar Otin)과 같은 애국 시인들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 투쟁을 본격화하던 시기였다. 그 시기 함자 하킴저다(Hamza Hakimzoda)의 『민족의 노래(Milliy ashular)』와 샷릿딘 아이니이(S. Ayniy)의 『마르셀르에자(Marseleza)』와 같은 애국심에 호소하는 시(詩)는 아민 우마리이가 이후 사회 참여 의식이 강한 작가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아민 우마리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1930년~1935년에는 사마르칸트 국립 교육대학교를 다녔다. 그곳에서 ‘하미트 올림전’(Hamid Olimjon), ‘우이군’(Uyg’un), ‘어이딘’(Oydin)과 같은 문인들과 친분을 맺기 시작했고 1937년 타슈켄트로 이주한 후 우즈베키스탄 작가 연합의 회원이 되었다. 학창 시절 시작된 그의 작품 활동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였다.

1930년에는 그의 첫 시집 『안녕, 학교!(Salom, maktab!)』가 출간되었다. 이후 1932년 출판된 『크게 울리는 소리들(Yangroq sadolar)』에 수록된 시들은 당시의 현안이었던 농촌, 근

로자, 여성해방 및 지식인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열띤 작업장(Qaynayotgan seximiz)』은 산업현장을, 『볼셰비키의 후원자(Bolshevik homiysi)』는 목화를 재배하는 농촌을, 『파괴적인 남편들(Zarbachil erlar)』은 억압적 여성현실을 다루고 있다.

그는 1933년 두 번째 시집 『시대의 축제(Davr tantanasi)』을 출간한데 이어 『젊음(Yoshlik, 1935)』, 『자녀(Farzand, 1937)』, 『충성(Sadoqat, 1938)』, 『노래들(Qo'shiqlar)』, 『창조 정원에서(Ijod bog'ida)』와 같은 시집들을 계속 발표했다. 그의 시는 시간이 갈수록 발전했고, 문학적 완성도도 높아졌다. 이 시기 작가는 타슈켄트 국립대학교에 강사로 출강했으며, 잡지 <굴리스턴(Guliston)>과 우즈베키스탄 국영출판사에서 번역가이자 비평가로도 활동했다. 특히 그는 평소 자신의 스승이라 생각했던 막심 고리키의 작품 스타일을 따라 「우리도 그대와 함께(Biz ham Sizning bilan, 1932)」, 「폭풍새에게(Bo'ron qushiga, 1936)」, 「네가 영감(靈感)을 받았을 때(Ilhomda sen hamon, 1938)」, 「스승(Ustoz, 1938)」과 같은 시를 썼다. 그리고 1939년~1941년대에는 『시선집(She'rlar)』, 『어린 시절의 노래(Bolalik qo'shiqlari)』, 『내 목소리(Ovozim)』, 『태양의 전령자(Quyosh jarchisi)』를 출간했다.

아민 우마리의 창작활동은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도 이어졌다. 그는 시집 『맹세(Qasamyod, 1942)』에서 당시 전쟁을 다루고 있으며, 극작가로 활동하며 커밀 야신(K. Yashin)과 함께 희곡 「함자(Hamza, 1941)」를 집필했고, 투이군(Tuyg'un)과 함께 희곡 「복수(Qasos)」를 집필해 전쟁의 잔혹함을 그려내려고 노력했다.

그밖에 『아사드(Asad, 1932)』, 『카잔 가는 길(Qozon yo'lida, 1938)』, 『투척기(Toshotar, 1939)』 등 단편소설과 수필집이 있다.

그는 1942년 11월 14일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민 우마리
- 다국어 표기 Amin Umariy(우즈베크어), Амин Умар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무키미이, 푸르캣, 자브키이, 안바르 어틴, 함자, 사릿딘 아이니이, 하미트 열림진, 우이군, 어이딘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o-zbek-ziyolilari/amin-umariy-1913-1942>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Ikromov O., *Amin Umariy: adabiy portret*. Toshkent: Badiiy adabiyot nashriyoti, 1964.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Umariy A., *She'rlar*. Toshkent: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i nashriyoti, 1973.

I E031 | 아바르 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Pannonian Avars

아바르 조는 A.D. 558년경, 중부 유럽의 프랑크 왕국과 비잔틴 제국의 중간 지대에서 훈의 후에, 사바르 잔존 세력, 오우르족 등 투르크계 종족에 의해 건립되었다. 건립 이후 인근의 게르만족과, 특히 슬라브계 민족들을 복속시켜 이후 약 250년간 유럽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아바르족의 기원과 종족 분류에 대한 논쟁은 훈족의 기원과 더불어 지난 1세기를 거쳐 지금까지도 동서양 학자들에 의해 갖가지 학설이 난립하는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이다. 비잔틴 문헌에는 아바레스(Abares)나 아바로이(Abaroi)로 표기되며, 라틴어로 아와리(Awari)와 아와레스(Awares), 슬라브어로 아바리(Abari), 오브리(Obri) 등으로 표기된다. 유럽 아바르족이 세운 아바르 조의 건국 주체가 투르크계 종족이라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나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공학자들 사이에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학설은 동양사에 등장하는 유연족이 돌궐에 의해 멸망한 후 그들 중 일부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아바르족이 형성되었다는 '유연-아바르 동족론'이다. 이 학설은 비잔틴 문헌에 전해지는 사료와 돌궐에 의한 유연 패망을 전후로 한 중국사에 전하는 사료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이 상호 부합되는 면이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7세기 전반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잔틴의 '테오�필락트 시모카테스'(Theophylakt Simocattes)의 역사서에 따르면 아바르족이 6세기 중엽 투르크에 의해 멸망되기 이전 동방유목민족 중 최 강자였다고 전해진다.

둘째, 『위서』(魏書), 『북사』(北史) 등의 중국 사서에도 유연이 6세기 중엽 돌궐에 의해 멸망되

기 이전에 북적(北狄) 중 최강자였다고 전한다.

셋째, ‘테오피락트 시모카테스’의 역사서에 아바르족이 투르크에 의해 멸망된 후 그중 일부가 ‘타우가스’(Taugas: 중국을 지칭)로 도주했다고 전하는데 상기의 중국 사서에도 유연이 돌궐에 의해 패망된 후 그중 일부가 서위로 도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넷째, 아바르와 유연이 사용했던 여러 관직명과 유사 인명들의 존재는 ‘유연 아바르 동족론’이 성립될 가능성에 한층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반면 ‘유연 아바르 동족론’의 성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은 역시 ‘테오피락트 시모카테스’가 남긴 다음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아바르족을 ‘진짜 아바르’(Real Avar)와 ‘가짜 아바르’(Pseudo Avar)로 구분해서 유럽 아바르는 ‘우아르’(Uar)와 ‘훈니’(Hunni) 두 종족 집단으로 구성된 가짜 아바르였다고 기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 역시 유연 제국이 아바르와 흉노 제국 멸망 후 흉노의 잔존세력으로 성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국 사료에서 전하듯이 흉노 제국 멸망 후 상당수에 달하는 흉노의 잔여 무리가 선비가 주도한 부족연맹에 가담했고 유연이 선비에서 갈라져 나온 한 분파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유연이라는 새로운 부족연맹에는 상당수의 흉노계 종족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오피락트 시모카테스’가 ‘우아르’, ‘훈니’라고 기술한 두 종족 집단은 ‘아바르’와 ‘훈’(흉노)을 지칭했을 것이라는 개연성도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이 문제가 ‘흉노(훈) 동족론’ 문제와 더불어 동양사나 서양사 측면에서도 볼 때 꼭 해결되어야 할 중요 과제임이 분명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바르 왕조

● 다국어 표기 Pannonian Avars(영어), Βαρχονίτες(그리스어)

● 연관 검색어 유연, 돌궐, 흉노, 선비

● 참고문헌(오프라인) 록 관텐, 송기중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우덕찬, 『중앙아시아사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7.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Waldman Carl. and Catherine Mason, *Encyclopedia of European Peoples*, Volume 2, NewYork: Infobase Publishing, 2006.

Grousset, Rene, *The Empire of the Steppes*, Rutgers University Press, 2004.

I E032 | 아바시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악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Abasy

야쿠트의 영웅서사시 「올론호」 전설에 나오는 지하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악령들이자 선한 신들인 ‘아이이’의 적대자로 등장하며 아바아시(Абаасы), 아바아히(абааһы)로도 불린다.

전설에 따르면 아바시는 사람과 비슷한 열정과 욕구를 가졌으나 외모는 추하고 외다리이거나 외팔인 자들로 묘사되곤 한다. 그들은 주로 자기 종족이나 씨족, 세대를 이루어 살았으며 외모나 환경에 대해서는 다른 구비 문학에서도 비슷하게 묘사된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해를 끼치고 부녀자를 납치해 강제로 약혼자나 사위가 되는 무례하고 원시적인 존재들이다. 사람이 70세 이전에 죽으면 아바시가 그의 영혼을 취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아바시는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울루 토이온(Улу Тойон)을 섬기면서 그와 함께 사람들 사이에 악한 근원을 심었다.

이처럼 아바시가 인간들이 나쁜 행동을 하게 부추기거나, 인간들에게 불행이나 질병을 옮기는 이유는 인간이나 동물의 영혼을 양식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샤먼의 주된 과제 중 하나는 어떤 아바시가 병을 옮겼는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 다음 샤먼은 그 아바시와 싸우거나, 병자의 영혼과 교환할 수 있는 영혼을 지닌 동물을 아바시에게 제물로 바쳤다. 장미 가지 관목은 아바시가 두려워한다고 알려져 아바시를 쫓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아바시로는 아르산-두올라이(Арсан-дуолай)와 하라 수오룬(Хара Суорун)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바스

● 다국어 표기 Абасы(러시아어), абаасы(야쿠트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1992.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 ред. Мелетинский Е.М.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I E033 | 아바아흐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강덕수 ● 라틴 문자 abaahy

‘아바아흐’(러시아어로는 아바아스)는 ‘아이으’의 대립적 존재로서 악령을 의미한다. 지하 종족인 아바아흐의 우두머리는 “아르산 두올라이”라는 노인이며 그에게는 발에 족쇄를 찬 부인 “알라 부오라이 호툰”이 있다.

아바아흐를 가장 명확하고 특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영웅서사시 「올롱호」이다. 아바아흐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인간적인 열정과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보통 외다리이거나 외팔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악을 행하고 부녀자들을 유괴하여 스스로 약혼자나 사위가 되는 무례하고 반문명적인 행동을 거듭했다. 그래서 야쿠트어에서 “아바아흐”라는 단어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악한 영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에게 해롭고 좋지 못한 모든 악을 가리킨다. 이처럼 야쿠트 신화에서 아바아흐는 인간에게 온갖 불행을 가져다 주는 악한 정령들이다. 그중에서도 “하아흐트으르 하그단 부우라이 토욘”은 밝은 갈색 피부를 가진 족장으로 남서쪽 하늘에 살며 사람들을 곱추등으로 만들고, 면상이 희고 잿빛 털을 가진 말을 제물로 요구한다. 또한 “도흐순 두오야아르”는 미치광이로 황갈색 말을 요구한다. 부부 사이인 “아르하흐 토욘”과 “아르하흐 호툰”은 폐병의 정령들이다. 이런 아바아흐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적 존재인 샤만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바아스
- 다국어 표기 абааһы(야쿠트어), абаасы(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이으, 야쿠트어, 토욘, 올롱호
- 참고문헌(오프라인) 강덕수, 『야쿠티야. 맘모스와 다이아몬드와 착한 사람들의 나라』, HUF S Books. 2011, pp.49~50.

I E034 | 아바이의 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품 ● 유형 소분류2 소설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he Path of Abai

『아바이의 길』은 카자흐 시인 ‘아바이 쿠난바예프’(1845년~1904년)의 생애에 관한 ‘묵타르 아우예조프’(1897년~1961년)의 장편소설이다.

제정러시아 말기에 문학 활동을 했던 아바이는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근대 지성인으로 소설을 통해 근대 카자흐인들의 내적 심성이 원대하고 아름답다는 점을 강조했다. 19세기 말 당시 제정러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카자흐인 사회는 부자들과 빈자들의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전통과 근대 사이의 정신적 갈등이 팽배해져 있었다. 이에 카자흐인의 전통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동요하기 시작했는데 아우예조프는 어린 시절에 아바이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아바이의 부인과의 조우와 대화를 통해 아바이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 나갔다. 그리고 아바이의 동시대 친구들과의 조연을 통해 아바이에 대한 글을 완성해 나갔다.

『아바이의 길』을 집필한 시기는 스탈린의 사회주의가 전성기를 이루던 시대로서 그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존해야 하는 다민족 중 하나인 카자흐인의 우수성에 대해 묘사하고자 했다. 그래서 카자흐 근대 지성인 아바이의 생애를 통해 카자흐인의 심성을 알렸다. 장장 15년 동안



『아바이의 길』 표지

Source: <https://abaialemi.kz/post/view?id=1616>

집필한 이 소설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간 후 1949년에 소비에트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어서 동 소설이 30개 언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특이한 점은 초판이 출간된 해가 1942년이었는데, 5년 후인 1947년에 『아바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으며 3권은 1952년에 『아바이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계속 제목이 바뀌어 출간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1956년 비로소 4권이 모두 출간된 이후 『아바이의 길』로 명명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바이 줄르
- 다국어 표기 Абай жолы(카자흐어), Путь Абая(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우에조프, 카자흐 소설
- 멀티미디어 링크 ‘아바이의 길’의 책 모습
<https://abaialemi.kz/post/view?id=1616>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uezov.kz/page.php?page_id=305&lang=2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4, Алматы, 2006.

I E035 | 아바자 메흐메드 파샤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정치가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Abaza Mehmed Paşa

아바자 메흐메드 파샤는 1600년대 초 반란을 일으킨 ‘알레포의 왈리 잔폴라트올루’의 하지네 다르(재무관료)였다가, 패배하여 붙잡혔을 때 예니체리 사령관 ‘할릴 아아’의 중재로 사면받았다. 이후 할릴 아아가 ‘카푸단이 데리야’(해군 제독)가 되었을 때 그도 해군에 복무했다.

1621년 ‘마라쉬의 베일레르베이’를 거쳐 ‘에르주룸 베일레르베이’에 올랐다. 1622년 ‘오스만 2세’가 시해되자 예니체리들을 ‘술탄의 시해자들’이라 규정하고 그들을 벌하기 위해 주변에서 섹반(비정규군)을 모아 예니체리 박멸을 목표로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스탄불과 아나톨리아에서 발생했던 이런 반(反)예니체리 세력의 움직임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큰 갈등이 있었고, 아

바자는 이런 상황을 틈타 산작들 사이에 자기편 사람들을 심어놓고, 다른 한 편으론 백성들로 부터 세금을 걷었다. 그때 트리폴리의 ‘알리 세이프올루 이우수프 파샤’와 ‘마라쉬 베일레르베 이 칼라운 이우수프 파샤’도 그에 합세하여 3만의 병력을 규합했고 이들은 예니체리, 톱추, 제베지, 아제미 올란 등 중앙군 소속의 군인들을 닥치는 대로 처단했다.

또한 그는 세빈카라히사르와 시바스를 손에 넣은 후 앙카라도 포위했으나 카이세리 근처에서 ‘사드라잠 하피즈 파샤’가 지휘하는 군대에게 크게 패배했다. 그는 이 전투로 병력의 대부분을 잃고 에르주룸까지 도망쳐 성채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에르주룸 베일레르베이직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조지아의 아흐스카 원정길에 나선 중앙군이 지원을 요구했는데 그는 이것을 함정이라고 인식하고 공격하여 많은 군인을 살해했다. 이후 두 차례나 토벌당하면서 종국에는 1628년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투항하여 ‘무라드 4세’에게 사면받은 후 보스니아 왈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다뉴브강 유역의 비딘의 왈리로서 왈라키아, 몰다비아 공국과 도브루자 타타르의 지원을 얻어 폴란드를 공략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자들이 워낙 많았던데다 다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자 술탄 무라드 4세는 그를 사형에 처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바자 메흐메드 파샤

● 다국어 표기 Abaza Mehmed Paşa(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İlgürel, Mücteba. “Abaza Paşa.” *TDV İslam Ansiklopedisi* Vol. 1, İstanbul: TDV, 1988, pp.11~12.

Huart, Cl. “Abaza.”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1, Leiden: Brill, 1986, p.4.

I E036 | 아바즈 어타르

● 시기 A.D. 1800~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Avaz O'tar



아바즈 어타르
Source: <https://ziyouz.uz/wp-content/>

우즈베크의 계몽시인 ‘아바즈 어타르’(Avaz O'tar)는 1884년 8월 15일 히바에서 태어났다. 이발사였던 그의 아버지 ‘폴원니요즈 어타르 가도이니요즈 오글리’(Polvonniyoz O'tar Gadoiniyoz o'g'li)는 예술과 문학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대 지식인 ‘어가히이’(Ogahiy), ‘커밀 허라즈미이’(Komil Xorazmiy), ‘무트립 허나하로비이’(Mutrib Xonaxarobiy), ‘바요니이’(Bayoniy) 등과 자주 문학모임을 가졌다. 자연스레 어린 아바즈 어타르 역시 아버지의 영향으로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4세에 시 창작을 시작해 18세에 이미 시인으로 명성을 날렸다.

아바즈 어타르의 재능에 큰 관심을 보였던 ‘무함마드 라흐현 서니이’(Muhammad Rahimxon soniy)는 아바즈를 자신의 궁으로 초대해 당대 유명 시인 ‘아흐마드 타비비이’(Ahmad Tabibiy)를 스승으로 임명해 주었지만 궁궐 삶에 적응하지 못한 그는 결국 궁을 떠나고 만다. 궁을 떠난 아바즈 어타르는 탐관오리들과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를 「민족(Millat)」, 「자유(Hurriyat)」, 「국민(Xalq)」, 「시대(Zamon)」 등의 작품을 통해 폭로하고 고발한다. 그로 인해 결국 그는 반동 세력으로 몰려 곤장 200대 태형을 선고 받는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이발사로 일하며 작품활동을 한다. 그후에도 『학교(Maktab)』, 『언어(Til)』, 『나의 헌신적인 사람들(Fidoiylar)』, 『학자들에게(Ulamolarga)』, 『시포히스에게(Sipohiylarga)』, 『미남자(Shayx)』, 『뇌물을 원하다(Pora istar)』와 같은 작품을 발표한다. 이 작품들은 무함마드 라흐현 서니이(Muhammad Rahimxon soniy) 이후 히바의 칸으로 즉위한 ‘아스판디요르현’(Asfandiyorxon)를 자극한다.

결국 150대의 태형을 선고받은 아바즈는 1919년에 35세 나이로 요절하고 만다.

아바즈의 작품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언어문학연구소에 소장돼 있으며, 현재 그의 생가는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와즈 오타르, 아바즈 오타르
- 다국어 표기 Avaz O'tar(우즈베크어), Аваз Отар-оглы (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iyouz.uz/wp-content/uploads/2016/01/avaz-otar.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xorazmiy.uz/oz/pages/view/153>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G'ulom, *O'zbek adabiyoti tarixi*, Toshkent: O'qituvchi, 1975.
O'tar Avaz, *Saylanma*,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84.
Rahmonov V., A. *O'tar o'g'li*: devon,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76.
Zohidov V., *O'zbek adabiyoti*, Toshkent: Davlat Badiy adabiyot nashriyoti, 1960.

I E037 | 아바칸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Abakan

아바칸 시(市)는 러시아 연방에 속한 하카스 공화국의 수도로 정치, 산업, 금융, 학문, 문화의 중심지이다. 현재 하카스 공화국 주민의 35%가 아바칸 시에 살고 있다.

아바칸이란 명칭은 아바칸 강에서 유래했다. 아바칸 시가 위치한 지역은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던 곳으로, 사모흐발(Самохвал) 산의 기슭에는 흉노의 석상이 있으며, 한나라 시대에 포로로 잡혀와 제후가 된 중국장수 '이릉'을 위한 궁전 터도 역사 유적으로 남아 있다. 지금의 아바칸 시의 기원은 1675년 아바칸 강이 예니세이 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러시아가 아바칸 요새(острог Абаканский)를 건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요새에는 미누신스크 분지(Минусинская котловина)의 원주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행정사무소도 설치되었다. 현재는 산업과 에너지 생산 도시이자 남(南) 시베리아 철도가 지나가는 경로이다. 이 철도는 아바칸 시



아바칸 야경

는 모스크바, 크라스노야르스크, 노보쿠즈네츠크, 바르나울과 연결되며, 크라스노야르스크부터 시작되는 연방도로 R257 '예니세이'도 아바칸을 지나 티바 공화국으로 연결된다.

그런가 하면 아바칸은 하카스 공화국의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도 알려져 있다. 국립 하카스 공화국 향토 박물관(Хакас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와 하카스 공화국 교향악단, 아바칸 아카데미 극장, 하카스 공화국 연극 극장, 하카스 공화국 인형 극장 등의 수많은 문화시설이 세워져 있는 데다가 하카스 공화국 국립 대학, 하카스 공화국의 기술대학 등 교육시설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바칸 시(市)
- 다국어 표기 Абакан(러시아어), 阿巴坎(중국어)

- 연관 검색어 아바칸 강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wff2>
- 참고문헌(오프라인) Энциклопедия,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Т.1. “Гл. ред. АМ Прохоров. изд. 3-е.” М.: Сов. энцикл 21 1969. 11.

I E038 | 아바칸 강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강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Abakan(river)

아바칸 강은 하카스 공화국(Хакасия)의 예니세이 강 왼쪽에 위치한 지류 중 하나로서 상류 지역은 대(大)아바칸(Большой Абакан), 또는 튜르겐수(Тюргенсу)로 불린다.

아바칸 강의 길이는 327km이며(대아바칸까지 포함하면 514km), 강 유역 면적은 32,000제곱킬로미터이다. 아바칸 강의 수원은 1842년 ‘표트르 치하초프’(Пётр Чихачёв)가 발견했는데, 서(西)사얀의 아바칸 산맥에 위치해 있다. 아바칸 강의 하구에는 하카스 공화국의 수도 아바칸 시(市)가 위치해 있고 여기서 예니세이 강에 합류된다. 아바칸이라는 명칭의 기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카스의 전설이나 언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견해가 있다.

첫 번째, 아버지나 연장자를 의미하는 하카스어 ‘아바(Аба)’와 강을 의미하는 고대 시베리아어 ‘칸(Кан)’이 결합되어 ‘아버지의 강’, ‘노인의 강’이란 뜻을 가진다는 설이 있다.

두 번째, 하카스어로 ‘아바’는 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꿈의 강’이라는 의미라는 설이다. ‘꿈의 강’이란 의미는 전설에서 유래했는데, 옛날 이 지역에 아바칸(꿈의 피, 꿈의 왕)이라는 전사가 살았다. 아바칸강의 원래 이름은 아라이르트(Алаирт)였는데, 아바칸 전사의 말은 조금도 물에 닿지 않고 이 강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전사가 이 강을 건널 때 말이 한번에 뛰어넘지 못하고 강에 전사를 빠뜨렸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 강을 아바칸이라고 불렀다.

세 번째, 또 다른 전설에서 옛날 어느 날 ‘아바’라는 거대한 꿈이 하카스 땅에 나타나 가축을



아바칸강

죽이고 사람을 공격해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고 한다. 그러자 ‘알리프’라는 전사가 이 꿈을 잡으려 나서서 서로 쓰러뜨리려고 오랫동안 싸웠다. 결국 꿈은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갔고 전사가 꿈을 뒤쫓아 결국 상처를 입은 꿈이 쓰러졌다. 전사가 꿈이 쓰러진 자리에 쫓아가보자 이미 꿈이 큰 산으로 변해버린 후였고 산에서는 큰 물줄기가 쏟아져 나와 산 아래에서 강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강을 ‘꿈의 피’라고 주민들은 부르기 시작했다.

● 다국어 표기 Абакан(러시아어), نهر أبكان(아랍어), 阿巴坎河(중국어)

● 연관 검색어 아바칸, 하카스어

● 참고문헌(온라인) 아바칸의신화와 전설

<http://gorod.abakan.city/common/myths/>

아바칸

<https://bigenc.ru/geography/text/660117>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1, гл. ред. С.Л. Кравец, 2005. 8.

I E039 | 아바칸 투르크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Abakan Turk

아바칸 투르크는 몽골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의 미누신스크 분지 주변에 사는 투르크 민족을 제한적으로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또한 아바칸 강이나 아바칸 초원의 명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는 다른 투르크계 민족들과 함께 하카스인(хакасы)의 범주에 포함된다.

아바칸 투르크의 조상은 예니세이 키르기스(енисейские кыргызы)로 추정된다. 하지만 ‘채드윅’(N. Chadwick)은 ‘빌헬름 라들로프’(Радлов)의 자료에 근거해 예니세이강 상류 계곡과 초원지역, 사얀산맥(Саяны) 사면에 살았던 투르크인들을 모두 아바칸 투르크로 지칭하면서, 아바칸 초원의 여러 민족과 긴밀한 문화적, 혈연적 관계를 맺는 아바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욱이 채드윅은 오비강과 이르티시강 유역의 토볼 타타르(Tobol Tatar)까지도 아바칸 그룹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니 아바칸 투르크 또는 아바칸 타타르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민족 명칭이라기보다는 카자흐, 키르기스, 알타이, 타타르 같은 민족들과의 혈연적, 문화적(구비문학, 서사시) 기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조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바칸 튀르크
- 다국어 표기 Абаканские тюрк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바칸 강, 하카스인, 빌헬름 라들로프, 키르기스인, 아바칸
- 참고문헌(오프라인) Chadwick, N. K., Zhirmunsky, V., & Zhirmunskii, V. M., Oral Epics of Central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8, 2010.

I E040 | 아베스타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조로아스터교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vesta

『아베스타』는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으로 아베스타어로 문자화되기 이전부터 구전으로 전승되어 내려왔으며 대략 B.C. 1000년 전 호라즘 지방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베스타에 묘사된 지리 정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그드, 메르브, 발흐, 아랄해와 아무다리야강 등 언급되는 지명과 그 밖에 아베스타에 추가된 다양한 종교적 전통, 윤리, 법적 규칙 등의 내용이 아베스타를 종교적 작품으로 체계화하려 했던 조로아스터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책으로 만들어진 아베스타는 B.C. 7세기에 아케메네스 왕조 도서관에 소장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 사본은 소멸되었다고 한다. 그 후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작품을 모아 21권으로 복원되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누락된 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아베스타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적 관념을 바탕으로 한 아후라 마즈다와 아리만의 전쟁과 투쟁, 그들의 전쟁으로 인한 인생의 다양한 변화, 부활론을 비롯하여 조로아스터와 영웅에게 바치는 찬송과 시문,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 기도문과 축문이 담겨있다. 특히 『벤디다드(Vendidad) 경전』에는 조로아스터 의례와 민법, 최초의 인간 이마(Yima)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후대에 이르러 우즈베크, 중앙아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인들의 고대 사회와 경제적 삶, 종교적인 견해, 세계관, 관습 및 영적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취급되고 있다.

1991년 우즈베키스탄 정부 주도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아베스타 창조 2,700주년’을 기념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직접 아베스타와 관련한 국제 학술행사와 축제 등이 개최되기도 했다. 이후 아베스타의 문화 및 종교사에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한 결과 위의 결의에 기초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특별 결의안(2000년 3월 29일)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아베스타의 2,700주년 기념행사로 2001년 10월에 우즈베키스탄 국제 컨퍼런



아베스타 기념탑 (Urgench, 우즈베키스탄)

스 및 축제가 개최되었다.

- 다국어 표기 Avesto(우즈베크어), Avesta(튀르키예어), Avesta(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ағдуллаев. А.С., *Қадимги Ўзбекистон илк ёзма манбаларда*, Тошкент, 1997.
Кадыров, М., *Отрывки из Авесты (перевод),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общественно-философской мысли в Узбекистане*, Тошкент, 1976.
Маковельский, А., О., *Авеста*, Баку, 1960.

I E041 | 아부 만수르 알 마투리디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bu Mansur al-Maturidi

하나피 학파의 3세대-4세대 학자 중 하나인 ‘아부 만수르 알 마투리디’(Abū Manṣūr Muḥammad b. Muḥammad b. Maḥmūd al-Ḥanafī al-Māturīdī al-Samarḳandī)는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외곽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844년, 852년, 9세기 전반, 9세기 중반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사망 연도 역시 대략 944년, 10세기 전반 또는 중반 등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대략 100년 가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애뿐만 아니라 출신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된 바가 없다. 일각에서는 마투리디의 출신 민족, 아랍인, 페르시아인, 투르크인이라는 각각의 주장이 있기는 하나 어느 쪽도 진실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하나피 학파의 학자들로부터 스무 살 때까지 교육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를 가르친 스승 중 이름이 명확히 알려진 인물로 ‘아부 바크르 알 주즈자니’(Abū Bakr al-Jūzjānī)와 ‘아부 나스르 이반 알 이야디’(Abū Naṣr Aḥmad b. al-‘Abbās al-‘Iyādī, 874년 ~892년)가 있다.

마투리디는 특히 교리 연구(Kalam), 코란 해석, 이슬람 법학, 종단의 역사 등에 대한 연구로 업적을 남겼다. 그는 기존의 한발리 학파의 아샤리 학파와 대조적으로 트란스옥시아나 지역과 발흐 지역에서 발전시킨 하나피 학파의 교리를 전수하고 정교화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그의 사상은 이성을 중시하며, 종교의 우월성과 정당성은 증거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과 모순되지 않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으며 알라의 유일성과 통합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간이 코란을 현실에 맞추어 해석 가능하다고 보기도 했다.

그가 주장한 다른 사상적 기초는 믿음(imān)과 종교적 행위(a‘māl)의 구분에 대한 것이었다. 마투리디에 따르면 믿음은 내적 동의이고, 행위는 믿음의 일부가 아니다. 이런 믿음(imān)에 대한 정의를 제외하고 그의 사상은 대부분 무타질라파의 영향을 받았으며, 기술적인 개념이나 정의는 오히려 아샤리 학파에 가깝다.

마투리디는 무타질라파의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인간은 알라에 대한 지식을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으며, 계시와는 별개로 이성적으로 알라께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란에서 알라에 대한 의인화된 표현의 은유적 해석을 허용해도 된다고 보았으며, 코란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타질라파와는 그 반대 입장에서 지식이나 힘과 같은 신성한 속성은 알라의 본질 속에서 영원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고로 행위 역시 똑같이 영원하며 신성한 본질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예정에 관해서도 무타질라파나 아샤리파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며, 사람에게에는 자유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행위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저서 중 『유일신교의 책(Kitab al-Tawhid)』에는 이슬람 신학에 대한 그의 사상이 담겨 있으며, 이는 수니파 고전의 고전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에서의 이슬람 사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투르크인에게 하나피 학파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투리디, 아부 만수루 알 머투리디, 마튀르디
- **다국어 표기** Əbu Mansur əl Matüridi(아제르바이잔어), Abu Mansur al-Moturidiy(우즈베크어), Mâtürîdî(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Özen, Şükrü; Bekir Topaloğlu, “MÂTÜRÎDÎ”,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8, Ankara: TDV, 2003, pp.159~165.
Madelung, W. “AL-MATURIDI”, *Encyclopaedia of Islam* VOI. VI (ed:C. E. BOSWORTH, E. VAN DONZEL, B. LEWIS AND CH. PELLAT) Leiden; E.J.Brill, 1991, pp.846~847.

Ⅰ E042 Ⅰ 아부쉬카 사전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사전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Abuşka Lugati

아부쉬카 사전은 16세기 오스만 투르크어로 작성된 사전으로서, 대략 3,027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언제, 누구에 의해 집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아부쉬

카(Abuşka)는 ‘과부’, ‘늙은 여인’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아부쉬카 사전이라는 명칭 이외에도 Abuşka der Lugat-ı Çağatay, Lugat-ı Nevâî, Lugat-ı Mevlânâ Nevâî, Lugat-ı Mîr Ali Şîr Nevâî, el-Lugat alâ lisâni Nevâî, el-Lugatü'n-Nevâiyye ve'l-iştihâdâtü'l-Çağatâiyye, Kitâbü'l-Lugat fî lisâni Çağatay, Kitâbü Lugati Çağatay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아부쉬카 사전은 알리셰르 나버이를 포함하여 뤼트피(Lütfi), 미르 하이다르(Mir haydar), 바부르(Babür), 휘세인 바이카라(Hüseyn Baykara), 우베이드 미르자(Ubeyd Mirza) 등의 작품들에 사용된 투르크어 단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의 모든 단어는 아랍어 문자 체계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각 글자의 최상급, 약칭 등과 같은 특징들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모음 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a-e, ı-i, o-ö, u-ü 발음이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명사의 기본형, 동사의 부정사형으로 나타나 있지만 간혹 동사의 경우 굴절된 형태(활용형)도 발견된다.

필사본은 가장 오래된 1560년 판본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판본들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된 첫 연구는 1862년 ‘아르민 밤베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후 1869년 ‘벨리아마노프-제르노프’에 의해서 프랑스로 번역되었으며, ‘베심 아탈라이’에 의해서 튀르키예에서도 연구되었다. 특히 베심 아탈라이는 아랍 문자 순서대로 번역을 했으며, 이후에 라틴 문자 순으로 아랍 문자 체계를 재정비하여 구성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부쉬카 루가티

● 다국어 표기 Abuşka der Lugat-ı Çağatay, Lugat-ı Nevâî, Lugat-ı Mevlânâ Nevâî, Lugat-ı Mîr Ali Şîr Nevâî, el-Lugat alâ lisâni Nevâî, el-Lugatü'n-Nevâiyye ve'l-iştihâdâtü'l-Çağatâiyye, Kitâbü'l-Lugat fî lisâni Çağatay, Kitâbü Lugati Çağatay(차가타이 투르크어)

● 연관 검색어 오스만 투르크어, 아르민 밤베리, 베심 아탈라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05.

Caferoğlu, Ahmet. *Türk Dili Tarihi*, İstanbul, 1974, II, 224~225.

Eren, Hasan. “Çağatay Lugatleri Hakkında Notlar”, *DTCFD*, VIII/1-2 1950, s.145~163.

I E043 | 아불거지 바히디르 칸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bulg'ozzi Bahodirxon

‘아불거지 바히디르 칸’은 1603년 8월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샤이버니이 칸’의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의 아버지는 아랍 무함마드 칸(Arab Muhammad I, 재위: 1603년~1621년)으로 ‘호라즘 우즈베크 칸’의 조상인 ‘웃거르 칸’의 넷째 아들의 손자이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웃거르 칸’의 자손인 미흐르 바누 하툼(Mihr Banu Hatun)이므로 결국 그의 부모 양쪽 모두가 칭기즈 칸의 후손인 셈이다.

아버지 ‘아랍 무함마드 칸’이 서(西) 시베리아로 가서 우르겐치를 침략한 러시아인들을 섬멸한 직후에 태어났기에 아불’거지’(영문표기: Abu-al ‘Ghazi)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1620년 카스 지역 총독으로 근무하는 동안, 아불거지 칸의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아불거지는 아버지 편에 선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버지가 패배해 사망하게 되면서 아불거지는 부하라 칸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약 2년간 아불거지 칸은 약 사마르칸트에서 머물렀고, 이후 사파비 조의 이스파한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망명 생활 도중 그의 형이었던 ‘아스판디여르 칸’(Asfandiyor xon, 재위: 1623년~1643년)이 히바 칸국의 제위에 오르면서 자신에게 협조했던 아불거지에게 우르겐치의 통치자 직을 준다. 이후 아불거지는 우르겐치에서 3년을 머물렀는데 형인 아스판디여르 칸이 위구르와 나이만의 지도자들을 살해하자, 부족이 찾아와 아불거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반란을 제안했다. 그렇게 아불거지 칸은 형과의 전쟁을 시작하지만 곧 패배하고 또 다시 카작 칸 에شم칸(Eshimkhan)에게 도피한다.

하지만 1626년 타슈켄트 칸이었던 ‘투르순 칸’(Tur-sunxon)의 초청으로 타슈켄트에 2년간 머무른 후에 부하라로 떠났다. 그리고 1629년 아스판디여르 칸이 히바를 비웠던 순간을 이용해 다시 히바를 공략한다. 안타깝게도 이 공략은 아스판디여르 칸의 귀향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 그는 체포되어 사비피 조에 보내진다. 다행히 사파비 조의 샤 사피(Shah Safi, 재위: 1629년~1642년)는 아불거지를 잘 대접했으며 이스파한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그에게 주기도 했

다. 그렇게 아불거지는 사파비 조에서 10년을 보내고 1639년 탈출에 성공했다.

탈출 이후 그는 투르크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 사이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1642년 시작된 망명 생활이 1년여 정도 지났을 때 아스판디여르 칸이 사망하게 되고 그는 우르겐치에서 스스로 칸으로 천명한다. 그러나 히바를 ‘나드르 무함마드 칸’(Nadr Muhammad xon, 재위: 1642년~1645년)의 아들인 카슴 술탄이 차지한다. 이로 인해 아불거지는 나드르 무함마드 칸의 사망 후 부하라 군대가 히바에서 퇴각할 때까지 줄곧 왕좌를 위한 투쟁을 계속했다.

그리고 1645년 아불거지는 마침내 히바 칸국의 칸이 되어 그다음 해에 투르크멘 지도자 2천여 명을 죽여 투르크멘 부족과 불화를 일으킨다. 이후로도 여러 투르크멘 부족들과의 전쟁이 계속되었고 1649년, 1653년, 1656년, 계속되는 칼미크인들의 침략과 1655년, 1662년 부하라 칸국의 공격에도 맞섰다. 1663년 아들에게 왕위를 양위한 후 사망한다.

아불거지는 망명 생활을 다양한 국가에서 한 만큼 경험과 지식이 풍부했으며, 사파비 조에서 머물렀던 10년 동안 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를 공부했다. 또한 칼미크 칸 곁에 머물 때는 몽골어도 배워서 이를 바탕으로 두 권의 역사서, 『투르크멘의 계보(Shajara-i Tarākima)』, 『투르크인의 계보(Shajara-i Turk)』를 집필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불가지 칸, 에빌가지 바하디르 한, 아불가지 한
- 다국어 표기 Abulg‘ozi Bahodirxon(우즈베크어), Ebülğazi Bahadır Han(튀르키예어), Abu al-Ghazi Bahadur(영어)
- 연관 검색어 투르크멘의 계보, 투르크의 계보
- 참고문헌(오프라인) Adle, C.; Irfan Habib; K M Baïpakov; *History of civilizations in Central Asia. v.5 Development in contrast : from the sixteenth to the mid-nineteenth century*, New Delhi : Motilal Banarsidass Publications, 2004.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Cilt 8, Ankara:Yeni TürkiyeYayınları, Ankara: 2002, pp.957~1045.
Kafalı, Mustafa. “EBÜLGAZİ BAHADIR HAN”, *İslam Ansiklopedisi*Cilt 10, Istanbul: TDV, pp.358~360.
Tekin, Feridun. “Hive Hanlığı”, *Türkler*Cilt 8, Ankara:Yeni TürkiyeYayınları, Ankara: 2002, pp.1102~1114.

I E044 | 아불파즐 알라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인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bu'l-Fadl 'Allami

‘아불파즐 알라미’(Abu'l-Fadl 'Allami)는 ‘아불 파즐 이븐 무바라크’(Abu'l-Fazl ibn Mubarak)라고도 알려진 인물로 1551년 아그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은 ‘샤 무바라크’(Sah Mubarak)다.

알라미는 처음 아랍어로 교육을 받기 시작한 이후 다섯 살에 이미 글을 쓸 줄 알게 되었으며, 그의 아버지가 알라미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일찍부터 능력이 뛰어났던 알라미는 1574년 궁정으로 들어가 ‘악바르’(Akbar, 재위: 1556년~1605년)를 모시기 시작했으며 이후 왕의 친구이자 고문 역할을 수행하며 버부르 조 무굴 제국을 강화하고 국경을 확장하는데 크게 큰 기여했다.

일례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매기는 세금을 비롯한 각종 세금을 없애 악바르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 일로 악바르는 알라미에게 ‘국가의 신뢰할만한 관리인(Mu'tamani davla)’이라는 호칭을 하사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샤 무바라크’, 형 ‘샤 파이지’(haikh Abu al-Faiz ibn Mubarak)와 함께 악바르의 종교적 평등 정책을 지지하며 1580년 모든 종교와 신앙의 동등함을 밝힌 이론인 『평화의 원칙(Sulh-I-Kul)』을 발표한다.

그 외에도 역사 및 철학적 작품을 저술했는데 그의 작품 중 『악바르나마(Akbarnama)』가 특히 유명하다. 이 책에는 악바르 정부의 국가 관리, 행정 구조,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당대의 국제 무역 및 외교 관계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어서 당시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그는 『마하바라타』와 같은 작품 일부분을 페르시아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차 자한기르(Jahangir, 재위: 1605년~1627년) 황제가 될 살림 왕자에 의해 1602년 데칸(Deccan)에서 돌아오는 길에 암살을 당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불 파즐
- 다국어 표기 Ebü'l-Fazl el-Allâmi(튀르키예어), Abu'l-Fazl ibn Mubarak(영어), Abulfazl Allomiy(우즈베크어)



『악바르나마(Akbarnama)』를 발표하는 아불파즐 알라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f/f1/AbulFazlPresentingAkbarnama.jpg/800px-AbulFazlPresentingAkbarnama.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Низомиддинов, И., Абу···лфазл Алломий. Тошкент: Узбекистон, 1982.

Берк, Q. C. M., Акбар – Бобурийларнинг энг буюги. Тошкент: Mumtoz soʻz, 2009.

Konukçu, Enver. “EBÜ’İ-FAZL el-ALLÂMÎ”,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0, İstanbul: 1994, pp.313~314.

I E045 | 압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유형 소분류2 종교집단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ABDAL

본래 ‘압달’이라는 단어는 이슬람 성자(Awliyā’)의 여러 범주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단수형으로는 Badal(بدال)이며, 그 의미는 ‘대리인’이다.

10세기에 형성된 고전 시기 수피 교리에 의하면 압달은 한 예언자가 사망하고 다음 예언자가 도래하기 전까지의 과도기에 신에게 선택되어 세상에 온 성자이다. 그들의 역할은 세상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질서와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래서 늘 일정 수가 고정되어 있다. 다만 그 수는 학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이븐 한발’은 40인, ‘이븐 아라비’는 7인이라고 했다.

이슬람 성자에 관해 가장 널리 알려진 통설에 따르면 성자는 10단계로 구분되는데, 우선 세계의 축인 ‘쿠틱’(Qutb)과 2인의 ‘조력자’(al-Imāmān), 5명의 ‘기둥’(Awtād), 7명의 ‘독보적인 이들/독실한 자들’(al-Afrād/al-Abrār)이 있다. 그다음에 5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압달’이며 그 수는 40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70명의 ‘훌륭한 이들’(al-Nuzabā), 300명의 ‘수장’(al-Nuqabā), 500명의 ‘군사’(al-’Aṣā’ib), 수많은 ‘현자들’(al-Ḥukamā’)이 있다는 것이 일반 무슬림의 단계이다. 이러한 누층 구조의 성자들은 지역마다 존재하며, 만일 한 단계의 존재가 비게 될 경우 그 하위 계층에서 발탁되어 상위 계층을 채우게 된다. 오스만에서 할바티야 등 여러 다르비시 종단에서는 이 용어를 다르비시를 가리키는 데 쓰기도 한다.

이러한 관념은 중-서 아나톨리아에 거주하는 튀르키예 다르비시 종단인 ‘압달’(Abdals of

Rum)의 명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집단으로서의 ‘압달’은 이슬람권, 그중에서도 투르크인들에 의해 형성된 수피 종파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성향을 띠는 칼란다르, 하이다르 등과 같은 다르비시 집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칼란다르의 시조인 ‘자말 앓 딘 사비나 하이다르’의 시조인 ‘쿠틀 앓 딘 하이다르’와 달리, ‘압달’ 종단의 유명 인물인 ‘오트만 바바’(Ozman Baba, d.1478)는 이 집단의 창시자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특정 투르크 집단을 결속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과 관행을 체계화시켜 ‘압달’이라는 종교 집단으로 재탄생시킨 인물이었다.

그는 아미르 티무르 재위 시기인 14세기 후반에 호라산에서 아나톨리아로 이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후 자신이 이끄는 수백명의 다르비시를 이끌고 북서 아나톨리아와 발칸 등지의 산지를 떠돌면서 생활했다. 그의 교리 중에 성자(Saint)가 예언자(Prophet)의 목자라는 점, 즉 성자가 예언자의 예언을 영속화하고 그 유효성을 확립하는 보증인이므로, 성자를 부정하는 것은 곧 불신의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은, 성자의 한 부류를 의미하는 ‘압달’이라는 단어의 동명어의 개념과 연결되어 보이기도 한다. (‘압달’은 이슬람권에서 신실함으로 인해 신에게 선택된 ‘신의 벗’[Awliya], 성인의 범주 중에 하나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는 무함마드 단계에서 ‘예언자의 순환’(Cycle of Prophecy)이 끝나고, 그의 사위이자 사촌인 알리부터 ‘성자의 순환’(Cycle of Sainthood)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알레비 종파를 비롯한 여러 급진적 수피 종파에서 받아들여지는 교리이기도 하다. 그는 성자를 미치광이(Diwāna) 성자와 다소 점잖은, 합법적인(Mashrū) 성자라는 두 부류로 구분했는데 그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성자의 본성에 자연의 네 요소(불, 공기, 물, 흙)이 우위를 점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치광이’ 성자가 샤리아의 적용을 받는 ‘합법적인’ 성자보다 더욱 우월하다고 보았고, 참 성자는 인간성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류라고 보았으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수피 스승들(핫지 벡타시 등을 제외)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편 극도의 청빈을 강조했다.

그는 신과의 합일 이론에 있어서도 상당히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은 만물에 나타나며, 특히 모든 인간에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 이사야, 모세, 아담 및 신 자체까지도 동일한 존재라는 주장이기도 했다. 그렇게 만물이 신을 반영한다는 그의 내재론(Immanentism)적인 이론은 다소 특이한 언행을 유발하기도 했는데 그는 15세기 중반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드 1세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의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그를 추종하는 ‘압달’ 종단 추종자들은 신체 변형, 특정한 의상 코드, 탁발 행위, 음악과 춤 등을 종교 의식에 이용하는 전형적인 다르비시 무리였다. 그들은 펠트로 된 의상에 나무 벨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체인데다 머리와 얼굴은 면도하고 맨발로 다녔다. 그들의 어깨에는 손도끼와 곤봉이 있었으며, 벨트 아래에 가죽 파우치를 달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부싷돌과 헤시시가 담겨있었다. 그리고 노란 스푼과 탁발을 위한 그릇, 탬버린이나 북, 호른 등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다녔다. 그런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17세기 초반까지 다른 다르비시 집단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집단이었으나, 이후 점차 오스만 제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벡타시 집단의 강한 네트워크에 점차 합병되며 일부로만 남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브달

● 다국어 표기 ابدا(페르시아어), Abdal(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다르비시, 벡타시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abdal>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amustafa, A.T., *God's Unruly Friends : Dervish Groups in the Islamic Middle Period 1200-1550*, Oxford: Oneworld, 1994.

Kissling, H. J., "ABDĀL," *Encyclopaedia of Islam* 1, Leiden: Brill, 1986, pp.94~95.

Nicholson, R. A., *The Mystics of Islam*, ROUTLEDGE, 1914, pp.124~125.

Zarrinkoob, A., "Persian Sufism in Its Historical Perspective," *Iranian Studies* 3-3, 1970, pp.139~220.

I E046 | 압데스트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행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Abdest

압데스트는 이슬람교에서 무슬림들이 예배 전에 행하는 소정례를 가리키는 튀르키예어로 페르시아어 압다스트(abdast)에서 온 말이다. 페르시아어에서 ‘압’은 물, ‘다스트’는 손을 뜻하며 아랍어로는 우두(wudu)라고 한다.

『코란』 5장 6절에는 예배하기 전에 얼굴을 씻고, 팔꿈치까지 양 손을 닦으며, 머리를 쓰다듬고, 양 발목까지 다리를 닦으라고 가르친다. 이슬람교에서 세정례는 대소의 두 형식으로 나뉘는데 압데스트는 소정례로 예배 전에 일상적인 더러움을 씻는 것이다. 만일 성행위 후처럼 몸에서



압데스트 모습(이stanbul, 튀르키예)

체액이 나오는 등 부정의 상태일 경우 반드시 대정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정례를 한 후 예배 전에 다시 소정례를 해야 한다. 소정례는 물로 하나, 물이 없을 경우에는 모래나 흙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를 ‘타얌뭉’이라고 한다. 법학파마다 씻는 부위의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머리, 얼굴, 코, 입, 손, 팔, 발을 씻는다.

튀르크어 계통에서는 아랍어 타하라(Tahara)에서 파생된 말을 소정례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타하라는 할례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결례를 뜻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브데스트

● 다국어 표기 Destamaz(아제르바이잔어), Tahorat(우즈베크어), Taharat(위구르어), Taharet(투르크멘어), даарат(키르기스어), дәрәт(카자흐어), Abdest(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주마, намаз, 율레 намаз, 이킨디 намаз, 악시암 намаз, 앓스 намаз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6fmpnQO0d9o><https://www.youtube.com/watch?v=fZhlFrSgKJI&list=PLUHxQvKEP2jkmZ-2EXvhujFlru2yZrPzS><https://www.youtube.com/watch?v=93kjPt6ajaA>

● 참고문헌(오프라인) Chaumont, E., “Wuḍū’.” In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 vol. 11, 218~219. Leiden: Brill, 2002.

Ⅰ E047 Ⅰ 압두라힘비이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bdurahimbiy

1697년 출생한 압두라힘비이는 코칸드 칸국의 건국 군주인 쇼흐루흐비이(Shohruxbiy, 재위: 1709년~1721년)의 장남으로 1721년 아버지의 사망 직후 제위를 계승했다. 제위에 오른 이후 부하라가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후잔드(Khujand), 안디잔(Andijan), 사마르칸트(Samarkand), 카타쿠르간(Kattakurgan), 지작(Jizak) 지역을 정복하여 코칸드 칸국의 국경을 확장했다. 또한 샤흐리사브즈(Shakhrisabz)의 주지사였던 올릭베그(Olimbek)의 딸과 결혼했으며 샤흐리사

브즈의 카나가스(Kanagas) 부족과 동맹을 맺었다.

그때 부족의 도움을 받아 한동안 사마르칸트에 머물렀으나 6개월 후 페르가나 지역으로 돌아와 이후 코칸드 시에 완전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의 재위 기간에 코칸드 요새(Qo'qonda qal'a)가 건설되었는데 이후 코칸드 시는 코칸드 칸국의 온전한 수도가 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는 셔흐루흐비이가 아닌 압두라힘비이가 진정한 코칸드 칸국의 건국 군주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압두라힘비이는 1734년 살해당하고 만다. 다행히 그의 아들 에르더나비이(Erdonabiy, 1720년~1764년)과 세 딸은 살아남았지만, 결국 제위를 계승한 것은 형제였던 압둘카림비이(Abdulkarimbiy, 1710년~1750년)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둘 라힘 베이, 압둘라힘베이

● 다국어 표기 Abdurahimbiy(우즈베크어), Abdul Rahim Bey(영어), Abdürrahim(튀르키예어), Абдурахимбий(타지크어), Абдурахим-бий(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코칸드 칸국, 압둘카림비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Alpargu, M.,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957~1045.

Bababekov, H. N., "The khanates of Khiva and Kokand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khanates and with other powers. Part Two: Ferghana and the khanate of Kokand",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 UNESCO, cop. 2005, pp.71~82.

Dubovitskii, V., Khaydarbek Bababekov, "The Rise and Fall of the Kokand Khanate", *Ferghana Valley : the heart of Central Asia*, London ; NewYork : Routledge, 2015, pp.29~68.

I E048 | 압둘라 바드리아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Abdulla Badriy

저명한 극작가 ‘압둘라 바드리아’(Abdulla Badriy)는 1895년에 부하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1903년 그의 아버지가 자디드운동가라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그의 가족은 부하라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이후 그의 가족은 안디잔과 사마르칸트에서 정착했다. 그리고 바드리아는 그곳에서 러시아식(Rus-Tuzem) 학교를 졸업한 뒤 교사로 활동했다.

1913년 그는 베흐부디(Behbudiy)의 출판소에서 식자공으로 일했다. 동시에 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하면서 희곡 『부친살해(Padarkush)』의 리자(Liza)역을, 『결혼식(To'y)』의 미르저(Mirzo)역을 맡아 연기했다. 그리고 곧 유럽 형식의 새로운 극단을 만들었고, 1914년~1916년에는 우즈베크인들의 과거 및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한 희곡 『주번마르그(Juvonmarg)』, 『바보(Ahmoq)』, 『의붓 아버지(O'gay ota)』, 『부자(Boyvochcha)』를 집필했다.

당시 여성의 운명과 자유는 자디드 작가들의 관심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압둘라 바드리아는 여성문제를 희곡작품에 도입한 최초의 극작가이다. 그는 연극을 통해 투르크스탄 무슬림인들의 비극이 모두 무지 때문임을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 최초로 자디드 희곡을 창시한 희곡작가 압둘라 바드리아는 1936년에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틸 바드리, 압둘라 바르이의, 아브둘라 바드리아
- 다국어 표기 Abdulla Badriy(우즈베크어), Абдулла Бадр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사마르칸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Tursunov Toshpolat, *XXasr O'zbek teatri tarixi*. Toshkent, 2009.

I E049 | 압둘라 아블러니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Abdulla Avloniy



압둘라 아블러니이 선집 표지
Source: <https://oyina.uz/storage/publications/>

우즈베크 계몽사상가, 언론인, 국가 및 사회 활동가였던 압둘라 아블러니이(Abdulla Avloniy)는 1878년 7월 12일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아블러니이는 8살에 구식학교에 입학하여 12살에 졸업한 후 마드라사에서 1895년까지 수학했다. 그리고 1905년부터 시를 집필하면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한다.

집필활동은 ‘히즈런(Hijron)’, ‘나빌(Nabil)’, ‘인다마스(Indamas)’, ‘슈흐랏(Shuhrat)’, ‘탕그리쿨리(Tangriquli)’, ‘수라이여(Surayyo)’, ‘샤파락(Shapaloq)’, ‘철(Chol)’, ‘압(Ab)’, ‘치카버이(Chigaboy)’, ‘압둘학(Abdulhaq)’ 등 여러 필명으로 많은 평론과 논문 그리고 시를 남겼다. 그리고 아랍어, 페르시아어, 러시아어를 공부한 후 사상가들의 작품들을 읽고 작품의 일부를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그는 언론활동에도 주력했다. 1907년 타슈켄트의 자신의 집에서 <수흐랏(Suhrat)>이라는 신문을 발행하지만 곧 폐간당한다. 그러자 다시 허가를 받아 1908년 이번에는 신문 <아시아(Osiyo)>를 발행한다. 그러나 이 신문 역시 10호 발행 후 정부에 의해 폐간 조치된다.

이렇게 되자 아블러니이는 학교를 통해 진보사상을 전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1908년 타슈켄트 시 미러버드 마할라(Mirobod mahalla)에서 지역 주민 아이들을 위해 신식 학교를 개설하고 우즈베크어와 문학을 가르쳤다. 또한 1909년에는 ‘자선사업 협회(Jamiyati xayriya)’를 조직하여 고아들을 가르쳤으며, 1912년에는 타슈켄트의 다르게즈 마할라(Dargez mahalla)에 2년제 학교를 개설한다. 이 학교는 세속학문인 신식학문을 가르쳤다. 그는 신식학교를 만들기

위해 직접 교과서와 안내문도 제작했다. 『첫번째 선생님(Birinchi muallim, 1911)』, 『두번째 선생님(Ikkinchi muallim, 1912)』, 4권으로 구성된 시선집 『문학인가, 민족시인가(Adabiyot yoxud milliy she'rlar, 1905년~1915년)』, 『굴리스턴의 학교(Maktab gulistoni, 1915)』 등이 대표적이다.

그의 대외활동은 학교 밖에서도 활발히 이어졌다. 국민의 인식 증진을 위해 연극 예술도 이용했다. 그는 1913년에 ‘투르키스탄(Turkiston)’이라는 극단의 조직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1910년~1916년에 여러 연극 작품들을 번역해 무대에 올리면서 그의 극단에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고 성장했다. 그 시기에 ‘함자’(Hamza)나 아제르바이잔의 ‘우자이르 허지베커브’(Uzayr Hojibekov), ‘루홀러’(S. Ruhullo) 같은 극작가들과도 협력했다. 그 결과 1914년~1915년에 극단은 투르키스탄의 여러 도시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이어갔다. 압둘라 아블러니이 역시 극단을 위해 「변호사 일은 쉽나요?(Advokatlik osonmi?)」, 「졸음(Pinak)」, 「두 개의 사랑(Ikki muhabbat)」, 「포르투갈 혁명(Portugaliya inqilobi)」과 같은 희곡을 집필하기도 했다.

또한 1914년에는 무나브바르커리(Munavvarqori), 무함맛전 포드셔호자예브(Muhammadjon Podshoxo'jaev), 루스탐벡 유수프베커브(Rustambek Yusufbekov), 니저밋딘 호자예브(Nizomiddin Xo'jaev), 셔키르전 라히미이(Shokirjon Rahimiy)와 같은 진보주의자들과 함께 단체 ‘출판(Nashriyot)’을 조직했고(1914년), 신문 <투르키스탄의 소리(Sadoyi Turkiston)>의 창간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동안 신문 편집자로 일했다. 이 신문에 그가 쓴 수십 편의 시를 게재했다. 이외에도 신문 <공산주의자(Ishtirokiyun)>의 편집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16년에는 ‘학교(Maktab)’라는 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압둘라 아블러니이가 발행한 또 다른 신문 <투란(Turon)>의 경우는 특히 정치와 사회 사건들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창간호부터 ‘인민공화국 만세!(Yashasin xalq jumhuriyati!)’라는 제목으로 발행하는가 하면, 제2호에서는 혁명 작가 미르무흐슨 셰르무함메더브(Mirmuhsin Shermuhammedov)가 기득권을 비판하는 ‘두 개의 역사적 사건(Tarixiy ikki voqea)’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당시 이 기사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울레마(Ulamo)’와 ‘이슬람 위원회(Shoroyi islomiya)’의 분노를 일으켰다. 위원회에서는 결국 압둘라 아블러니와 미르무흐슨을 이단자라고 공표하고 투석형을 내린다.

미르무흐슨은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무나브바르커리(Munavvar qori)는 아블러니

이에게서 다시는 신문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서약문서를 받는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문이 보이콧 당하면서 다시 논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일을 계기로 투르크스탄 내의 신문뿐만 아니라, 오렌부르크나 우파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가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면서 미르무흐슨과 아블러니이를 옹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 아블러니이는 1919년~1920년에 소비에트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정치 관련 대표 및 영사로 활동했고, 1921년에는 잡지 <노동조합운동(Kasabachilik harakati)>의 편집장도 역임했다. 그리고 신식학교 개설, 국민 교육, 우즈베크 여성 교육, 교강사 육성에 열중했다. 1923년~1924년에는 구도시(Eski shahar) 여성과 남성 교육 기관의 책임자로 일했으며, 1924년~1929년에는 타슈켄트 군인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그리고 1930년~1934년대에는 국립 중앙아시아 대학교 언어문학과 학과장 및 교수직을 역임했다. 그때 7학년생을 위해 출간했던 것이 『문학 입문서(Adabiyot xrestomatiyasi, 1933)』이다.

평생을 우즈베키스탄 계몽을 위해 헌신했던 압둘라 아블러니이는 1934년 8월 24일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둘라 아블로니이
- 다국어 표기 Abdulla Avloniy(우즈베크어), Абдулла Авлон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미르무흐신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oyina.uz/storage/publications/August2021/E7QTIT9ErXgPNoyji22w.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nasri/abdulla-avloniy-1878-1934>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va boshqalar, *XX asr o'zbek adabiyoti 11 sinf uchun darslik*, Toshkent: O'qituvchi, 1995.
Qosimov B., *Abdulla Avloniy*. Toshkent: O'qituvchi, 1979.
Qosimov va boshqalar, *Milliy uyg'onish davri o'zbek adabiyoti*. Toshkent: Ma'naviyat, 2004.

I E050 | 압둘라 알라비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Abdulla Alaviy

출판(Cho'lpon)의 절친한 친구이자 제자였던 압둘라 알라비이(Abdulla Alaviy)는 1903년 타슈켄트 프스켄트(Pskent)의 한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하비바헌 아야'(Habibaxon aya)는 당대 유명한 시인이었기에 그는 어린시절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고, 역사와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프스켄트(Pskent)에서 교육을 마쳤고, 1917년부터 타슈켄트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얼마 후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난 그는 레닌그라드(Leningrad) 대학의 동양언어학부에서 우즈베크어와 문학을 가르쳤다. 압둘라 알라비이(Abdulla Alaviy)는 독일어, 러시아, 아랍어,



압둘라 알라비이
Source: <https://ziyouz.uz/wp-content/uploads/>

페르시아어, 튀르키예어와 라틴어를 구사하는 지식인이었기에 사마르칸트의 교육 아카데미(Pedagogical Academy)에서 근무하는 동안 당대 유명 우즈베크 학자 및 작가들과 다양한 집필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다.

압둘라 알라비이는 우즈베크 고전 문학, 문학 이론과 새로운 알파벳에 대한 학술논문을 썼을 뿐만 아니라, 예술성이 뛰어난 십여 편의 시를 썼다.

1930년대에 썼던 그의 서정시는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에 큰 역할을 했다. 대표작으로는 『여행자(Yo'lovchi)』, 『자유로운 동지(Erkin sahob)』, 『아르스란보프로(Arslonbobga)』, 『바다로(Dengizga)』, 『바르머크 시스템(barmoq vazn)』, 『알퍼므쉬(Alpomish)』 등이 있다.

시인 압둘라 알라비이(Abdulla Alaviy)는 1931년 1월 8일 질병으로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둘라 알라비

- 다국어 표기 Abdulla Alaviy(우즈베크어), Абдулла Алав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크어, 사마르칸트, 출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iyouz.uz/wp-content/uploads/2013/06/abdulla-alaviy.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ziyolilari/abdulla-alaviy>
<https://aroblar.uz/uz/people/alavi-abdulla>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 *O'zbek adiblari*,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2016.

I E051 | 압둘라 어리퍼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Abdulla Orip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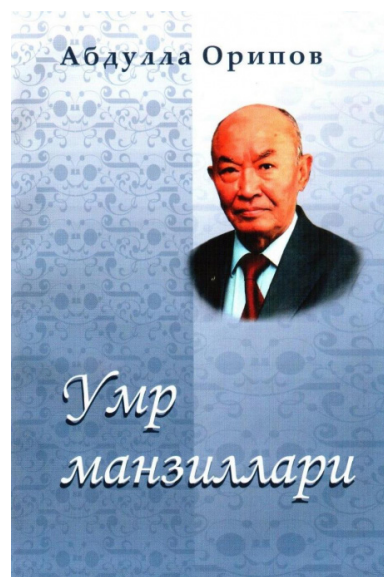
압둘라 어리퍼브(Abdulla Oripov)는 1960년대에 에르킨 워히더브(Erkin Vohidov), 어먼 마트전(Omon Matjon), 할리마 후데이베르디에바(Halima Xudoyberdieva), 어이딘 호지예바(Oydin Hojiev) 등의 작가들과 함께 우즈베크 문학계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그는 1941년 3월 21일 카쉬카다르야(Qashqadaryo)의 커선(Koson) 지역에서 태어났다. 1963년 타슈켄트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그해부터 시작해 출판사에서 1974년까지 근무했고, 1974년부터 1980년까지는 <동양의 별(Sharq yulduzi)>과 <굴한(Gulxan)> 잡지사에서 편집자 및 우즈베키스탄 작가 연합 회장을 맡았다.

압둘라 어리퍼브는 그의 스승 가푸르 굴람(Gafur Gulam)을 비롯하여 하미트 얼림전(Hamid Olimjon), 출판(Cholpon), 우스먼 너시르(Usmon Nosir), 미르테미르(Mirtemir), 카흐허르(A. Qahhor) 등과 같은 작가들의 영향 속에 성장했다.

그의 작품으로는 『작은 별(Mitti yulduz, 1965)』, 『너를 기다리며(Ko'zlarim yo'lingda, 1966)』, 『어머니(Onajon, 1969)』, 『샘물(Chashma)』, 『내 영혼(Ruhim, 1971)』, 『우즈베키스

탄(O'zbekiston, 1972)』, 『경약(Hayrat, 1974)』,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Yurtim shamoli, 1976)』, 『구원의 요새(Najot qa'asi, 1980)』, 『세월의 꿈(Yillar armoni, 1984)』, 『신뢰의 다리(Ishonch ko'priklari, 1989)』, 『다음 세대에 주는 편지(Avlodlarga maktub)』, 『내 생각(O'ylarim)』, 『봄(Bahor)』, 『나의 첫사랑(Birinchi muhabbatim)』, 『얼굴을 맞대고(Yuzma - yuz)』, 『오텔로(Otello)』, 『가을(Kuz)』, 『대서(Sarton)』, 『바다로(Dengizga)』, 『생명의 교훈(Hayot saboqlari)』, 『티무르의 정원(Temur bog'lari)』, 『여우의 철학(Tulki falsafasi)』, 『집필가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서(Yozuvchilikka ariza)』, 『투르군버이(Turg'unboy)』, 『철인(鐵人)(Temir odam)』, 『믿음(E'tiqod)』과 서사시 『낙원으로 가는 길(Janatga yol)』 등이 있다. 그는 작품 속에 우즈베키스탄과 우즈베크 사람들의 삶을 때로는 서정적으로, 때로는 해학과 풍자로 다양하게 담아내 고자 했다



『삶의 목표(Umr manzillari)』 표지
Source: <https://kitobxon.com/>

또한 압둘라 어리퍼브는 알렉산드르 푸시킨, 타라스 셰우첸코(Taras Shevchenko), 니자미 갠재비(Nizami Ganjavi), 카이신 쿨리에브(Kaysin Kuliev), 단테의 『신곡(Ilohiy komediya)』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리고 독립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國歌)를 작사했다. 우즈베크 문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압둘라 어리퍼브는 ‘명예 훈장’과 ‘함자(Hamza) 국가상’을 수상했다.

우즈베크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압둘라 어리퍼브는 2016년 11월 5일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브둘라 오리포브, 압둘라 오리포프
- 다국어 표기 Abdulla Oripov(우즈베크어), Абдулла Арип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가푸르 굴럼, 하미트 얼림전, 출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kitobxon.com/img_knigi/449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G'ofurov I, *She'riyat - kurashchanlik demak*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Toshkent, 1984.

Hudoyberganov N, *Dovonlardan dovonlarga, Haqiqat yog'dulari*,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Toshkent, 1984.

Mirzayev Saydulla, Said Shermuhammedov, *Hozirgi zamon o'zbek adabiyoti tarixi* Toshkent: O'zbekiston, 1993.

Qo'shjonov M, *Onajonim she'riyat* Toshkent, 1984.

Sharafiddinov O. *She'riyat - qalb yolqini, "Hayot bilan hamnafas" kitobida*, Yosh gvardiya, Toshkent, 1983.

Vohidov R, Hoshimov M, *She'riyat - shoir - shoir yuragi*, Fan, Toshkent, 1987.

I E052 | 압둘라 카흐허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Abdulla Qahhor

우즈베크 현대 문학 작가 압둘라 카흐허르(Abdulla Qahhor)는 1907년 9월 17일 코칸트에서 태어났다. 1922년~ 1924년에는 코칸트 교사 양성 직업학교에 다녔으며, 1926년까지 코칸트 국립 콤포지션 위원회에서 일했다. 그 후 그는 타슈켄트에서 <붉은 우즈베키스탄(Qizil O'zbekiston)> 신문 편집부에서 근무했으며, 동시에 중앙아시아 국립대학교 노동자학과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대학을 졸업한 것은 1928년이다. 1934년~1938년에는 잡지 <소비에트 문학(Sovet adabiyoti)>에서 일했고, 1938년~1939년에는 함자(Hamza) 우즈베크 아카데미 드라마 극장 문학부서를 이끌었다. 1939년부터는 우즈베키스탄 국영출판사에서 편집자와 번역가로 일했다. 또한, 1935년~1953에는 출판사 '동시대출판(O'zdavnashr)'에서 편집자 및 번역가로 근무한 후 1954년~1956년에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압둘라 카흐허르는 「달이 타오를 때(Oy kuyganda)」라는 첫 풍자시를 1924년에 <주먹(Mushtum)>이라는 잡지에서 '노린 실픽(Norin shilpiq)'이라는 필명으로 게재했다. 이후 그의 풍자시와 단편소설은 잡지 <주먹(Mushtum)>과 <새로운 길(Yangi Yo'l)> 그리고 <붉은 우즈베키스탄(Qizil O'zbekiston)> 신문 등에 다양한 필명으로 게재되었다.

그렇게 그는 시로 문단에 데뷔했지만,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산문이었



압둘라 카흐허르 동상(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다. 그의 첫 산문 작품이었던 「머리가 없는 인간(Boshsiz odam, 1929)」이 성공을 거두면서 그는 그 후 장편소설, 수필, 사회정치 평론, 시평, 단편소설, 설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작품을 발표한다. 첫 소설인 「신기루(Sarob, 1937)」는 작가 자신의 창작 세계와 우즈베크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만한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1920년대 후반 우즈베크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렸다.

그 외에도 「지배 당하는 시골마을(Qishloq hukm ostida, 1932)」은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쓰였으며, 소설 「코쉬치너르의 램프들(Koshchinor chiroqlari, 1951)」에서는 공동체 이야기를 그렸다. 특히 「신찰락(Sinchalak, 1958)」, 「옛날 이야기(O'tmishdan ertaklar, 1965)」, 「사랑(Muhabbat, 1968)」과 같은 작품은 압둘라 카흐허르의 대표적인 소설 작품으로 손꼽힌다.

그리고 1950년대에 접어들며 압둘라 카흐허르는 희곡을 집필하기 시작한다. 당대 문제 중 하나였던 토지 개발과 관련한 작품 「새로운 땅(Yangi yer, 1949~1953)」은 주목을 끌었다. 그는 이



압둘라 카흐허르 박물관
Source: <https://qahhor.uz/ru/glavnaya>

작품에서 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일부 사람들 머릿속 생각을 새롭게 개간하는 일에 비중을 두며, 전후 우즈베크 문학에서 자주 다루어졌던 개혁과 보수의 갈등을 묘사했다. 그의 희곡은 능숙한 유머와 풍자를 이용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작품이 해외에서도 상연되자 작가는 희곡 집필에 몰입했다. 대표적인 희곡은 「아픈 치아(Og'riq tishlat, 1954)」, 「관(棺)에서 나오는 소리(Tobutdagi tovush, 1962)」 등이다. 특히 「관(棺)에서 나오는 소리」는 당대 사회문제들을 풍자와 해학적으로 폭로한 작품이다.

그 밖에도 압둘라 카흐허르는 꾸준히 푸시킨, 톨스토이, 고골, 체호프의 작품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반대로 그의 작품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타지크어, 카라칼팍어로 번역되기도 했다. 그중 일부 작품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체코어, 폴란드어, 불가리아어, 루마니아어, 아랍어, 힌디어, 베트남어 등으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압둘라 카흐허르의 단편소설집 한국어 번역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출판되었다.

그는 1966년 ‘함자(Hamza) 상’을 수상했고, 1968년에 ‘우즈베키스탄 국민작가’ 칭호를 받았

다. 그러나 그는 같은 해 치료받으러 갔던 모스크바에서 사망했다. 사망 후 2000년에는 국가 공로 훈장을 받았다. 타슈켄트와 코칸트에는 작가의 이름을 딴 거리와 학교, 문화의 집, 극장이 있고, 타슈켄트에는 압둘라 카흐허르 박물관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둘라 카호르
- 다국어 표기 Abdulla Qahhor(우즈베크어), Абдулла Қаҳҳа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신기루, 신찰락
- 참고문헌(오프라인) Qahhor Abdulla, *Asarlar olti tomlik*, Toshkent: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67.
Sharafiddinov O., *Abdulla Qahhor*, Toshkent: Yosh gvardiya nashriyoti, 1988.
Karimov Naim, *XX asr adabiyoti manzaralari*, Toshkent: O'zbekiston, 2008.

I E053 | 압둘라 칸 2세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bdullaxon II

‘압둘라 칸 2세’는 부하라 칸국 샤이바니 조 이스칸다르 칸(Iskandarxon, 재위: 1561년~1583년)의 아들로 1534년 사마르칸트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곧 이스칸다르칸의 사망으로 제위 다툼이 일어났고, 압둘라흐 칸 2세는 발흐(Balkh)의 주지사이자 삼촌이었던 피르무함마드(Pirmuhammad, ?~1567년)의 도움을 받아 제위에 오르게 되었다.

제위에 오르기 전 1561년~1583년에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발흐, 부하라를 통일하는 데 성공했다. 제위에 오른 이후에도 중앙 권력을 집중시켜 지방 권력이 크지 못하도록 했으며, 초원 지역의 유목민들이 샤이바니 조가 진행하는 전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타슈켄트를 통치했던 나브루즈 아흐마드칸(Navruz Ahmadkhan, 재위: ?~1556년)의 아들 버버 술탄(Bobo sulton)이 늘 원정에 방해가 되자 결국 1582년 버버 술탄을 살해했다. 그 외에도 사파비

조와의 전쟁도 지속적으로 일으켜 호라즘의 주요 지역을 차지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 부하라 칸국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무굴, 오스만, 러시아와는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대내외적인 전쟁 이외에도 금융, 산업, 농업, 및 사회 분야에서 여러 개혁 정책을 펼쳤다. 특히 마드라사, 대상 숙소, 시장, 저수지, 다리와 같은 대형 건축물 건설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정작 그가 짓지도 않았던 건축물까지도 이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오인할 정도였다. 그밖에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많은 문학인을 후원하기도 했고, 그 자신 역시 ‘칸(Xon)’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1598년 그가 사망한 후 왕좌는 아들 ‘압둘모민 칸’(Abdulmo‘minxon, 재위: 1598년)이 이어받았지만 곧바로 사망했고, 그 뒤를 이은 ‘피르무함마드 2세’(Pirmuhammad II, 재위: 1598년~1599년)도 금새 사망하여 부하라 칸국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압둘라 칸 2세가 제위 전쟁 당시 샤이바니 조의 주요 인물을 모두를 이미 제거하여 왕좌를 이을 마땅한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부하라 칸국의 샤이바니 조는 끝나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둘라 한 2세, 압둘라 칸 2세

● 다국어 표기 Abdullaxon II(우즈베크어), Abdullah Khan II(영어) II. Abdullah Han(튀르키예어), II Abdulla xan Seyban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샤이바니 조, 부하라 칸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957~1045.

Gündoğdu, Abdullah. “Şiban Han Sülalesi ve Özbek Ulusunun Teşekkülü”, *Türkler* 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1046~1066.

Mukaminova, R.G. “The khanate (emirate) of Bukhara, Part One: The Shaybanids”,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 UNESCO, cop. 2005, pp.33~44.

I E054 | 압둘라 칸 티미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상가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bdullaxon Timi

‘압둘라 칸 티미’ 또는 ‘압둘라 칸’(Abdulla Khan)은 1577년 샤아바니 조의 ‘이스칸다르’(Iskander bin Jani Beg, 재위: 1561년~1583년)의 명령으로 건설된 상가이다. 압둘 아지즈 칸 마드라사(Abdul Aziz Khan madrasa, 1652년)와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Ulugh Beg madrasa, 1417년~1420년)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압둘라 칸 티미의 또 다른 이름은 ‘티미칼란’(Tim-i kalya)으로 ‘위대한 시장’이라는 뜻이다.

팀(Tim)은 지붕이 있는 시장으로 도로 옆에 건설되며, 교차로에 건설된 돔형 시장 타크스(taqs)과 구별한다. 이곳은 주로 비단이 거래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형태는 40mx40m의 정



압둘라 칸 티미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사각형이며 도로 쪽을 향한 서쪽 면에 세 개의 입구가 있는데 다른 세 개의 면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입구가 있다. 건물 중앙의 팔각형의 홀은 돔형 지붕으로 덮여 있으며 건물 모서리에 네 개의 보조 방이 있다. 보조 방에서 팔각형 중앙 홀로 이어진 통로가 있으며 통로를 따라 각기 다른 작은 상점으로 연결되어 있다. 둥근 천장은 중앙 돔을 중심으로 19개의 큐폴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돔에는 채광을 위한 8개의 명층(明層)이 있다. 그리고 랜턴 형의 탑에 중앙 입구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는 장식은 거의 없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꾸며졌으며 현재는 카펫 상점이 들어서 있는데, 부하라의 유네스코 지정 역사 지구에 포함되어 보호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둘라한 티미
- 다국어 표기 Abdullaxon Timi(우즈베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87152/medium/IAA100276.jpg?1387233741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d/df/Abdullakhan_Tim.jpg/1024px-Abdullakhan_Tim.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2451>
- 참고문헌(오프라인) Borodina, Iraida. *Central Asia: Gems of 9th-19th Century Architecture*, 130. Moscow: Planeta Publishers, 1987.
Prochazka, Amjad Bohumil. Bukhara: *Architecture of the Islamic Cultural Sphere*, 46. Zurich: MARP, 1993.

Ⅰ E055 Ⅰ 압둘라 커드리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Abdulla Qodiriy

20세기 현대 우즈베크 소설의 창시자라고 손꼽히는 압둘라 커드리이(Abdulla Qodiriy, 필명: 커드리이 줄쿤보이)는 1894년 4월 10일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칸(xon)과 베크(bek)의 군(軍)으로 1865년 제정 러시아 침공 당시 타슈켄트 방어에 참여했던 아버지 커드

리이버버(1820년~1924년)가 어린 시절 그에게 들려준 경험과 모험담들이 훗날 그의 소설 집필에 큰 기반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압둘라 커드리는 무슬림 학교(1904년~1906년)와 러시아식 학교(1908년~1912년), 압둘커심 샤이흐(Abulqosim shayx) 마드라사(1916년~1917년)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후 1925년부터 1926년까지는 모스크바에서 문학과정을 이수했다. 하지만 1917년 10월 혁명 이후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자 압둘라는 일을 시작했고,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된다. 그는 지역 상인의 비서 및 영업사원을 거쳐 구도심(Eski shahar) 식품위원회 소장(1918년), 신문 <식품업>(Oziq ishlari)의 편집자(1919년), 노동조합(kasabalar sho'rosi) 사무장(1920년)과 잡지 <주먹(Mushtum)>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1926년).



『지난 날들(O'tgan kunlar)』 표지
Source: <https://kitoblardunyosi.uz/image>

1910년대 초기 압둘라 커드리의 작품들은 민족주의와 계몽정신을 강조하며, 자디드(Jadid) 이념을 반영했다. 대표작으로는 『결혼식(Toy)』, 『우리의 상황(Ahvolimiz)』, 『나의 민족에게(Millatimga)』, 『생각을 해보세(Fikr aylagin)』 등의 시집과 『불행한 신랑(Baxtsiz kuyov)』, 『주원버즈(Juvonboz)』 등의 작품집이 있다. 특히 1916년에 발표한 『울르크에서(Uloqda)』는 20세기 초 당대 사회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20세기 초기 리얼리즘 문학의 대표적 예로 손꼽힌다.

압둘라 커드리는 1919년~1920년 사이에 자신의 첫 장편소설이자 우즈베크 문학사에 첫 근대 소설인 『지난 날들(O'tgan kunlar)』을 집필한다. 이 소설은 1922년 <혁명(Inqilob)> 잡지에 연재되었으며, 이후 단행본으로 출판된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20세기 우즈베크인들이 직면했던 이데올로기 문제를 되짚어 나가며 우즈베크인들의 민족주의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했다.

1928년 2월에 완성한 『미흐러브에서 나온 전갈(Mehrobdan chayon)』이라는 소설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소설들은 외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는데 소설 『지난 날들(O'tgan kunlar)』은 1928년에 아제르바이잔어로, 『미흐러브에서 나온 전갈(Mehrobdan

chayon)』은 1935년에 타지크어로 출판되었다. 그외에도 러시아어, 카자흐어, 위구르어, 타타르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등 여러 외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밖에도 그는 타타르 물리학자 ‘압둘라 슈노시’(Abdulla Shunosiy)의 『물리학(1928)』, 고골의 『결혼(1935)』, 안톤 체호프의 『벚꽃동산(1936)』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으며, 카잔에서 출판된 『러시아어-우즈베크어 사전(To'la ruscha-o'zbekcha lug'at)』 편집에도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압둘라 커드리이는 1926년 잡지 <주먹(Mushtum)>에 실린 기고문 「요약본(Yig'indi gaplar)」이 정권을 풍자하고 비판함으로써 반(反)사회주의적 행위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결국 1937년 12월 31일 체포되어 9개월 간의 심문과 고문을 당한 후 출판(Cholpon), 피트랏(Fitrat)과 함께 1938년 10월 4일 처형되었다. 그의 사망 이후 그의 모든 작품들은 금서로 지정되었고, 그의 소설 『지난 날들(O'tgan kunlar)』을 소장하고 있던 모든 이들도 반동분자로 몰려 투옥되었다. 스탈린 사망 이후 1957년에서야 압둘라 커드리이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

1991년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 압둘라 커드리이는 사망한 후지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는 그에게 알리셰르 나비이이 국가훈장을 수여한다. 그의 이름을 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가상도 제정됐다. 타슈켄트 대학교, 타슈켄트 공원, 거리 및 공공기관들이 그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1969년, 1973년, 1996년에는 작가의 소설 『지난 날들(O'tgan kunlar)』과 『미흐러브에서 나온 전갈(Mehrobdan chayon)』이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둘라 코드리, 압될 코디리, 아브될라 코디리, 아브둘라 커드리
- 다국어 표기 Abdulla Qodiriy(우즈베크어), Абдулла Кадыр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출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kitoblardunyosi.uz/image/cache/catalog/boshqa-kitoblar/O'tkan-kunlar-kiril-1000x1000h.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oqiy N., *Qatnoma*, Toshkent: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92.
Mirvaliyev Sobir, *Abdulla Qodiriy kashfiyoti*, Toshkent: Mashhur press, 2018.
Mirzayev Saydulla, Said Shermuhammedov, *Hozirgi zamon o'zbek adabiyoti tarixi*, Toshkent: O'zbekiston, 1993.
O'zFA, *Qatag'on qurbonlari va ularning adabiyi-badiiy hamda publistik merosi*, Toshkent: Mumtoz so'z, 2015.
Qodiriy H., *Abdulla Qodiriy-ta'rif adib*, Toshkent: Abdulla Qodiriy nomidagi xalq merosi nashriyoti, 2004.

I E056 | 압둘라흐 칸 마드라사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마드라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bdullahxon Madrasasi

압둘라흐칸 마드라사는 부하라 칸국 샤이바니 조의 압둘라흐 칸(Abdullahxon, 재위: 1556년~1598년)이 1589년~1590년에 부하라 도심 남서쪽에 건설한 마드라사이다. 1566년에 건설되었던 마드리 칸 마드라사(Madari Khan Madrasasi) 건너편에 건설되었으며, 이 둘은 부하라의 전형적인 서로 마주 보는 형식으로 배치한 이중(二重) 마드라사 중 하나이다.

이 건축물은 압둘라흐 칸이 제위에 있는 동안 부하라에 건설한 많은 건축물 중 하나로써 전통적인 네 개의 이완으로 둘러싸인 중정 구조의 마드라사이지만, 남쪽 면을 바라보는 것과 달리 북쪽 및 동쪽의 정면 중앙에 돌출부가 있어 다른 마드라사와 구별된다. 북동쪽에는 네 개의 탑이 있고, 북쪽의 오각형 돌출부가 중앙 돔이 있는 방을 둘러싼 형태이다. 남쪽 면 피슈타크(Pishtaq)의 결방 옆에 교실과 모스크가 있는데 모스크는 마드라사의 남동쪽 모퉁이에 위치해 있으며, 모스크가 회전하여 키블라(Qiblah)를 보고 있다. 즉, 이 마드라사 이전에는 키블라의 위치에 따라 건물을 지었다면, 이 건물은 모스크만 회전시켜 키블라의 방향을 맞춘 것이다. 그 밖에도 통상적인 마드라사와 달리 학생 기숙사가 안뜰 주변에 위치하지 않는다. 안뜰 벽을 따라 난 좁은 통로가 기숙사로 이어진다.

마드라사의 정면은 피슈타크와 각층 마다 3개씩 있는 6개의 아치형 로지아(Loggia)와 평형을 이루고 있다. 굴다스타(타워)는 모서리를 받치고 있으며 볼트로 덮인 입구는 마즐리카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또한, 상감한 타일 모자이크와 유약을 바른 벽돌로, 16세기 티무르 조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브둘라칸 마드라사
- 다국어 표기 Abdullahxon Madrasasi(우즈베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Zlgv>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2106>



압둘라흐 칸 마드라사

● 참고문헌(오프라인) Borodina, Iraidia. *Central Asia: Gems of 9th–19th Century Architecture*, 130. Moscow: Planeta Publishers, 1987.

Prochazka, Amjad Bohumil. *Bukhara: Architecture of the Islamic Cultural Sphere*, 46. Zurich: MARP, 1993.

I E057 | 압둘아지즈 칸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bdulazizxon

‘압둘아지즈 칸’은 부하라 칸국의 칸이었던 ‘너디르무함마드 칸’(Nodirmuhammad, 재위: 1642년~1645년)의 아들로 반란 진압을 위해 출정 도중 스스로를 칸으로 선언하고 제위에 올랐다. 당시 압둘아지즈 칸의 동생인 ‘수브헌쿨리’(Subhonquli, 재위: 1680년~1702년)는 발흐(Balkh)를 실질적인 통치자였는데 콰자(khwaja, 우즈베크어: 호자(Xo'ja))를 위한 토지보조금(suyurghal) 정책과 같은 우즈베크 족장들에 대한 정책은 전대 너디르무함마드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반발이 반복되었고, 압둘아지즈 칸의 세력은 점점 약화되었다. 이와 함께 1658년~1662년에 걸쳐 히바 칸국의 ‘아불거지이 칸’(Abulg'oziy Bahodirxon, 재위: 1643년~1663년)의 지속적인 공격까지 받게 되면서 부하라 칸국의 사회 경제적 시스템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압둘아지즈 칸은 동생인 수브헌쿨리에게 양위를 하고 순례를 떠나게 되었다.

압둘아지즈 칸은 1683년 순례 중 사망했고, 이맘쿨리와 너디르무함마드 곁에 묻혔다. 그의 통치 기간 중 부하라와 발흐 지역에 마드라사를 비롯하여 대형 건축물들이 건설되었고, 외교 관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틸아지즈, 압둘아지즈
- 다국어 표기 Abdulazizxon(우즈베크어), Abdülaziz(튀르키예어), Abdu'l Aziz(영어)
- 연관 검색어 부하라 칸국, 너디르무함마드, 수브헌쿨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957~1045. Gündoğan, Abdullah. “Şiban Han Sülalesi ve Özbek Ulusunun Teşekkülü”, *Türkler 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1046~1066. Mukaminova, G., “The khanate (emirate) of Bukhara, Part Two: The Janids (Astarkhanids)”,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 UNESCO, cop. 2005, pp.45~52.

I E058 | 압둘아지즈칸 마드라사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마드라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bdulazizxon Madrasah

‘압둘아지즈칸 마드라사’는 1652년 부하라 칸국의 ‘압둘아지즈 칸’(Abdulazizxon, 재위: 1614년~1683년)에 의해 울루그베그 마드라사 건너편에 건설되었다. 건축가는 ‘호자 무함마다민’(Xo‘ja Muhammadamin)으로 주재료는 벽돌이며, 타일 모자이크를 주로 이용하여 장식했다. 17세기에 건축물이지만 이전 티무르 시대의 건축 양식을 되살려 만들어 낸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장식이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20세기 초 부하라가 습격당하며 대부분 파손되었다.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로 전체 면적은 60mx48m이며 2층으로 된 건물이 내원을 둘러싼 구조이다. 축을 중심으로 4개의 이완이 존재하며 정문 역시 이완으로 되어있다. 이 정문 양 옆에 ‘굴다스타’라는 첨탑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이완으로 된 정문 2층에는 문이 달린 3개의 아치형의 벽감과 무카르나스가 있으며 피슈타크 정면은 시무르그 새와 용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전 시대의 건축 양식을 도입한 것과는 별개로 장식의 색 사용에 있어서는 노란색이나 녹색 등이 추가되는 등 다양성을 더했고 장식 문양 중 좀 더 자연주의적 식물 문양이나 화분에서 자라는 꽃 등은 기존의 문양과 궤를 달리하여, 민속 예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입구를 지나면 2개의 돔이 있는 홀로 이어진다.

압둘아지즈칸 마드라사는 흔히 건너편에 건설된 200여 년 전 지어진 울루그베그 마드라사와 비교되곤 한다. 물론 장식적인 측면에서 울루그베그 마드라사가 조화롭고 담백하다고 평할 수 있다면, 압둘아지즈칸 마드라사의 장식은 과장되고 화려함이 특징으로 여겨진다. 장식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크기에서도 부피감이 크고 정면 입구의 높이가 높는데 그 결과 동시대나 이전 시대의 건축물의 대부분이 균형감을 잃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압둘아지즈칸 마드라사만은 풍부한 장식성과 예술성을 높이 평가받으며 중앙아시아 건축사에 한 획을 긋는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 다국어 표기 Abdulazizxon madrasah(우즈베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bukhara-museum.narod.ru/images/ablaziz2.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БДУЛАЗИЗХОН МАДРАСАСИ”,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А ҲАРФИ, Тошкент; Давлат илмий нашриёти, 2000, p.11.

Knobloch, Edgar. Monuments of Central Asia, I.B. Tauri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distributed by St. Martin's Press, 2001.

I E059 | 압둘카림비이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bdulkarimbiy

압둘카림비이는 1701년에 태어났으며 코칸드 칸국의 칸이었던 ‘압두라힘비이’의 동생으로 형이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 제위에 오른다.

칸이 된 후 그는 기병 부대를 규제하고 재편성했으며 통치 기간 동안 준가르국의 오쉬(Osh), 안디잔(Andijan), 마르길란(Marghilan)을 점령하고 코칸드 시까지 접근했다. 당시 코칸드의 백성들은 도시를 방어하고자 우라 테페(Ura-tepe) 주지사 파지 베그(Fazi Beg)의 도움으로 준가르 군대를 쫓아내었지만 결국 준가르의 침략으로 정치적,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 그는 전대에 건설했던 코칸드 요새(Qo'qonda qal'a) 옆에 또 다른 요새를 건설했으며 코칸드에 성, 마드라사, 시장 등 다양한 건축물의 건설을 명함으로써 수도로서 코칸드 시의 좀 더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져 나갔다.

하지만 1746년 압둘카림비이가 40세의 나이로 사망한 후 어린 아들 ‘압두력흐먼 버티르’(Abdurokhmon-Botir, 재위: 1750년)이 제위를 이어받은 지 6개월 만에 폐위되어 마르길란의 주지사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압둘카림비이의 조카인 ‘에르더나비이’(Erdonabiy, 재위: 1751년~1764년)에 의해 곧 살해당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둘카림비이, 아브둘카림베이, 압둘카림베이

- 다국어 표기 Abdulkarimbiy(우즈베크어), Abdulkarim-xon(우즈베크어), Abdülkerim(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코칸드 칸국, 압두라힘비이, 에르더나비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Alpargu, M.,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957~1045.
Bababekov, H. N., “The khanates of Khiva and Kokand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khanates and with other powers. Part Two: Ferghana and the khanate of Kokand”,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 UNESCO, cop. 2005, pp.71~82.
Dubovitskii, V., Khaydarbek Bababekov, “The Rise and Fall of the Kokand Khanate”, *Ferghana Valley : the heart of Central Asia*, London · NewYork : Routledge, 2015, pp.29~68.

I E060 | 압뿔메지드(술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Abdülmecid

‘압뿔메지드’(1823년~1861년, 재위: 1839년~1861년)는 ‘마흐무드 2세’와 ‘베즈미 알렘’의 아들로, 16세에 즉위한 후 22년간 술탄의 자리에 있었다. 그는 오스만 전통 교육과 함께 서구 문화의 교육도 받았으며 아랍어, 페르시아어뿐 만 아니라 프랑스어에도 능통했고, 서예를 잘 했다고 전해진다. 종교적으로는 메울레위 수피 종단과 가까운 관계였으며 동시에 유럽 문학을 열심히 읽었고 서양 고전음악의 애호가였다. 사치와 오락을 즐겼지만 예의 바른 성격이었다고 한다.

그의 재위 기간은 관료 주도의 탄지마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가동되었던 시기였다. 그래서 1839년 여름에 즉위하고 몇 개월 후에 ‘귄하네 개혁칙령’을 반포하며 개혁 의지를 보였으며, 이는 이후에 비 무슬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던 1856년의 개혁 칙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서구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하는 개혁은 이전의 마흐무드 2세와 같은 강력한 개혁 군주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추진되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의 작업이었고, 개혁의 주도권은 주로 유럽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외교관 출신의 개혁 관료들에게 넘어갔다. 이들은 탄지마트라고 총칭되는 일련의 제도개혁을 수행했으니, 행정의 위계질서가 새로 정비되고, 형

법, 상법, 토지법 등의 구체적인 법률이 서양의 법을 모델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각급, 각 분야의 신식 학교들이 설립되었으며, 지폐를 발행하고 최초로 외채를 빌리는 등 경제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촉발되었다.

압뮐메지드 본인이 이 개혁에 영향력을 갖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유럽식 건축 양식으로 돌마바흐체 궁전을 지었던 것으로 보면, 개혁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만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재위 기간 내내 여러 차례의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즉위 초기에는 ‘메흐메드 알리 파샤’의 오스만 중앙 정부와의 내전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1853년~1856년 사이에는 크림 전쟁, 발칸반도와 시리아, 레바논 등지에서 여러 번의 반란이 있었다. 심지어 1859년 이스탄불에서는 압뮐메지드를 폐위시키고 탄지마트를 중단시키려는 정변 시도(쿨렐리 사건)도 발생했다. 그리고 결국 병약한 몸으로 인해 39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사망했다.



콘스탄틴 크레티우스가 그린 압뮐메지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뮐메지드, 압뮐메지트, 압뮐메지드
- 다국어 표기 Abdülmecid(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8/89/Abdulmejid_portrait.jpg/800px-Abdulmejid_portrait.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Çakır, Coşkun. “Abdülmecid”,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edited by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Facts on File, 2008, p.9.
Küçük, Cevdet. “Abdülmecid”, *TDV İslam Ansiklopedisi*, Vol. 1, İstanbul: TDV, 1988, pp. 259~263.

I E061 | 압뿔아지즈(술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Abdülaziz



압뿔아지즈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압뿔아지즈’(1830년~1876년, 재위: 1861년~1876년)는 ‘마흐무드 2세’의 아들로, 이복형인 ‘압뿔메지드’가 죽은 후 왕위에 올라 탄지마트 후반기에 술탄이 되었다. 그는 13명의 아이를 두었는데 그중 압뿔메지드가 술탄제가 폐지된 1922년부터 1924년까지 칼리프로 재위했다.

압뿔아지즈는 매우 건강하여 궁술, 사냥, 씨름에 능했고 아랍어·페르시아어 외에 프랑스어도 배웠다. 그는 1863년 이집트를 방문했고 1867년에는 유럽에 국빈 방문한 유일한 오스만 술탄으로 46일간의 여정 동안 파리 박람회를 참관했다. 또한 영국, 벨기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헝가리를 방문한 적도 있었다.

그의 재위 기간 전반기에는 메흐메드 에민 알리 파샤와 푸아드 파샤 같은 개혁 관료들이 중앙과 지방의 행정, 법, 재정, 교육, 군사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방 행정법 제정(1854년), 국적법의 제정(1869년), 감사원의 설립(1862년), 프랑스식 국가평의회 (Şuray-ı Devlet) 및 법무부의 설립(1868년) 등의 개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고 아나톨리아의 주요 지역에 철도를 놓는 등 여러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1871년 ‘메흐메드 에민 알리 파샤’가 죽고 나서 대재상이 된 ‘마흐무드 네딤 파샤’가 압뿔아지즈에게 술탄 독재를 건의하면서 술탄의 영향력은 커지고 술탄을 제어하는 장치가 약화되면서 국정 혼란과 재정 적자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에 1875년~1876년에 걸쳐 오

스만 정부가 완전히 파산했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불가리아에서의 반란까지 일어나면서 오스만 제국의 발칸 지배에는 크나큰 위기가 닥쳐왔다. 이에 유력한 입헌파 개혁 관료였던 ‘미트하트 파샤’가 구국의 길은 입헌 및 발칸 기독교인을 헌정 안에 참여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군과 종교계의 수뇌와 합심하여 정변을 일으켜 압뉘아지즈를 폐위했다. 대신 입헌을 약속한 ‘무라드 왕자’(압뉘아지즈의 조카)를 즉위시켰다. 그 후 압뉘아지즈는 폐위와 유폐 후 며칠 만에 의문사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분명하지 않고 자살로 보는 시각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뉘아지즈, 압뉘아지즈
- 다국어 표기 Abdülaziz(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마흐무드 2세, 미드하트 파샤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c/c6/4f3bdb2b3891715176c6580e6ab6cb4b--ottoman-empire-sultan.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Somel, Selçuk Akşin. “Abdülaziz.”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edited by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Facts on File, p.5.
Küçük, Cevdet. “Abdülaziz.” *TDV İslam Ansiklopedisi*, Vol. 1, İstanbul: TDV, 1988, pp.179~185.

I E062 | 압뉘카디르 이난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Abdülkadir İnan

‘압뉘카디르 이난’은 1888년 11월 29일 바시코르토스탄의 치가이 마을 Çıgay(Şıgay)의 유서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러시아어, 독일어 및 모든 투르크 방언에 능통했기에 풍부한 언어 지식을 토대로 투르크 민속학, 투르크 역사와 종교, 투르크 방언과 투르크 문학, 어원학까지 무려 350개에 달하는 도서와 논문을 집필했다 그의 저서에는 어린 시절 바시키르인들의 오래된



압뿔카디르 이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전통인 유목 생활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생동감 있는 바시키르인들의 생활 묘사가 돋보인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와 반대로 비교적 현실주의자였다 기록되는 바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압뿔카디르에게 바시키르인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종교, 수학, 러시아어 쓰기와 말하기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고 그 영향으로 그는 어릴 적부터 스승이었던 ‘알림 에펜디’의 서재에 있던 모든 책을 읽어버릴 정도로 학문에 조예가 깊었다.

이후 치가이에 있던 우설리 제디데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그는 트리오트스크 레술리에 학교에서 8년제 중학교 및 2년제 고등학교를 마친다. 그리고 1915년

~1923년 사이에 바시코르토스탄의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다. 하지만 러시아 독립 투쟁의 패배는 그에게 망명이라는 결과를 안겨주었기에 결국 그는 고향을 떠나 1921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 1년 정도 머물다 1924년 인도로 이주했다. 이후로도 1925년 유럽의 마르세유, 파리, 베를린을 떠돌다가 1925년 7월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정착하게 된다. 당시 압뿔카디르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알고 있던 ‘푸아드 쿠피뤼뤼’(M.Fuad Köpürülü)는 그를 투르크학 연구소의 조교로 임명한다. 그는 앙카라의 튀르키예 언어 연구협회(현 튀르키예국립국어원), 앙카라대학교 언어역사지리학부, 튀르키예 문화 연구소 등에서 일 했으며, 이러한 기관의 출판물을 분석하며 학술활동을 계속했다. 한평생 투르크학에 있어 거의 모든 분야에 연구활동을 해온 압뿔카디르는 아나톨리아반도 뿐만 아니라, 모든 투르크 국가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연구를 지속해나갔다.

대표 저서로는 『투르크스탄 예술 소재자(Türkistan sanatkarı risalesi, 1929)』, 『몽골 내부조직, 몽골 유목 봉건주의(Moğolların İçtimal Teşkilatı, Moğol Göçebe Feodalizmi: Ankara 1944, 1987, 1995)』, 『역사속의 그리고 오늘날의 샤머니즘, Tarihte ve Bugün Şamanizm, Materyaller ve Araştırmalar: Ankara 1954, 1972, 1995)』, 『고대 투르크 종교사(Eski Türk

Dini Tarihi, Istanbul, 1976)』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둘카디르 이난
- 다국어 표기 Abdulkadir Inan(영어), Әбделқадир Инан(바시키르어), Абдулқадыр Инан(러시아어, 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바시키르공화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9/92/%D0%98%D0%BD%D0%B0%D0%BD_%28cropped%29.png
- 참고문헌(오프라인) Tanyu, H., "Türk Bilgini Profesör Abdulkadir İnan'ın Hayatı", Vakıflar Dergisi, 11, 1978, pp.343~364.
Tülüçü, S., "Prof. Abdülkadir İnan Üzerine Bazı Notlar", Atatürk Üniversitesi Türkiyat Araştırmaları Enstitüsü Dergisi, 15, 2000, pp. 201~211.

I E063 | 압뿔하미드 1세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Abdülhamid I

‘압뿔하미드 1세’(1725년~1789년, 재위: 1774년~ 1789년)는 ‘아흐메드 3세’의 아들로 오랜 기간 궁에 유폐되어 있다가 49세의 늦은 나이에 술탄이 되었다. 그는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주도하기보다는 재상들에게 통치를 맡기고 조정과 자문 역할을 하는 편이었으며, 자신을 성인 같은 이미지로 부각시켰다.

그는 1768년부터 1774년까지 이어진 참혹한 러시아-오스만 전쟁이 끝날 무렵 즉위했으며, 패전조약인 ‘퀴척 카이나르자 조약’에 따라 오스만 제국의 가신국이었던 흑해 북안의 크림 칸국을 독립국으로 만들고, 러시아에게 흑해를 향해할 권리를 양도해야 했다. 그 밖에도 러시아에 유리한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영사관을 설치할 권리와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약속을 이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러시아의 위협은 꾸준히 지속되었기에 이에 대해 오스만 정부 내에서 주전파와 주화파의 두 노선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전자는 ‘가지



페르디난도 토니올리가 그린 압뮐하미드 1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하산 파샤'와 '코자 유수프 파샤'가 주도했으며 후자는 군사 개혁의 미흡함과 재정적 불안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외교 노선을 취하려 한 대재상 '할릴 하미드 파샤'가 주도했다. 하지만 할릴 하미드 파샤가 셀림 왕자를 즉위시키려는 역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처형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내 주화파의 입지는 사라졌고 주전파의 주장에 따라 크림 칸국을 회복하기 위해 합스부르크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이 결정된다. 하지만 바로 직전 전쟁으로 말미암은 제국 전반의 사회 경제 및 행정의 혼란조차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 수행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

이후 압뮐하미드 1세는 왕립 해양공업학교 및 요새 건축학교를 만들어 관련 분야의 장교 훈련을 독려했으며 이브라힘 무테페리카가 세웠던 인쇄소를

다시 열었으며 많은 아들을 두었다. 하지만 결국 제위는 그는 조카인 셀림 3세에게 계승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정치적 격변을 거쳐 그의 아들 마흐무드 2세가 1808년 집권했다. 그리고 이후 3세대에 걸친 오스만 술탄 역시 모두 그의 자손들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둘하미드 1세, 압뮐하미드 1세, 압뮐하미드 1세
- 다국어 표기 I.Abdülhami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흐메드 3세, 러시아-오스만 전쟁, 퀴췌 카이나르자 조약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kr/k2Rh>
- 참고문헌(오프라인) Şakul, Kahraman. "Abdülhamid 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edited by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Facts on File, 2008, pp.5~6.
- Aktepe, M. Münir. "Abdülhamid 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1, İstanbul: TDV, 1988, 213~216.

I E064 | 압뿔하미드 2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Abdülhamid II

‘압뿔하미드 2세’(1842년~1918년, 재위: 1876년~1909년)는 술탄 ‘압뿔메지드’의 아들로 1842년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압뿔하미드는 형 ‘무라드 5세’만큼 지적인 성향은 아니었고, 왕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면밀한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일설에 의하면 그가 받은 근대 교육은 초등 수준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압뿔아지즈’를 따라 왕자 시절 유럽을 순방하면서 유럽의 물질적인 발전을 목도했고, 피아노 연주와 프랑스어도 어느 정도 익혔으며 특히 서양식 발레, 오페레타, 탐정 소설을 즐겼다고 한다. 또한 농업과 주식 투자에 일가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1870년대 중엽의 다중적 위기 즉, 1873년~1874년의 흉년, 1875년~1876년의 보스니아 및 불가리아 반란, 오스만 정부의 파산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대 오스만 여론의 악화 등 국내외 정세가 복합적으로 어려울 때 즉위했다. 위와 같은 위기는 정치적 격변을 불러왔으니, 삼촌 ‘압뿔아지즈’가 1876년 5월 정변으로 폐위되고, 뒤를 이어 즉위한 형 ‘무라드 5세’까지 연이은 위기와 충격적인 사건들을 견디지 못하고 신경쇠약으로 폐위되자, 당시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미드하트 파샤’를 비롯한 입헌파에 의해 옹립되었다. 그는 헌법의 제정과 의회 소집에 동의하고 즉위했다.



압뿔하미드 2세

Source:<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그러나 즉위하자마자 미드하트 파샤와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헌법 제정의 과정에서 원래 자유주의적으로 입안된 헌법안을 술탄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꿔 버렸으며 헌법의 형식 자체도 흠정헌법을 채택했다. 이 헌법은 흔히 아시아 최초의 헌법이라고 불리지만, 오스만 제국의 영역 안에서는 많은 발칸 자치령이 헌정을 하고 있었고 이집트도 1860년대부터 의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른 것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불가리아 위기 이후에 벌어진 오스만-러시아 전쟁(튀르키예어로는 93 harbi)에서 전황이 악화되면서, 압뮐하미드는 번거롭고 소모적인 논쟁이 많은 의회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1878년 2월 13일 헌정의 중단을 선언했고 이 결정은 이후로 30년간 지속되었다.

압뮐하미드 2세 시대는 안팎으로부터 위협이 많았고 그에 대한 경각심과 공포도 크게 고조된 시기였다. 1878년 3월 러시아와의 정전조약이었던 ‘산 스테파노 조약’은 거대한 자치령 불가리아를 만들어 러시아의 발칸반도에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켜 놓았다. 게다가 러시아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이익 확보에 불만을 품은 열강들이 다시 1878년 7월 베를린 회의를 열어 불가리아를 축소시키고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 등 오스만 제국의 발칸 영토를 일부 돌려주기로 한다. 하지만 이미 많은 발칸 국가들을 독립시키거나 자치령으로 만들어주었고 여러 유럽 국가들이 오스만 영토를 조금씩 점령한 상태였기에 위기감은 더 고조되었다.

이제 오스만 제국은 오래 존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제국 안에서도 지배적이었다. 이에 발칸 각국과 아르메니아, 심지어 무슬림 민족주의가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그중 일부는 대단히 과격한 분리주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파산한 국가 재정 상태와 상실한 영토에서 넘어오는 무슬림 실향민들까지 합세해 오스만 제국의 통치에 대단한 부담을 주었다. 설상가상으로 프랑스의 튀니지 점령(1881년), 그리스의 테살리아 병합(1881년), 영국의 이집트 점령(1882년), 불가리아의 동루멜리아(불가리아인들이 거주하던 제한적 자치령) 병합(1885년), 크레타의 자치령화(1897년), 마케도니아에 열강의 압력으로 개혁 실시(1903년) 등 많은 영토 상실과 권위 실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압뮐하미드는 국가의 존립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과 통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그는 매우 의심이 많고 신중한 성격이었으며, 술탄 독재, 검열, 경찰의 감시, 스파이 등을 통해 사회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스스로를 술탄일 뿐 아니라 이슬람권 전체의 칼리프라고 선전하며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를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에 의하면 술탄에의

충성은 종교적인 의무였다. 결과적으로 그의 범이슬람주의적 선전은 유럽 열강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실제로는 국외의 무슬림들에게 봉기를 권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칼리프로서의 지위를 열강과의 외교에 이용하는 정도였다. 술탄은 통제 위주의 정책을 쓰면서 신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 관료나 군인을 신뢰하지 않고 전통주의적인 행보를 보였다. 압뮐함미드는 그리스인과 불가리아인, 아르메니아인과 쿠르드인들을 이간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분리주의운동이 잦아들지는 않았다. 결국 1894년 여름 일부 아르메니아인들의 무장봉기가 이후 1894년부터 1896년까지 지속된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아르메니아인 학살이 유럽에서 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뮐함미드 2세는 완전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술탄은 아니었다. 그는 탄지마트 시기의 많은 개혁 성과 및 근대적 법 제도들을 유지했으며, 특히 전신, 철도, 증기선 등의 근대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학교 건립도 재위 기간 동안 크게 늘렸다. 그는 오스만 제국을 문명화된 국가로 전시하여 유럽인들이 알아보기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08년 7월 청년 투르크 혁명으로 헌정이 회복되었고, 1909년 4월의 반혁명 시도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아 압뮐함미드 2세는 폐위되었다. 살로니카로 유배되었던 그는 1차 발칸전쟁(1912년~1913년) 가운데 이스탄불의 베일레르베이 궁으로 옮겨졌고, 1918년 사망했다. 그는 오스만 술탄 가운데 실권을 장악하고 통치한 마지막 군주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뮐함미드2세, 압뮐함미드 2세
- 다국어 표기 II. Abdülhami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오스만 의회, 오스만 헌법, 압뮐메지드, 미드하트 파샤, 오스만-러시아 전쟁, 산 스테파노 조약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c/Hamid_in_Balmoral.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Somel, Selcuk Akşin. "Abdülhamid I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edited by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Facts on File, 2008, pp.6~8.
Akarlı, Engin. "Abdülhamid II (1842–1918): The 34th Ottoman Sultan (r. 1876–1909)." *The Great Ottoman Turkish Civilization*, vol.1, Siyaset, Ankara: Yeni Türkiye, 2000.

I E065 | 압뿔하크 쉬나시 히사르

- 시기 A.D. 1800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Abüdlhak Şinasi Hisar



압뿔하크 쉬나시 히사르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압뿔하크 쉬나시 히사르’(Abüdlhak Şinasi Hisar)는 메쉬루티예트 시대 튀르키예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그는 1887년 3월 14일 포탄 화약고에서 근무하는 외할아버지 ‘무흐타르’의 이스탄불 루멜리히사르 집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튀르키예 언론사(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잡지 <하지네 에브라크(Hazîne-i Evrâk)>, <뿔뤼베티(Mürüvvet)>, <인사니예트(İnsâniyet)>, <제리데(Cerîde)>에서 편집장을 맡았던 ‘마흐무드 켈라젯딘’이다. 어머니는 현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의 마지막 호위군이었던 셸림 파샤의 손녀인 ‘네이르’ 여사이다. 쉬나시는 이렇듯 출판계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동생 역시 튀르키예 언론계에서 명성을 날린 ‘셸림 뉘즈헤트 게르첵’이다.

압뿔하크 쉬나시 히사르는 이스탄불 명문가의 후손으로 태어나 재력 있는 가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족 분위기 상 여성들도 남성만큼 글을 즐기며 읽고 쓸 줄 알았고, 그 역시 시와 음악에 조예가 깊었기에 자연스럽게 지식 탐구를 즐기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그 시기에 그의 가족을 자주 방문한 시인 니가르 하눔(Nigâr Hanım), 레자이자데 에크렘(Recaizade Ekrem), 압뿔하크 하미드(Abdülhak Hamid), 나므크 케말(Namık Kemal) 등은 튀르키예 문단과 지식인 사회를 이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문인들과 친분을 쌓고 토론을 즐기며, 한편으로는 프랑스인 가정교사에게서는 프랑스어를, 루멜리히사르의 이웃이었던 테브 피크 피크레트(Tevfik Fikret)에게서는 튀르키예어를 배우는 등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1898년에 그는 명문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Mekteb-i Sultâni) 기숙생으로 입학했

다. 그는 보스포로스 해협에 위치한 뷔익아다와 참르자 저택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자신의 작품에 이 지역에서 살면서 경험한 관례와 풍습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훗날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시에 생각을 담아 표현하는 법을 테브피크 피크레트(Tevfik Fikret)에게서 배웠다고 회고했다. 「여름도 사랑도 죽어버린 밤(Yazın ve Aşkın Öldüğü Gece)」, 「가을의 숨결(Hazânın Nefesleri)」, 「하자니예(Hazaniye)」, 「달의 탄생(Mehtâbın Doğuşu)」, 「달의 해엄(Mehtâbın Yüzüşü)」, 「세마의 장미(Semanın Gülü)」, 「세마의 섬(Semanın Adası)」, 「그의 머리카락에 휘감긴 봄(Saçlarının Baharı)」, 「봄의 초대(Baharın Daveti)」 등의 시는 당시 중요한 문예지였던 <안식처(Dergâh)>와 <내일(Yarın)>에 발표된 작품이다. 그는 봄과 가을에 느낀 영감을 시로 잘 묘사해냈다.

1905년 파리로 유학을 떠난 그는 청년 투르크 당원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들의 모임에도 종종 참석했다. 그리고 파리정치대학에도 입학했다. 한때 그는 1907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청년 투르크 2차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청년 투르크 당원들과 나름대로 친분관계를 맺고 있기는 했지만, 천성적으로 그와 정치는 성향이 잘 맞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주로 방문했던 곳은 당시 유명한 예술가와 문인들이 모이는 파리 라탱지구(Quartier Latin)였다. 압달하크 쉬나시는 그곳에서 그의 사상과 문학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작가 모리스 바레스(Maurice Barrès), 시인 장 모레아스(Jean Moréas), 문학평론가 에밀 파게(Emile Faguet), 시인 겸 소설가 앙리 드 레니에(Henri de Régnier), 작가 및 영화감독 장 콕토(Jean Cocteau),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를 알게 됐다. 그리고 꾸준히 그들과 교류를 이어가며 예술 모임에도 주기적으로 참석했다. 한동안 파리학생회 회원들이 펴낸 잡지 L'A 집필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1908년 말부터 1909년 초까지 몇 달 동안 그는 오스만 제국의 2차 메쉬루티예트(Meshrutiyet)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주시하다가 학교를 마치지 않고 고국 이스탄불로 돌아왔다. 그리고 1909년~1913년에는 이스탄불에 있는 프랑스 건설 회사에서, 1913년~1920년에는 튀르키예 북부 도시 종굴다크의 코줄루-킬림리-칸달리 지역에서 광산을 운영하는 회사 스티네스(Stinnes)에서 근무했다. 1931년에는 외교부에서 근무하게 되어 앙카라에 머물다가 1948년 이스탄불로 돌아왔으며, 1954년~1957년에는 잡지 <투르크의 조국(Türk Yurdu)>의 총괄 편집장을 맡았다. 이어 문예지 <안식처(Dergâh)>와 <내일(Yarın)>에 시를 쓰고, 책을 홍보하고 비평을 쓰며 다시 창작을 시작했다. 그 외에도 쉬나시는 1921년부터 지역 신문과 신문

<문명(Medeniyet)>에 기고문을 썼는데, 이 글로 인해서 유명해졌다. 그의 투고문은 <나무(Ağaç)>, <와르륵(Varlık)>, <이상(Ülkü)>, <투르크의 조국(Türk Yurdu)>과 같은 잡지와 <민족(Milliyet)>, <민족의 주권(Hâkimiyet-i Milliye)>, <세계(Dünya)> 등의 일간지에 실렸다.

1942년 공화인민당(CHP)의 단편과 소설 공모전에서 『Mr. 파힘과 우리(Fahim Bey ve Biz)』가 3위를 차지했다. 이 소설은 그의 대표적 소설로 알려졌고, 독일어로 번역됐다. 그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1942년에 보스포루스 시리즈 첫 번째 작품인 『보스포루스의 달빛(Boğaziçi Mehtapları)』, 1944년에 두 번째 소설 『참르자에 있는 우리 매형(Çamlıcadaki Eniştemiz)』을 발표했다. 1952년에 『알리 니자미 씨의 서양풍과 대장 노릇(Ali Nizamî Bey'in Alafrangalığı ve Şeyhliği)』, 1954년에는 『보스포루스 별장(Boğaziçi Yalıları)』, 1955년에는 시선집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것(Aşk İmiş Her Ne Var Âlemde)』을 출간했다.

히사르는 1963년 이스탄불 지한기르 자택에서 뇌출혈로 사망했고, 메르케즈에펜디 묘지에 안장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뿔하크 시나시 히사르

● 다국어 표기 ABDULHAK ŞİNASI HİS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나르크 케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tr/8/85/Abd%C3%BClhak_%C5%9Einasi_Hisar.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langu Tahir, *100 Ünlü Türk Eseri*, İstanbul: Milliyet Yayınları, 1974.

Baydar Mustafa, *Edebiyatçılarımız Ne Diyorlar*, İstanbul: Ahmet Halit Yaşaroğlu Kitapçılık, 1960.

Kudret Cevdet, *Türk Edebiyatında Hikâye ve Roman*, Ankara: BilgiYayınevi, 1970.

Kurdakul Şükran, *Meşrutiyet Dönemi Türk Edebiyatı*, İstanbul: Broy Yayınları, 1986.

Naci Fethi, *100 Yılın 100 Türk Romanı*, 3. Basım İstanbul: Adam Yayınları, 2000.

Türinay Necmettin, *Abdülhak Şinasi Hisar*, İstanbul: Milli Eğitim Bakanlığı Yayınları, 1988.

I E066 | 아비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공동체 ● 유형 소분류2 사회공동체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Abir

남(南)시베리아 토착민인 하카스인은 자신의 친척들을 돕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가을이 되면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이들은 포도주와 각종 선물을 들고 부유한 형편의 자신의 친척을 찾아가, 말이나 소를 빌린다. 전통적인 하카스 법에 따르면 부유한 자는 도움을 요청한 가난한 친척에게 부정적으로 응대할 수 없다. 그래서 하카스인은 “(자신이 기르던) 가축 수가 줄어들면, 술을 가지고 친척이나 친구를 찾아갈 것이고, 그들이 양이나 염소를 빌려 줄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때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들을 아비르(Abir)라고하며, 이는 일종의 협력 전통으로 간주된다.

이 아비르는 하카스 사회에서 채권자-채무자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암묵적으로 이러한 상호부조의 전통 맥락에서 제공된 도움 및 원조는 상황이 개선되면 갚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3년 후 대출자는 ‘아비르 반환’을 목적으로 다시 부유한 친척(채권자)을 방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불은 빌린 동물의 수와 나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즉, 같은 나이, 같은 숫자로 (자신이 빌린) 동물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빌린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아비르 빚은 자식이나 후손들에게 대물림된다. 빚은 갚기 전까지는 절대 탕감되지 않는다.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은 채무자 범주에 포함되어 부유한 친척들을 위해 일해서 빚을 갚아야 한다.

- 참고문헌(오프라인) Буганаев, В. Я., Торбостаев К. М. “Абыр”.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 I. Абакан: ss. .24 Поликор, 2008.

I E067 | 아빈 후흐 올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Avyn khukh uul

‘아빈 후흐 올 유적’은 ‘호브드 아이막 불간 솜’에 위치한 ‘아빈 후흐 올’의 중앙에 우뚝 솟은 한 봉우리의 북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다. 유적은 고도 차이가 6m에 달하는 곳에 산포하고 있으며 모두 30기의 무덤이 있지만 일정한 규칙 없이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다. 무덤의 적석은 지름 4m~7m, 높이 0.2m로 일부 무덤의 상부에는 돌을 덮은 적석 시설이 있지만 소형무덤에는 일정한 형태가 없고, 표토에 드러난 돌 몇 개가 전부인 경우도 있다. 큰 무덤은 상부에 적석 시설이 있어서 발견 당시 이미 도굴이 된 상태였다.

비교적 최근인 2010년에 몽골-러시아 공동연구 조사단이 아빈 후흐 올의 후흐 우주르 라는 곳에서 흉노 무덤 3기를 발굴한 이슈가 있었다. 무덤 중 하나는 도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었다. 2012년 독일 조사팀(게리다 헨켈 재단)과 함께 2기의 무덤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기존에 발굴된 흉노의 다른 무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흉노 이전의 알타이 스키타이 문화로 알려진 파지리크 문화와 관련된 유적이었다. 이를 종합해 유추해보면 BC 2세기 말 무렵부터 알타이에서 파지리크 문화가 사라진 것과 흉노의 등장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었는데 아빈 후흐 올 유적이 그 격동기의 유적으로 보인다.

유적이 위치한 호브드 아이막 역시 몽골의 서부지역으로 고비 알타이 지역에 속하는 곳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몽골 서부 지역은 흉노의 귀족 무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2011년 한국과의 공동조사로 195기에 달하는 유적이 알려지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빈 쿠크 올 유적
- 다국어 표기 Avyn khukh uul(몽골어)
- 연관 검색어 파지리크 문화, 스키타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Miller Bryan K., Bayarsaikhan J., Egiimaa Ts., Kononov P.B., Logan J. “Elite Xiongnu Burials at the Periphery: Tomb Complexes at Tahiltin-hotgor, Mongolian Altai”, J. Bemmman, H. Parzinger, E. Pohl, D.

Tseveendorj (eds.), *Current Archaeological Research in Mongolia: Papers from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chaeological Research in Mongolia* (Bonn: Contributions to Asian Archaeology, vol.4, 2009, pp.301~314.

국립문화재연구소,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흉노, 제국의 미술』, 2020.

I E068 | 아살라

- 시기 A.D. 1800년~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아르메니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유형 소분류2 단체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SALA

‘아살라’(ASALA)는 아르메니아 독립 비밀 특공대(Armenian Secret Army for the Liberation of Armenia)의 약어로 아르메니아 극우 테러단체를 지칭한다.

이 단체는 유럽에 부임하는 튀르키예 외교관들에 대한 테러를 감행해왔다. 1980년대 말까지 아살라의 표적 테러로 희생된 튀르키예 외교관의 숫자가 46명에 달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튀르키예의 동부지역을 포함하는 “통합 아르메니아국”(United Armenia)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유럽과 미국의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던 아르메니아인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1990년대 접어들어 1991년 헝가리 주재 튀르키예 외교관에 대한 미수로 그친 테러 이후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들의 테러 활동이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은 제1차 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때문으로 추정된다. (튀르키예에서 사용하는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용어는 ‘1915년 사건’이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대학살’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며,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아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1914년 11월 1일 독일·오스트리아와 함께 동맹을 맺고 참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쌍방 50만명 이상의 희생을 낸 1차 세계 대전의 가장 치열한 전투였던 다다넬스 해협 공방전이 지속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와 대결한 동부전선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했다. 그때 자국 내 아르메니아 혁명위원회가 러시아 편에 서서 조직적으로 오스만 군대를 공격하자, 1915년 4월 24일 이 위원회를 폐쇄하고, 235명의 지도자를 반역

죄로 구속하는 한편 내부의 적을 격리시키기 위해 70만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을 시리아·팔레스타인·이라크 등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양측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강제 이주에 따른 추위와 굶주림, 질병 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일이 아르메니아인들이 4월 24일을 학살 추모일로 정하게 된 배경이다. 현재 아르메니아 학살사건의 쟁점은 조직적인 명령에 의한 학살 여부, 그리고 사망자 숫자 두 가지다.

튀르키예 당국은 이에 대해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불행한 충돌로 보고 있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당시 내무장관 탈라트 파샤의 강제 이주명령서를 내세우며 일어난 조직적인 제노사이드 시도로 보고 있다. 희생자 숫자도 아르메니아는 150만명 학살을 주장하고 있지만, 튀르키예는 70만명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30만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는 입장이다. 서구 자료들은 대부분 60만~150만명 사이를 오간다. 학살자 숫자의 차이 역시 조직적 학살 여부에 관한 논란만큼 인식 차이가 크다. 당시 아르메니아 전체 인구에 대해 오스만 제국의 통계는 129만 5000명, 서구의 다른 자료들은 105만 6,000명~150만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180만~256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살자 숫자 확인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군인은 물론 이주와 도망, 질병 등으로 숨진 오스만 제국 국민의 숫자가 무려 300만~400만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을 일일이 구분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 동안 정확한 역사적 실체를 밝히는 작업은 뒤로 미룬 채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는 점이다. 오스만 제국의 오랜 지배를 경험했던 유럽 각국들은 선거나 주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르메니아 출신 유권자들을 의식해 이 문제를 들고나와 튀르키예 정부를 괴롭혔고, 튀르키예의 극우 정당들은 아르메니아인 학살 자체를 부정해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맛살라

● 다국어 표기 Հայաստանի Ազատագրութեան Հայ Գաղտնի Բանակ(아르메니아어), Armenian Secret Army for the Liberation of Armenia(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CiJnsPN4HM>

● 참고문헌(오프라인) Forst, Brian & Jack R. Greene, James P. Lynch. *Criminologists on Terrorism and Homeland Secu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Göçek, Fatma Müge. *The Transformation of Turkey: Redefining State and the Society from the Ottoman Empire to the*

Modern Era, I.B. Tauris, 2011.

Jessup, John E. *An Encyclopedic Dictionary of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1945-1996)*, Greenwood Publishing Group, 1998.

I E069 | 아샤마이가 밍기주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Ashamayga mingizu

유목 생활이 기본이던 카자흐인들에게는 출생 후 6년~7년이 지난 아이에게 말과 채찍을 선사하는 전통이 있다. 이를 ‘아샤마이가 밍기주’라고 부르는데 용감한 유목민(Jigit)의 시작을 알린다는 상징성을 내포한다.

카자흐인들의 전통 생활 형태는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고 필요에 따라 이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을 타는 기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말을 타는 연습을 해야 하며 말을 잘 타고 다니라는 의미를 담아 상징적으로 6세 무렵에 이르면 이와 관련된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 대개 남자아이의 경우 할레 의식도 함께 치러진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할머니는 손자를 축복하고 씩씩한 어른으로 자라기를 빈다. 이로써 아이는 향후 강한 남자와 용감한 유목민으로서 사명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때론 일상 생활에서 특정한 일을 맡기 시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 사라진 것이지만 옛날 유목 생활을 하던 카자흐인들의 관습이며, 현재 카자흐스탄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 다국어 표기 Ашамайға мінгізу(카자흐어), Ашамайға Мингизу(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DYqtLgbeTP4>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bilu.kz/ashamay.php>
- 참고문헌(오프라인) Jeteyeva Dana and Yerkebulan Dzhelbuldin, *Traditions and Customs of Kazakhs* (Author House, 2014).

I E070 | 아슈라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명절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Ashura

‘아슈라’는 아랍어로 10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슬람사에서 아슈라는 두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라마잔월 단식이 제정되기 전까지 무슬림인이 지키던 단식일과 유대인들이 속죄를 위해 치르던 단식일이 같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새해가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10일째에는 종일 단식을 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 무슬람 역시 라마잔월 단식이 제정되기 전에 무하람달 10일, 즉 아슈라에 단식을 했다. 오늘날 아슈라 단식은 하면 좋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튀르키예에서는 ‘아슈레’라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대신한다. 달달한 아슈레가 종교 간 화합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마야조 칼리프 ‘야지드’의 군대가 시아파의 3번째 ‘이맘 후세인’을 살해한 날이 바로 아슈라다. 이를 부예조의 ‘무잇쥬트 다울라’(Mu‘izz al-Dawla) 때 처음 공개적으로 기리기 시작했으며 이때 아슈라에 시아 무슬림은 이맘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슬픔을 표현한다. 매년 후세인 순교 40일 전부터 후세인의 죽음을 기리는 아슈라 의례가 시작되며 아슈라 당일인 10일 절정에 이른다. 카르발라 전투 상황을 재현하는 타으지예(Ta‘ziyeh)를 행하는가 하면 후세인을 연호하며 가슴을 치며 카르발라의 고통과 슬픔을 재현한다. 지척에 두고도 죽어가는 후세인에게 도움의 손길 한번 제대로 주지 못했던 비통함을 천년 넘게 기억하며 이어가는 것이다. 간혹 슬픈 감정 표현이 과격하게 발전하여 쇠사슬이나 칼로 등이나 가슴을 치며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이러한 과격한 애도 표현을 ‘샤흐세이-바흐세이(Shahsey-Vahsey)’라고 부르며 시아파 지도자들도 과격한 추도 대신 헌혈을 하라고 권한다.

- 다국어 표기 Ashura(아랍어), Aşure Günü(튀르키예어), Ashuro(우즈베크어), Aşura(아제르바이잔어), Ашурра(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시아, 아르바인, 이맘 알리



시아파 무슬림의 아슈라 의식(이스탄불, 튀르키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youtu.be/QLvqP_ZlrK0

● 참고문헌(온라인) JAM News. Ashura in Baku. October 15, 2016.

<https://jam-news.net/Ashura-in-Ba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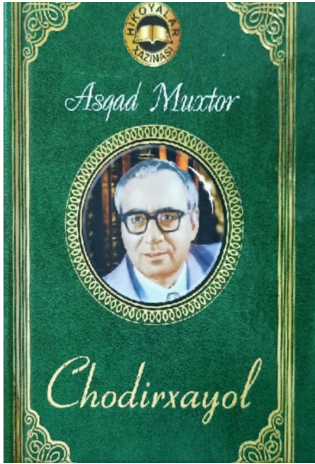
● 참고문헌(오프라인) Momen, Moojan. *An Introduction to the Shia Tradition in Islam*. Binghamton, NY: Yale University Press, 1985.

Rasekh, Ali-Ahmad. "Ashura'." In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 vol. 1, 45. Farmington Hills, MI: Thompson Gale, 2005.

Wensinck, Arent J. and Ph. Marçais. "Āshūrā'."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1, 705. Leiden: Brill, 1986.

I E071 | 아스카드 무흐터르

- 시기 A.D. 1800~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Asqad Muxtor



『처드리하열(Chodirxayol)』 표지
Source: <https://azbo.uz/public/uploads/>

‘아스카드 무흐터르’(Asqad Muxtor)는 1920년 12월 23일 페르가나에서 태어났다. 그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레닌의 불꽃(Lenin uchquni)>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다. 그는 1938년~1942년 국립 중앙아시아대학교 어문학과에서 공부했으며, 졸업 후 1942년~1945년에는 안디잔 사범대학교 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1945년~1948년에는 <젊은 레닌주의자(Yosh leninchi)>와 <붉은 우즈베키스탄(Qizil O‘zbekiston)> 신문사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1957년~1969년과 1985년~1988년 두 번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1960년~1965년 <동방의 별(Sharq yulduzi)>, 1969년~1980년 <굴리스턴(Guliston)> 잡지와 1981년~1982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문학과 예술(O‘zbekiston adabiyoti va san’ati)> 신문의 편집장을 맡았다.

창작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38년부터였다. 그의 대표 저서로는 시집 『달콤한 순간들(Totli damlar)』, 『우리 세대(Bizning avlod)』, 『소원(Tilak)』, 『맹세(Qasam)』, 『영원함(Abadiyat)』, 우즈베크노동자계급의 삶을 묘사한 『제강공(製鋼工: Po‘lat quyuvchisi, 1947)』, 『강들이 만나는 곳(Daryolar tutashgan joylar, 1950)』, 『자매(Opa singillar, 1954)』, 『탄생(Tug‘ilish, 1961)』, 『내 운명의 시대(Davr mening taqdirimda, 1964)』, 『버드나무(Chinor, 1969)』, 『99개의 세밀화(99 miniatyura, 1962)』, 『시선집(She‘rlar, 1966)』, 『은밀한 외침(Sirli nido, 1984)』, 중편소설 『폭풍 속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Bo‘ronlarda bordek halovat, 1976)』, 『아무다리야(Amudaryo, 1986)』, 희곡 『용기의 정점(Mardlik cho‘qqisi, 1948)』, 『아침과의 만남(Tong bilan uchrashuv, 1987)』, 아이들을 위한 동화 『진정한 마음으로(Chin yurakdan, 1956)』, 『세계의 아이들(Dunyo bolalari, 1962)』, 『뿌리들(Ildizlar)』, 『벼랑 위의 번개(Jar

yoqasidagi chaqmoq, 1984)』, 『은색실 섬유(Kumush tola, 1988)』 등이 있다.

아스카드 무흐타르는 번역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푸시킨, 레르몽토프,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 알렉산드르 블로크, 소포클레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수상 경력으로는 1972년에 함자(Hamza) 국가상을 수상했으며, 1995년에 우정(Do'stlik) 훈장을 수상했다. 그리고 그는 1997년 4월 17일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스카트 무흐타르, 아스카트 무흐타르, 아스카드 무흐토르
- 다국어 표기 Asqad Muxtor(우즈베크어), Асқад Мухта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함자, 우즈베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azbo.uz/public/uploads/all/mm8n6ngPs7itei2mhge7Hfw7di3dJcc96shsFwya.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kademiklar.uz/asqad-muxtor>
- 참고문헌(오프라인) A'zamov A., Boqiy N., *Asqad Muxtor zamondoshlari xotirasida*, Toshkent: Ma'naviyat, 2003.
Mirzayev Saydulla, Shermuhammedov Said, *Hozirgi zamon o'zbek adabiyoti tarixi*, Toshkent: O'zbekiston, 1993.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Tog'aev O., *Asqad Muxtor*, Toshkent: Badiy adabiyot nashriyoti, 1966.

I E072 | 아스크하브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skhab Mausoleums

아스크하브 영묘는 이슬람의 초기 개종자였던 '아부 다흐 알 기파리'(Abu Dhar al-Ghifari, ?~652년)와 아부 부라이다흐 알 아슬라미(Abu Buraidah al-Aslami)를 위해 메르브에 건설되었다. '무함마드를 접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스-사하바흐(aş-ṣaḥābah)에서 영묘의 이름을 따왔다.

영묘에는 아스카프(Askhab: 무함마드의 동료)라고 적힌 석문이 있으나 이슬람의 시발점이었



아스크하브 영묘(메르브, 투르크메니스탄)

던 아랍반도와 메르브 사이의 약 2500km의 거리와 시간적 차이를 보면 실제로 이들이 여기에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 영묘는 일종의 기념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축조 시기는 셀주크 시대(9세기~12세기)였으나 13세기에 몽골의 침략으로 파괴되었고, 15세기~16세기 티무르 시대에 재건되었다. 영묘의 전체적인 형태는 두 개의 이완이 나란히 놓여 대문을 형성하고 이완 뒤에 묘실이 있는 형태이다. 이전의 영묘 대부분이 돔이 있는 이완이 입구로 사용되는데 비해, 이 영묘에서는 대문 뒤에 있는 두 개의 영묘의 배경 역할만 하고 있다.

이완의 타일 장식은 쿠픽 서체로 ‘알라’와 같은 단어를 사각형 안에서 배치한 팔각별 형식이 주를 이룬다. 코발트블루와 밝은 터키석 색, 황갈색의 구운 벽돌을 이용해 건설되었다.

● 다국어 표기 al-Hakim ibn Amr al-Jafari we Buraida ibn al-Huseyb al-Islamiñ mazarlary(투르크멘어), Sahâbe

türbeler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gallery/turkmenistan/merv/askhab-mausoleums/photos/askhab-mausoleums03.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sid/1387/turkmenistan/merv/askhab-mausoleums>
<http://archnet.org/sites/2102>

● 참고문헌(오프라인) Hillenbrand, Robert. Islamic Architecture.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E073 | 아스키야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공연예술 ● 유형 소분류2 풍습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Askiya

아스키야(Askiya)는 아랍어의 ‘azqiyo’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지능적이고, 예리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아스키야는 15세기~17세기에 유행한 예술 장르였다. 시인이자 학자였던 ‘자이니딘 워시피이’(Zayniddin Vosify, 15세기)는 아스키야가 헤라트(Herat)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기록했으며, 대표적인 아스키야치(아스키야 연주자)로 ‘마블로노 압둘보세 문시’(Mavlonov Abdulvose Munshi)의 이름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알리셰르 나비이(Alisher Navoiy), 자흐릿딘 무함마드 바부르(Zahiriddin Muhammad Babur), 현다미르(Xondamir) 등도 아스키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아스키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즈베크 민족 고유의 풍습이었다. 아스키야는 주로 결혼식이나 명절 등 대규모 모임에서 공연되었는데 아스키야 공연자는 ‘아스키야보즈(askiyaboz)’ 혹은 ‘아스키야치(askiyachi)’라 불리며 주로 언어 유희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과거에 아스키야는 주로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주제를 담았다. 힘겨운 삶과 현실에 대한 고발 그리고 상류층에 의해 이루어지는 억압에 대한 조롱과 풍자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



아스키야 공연

립 후에는 자유로운 민족의 일상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삼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스키야
- 다국어 표기 Askıya(우즈베크어), Аския(러시아어), Askıya(영어)
- 연관 검색어 알리셰르 나버이이, 자히리딘 무함마드 바부르, 보스피이
- 참고문헌(온라인)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Uzbekistan <http://ich.uz/uz/>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adayev O., *O'zbek xalq og'zaki ijodi*, Toshkent: Mumtoz so'z, 2010.
O'raeva D. S., *O'zbek xalq og'zaki badiy ijodi*, Buxoro, 2018.

I E074 | 아스키즈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Askiz

‘아스키즈’는 하카스어로 ‘아스흐스(Ashis)’라 불리는 러시아 연방 내 22개 공화국 중 하나이다. 그 명칭은 예니세이강의 중심 지류인 ‘아스키즈’에서 유래했다.

위치는 하카스 공화국의 수도 아바칸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으로 1770년~1771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시베리아 남부에 위치한 하카스 공화국의 8개 행정구역 중 하나이다.

아스키즈는 과거 차르 시대에는 사가이 스텝의 행정 중심지였다. 그리고 1923년 하카스 자치구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하카스 땅의 토착 투르크인들이 다수 거주했던 ‘토착민들의 지역’ 역할을 했다. 당시에는 약 7,200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그 인구의 70%는 하카스인, 30%는 러시아 및 기타 국적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투르크학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는 빌헬름 라들로프의 첫 제자였던 니콜라이 카타노프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두 개의 학교, 한 개의 직업학교, 도서관, 니콜라이 카타노프 박물관, 1993년 설립된 러시아 정교회 교회에 소속된 수도원, 두 개의 영화관 그리고 스포츠 학교가 있고, 많은 회사 및 정부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하카스의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로서 소련의 영웅 ‘미하일 체보다예브’(Mihail Chebodayev)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USSR)의 중앙집행위원회이자 하카스 자치구의 대표자였던 ‘게디민 튀데셰바’(Gedimin Tüdeşeva)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다.

현재 아스키즈에는 총 40개의 하천이 있으며, 이 지역은 대초원과 산간 삼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총 45,000명이 살고 있으며 인구의 50%가 하카스인, 45%가 러시아인, 1.5%가 독일인 및 기타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스키스
- 다국어 표기 Askiz / Аскиз(러시아어), Ashis / Асхыс(하카스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4/46/Askiz%2C_Khakassia_03_010.



아스키즈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jpg/1024px-Askiz%2C_Khakassia_03_010.jpg)

[jpg/1024px-Askiz%2C_Khakassia_03_010.jpg](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jpg/1024px-Askiz%2C_Khakassia_03_010.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ышпанаков, В. А. “Аскиз.”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 1*, Абак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2007, С.52.

I E075 | 아스판디요르 칸

- 시기 A.D.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sfandiyorxon

무함마드 라힘 칸 2세(Muhammad Rahimxon II, 재위: 1875년~1919년)의 사망 이후 제위에 오른 아스판디요르 칸(Asfandiyorxon, 재위: 1910년~1918년)은 정치에는 큰 재능이 없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재상이었던 이슬람 호자(Said Islomxo'ja, 1872년~1913년)가 국정의 주도권을 잡고 운영했다. 이슬람 호자는 개혁 성향의 재상이었으므로 공장, 병원, 우편국, 학교 등을 건설하는 등 초반에는 원만하게 국가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이후 무함마드 라힘 칸 2세의 폭정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내부에서 각종 반발이 일어났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Николай II, 1868년~1918년)는 아스판디요르 칸에게 성 스타니스슬라오 기사 작위(Орденъ Св. Станислава)와 성 안나 기사 작위(Орден Святой Анны)를 수여했고 1910년에는 러시아 제국군인의 소장 직위를 하사했다. 1913년에 그는 차르로부터 전하(HRH) 칭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1912년 조세개혁에 반대하여 투르크멘 요무트(Yomut) 부족을 이끌던 주나이드 칸(Junaydxon, 1857 또는 1862년~1938년)이 주도하는 투르크멘 반란이 발생하는가 하면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으로 인해 ‘젊은 히바인들’이 아스판디요르 칸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일이 이어 벌어진다. 이에 그는 ‘젊은 히바인들’을 포함하여 의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입헌군주국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아스판디요르의 진심은 급진적인 개혁을 원하지 않았기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혁을 방해했다. ‘젊은 히바인들’은 이에 반발하며 정부를 전복했고 아스판디요르가 다시 정부를 차지하면서 모든 개혁을 포기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1918년 요무드 투르크만스가 히바로 돌아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고, 아스판디요르 칸을 궁전에서 처형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스판디요르 칸, 이스판디아르 칸
- 다국어 표기 Asfandiyorxon(우즈베크어), Isfandiyar Khan(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3/33/Said_Isfandiyarkhan.jpg/800px-

Said_Isfandiyarkhan.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Cilt 8, Ankara: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2002, pp.957~1045.

Tekin, Feridun. “Hive Hanlığı”, *Türkler*Cilt 8, Ankara: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2002, pp.1102~1114.

Usmonov, Q.; M.Sodiqov; S.Burxonovam,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I E076 | 아속 아투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놀이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Asyk Atu

‘아속 아투’는 예로부터 카자흐 아이들이 즐기던 전통놀이로 한국의 구슬치기와 유사하다. 놀이 방법은 양의 목말뼈를 이용해 구슬(공기)을 만들어 한정된 공간에 나열한 다음, 일정 거리 떨어져 플레이어가 또 다른 구슬을 던져 나열된 구슬을 많이 격파하면 이기는 게임이다. 놀이에서 사용되는 양의 목말뼈는 대개 사면체 형태로 가로, 세로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지만 바닥에 두면 안정감 있게 세울 수 있어서 옛날부터 이를 주사위로 이용했다. 먼저 바닥 위에 일정한 선을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원을 그린 다음 지름에 해당하는 선 위에 10여개의 아속을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그런 다음 플레이어가 그려진 원 바깥에서 또 다른 아속을 적당한 속도로 던져서 배치되어 있는 다른 아속을 쳐 내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아속 아투는 집중력과 인내력 및 지적 능력이 함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권장되는 놀이다. 카자흐스탄에는 4세~18세 사이 아동 회원들로 구성된 아속 아투 동호회를 흔히 볼 수 있다. 아속 아투는 구성원들의 협동심이 배양되는 동시에 민족의 구분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팀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민족 차별적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

2017년 12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12차 유네스코 위원회 회의에서 카자흐인들의 전통 놀이문화로 인정받아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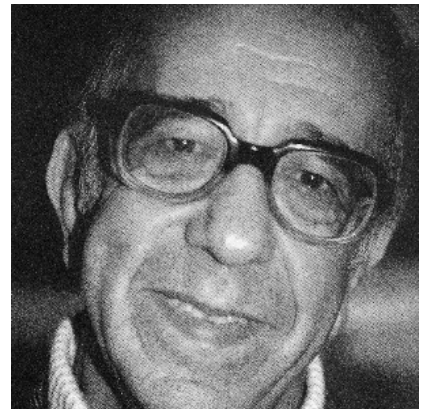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속 아투

- 다국어 표기 Асық ату(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민속놀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old.qazaqtv.com/en/programms/viewArchive?id=21269>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ch.unesco.org/en/RL/kazakh-traditional-assyk-games-01086>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1, Алматы, 2004.

I E077 | 아슴 베지르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비평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Asım Bezirci

‘아슴 베지르지’(Asım Bezirci)는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문학비평가 중의 한 명이다. 1927년 에르진잔에서 철도 청 노동자 ‘함디 베지르지’와 부인 ‘레피카’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후 에르진잔에서 초등학교까지 졸업하자마자 1939년 발생한 지진으로 가족 전체가 메르신으로 이주하여 1년간 머물다가 고향인 에르진잔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로 인해 아슴 베지르지 역시 메르신의 무료 기숙 중등학교에 1년간 재학하다 1946년 에르주룸에서 졸업했다. 그리고 이스탄불대학교 문과대학에 진학해 튀르키예어 문학과를 졸업했다.



아슴 베지르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그는 1950년부터 신문 <게르ček(Gerçek)>에서 ‘A.’ 라는 필명으로 정치 비평을 연재했다. ‘베지르지오을루(Bezircioğlu)’라는 필명으로는 번역, 평론, 인터뷰 기사 등을 실었다. 이 외에도 빌렌트 아르엘(Bülent Aral), 피크레트 아르(Fikret Arı), 할리스 아자르(Halis Acarı) 등 여러 필명을 사용하며 활동했다. 결국 튀르키예 사회주의 당(Türkiye Sosyalist Parti) 회원이라는 이유로 1950년~1956년 사이에 세 차례나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다. 이후 그는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나기를 반복했다.

본격적으로 출판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레피카 타네르’(Refika Taner)와 결혼한 후부터이다. 부부가 함께 만든 첫 간행물 「소설 선집(選集)」이 1973년에 출간된 후 1981년에는 『단편소설 선집(選集)』을 출판하기도 했다.

작품활동으로는 1955년부터 <일요신문(Pazar Postası)>, <아(a)>, <친구(Dost)>, <다리(Köprü)>, <돌풍(Yelkin)>, <새로운 수평선(Yeni Ufuklar)>, <성숙(Ataç)>등의 잡지와 신문에 글을 실었고, 필명을 사용하던 베지르지는 1960년부터는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성숙(Ataç)>, <시대(Dönem)>, <방향(Yön)>, <추상(Soyut)>, <파피뤼스(Papirüs)>, <신문학(Yeni Edebiyat)>, <민중의 친구(Halkın Dostları)>, <신사상(Yeni Düşün)>, <와르륵(Varlık)>, <예술적 사건(Sanat Olayı)>와 같은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비평, 번역 및 서평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연구자로서는 주로 시, 단편소설, 언어를 연구했지만, 오르한 벨리(Orhan Veli, 1967), 사바합틴 알리(Sabahattin Ali, 1974), 오르한 케말(Orhan Kemal, 1977), 르파트 엘가즈(Rıfat Ilgaz, 1988), 네지헤 메리츠(Nezihe Meriç, 1999), 아흐메트 하심(Ahmet Haşim, 1967), 누룰라흐 아타츠(Nurullah Ataç, 1968), 메틴 엘오을루(Metin Eloğlu, 1971)에 대한 학술논문도 집필했다. 이 외에도 나즘 히크멧(Nazım Hikmet), 오르한 벨리(Orhan Veli), 아흐메트 하심(Ahmet Haşim), 테브피크 피크레트(Tevfik Fikret)의 시 중에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시를 선별하여 출간했다. 한편으론 민속시 선집 작업을 했고, 16세기 수피 시인(詩人) 피르 술탄 압달(Pir Sultan Abdal, 1986)에 대한 연구도 있다.

그의 주요 저서는 『문이 여러 개 달린 방(Çok Kapılı Oda, 1961)』, 『에디프 잔세베르(Edip Cansever, 1961)』, 『지난 날이 가져다 준 것과 삼킨 것(Günlerin Götürdüğü Getirdiği, 1962)』, 『학문보다는 사회주의로(Bilimden Yana Sosyalizme Doğru, 1963)』, 『압달하크 하미트, 타르크 또는 안달루스 페트히(Abdülhak Hamit ve Târik yahut Endülüs Fethi, 1966)』, 『공부할 수록(Okudukça, 1967)』, 『과거와 현재의 튀르키예 시(Dünden Bugüne Türk Şiiri, 1968)』, 『열 명의 시인과 열 편의 시(On Şair On Şiir, 1971)』, 『두 번째 새로운 사건(İkinci Yeni Olayı, 1974)』, 『나즘 히크메트와 소설선집(Nâzım Hikmet ve Seçme Romanlar, 1975)』, 『민중, 사회주의, 문화 그리고 문학(Halk, Sosyalizm, Kültür ve Edebiyat, 1979)』, 『1950년 이후 이

야기꾼들(1950 Sonrasında Hikayecilerimiz, 1980)』, 『민중들의 언어와 평화 시(Halkımızın Diliyle Barış Şiirleri, 1986)』, 『시인의 언어로 평화(Şairlerimizin Diliyle Barış, 1987)』, 『튀르키예어 속어사전(Deyimlerimizin Sözlüğü, 1990)』, 『장미를 심은 자들(Temele Gül Dikenler, 1993)』, 『장미에 언어를 붙여 준 사람들(Güle Dil Verenler, 1993)』 등이다.

1993년 7월 2일 시바스에서 열린 피르 술탄 압다르과 관련된 행사 참석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의 기습을 당했고, 33명의 작가와 사상가, 호텔 직원이 살해 당했다. 희생자 명단에 아슴 베지르지도 있었다. 그는 이스탄불 진질리쿠유 묘지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슴 베지르쥬
- 다국어 표기 Asım Bezirc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tr/3/3f/Asim-bezirci.jpg?20221208122410>
- 참고문헌(오프라인) Gündoğdu Cengiz, “Nesnel Eleştirmen Asım Bezirci İle Öznel Bir Konuşma”, *Hürriyet Gösteri Dergisi*, Sayı: 33, Ağustos 1983.
- Özyalçınar Adnan, *Edebiyatın Kırk Ayaklı Karıncası Asım Bezirci*, Evrensel Basım Yayın, İstanbul, 2009.

I E078 I 아시나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Ashina

‘아시나’는 6세기~8세기 돌궐 제국의 기원이 되는 부족 또는 왕조이다. 한자로는 ‘아사나(阿史那)’로 표기된다. 대부분의 이란학 학자들은 아시나 조가 페르시아계의 오손국(烏孫)에서 기원한다고 주장한다. 아시나가 사카어로 ‘푸른’, ‘하늘의’라는 뜻이며 이는 곱-투르크(Göktürk 푸른, 하늘의 투르크)가 ‘아시나의 투르크’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원적으로 아시나의 기원을 유추한 것 중의 하나이고, 아시나에 대한 다른 언어학적 가설들은 여전히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기록에서는 몽골의 부구트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 6세기~8세기의 고대 투르크 비석(부구트 비, Бугутская надпись)에서 첫 투르크의 왕조로 아시나가 등장한다. 여기에는 암늑대가 아시나 부족의 시조모로 묘사되고 있고, 투르크 가계도는 아시나가 부족 창건자를 낳은 어머니의 이름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큰 소택지 가에 살았던 투르크인의 조상은 이웃 부족의 전사에 의해 학살당했고, 불구가 된 10대의 소년 만이 살아 남았다. 암늑대가 이 소년을 키웠다. 이 소년이 자라 암늑대와 결혼했는데 적들을 피해 암늑대가 고창 북쪽의 산으로 달아나 동굴에서 열 명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창 출신의 여인들과 결혼해 집안을 세웠는데 그중 하나가 아시나였다. 곧이어 아시나의 혈족은 번창했고, 그 후손 중 하나인 아산-샤드(Асянь-шад)는 동굴에서 부족들을 이끌고 나와 알타이 지역에 자리잡고 자신의 부족을 투르크라고 불렀다. 이 외에도 늑대의 자손들 중 '흰 백조'라고 불리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들은 위구르 왕국의 기원이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쉬나

● 다국어 표기 Aşina(아제르바이잔어), Ашина(러시아어), خاندان آشينا(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돌궐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под ред. Токарева С. А.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2, г. — т.2, 537.

Кляшторный С. Г. Версия древнетюркской генеалогической легенды у Ал-Бируни // Средневековый Восток.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Источниковедение. М., 1980, С. 159~160.

I E079 | 아시옥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명창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Aşık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에 퍼진 투르크인들은 오우즈 투르크족이다. 아시옥(Aşık, Aşıq)은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에서 ‘시인-명창’을 뜻한다. 그들은 ‘샤즈’라는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시를 읊고 노래한다. 아시옥(Aşık, Aşıq)을 고대 오우즈 투르크족들은 ‘오잔(Ozan)’이라 칭했고, 다른 부족들은 ‘박스(Baksı)’라고 불렀다.

오우즈 투르크족에게 ‘오잔(Ozan)’은 주술사, 통치자, 연주자 및 시인에 해당하는 특성을 모두 갖춘 총체적인 종합 예술가였고, 일종의 ‘샤먼 킹’에 가까운 인물을 칭하는 말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몽골과 부리아트족은 ‘보(Bo)’ 혹은 ‘부괘(Bugué)’라고 했고, 투르크계 민족 중에서도 야쿠트 족은 ‘오윤(Oyun)’, 알타이 투르크 족은 ‘캄(Kam/Qam)’, 키르기스인들은 ‘박스-박쉬(Baksı-Bahşı)’라고 불렀다. 캄(Kam/Qam), 오윤(Oyun), 박사(Baksa) 혹은 박쉬(Bakşı) 등과 같이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들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투르크 민족들에게 이들은 모두 ‘샤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샤먼’은 퉁구스족이 사용했던 용어인데, 이 단어가 학술적인 용어로 굳어진 것이다).

샤먼들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 초기 주술시대에는 당연히 모든 영적인 의례를 주관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제도화된 종교가 지배적이었던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 까지도 샤먼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역은 확보하고 있었다. 영적인 의례를 주관하면서 읊었던 시 전통은 투르크 민족들에게 샤먼의 예술적 기능을 부각시켰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례에서 사용되었던 무가(巫歌)나 주문(呪文) 등 작품은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오지 않는다.

수피즘이 출현하고 종단이 설립된 것은 중세 초기이다. 이는 권력에 대한 정치 투쟁의 결과이다. 수피즘 종파(Tarikat)들은 수피종단을 설립하고 나자 그들의 신앙과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식과 의례에서도 음악과 주문 그리고 춤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동시에 캄-샤먼(Kam/Qam-Şaman) 의식(儀式)에 쓰였던 형식과 관행은 이슬람과 융합했고, 수피 의식에도 상당부분 적용되었다. 수피 수도승들은 원래 일체의 허례허식이나 사치를 부정했다.

그들의 기본적인 수행방법은 신비주의 춤인 세마와 염송인 지크르(Dhikr)를 동원한 몰아적 명상 방식이었다. 이들은 수피 의식에서 종파(Tarikat)의 노래에 맞춰 노래하고 춤을 추며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황홀경을 체험하고자 했다. 신일합일과 신성 획득만이 '진정한 아시옥'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었고, 따라서 수행 방법 중 하나인 춤과 노래와 악기연주가 곁들여진 수피 의식은 매우 중요한 수행과정이었다.

이어서 수피 종단에서 요구하는 아시옥들의 다음 단계 활동은 선교와 포교였다. 수피-아시옥의 활동에 종교적, 영적 의무와 더불어 선교와 전파의 의무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다. 수피들은 선교사로서 활동 무대를 넓혀갔고, 카흐베(Kahve; coffee house) 등과 같은 다양한 사교와 회의 장소에서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박해와 고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피즘을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속과 구비문학 텍스트가 필요했다. 따라서 음절 운율시, 전설, 민담, 구비서사시 등의 구비문학 작품들이 동원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시옥들은 이러한 전통시와 구비문학 텍스트들을 암송하고 연주할 수밖에 없었다.

사파비(Safavids) 왕조의 경우, 그들이 권력을 잡은 16세기부터 아시옥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점차로 아시옥들은 민족의 풍습이 반영된 전통 결혼식과 군사 및 정치 관련 행사에도 그들의 무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아시옥들은 점차 수피 수도승보다는 '음악가-민속 예술가'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아시옥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예술가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이 시기부터이다.

오우즈 투르크족 아시옥이 오잔을 대체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아시옥 정체성(Aşıklık)과 개념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이미 수피-수도승 시스템이 형성된 것은 9세기-12세기부터였고, 11세기-12세기 중앙아시아에는 투르크인들에게도 수피즘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그 창시자가 아흐마드 야사비(Ahmad Yesevi)이다. 그로부터 여러 종파가 파생되어 나온다. 이 종파들을 통해서 '신성하고 진정한 아시옥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며, 아시옥 정체성으로 수피즘의 사상적, 이념적 측면이 강화된다.

두 번째는, 수피 진영에서 태동한 아시옥 개념이 대중에게 소개되고 전파되는 단계이다. 이때 수피-아시옥들이 등장하는데, 알레비, 벡타쉬, 사파비 종단 수도원(Tekke)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단계 아시옥은 종교적이며, 영적으로 '수행'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바



아시아 웨이셀의 왁스 동상(시바스, 튀르키예)

로 신성하고 진정한 아시옥의 역할과 사명을 대중들에게 확산하고 전파하고자 최전선에서 앞장섰던 선교사들이었다. 몽골의 침입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13세기~15세기에 이러한 아시옥 사상은 대중을 위로하고 삶을 지탱해 주는 정신문화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된다.

세 번째는 아시옥이 종교적이며, 영적 의무를 수행하는 ‘영적 지도자’에서 ‘음악가-민속예술가’로 그 역할이 전환되는 단계이다. 예술가라는 새로운 지위를 획득한 아시옥들은 선교사로서 수피즘과 아시옥 사상을 전파하는 임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이때까지도 한편에서는 오잔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오잔(Ozan)이 본격적으로 아시옥으로 전환되었던 것은 이때부터이다. 대략 15세기~16세기로 볼 수 있다.

주술과 예술적 기능을 함께 담당했던 오잔(Ozan)들은 셀축왕조 군대에서도 존재하기는 했다. 오잔은 아나톨리아 반도 투르크 지방호족들이 사는 궁(宮)에도 15세기 중엽까지는 존속했다. 그런데 15세기가 지나고 16세기가 되자 아제르바이잔과 아나톨리아 지역에 ‘아시옥(âşık)’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고대부터 사용되었던 ‘오잔(Ozan)’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궁에서는 시인들이 페르시아 풍을 모방하고자 하고자 했고, 수도원의 수피들이나 카흐베의 메다꾼(Meddah) 그리고 이야기꾼(Kıssahanlılar)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의 저명한 민속학자 쿠프룰루(Köprülü)가 정의하는 아시옥(Aşık)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즈 시인(Saz Şairi)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시옥(Aşık)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에서 벗어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단계로 승화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사즈를 연주하고 시를 낭송하는 방법으로 영적인 진화를 이루는 동시에, 피르(Pir)나 예언자 혹은 흐즈르 등 영적인 인물들을 꿈이나 현시로 보기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보라타브(P. N. Boratav)는 아시옥들이 양성되고 배출되는 지역과 배경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아시옥들의 예술활동이 일어나고 발전하는데 가장 적당한 장소는 시골마을이며, 고전(Divan) 문학의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작은 소도시이거나 유목 혹은 반유목 상태의 공동체라고 보았다. 문화 중심지로 발전한 대도시는 고전문학에 대한 관심이 이미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족 고유 문화와 저변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시옥들은 특정한 장소나 지역을 선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스만 제국 시기에도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궁전, 귀족들 별장, 수피 수도원, 가난한 마을, 시골 촌락, 카흐베(Kahve) 등과 같은 모든 장소에서 활동했다

반면 놀랍게도 아시옥이 가장 많이 배출된 곳은 군부대였다. 이스탄불 예니체리 부대, 국경 초소, 알제리, 튀니지, 아라비아, 크림반도와 같은 오스만 제국 지배령이 미치는 먼 곳 군부대에 서도 아시옥들이 중심이 되어 문학활동이 이루어졌다. 아시옥들은 전통을 지켜내면서, 본인들이 생활하는 환경과 체험을 개성있게 작품에 반영했다.

수피 수도원에서 배출된 수피시인들 대다수의 무대는 예니체리(오스만 제국 술탄 친위부대)였다. 벡타쉬 사즈 시인들도 ‘아시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아시옥들은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었다. 마을, 초원, 작은 시골마을과 같은 곳에는 지역색에 맞는 유명한 마스터 아시옥들이 있었고, 자신들의 유파를 형성하며 제자를 양성했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스타일과 레파토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독자적인 개성을 창출하며 유파를 형성했다. 견습생 아시옥들은 스승으로 모셨던 마스터들에게서 사즈 교육을 받은 후 스승이 인가를 내주게 되면 스승에게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그 이름 앞에 ‘아시옥’이라고 칭호를 붙일 수 있었다.

아시옥들은 주로 수피즘의 한 갈래인 벡타쉬의 정신과 행동양식을 내면화했다. 그렇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벡타쉬 철학의 관용에 기인한 것이었다. 당시 정통 이슬람은 투르크 사회에서 예술을 억압했고, 사즈를 금지했으며, 알레비-벡타쉬를 사탄으로 보았다. 아시옥들은 이런 금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특히 16세기 오스만 왕조는 순니(sunni) 중심이었고, 바티니(Batini) 종파를 억압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알레비-벡타쉬 사상은 정통 이슬람이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투르크 문화전통을 지속시키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 색채가 강한 아시옥들이 알레비-벡타쉬 사상을 기반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식, 아쉬, 아시크

● 다국어 표기 Aşık(튀르키예어), Aşıq(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오잔, 바흐쉬, 아시옥 문학, 아나톨리아 아시옥 예술,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예술

● 참고문헌(오프라인) Qasımlı Məhərrəm, *Ozan-Aşıq Sənəti*, Bakı: Uğur Nəşriyyatı, 2011, s.11.

Turan Metin, *Ozanlık Gelenekleri ve Türk Saz Şiiri*, Ankara: Başkent Matbaacılık, 1997, s.13.

오은경, 「터키 명창 아식(Aşık)과 아식문학 형성 고찰」, 『국제언어문학』, 2020, 통권 46호, pp.95~135.

오은경, 「아제르바이잔 무형문화유산 아식예술과 지역유파 형성배경 고찰」, 『중동연구』, 2020년, 제 39권 2호, pp.125~152.

I E080 | 아시옥 문학(튀르키예)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장르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Aşık Edebiyatı

튀르크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아나톨리아반도에서 수피즘이 꽃을 피울 시기와 맞물려 ‘아시옥(Aşık, Aşıq)’이 오잔을 대체하게 되었고, 민중문학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더불어 아시옥 문학을 형성하게 되었다. 아시옥 문학은 고대 튀르크 민족의 음유시인이며 샤먼킹이었던 ‘오잔-박스(Ozan-Baksı)’ 문학 전통이 오스만 문화와 양식 안에서 융합·재편성되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한 예술이다.

전문가들은 아시옥 문학 형성시기를 대체로 16세기로 보고 있고, 오잔-박스 전통은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후 대체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소멸했던 오잔-박스(Ozan-Baksı) 전통이 5세기가 지나서 갑자기 이슬람적인 형태인 ‘아시옥’으로 탈바꿈해서 출현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애석하게도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아시옥의 등장과 더불어 아나톨리아(튀르키예)에 형성된 ‘아시옥 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장르는 ‘민중시인(Halk Şairi)’라는 개념과 더불어 이해해야 한다. 민중시(Halk Şiiri)는 생산자 계급, 순수 튀르크어, 궁궐 밖의 공간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민중 시인들이 창작한 작품이다. 궁전이나 그 주변을 둘러싼 문화나 사상이 아닌 서민들의 세계를 노래했으며, 대부분은 작자미상의 작품들이었다.

민중시인(Halk Şairi)들은 초기에 ‘코푸즈(kopuz)’를 연주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악기는 ‘최위르(çöğür)’ 혹은 ‘사즈(saz)’ 등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결국 민중시인(Halk Şairi)들도 ‘사즈시인(Saz Şairi)’이라고 불렸다. 사즈시인(Saz Şairi)은 당연히 사즈를 연주하면서 시를 창작하고 낭송하는 사람들이다. 민중시(Halk Şiiri)와 아시옥시(Aşık Şiiri)도 서로 구분이 어렵고,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시옥시인의 경우, 이들이 민중시인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영적인 진화를 위해 시를 짓고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아시옥 문학은 16세기 형성되기 시작하여 20세기까지 진행되었으며, 20세기 초반부터 이스탄불과 그 주변을 필두로 서민 중심의 아시옥 문학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는 특정한 조건 때문에 아시옥 문학이 지속적으로 계승됐다. 왜냐하면 지형이 험준하고, 인구이동이 어려우며, 특별한 흥밋거리가 많지 않은 동부 아나톨리아에서 지루하고 긴 겨울밤이나 라마잔 기간을 아시옥 연주없이 보내기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커피숍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카흐베(Kahve)에서 연주되는 아시옥들의 공연은 청중들에게는 큰 흥미거리였으며, 예능 소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구나 결혼 피로연에서 흥을 돋우고 관객들의 관심을 끄는 등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아시옥들의 역할은 공동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시옥 문학을 귀족중심의 디반문학과 대치되는 서민문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오스만 제국 시대에는 아시옥이 모든 계층에서 배출되었다. 모든 계층에서 청중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시옥 문학을 서민문학보다는 투르크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민중문학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민중문학이라는 요소 외에도 아시옥 문학의 두 가지 특징은 크게 비종교적이라는 것과 순수한 투르크어 사용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바람은 투르크인들의 전통 시형식인 4행시와 ‘마니(Mani)’를 기본 형식으로 삼도록 했으며, 순수 투르크어를 고수하도록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오스만 제국 시기 투르크어의 형태는 ‘오스만어’였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아랍어나 페르시아어가 완전히 배제된 형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당시 아시옥들은 벡타쉬 종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옥 문학에서 이슬람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또한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고찰해보면, 그들의 인생 체험, 문학, 역사, 지리적 지식, 이슬람과 수피즘 그리고 수피즘과 관계된 종파들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튀르키예 공화국 출범 이후 튀르키예에서는 국민 친화적이며, 새로운 튀르키예 정체성과 고유성을 창조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많은 연구자들은 대표적 아시옥과 작품들을 홍보하고 민중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단행본이나 전집을 출판하는 등 저술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 시기 발간된 학술서적들은 대체로 아시옥들의 작품을 채집하거나 그들에 대한 인생

이야기를 수집한 내용이었으며, 1928년부터 현재까지도 이러한 작업은 지속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식 문학, 아시크 문학, 아쉬 문학

● 다국어 표기 Aşık Edebiyat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시옥, 오잔, 바흐쉬, 아나톨리아 아시옥 예술,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예술

● 참고문헌(오프라인) Qasımlı Məhərrəm, *Ozan-Aşiq Sənəti*, Bakı: Uğur Nəşriyyatı, 2011, s.11.

Turan Metin, *Ozanlık Gelenekleri ve Türk Saz Şiiri*, Ankara: Başkent Matbaacılık, 1997, s.13.

오은경, 「터키 명창 아식(Aşık)과 아식문학 형성 고찰」, 『국제언어문학』, 2020, 통권 46호, pp.95~135.

오은경, 「아제르바이잔 무형문화유산 아식예술과 지역유파 형성배경 고찰」, 『중동연구』, 2020년, 제 39권 2호, pp.125~152.

오은경·김근식, 「유라시아 투르크 명창 문화의 초국가적 실크로드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능성 연구」, 『슬라브학보』, 제31권 3호, 2016, pp.1~36.

I E081 | 아시옥 파샤 영묘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şık Paşa mausoleum

‘아시옥 파샤 영묘’는 위구르계 투르크인 ‘알라엠티 에레트나’(Alaeddin Eretna, 재위: 1335년~1352년)가 에레트나 공국 시대에 아나톨리아 중부에 건립했던 영묘로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는 에레트나 공국의 몇 안 되는 건축물이자 작은 영묘이나 새로운 양식의 출현을 예고하는 작품으로써 특히 중앙아시아 투르크 건축 전통의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크르셰히르(Kırşehir)에 위치한 이 영묘는 비문에 따르면 1332년 11월 3일 사망한 ‘아시옥 파샤’(Âşık Paşa, 1272년~1332년)를 위하여 건설되었다. 아시옥 파샤는 당대의 시인이자 수피 신학자면서 셰이흐였다. 그래서 비문에는 셰이흐 바제(Şeyh Bâce)라고도 표기되어 있다. 한편에선 영묘가 에레트나 공국 재상이자 아시옥 파샤의 조카인 알라엠티 알리 샤(Alâeddin Ali Şah)의 후원으로 건설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아시옥 파샤 영묘 전면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주로 대리석이 사용된 영묘의 내부 크기는 대략 5.35mx5.35m으로 정사각형이다. 전체적으로 비대칭의 전면부를 가지고 있으며 돔으로 덮여 있다. 영묘 내부 네 모서리에 네 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은 네 개의 아치로 연결되어 있다. 이 아치 사이에 펜던티프가 있으며, 돔으로 연결된다. 영묘 내부에는 장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어떠한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비문은 이전 시기의 건축물과 달리 돔 앞에 위치해 있고 처마로 보호되고 있다. 좁고 긴 정문은 전면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셀주크 건축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시옥 파샤의 관은 건물 중앙이 아닌 입구 벽에 인접해 있다.

외부 삼면은 매우 단순하고, 입구가 있는 정면만 약간의 장식이 있다. 정면의 입구 주변은 매듭 문양으로 장식했고 전면부 중앙 하단에 오지 아치(ogee arch)형 벽감에 창문이 나 있다. 팔각형 받침 위에 솟은 지붕 역시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완전한 돔이 아닌 쌓아 올린 형태의 돔

이다. 1935년에 영묘 일부를 수리했으며 영묘의 주변에는 아시옥 파샤의 가족 중 일부의 무덤이 존재한다. 다만 의아한 점은 기록에 의하면 크르쉴히르에 아시옥 파샤의 이름으로 자비에(zâviye, 이슬람 신비주의 수도원)가 건설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자비에 근처에 영묘가 건설되었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 영묘 근처에 이와 관련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쉬크 파샤 튀르베시, 아식크 파샤 튀르베시, 아슈크 파샤 튀르베시, 아슈크 파샤 튜루베시
- 다국어 표기 Aşık paşa türbes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아쉬크 파샤 영묘 전면부
<https://cdn.islamansiklopedisi.org.tr/madde/4/asik-pasa-turbesi-1.jpg> <https://zrr.kr/eNax>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3614>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Eyice, Semavi. "Aşık Paşa Türbes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4, Istanbul: TDV, 1991, p.5.

I E082 | 아시옥 웨이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Aşık Veysel

‘아시옥 웨이셀’은 튀르키예에서 가장 중요한 사즈 시인이며, 소리꾼 혹은 명창 중 한명이다. ‘아시옥’이라는 말은 소리꾼, 명창 그리고 사즈 시인을 뜻하는 말이며, ‘오잔(ozan)’이라고도 불린다. ‘웨이셀’은 그의 이름이며, 본명은 ‘웨이셀 샤투르오을루’(Veysel Şatıroğlu)이다. 그는 1894년 아나톨리아반도에 위치한 시바스 샤투르오을루 지역 시브리알란 마을에서 태어났다.

웨이셀의 출생 이야기는 아나톨리아 시골마을 여느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의 어머니 켈리자르는 양젖을 짜기 위해 집 근처 목초지로 가는 길에 산통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웨이셀을 낳았다. 태줄도 직접 자르고 아기를 천에 감싼 뒤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고향에서는



아시옥 웨이셀 박물관(시바스, 튀르키예)

웨이셀 가족을 ‘샤트르오을루 집안(Şatroğulları)’이라고 불렀다. 샤트르오을루 집안의 본가는 튀르키예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카르스였다. 샤트르오을루 집안 식구들은 오랫동안 고향에서 머물다 카르스를 떠나 에르주룸, 말라티야, 트라브존, 코니아를 거쳐 시바스의 디브리이 지역 칼레디비 마을에 정착했다. 그러다 아시옥 웨이셀의 할아버지 알리가 칼레디비 마을을 떠나 시브리알란 마을에 정착한 후 줄곧 그 마을에서 살게 됐다.

그런데 웨이셀이 7살 때인 1901년 시바스에는 천연두가 유행했다. 웨이셀 역시 천연두를 피해 가지 못했다. 그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어느 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예쁜 엔타리(entari, 전통 의상)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자랑을 하러 평소 나를 무척 예뻐하시던 무흐시네 부인 댁에 그 옷을 입고 놀러갔다. 그날따라 땅이 질퍽거렸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을 헛디디면서 미끄러졌다. 나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천연두에 걸렸다. 먼저 왼쪽 눈이 감염이 되었고, 오른쪽 눈 역시 왼쪽처럼 멀게 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나에게 감옥이

됐다.”

당시 시바스 근교인 엠렉 지역 곳곳에는 소리꾼인 아시옥이 있었다. 웨이셀의 아버지는 시(詩)와 수피 예배당인 테케(tekke)가 매우 친숙한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운명을 피해 갈 방법이 있나, 받아들여야지”라고 하면서 아들의 우울함을 덜어주려고 웨이셀 손에 악기 사즈를 쥐여주었다. 소리꾼 아시옥들의 시와 노래를 읊조리면서 아들이 위로받기를 바랐던 것이다. 지방에 있는 소리꾼 아시옥들은 한 번씩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시와 노래를 들려주곤 했는데 웨이셀은 그때마다 이를 귀 기울여 들었다.

웨이셀은 그 시기를 이렇게 기억했다: “사즈를 연주하는 사람이 친척 중에는 없었지만, 우리 마을에는 아시옥이 있었다. 당시는 마을마다 아시옥이 많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력을 잃은 그때가 아마 내가 9살~10살 때쯤인 것 같다. 아버지는 나에게 사즈를 가지고 놀라고 주셨는데, 나는 ‘사즈’라는 악기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혼자서 연주해보려고 계속 가지고 놀기는 했지만, 실력이 늘지 않았고 음을 조율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듣노라면 기분이 좋아져서 사즈 세계에 서서히 빠져들고 말았다.”

그렇게 웨이셀은 디브리이 마을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이자 아시옥인 ‘차므쉬홀르 알리’에게 처음으로 사즈를 배웠다. 열심히 연습한 결과 어느 날부터는 명작 시를 읊으며 사즈를 연주할 수 있었다. 그러자 차므쉬홀르 알리는 웨이셀에게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추는 오잔들을 소개했고, 쿨 압달(Kul Abdal), 피르 술탄 압달(Pir Sultan Abdal), 카라자오란(Karacaoğlan), 데르틀리(Dertli), 루흐사티(Ruhsati)의 작품을 익혀 나갔다.

하지만 이미 아시옥 웨이셀의 삶에서 두 번째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전쟁이 터졌고, 형 알리를 비롯한 모든 친구와 지인들이 최전방으로 징집되었다. 어린 웨이셀은 부서진 사즈와 혼자 남았다. 그것이 그의 두 번째 은둔 생활의 시작이었다. 친구도 없이 지내야 했던 외로운 시간은 그를 매우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며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작은 정원에 있는 배나무 밑에 누워있거나, 밤에 나무 위로 올라가 마음속 걱정을 어두운 하늘에 털어내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아시옥 웨이셀은 엔베르 곱체(Enver Gökçe)에게 다음과 같이 털어놓곤 했다. “집에 가면 낮빛이 어두워졌지. 부모님은 내 상태를 모르셔. 난 간섭받지 않기 위해 아무 것도 털어놓지 않았지. 부모님은 내가 속상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나는 부모님께 내 걱정을 쏟아내는 게 싫어. 그래서 사즈도 실증이 나.”



아시옥 웨이셀

Source: <https://www.anadoluyugeziyorum.com/>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신들이 죽으면 형제들이 웨이셀을 돌보지 않을까 두려워 서둘러 먼 친척 에스마(Esma)와 혼인시켰다. 웨이셀과 에스마 사이에는 딸과 아들이 태어났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들은 태어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아 엄마 젖을 먹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역경과 불운이 겹겹이 쌓여가며 웨이셀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1921년 2월 24일 어머니가 17일 동안 앓다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 1년 반이 지나자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당시 웨이셀은 포도밭과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많은 소리꾼 아시옥들이 마을에 찾아와 카라자오을란(Karacaoğlan), 엠라흐(Emrah), 아시옥 스트크(Aşık Sıtkı), 아시옥 벨리(Aşık Veli) 같은 시인들의 시를 사즈를 연주하며 읊어주었다. 웨이셀은 시골 골방에서 아시옥들과 함께 사즈를 연주했다.

웨이셀의 딸이 태어나자 형 알리는 육아를 돕고 일을 봐줄 휘세인이라는 도우미 한 명을 들였다. 그런데 웨이셀이 아파서 누워있고, 형 알리도 약초를 캐러 간 어느 날 휘세인은 웨이셀의 부인 에스마를 유혹해서 그녀를 데리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가슴에 상처

가 많은 웨이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고,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져들게 된다. 웨이셀 품에는 이제 겨우 6개월 된 딸만 남겨져 있었다. 웨이셀은 2년 동안 딸을 품에 안고 자신의 삶을 버티고자 했지만, 생을 길게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비통함을 시로 표현했다. “운명에는 고통만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고통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웨이셀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다. 마침내 웨이셀이 마을을 벗어났을 때, 시바스 자라 지역 바르잔 벨레니 마을 ‘카슴’이라는 사람이 웨이셀을 자기 집에서 2~3개월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어느 날 그 지역 수피예 배당인 얄른작 바바 테케에 들렀다가 청소하러 온 귤리자르(Gülizar)와 마주치게 된다. 테케에서 머물고 돌아온 웨이셀은 그녀가 자꾸 생각이 났다. 얼마 뒤 그는 카라야프락 마을에 중매쟁이를 보내 귤리자르에게 청혼했다. 귤리자르는 처음부터 웨이셀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할아버지인 함자가 설득하여 결국 1928년 결혼하게 되었고, 둘은 재혼한 뒤 7명의 자녀를 두며 행복하게 살았다.

웨이셀은 그 후로도 1933년까지 선배 아시옥들의 시를 읊으며 사즈를 연주했다. 공화국 설립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아흐메트 쿠트시 테제르(A. Kutsi Tecer)의 지휘로 모든 아시옥이 튀르키예 공화국과 가지 무스타파 케말에게 바치는 헌시를 준비했는데, 그들 사이에 웨이셀도 포함되어 있었다. 웨이셀이 세상 밖으로 내놓은 첫 시는 ‘공화국의 서사시’이다. LP에 녹음된 첫 민요 튀르키예는 “사랑에 빠진 열간이가 레일라를 보았네(Mecnunum, Leylamı gördüm)”로 시작하는 시인데, 1940년대 초에 제작한 웨이셀의 첫 번째 LP였고, 그것으로 웨이셀은 사즈 연주를 녹음한 첫 번째 예술인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마을학교가 설립된 후 아흐메트 쿠트시 테제르의 도움으로 다른 아시옥처럼 아리피예(아다파자르), 하산오올란(앙카라), 치프테레르(에스키셰히르), 필뢰이(카스타모누), 파무크프나르(시바스), 악프나르(삼순) 마을학교에서 사즈를 가르쳤다. 마을학교에서 활동하면서 튀르키예 문화생활에 영향을 끼친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을 만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웨이셀의 시와 음악 세계도 갈수록 성장할 수 있었다. 그의 실력을 인정한 튀르키예 대국민의회가 1965년 7월 20일 최초로 특별 법령까지 제정해 아시옥 웨이셀의 ‘모국어와 조국 통일을 위한 노력’을 치하하며 월 500리라 상금을 지급하는 일도 있었다.

아시옥 웨이셀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아시옥 문학에서 주로 보이는 전통적인 모티프를 사용하

지 않았다는 점이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 마시기(bade içme)’ 모티프나 일반적으로 도제식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표현하는 스승 곁에서 제자가 사즈와 전통을 배우고 함께 다니는 모습은 아시옥 웨이셀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다. 또한 청중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맞추는 형식도 웨이셀은 잘 사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전통적인 모티프를 고집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민속시인으로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는 카라자오올란(Karacaoğlan), 데르틀리(Dertli), 이우누스(Yunus)의 계보를 이어나가고자 노력했다.

그 외에도 아시옥 웨이셀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지식인만 민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도 지식인에게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시골 마을 정서를 대도시 예술 환경으로 옮겨와 당시 뛰어나고 유명한 엘리트 예술가들이 전통을 더 친근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마침 당시 튀르키예 공화국이 건국되면서 민중을 중심으로 한 문화 정책이 공화국의 중요한 축을 형성했는데, 아시옥 웨이셀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옥 웨이셀은 진심이 담긴 민중의 언어, 지식인의 삶, 자연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담아냈다.

아시옥 웨이셀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 시브리아라는 마을에서 1973년 3월 21일 생을 마감했다. 그의 생가는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시옥 웨이셀

● 다국어 표기 Aşık Veysel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데르틀리, 아시옥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anadoluyugeziyorum.com/upload/blog/anadolu%20as%C4%B1klari/a%C5%9F%C4%B1k%20veysel%20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şık Veysel, *Değişler* (Haz: A. Kutsi Tecer), Ülkü Yayınları, Ankara, 1944.

Aşık Veysel, *Dostlar Beni Hatırlasın*, İş Bankası Yayınları, İstanbul, 1970.

Binyazar Adnan, *Dede Korkut*, CemYayınevi, İstanbul, 1991.

Baykurt Fakir, *Köşe Bucak Anadolu*, Papirüs Yayınları, İstanbul, 2000.

Boratav Pertev Naili, *100 Soruda Türk Halk Edebiyatı*, Gerçek Yayınları, 4. Baskı, İstanbul, 1982.

Ekmekçi Mustafa, *Yeni Ortam Gazetesi*, 2 Ocak 1973.

Erdoğan Alkan, *Kör Oldum Veysel Oldum*, EYayınları, İstanbul, 1991.

Gökçe Enver, “Aşık Veysel Üzerine”, *Yaba Yazın Dergisi*, s.23, Temmuz 1982.

- Günay Umay, *Türkiye’de Aşık Tarzı Şiir Geleneği ve Rüya Motifi*, Akçağ Yayınları, Ankara, 1992.
- İnan Abdü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Materyaller ve Araştırmalar*, Türk Tarih Kurumu Yayınları, 3. Baskı, Ankara, 1986.
- Kaya Doğan, *Aşık Veysel*, Sivas Valili Yayınları, Sivas, 2004.
- Kaymak Veysel, *Aşık Veysel’li Yıllar*, Ankara, 1996.
- Köklügiller Ahmet-Minnetoğlu, *Şair ve Yazarlarımız Nasıl Yazıyorlar?*, İstanbul, 1974.
- Köprülü M. Fuad, *Edebiyat Araştırmaları 1*, Ötüken Yayınları, 3. Basım, İstanbul, 1989.
- Kutsi Tahir, *Aşık Veysel’in Dünyası*, Bako Kültür Yayını, 2. Baskı, İstanbul, 1982.
- Özen Kutlu, *Aşık Veysel Selam Olsun Kucak Kucak*, Dilek Matbaası, Sivas, 1988.
- Turan Metin, *Aşık Veysel Yaşamı ve Sanatı*, Prospero Yayınları, Ankara, 1994.
- Turan Metin, *Ozanlık Gelenekleri ve Türk Saz Şiiri Tarihi*, Başkent Basım Yayım, Ankara, 1996.
- Turan Metin, *Dostlar Seni Unutmadı(Türkçe-İngilizce)*,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00.

I E083 | 아시옥 흐드 맴매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조지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아시옥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Aşiq Xındı Məmməd

아시옥 흐드 맴매트(Aşiq Xındı Məmməd)는 1896년에 보르찰르(Borçalı)시 뷔익 무간르 촌(Böyük Muğanlı kəndi)에서 태어났다. 유년기는 어려운 편이었으나, 아시옥 아가자(Ağaca) 곁에서 잠시 지내면서 시와 예술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아시옥 창작을 배우게 된다.

그는 보르찰르에서 유명한 아시옥인 배야지드리 매심(Bəyazidli Məsi)을 만나게 되면서 연주자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이하고 유쾌한 목소리의 소유자였던 맴매트는 아시옥 창작법을 깊이 익혀 보르찰르에서 아시옥 창작의 장인이 되었고, 후에 ‘흐드 맴매트(Xındı Məmməd)’라는 예명으로 이름을 떨친다.

이후 디아니(divani), 태즈느스(təcnis), 개라일르(gəraylı), 뮌햄매스(müxəmməs) 같은 아시옥 시 형식으로 많은 작품을 창작했고, 수많은 위대한 아시옥들의 시에 답을 했다. 많은 장인 아시옥들과 시로 겨루기를 하기도 했고, 당대 유명한 시인이자 아시옥이었던 샤이르 아가잔(Şair Ağacan), 샤이르 내비(Şair Nəbi), 배야지드리 매심(Bəyazidli Məsim), 테흐래리 노브르

즈(Təhləli Novruz) 등 많은 이들과 교류했다.

한때 1930년대에 범투르크주의자로 낙인 찍혀, 트빌리시(Tiflis)에 있는 메텍 탑(Metex qalası)에서 잠시 수감되는 일도 겪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기도 한 흐드 맘매트는 종전 후에도 창작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제자를 육성했다. 그가 가르쳤던 아시옥 제자로는 매햄매드 사다흘르(Məhəmməd Sadaxlı), 알라흐야르(Allahyar), 지옛딘(Ziyəddin), 세이프(Seyfi) 등이 있다.

아시옥 흐드 맘매트가 창작한 시는 『광장에서 영웅답게(Meydanda mərdi-mərdanə)』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스그 흐드 맘매드
 - 다국어 표기 Hindi Mammad(영어), Hindi Memmed(튀르키예어), Хыңды Мамед(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youtu.be/p6oU0ApJNy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eb.archive.org/web/20110819031320/http://azab.az/ustad/39-xindi-mzhmmzhd.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MƏMMƏDLİ Şurəddinc, "BORÇALI ƏDƏBİ MÜHİTİ: QAYNAQLARI, İNKİŞAFI", *Journal of Azerbaijani Studies*, 2001, Vol. 4, № 3-4 pp.47~72.
- İMAMVERDİYEV İ. C., "AZERBAJYCAN HALK AŞIKLARININ ÖZGÜN ÖZELLİKLERİ." *Atatürk Üniversitesi Türkiyat Araştırmaları Enstitüsü Dergisi*, 10(21), pp.147~156.

I E084 | 아시카이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Ashikaidin

‘아시카이딘’은 호라즘 오아시스에 속한 투르크멘과 우즈베크 민족 신화에 나오는 피리로 가수이자 음악가의 수호신이다. 전설에 의하면 아시카이딘은 인간에게 샤먼의 자질을 선사하기도 하고 인간의 이성을 빼앗기도 한다. 아시카이딘의 형상은 첫 번째 샤먼이자 가수인 현자 코르쿠

트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현자 코르쿠트에 의하면 음악가의 자질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아시카이딘의 무덤에 순례를 가서 두타르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밤을 지새워야 한다. 그리고 다음 순례자에게 모습을 드러내 그의 음악과 노래를 축복한다.

민속 서사시 「네드제프 오글란 Неджеб Оглан」에 등장하는 아시카이딘은 음악가이자 가수인 자신의 제자를 축복하면서 마법의 두타르를 선물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또한 영웅서사시 「코로글루」의 등장인물이기도 한데, 작품 속에서 그는 음악과 노래 경연에서 코로글루의 친구이자 대장장이의 아들인 케렘이 모든 청혼자를 이기고 부자의 딸 하르만-달리와 결혼하는 것을 도와준다. 하르만-달리가 무덤에 숨은 아시카이딘에게 패배하면서 하르만-달리와 결혼할 권리를 케렘에게 양보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영웅이 모든 청혼자를 죽이는 미친 오빠를 물리치고 약혼자를 얻는 것을 돕는 현자 코르쿠트의 전설과 유사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식아이든, 아시옥아이든

● 다국어 표기 Ашыкайды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현자 코르쿠트, 코로글루, 두타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асило В.Н., Культ святых в исламе, М., 1970, 63~66.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 1991, 146.

I E085 | 아알 루우크 마스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강덕수 ● 라틴 문자 aal luuk mas

아알 루우크 마스는 성스러운 나무를 의미하는데, 하늘의 신 아이으(ajyy)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나무는 자작나무로 의식용 도구로 쓰였다. 야쿠트인들은 나무가 어린아이에게 영혼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은 자작나무나 침엽수처럼 수관을 쓴 나무 앞에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 풍습이 여덟 개의 가지를 가진 나무에 태어날 아기의 등

지를 만드는 의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다.

신화에 의하면 아이으 토욘은 최초의 샤먼을 만들면서 자기 몸에서 여덟 개의 가지를 가진 나무를 키웠다. 가지 사이에는 창조주의 아이들인 선한 영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알 루우크 마스’라는 성스러운 나무였다. 이 나무는 위로 하늘을 뚫을 만큼 가지가 자라고, 아래로는 뿌리가 땅 밑까지 내려갔으며 이 나무를 통해 세 개의 세계가 서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으흐 아흐 축제에서는 의식의 중심적 상징물로 이 나무를 높이 세우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알 루우크 마스
- 다국어 표기 аал луук мас(야쿠트어)
- 연관 검색어 아이으, 야쿠트인, 토욘
- 참고문헌(오프라인) 강덕수, 『야쿠티야, 맘모스와 다이아몬드와 착한 사람들의 나라』, HUFS Books, 2011.

I E086 | 아야소피아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yasofya

‘아야소피아’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소재한 모스크로, 과거에는 동로마 제국의 성당이었고, 오스만 제국의 모스크였으며,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부터 2020년까지 박물관으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모스크가 되었다.

동로마 제국 시대에 불리던 이름이 성스러운 지식이라는 의미의 하기아 소피아(그리스어 표기: Ἁγία Σοφία, 영어 표기: Hagia Sophia)였는데 이 ‘하기아 소피아’를 튀르키예어로 바꾼 표기법이 아야소피아(Ayasofya)이다. 정식 명칭은 ‘성스러운 대 아야소피아 모스크’라는 의미의 ‘아야소피아 이 케비르 자미 이 쉐리피(Ayasofya-i Kebîr Câmî-i Şerîfî)’이나 일반적으로 아야소피아라고 부른다.

아야소피아는 4세기에 처음 콘스탄티누스 1세(Constantine I, 재위: 306년~337년)의 명령

으로 건설이 시작되어, 콘스탄티누스 2세(Constantine II, 재위: 337년~340년) 시대에 목조 지붕 바실리카 형식의 건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404년 화재로 인하여 교회가 소실되어 415년에 재건되었고, 532년 다시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후 유스티니아누스 1세(Justinian, 재위: 527년~565년)는 이 성당을 더 크고 웅장하게 짓도록 명하여, 트랄레스의 건축가 안테미우스(Anthemius of Tralles)와 밀레투스의 건축가 이시도레(Isidore of Miletus)가 공사를 진행하여 537년에 완성했다.

당시 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으로 아야소피아 성당 건축을 위한 자재는 에페소, 시리아, 이집트 등 각지에서 조달되었는데 두 건축가는 바실리카 형식의 건물 중앙을 펜던티브와 돔으로 덮었다. 그러나 이 초기의 돔은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라지게 돼, 결국 새로 짓거나 보수 공사를 반복하게 되었다. 또한, 거대한 돔의 하중 자체가 견디기 어려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미 돔과 측벽 교각, 아치 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1204년 제4차 십자군 이후 한동안은 로마 가톨릭 성당이었다. 15세기에 이르러서 동로마 제국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한동안 황폐하고 방치된 상태였다는 기록도 남겨져 있다. 하지만 1453년 술탄 메흐메드 2세(II. Mehmed, 재위: 1444년~1446년(1차), 1451년~1481년(2차))가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을 정복한 후 비로소 모스크로 개조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슬람교 세력이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교회 건축물을 파괴하거나 모스크로 개조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술탄 메흐메드 2세 역시 정복 후 아야소피아에서 첫 기도를 함으로써 성당은 모스크로 변경되었고, 모스크를 자신의 재단에 헌납했다.

모스크의 개조 작업은 우선적으로 주변에 마드라사를 건설하고, 성당 서쪽 세미 돔 옆에 목재 미너렛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미너렛은 1574년 철거되었고 이후 모스크 남서쪽으로 건설된 미너렛은 정확히 언제 건설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바이에지드 1세(I. Bayezid, 재위: 1389년~1402년) 시기로 추정된다. 남동쪽 미너렛의 경우 바이에지드 2세(II. Bayezid, 재위: 1481년~1512년)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셀림 2세(II. Selim, 재위: 1481년~1574년) 시대에 다시 2개의 미너렛이 추가되는 등 오스만 제국 시대에 아야소피아 모스크의 증축과 수리는 반복되었다. 특히 모스크 인근에 영묘와 무덤, 마드라사, 무료 급식소 등이 추가되어 아야소피아 모스크는 복합단지(külliye)로 변모하게 된다.

아야소피아 내부의 모자이크 장식은 의외로 18세기까지 초까지 가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아야소피아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가려졌다. 1847년~1849년 술탄 압뮐메지드 1세(I. Abdülmecid, 1839년~1861년)의 명에 의해 성당을 수리하고 인근에 술탄이 방문 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자이크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1894년 지진으로 아야소피아 성당의 벽에 균열이 생기고,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형 모자이크에 석고를 부어버리면서 다시 자취를 감췄다. 이처럼 오스만 제국이 입헌군주제를 거쳐 튀르키예 공화국 건립에 이르는 시기에도 아야소피아 모스크는 수리와 보강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그리고 결국 1934년 11월 24일 튀르키예 공화국 각료회의의 결정으로 아야소피아는 모스크가 아닌 박물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면서 마드라사가 철거되고 내부의 가구들 역시 함께 철거되었다. 그리고 1932년부터는 모자이크 발굴 작업을 비롯하여 아야소피아 내부 및 외부 조사를 시작해 1970년도까지 지속되었다. 박물관으로 개조된 아야소피아는 1980년 8월 8일 예배를 위해 잠시 개방되었다가 수리를 위해 다시 폐쇄되었고, 1991년 2월 10일 예배를 위해 다시 개방되어 부분적으로 모스크 역할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 아야소피아의 모스크 지위 획득을 위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다가, 2020년 7월 2일 국무원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모스크의 지위 획득이 가능해지면서 2020년 7월 10일 자로 대통령령으로 다시 모스크가 되어 종교 사무국으로 이관되고,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예배로 모스크의 역할도 재개되었다.

아야소피아의 구조는 바실리카 형태와 중앙형 플랜이 결합된 형식으로, 거대한 돔이 특징적



아야소피아 내부



아야소피아 내부 벽화

이며 주요 자재는 벽돌과 모르타르로 만들어져 있다. 중앙 공간과 남북 측면에 신도 석, 동쪽 끝에 앱스, 서쪽에는 나르텍스로 구성되어 있다. 총면적은 7,500제곱미터고, 2층 건물로 본당의 최대 높이는 55.6m이다. 돔은 4개의 둥근 삼각형 펜던티브가 지탱하고 있으며, 내부 직경이 30.8m~32.6m로 건축 당시에는 가장 큰 규모의 돔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 돔의 무게가 내내 문제가 되어 모스크가 훼손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돔의 동서에는 세미 돔이 있으며, 이 세미 돔보다 더 작은 세미 돔이 있다. 돔에는 40개의 창문이 있고, 수 세기에 걸쳐 많은 부 벽이 추가되었다. 이들은 세미 돔과 함께 돔의 무게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미너렛은 오스만 제국 시대에 추가된 것으로 총 4개이다.

아야소피아가 성당이던 시절 내부는 모자이크로 장식되었으며 모자이크의 내용은 동방 정교회 성도들과 교부들, 교회 관련 위인들, 복음서의 일부 장면 등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 시대였던 19세기에 내부에 미흐랍과 민바르, 알라와 예언자 그리고 4대 칼리프 그리고 예언자의 두 손자의 이름이 새겨진 8개의 서체 장식 메달이 걸리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소피아 대성당, 아이아소피아, 하기아 소피아, 성소피아 성당
- 다국어 표기 Ayasofya(튀르키예어), Ayasofiya(아제르바이잔어), Аия София(카자흐어), Sofiya ibodatxonasi(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메흐메드 2세, 미마르 시난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archnet.org/sites/1989>
- 참고문헌(오프라인) Eyice, Semavi. "Ayasofya", TDV İslâm Ansiklopedisi 4.cilt, İstanbul: TDV, 1991, pp.206~210.
Mainstone, Rowland J. *Hagia Sophia: architecture, structure, and liturgy of Justinian's great church*.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97.

I E087 | 아우다르스팍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놀이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Audaryspak

아우다르스팍은 말을 탄 채 손과 팔의 힘을 이용하여 상대방 선수를 말 위에서 떨어뜨리는 카자흐인들의 전통 경기이다. 대개 일대일 경기로 진행되는데 선수의 힘과 기술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경기이다.

비슷한 방식으로는 한국의 기마전이 있다. 선수가 실제 말을 타고 상대방을 말 안장에서 끌어내리면 승리하는 매우 과격한 경기에 속하는데 카자흐인처럼 말을 타는 것이 기본적인 일상인 전통 유목민들에게 익숙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을 타고 습격하거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로 여긴다.

아우다르스팍 경기에서 중요한 점은 절대 상대방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령 지나치게 움직여서 상대방의 머리를 다치게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단지 손과 팔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말 안장에서 이탈시켜야 한다. 카자흐인들은 말을 이용한 놀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경기는 그중에서도 매우 박력있고 과격한 것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명절이나 주요 축제 때에 사람들은 이 경기를 선보임으로써 힘과 용맹함을 과시하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진다. 그리고 이 경기의 선수는 소속 단체 혹은 마을의 대표로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



아우다르스팍

다. 힘과 기술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며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에서 떨어지지 않는 연습과 상대방의 공격에 방어하는 법까지 능숙해져야만 하는데 또한 상대방을 말에서 떨어지게 해야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구력과 인내력도 필요하다.

- 다국어 표기 Аударыспақ(카자흐어), Аударыспа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인 전통놀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m5EUaMXDfFQ>
- 참고문헌(온라인) <https://silkadv.com/en/content/audaryspak-0>
- 참고문헌(오프라인) Jeteyeva Dana and Yerkebulan Dzhelbuldin, *Traditions and Customs of Kazakhs*, Author House, 2014.

I E088 | 아이나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악령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hk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Ayna, Aina

‘아이나’는 사람과 동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악을 행한다고 믿어지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의 총칭이다. 하카스 샤머니즘 신화에 따르면 아이나는 세계가 창조될 때 지하세계의 신 이를릭 한(İrlig Han (Erlık Han))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이다. 인간들은 그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아이나’라는 단어 대신, saydan(악마) 또는 itkek-sashah(죄로 인간을 밀어 넣는 존재)와 같은 이름을 사용했다.

지하세계(저승)이나 천상계와 지하세계의 중간인 중간계에 산다고 믿어지는 아이나는 날카로운 도구와 바늘로 된 관목들을 무서워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샤먼들은 바늘덤불 조각들을 사용하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악령을 내쫓았다. 그리고 홀라 마르하(hola marha, 청동으로 만든 둥근 단추)로 장전된 소총과 청동으로 만들어진 칼에 상처를 입으면 죽는다고 한다.

아이나는 일반적으로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장소(하카스어로 een çir)에서 발견된다. 인적이 드문 이런 장소에서 인간은 그들 자신을 아이나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신령들을 만날 수 없다고 믿는다. 하카스인 사이에서 아이나는, 아이나 길목(ayna çolı)으로 불리는 특정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여겨지며 때로 인간에게 폭풍(허리케인)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믿는다. 이런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면서 길에서 아이나를 만난 하카스인은 호스에 3번 침을 뱉은 후 샤먼의 기도문을 읊는 풍습을 갖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이나

● 다국어 표기 Айна (하카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Буганаев, В. Я. & Торбостаев, К. М. “Айна”,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T. 1, Абак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2008, C.32-33.

I E089 | 아이니 미너렛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 1 건축 ● 유형 소분류 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yni minaret mosque

‘아이니 미너렛 모스크’는 흑양조 이후 아나톨리아에 세워진 백양조의 첫 중심지였던 디야르 바크르에 건설된 모스크이다. 기록에 의하면 1489년 호자 아흐메드(Hoca Ahmed)의 후원으로 건설되었다고 한다. 초기 오스만 시대 모스크와 유사하게 T자 형태로 중심 공간과 중심 공간 양쪽에 공간이 있는 긴 직사각형의 단순하고 작은 모스크이다.

주재료가 마름돌인 아이니 미너렛 모스크의 중심 공간은 교차 볼트로 덮여 있으며 양쪽 공간은 배럴 볼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각 공간이 벽으로 나뉘어있지는 않다. 남쪽 벽에는 오각



아이니 미너렛 모스크

형 형태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며 이곳에 무카르나스로 장식된 미흐랍 벽감이 자리 잡고 있다. 미흐랍의 상단부는 반구형 형태의 볼트로 덮여 있다. 문과 창문은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고 내부는 후대에 추가한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건물 전면부에는 두 개의 기둥과 세 개의 아치로 이루어진 배랑이 있다. 배랑은 네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있으며 평천장이고 배랑의 양 끝은 벽으로 막혀있다. 배랑은 건물과 다소 균형이 맞지 않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원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복구공사의 결과로 보인다. 팔각형 몸체의 미너렛은 외부에 있다. 이처럼 잘 정렬된 마름돌 건물이라는 점이 인상적인 아이니 미너렛 모스크는 백양조 초기 모스크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이니 미나레 자미

● 다국어 표기 Ayni minare cami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흑양조, 백양조

● 멀티미디어 링크 아이니 미나르테 모스크_미나레트_내원_배랑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large/26032013/06cf14c1-d1ea-4754-b152-e20983f3f453.jpg?format=jpg&quality=50>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Altun, Ara. "Ayni minare camii", *TDV İslâm Ansiklopedisi* 4. cilt, Istanbul: TDV, 1991, p.275.

I E090 | 아이든 공국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Emirate of Aydin

‘아이든 공국’은 1308년~1426년 사이에 서 아나톨리아 해안에 위치했던 투르크멘 공국 중 하나였다. 룸 셀주크 투르크가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약화되었던 1243년 이후, 아나톨리아반도에는 여러 자치 투르크멘 공국(Beglik), 혹은 아미르 국(Emirate)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중

에서도 아이든 공국은 서 아나톨리아 해안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베네치아나 제노아 등의 여러 유럽 세력과 잦은 접촉이 있었다.

아이든 공국은 튀르키예의 서쪽에 위치한 이즈미르를 포함한 이남 지역을 주 세력권으로 갖고 있었으며, 수도는 대 멘데레스 강의 하류에 위치한 도시 아이든이었는데 그곳의 옛 이름이 아름다운 성채를 의미하는 귀젤 히사르(Güzelhisar)였다. 공국의 북쪽으로는 사루한 공국이, 남쪽으로는 멘테세 공국이 있었다. 아이든 공국을 처음으로 세운 무함마드 벡은 본래 아이든 공국의 동쪽에 있던 게르미안 공국의 사령관(Subashi) 출신으로, 멘테세 공국의 아미르의 사위인 사사 벡과 동맹을 맺으며 독자의 노선을 걷기 시작하다가, 멘데레스 강 하류의 주요 거점들을 차지한 후에 사사 벡이 동맹을 파기하자 결국 1308년에 그를 살해했고, 이후 공국의 자리를 다져나갔다.

그의 아들인 우무르 벡(Umur beg)은 아이든 공국에서 최대의 영역을 차지한 군주로, 그의 여러 정복 전쟁은 서사시 형태의 저서 『다스탄(Dastan)』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즈미르 등에게 해 해안의 도시를 차지함으로써 아이든을 서쪽의 크리스트 국가들에 대항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만들었고, 루마니아와 그리스 쪽에도 진출하여 세금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1344년에 교황 클레멘스 6세가 발족한 십자군이 이즈미르를 차지하자 1348년에 이곳을 탈환하려다 사망했으며, 그 결과 유럽측에 유리한 조약이 맺어졌다. 그러나 유럽 내의 여러 세력 역시 이 지역을 둘러싸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으므로, 위의 상황처럼 유럽 세력끼리 동맹이 맺어졌을 때는 잠시였을 뿐 서로 갈등이 빚어졌을 때는 아나톨리아의 공국들과 연합을 맺고 도움을 요청하곤 했다.

1348년 우무르 벡이 사망한 후에 아이든 공국과 제노아 사이에는 조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여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다가 1358년에 다시금 조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 오스만이 점차 아나톨리아의 패자로 성장했고 1389~1390년의 겨울에 바야지드 1세가 아이든과 멘테세 공국을 병합하면서 약 12년간 아이든 공국의 통치자 자리는 공석이 되었다. 이후 1402년에 앙카라 전투를 통해 바야지드 1세를 대파한 티무르는 옛 공국의 벡들을 복위시켰고, 아이든 공국에도 전임 벡인 이사의 두 아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마지막 벡인 주나이드가 오스만의 왕위 경쟁 과정에서 무라드 2세가 아닌 다른 술탄 후보를 지지했다가 무라드 2세에 의해 1426년 오스만으로 병합되면서 약 100여년에 걸친 아이든 공국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게르미안 공국
- 다국어 표기 Aydınoğulları Beyliği (튀르키예어), آیدین (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룸 셀주크, 게르미안 공국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eb.archive.org/web/20080227195426/http://www2.let.uu.nl/Solis/anpt/ejos/pdf/VG07.pdf>
- 참고문헌(오프라인) Bosworth, C. E., *The new Islamic dynasties -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6, pp.367~368.
- Inalcik, Halil. "The Rise of the Turcoman Maritime Principalities in Anatolia, Byzantium, and Crusades." *Byzantinische Forschungen*9, 1985.
- Melikoff, I., "Aydin-Oghlu." *Encyclopaedia of Islam* 1, Leiden: Brill, 1986, p.783.

I E091 | 아이락 고즈고르-1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Airagin Gozgor-1

흉노에 이어서 등장하는 선비는 A.D. 1세기~5세기에 역사에 등장하는데, 이 시기를 나눠보면 흉노와 선비가 함께 공존한 흉노-선비시기가 1세기~3세기, 선비와 유연이 함께 공존한 선비~유연시기가 4세기~5세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흉노의 주요 활동 공간인 몽골에서 2세기~5세기대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명확하게 몽골에서 선비의 흔적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최근 불란-토이룸 유적, 아이락 고즈고르-1 유적의 발굴로 선비의 활동영역에 몽골이 포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몽골 오르혼 지역에서 조사된 아이락 고즈고르-1 유적은 흉노의 무덤과 같이 연도를 돌로 쌓은 무덤으로 흉노와 재지의 무덤 양식이 합쳐진 결과였다. 출토되는 유물 역시 토기, 철기, 구슬 등 흉노의 유물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질 인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몽골에서 발견된 선비 무덤과 동일한 지역성이 발견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이락 고즈고르1

● 다국어 표기 Airagin Gozgor-1(몽골어)

● 연관 검색어 선비, 흉노, 유연

● 참고문헌(오프라인) 강인욱, 「유라시아 동부 초원지역 선비·유연 시기 고고학적 문화와 그 의의」, 『동북아역사논총』, 57권, 2017.

I E092 | 아이박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이집트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송경근 ● 라틴 문자 Aybak al-Turkmani

‘아이박’은 아유브조 술탄 살리흐의 맘루크였다. 1250년에 술탄 살리흐의 처 ‘샤자르 알-두르’와 술탄 살리흐의 후계자 투란 샤의 모친에 의해 아타벡(정치적 후견인)이 되었다. 그런데 투란 샤의 죽음 이후 맘루크들에 의해 술탄의 자리에 오른 샤자르 알-두르가 칼리프의 반대로 술탄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맘루크의 수장인 아이박과 결혼해 그의 부인이 되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샤자르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박에게 그의 부인 움르 알리와 이혼하도록 종용했다. 결국 아이박은 지배권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압바스 칼리프 ‘알-무스타심 빌라흐’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왕권을 인정받는다. 그리고 이후 왕권 강화에 노력하며 시리아의 아유브조의 침입에 막고 유목민들의 반란을 진압했다.

그 후로 7년간 아이박과 샤자르의 관계는 평온했다. 샤자르는 1250년 그녀의 전남편 ‘알-살리흐’를 위한 무덤을 카이로시의 가장 번화한 알-무잇즈 거리에 세우기도 했는데 그곳은 원래 아유브 조 이전의 파티마 조의 궁전이 있던 자리였다. 하지만 아이박이 새 부인을 맞이하려 하면서 이런 평화로움은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 아이박이 투르크계 모술의 지배자의 딸을 새 부인으로 맞이하려 하자 이에 분노한 샤자르는 그를 죽였고, 그 사실을 안 아이박의 첫째 부인 소생인 ‘알리’가 그녀를 압박해 죽게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죽은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으나, 질투로 아이박을 죽이고, 그로 인하여 그녀도 죽은 것은 확실하다. 사후 그녀는 생전에 준비했던 무덤에 묻혔다.

아이박이 술탄이 됨으로써 비로소 군주의 노예 병사였던 맘루크가 지배자가 되는 길이 열렸으며, 이것은 맘루크가 지배하는 이집트 맘루크 국가가 시작됨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이박 알-투르크마니, 알-말리크 알-무잇즈

● 다국어 표기 أيبك التركماني(아랍어), Aybeg(튀르키예어), İzzəddin Aybək(아제르바이잔어), Айбек Муиза-Изз-əд-дин(카자흐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최준석, 『함두릴라, 알카히라』, 서울: 메디치, 2009.

Ahmad, "Attīyah llah", Al-Qamus al-Islamiyu ' V.1, al-Qahirah: Maktabah al-Nahdah al-Misriyah, 1963, p.223.

Thorau, Peter. The Lion of Egypt, Longman, 1992, pp.43~47. pp.51~52.

I E093 | 아이샤 비비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isha Bibi mausoleum

카자흐스탄 타라즈(Taraz)의 투르키스탄-시베리아 철도 잠불 역 근처에 건설된 영묘이다. 영묘에 비석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건설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건축적 특징으로는 11세기~12세기 또는 카라한 칸국(840년~1212년)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영묘의 주인인 '아이샤 비비'에 관해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아이샤 비비(Aisha-Bibi)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크게 두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유명한 시인이었던 하킴 아타(Hakim Ata, ? ~ 1186/87년)의 딸로 카라한과 결혼을 하기 위해 오다가 길에서 죽었기에 카라한이 크게 슬퍼하며 이 영묘를 지었다는 학설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셀주크의 술탄인 알프 아슬란(Alp Arslan, 재위: 1064년~1072년)의 딸로 카라한 칸국의 나스르 빈 이브라힘(Şems-ül Mülk Nasır bin İbrahim, 재위:1068년~1080년)의 아내였다는 학설이다.

영묘는 벽돌과 테라코타인을 주재료로 지어졌으며 7.60mx7.62m 크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평면 위에 정육면체 형태로 만들어져있다. 지붕은 원뿔 형태이며 현재 정면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복원작업을 마치고 주변을 공원화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된 상태이



아이샤 비비 영묘

다. 영묘의 네 면 중앙에는 오지 아치 형태의 벽감이 있고 서쪽 면에는 정문이 있다. 그리고 네 면 모두 테라코타 패널로 장식되어 있다. 정사각형, 팔각별 문양, 십자가형의 패널 안에 음각으로 만든 루미(Rumi) 문양, 팔메트 문양으로 채워져 있다. 영묘의 전면과 정문은 벽돌과 테라코타로 만들어낸 64종류의 다양한 모티프로 장식되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비교적 다른 면은 단순하게 장식되어 있다. 정문의 양쪽에는 중앙아시아 목제 기둥에 영향을 받은 둥근 원통형의 탑이 있는데 탑의 윗부분에는 테라코타로 만들어진 띠에 글이 새겨져 있다. 글의 내용은 시인 사디(Sadī, 1184년~1291년)가 쓴 굴리스탄(Gulistan)의 일부분이다. 서쪽의 오지 아치형 벽감은 테라코타와 벽돌로 장식되어 있다. 벽감의 내륜은 무카르나스로 이어진 반구형의 궁륭으로 되어 있다. 입구 오지 아치의 양 모서리에는 식물 문양으로 장식된 작은 기둥이 자리하고 있다. 이 영묘를 통해 11세기~12세기 정문을 테라코타와 벽돌로 집중적으로 장식하는 카라한 칸국 특유의 스타일을 관찰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이셰 비비 영묘, 아이사 비비 영묘
- 다국어 표기 Айша бибі кесенесі(카자흐어) , Ayşe Bibi Türbe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라한 칸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qazaqstan3d.kz/upload/thumbed/940x498/781133_1504633218_940_498_0.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Çeşmeli, İbrahim. *Antik çağdan 13. yüzyıla kadar Orta Asya ve Karahanlı dönemi mimarisi*, İstanbul: Arkeoloji ve Sanat yayınları, 2007.
Bubur, Rüçhan. “KAZAKİSTAN, JAMBUL’DA, AYŞE BİBİ TÜRBESİ”, *Sanat Tarihi Dergisi*Sayı/Number XIV/1 Nisan/April 2005, pp.29~43.

I E094 | 아이안

- 시기 A.D. 15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칭호 ● 유형 소분류2 지위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Ayan

‘아이안’은 원래 아랍어에서 명사(名士, notable), 즉 유명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ayn’의 복수형으로, 칼리프 제국과 무슬림 왕조들에서 흔히 쓰인 어휘였다. 오스만 시대에도 상당히 넓은 의미로 특정 도시나 지역의 가장 유력한 인사들을 지칭하는 어휘로 쓰였으나, 18세기부터는 특히 정치적 영향력과 공식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스만 사료에는 에쉬레프, 에르칸, 데레베이, 뮈테갈리베(müteğallibe) 등 매우 다양한 명칭이나 관직명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아이안의 유래 역시 다양하여 중앙으로부터 임명받은 지방관 출신, 예니체리 등 군인 혹은 군인의 후손, 각종 상공인이나 세금 청부업자, 카디 등 울레마나 수피 세이흐 같은 종교인 출신도 있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에는 도시마다 중앙에서 임명된 행정관들과는 별개로 지역의 아이안들(ayan-ı vilayet)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한 명의 아이안(바쉬 아이안, 아이안의 우두머리)이 그 도시의 주민들의 민원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시책을 현지에서 실행하며 지역민과 중앙정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주로 당시 아이안은 일부 세금의

징세를 맡거나, 부패한 지방관을 파직시키고 청렴한 지방관을 임명해달라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중앙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했는데 특히 16세기 후반 이후 중앙 군 출신 인사들이 아이안으로 지방에 정착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그 역할이 더욱 크게 성장했다. 아이안들은 지방관들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일반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전란이 있을 때 농토를 경작하는 농민들과 용병들이 보호받기 위해 숨어들어갈 수 있는 민간의 유력자였다.

민간 사회에서 아이안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17세기 말 제2차 빈 포위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데다 신성동맹(The Holy League)과의 10여년의 전쟁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1695년에 도입된 말리카네(malikane, 종신 세금 청부계약) 제도의 영향이 컸다. 지방 명사들은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부유해졌을 뿐 아니라 세금 청부를 맡은 지역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커진 재정적 중요성 때문에 1726년 이후 중앙 정부는 아이안들을 산작베이 혹은 베일레르베이 같은 중요 지방관직에 임명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18세기 중엽부터는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장악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어 아이안 가문이 자기 지역에서 행정 담당을 넘어서 사실상 왕조처럼 큰 가문을 일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흐름을 통해 18세기 중엽부터의 아이안 세력이 종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중앙 권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아이안은 지방행정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으니, 재산 증식과 지역 내 권력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이처럼 아이안들은 오스만 중앙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대표였고 해당 지역의 아이안(ayan-ı vilayet) 가운데서 공식적 지위를 가진 아이안이 선출되었는데 선출은 주민들의 연명 청원(mahzar), 카디의 공지(l'lam), 그리고 주(州: vilayet)장관 왈리의 아이안 임명장(ayanlık buyruldu)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 임명장을 받는 아이안은 취임을 위해 아야니예(ayaniyye)라는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었다. 이때 선거권자 역시 그 지역의 아이안들이자 주민이었기에 서로가 서로의 정보와 참여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선출 관련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으며 그나마 문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아이안 선출도 1680년대부터이다.

이와 유사하게는 발칸반도와 에게해의 기독교인 밀집 지역에서는 마을이나 동네를 대표하는 코자바시(kocabaşı)도 기독교인 인구에게 아이안과 비슷한 기능을 했다.

결과적으로 아이안들의 영향력은 크게 성장했고, 1768년~1774년 사이의 러시아-오스만 전

쟁에서 전비 조달과 군사 충원의 대부분도 제국 전역의 아이안들에 의지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이안으로 선택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많은 잡음을 불러일으켰고 지방관이 뇌물을 받고 임명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1765년 중앙정부가 아이안 임명권을 회수하여 독점했다가 또다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원래의 제도로 돌아가는 등 곡절이 많았다. 1786년에도 아이안 선출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으로 셰히르 케트뤼다라는 관직을 신설했으나 지방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1790년 원래대로 아이안 제도로 돌아갔다. 전쟁 기간의 정치적 역동이 거세질수록 아이안들의 정치적 역량은 더욱 강해져갔고 결국 18세기 말 19세기 초에는 중앙 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반기를 들거나, 혹은 중앙 정치에 개입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808년 개혁파와 제휴한 ‘알렘다르 무스타파 파샤’가 반란을 일으켜 수도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무스타파 4세를 폐위시키고 마흐무드 2세를 즉위시킨 일이 있었다. 그때 알렘다르 무스타파 파샤는 스스로 대재상이 되어 전국의 아이안을 초대한 다음 (비록 많은 아이안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중앙정부의 요인들과의 회의를 개최해 군주 주도의 개혁을 지지하는 대신 아이안들의 기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 문서(sened-iittifak)을 만들었으니 그때가 아이안 권력의 정점이었다.

그러나 알렘다르 무스타파는 같은 해에 예니체리 정변으로 목숨을 잃었고 이후 즉위한 마흐무드 2세는 중앙집권적인 개혁에 매진하면서 아이안의 세력을 약화하는 정책을 썼으니, 아이안 지위를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후손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아이안이 담당하던 임무를 중앙에서 임명한 관료에게 주기도 했다. 야니나의 ‘알리 파샤’는 중앙 정부에 의해 토벌당하기도 했다. 그렇게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권력을 잃어가면서도 아이안들은 세금 청부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지배력을 상당부분 유지했고, 그들의 비공식적인 세력은 지속되었다. 탄지마트 초기인 1845년 이스탄불에서 술탄 압뒸메지드가 아이안들의 회의를 소집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고, 1847년의 부동산 소유권법(Tapu Nizamnamesi)과 1858년의 토지법(arazi nizamnamesi)도 아이안들이 점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 정도였다. 그렇게 탄지마트 근대 개혁에 따른 거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이안 가문들은 공화국 시대까지도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명맥을 유지했고, 오스만 제국 말기의 제국의회(Meclis-i Meb’usan), 공화국 초기의 투르크 대 국민의회(Türk Büyük Millet Meclisi) 및 각 지역의 시의회에서 크게 활약했으며 여러 정당과 지방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는 데 성공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얀
- 다국어 표기 Ayan(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온라인) H. Bowen, “A’yan”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https://referenceworks.brillonline.com/entries/encyclopaedia-of-islam-2/ayan-SIM_0893?s.num=0&s.f.s2_parent=s.f.book.encyclopaedia-of-islam-2&s.q=ayan
- 참고문헌(오프라인) Mert Özcan, “Âyan”, *TDV İslam Ansiklopedisi*, Vol 4, İstanbul: TDV, 1991, pp.195~198.

I E095 | 아이으으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
- 집필자 강덕수, 김홍중 ● 라틴 문자 Aiyy

야쿠트인의 종교와 신화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 중 하나이다. 페카르스키(Pekarskij)의 『야쿠트어 사전』에서 ‘아이으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창조적 시작
2. 아바아흐(abaahy, 악령)과 대립되는 선의 원천
3. 신, 창조주
4. 운명

좁은 의미에서 ‘아이으으’는 야쿠트 전통 종교에서의 선한 신들을 지칭하지만, 보통은 현대에 생겨난 만신전(萬神殿)과 유사한 야쿠트인들의 종교를 의미한다. 아이으으와 관련한 의례와 종교 전통은 텡그리즘에서 유래했다. 야쿠트어로 ‘아이(ай)’는 ‘만들다’ 혹은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신화에 따르면 창조주 ‘아이으으’는 천상계에 살고 있는데, ‘위링 아이으으 토윤’(ҮрҮн айыы тойон)이 가장 신격이 높은 통치신이다. 아이으으는 천상계의 동쪽과 남쪽 즉, 태양의

동쪽과 정점을 차지하고 하늘, 공기, 대지를 나눠 다스린다. 그중 신격이 가장 높은 신은 위령 아이으(밝은 창조신), 아아르 토욘(성스러운 신), 쉬게 토욘(천둥의 신)이다. 중간급 신으로 흙포루운 호토이(독수리, 사하의 공통 토템), 지외회괴이 토욘(말의 신)이 있다. 이외에도 출산의 여신 아이으 훗과 운명의 신 츠으스 하안 그리고 오둔 하안이 있다. 아이으 시레(айыы сирэ)는 선한 신들의 나라이며, 아이으 부하트으라(айыы бухатыыра)는 '선한 근원, 밝은 세계의 전사'라는 의미이다. 결국 아이으는 천상계 신으로 사하 민족의 조상이라 할 수 있다.

아이으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위대하고 거대한 나무인 '아알 루우크 마스'(Аал Луук Мас)이다. 이 나무는 세 가지 세계로 구성된 우주관을 상징한다. 즉, 악한 정령들인 아바 아흐가 사는 지하세계, 인간들이 사는 중간계인 오르토 도이두, 상위 신들이 사는 천상계 예오 헤헤 도이두를 의미한다. 각각 뿌리, 줄기, 가지가 그 세 가지 세계와 연결된다.

고대인들은 아이으가 피 묻은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믿어 식물성이나 우유로 만든 제물만 바쳤다. 지구 최북단에 살고 있는 투르크계 민족인 야쿠트인들은 현재 동양문화권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유목민족 생활양식과 종교 등 고유한 전통을 계승·보존해 오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이으, 아이이
- 다국어 표기 Айыы(러시아어), Айыы(야쿠트어), Аар Айыы(야쿠트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인, 야쿠트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sakhatyla.ru/translate?q=%D0%90%D0%B9%D1%8B%D1%8B>
- 참고문헌(오프라인) Васильев, Валерий Егорович. «Древние истоки культа божеств айыы (по фольклорно-этнографическим материалам саха).» *Дисс. На соискание уч. Степени канд. Истор. Наук, Якутск, 2000.* 강덕수, 『야쿠티야. 맘모스와 다이아몬드와 착한 사람들의 나라』. HUFSS Books, 2011, pp.44~46, pp.62~64

| E096 | 아이캅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정기간행물
- 유형 소분류2 잡지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Aikap

<아이캅>은 트로이츠크(현 러시아 첼랴빈스크 주에 위치)에서 1911년 1월부터 1915년 9월까지 발간된 카자흐인들의 잡지로서 아랍 문자가 사용된 카자흐어로 간행되었으며 편집장은 ‘세랄린’(Muhamedjan Seralin)이었다.

당시 편집인과 기고자들은 대개 카자흐인들의 개혁 사상과 근대화를 주장하는 지식인층이었는데 <카자흐> 신문의 편집인과 겹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바이투르스노프(Akhmet Baitursynov: 1873~1937), 부케이하노프(Alikhan Bukeikhanov: 1866~1937), 둘라툴르(Mirjaqip Dulatuli: 1885-1935) 등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근대화와 개혁적 사상을 가진 많은 지식인이 있었다. 잡지는 월 1회 또는 월 2회 발간되었으며 1911년에 12회, 1912년에 14회, 1913~14년에 48회, 1915년에 14회가 출간되어 총 통산 88호가 나왔다. 발행 부수는 1911년 기준 1호당 약 1,000부가 발행되었다. 주된 내용은 카자흐인들의 전통사회를 개혁하자는 것과 토지개혁 및 교육개혁에 대한 것이 많았으며 카자흐인들의 각성과 계몽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 밖에도 당시 카자흐인들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치는 글을 비롯해 카자흐인들의 전통문학, 산문, 드라마, 문예비평 등을 실었다. 아울러 러시아어가 아닌 카자흐 언어를 확립시켜 나갔다.



<아이캅> 1호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최근 들어서는 <아이캡>이 키릴 문자를 사용한 현대 카자흐어로 재발행되면서 주제별 색인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고 덕분에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 현대적인 언어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 다국어 표기 Айқап, Ақап(카자흐어), Айқап(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카자흐인의 근대화 잡지 '아이캡'의 모습

<https://www.youtube.com/watch?v=JUFDb1-qR0> ,

카자흐인의 근대화 잡지 '아이캡'에 대한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XNHMiGAEw-E>

아이캡 1호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7/Ayqapt%C4%B1%C3%B1_1911_j%C4%B1%C4%9F%C4%B1_1_san%C4%B1.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litkarta.chelreglib.ru/journals/ajkap-literurnyj-zhurnal/>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1, Алматы, 2004.

I E097 | 아이트스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바시키르 공화국)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공연
- 집필자 김근식, 황영삼 ● 라틴 문자 Aytys, Aitys

'아이트스'는 두 명이 악기 반주를 하며 운율이 있는 즉흥시가 포함된 일종의 노래를 서로 경쟁하듯 부르는 부르기 경연이다. 카자흐어로는 아이트스(айтыс), 키르기스어와 바시키르어로는 아이티시(айтыш)라고 한다.

아이트스는 주로 '아큰/아킨(akyn)'이라는 두 명의 음송시인(명창)이 전통적으로 돔브라 연주를 배경으로 노래를 하는데 그때그때 만들어낸 즉흥 가사를 부른다. 독특한 노래로 대화하듯 서로 상대의 말을 가로채며 차례를 바꾸며 악기 연주와 노래를 하며 진행되는 형식이다. 노래는 자유 주제이다. 즉흥 가사의 내용은 해학적인 것과 철학적 사유에 관한 것이 많다. 일종의 시합이므로 누가 더 적절한 내용으로 말을 하고 노래를 하는가에 따라 승자가 결정된다. 두 사람은

따로따로 반대편에 위치하여 앉아서 부른다. 핵심적인 것은 연주를 잘하는 것과 리듬, 그리고 지혜와 위트가 얼마나 잘 섞여 있는지 그 결과 청중들의 호응을 잘 얻는지가 관건이다. 다시 말해 경연의 승자는 음악성과 리듬성, 상대의 논거를 반박하는 명석함으로 결정한다.

종종 아이트스에 등장하는 의미 있고 위트 있는 표현은 종종 대중들 사이에서 상투어로 유행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지방 축제에서 국가적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실제 나오는 말들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당대의 중요한 이슈를 두 음송인들의 대화 소재로 제공하기도 한다.

아이트스는 전통적으로 남자들만이 행했지만, 최근에는 여성들의 견해를 보여주기 위하여 여자들도 참가하여 남녀간 시합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간혹 두 명 이상의 아큰이 참가하기도 한다.

오늘날 아이트스는 카자흐스탄의 문화전통을 이루는 핵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아이트스는 수수께끼 아이티시, 칭찬 아이티시, 우화 아이티시 등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시니어 음송가들이 아이트스의 기술을 젊은이들에게 전승해 주고 있다.

2001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아이트스’ 사회 펀드가 마련되어 아큰과 아이트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2008년에 처음으로 아이티시 국제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50여명의 유명 아큰이 참가하기도 했다. 그 외에 러시아의 바시코르토스탄 지역의 아이트스는 널리 퍼진 예술 공연이며, 바시키르의 아이트스는 독특한 장르로 자리 잡아 바시키르 영웅 서사시와 쿠바이르의 등장인물들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아이트스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에 즉흥연주 예술의 한 종류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공동 등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이트시, 아이트쉬, 아트쉬마
- 다국어 표기 Айтыш(러시아어), Aytis(아제르바이잔어), Айтыс(카자흐어), Atışm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큰, 돔브라
- 멀티미디어 링크 이자트 아이다르쿨로바와 아크마트베크 술탄베크의 경연
<https://www.youtube.com/watch?v=dwN4eGaoDuk>
아이트스 공연 모습
<https://www.youtube.com/watch?v=xypzviNneBY>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ch.unesco.org/en/RL/aitysh-aitys-art-of-improvisation-00997>
<https://ufa-gid.com/encyclopedia/aitish.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ловарь литературоведческих терминов / Ред.-сост.: Л. И. Тимофеев и С. В. Тураев. -М: «Просвещение», 1974- С. 9.- 509.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Алматы: Қазақ энциклопедиясы, 2004 - Т. I.

I E098 | 아인잘루트 전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투
- 집필자 송경근 ● 라틴 문자 Battle of 'Ain Jalut



아제르바이잔 건축 연합 80주년 기념 우표 속 아자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1258년 몽골의 ‘홀라구칸’은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압바스조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연이어 알레포, 다마스쿠스 등을 함락시키면서 시리아 전역을 점령한 후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역까지 내려와서 이집트에 항복을 요구하는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몽골 제국의 대칸인 몽케가 급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홀라구가 이집트 국경 근처에 1만~2만의 병력만을 남긴 채 본국으로 철수하다가 같은 몽골 형제

국 킵차크와 국경분쟁이 일어나면서 그 주변에 묶여 주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틈을 타 이집트 맘루크의 지배자 ‘술탄 쿠투즈’는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로 진출했다.

그는 기병 중심의 몽골군의 기동력을 약화시킨 채로,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근접전으로 몽골군을 격파할 장소를 찾았는데 그런 전투로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인잘루트였다. 아인잘루트는 옛날 이스라엘의 다윗이 필리스테인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장소로도 유명하다. 맘루크의 선발대는 바이바르스의 지휘 하에 카르멜 산에서 내려와 요르단 강 지류인 알-잘루트 강으로 향했



외미네 하툰 영묘(나흐초반 시티, 아제르바이잔)

다. 그리고 바이바르스는 바이산과 알-아푸라 사이에 위치한 아인잘루트 마을 가까이에서 키트부카가 지휘하는 몽골군과 마주쳤다. 결국 그들은 쿠투즈 휘하의 맘루크의 주력군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키트부카의 군대를 묶어 놓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아카에서 가까운 디스라이룬 평원에서 재정비를 한 후 아인잘루트로 향했다. 그렇게 드디어 양군은 아인잘루트에서 충돌했고 몽골군이 이집트군의 중앙부를 두드리면서 그곳을 약화시키거나, 상황에 따라 후퇴하는 척하면서 이집트군의 중앙부가 흩어지게 만든 후 다시 빠른 기동력으로 이집트군을 격파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몽골의 전술을 숙지하고 있던 쿠투즈는 이집트 보병의 몽골 기병대에 대비해 전투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몽골군에게 지형을 이용하여 근접전을 강요하며 그들이 기동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서 공격을 무력화시키도록 했다. 또한 계획이 실패하면 예비책으로 중앙군이 패하는 척하면서 후퇴한 후 중앙군이 만든 빈 자리로 몽골군이 깊숙이 파고 들어오게 하고난 다음 세 방향에서 포위하며 그들을 분쇄하려고 했다.

하지만 실질 전투에 들어가자 몽골군은 쿠투즈의 계획대로 이집트군에게 포위되어 세 방향으로 이집트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거대한 압력 속에 전열이 무너지면서 진까지 부서졌다. 몽골군은 패배 후 바이산 주변의 언덕으로 밀려났고, 완전히 패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전투로 그들이 가는 곳은 정복만 있으며, 그들 앞에서 어떤 군대도 대적할 수 없다고 믿던 몽골군의 천하무적 신화가 무너져버린다. 그리고 이 전투를 끝으로 비로소 이슬람 세계는 몽골의 파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몽골은 수차례 걸쳐 시리아와 이집트를 침입하여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아인잘루트 전투는 이슬람세계가 기사회생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 맘루크국의 카이로가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가 되어 과거의 바그다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물론 시대적 배경 자체가 이슬람 세계가 정체기에 들어가는 시기였기에 맘루크국은 더 이상 이슬람 세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유지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하지만 맘루크국 인구 대부분이 북방에서 데려온 주로 투르크계 유목민 노예 출신 병사들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여러 무슬림 공동체는 그들을 야만시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그들이 이슬람 세계를 지키는 주도 세력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인잘루트전투

● 다국어 표기 معركة عين جالوت(아랍어), Ayn Calut Muharebesi(튀르키예어), Ayn Jolut(우즈베크어), Əyn Cəllud döyüşü(아제르바이잔어), Айн Джалут шайқасы(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맘루크, 쿠투즈, 일 칸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송경근, 「아인잘루트 전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7집, 한국이슬람학회, 1997, pp.117~128.

손주영, 송경근, 『이집트 역사 다이제스트100』, 가람기획, 2009, pp.287~289.

도현신,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들』, 파주: 서해문집, 2019, pp.139~141.

Regan, Geoffrey. *The Guinness Book of Decisive Battles*, Guinness Publishing, 1992, pp.64~66.

| E099 | 아자미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건축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jami

‘아자미’ 또는 애재미의 본명은 ‘애재미 이븐 애부배클 나흐바니’(Əcəmi ibn Əbubəkr Naxçıvani)로 엘디구지드 아타벡(또는 일데기지드 아타벡 Eldiguzids Atabegs, 1136년 ~1225년) 시대의 건축가이며 나흐츠반 건축 유파의 창립자이다. 작품을 제외한 아자미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아자미의 작품은 중세 나흐츠반의 기념비적인 초기 이슬람 건축물로 당시 나흐츠반 스타일을 확립했다. 대표작으로는 유스프 이븐 쿠세이르 영묘(Yusif ibn Kuseyir mausoleum), 뫼미네 하툼 영묘(Momine Khatun mausoleum), 나흐츠반 금요 모스크(Nakhchivan Juma Mosque) 등이 있다.

당시 칼리프제의 약화로 아제르바이잔에 세워진 국가들에서 아란, 나흐츠반, 쉬르반 압쉐론, 타브리즈와 같은 비슷한 건축 스타일이 유행했다. 그래서 12세기 초 아자미가 건설했던 뫼미네 하툼 영묘와 유수프 이븐 쿠세이르 영묘 같은 탑형 영묘 건축도 나흐츠반 영묘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하에 십자형이나 다면체 매장 방이 아치로 받혀지고, 쿠폴라로 덮인 높은 탑은 나흐츠반 건축 유파의 전통이 되었다.

현재는 훼손되어 사라졌지만, 모미네 하툰 영묘 근처에는 2개의 첨탑으로 연결된 정문이 있었다. 나흐츠반 금요 모스크 역시 현재는 거의 훼손된 상태이나 기록에 따르면, 정문은 크고 작은 아치로 둘러싸여 있으며 역시 아치가 있는 원통형 미너렛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형태의 아치는 당대의 아제르바이잔 종교 건축물의 정점의 기술을 보여준다. 특히 나흐츠반 건축 스타일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정확한 측량과 계획을 바탕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제자로는 아자미 에부바크르 오울루 나흐체바니(Acemi Ebubekir oğlu Naxçıvani)와 아흐메드 빈 에윅 엘 하프즈 나흐츠바니(Ahmed bin Eyüb el-Hafız Nahçıvani) 등이 있다. 특히 나흐츠반 건축 스타일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정확한 측량과 계획을 바탕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제자로는 아자미 에부바크르 오울루 나흐체바니(Acemi Ebubekir oğlu Naxçıvani)와 아흐메드 빈 에윅 엘 하프즈 나흐츠바니(Ahmed bin Eyüb el-Hafız Nahçıvani)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자미 아부 바크르, 애재미 이븐 애부배크르
- 다국어 표기 Əcəmi ibn Əbubəkər Naxçıvani(아제르바이잔어), Əcəm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유스프 이븐 쿠세이르 영묘, 모미네 하툰 영묘, 나흐체반 금요 모스크
- 멀티미디어 링크 아제르바이잔 우표에 그려진 아자미 초상화와 모미네 하툰 영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3/3b/Stamps_of_Azerbaijan%2C_2016-1247.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ajami-b>
- 참고문헌(오프라인) Усейнов, Микаэль Алексер. *История архитектуры Азербайджана, Moscow, изд-во литератур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архитектуре и строительным материалам, 1963.*

I E100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국가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은 카프카스(코카서스)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투르크계 국가이다. ‘아제르바이잔’이란 말은 ‘불의 나라’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B.C. 4세기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시대에 이 지역 총독으로서 알렉산드로스의 침략에 저항해 독립을 지켜낸 ‘아토르파토스’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아제르바이잔 국기

동쪽은 카스피해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러시아의 다게스탄 공화국, 서쪽으로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남쪽으로는 이란과 접경한 바다 없는 내륙국이다.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와 문화가 비슷하며, 이웃 국가인 아르메니아계 주민의 나라 아르메니아의 남서쪽에는 아제르바이잔의 고립 영토이자 자치 공화국인 나흐츠반 공화국이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독립했으며, 1993년 CIS에 가입했다. 국가의 정식명칭은 아제르바이잔공화국(Republic of Azerbaijan)이다. 민족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인(90.6%), 다게스탄인(2.2%), 러시아인(1.8%), 아르메니아인(1.5%), 기타(3.9%)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용어는 아제르바이잔어이다. 1988년부터 아르메니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으로 영토의 20%가 아르메니아에 넘어갔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영토를 수복한 상태이다. 행정구역은 59개 주(rayon), 11개의 시, 1개 자치공화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는 바쿠(Baku)이다. 면적은 총 86,600km²이다. 종교는 이슬람교 96%(시아파 85%, 수니파 15%), 러시아정교 2.5% 등이다.

대통령은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로 2018년 4월 선거에서 4선에 성공했다. 한국과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의회의사당

1992년 3월 양국 간 국교가 수립된 이후,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 2007년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왔다. 이후 2006년 3월 주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관 개설, 2006년 5월 문화협정 및 항공협정 체결, 2007년 투자보장협정 등이 체결되는 등 양국 정부 인사 및 경제인 간의 꾸준한 상호 방문으로 협력을 이어갔으며 최근에도 양국 국민 간의 방문도 늘어나고 있는 등 양국 간 관계는 우호적이다. 특히 2017년 초부터 카프카스 3국(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지금까지 관광, 사업 목적을 합하여 2017년에는 4,642명, 2018년에는 7,854명의 한국인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한 것으로 아제르바이잔 통계청은 집계하고 있다.

- 다국어 표기 Azərbaycan(아제르바이잔어), Azerbaijan(영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9445&cid=46627&categoryId=46627>(한국민족문화대백과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온라인) <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28930>

● 참고문헌(오프라인)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도서출판 퍼내기, 1997

Olukbasi, Suha. *Azerbaijan: A Political History*. I.B. Tauris, 2011.

I E101 |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

● 시기 A.D.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Azərbaycan Xalq Cümhuriyyəti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Azərbaycan Xalq Cümhuriyyəti; 1918년~1920년)은 투르크와 이슬람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세속주의 민주공화국이다. 자캅카스 민주연방공화국으로부터 독립해 1918년 독자적인 민주국가로 출범했지만, 1920년 소련의 붉은 군대의 침공으로 멸망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Azərbaycan Respublikası)으로 다시 독립을 되찾은 것은 소련이 붕괴한 직후인 1991년이다.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지역은 고대부터 찬란한 문명이 꽃을 피웠고, 수많은 민족의 흥망성쇠가 있던 곳이다. 실크로드를 통해서도 많은 부를 축적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파비에 이어 하자르 왕조 멸망 이후 수십 개의 칸국들로 분열했다. 이런 혼란기에 결국 패권은 제정러시아에게로 넘어간다. 지속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지역을 넘보던 표트르 대제는 결국 1723년 바쿠를 점령했고, 1차와 2차에 걸친 러시아-페르시아 전쟁의 결과로 급기야는 1813년 굴뤼스탄 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이 조약의 결과는 분단이었다. 러시아는 현재의 아제르바이잔 영토 전체를, 이란은 남부 아제르바이잔(북부 이란)지역을 점령하게 됨으로써 아제르바이잔은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1828년 투르크멘차이(Türkmənçay) 조약으로 이어졌다.

러시아가 그토록 이 지역에 눈독을 들린 것은 결국 석유자원 때문이었다. 아제르바이잔은 석유로 인해 일찍부터 강대국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석유자본이 들어오게 된 아제르바이잔은 일찍부터 국제도시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로스차일드 등의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기도 했고, 노벨이 러시아로 석유를 운송할 수 있는 송유관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

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아제르바이잔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식민지 현실이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제국의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시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무슬림 사회의 이슬람적 가치와 전통을 지키면서도, 근대화 개혁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각성이 일기 시작했다. 투르크 민족주의가 전 지식인 사회로 퍼져나갔다.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은 러시아 제국 내 무슬림들이 주도하는 범이슬람회의 혹은 러시아 의회 두마(Дума)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 러시아의 식민정책을 비판하면서 세력을 확장해갔다.

아제르바이잔의 민족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은 점차로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열망하게 된다. 그 결과 남북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의 통일 및 독립 분위기로 고조되기 시작되었다. 당연히 외부 열강은 이들을 가만히 묵고 하지 않았다. 킬리시안 조약에 서명하여 남과 북으로 영토를 나눠 가졌던 러시아와 페르시아는 이번에는 이들의 통일을 염려하여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에 가세하여 주변 정세 또한 급진적으로 돌아갔다. 1905년 러시아 혁명, 1905년~1911년 이란 입헌제 혁명, 1908년 청년 투르크당의 튀르키예 공화제 혁명 등 세계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917년 10월에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아제르바이잔에서도 1918년 9월 간자(Gəncə)를 수도로 하는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 아제르바이잔 최초, 투르크 국가들 그리고 이슬람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었다. 최초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인’이라는 단어가 신문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891년 일인데,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사실 그 이전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그러다가 결국 투르크 민족의 정체성은 살리면서, 다른 투르크어와는 차별화된 아제르바이잔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착안하여 ‘아제르바이잔 정체성’을 고안해냈다.

당시에는 아제르바이잔 작가 알리베이 후세인자데(Əli Hüseynzadə)의 범투르크 민족주의가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 사상의 중심이었다. 그 내용은 ‘투르크화, 이슬람화, 유럽화’라는 구호 아래 아제르바이잔 국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투르크주의는 아제르바이잔의 국기를 구성하는 삼색에도 반영되었다. 파란색은 전통적으로 ‘투르크’를 상징한다. 녹색은 ‘이슬람’, 붉은 색은 ‘유럽의 진보사상’을 상징한다. 이 사상은 현재까지도 아제르바이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본이 되고 있다.

어렵게 탄생했지만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은 불행하게도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다. 1920년 4월 ‘붉은 군대’가 밀고 들어왔고, 이들의 침공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간자(Gəncə), 카라바흐(Karabağ) 등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지만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채 허탈하게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은 투르크와 이슬람 세계 최초로 1918년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고, 1919년 최초 근대식 대학교인 바쿠국립대학교(Baku State University)를 설립하는 등 아제르바이잔의 민주화와 근대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은 독립 원년을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 수립연도인 1918년으로 기념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제르바이잔 인민공화국
- 다국어 표기 Azərbaycan Xalq Cümhuriyyəti(아제르바이잔어), Azerbaijan Democratic Republic(영어), Azerbaijan People's Republic(영어), Азербайджанск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러시아어), Азербайджанская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라바흐, 귤뤼스탄의 시, 귤뤼스탄 조약,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 검은1월
- 참고문헌(오프라인) De Waal Thomas, *Black Garden: Armenia and Azerbaijan through peace and war*, NewYork and NewYork University Press, 2003.
- 와합자대 배흐티야르, 『귤뤼스탄의 시』, 오은경 옮김, 대산문학총서,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9.

I E102 |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예술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명창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Azərbaycan Xalq Cümhuriyyəti

고대 오잔-박스(Ozan-Baksı) 전통이 오잔-아시옥(Ozan-Aşık/Aşığı)으로 전환되고 나자 코카서스, 이란 지역 및 아나톨리아에서는 아시옥 문화가 두 가지 방향으로 분리되어 발전하기 시작한다. 즉, 코카서스와 이란 그리고 아나톨리아라는 두 개의 지역으로 분화되어 각각 지역색을

반영한 다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 것이다. 이들은 많은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예술적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 정치적 조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아나톨리아의 오스만 제국과 코카서스와 이란에 자리 잡은 ‘사파비 왕조’라는 강력한 초강대국이 대결 국면을 벌이던 시기였다. 코카서스와 이란의 아시옥 예술은 사파비 왕조의 문화와 정치 이념에 적응하면서 발전했다. 오스만 제국이나 사파비 제국 모두 양국의 지도자들이 아시옥 예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시인이자 통치자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시옥이 예술로써 얼마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는지 그 정도를 가늠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시옥 예술이 태동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16세기와 17세기 만큼 국가의 지대한 관심과 통제를 동시에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17세기는 아시옥 예술의 황금시대로 일컬어진다. 오스만과 사파비 제국은 모두 아시옥을 군대와 국민들에게 국가와 왕조에 대한 신뢰를 심도록 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아시옥을 통해 전쟁에 나갈 때는 승리를 확신시키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심으려고 노력했으므로 당연히 권력자들이 아시옥 예술에 있어 음악과 가사의 레파토리가 변화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초기 수피 탁발승들의 수행캠프가 설립되었던 곳은 현재 아제르바이잔 남부의 호라산(Xorasan/Khorasan), 타브리즈-가라다흐(Təbriz-Qaradağ/Tabriz-Garadagh), 우르미아(Urmia), 잔잔(Zəncan/Zanjan) 지역이다. 최초로 아시옥이 배출된 곳을 보면 이 지역의 역사·지리적 배경과 관계가 있다. 수피 수도승들의 수행 캠프와 아시옥 그룹 또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했고, 이란에서 코카서스 방향으로 전파되었다. 수피 종파가 확장세를 띠면서 아시옥 예술도 함께 퍼져나갔다. 아시옥이 아제르바이잔 남부에서 코카서스 쪽으로 점차 확산되었던 현상은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지역 유파의 형성과 전문 아시옥 계보와도 연결이 된다. 아제르바이잔 아시옥의 대부분의 예술적 스타일은 이란 지역의 아시옥과도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시옥 예술’은 초반기부터 ‘도시예술’로써 등장했다는 점이다. 아시옥들은 주로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선 도시의 공공장소, 다시 말하면 찻집이나 카라반사라이 및 결혼식 피로연 등에서 공연했고, 상업 및 문화 중심지를 주도하는 전문 예술가가 되었다. 초기 아시옥들은 타브리즈, 우르미아, 데르벤트(Dərbənd/Derbent), 간자(Gəncə/Ganja), 샤마크(Shamakhi), 티블리스, 아르다빌(Ardabil), 마라카(Maragha), 마란드(Marand), 나흐츠반(Naxçıvan/Nakhchivan), 살마스(Salmas), 호

이(Khoy), 이레반(Irevan)과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다. 아시옥들이 민중들과 시골마을에 구석 구석까지 침투해 들어갔던 것은 도시에서 아시옥들의 무대가 펼쳐져 아시옥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난 이후에 속한다. 이것은 16세기~18세기에 선교사 아시옥들이 활동한 결과로 발생했다. 아시옥들이 전국적으로 무대를 넓혀 시골마을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시골마을에도 역사적·문화적 상황과 지역문화의 특성 및 창의성을 갖춘 아시옥들의 지역 무대가 형성되었다. 이런 분위기는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예술을 더욱 더 풍요롭고 다양한 예술 네트워크로 발전시켰다.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예술’은 민족적·문화적 개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범주는 민족의 역사와 정착문화 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맞게 논의되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예술은 사파비 왕조의 영토에서에서는 단일 문화 및 정치 환경을 토대로 발전해 나갔지만, 이후 역사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은 영토 분할과 함께 여러 나라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다.

우선, 이란과 러시아로 분할된 아제르바이잔 북부의 많은 지역은 후에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 포함되었다. 코카서스의 주요 예술 중심지를 포함하여 아제르바이잔의 투르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유산들이 잃어버린 그 땅에 속하게 되었다. 결국 상당 부분은 역사적으로 투르크인들의 영토였던 곳에서 강제로 분리되었다(고이차, 이레반, 악바바(Agbaba), 장가주르(Zangazur), 다랄라야스 지역 등이 그 사례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고찰을 위해서는 현대 문화 및 지리적 외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인들의 정착과 국경 변화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의 아시옥의 예술은 형성된 이후부터 줄곧 역사적 조건과 사회·경제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언제나 특정 문화 및 지리적 지역 특성을 반영해왔다. 제한적 교통 상황과 지리적 조건의 한계로 인해 같은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의 차이가 발생하는 소규모 지역으로 분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르찰리(Borchali)에서 고이차(Goycha), 고이차에서 간자(Ganja), 간자에서 쉬르반(Shirvan), 쉬르반에서 가라다흐(Garadagh), 타브리즈에서 우르미아까지 걸리는 기나긴 장거리 여행 시간은 문화·경제 관계 측면에서 소원해지거나 단절을 야기시켰고, 시작(試作) 및 음악 레퍼토리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지역의 범위는 말이나 낙타가 하루나 하루 반에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나누어졌다. 중세 초기 아시옥 분파는 그 지역의 사회 문화적 조건 때문에 나타났다. 아시옥들의 스타일 차이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수피 수도승(Sufi-dervish) 전통이 강한 호라산, 타브리즈, 간자, 우르미아, 쉬르반과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제르바이잔 아식 예술, 아제르바이잔 아식 예술
- 다국어 표기 Azərbaycan Aşıqlık Sənət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나톨리아 아시옥 예술, 아시옥, 아시옥 문학, 오잔, 바흐쉬
- 참고문헌(오프라인) Qasımlı Məhərrəm, *Ozan-Aşıq Sənəti*, Bakı: Uğur Nəşriyyatı, 2011, s.11.
Turan Metin, *Ozanlık Gelenekleri ve Türk Saz Şiiri*, Ankara: Başkent Matbaacılık, 1997, s.13.
오은경, 「터키 명창 아식(Aşık)과 아식문학 형성 고찰」, 『국제언어문학』, 2020, 통권 46호, pp.95~135.
오은경, 「아제르바이잔 무형문화유산 아식예술과 지역유평 형성배경 고찰」, 『중동연구』, 2020년, 제 39권 2호, pp.125~152.

I E103 |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예술의 유평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 유형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오은경 ● 라틴 문자 Regional Schools of Azerbaijani Aşiq Art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문화 전통을 지역에 따른 분파(分派) 혹은 유평(流派)로 구분하는 문제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동일하지 않다. 최근까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성장한 아시옥 그룹을 ‘아시옥 학파(學派)’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수년 동안 민속 연구에서 ‘보르찰리 학파’, ‘타브리즈 학파’, ‘우르미아 학파’, ‘토부즈 학파’, ‘쉬르반 학파’ 등의 표현이 일종의 전문 용어처럼 사용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학파’라는 개념으로는 이 지역 예술과 생활문화 등의 민속학적 특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지역 내 아시옥 예술전통은 민속 및 생활방식에서 비롯한 ‘아시옥이 처한 특수한 지역 환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적 특수성’은 방대하고 미묘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타브리즈-가라다흐, 우르미아, 쉬르반, 간자바사르

(Gəncəbasar/Ganjabasar), 보르찰리, 고이차, 카라바흐(Qarabağ/Karabakh), 나흐츠반 등과 같이 특정한 역사적 배경 및 지리적 경계로 인해 형성된 아시옥 예술의 지역 전통은 해당 지역의 문화, 역사, 지리적 조건, 기후, 지역 사회의 관습, 민족지학적 삶의 방식, 종교적 견해, 음악 감수성 등 여러 요인이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그에 비해 아시옥들의 ‘학파’ 개념은 단순히 노래 및 춤과 관련된 창작 스타일 전통과 관련이 있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생겨난 분파(分派)나 유파(流派)로 보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개념이다.

지리적이며, 지역적 특성은 아시옥 유파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시옥들의 창작 스타일 형성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보르찰리 지역에서는 아시옥이 공연 도중 직접 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쉬르반 지역에서는 아시옥이 노래뿐만 아니라 연주도 해야 하며, 춤도 추어야 한다. 간자바사르에서는 아시옥이 노래 할 때 아제르바이잔 전통 음악인 무감(muğam)이 허용되는데 쉬르반 지역에서 청중은 아시옥이 무감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타브리즈-가라다흐, 우르미아 및 보르찰리에서 아시옥의 노래를 듣는 청중들의 일부는 아시옥과 함께 어울리고 특정 구절을 함께 부르는 전통이 있다. 쉬르반에서는 청중들이 아시옥이 춤을 추도록 격려하면서 동시에 아시옥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춘다. 이 모든 크고 작은 차이와 특성들은 아시옥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다양한 감수성과 환경이 반영된 결과물이며, 지역 유파의 특성을 형성해내는 주요한 요인들이다.

한 가지 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특정한 동일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여러 아시옥 학파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보르찰리 지역에는 ‘후사인 사라즐르(Hüsayn Sarajli) 학파’ 및 ‘아시옥 암라(Aşıq Amrah) 학파’가 있고, 간자바사르 지역에는 ‘아시옥 악바르(Aşıq Akbar) 학파’, ‘아자플르 미카일(Azafli Mikayıl) 학파’, ‘아시옥 임란(Aşıq Imran) 학파’ 및 ‘아시옥 아달랏(Aşıq Adalat) 학파’들이 있고, 쉬르반 지역에서는 ‘미르자 빌랄(Mirza Bilal) 학파’ 및 ‘아시옥 쉬아키르(Aşıq Shakir) 학파’가 같은 지역에 동시에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시옥들이 처한 ‘지역에 따라 다른 환경’은 해당 지역 아시옥들로 하여금 지역의 토속적이며, 민속적 삶의 방식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반영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또한 ‘아시옥 학파’의 공연 양식과 스타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지역에 따라 아시옥들이 처한 환경은 아시옥 예술전통이 등장한 후 사회·정

치적 조건 변화에 따라 매우 큰 양적·질적 변화를 겪어야 했다. 과거에 존속했던 아시옥들의 지역분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사라진 경우도 있다.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예술의 지역에 따른 유파에 대해 말하자면, ‘전통적 아시옥 지역 유파’와 ‘현대적 아시옥 유파’의 두 부분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아시옥 예술이 출현하고 나서 형성되기 시작한 모든 아시옥 유파는 역사적인 환경으로 인해 형성된 지역유파라고 할 수 있다. 과거부터 오늘날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아시옥들의 유파는 현대식 아시옥 유파들이다. 다양한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소멸 위기에 처한 아시옥 유파는 현대적인 아시옥 지역유파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제르바이잔의 아시옥 예술의 지역유파들은 다음과 같다:

1. 간자바사르(Gəncəbasar/Ganjabasar) 유파
2. 보르찰리(Borçalı/Borchali) 유파
3. 고이차(Göyçə/Goycha) 유파
4. 다랄라야즈(Dərələyəz/Daralayaz) 유파
5. 이레반(Irəvan/Iravan) 유파
6. 출드르(Çıldır/Childir) 유파
7. 쉬르반(Şirvan/Shirvan) 유파
8. 데르벤투(Dərbənd/Derbent) 유파
9. 카라바흐(Qarabağ/Karabakh) 유파
10. 나흐츠반(Naxçıvan/Nakhchivan) 유파
11. 가라다흐-타브리즈(Qaradağ-Təbriz/Garadagh-Tabriz) 유파
12. 우르미아(Urmiya/Urmia) 유파
13. 잔잔(Zəncan/Zanjan) 유파
14. 호라산(Xorasan/Khorasan) 유파
15. 사베(Savə/Sabe) 유파
16. 가쉬가이(Qaşqay/Qashqay) 유파

현재 아나톨리아 아시옥 예술의 일부인 에르주룸과 카르스의 아시옥 유파들은 역사적으로 아

제르바이잔의 아시옥 예술과 아나톨리아 아시옥 예술전통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해왔다. 에르주룸과 카르스라는 지역적 특수성은 아나톨리아와 아제르바이잔 아시옥들의 지역적 특수성이 모두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예술전통은 우르미아와 즐드르의 아시옥 지역유파에서도 나타난다.

아제르바이잔의 모든 지역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는 16개의 전통적인 아시옥 지역유파들은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경험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단 하나의 유파도 쇠락하거나 쇠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때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유파들은 조지아, 아르메니아, 다게스탄 등과 같은 이웃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아시옥 유파가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은 20세기부터 일어난 것이다. 아시옥 예술 내부 힘의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 때문이었다. 아시옥들이 처한 환경이 악화된 두 가지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아르메니아 영토 안에 통합된 아제르바이잔 마을이 아르메니아인들에 의해 초토화되는 등의 강제적 정책의 결과로 고이차, 이레반, 다랄라야즈 및 즐드르-악바바의 아시옥 유파가 강제로 해체되고 파괴되었던 역사적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은 20세기 초인 1905년~1918년에 시작되어 1948년~1950년 중반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다. 1987년~1988년에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위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이주 되는 것으로 완료되었다.

두 번째는, 국가 민족문화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타민족 문화의 영향이 강화되면서 카라바흐, 나흐츠반, 데르벤트와 같은 지역의 아시옥 유파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아시옥 예술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후속세대가 나타나지 않게 되자 도제식 전승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계승방식도 힘을 잃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고령자로 이루어진 아시옥들이 사망하고 나면 아시옥 예술은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

세 번째, 아시옥 예술이 점차로 힘을 잃게 된 것은 아제르바이잔의 국가 차원 음악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아시옥을 상징하는 악기인 사즈 연주의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민족적, 정신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전통 악기 사즈가 국가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음악기관에서 비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즉, 오케스트라 등의 앙상블이나 음악학교들 그리고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즈 공연은 거의 사라지고 만 것이다. 대신 이란 중심의 타르, 카만, 카발트리오와 유럽-러시아 문화권의 아코디언, 클라리넷 등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악기 사즈 연주의 축소는 아시옥 예술 쇠퇴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사즈와 아시옥 예술

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공식기관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중등 음악 학교를 비롯한 아제르바이잔의 국립 음악원(Azerbaijan State Conservatory)조차 서구 음악 편향성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전통음악은 박물관에서 악기만 전시되는 수준으로 쇠퇴하고 말았다.

네 번째는 과도한 외국문화의 영향인데, 특히 이란의 무감은 아시옥 예술 스타일이 소멸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아시옥 예술은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호되었던 16세기에서 18세기에 크게 번성했다가, 그 이후에는 국가 문화정책이 민족문화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자 외국문화 영향도 과도해져서 민족문화가 훼손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슈샤(Şuşa/Shusha)의 칸 궁전에서 시작된 무감 노래 스타일은 점차 카라바흐 전역으로 퍼졌고, 그 결과 구르바니(Gurbani), 압달굴라블리 와레흐(Abdalgulabli Valeh), 렐라(Lela), 아시옥 파리(Aşıq Pari) 등 수십 명의 아시옥을 배출한 카라바흐 아시옥 지역유파의 특성은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다. 나흐츠반과 데르벤트에서 아시옥 유파의 특성이 사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란 중심의 음악 스타일인 무감 스타일의 홍보였다.

아제르바이잔의 대표적 시 형식으로 자리 잡은 무감-가잘-아루즈 세 가지 시 형식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 유파의 연주방식과 노래 스타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문학적, 미학적 특성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19세기 카라바흐 시인들은 음절운율보다는 아랍식 리듬운율인 아루즈를 선호했다. 이러한 트렌드를 만든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자 중 한 사람이 미르 뫼흐신 내압(Mir Möhsün Nəvvab)이다. 20세기 초인 1900년 바쿠에서 페르시아어로 디반 시집을 출판한 것은 당시 상황을 재현해준 사건이었다. 아제르바이잔의 상황이 그러했다고 해도 16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예술은 투르크 민족과 외국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고 사즈 음악과 투르크 전통 시를 주변 지역에 사는 아르메니아, 조지아, 그리스, 페르시아, 레즈기 민족에게 전파했다. 수백 명의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그리스, 페르시아 및 레즈기 예술가들이 아시옥이 되기도 했고, 투르크 음악 및 사즈 연주방식을 습득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1음절 4행시로 투르크의 전통 시 양식인 코쉬마(Koşma Qoşma)와 투르크어로 시작(詩作)을 했다는 사실이다. 고이차, 이레반, 보르찰리, 간자바사르, 데르벤트, 타브리즈, 호라산, 가라다흐의 아시옥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 만일 아시옥들이 보다 더 마음껏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멜로디와 조화된 코쉬마의 스타일은 아제르바이잔 내에서도 헤게모니를 쉽게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외국문화 전파와 확산에도 힘을 얻었

을 수 있다. 그러나 XIX-XX세기에 아제르바이잔이 겪었던 역사적 질곡은 아시옥과 시형식의 확산도 가로막고 말았다.

이란과 러시아에 의한 분단, 장기적인 독립성 상실과 그로 인한 갈등은 그 잠재력의 출구를 막아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19세기에서 20세기에는 아제르바이잔의 외부 영향력은 사라지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대신 외국 문화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무분별한 외래문화 이식정책과 독립적인 내부 규제 부족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문화예술 전통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어렵고 힘든 시간 동안 16 개의 전통적 아시옥 유파 중 고이차, 이레반, 다랄라야즈, 즐드르 4개 지역 유파가 강제로 소멸되었으며, 데르벤트, 카라바흐, 나흐츠반과 같은 나머지 3개 지역 유파는 국가 문화정책이 부실로 인하여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제르바이잔의 아식 예술 지역 유파

● **다국어 표기** Regional Schools of Azerbaijani Aşıq Art(영어)

● **연관 검색어** 아시옥, 오잔, 바흐쉬, 아나톨리아 아시옥 예술, 아제르바이잔 아시옥 예술

● **참고문헌(오프라인)** Qasımlı Məhərrəm, . *Ozan-Aşıq Sənəti*, Bakı: Uğur Nəşriyyatı, 2011, s.11.

Turan Metin, *Ozanlık Gelenekleri ve Türk Saz Şiiri*, Ankara: Başkent Matbaacılık, 1997, s.13.

오은경, 「터키 명창 아식(Aşıq)과 아식문학 형성 고찰」, 『국제언어문학』, 2020, 통권 46호, pp.95~135.

오은경, 「아제르바이잔 무형문화유산 아식예술과 지역유파 형성배경 고찰」, 『중동연구』, 2020년, 제 39권 2호, pp.125~152.

I E104 | 아제르바이잔 아타배일래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Azərbaycan Atabəylər

아제르바이잔 아타배일래르(Azərbaycan Atabəylər)는 12세기에 시앰셋딘 엘대니즈(Şəmsəddin Eldəniz, 재위: 1136년~1175년)가 건국한 국가로 초기 수도는 나흐츠반이었다. 시앰셋딘 엘대니즈(영어 표기:Shams ad-Din Eldiguz)는 1136년 셀주크 술탄으로부터 알란

(Arran)의 관리자로 임명되어 배르대(Bərdə)로 파견된 후 아타배일래르 건국의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소규모의 봉건 영지를 없애고, 모든 아제르바이잔을 통합했으며 알란뿐만 아니라, 나흐츠반(Naxçıvan), 아제르바이잔의 남부 일부 지역을 독립적으로 통치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화폐를 주조했다.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1160년 시얌샛딘 엘대니즈는 ‘대(大) 아타베이’라는 호칭을 받았고, 아들인 ‘알슬란’(Arslan şah, 재위: 1161년~1176년)이 이라크 셀주크의 술탄이 되었다. 그러나 그후로 본격적으로 본인이 전체 이라크 셀주크 조를 다스리기 시작해 급기야 장남인 매함매드 자한 패흘래반(Məhəmməd Cahan Pəhləvan)은 술탄의 하집(hacib, 초기 이슬람 시대의 고위직 재상)이 되었고, 막내 아들 크즐 알슬란(Qızıl Arslan)은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제 이라크 셀주크 술탄국은 아제르바이잔의 술탄국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리고 퀴르(Kür) 강 남쪽의 모든 아제르바이잔 땅은 아타배일래르로 재통일되었다. 시르반샤흐국(Şirvanşahlar dövləti)도 아타배일래르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조지아 영토 역시 아타배일래르에 귀속시켰다. 1161년 조지아 군대는 당시 아타배일래르의 대빌(Dəbil) 시를 공격하여 1만여 명을 칼로 찢어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조지아로 데려갔으나, 곧 보복을 받게 되었다. 이후 조지아 차르는 다시는 아제르바이잔 국경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얌샛딘 엘대니즈의 통치 말기, 아타배일래르는 대르밴트(Dərbənd)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다.

후에 시얌샛딘 엘대니즈는 나라를 그의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왕위는 그즐 알슬란이(Qızıl Arslan, 재위: 1186년~1191년)가 이어 받았다. 그는 재위 기간 내내 봉건 영주들과의 권력 다툼을 지속했고 이후 형식적인 술탄의 칭호를 가졌던 ‘토그룰 3세’(3-cü Toğrul)와도 특히 큰 마찰이 있었다. 1191년 그즐 알슬란은 하마단 전투(Həmədan vuruşması)에서 승리하면서 토그룰 3세의 아들을 포로로 잡았고, 칼리프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를 이라크의 술탄으로 선언했다. 즉, 공식적인 술탄의 칭호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곧 중앙정부 권력의 강화에 불만을 품고 있던 대(大) 봉건 영주들이 그를 암살했다.

그 다음 정권을 잡은 이는 애부 배크르(Əbu Bəkr, 재위: 1191년~1210년)였다. 하지만 그의 집권 이후 이스파한(Isfahan)과 레이(Rey) 일부가 아타배일래르에서 분리되면서 국가의 쇠퇴는 가속화되었다. 애부 배크르(Əbu Bəkr)는 호라즘 조와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봉건 영주 간의 내부 갈등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결국 시르반 샤 1세 아흐시탄(Şirvanşah 1-ci Axsitan)역시 봉건 영주를 도왔고, 1194년 조지아의 여왕 타마르(Tamar, 재위: 1184년~1213년)와 시르반 샤의 연합군이 힘을 합쳐 애부 배크르의 군을 물리쳤다.

이어 즉위한 외즈바이이(Özbəyi, 재위: 1210년~1225년)시기에도 통치기간 내내 아타배일래르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몽골이 침략했을 때는 이미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존재하던 아타배일래르와 시르반 샤는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도 몽골 침략 직전까지 아타에빌레르의 경제와 무역, 농업은 발전하고 있었으며, 12세기~13세기 무렵 아제르바이잔에는 70개 이상의 도시가 있었다.

아제르바이잔 아타배일래르는 일대기즐래르(İldənizlər, 영어 표기: Ildegizids) 또는 엘대니즐래르(Eldənizlər, 영어 표기: Eldiguzids)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제르바이잔 아타배일래르 발행 주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엘디구지드, 엘데니즈, 아타베그, 아제르바이잔 아타 베그
- 다국어 표기 Eldenizlər(아제르바이잔어), İldenizliler(튀르키예어), Eldegiziyar(우즈베크어), Azərbaycan Atabeyleri(튀르키예어), Azərbaycan Atabəyləri(아제르바이잔어), Atabegs of Azerbaijan(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Rs5X>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Yeddi cildə.2-ci cild. Bakı, 2007.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Mustafayev Şahin, *Səlcuqilərdən Osmanlılara: XI-XV Əsrlərdə Anadolunun Türk Mühitində Etnosiyasi Proseslər*. Bakı, 2011.
Nəcəfi Əkbər, *Səlcuqlu Dövlətləri Və Atabəyləri Tarixi (Oğuzların Ortaya Çıxmasından XIV Əsrə Qədər)*. Bakı, 2010.
Nəcəf Əkbər, *Şəmsəddin Eldəniz*, Bakı, 2021.
Nəcəf Əkbər, *Azərbaycan Səlcuqları Yaqutilər: (1043-1103)*, Bakı, 2020, 281 s.
Nuriyeva İradə, *Azərbaycan Tarixi (ən qədim zamanlardan-XXI əsrin əvvəllərinədək)*. Ali Məktəblər Üçün Dərslik, Bakı,

2015.

Onullahi S.M., *XIII-XVII Əsrlərdə Təbriz Şəhərinin Tarixi*, Bakı, 1982.

Şərifli M.X., *9-Cu Yüzlün Yarısı - 11-Ci Yüzlərdə Azərbaycan Feodal Dövlətləri*, Bakı, 2013.

I E105 |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Azerbaijan Popular Front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Azerbaijan Popular Front)’은 소련시대 아제르바이잔인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고, 아르메니아인들과 갈등이 심각해지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족주의 단체이다.

아제르바이잔에 독립정부가 수립된 것은 1918년 9월이다. 간자(Gəncə)를 수도로 하는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이 탄생하지만, 1920년 4월 ‘붉은 군대’가 밀고 들어와 소련이 아제르바이잔을 점령하고 연방으로 편입시키자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만다. 그러자 아제르바이잔의 민족부흥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카라바흐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인들과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발했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갈수록 고조되어 갔다. 아제르바이잔어를 공화국 공식언어로 채택하도록 한 것도 이 시기이다.

1980년대에 이르면 반정부 민족운동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민족문제, 전통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민족해방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남 아제르바이잔과의 통일 문제 등 민족국가 건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점령한 이후 아제르바이잔인들에게 찾아온 비극은 단순히 영토가 남북으로 나뉜 분단과 이산의 아픔만이 아니었다. 아제르바이잔 인의 삶의 터전이었던 남 코카서스 지역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아르메니아인들의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아제르바이잔인들에게는 커다란 비극의 시작이었다. 1828년 투르크멘차이 조약 체결 이후부터 시작된 아르메니아인들의 이주는 198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아르메니아인들의 이

주는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러시아의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정책적 결과였다. 제정러시아에서 소련에 이르기까지 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그들은 무슬림들로 둘러싸인 카프카스 지역에 기독교인들을 정착시켜 러시아의 방어막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오스만 투르크와 페르시아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이 지역에 사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이슬람 세계와 연계하고 연대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인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었던 예레반과 카라바흐 등 많은 아제르바이잔 지역에서 인구 구성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 중 아르메니아인들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소련 시대에 들어오면 정책은 더욱 더 노골화되었다. 소련 중앙정부는 누가 보아도 친아르메니아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기에 아제르바이잔인들의 민족주의는 더욱 더 고양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소련이 직접 카라바흐 지역을 통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아제르바이잔인들의 위기감은 고조되었다. 결국 민족주의 단체인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Azerbaijan Popular Front)’이 결성되었다.

1988년 수만 명이 참가했던 레닌 광장에서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의 주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는 소비에트 정권 공산당의 카라바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강력한 시위였다. 시위는 바쿠를 넘어 나히체반, 간자 등지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군경과의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때, 민족주의자들 결성 단체인 인민전선은 1918년 수립되었던 ‘아제르바이잔 인민민주공화국’을 계승할 것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바흐 지역의 상황은 계속 아제르바이잔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아르메니아 지배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카라바흐 지역 내 아제르바이잔인 거주 마을들이 아르메니아인에 의해 습격 받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결국 1990년 1월 13일에서 14일에 이르는 만 이틀 동안 바쿠에서는 반 아르메니아 폭동이 일어났다. 인민전선은 이 폭동을 중재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다행히 바쿠는 질서를 되찾아가는 시점이었다. 그렇지만 소련 중앙정부로서는 바쿠의 소요사태야말로 바쿠를 진압할 명분을 얻은 절호의 기회였다. 결국 사태는 1월 19일 “검은 1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Azerbaijan Popular Front)을 진압하기 위해 소련이 무모한 학살극을 벌였던 검은 1월 사건은 소련 연방 전체에 민족주의 의식이 고양되는 계기가 되고, 소련 해

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제르바이잔 민주전선
 - 다국어 표기 Azerbaijan Popular Front(영어)
 - 연관 검색어 카라바흐, 켈리스탄의 시, 배흐티야르 와합자대, 검은 1월,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 켈리스탄 조약
 - 참고문헌(오프라인) De Waal Thomas, *Black Garden: Armenia and Azerbaijan through peace and war*, New York and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 와합자대 배흐티야르, 『켈리스탄의 시』, 오은경 옮김, 대산문학총서,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9.

I E106 | 아즈-이-야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품 ● 유형 소분류2 연구서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Az-and-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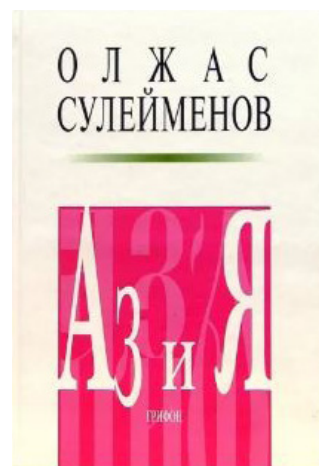
『아즈-이-야』는 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올자스 슐레이마노프(Olzhass Suleimanov: 1935 ~)의 저서로 카자흐인이 중심이 된 투르크 유라시아주의를 강조했다라는 점이 특징이다. 브레즈네프 치세기인 1975년에 발표되었는데, 이때는 비슬라브 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가 재개되던 시점이었기에 평소 투르크 역사가 슬라브인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신념을 가졌던 슐레이마노프로서는 저술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었다.

저서명인 『Az I Ya: 아즈 이 야』에서도 알 수 있듯 아시아의 단어를 적절히 나누었는데 특히 러시아어로 작성되었으므로 러시아어의 ‘아즈(나) 그리고 야(나)’로 나눠 해석할 수 있다. ‘아즈’는 고대 투르크어에서 ‘나’라는 뜻이고 러시아어 ‘야’ 또한 ‘나’라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나와 나’의 뜻도 된다. 이를 통해 의미를 유추해보면 아시아는 곧 투르크인과 러시아인(슬라브인)의 혼합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슐레이마노프는 러시아인(슬라브인)에 대한 투르크인들의 인식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는데 역사적으로 특히 투르크인들의 언어와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러시아 작품이 바로 『이

고리 원정기』였다. 이고리 원정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키예프 공국의 루시인들이 킵차크인(폴로베츠인)과 우호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인과 투르크인들은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발전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다.

러시아어 차용어 중에서도 투르크어에서 기원한 단어가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한 근거는 명확한 것이었다. 러시아의 사상가 중 유라시아주의자로 분류되는 레프 구밀료프(Lev Gumilev: 1912~1992)가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주의자라고 한다면, 술라이마노프는 투르크 중심, 카자흐 중심의 유라시아주의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성이 이 저서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이 점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소련이 해체된 이후 이 저서는 카자흐스탄 학자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적 안목을 가지려는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아즈-이-야』 표지
Source: <https://www.labirint.ru/books/75899/>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즈 이 야
- 다국어 표기 Аз и Я(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유라시아주의, 카자흐스탄 사상가
- 멀티미디어 링크 유라시아주의가 담긴 ‘아즈 이 야’의 책 정보
<https://www.labirint.ru/books/75899/>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labirint.ru/books/75899/> , <http://opentextnn.ru/old/man/index.html?id=711>
- 참고문헌(오프라인) 한정숙, 「올자스 술라이메노프의 <아즈 이 야>와 이를 둘러싼 논란: 투르크 유라시아주의의 한 예」, 『러시아연구』 19권 2호, 2009. 295~324.

I E107 | 아즈흐 동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동굴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Azix Cave

아즈흐 동굴(Azix mağarası)은 타글라르 동굴(Tağlar mağarası), 다시살라흘르 동굴(Daşsalahlı mağarası), 가즈마 동굴(Qazma mağarası) 및 부제이르 동굴(Buzeyir mağarası)과 함께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중요한 석기 시대 유적이다.

아즈흐 동굴은 카라바흐(Qarabağ) 지역의 남동쪽 경사면에 있는데 구루차이(Quruçay)의 왼쪽 기슭, 해발 1,400m에 위치한 카르스트 지형 동굴이다. 길이는 약 200m이고, 총 면적은 8,000제곱미터 정도이다.

1950년대에 발굴이 시작되었는데 발굴 과정에서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10개의 고고학적 층을 발견했으며 7~10층에서 최고(最古)의 고고학적 발견물이 발굴되었다. 아즈흐 동굴에서 인류가 거주를 시작했던 시기는 120만 년 전으로 추정되며 그 후로 70만 년간 계속되었는데 그것을 증명할 2,000개 이상의 석기 도구와 많은 동물 뼈가 발견되었다.

1968년 7월 고고학자 휘세이노브(M. M. Huseynov)는 아즈흐 동굴의 아슐 층에서 여러 도구와 고대인의 턱뼈를 발견했다. 이 턱뼈를 분석한 결과 세 번째 어금니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으며, 두 번째 어금니는 일부가 부서져 있었다. 첫 번째 어금니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지만, 치조골은 관찰할 수 있었다. 이 턱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도 다르며, 자바원인의 턱뼈나 마우어와는 유사했다. 한편으로는 프랑스 아라고 굴에서 발견된 네안데탈인과도 유사했으며 턱뼈의 주인은 아즈한트로프(azixantrop) 즉, ‘아즈흐인’으로 명명되었다. 이 아즈한트로프는 18세~22세의 여성으로 추정되는데, 35만 년 전 아제르바이잔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 아즈흐 동굴에 대한 관찰 결과 고대 아슐 시대에는 11종의 큰 짐승을 사냥했고, 아슐 중기에는 45종의 동물과 새를 사냥했음을 확인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즈크 동굴, 아즈흐 굴

● 다국어 표기 Azix mağarası(아제르바이잔어), Azih Mağarası(튀르키예어), Azix g'ori(우즈베크어), Azykh Cave(영어)



아즈흐 동굴
Source: <http://xocavend-ih.gov.az/>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d/dc/Azokh_Cave3.jpg/1024px-Azokh_Cave3.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Yeddi cildə. Birinci cild* (Ən qədimdən – b.e. III əsri). Bakı: “Elm”, 2007.
Гаджиев Д.В., Гусейнов М.М. Первая для СССР находка ангельского человека (Азербайджан. Азыхская пещера). //Учен. зап. Азгосмединститута, 1970, т. 31.
Гаджиев Д.Б., Гусейнов М.М., Мамедов А.В., Шириное Н.Ш. Краткие результаты комплекс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Азыхской древнепалеолитической СТОЯНКИ//ИАН АзССР (серия наук о Земле), 3, 1979.
Гусейнов М.М.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зыхской пещере. АО 1979 г., М., 1980.

I E108 | 아지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악령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Ajina

‘아지나’는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민족, 특히 우즈베크, 카라칼파크, 키르기스, 카자흐, 투르크멘, 타지크 민족의 민속 문화에 등장하는 사악한 존재이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태아를 뜻하는 페르시아어의 자닌(джанин)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설이 있으며 그 밖에도 이슬람이 전파되기 전에 여러 민족이 분화되면서 생겨났다는 설, 아랍의 ‘지니’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일설에는 아지나가 어린아이나 송아지, 새끼 양이나 작은 생명체들을 주로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중앙아시아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훈육할 때 “아지나가 온다!”, “말을 듣지 않으면 아지나에게 내어줄 테다!”, “먹어, 그렇지 않으면 아지나가 괴롭힐 거야!” 등의 말로 겁을 주었다.

아지나는 장소에 따라 외모가 달라지는데 평소에는 무서운 여성의 형상을 하다가 갑자기 거인이나 여러 동물(특히 붉은 눈의 염소)로 변한다고 한다. 타지크인들은 아지나가 아궁이에서 꺼내 쌓아 둔 잿더미 속에 산다고 믿기도 했는데, 종합해보면 아지나는 민중들의 미신 속에서 인적이 드문 장소, 쓰러지거나 버려진 집, 또는 우거진 숲과 사람이 없는 초원, 집의 지하실이나 다락 등에는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스나, 아드나

● 다국어 표기 аджина(러시아어), Ajina(우즈베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 ред. Мелетинский Е.М.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672.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под ред. Токарева С.А.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7, - т.1, 671.

I E109 | 아지다르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악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Azhdarkha

‘아지다르하’는 아나톨리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북 캅카스, 볼가강유역지방, 서(西)시베리아의 투르크 민족이나 타지크인들의 신화에 존재하는 악령이다. ‘아지다르하’라는 단어의 기원은 조로아스터의 경전 아베스트에 나오는 ‘아지-다하카’(Azhi Dahāka)이다. 튀르키예인들은 이것을 에지데르(Ejder)나 에지데르하(Ejderha)로, 우즈베크인들은 아지다르호(ajdarho) 등으로도 불렀다.

보통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용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오래 묵은 뱀이 아지다르하로 변한다고 한다. 이에 관해 가장 널리 퍼진 신화는 아지다르하가 도시나 국가를 멸망시키겠다고 협박하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처녀를 제물로 바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어느 날 영웅이 나타나 제물인 처녀(대개는 공주)를 구하면서 아지다르하를 물리치고 그녀와 결혼을 한다. 여러 신화에서 아지다르하는 새의 신 ‘시무르그’(симург)나 거대한 새 ‘카라쿠스’(каракус)의 새끼들을 먹어 삼키는데 아제르바이잔 신화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자궁에 자리잡고 아이를 죽이기까지 한다.

미샤르-타타르 신화에서는 아지다르하가 불을 내뿜는 용인데 죽은 남편의 모습으로 과부의 집에 들어가 과부와 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여성이 병들고 죽게 된다. 카잔 타타르, 바시키르, 우즈베크, 투르크멘 신화에서는 아지다르하가 백 년 또는 천 년을 살게 되면 유브하(또는 유하)라는 악령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아지다르하가 거주하는 영역은 다양하게 묘사된다. 우즈베크, 투르크멘, 카자흐 신화에서 아지다르하는 땅 밑 동굴에 살면서 보물을 지키는데, 경우에 따라 사람들이 아지다르하의 아내를 구해줄 때 보물을 보상으로 주기도 한다. 아제르바이잔, 카잔 타타르, 바시키르 신화에서는 비를 불러오는 구름이나 물과 연관된다. 그런가 하면 아제르바이잔인들이나 바시키르인들은 아지다르하가 호수에서 산다고 믿었고 카잔 타타르인들은 그가 구름을 만들어 내는 바다의 섬에 산다고 생각했다.

튀르키예의 아지다르하 이야기는 발칸 지역의 슬라브 민족들의 신화에 영향을 끼쳤는데 세르비아의 아지다이아, 불가리아의 아지데르가 그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지다르하
- 다국어 표기 Ejderha(튀르키예어), Ajdar(우즈베크어), Ажидарха(러시아어), Айдаһар(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유브하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окарев,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Энциклопедия. Vol. 1. М.: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1, 50.

I E110 | 아지즈 네신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AZIZ NESIN

‘아지즈 네신’(Aziz Nesin)은 튀르키예 공화국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이며, 풍자문학의 대가로 본명은 ‘메흐메트 누스레트’(Mehmet Nusret)이다.

아지즈 네신(Aziz Nesin)은 1915년 12월 10일 이스탄불 헤이벨리아다 지역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마지막 2년은 저소득층을 위한 기숙 종교학교인 다뤘쉬사파카(Darüşşafaka)에서 보냈으며 이후 베파, 다부트파샤 중학교에서 1년을 공부한 후 1930년 첸겔코이 군사(중)학교에 7학년으로 입학했다. 그리고 쿨렐리 군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35년 사관학교(Harp Okulu)에 진학해 1937년 졸업하여 소위로 임관했다. 당시 네신은 이스탄불 마취카 지역에 있는 군사과학전술학교(Askeri Fen Tatbikat Okulu)에서 2년간 훈련을 받으며 동시에 예술아카데미 동양예술학과에서 학업을 병행했다. 그때 세밀화, 채색필사본, 서예, 유약, 전통 제본 등을 배웠다.

그는 1940년 첫 결혼을 했고, 결혼 2년 뒤 첫째 오야(Oya)를 얻었다. 3년 뒤에는 둘째 아테쉬(Ateş)가 태어났다. 그 후 1941년부터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2년 후까지 트라키아 지역

막사형 군영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1942년 에르주룸 요새 지역 공병대대 사령부(Erzurum Müstahkem Mevkii İstihkam Taburu Bölük Komutanlığı)로 발령받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에르진잔에서 지진으로 무너진 탄약고를 뒷수습하던 도중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1944년에는 앙카라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탱크 수업을 받았고, 같은 해 튀르키예 북부 도시 종굴다크에 항공 포탄 기지를 구축하는 업무를 배정받았다. 그러던 그는 중위 시절 어느날 갑작스레 ‘직무와 직권 남용’ 혐의로 100일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군에서 퇴출당했다.

군에서 나온 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동안 구멍가게나 회계 경리 같은 일을 했다. 1945년에는 ‘세다트 시마비’(Sedat Simavi)가 발행한 잡지 <카라괴즈(Karagöz)>와 <7일(Yedigün)>에서 편집자 겸 작가로 근무했다. 같은 해 그는 희곡작가로 데뷔했고, ‘제케리아 세르텔’(Zekeriya Sertel)이 발행한 신문 <사벽(Tan)>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1946년 12월 4일 대학생 그룹이 이 신문사에 불을 지른 이후에는 8개월 동안 <토요일(Cumartesi)>이라는 주간지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 잡지 발행이 마무리된 후 그는 신문사 <조국(Vatan)>으로 이직했고, 같은 해 단독 저자로 『창당하기, 붕당하기(Parti Kurmak ve Parti Vurmak)』라는 16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를 출판했다.

1946년에는 ‘사바합틴 알리’(Sabahattin Ali)와 함께 <마르코 파샤(Marko Paşa)>라는 풍자 신문을 발행하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간행물은 당대 정치인들을 거침없이 비판했기에 거듭되는 압박과 여러 차례 폐업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나마 목표한 판매량은 달성했지만 거듭되는 소송과 고발로 인해 잡지에 글을 투고한 작가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풍자신문 <마르코 파샤>에 게재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튀르키예 지원과 야망을 맹렬히 비판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Nereye Gidiyoruz)」라는 글 때문에 그는 1947년 8월 12일 부르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1948년에도 『아지즈나메(Azizname)』라는 풍자소설을 발표했다. 이 책으로 인해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4개월 수감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결국 첫 번째 부인과 결별하고 말았다. 그리고 연이어 1949년에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이란 ‘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이집트 왕 ‘파루크 1세’ 등이 앙카라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 튀르키예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아지즈 네신이 자신들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그는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950년 4월 23일 그는 잡지 <메데트(Medet)>를 출간했고, 바로 이어 <처음부터(Baştan)>를 발행했다. 그리고 이 잡지가 출판 금지 판정을 받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새롭게 처음부터(Yeni Baştan)>로 이름을 바꿔 출판을 이어 나갔다. 하지만 이 잡지에 실린 프랑스어 번역문들이 문제되어 출판 금지되었고, 아지즈 네신은 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출소 후 그는 이제 더 이상 출판계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다.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해야만 했기에 그는 먼저 이스탄불 레벤투 지역에 가게를 빌려 ‘올루쉬 서점(Oluş Kitabevi)’을 열었다. 하지만 아침부터 신문 배달까지 할 만큼 열심히 매진했음에도 서점 운영은 큰 수익이 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베이오을루 지역에 추가로 사진관을 열고 1952년부터 1954년까지 지속했다.

하지만 아지즈 네신은 다작을 하는 작가로서 대중에게서 사랑 받았다. 그리고 1955년 9월 6일과 7일에 여당이었던 민주당(Demokrat Parti)이 통제력을 상실하자 이스탄불에 있는 소수민족의 집과 상점들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다. 아지즈 네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계엄령에 따라 체포되었다가 6개월 뒤 풀려났다. 오히려 뜻밖에도 이 기간에 이스탄불 교도소에서 단편소설 작가 ‘메랄 켈렌’(Meral Çelen)을 만나 사랑을 키울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결혼식을 올렸고, 1956년에는 셋째 아이 ‘알리’를, 1957년에는 넷째 ‘아흐메트’를 낳았다.

1956년 그는 이탈리아 보르디게라에서 열린 국제유머대회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다. 이 사건은 아지즈 네신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다음 해인 1957년 같은 대회에서 또 다시 상을 받으며 명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법률상 여권은 50세가 되는 1965년에야 받을 수 있었기에 상을 받으러 직접 이탈리아에 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후 베를린 바이마르에서 열린 안티파시즘 작가회의에 초청됐다. 그때 첫 해외방문을 시작으로 그는 6개월 동안 폴란드, 소비에트 연방,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다녀왔으며, 그 후 출판한 모든 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그는 1972년에 책 40권에 대한 인세를 기부하여 ‘네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을 통해 매년 일정 수의 고아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에 힘썼으며 책의 모든 수익금을 재단에 사용했다. 이 재단은 1976년~1980년에는 연 1회 문학작품집을 발간했다. 또한 1974년 아시아-아프리카 작가연합에서 로터스 상을 수상하고 1975년에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시상식에도 참여했다. 1976년에는 불가리아 가브로보에서 열린 ‘국제 풍자 도서전’에서 1위를 차지하여 히타르 페타르(Hitar Petar) 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1977년 튀르키예 작가협회 회



Müjde,
Nesin Lisesi
Kuruluyor!

DEVAMI İÇİN

Gönüllü Olmak İstiyorum

İhtiyaç Listesinden Aynı Bağış

Aylık Düzenli Bağış

Banka Hesap Numaraları

Kredi Kartıyla Bağış

아지즈 네신 재단 홈페이지
Source: <https://www.nesinvakfi.org/>

장으로 선출되었고, 오랫동안 회장직을 맡았다. 더불어 작품 활동도 꾸준히 계속해 1978년에는 소설 『생사불명 야샤르(Yaşar Ne Yaşar Ne Yaşamaz)』로 마달라르 소설상을 받기도 했다. 1985년에는 ‘법인 에킨(Ekin A.Ş)’을 설립했으며, 같은 해 영국에서 국제펜클럽(International PEN)의 명예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수상도 꾸준히 이어져 튀야프(TÜYAP)가 주최하는 ‘독자가 선정한 올해의 작가상’을 받았다. 이런 국제적인 그의 행보에는 일부 정치적인 면도 있었다. 그는 1989년에 ‘민주주의 전당대회’에 당원으로 참여했으며, 민주주의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장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소비에트 어린이 기금 톨스토이 금메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1982년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작가 연합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심장병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입원해 치료받아야 할 만큼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1995년 연설과 사인회를 위해 방문했던 알라차트(이즈미르)에서 심장마비로 7월 6일 새벽 사망하고 말았다. 생전 그의 유언에 따라 1995년 7월 7일 이스탄불 차탈자 지역에 있는 ‘네신재단’ 공원 어딘가에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묻혔다.

그는 투르크 전통 구비문학 장르인 민담을 현대소설에 차용했고, 해학과 풍자로 튀르키예가

안고 있는 현실과 사회문제를 고발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그는 대중과 호흡하며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노력했던 작가로 오래도록 남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지스 네신
- 다국어 표기 Aziz Nesi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즈미르, 이스탄불
- 참고문헌(오프라인) Aytaç Gürsel, *Çağdaş Türk Romanları Üzerine İncelemeler*, 2. Basım, Ankara: Gündoğan Yayınları, 1999.

I E111 | 아지즈 마흐무드 휘다이어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Aziz Mahmud Hüdayi

‘아지즈 마흐무드 휘다이어’는 세레플리코치히사르(Şereflikoçhisar)에서 태어났고 시브리히사르(Sivrihisar)에서 자라서 교육을 받은 다음 이스탄불로 건너가 ‘귀척 아야소피아 마드라사’에서 수학했다. 마드라사 교육을 마친 후에는 스승인 ‘나즈르자데 라마잔 에펜디’의 조수가 되어 그가 이집트와 시리아에 부임할 때 동반했다. 이집트에서는 할웨티 종단에 입문하여 배웠고, 나즈르자데가 부르사 카디가 되었을 때 역시 동반했는데 그의 스승은 3년간 직무를 수행한 후 사망했다.

스승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아 카디와 울라마의 삶에 환멸을 느낀 그는 예전부터 기도와 상담을 계기로 알고 있던 수피 스승 ‘무히잇딘 위프타데’의 문하에 들어갔다. 그 후로 3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수피로서의 훈련을 모두 마쳤기에 스승인 위프타데는 그를 고향인 시브리히사르에 할리페(대리인, 높은 자격을 갖춘 제자)로 임명했다. 거기서 6개월 가량을 지낸 휘다이어는 위프타데를 방문하려고 부르사로 왔으나 그 역시 사망하자 트라키아 등 발칸 여러 지역에 머물다가 이스탄불로 향했다.

이후 그는 유명한 울라마 권력자 ‘호자 사아뎃딘’의 후원을 얻어 귀척 아야소피아 모스크의 수피 회관(tekke)에서 8년간 셰이흐 역할을 했다. 동시에 파티흐 모스크에서 기도자(와이즈, va'iz) 역할을 하며 코란 해석과 하디스를 가르쳤다. 그 무렵 위스퀴다르에 지금의 휘다이어 데르가(수피회관)가 있는 대지를 1589년 매입한 후 데르가의 건축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해 거주지를 룸 메흐메드 파샤 모스크 근처로 옮겼다. 그리고 1595년 데르가의 건설이 마무리되자 1599년 파티흐 모스크의 기도자 역할을 그만두고 위스퀴다르 미흐리마 술탄 모스크에서 목요일마다 기도를 집전하게 되었다.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가 완공된 후 1616년에 열린 첫 후트바를 집전했으며, 그 후로도 매달 첫 월요일에 기도를 집전했다. 그런가 하면 위스퀴다르에 있을 때 주변의 불구를루 지역에 단식 기도처(çilehane)와 목욕탕을 지었는데, 그 모습을 본 아흐메드 1세도 땅을 휘다이어에게 기증했다. 개인적으로는 결혼은 여러 번 했는데, 술탄 쉴레이만 1세의 딸인 미흐리마 공주의 딸 아이세와도 결혼했다는 설이 있다. 11남매를 두었고 그중 딸 몇 명을 통해 자손들이 이어졌다.

휘다이어는 사회 전 계층에 광범위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어서 일반인들부터 술탄들까지 그를 애호했다. 그의 조언은 여러 술탄에게 상당히 큰 무게감 있는 말로 여겨졌는데 ‘에블리아아 첼레비’에 의하면 일곱 술탄이 휘다이어의 손에 입을 맞췄고 17만 문도(murid)에게 가르침을 펼쳤다고 한다. 평소에도 그가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동시대인들이 휘다이어를 상당히 존경했다는 것은 그를 가리키는 거대한 칭호들만 보아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그는 살아 있을 때는 위험에 처한 고관들을 그의 데르가에 숨겨주었고 죽은 후에는 그가 남긴 재원이 풍부한 와크프로 일반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데르가에 있는 그의 영묘는 이스탄불에서 에윅, 신틸 에펜디, 야흐야 에펜디의 영묘에 이어 가장 순례객이 많은 영묘로 꼽히기도 한다. 이슬람력 1266년(1850년) 큰 불로 휘다이어 데르가가 불타자 당시의 술탄 ‘압달메지드’가 개혁 재정이 빠듯한 가운데도 국고를 동원해 재건해 주었을 정도로 수피 회관이 누린 왕실과의 유대관계와 인기는 각별했다.

그의 데르가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당시 국가 요직에 있던 중 대재상 카이 세릴리 할릴 파샤, 딜라웨르 파샤, 울라마를 비롯해서, 호자 사아뎃딘, 수눌라, 호자자데 에사드 에펜디, 옥추자데 메흐메드 샤히 에펜디, 사르 압둘라, 네비자데 아타이, 유명세를 떨쳤던 수피



아지즈 마흐무드 휘다이어 모스크(이stanbul, 튀르키예)

올란라르 셰이흐 이브라힘 에펜디 등도 그의 데르가에 지속적으로 드나들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60명에 가까운 할리페(대리인, 독립한 제자)를 임명했고 오스만 제국의 심장부인 아나톨리아와 발칸의 수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의 데르가는 이스탄불에서 중요한 수피 사상의 중심지이자 문화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되어, 이곳에서 많은 종교인, 사상가, 수피 셰이흐, 음악가들이 성장했다.

휘다이어 데르가가 배출한 인물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부르사 출신의 ‘이스마일 학크’인데 그는 많은 수피 저작물로 유명한데, 그의 저작에서 휘다이어를 인용한 적도 있다. 휘다이어 데르가 출신자들은 거의 단순하지만 지혜가 넘치는 휘다이어의 스타일로 시를 지었다. 휘다이어는 이븐 알 아라비 류의 ‘모든 존재가 하나(wahdatu'l-wujud)’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던 수피 사상가이며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수피 사상의 웅대한 영혼을 친근한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휘다이어의 계보와 성향을 보면 약간 비정통적인 집단들과의 친연성이 짐작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 자신도 수피 스승에 대해 겉으로 계율을 어기는 듯이 보이는 면만 가지고 비판해 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그의 수니 정통 정체성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제기되면 그를 존경하고 옹호하는 연구자들과 종교인들에 의해 강력하게 논박되곤 한다. 그와 제자들이 지은 시들은 젤웨티 종단의 의례에서 빠질 수 없는 일부가 되었고, 젤웨티 종단은 여러 지파로 나뉘어 확산되었다. 그 결과 이스탄불에서 수피 종단이 폐쇄되었던 1925년 무렵에도 30여 개의 회관이 있을 정도로 번성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지즈 마흐무드 휘다이어

● 다국어 표기 Aziz Mahmud Hüdayi(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Yilmaz, Hasan Kamil. "Aziz Mahmud Hüday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4, İstanbul: TDV, 1991, pp.338~340.

이은정, 「'교파화' 시대의 수피 성자 아지즈 마흐무드 휘다이어(1541?-1628)」, 『동양사학연구』 132, 2015, pp.147~188.

I E112 | 아지즈 압두라저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Aziz Abdurazzoq

우즈베키스탄의 시인이자 번역가인 '아지즈 압두라저크'(Aziz Abdurazzoq)는 1928년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모스크바의 고리키(M. Gorkiy) 문과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는 수년 동안 <동방의 별(Sharq Yulduzi)>과 <굴리스트턴(Guliston)> 편집장을 역임했고,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고문을 맡았다.

그의 첫 시집은 1959년 『친구들에게(Do'stlarimga)』이다. 이후 『다시 봄이다(Yana bahor, 1961)』, 『파도(Mavj, 1965)』, 『아몬드가 꽃을 피웠습니다(Bodom gulladi, 1965)』, 『서정시(Lirika, 1970)』, 『친애하는 사람들(Aziz odamlar, 1975)』, 『장대비(Sho'x yomg'ir, 1977)』, 『마음의 빛(Qalb nuri, 1978)』 등의 시집을 출판했다. 그는 쾌활하고 유머러스하며 아이러니식

표현으로 어린이들의 순수한 감정을 묘사한 동화 『오, 얼마나 달콤한지(Oh, qanday Shirin, 1977)』, 『소녀와 튜립(Qiz va lola, 1979)』 등도 저술했다.

그는 해학과 풍자로 민족적 정체성을 묘사했고, 그의 유머는 때로 씩씩한 아이러니로 대체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교훈을 시사했다. 이런 성향의 작품으로는 『베개 속에서 나온 동화(Yostiqdan chiqqan ertaklar, 1988)』, 『정원에서 착한 동화(Bog'da bitgan ertaklar, 1989)』, 『네 형제 영웅(To'rt og'ayni botirlar, 1989)』, 『천 개의 배행기(Ming samolyot, 1995)』 등이 있다.

한편 그는 번역가로서 미하일 레르몬토프(M.Yu. Lermontov), 타라스 셰우첸코(T. Shevchenko)와 미국의 유명한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Henry Wadsworth Longfellow)의 작품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들은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었으며 1993년 그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았다. 일생동안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 그는 2007년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지즈 अबду라조크

● 다국어 표기 Aziz Abdurazzoq(우즈베크어), Азиз Абдураззоқ(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nasri/aziz-abdurazzoq-1928-2007>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valiyev S., O'zbek adiblari*,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2016.

I E113 | 아지즈헌 카유머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Azixxon Qayumov

아지즈헌 카유머브(Azixxon Qayumov)는 우즈베키스탄의 나바이이학(Navoiyshunos) 연구자이며,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이고, 문헌학 박사이다. 그는

1926년 1월 19일 코칸드(Kokand)의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플라트 카유머브(Po'lat Qayumov)는 우즈베키스탄의 명예교사였고, 시인 함자(Hamza)와 가까운 사이였기에 그와 함께 코칸드에서 근대 자디드식 학교(usuli jadid)를 설립했다.

아지즈헌 카유머브는 코칸드에서 제3중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린 시절부터 시에 대한 열정이 확고했기에 우즈베키스탄 국민시인 차르히이(Charxiy)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1944년에 중앙아시아 국립대학교(지금의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 동양어학부에 입학해 베르텔스(Bertels)와 아렌즈(Arends) 등 저명한 동양학자들의 지도 하에 1949년에 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아지즈헌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저히더브(V.Yu.Zohidov)에게 발탁되어 과학아카데미의 동양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고, 1949년부터 1957년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이후 과학,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언어문학 연구소 소장, 우즈베키스탄 중앙위원회 부서장, 문화부 장관, 국가 촬영위원회 위원장, 문화연구소 소장 등 고위직을 역임했다. 또한 알리쉐르 나비이 국립 문학박물관(The Alisher Navoiy State Museum of Literature)의 수석 연구원이 되어 젊은이들을 지도했으며, 학문적으로도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아지즈헌 카유머브(A. Qayumov)의 작품은 초기 투르크 비문부터 19세기 말까지 우즈베크 문학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연구였다. 그의 연구 업적은 「우즈베크 문학사(O'zbek adabiyoti tarixi, 1977~1979)», 「마흐무르(Maxmur, 1956)», 「허직(Hoziq, 1957)», 「거지이(G'oziy, 1959)», 「코칸드의 18세기~19세기 문학 환경(Qo'qon adabiy muhiti XVIII-XIX asrlar, 1961)», 「고대 문헌들(Qadimiyat obidalari, 1972)», 「베루니와 문예창작(Beruniy va adabiy ijod, 1973)», 「베루니와 이븐 시나(Beruniy va Ibn Sino, 1987)», 「알렉산더 대왕의 성벽(Saddi Iskandariy, 1975)», 「파르호드와 쉬린의 비밀(Farhod va Shirin sirlari, 1979)», 「알리쉐르 나비이(Alisher Navoiy, 1976)», 「버부르의 창의성(Bobur ijodiyoti, 1991)», 「자흐릿딘 무함마드 버부



아지즈헌 카유머브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르(Zahiriddin Muhammad Bobur, 2008)』, 「버부르 시대의 안디잔 문학환경(Bobur davridagi Andijon adabiy muhiti, 2009)」등이 있다. 또한 아흐마트 파르거니(Ahmad Farg'oni), 나지미딘 쿵로(Najmiddin Kubro), 아미르 티무르(Amir Temur), 압두라흐먼 조미이 (Abdurahmon Jomiy), 어가히이(Ogahiy), 푸르캣(Furqat) 등의 삶과 창작에 대한 그의 학술연구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

아지즈헌 카유머브(Azizxon Qayumo)는 우즈베크 고전 작품을 출판하고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그의 지도하에 고문연구소에서 출판된 두 권의 카탈로그(1988년~1989년)는 국제 이맘 부하리 상(Imom Buxoriy, 1998년)을 수상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세계문학」과 「중앙아시아 문화」의 문학 부분 역시 그가 집필한 것이다. 또한 시인이었던 그는 유명인들의 삶을 소개하는 위인전을 집필하기도 했다. 특히 『위대한 학자 가푸르 굴롬(Akademik G'afur G'ulom)』, 『대학자 어이벡(Akademik Oybek)』, 『석학 저히도브(Akademik V. Zohidov)』와 같은 책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위와 같은 집필 및 연구를 거쳐 출판된 책, 논문 및 칼럼의 총 숫자는 500편 이상이었다.

그는 1980년에 베루니 국가훈장(Beruniy nomidagi Davlat mukofoti)을 받았고, 1983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명예학자가 되었으며, 1996년에 슈흐라트 훈장(Shuhrat), 2003년에는 국가 명예훈장(Ei-yurt hurmati), 2014년에는 국가 공로훈장(Buyuk xizmatlari uchun)을 받았다. 그는 2018년 2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지즈헌 카유머브, 아지즈헌 카유모브

● 연관 검색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7/7f/Azizxon_Qayumov.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kun.uz/uz/84036045?utm_source=uznet.press&utm_medium=topic&utm_campaign=other
<https://akademiklar.uz/qayumov-aziz-polatovich>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Qayumov A., *Asarlar*, Toshkent: Mumtos so'z, 2010.

Xaboxunova R.Sh., *O'zbek mumtoz adabiyotining o'rganilishida akademik Aziz Qayumov ilmiy maktabining o'rni*, Andijon: Andijon Davlat universiteti, 2020.

I E114 | 아카투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Akatuy

‘아카투이’는 추바시인들의 농사 축제로 의례와 경축 행사가 포함되는 세시풍속이다. ‘아카투이’라는 단어가 추바시어로 ‘경작 축제’를 의미하는데 경작을 뜻하는 ‘아카’와 축제를 뜻하는 ‘투이’는 투르크어에서 유래했다. 불가강 상류의 추바시인들은 아카투이를 수하투(сухату, 수하는 밭갈이를 의미)라고 부르고, 불가강 하류의 추바시인들은 사판투이(сапантуй, 사판은 투르크어로 쟁기를 의미함)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카투이는 타타르 민족의 사반투이나 우랄 마리 민족의 아가-파이람(ага-пайрам), 불가강 중류 지방의 여러 민족들의 축제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추바시의 옛 풍습에 따라 봄 농사일을 나가기 전에 시작되어 봄 파종이 끝나기 전에 마쳤다. 봄 농사가 시작되기 전 씨족 공동체의 대표가 남성 친척들을 불러모은 다음 열린 문 앞에 테이블을 옮기고 맥주가 담긴 국자를, 접시에는 치즈, 빵, 계란 등을 놓는다. 그다음 집안의 대표가 빵과 치즈를 잘라 모두에게 나눠주고 최연장자는 열린 문을 향해서 투레(Турә)와 농사의 신들을 향해 풍작과 가축의 안녕, 공동체의 평안을 기도한 뒤 음복한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젊은이들이 음식을 가지고 밭갈이가 되지 않은 밭으로 나가 풍작이 될 지 점을 친다. 그 다음 날 다른 씨족 공동체는 식구들을 모아 접대와 의례 행사를 겸소하게 치른다.

이런 행사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데 모든 씨족 공동체는 의례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아카투이의 미신적인 의식은 사라졌다. 현재의 아카투이는 서로를 축하하고, 춤과 노래를 부르는 행사와 각종 문화행사와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고 민속 음식을 나눠 먹는 민족 축제가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카토이
- 다국어 표기 Akatúj(프랑스어), Акату́й(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사반투이

● 멀티미디어 링크 자이체프(Ю.А. Зайцев) 작(作), 아카투이(1935)

http://enc.cap.ru/pics/%D0%B0%D0%BA%D0%B0%D1%82%D1%83%D0%B9_%D0%B7%D0%B0%D0%B9.jpg

● 참고문헌(온라인) 추바시 백과사전//Акатуй

<http://enc.cap.ru/?t=publ&lnk=255>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алмин А.К, Народная обрядность чувашей, Чебоксары:Чувашский гуманитарный институт, 1994, 62-63.

I E115 | 아크 코바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Ak-Koba

아크 코바 유적은 알타이 동부의 바르부르가즈(Барбургазы, Barberaz) 강 하류의 좌측에 위치한다. 아크 코바 무덤은 무덤구덩이(깊이 1.5m)를 판 다음 석관은 설치하지 않고 그 안에 사자(死者)와 말 3마리를 함께 매장했다. 무덤의 주인공은 북쪽, 말은 남쪽에 매장하며 그 위에 방형으로 울타리(호석)(8m)를 두르고 납작한 돌로 덮은 구조를 갖고 있다. 호석 바깥에는 석인상을 세워둔다. 발굴 당시 출토된 유물은 주인공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 외에 화살, 철제 칼과 손잡이가 달린 목제 그릇이 주인공 옆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주인공의 옷으로 생각되는 실크 조각이 확인되었다. 함께 매장한 말은 재갈과 재갈멈치, 안장 등자가 채워진 상태였다. 안장은 남아 있지 않았으며 안장을 조이는 버클만 확인되었다. 목제 그릇은 한쪽에만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것인데, 보수한 흔적이 남아 있다.

아크-코바 유적은 등자(鎧子, 말을 탈 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만든 안장에 달린 발 받침대)가 출토되는 5세기 중반 이후의 쿠디리게 단계에 속한다. 흉노가 멸망하고 7세기에 투르크 제국이 이 지역에 들어오기 이전의 유적으로 알타이에서 흉노 멸망과 투르크 성립 이전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크-코바, 악코바

● 다국어 표기 Ak-Koba(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쿠디리게, 흥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барев В.Д, Древнетюркские изваяния Алтая. Новосибирск: 1984, 232 с.

Серегин Н.Н. Матренин С.С. Погребальный обряд кочевников Алтая во II в. до н.э. - XI в. н.э, 2016.

Кубарев Г.В. Культура древних тюрков Алта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огребальных памятников).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АЭТ СО РАН, 2005, 400 с.

I E116 | 아크부자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Akbuzat

‘아크부자트’는 바시키르어로 ‘젯빛 말’이란 뜻으로 날개 달린 말인 툴파르의 시조인 우랄-바티르의 말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한 바시키르의 영웅 서사시이다. 또는 타타르-미샤르 민담에도 등장한다. 이 서사시는 우랄-바티르와 그의 자손에 대한 영웅담 연작 중 하나로서 다른 연작 영웅담은 『우랄-바티르(Урал-Батыр』와 『바브사크와 쿠세크(Бабсак и Кусэк)』이다.

이야기는 1910년 시인 ‘무하메트샤 부란굴로프’(Мухаметша Бурангулов)가 ‘가비트 세센’(이야기꾼 가비트, Габит)에게 듣고 채록했고, 이어서 1917년 다른 이야기꾼 ‘가티아툴라 빅쿠진’(Гатиатулла Биккужин)에게서 다른 판본을 채록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과 민족 신화의 여러 형상들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서사시에는 운문과 산문이 번갈아 사용되는 쿠바이르 장르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서사시는 세태와 도덕, 고대의 관습, 미래 행복에 대한 바시키르인들의 관념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동화적인 영웅담이다. 주요 주제는 사람들의 행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용사의 투쟁이다. 주인공 하우반(Хаубан)은 수라-바티르의 아들이자 이델의 손자이자, 우랄-바티르의 증손자인데 괴물이 훔쳐간 증조부의 말 아크부자트와 다이아몬드 칼을 찾으러 수중 왕국으로 떠

난다. 그는 거인 괴물과 용을 무찌르고, 수중 왕국을 파괴한다. 그리고 아크부자트를 되찾아 지상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나쁜 칸을 쫓아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크부자트
- 다국어 표기 Акбузат(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툴파르, 바시키르어
- 참고문헌(온라인) АКБУЗАТ//<http://bashenc.online/ru/articles/82102/>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отов В. Г. Башкирский эпос «Урал-батыр». Историко-мифологические основы. — Уфа: Гилем, 2006. — С. 16. — 408 с.

I E117 | 아크코윤루(백양 조)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이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Aq Qoyunlu(Ak Koyunlu)

‘아크코윤루’는 중앙아시아에 기원한 투르크족의 분파인 오구즈-투르크멘의 여러 부족이 연합하여 건국한 국가로, 북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동 아나톨리아 등지를 1378년부터 1508년까지 통치했다.

그들의 핵심 지배층인 바얀두르(Bayındır) 씨족은 24 오구즈 씨족 중 하나로, 투르크족의 전설적 칸인 오구즈 칸의 손자인 바얀두르 칸을 창시자로 여기고 있다. ‘아크코윤루’라는 이름은 14세기 후반의 사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의미는 하얀(Aq) + 양(Qoy) + 부족(lu, 부족을 가리키는 접미사)의 조합으로, ‘백양조(白羊朝)’라 번역하여 부르기도 한다. 투르크멘 부족은 셀주크 조 시기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아나톨리아-아르메니아 등지로 이주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일 칸국 말기에 아크코윤루의 초기 하·동 영지인 튀르키예 북동부의 시니르(Sinir)와 디야르바크르의 에르가니(Ergani)로 이주하여 점차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아크코윤루의 핵심 씨족은 투르크멘이었지만, 사실상 아나톨리아-캅카스산맥 일대에 거주

했던 다양한 부족들의 느슨한 연맹체였다. 이들은 아미르들과 부족장들로 구성된 협의회(kengač)에서의 회의를 통해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했고, 주변의 아르메니아나 쿠르드, 아랍 정주 인구들에게서 거둔 세금과 동 아나톨리아를 관통하는 무역로에서 걷은 관세를 수입으로 삼았다. 이들은 14세기 중반, 일 칸국의 멸망 이후 아나톨리아와 시리아 등지에 세워진 여러 군소 정권과 각축을 벌이는 과정에서 연맹이 구축되었으며, 1378년에 이 연맹체의 수장이 된 카라 우스만(Qara 'Otmān)이 시바스의 '카디 부르한 앓 딘'을 전투에서 살해하면서 연맹 국가가



아크코윤루 우준 하산 시대의 주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성립했다. 이후 아나톨리아의 또 다른 신흥 세력이었던 오스만의 바야지드 1세에 대항하고자 앙카라 전투(1402년) 당시 티무르 측에 참전했는데, 이를 계기로 카라 우스만은 연맹체의 수장 자리를 확고히 하며 디야르바크르 일대를 평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티무르 사후 '카라 코윤루'가 '샤 루흐'와의 전쟁을 통해 세력이 약해진 1420년~1435년 사이에 세력을 확장했다.

그 후 1435년 '카라 우스만'이 사망한 후 발생한 장기간의 계승 분쟁 동안 잠시 주춤했던 움직임이 1457년에 연맹의 새 주축으로 떠오른 '우준 하산'에 의해 아크코윤루 연맹체를 재통일하면서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우준 하산은 서쪽으로는 오스만에 대항했으며, 남동쪽으로는 한창 티무르 조의 이란 강역 절반을 차지했던 '카라 코윤루'의 자한샤를 후방에서 공격하여 결국 1468년 카라 코윤루 연맹체를 흡수하고 아제르바이잔을 차지했다. 그리고 1469년에 헤라트의 티무르 조 군주인 '아부사이드'까지 포로로 잡아 살해한 우준 하산은, 오스만의 후방 공격을 받아 아나톨리아로 귀환했으며 1473년 오스만의 술탄 메흐메드에게 패배했다. 그리고 이후 시라즈에 임명한 아들 '오글루 무함마드'의 끊임없는 반란을 진압하던 우준 하산은 1478년 조지아 원정 도중에 사망했다.

그의 아들인 야쿱은 12년의 재위 기간 동안 내부 반란과 외부의 공격에 시달렸으며, 1490년에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다. 그 이후 아크코윤루는 끊임없는 세력 분쟁에 시달리다가 사파비 조의 이스마일에 의해 점차 이란부터 영역을 상실했고, 결국 완전히 무력화된 아크코윤루 부족

연맹체는 사파비 조의 크즐바슈에 흡수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악코윤루, 아크코윤루라르
- 다국어 표기 آق قويونلو(페르시아어), Akkoyunlular(튀르키예어), Ağqoyunlular(아제르바이잔어), Аққоюнлылар(카자흐어), Oq qo'yunli(우즈베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kr/yDZv>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iranicaonline.org/articles/aq-qoyunlu-confederation>
- 참고문헌(오프라인) Woods, J. E.ö *The Aqquyunlu: Clan, Confederation, Empire. A Study in 15th/9th Century Turko-Iranian Politics*, Minneapolis and Chicago, 1976.

I E118 | 아크하크-콜라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Akhak-kola

‘아크하크-콜라’(Акхак-кола)는 배신과 잔혹성을 징벌하는 내용을 담은 바시키르 구비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에는 산문과 운문 두 형식이 모두 쓰였다.

1907년 바시키르의 시인이자 작가인 ‘부랑굴로프’(М.Ф. Бурангулов)는 사마라 현에서 하산 부랑굴로프의 구연을 처음 채록했다. ‘아크하크 콜라’는 바시키르어로 ‘절름발이 황갈색’이란 뜻으로 서사시에 등장하는 술간 호수 바닥에서 나온 ‘아크부자트’의 자손 말(馬)의 이름이다. 이 서사시의 주인공은 바로 이 말이다. 아크하크-콜라는 잔혹한 주인의 말 목장에서 도망치는데, 주인이 뒤를 쫓아가 말에게 앞으로는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오라고 설득한다. 이를 믿은 말은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주인은 약속을 어기고 아크하크-콜라에게 활을 쏜다. 상처를 입게 된 말은 발굽으로 쳐서 주인을 죽이고 만다.

이 이야기에는 당시 바시키르의 세태와 관습이 사실적으로 풍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서사시는 다양한 멜로디 버전들이 있으며 약 20개의 버전이 채록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크하 콜라
- 다국어 표기 Акхак-кол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크부자트, 바시키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Султангареева Р.А. “Конь-время в башкирском эпосе «Акхак Кола(Хромой Саврасый)»: специфика отображения,” Вестник Башкир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М. Акмуллы 1.51 (66), 2023, 248-249.

I E119 | 아큰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김근식, 황영삼 ● 라틴 문자 Akyn

아큰(Акын) 또는 아킨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자흐, 키르기스, 노가이 민족의 음유 시인, 즉흥시인, 명창, 가수를 일컫는 말이다.(이하 아큰으로 표기)무카노프에 따르면 ‘아큰’이란 말은 ‘시내, 냇물’이란 뜻의 단어 ‘아긴(агын)’과 ‘세차게 흐르다’, ‘쏟다’라는 뜻의 단어 ‘아길루(агылу)’에서 유래하며, 청자들을 사로잡는 쏟아지는 물 같은 즉흥시를 의미한다고 한다.

아큰은 돔브라(домбра)나 코브즈(кобыз)같은 카자흐 민족의 전통 현악기 반주에 맞춰 레치 타티보 형식으로 즉흥시를 부른다. 오래된 창작 연주자인 지라우(жырау)나 지르시(жыршы), 올렌시(оленши) 등과 다르게 레파토리가 보편적이며, 현실적이고, 대중적인 것이 특징적이다.

아큰은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색채나 즉흥시의 멜로디를 완성시키기 위한 시적 기예를 연마한다. 그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큰 편이어서 경축일 행사나 행군, 각종 의식의 참가자이자 민중소송 모집의 발기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아큰은 대개 아이트스(айтыс; 재담대회/즉흥시 경연)에서 활약한다. 처음 아큰을 시작하려는 이가 있다면 먼저 대가들의 명작을 반복해서 익히면서 점차적으로 즉흥시의 고급 기술을 배우게 된다.

아큰은 서사시 내용을 암송하는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치’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그와 다르게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 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는 여전히 아큰의 활동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아큰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는 전통 카자흐인들의 유목 생활과 문화에 관한 것이 많고, 일부 영웅서사시도 소재가 된다. 중요한 것은 고정적이고 알려진 형태의 노래 가사만을 부르는 것이 아닌 현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임기응변식 노래 가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순발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단독으로 부르는 것보다 상대방과의 경쟁적 시합 형태로 부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가 맞는 노래 가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전통 마당놀이나 공연에서 만담꾼이나 소리꾼들이 서로 해학적인 대화를 나누며 임기응변을 발휘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아큰의 명성과 기예, 기술의 숙련도를 알 수 있는 지표는 아큰 경연대회인 아이트스(айтыс)에 참가했는지 여부이다. 그래서 아이트스에서 우승하기 위해 아큰은 즉흥 기교들의 숙련도를 높여야 하고 빠른 반응과 재치, 사회 문제와 역사에 조예가 깊어야 한다.

카자흐인들은 아큰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위정자를 비판하는 통로로 활용했다. 그러나 소련 시대에는 레닌이나 공산주의 체제 찬양과 같은 주제를 선택하는 아큰도 있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카자흐인들의 전통과 민족적인 요소가 사라진 점도 많지만,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이후 다시 아큰은 카자흐인들의 전통 문화로 인정받고 있다.

유명한 아큰으로는 타티카라(Татикара), 샬(Шал), 코테쉬(Котеш), 마이콧(Майкот), 자낙(Жанак), 카샤간(Кашаган), 수윤바이 아로노프(Суюнбай Аронов), 비르잔 살 코자굴로프(Биржан сал Кожагулов), 사라(Сара), 아세트 나이만바예프(Асет Найманбаев), 르스잔(Рысжан), 아칸 세리 코람신(Акан сери Корамсин), 자야우 무사 바이자노프(Жаяу Муса Байжанов), 발루안 솔락 바이무르진(Балуан Шолак Баймурзин), 마라바이(Марабай), 쇼제(Шоже), 누르페이스(Нурпеис), 잠빌 자바예프(Жамбыл Жабаев)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긴, 아근, 아킨
- 다국어 표기 Ақын(카자흐어), акын(키르기스어), Akın(아제르바이잔어), Oqin(우즈베크어), акы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돔브라, 코브즈, 아이트스
- 멀티미디어 링크 카자흐스탄 아이티스
<https://www.youtube.com/watch?v=9-9tAKJvms8>
 아큰의 공연
<https://www.youtube.com/watch?v=ly956P6-zbQ>

● 참고문헌(온라인) <https://bigenc.ru/literature/text/1809000>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Алматы, 2004. — Т. I. С. 164.

김근식, 「중앙아시아 구전 서사시 전통에서 카자흐 아킨이 포괄하는 의미와 다중적 사회기능」, 『노어노문학』 31권 4호, 2019, pp.151~174.

I E120 | 아키나케스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검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Akinakes

‘아키나케스’는 그리스어로 스키타이인의 단검(40cm~60cm)을 일컫는데, ‘헤로도토스’가 『역사』에서 스키타이인의 검을 아키나케스라는 명칭으로 기록했다.

아키나케스 검은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에도 새겨진 적이 있을 만큼 여러 민족들이 사용했던 것이었다. 소재는 청동 혹은 철제인데, 검의 날부터 손잡이까지 한 번에 주조되었다. 특징으로는 검날 멈추개가 하트형 혹은 나비 모양이고 손잡이 끝에 직사각형이나 동물장식이 달렸으며 동물장식은 그리핀 머리가 서로 맞대고 있는 모양이다. 또한 의례용 칼은 금박으로 상감되거나 검집에 벨트에 부착하기 위한 서스펜션이 달려 있다. 아키나케스 검은 흑해 지역부터 중앙아시아, 시베리아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어서 초기 철기시대 스키타-시베리아 문화권을 대표하는 유물이자 스키타이 3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스키타이 전사의 무기로 가장 유명한 것은 활과 화살, 전쟁용 투부, 그리고 칼과 검이다. 그 밖에도 흉노의 무기 가운데도 아키나케스 검을 닮은 철제 검이 발견된 적이 있으며 검날 멈추개가 있는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동물 스타일로 장식된 아키나케스 검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키나크

● 다국어 표기 Акинак(러시아)

● 연관 검색어 스키타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С. А. Гвоздев. Холодное оружие Востока и Запада. Техника самообороны. — Мн. : «Современное слово», 2000. — С. 176

I E121 | 아타베틸 하카이르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Atabetul Hakayik

『아타베틸 하카이르크』는 카라한 투르크어로 (11세기~13세기) 쓰인 대표적인 기록물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계 왕조인 카라한 칸국은(Karahanlılar, 840년~1212년) 카라한이라는 군주의 칭호를 따서 명명된 국가였다. 이 국가의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학자들 간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나 카를루크(Karluklar)이나 야오마/야그마(Yağmalar) 또는 치길과 같은 투르크계 유목민이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들은 텐산 산맥 주변의 초원과 농경지대를 지배했으며, 9세기 중반 위구르 제국의 붕괴와 유목민들의 대규모 이동, 사만 조와의 교류와 대립이라는 큰 변화를 이겨내며 정치, 문화적으로 성장했다. 카라한 칸국은 동부 칸국(추강 유역과 타림 분지 서쪽)과 서부 칸국(트란스옥시아나와 페르가나 지방)으로 나뉘어 양국 체제로 운영되었다.

카라한 칸국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계기는 세 번째 통치자였던 ‘사투크 부우라 칸’(Satuk Buğra Han)이 946년 무슬림이 되면서부터였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신자가 늘어나 10세기 중반에 이르자 유목민 중 상당수가 이슬람교를 받아들리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992년 페르가나를 장악하고 999년에 부하라를 점령하여 사만 조를 붕괴시켰으며 11세기 말 서부 칸국이 가즈나 조의 압박을 받아 셀주크에 종속되었다. 그리고 1132년에 동 카라한의 여러 도시가 카라

키타이에 멸망하면서 최종적으로 1212년 멸망을 맞이했다. 카라한 칸국에 관한 기록물의 연구 사적 의의를 되짚어 내려가면 10세기 중반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이 특히 투르크학, 투르크 언어학의 역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이슬람 시기의 투르크 문학은 카라한 칸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록 및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위구르 문자를 주로 사용했으며, 11세기~12세기에는 아랍문자도 사용되었다. 그중에서 카라한 투르크어로 쓰인 대표적 기록물로는 쿠타드구 빌리그,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 아타베틸 하카이르크, 각종 계약서 (토지매매 등), 코란 번역서 등이 있다.

‘아타베틸 하카이르크’ 역시 대표적인 기록물 중 하나인데 이는 12세기 ‘에디프 아흐메트 유크네키’(Edip Ahmet Yükneki)가 쓴 종교와 도덕을 주제로 한 운문 형식의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40개의 대구와 101개의 사행시(dörtlük)로 이루어진 연 구조의 총 484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행 대구를 이루는 부분이 튀르키예 궁중문학 가젤(gazel)과 흡사하며, 사행시 구조는 운율에 맞추어 쓰여있다. 내용적 측면으로는 도덕과 종교라는 일반적인 주제의 큰 틀에서 선과 악, 관대함과 인색함, 필멸과 무상함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도덕적 원리에 대한 설명과 이와 관련된 조언이나 교훈적 이야기가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슬람 사상과 견해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가장 이슬람적 신앙을 구체화하고 강조한 최초의 작품으로 여겨졌다.

작품은 총 1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초반의 다섯 부분은 도입부, ‘네비’라고 명명된 8개 부분은 본 주제를 다루고 마지막 부분은 결론부로 끝난다. 이 작품을 현대 튀르키예어로 바꿔 보자면 ‘진실의 문턱/문(Hakikatlerin Eşiği)’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 ‘Hibetü’l-Hakayık’ 또는 ‘Aybetü’l-Akayık’와 같은 형태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가장 보편적인 이름과 의미로 설명되었다. 작품 자체는 ‘하카니예(Hakaniye)’ 방언으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종교적 영향으로 다수의 아랍어와 페르시아 어휘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쿠타드구 빌리그’처럼 2행시 대구 형태의 구조로 작성되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시의 내용을 통해 작가가 얼마나 학문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는 관대함은 칭송 받는 것이나 인색함은 질타 받는 것이라는 명확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알라신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주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을 지닌 ‘아타베틸 하카이르크’는 오늘날까지 총 네 권의 기록본이 존재한다. 1444년 사마르칸트에서 위구르 문자로 쓰여진 기록본은 이스탄불에 있으며 1480년에 이스탄불에서 쓰여진 다른 한 부는 위의 행은 위구르 문자로, 아래 행은 아랍 문자로 기록되었다. 또한 이스탄불에 보관중인 세번째 기록본과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교(Groningen university)에 보관중인 한 부는 모두 아랍 문자로 쓰여져 있다. 그중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1480년본으로 현재 아야소피아 도서관에 보관 중이며, 추후 ‘네지프 아슴’(Necip Asım)이 1918년 원문과 번역본, 필사본을 출판했다. 1444년 발간본은 ‘킬리슬리 리파트’(Kilisli Rifat)이 발견하고 ‘네지프 아슴’이 진품임을 판별했다. 이와 별개로 새로 발견된 네덜란드판 아타베틸 하카이르크의 대조본은 ‘세르칸 차크마크’(Serkan Çamak)가 2019년 출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타베틸 하카익, 아테베틸 하카이르크
- 다국어 표기 Atabetü’l-Hakayık(튀르키예어), Atebetü’lHakâyı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부하라, 쿠타드구 빌리, 사마르칸트, 이스탄불, 고대 튀르키어 대사전, 카라한 칸국, 트란스옥시아나, 페르가나, 카를루크, 아야소피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ekitap.yek.gov.tr/Uploads/ProductsFiles/_115.%20Atebet%C3%BCI-Hakay%C4%B1k.pdf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edebiyatciyim.com/atabetul-hakayik/>
- 참고문헌(오프라인) Çakmak S. *Atabetü’l-Hakayık*, Edib Ahmed Yüknêkî (m. 12.yy), İstanbul, 2019.

I E122 | 아타벵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호칭 ● 유형 소분류2 직위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Atabeg

셀주크 조와 그 이후의 몇몇 왕조에서 사용되었던 고관의 직명이다. 이 단어는 튀르크계 용어이며 여러 튀르크 집단 중에서도 주로 오구즈계 튀르크인들에게만 등장하는 특수한 직명으로 꼽힌다. 이 직명이 처음으로 이슬람 역사서에 명확히 등장하는 것은 셀주크 조의 2대 군주 말릭

샤가 그의 재상인 ‘니잠 알 물크’에게 이 직위를 수여했을 때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며, 실제로는 투르크계 군주의 투르크인 스승에게 붙여지는 영예로운 직명이다. 말릭샤 이후로 이 칭호가 정기적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데다 점점 그들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로 술탄의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는 스승을 투르크 군대의 장수 중에서 찾아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형태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의 왕자들은 각기 자신의 아타벡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간혹 이 아타벡이 술탄이 사망한 후 자신이 돌보는 왕자의 모친과 혼인함으로써 실제로 그의 계부가 되기도 했다. 아타벡은 왕자가 장성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잃고 고문의 위치로 물러나게 되지만, 간혹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점점 입증되면서 점차 이 직위는 실제 왕의 스승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세력을 지닌 아미르에게 통치권을 사여하고 그 대신 그의 보호를 구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권력욕을 지닌 아미르-아타벡이 역으로 왕자를 권력 추구의 길로 이끌기도 했다. 그러니 술탄 가문 내 여러 왕자들의 갈등이 곧 아타벡들의 싸움이기도 했다.

아타벡은 점차 세습화되며, 셀주크 조가 사라진 이후까지도 셀주크 조의 아타벡이라는 직위, 그 세습의 전통, 그들의 강력한 권력 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12세기에 옛 셀주크 조 술탄 ‘아르슬란’의 아타벡이었던 ‘일데기즈’의 후손, 아제르바이잔의 아타벡 가문이 정권을 세운 사건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 이후 셀주크의 옛 영역에서 이와 같은 아타벡 정권이 여럿 등장했는데, 예를 들면 다마스쿠스에 등장한 아타벡 ‘툽테킨’의 부리 조, 모술을 근거지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차지했던 아타벡 ‘이마드 장기’의 장기 조, 파르스의 ‘살구르 조’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야즈드나 루리스탄에도 아타벡 왕조가 있었다. 이처럼 셀주크 조는 사라졌지만 그 후속 국가인 호라즘샤 시기에는 여전히 셀주크 조 후손들의 아타벡이 존재했다.

그러나 몽골 제국이 들어서게 되면서부터는 아타벡이라는 단어의 뜻은 변질되기 시작해 단순한 영예로운 직함 정도로 격하되었다. 반면 아나톨리아의 룸 셀주크에서는 아타벡이 여전히 왕자의 스승 및 후견인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어린 셀주크 왕자를 주변의 다른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아타벡을 세우고 왕자의 모친과 혼인하여 계부가 되는 형태의 관습이 이어졌다. 물론 13세기가 되면서 룸 셀주크에서도 군주가 아타벡의 세력 팽창을 경계했지만, 곧 몽골의 침입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아타벡의 세력이 거대해져 국정에 큰 영

향을 미쳤다. 다만 이 시기에 아타벡의 개념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는 아타벡이 권위 있는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단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셀주크 조 이후의 다른 왕조, 예를 들어 일 칸국이나 오스만 조에서는 이타벡이라는 단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맘루크 조에서는 이 아타벡이라는 칭호가 비교적 오랫동안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전 군주의 후계자의 섭정이자 부인의 새 배우자에게 붙여지는 칭호였다. 이 칭호는 맘루크 조의 말기까지 이어졌으며 상당한 권력을 가졌다. 또한 티무르 조에서도 티무르의 아들이나 손자에게 아타벡이 지정되는 사례가 보인다. 이때 아타벡의 부인은 유모가 되고, 그 티무르의 자손이 장성하면 아타벡은 그의 근신이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타베크
- 다국어 표기 Atabeg, atabey(튀르키예어), اتابک(페르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atabak-turkish-atabeg-lit>
- 참고문헌(오프라인) Cahen, Cl. "Atabak." *Encyclopaedia of Islam* 1, Leiden: Brill, 1986, pp.731~732.

I E123 | 아태시갸흐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신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təşgah, Ateshgah

아태시갸흐(Atəşgah)는 아제르바이잔 바쿠 교외의 수라가니(Suraxani) 마을에 위치한 신전으로 ‘바쿠 불의 신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태시(Atəş)는 페르시아어 ‘불(Ātash(اتش))’의 아제르바이잔어 표기이고, 갸흐(gah)는 ‘왕좌’ 또는 ‘장소’ ‘집’을 의미한다. 이곳은 시크교도, 힌두교도, 조로아스터교도가 신전으로 사용했다.

이 신전은 오각형의 단지가 사제(수도승)들을 위한 방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원 중앙에는 네 개의 기둥과 돔으로 이루어진 제단이 있다. 입구 대문 위층에는 이 지역의 전통적인 형식의

거실이 있다. 신전 단지를 둘러싼 벽은 이 지역의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요철 모양을 하고 있다.

내원을 둘러싼 각 방의 입구에는 봉헌 비문이 새겨진 석판이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것 중 14개는 힌두교, 2개는 시크교, 1개는 조로아스터교 관련 비문이다. 조로아스터교 비문은 페르시아어로 다가오는 새해(나브로즈)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산스크리트어 데바나가리 문자와 마하자니 문자, 펀자브어 구르무키 문자로 새긴 비문은 불의 여신 자왈라 지(Jwala Ji)에게 봉헌한 내용인데, 가네샤신과 시바신을 언급하기도 한다. 세 종류의 비문 모두 서기 1745년에 해당하는 연도를 표기했다.

이 신전은 1713년 건설됐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미 최소 17세기에는 건설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쉬르반샤 왕조와 무역을 하던 인도인들이 이곳 신전을 힌두교와 시크교의 사원으로 사용했고, 17세기에서 인도에서 불을 숭배하는 순례자들이 방문하기도 했다. 18세기에는 신전 주변에 사원과 방, 대상 숙소 등이 추가로 건설되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힌두교와 시크교도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도도 사용했다고 한다. 특히, 이 신전의 제단 양식이 전통적인 힌두교 사원과 달리 네 개의 기둥을 기본으로 건물 양식은 사산 조 사원 양식이다. 따라서, 17세기 이전에 이미 이곳에 조로아스터교 사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과거에는 신전 인근 야나르 다그(Yanar dağ) 천연가스의 영향으로 신전과 제단의 불이 자연적으로 타올랐지만, 19세기 후반 유전과 가스전 개발, 인근 지역에 공장이 가동되면서 불은 점차 약해지고, 1902년 1월 6일 불이 꺼지고 말았다. 1922년 사원이 폐쇄되었고 40년 동안 창고로 사용됐는데, 이 기간에 내부에 많은 훼손이 발생했다. 1964년 이 사원을 박물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됐고, 1964년 복원이 완료된 후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2012년 추가적인 수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199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테쉬가흐, 아테쉬가흐, 아테시가흐, 불의 신전

● **다국어 표기** Ateşgah(아제르바이잔어), Bakü Ateşgahı(튀르키예어), Атеşгях(카자흐어), Ateşgah(우즈베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아테시가흐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8/87/Jahlinmarceta_baku_temple.jpg/1280px-Jahlinmarceta_baku_temple.jpg



아태시가흐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hc.unesco.org/en/tentativelists/1172/>
<https://ateshgah temple.az/az/>

● 참고문헌(오프라인) Gnoli, Gherardo. “Ateshgah.”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5,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pp.341~346.

Karimi, Saadat. “Historical Silk Road – Intercultural And Trade Communication Between India And Azerbaijan”, *The XIII International Scientific Symposium*, 2021, pp229~234.

Ulutürk, Muammer. “Azerbaycan’da Zerdüşîlik ve Abşeron–Surahani Ateşgedesi”, *Anemon Muş Alparslan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Dergisi*, Volume: 9 Number: Society & Politics, 2021, pp.45~54.

I E124 | 아드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풍습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Ad

‘아드(Ad)’는 이름을 뜻하는 투르크어이다. 이름에는 생물과 무생물, 감정과 생각, 다양한 상황들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반영된다.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투르크어로 이름의 기원은 ‘말(馬)’과 관계가 있다. 투르크어로 ‘Ad(이름)’란 단어는 ‘At(말, 馬)’에서 파생됐다. 투르크어의 방언 차이에 따라 ‘d-t’의 구별이 사라진 것이다. ‘at(말)’는 고대에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다. 그리고 그 말을 소유한 사람의 지위나 계급 등 정체성도 소유한 동물에 따라 다르게 구분됐다. 즉, 사람의 이름은 일종의 ‘말(馬)’과 같다. 말(馬)이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서 주인과 동일시 되듯이 이름도 그 이름을 동일시 하는 사람과 일체(一體)가 되기 때문이다. 투르크인들은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고대 투르크인들은 죽을 때 말(馬)도 함께 매장했다. 모든 투르크어 방언에서 수천 년 동안 ‘Ad’와 ‘At’는 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됐으며, 많은 단어가 이 어휘에서 파생됐다.

투르크인들의 소녀와 소년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름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여성들의 이름에는 섬세함, 우아함,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이름을 선호한다. 여성의 이름에 꽃, 보석, 우아한 새, 아름다움의 상징인 생명체의 이름을 붙인다. 반면에 남자 아이 이름은 일부러라도 약간 거칠게 붙인다. 남성에게는 용기, 영웅주의, 용맹함, 자신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남녀의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붙였던 것은, 이름이 여성과 남성의 캐릭터와 정체성 형성 그리고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데서 비롯됐다. 투르크인들에게는 아직도 소년에게는 ‘소년다운’, 소녀에게는 ‘소녀다운’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 다국어 표기 names(영어), ad(튀르키예어), имено(러시아어), ad(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Tanrıverdi Əzizxan, *Türk Mənşəli Azərbaycan Şəxslərinin Tarixi-Linqvistik Tədqiqi*, Bakı, 2012.

I E125 | 아트로파테네

● 시기 B.C.~A.D.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Atropatene

‘아트로파테네’(영어 표기: Atropatene, 아제르바이잔어 표기:Atropotena)는 아투르파타칸(Aturpatakan), 미디어 아트로파테네(Media Atropatene)로도 불리며 고대 마케도니아 붕괴 후 건국되어 현(現) 아제르바이잔 영토 일부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영토 일부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이다. 국(國)명은 아케메네스 제국의 태수(太守)였던 ‘아트로파트’(Atropat)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플루타르코스’와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는 ‘아트로파트의 미디어’라고 불렀으며, 스트라본을 이 나라를 ‘소(小) 미디어’라고 칭했다.

학자들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어휘 자체가 아트로파테네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사산 조 기록에서는 아두르바다간(Adurbadagan), 아랍어 자료에서는 아다르바이잔(Adarbayjan)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트로파테네의 수도는 베라(Vera, 현재 Marağa)와 갠잭(Gəncək, 또는 Qazaka, Şiz)였다. 당시 왕들은 겨울을 베라에서 보냈고, 여름을 갠잭에서 지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아트로파테네에서 마티엔(matienlər), 사가르티(saqartilər), 카두시(kadusilər), 겐(gellər), 우티(utilər), 아나리아크(anariaklar), 파브시크(pavsiklər), 마르드(mardlar), 마그(maqlar), 아제르(azərilər) 등 다양한 부족들이 살았으며, 스트라본의 기록에 의하면, 알바니아(Albaniya)에 살았던 부족 일부가 아트로파테네에 존재했다. 또한 아트로파테네가 아르미니아와 마티아나의 동쪽, 대미디어의 동쪽과 북쪽에 위치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아랍 사가들은 아트로파테네의 국경이 일시적으로 대 캅카스까지 확장되었다고 기록했다.

아트로파테네의 원주민 부족 중에 투르크어를 쓰는 부족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 페체네그인(peçenek) 부족에 속한 가판(qapan), 가라박(qarabaq), 게갈치(qeqarçi), 구갈춘(quqarçın), 굴라르(qullar)이며, 페르시아어를 사용한 제일 큰 부족은 쿠디시(kudisilər) 부족이었다.

아트로파테네는 셀레우코스 제국, 파르티아 제국, 알바니아, 로마 등과 교류했다. 아트로파테네의 마지막 왕은 아르타바즈드 4세(IV.Artavazd)로, 226년에 사산 제국에 정복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트로파테나

● 다국어 표기 Atropatena(아제르바이잔어), Atropatena(튀르키예어), Atropatena(우즈베크어), Атропатена(카자흐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Yeddi cildə. Birinci cild (Ən qədimdən – b.e. 3-cü əsri). Bakı. “Elm”. 2007.

Azərbaycan tarixi. Yeddi cildə. 2-ci cild. Bakı. “Elm”. 2007.

Bünyadov, Ziya. Azərbaycan 7–9–Cu Əsirlərdə, Bakı, 2008.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Fazili, Abdulla. Atropatena, Bakı, 1993.

İsmayıl, Mahmud. Azərbaycan Xalqının Yaranması. Bakı, 1995.

Məmmədova, F.. “Qafqaz Albaniyası Və Albanlar, İkinci Nəşr, Bakı, 2021.

Məmmədova, F.. Qafqaz Albaniyasının Siyasi Tarixi Və Tarixi Coğrafiyası, Bakı, 1993.

Nuriyeva, İradə. Azərbaycan Tarixi (Ən Qədim Zamanlardan–XXI Əsrin Əvvəllərinədək). Ali Məktəblər Üçün Dərslik. – Bakı: Mütərcim, 2015.

Qeybullayev, Q., Azərbaycan Türklərinin Təşəkkülü Tarixindən, Azərbaycan Dövlət Nəşriyyatı, Bakı, 1994,

Xəlilov, C.Ə.. Xınıslı qədim yaşayış yeri. / Azərb. CCP EA Xəbərləri, ictimai elmlər seriyası № 3, 1961,

Алиев И. Очерк истории Атропатены. Баку, 1989.

I E126 | 아틸라

- 시기 B.C.~ A.D. 10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유럽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ttila

‘아틸라’는 훈족의 왕으로 전대 왕이었던 ‘루아’(Ruga)의 둘째 조카였다. 루아에게는 ‘문주크’(Mundzuk)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문주크에게는 ‘블레다’(Bleda)와 ‘아틸라’ 두 아들이 있었다. 435년 11월 루아가 사망하자 처음엔 그의 맏조카이자 아틸라의 형이었던 블레다가 뒤를 이어 훈족의 왕이 되었다. 이에 관해 아틸라가 그의 형인 블레다와 함께 공동으로 훈족을 통치했고, 아틸라가 이때에도 정치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훗날 전 유럽에 명성을 떨친 아틸라의 위상을 높이 봐서 나온 설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는 그냥 형의 휘하에서 독립적인 세력을 가진 강력한 2인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445년, 형 블레다가 사망하면서 아틸라가 권력의 정상에 오르게 된다. 당시 훈족은 서아시아에서 중부 유럽에 이르는 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에 동서 로마를 포함해 그에 대항할 세력이 없었다. ‘전쟁의 신 아레스(Ares)의 검이 아틸라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였다. 당시의 비잔틴 역사가 ‘프리스쿠스’는 “신성한 신의 검은 오랫동안 분실되었다가 훈의 한 목동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아틸라에게 바쳐졌다. 이제 아틸라의 세계 정복이 눈앞에 닥쳐왔으니, 이는 아레스의 검으로 지구를 통치할 힘과 정당성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다.”고 묘사했다. 이런 믿음과 두려움은 강하게 퍼져나갔다.

그는 치세를 통해 5세기 민족 대이동기에 지금의 루마니아인 트란실바니아를 본거(本據)로 하여 주변의 게르만 부족과 동고트족을 굴복시켜 동쪽은 카스피해에서 서쪽은 라인강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세계 정복을 꿈꾸었고 당시 동방의 대제국이었던 사산 조 페르시아 공격도 계획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453년 봄, 오늘날 헝가리의 티소 강에 위치한 자신의 목조 궁전에서 의문의 죽임을 당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앓틸라, 아뎀라
- 다국어 표기 Attila the Hun(영어), Atil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훈족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1939&cid=40942&categoryId=34317>(두산백과 아틸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Heather, Peter. *Empires and Barbarians: The Fall of Rome and the Birth of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7.

I E127 | 아파나시에보 문화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문화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fanasevo

아파나시에보 문화(Afanasevo culture)는 B.C. 3500년~B.C. 2500년경 중앙아시아 북동부에서 시베리아 남부의 알타이 산맥 동부에 걸쳐 번영한 문화이자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에 걸쳐 나타나는 최초의 유목 문화이다. 이 문화가 세상에 등장한 것은 미누신스크 부근의 아파나시에보(Afanas'ev)에서 최초로 관련 유적이 발견되면서부터였다. 시기적으로는 청동기 시대 전기 또는 청동기 시대 후기 유적에 해당하며 시베리아의 동석(銅石) 병용문화로서 예니세이강 중류와 알타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석기와 동을 병용하여 쓰는 이 문화를 기반으로 하던 당시 사회는 목축업을 주요 생업 수단으로 삼았기에 유목을 병행한 목축 사회였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소, 양 또는 염소, 말을 사육했지만, 야생 동물 사냥도 했으며 여러 유물에서 이런 생활 양식을 유추해볼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시기적으로는 모권제(母權制)에서 부권제(父權制)로 넘어가는 시기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거주 지역 유적은 없고 청동기 유물만 발굴되었다. 인종은 인도 유럽인 계통으로 보이며, 중앙아시아의 안드로노보 문화와 유사성이 많다. 학자에 따라선 이 아파나시에보 문화의 주역을 백인 계통의 투르크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일부에서는 철기 시대의 파지리크 문화(Pazyryk culture)의 주역이 투르크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전자가 더 지지받고 있다. 아파나시에보 문화 관련자들이 유럽계 인종이었다고 추정하는 근거 중 하나는 특이한 장례 의식이다. 그들의 장례는 시신을 지하에 매장했으며 무덤 안에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양와굴장(仰臥屈葬)으로 묻혔다. 그리고 무덤상부는 적석시설을 한 다음 때로 작은 울타리를 주위에 둘렀다.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청동유물이 드물게 보이며 빗살무늬가 희미하게 장식된 첨저(尖底), 평저(平底), 원저(圓底)의 토기류가 대부분이다.

이 아파나시에보 문화를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안드로노보 문화이다. 안드로노보는 유목 문화를 중심으로 사용하며 동부 인도-이란어족의 유목 문화와 동부 안드로노보 문화권 종족인 투르크와 관련이 있다. 안드로노보를 이끈 중심 종족은 흰색 피부, 짙게 빛나는 눈동자, 등

근 얼굴, 강건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진 백인종으로, 4대 백인종 그룹 중 유로피드 투라니드 계통인 투르크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도로노보 문화는 암나야 문화에서부터 스텝지역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유목문화와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점이 동부 아리안의 최초의 유목민인 스키타이의 문화와 중앙아시아를 기원으로 하는 원시 투르크인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남부의 페르시아 문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파나시예보 문화, 아파나시예보

● 다국어 표기 Афанасьевская культура(러시아어), Afanasyev mədəniyyəti(아제르바이잔어), Афанасьев мәдениети(카자흐어), Afanasiyevo kültürü(튀르키예어), Afanasyevo madaniyati(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파지리크문화

● 참고문헌(오프라인) Chard, C. S., *Northeast Asia in Prehistory*,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4.

Phillips, E. D., *The Royal Hordes : Nomad Peoples of the Steppes*, McGraw-Hill Book, 1965.

우덕찬, 『중앙아시아사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Ⅰ E128 | 아팍 호자 영묘 복합단지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복합단지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pak Khoja Mausoleum Complex

아팍 호자 영묘 복합단지는 카쉬가르 외곽에서 동북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호탄, 야르칸트, 악수, 쿠차와 타림 등 신장 지구를 통치했던 바히산(Baishan) 호자 가문의 영묘이자 복합단지이다. 이 복합단지는 17세기 초 ‘유수프 호자’(Yusuf Khoja)가 종교학교로 지었으며 1640년에 자신을 위한 영묘를 건설하며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 모스크를 추가로 건설하며 거의 3헥타르에 달하는 복합단지가 만들어졌다.

구조는 약간 불규칙한 직사각형 플랜이며 고모스크와 저모스크(高低禮拜寺)로 둘러싸인 중정이 있다. 정문은 남쪽에 있으며 서쪽에 대모스크가 있고 소(小)모스크는 북쪽에, 영묘는 동쪽에 위치해 있다.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모든 모스크는 약간 다른 각도로 메카를 향하고 있다.

복합단지 남동쪽 모서리에 대형 석조문이 있다. 큐폴라가 덮인 가느다란 두 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건물은 다양한 디자인의 푸른색 타일로 했고 정문에는 아랍어 비문이 있는 타일 패널이 있다. 이 정문은 기후와 지진으로 인해 훼손되었으며 벽감형의 출입구에도 비문이 존재한다.

정문의 서쪽은 고모스크, 저모스크 및 남쪽의 대모스크도 연결되어 있으며 고모스크의 열주랑은 정문 옆에 있는 벽돌로 된 문을 통해 6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볼 수 있다. 고모스크의 열주랑 공간은 채색된 목재 기둥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것은 따뜻한 날씨에 외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기둥은 무카르나스 형 기둥머리와 서까래로 이어진다. 서까래는 꽃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큐폴라로 덮인 두 개의 탑은 벽돌로 장식되어 있고 포르티코 전에 베란다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기도실은 포르티코 양 끝의 두 개의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키블라 벽에는 아치형 벽감의 미흐랍이 있다.

고모스크의 벽돌로 된 키블라 벽은 저모스크의 오래된 동쪽 벽처럼 보존되고 있다. 이것은 18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모스크가 전체가 닫힌 형식으로 진흙 벽돌로 된 긴 대기실 같다면 고모스크의 대기실은 저모스크의 기도 공간보다 앞에 있다. 기도실을 덮고 있는 돔은 녹색이 바깥에서 보인다. 두 모스크의 조화처럼 야외 공간이 있는 여름 모스크와 폐쇄된 공간으로 이루어진 겨울 모스크라는 구성은 위구르 종교 건축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저모스크 서쪽으로는 마드라사와 경전실이 회당 중정을 둘러싸고 있다. 복합단지 남쪽, 저모스크 바깥에는 나무가 있는 인공 호수가 있다.

■ 아팍 호자 영묘(阿帕克和卓墓)

복합단지에서 가장 큰 건물로 1640년에 '유수프 호자'에 의해 건설되었다. 이름은 그의 아들인 '아팍 호자'에서 따왔는데 당시 아팍 호자가 그의 아버지보다 더 유명했으며 1693년에 영묘에 묻혔다. 이 지역에서는 이 영묘를 시나그페이(Xinagfei) 영묘 즉, 향비(香妃, 본명: Fatimah binti Ali Khoja, 1734년~1788년) 영묘라고 부르기도 한다. 향비는 '마흐란 호자'(Mahran Khoja), '사투크 보그라 칸'(Satuk Boghra Khan)의 딸로 건륭제의 후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 향비의 묘는 베이징에 있다.

영묘의 건물 각 네 모서리에는 큐폴라가 있는 탑이 있으며, 서쪽 입구에는 피슈타크가 있다. 기둥이 없는 홀은 각 면이 39m이고, 많은 무덤이 있으며 지름 16m 정도의 돔은 녹색 타일로 덮



아팍 호자 영묘 전면부

Source:<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여 있다. 돔을 떠받치는 볼트는 네 개의 이완과 연결되어 있는데 내부는 흰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외부는 창문이 뚫린 아치형 벽감이 녹색, 파란색, 흰색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 소 녹색 모스크(绿顶礼拜寺)

영묘의 북서쪽에는 17세기에 건설된 작은 녹색 모스크가 있다. 이곳은 ‘아팍 호자’가 코란을 읽을 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쪽 모스크와 유사하게 모스크의 포르티코는 따뜻한 날 사용하고 폐쇄형의 기도실은 겨울에 사용했다. 기도실을 덮고 있는 돔은 3층으로 중첩된 드럼 위에 있다. 돔과 접촉된 최상단부는 24면 드럼이고 그 후, 12면 드럼, 8면 드럼으로 차츰 내려가 정사각형의 기도실과 연결된다. 모스크의 돔은 영묘와 유사하게 녹색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아파크 호자 영묘 기둥 장식

■ 대모스크(大禮拜寺)

북합단지 서쪽에 존재하는 대모스크는 신서 모스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모스크는 ‘야쿱 베그’(Yakub Beg, 1820년~1877년)에 의해 건설되었다. 대모스크는 U자형으로 건설되었다. 기도실은 돔이 있는 미흐랍을 축으로 동-서를 둘러싼 홍예가 있으며, 돔이 있는 아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도실 중앙에 미흐랍이 있으며 삼면은 세로로 네 개의 기둥으로 나뉜 열주랑이 있다. 이 열주랑 공간은 평천장으로 기도실의 돔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위구르 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 공간 중 하나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파크 호자 영묘 콤플렉스
- 다국어 표기 阿巴和加麻札(중국어), Apakh Khoja Mazar(위구르어), Апақ Хоҗа Мазар(위구르어), فاق خولجه مزار(위구르어)

● 멀티미디어 링크 아팍호자 영묘 복합단지 전체 구성도

http://www.ne.jp/asahi/arc/ind/6_china/xinjiang/afaqkhw_en.jpg

아팍호자 영묘 전면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d/Kashgar-apakh-hoja-d04.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ne.jp/asahi/arc/ind/6_china/xinjiang/uig_eng.htm

<https://archnet.org/sites/3966>

● 참고문헌(오프라인) Chang, Jing Qi. "Islamic Architecture in China", *The Changing Rural Habitat. Volume II: Background Papers*(ed: Brian Brace Taylor), Singapore: Concept Media, for the 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 1982, pp.71~74

Dazhang, Sun. *Ancient Chinese Architecture: Islamic Buildings*. New York: Springer-Verlag/Wien, 2003.

I E129 | 아프라시압(인물)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Afrasiab

‘아프라시압’은 페르시아 신화에 나오는 조로아스터 신앙의 적이자 이란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투란인들의 우두머리이다. 『아베스트』 경전에서 아프라시압은 ‘프란그라시안’으로 불리며 보루카시 호수 바닥에 가라앉은 제왕의 불(Khvarenah)을 차지하려고 물의 여신 ‘아르디비수라 아나히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아르디비수라 아나히타가 이를 거절했고, 아프라시압이 호수에 세번이나 들어가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그 외에도 『샤흐나메』 같은 후대의 전설에도 아프라시압이 등장한다. 그는 파산가의 아들이자 투라족의 시조인데, 계락을 써서 이란인의 조상인 농민 ‘에라드자’를 죽인다. 이 일로 그는 에라드자의 손자 ‘마누체흐르’의 손에 죽는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란과 투란의 전쟁이 시작된다. 아프라시압은 BC 10세기까지 이란-페르시아 신화나 전설에서 다양한 형상으로 묘사된다.

투르크,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크, 투르크멘 신화에 등장하는 아프라시압도 있다. 여기서 그는 이란 출신이지만 이웃들을 정복하기 위해 습격하는 투르크 부족의 우두머리로 나타난다. 아프라시압의 형상은 다른 투르크 신화의 주인공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지며 카라한 칸국과

셀주크 왕조의 시조가 되기도 한다. 여러 중세 자료에서 아프라시압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갖은 시도를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아프라시압이 높은 강철 벽으로 만들어진 요새를 세우면서 모든 출입구와 구멍을 메우고 강철 대들보에 인공 태양과 별, 달을 매달아 두었다는 전설도 있다. 여기서 아프라시압은 미와 힘의 여신인 아르드비수라 아나히타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불사의 육체를 구했지만, 어느 날 조명이 비치는 정원을 산책하다가 검은 피부의 사람 모습에, 무서운 얼굴을 한 저승사자를 보고 죽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프라시아프, 아프라시압
- 다국어 표기 Afrasiab(영어), افراسياب(아랍어), Афрасиаб(러시아어), Efrasiyab(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ороглы Х., Огузски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М., 1976, 90~95.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 1991, 129.

I E130 | 아프라시압(지명)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frasiyab

‘아프라시압’은 투란과 이란의 전설적인 영웅이자 유목민 왕이었다. 『샤나메(Shaname)』에 따르면 아프라시압은 이란과 투란의 영웅으로 가장 전설적으로 유명한 투란 왕이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사마르칸트를 부르던 옛 도시 지명도 ‘아프라시압’이다. 오늘날 아프라시압은 중국 문헌에서 ‘강국’(康國)이라고 기술된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북부에 있는 면적 219ha의 도성터를 지칭한다. 이 도성터는 1874년부터 단계적으로 발굴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발굴은 1958년 바실리 시시킨 조사대가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발굴을 통해 4중 성벽에 둘러싸인 고대도시 내부에 궁전, 사원, 주거지, 목욕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프라시압 벽화 속 고구려인(추정)
Source: <https://www.korea.net/upload/content/>

국내에 알려진 계기는 1965년 도로 개설을 위한 발굴조사 도중 이곳에서 발견된 아프라시압 궁전벽화 속에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인물 2명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아프라시압 궁전벽화는 ‘바르후만 왕’ 재위 시절인 7세기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 변 길이가 11m인 정사각형 공간에 그림을 그렸다. 발굴 당시 이미 상부와 천장은 무너진 상태였기에 벽화에는 바르후만 왕이 각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면과 사냥, 활쏘기, 뱃놀이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만 정작 서쪽 중앙에 있었다고 짐작되는 바르후만 왕은 보이지 않는다.

고구려 사신 추정 인물 2명은 서쪽 벽 오른쪽 끝에 있으며 새 깃털을 꽂아 만든 조우관(鳥羽冠)을 머리에 쓰고 고리 손잡이가 달린 칼인 환두대도(環頭大刀)를 허리에 찬 모습이다. 조우관을 쓴 사신의 모습은 6세기 중국 양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사절을 그린 ‘양직공도’(梁職貢圖)에도 등장하는데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인물의 모습과 동일해보인다. 벽화에 고구려인을 그린 과정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벽화가 1,400년 전 고대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교류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은 틀림없다. 이에 한국 동북아역사재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벽화를 디지털로 모사한 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하고, 아프라시압 박물관 안에 영상실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으며 문화재청은 우즈베키스탄 문화부와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2021년까지 아프라시압 박물관에 있는 궁전벽화 전시실과 상설전시실 관람 환경 개선 작업을 지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프라시아프, 아프라시압
- 다국어 표기 Afrosiyob(우즈베크어), افراسياب(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mBTQEf9alLk>
https://www.korea.net/upload/content/editImage/Afrosiab_Wall_Painting_NMK_Article_00.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tric.or.kr/portfolio/afrosiab-project/>
<https://en.unesco.org/silkroad/content/cultural-selection-afrosiab-paintings>
<https://www.chf.or.kr/cms/content/view/876>
<https://www.iranicaonline.org/articles/afrosiab-turanian-king>

- 참고문헌(오프라인) Baumer, C.. *History of Central Asia, The: 4-volume set*. Bloomsbury Publishing, 2018.

I E131 | 아프라시아말 게말마즈

- 시기 A.D. 1800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Efrasiyap Gemalmaz

‘아프라시아말 게말마즈’는 1937년 9월 8일 에르주름에서 태어났다. 에르주름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마친 그는 1957년 앙카라대학 ‘언어역사지리학부’에 입학해서 1959년까지 튀르크학을 공부했고, 1959년 에르주름 아타튀르크 대학에 새로 개교한 튀르키예어문학과에 재입학하여 1963년 졸업했다. 졸업 이후에는 아타튀르크 대학의 중앙도서관 부장과 동시에 대학 내 출판 책임자로 활동했으며 동시에 농업학부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1964년 그는 아타튀르크 대학 튀르키예어 문학과에서 튀르키예어 조교가 되었으며, 1966년부터 1968년까지 그는 프랑스 문학부 스트라스부르대학에서 튀르키예어 강사로 근무했다. 그리고 1973년 “「에르주름 지방의 방언(Erzurum İli Ağızları)」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 아타튀르크 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8년~1979년에는 프라트 대학(Firat University)에서 튀르키예 문학과에서 튀르키예어 관련 수업을 지도했다. 이후 1981년에 조교수로, 1984년에 튀르키예어문학과 부학과장으로 임명되었고, 1986년 부교수로 승진을 거쳐 1986년~1987년에는 학과장을 지냈다. 1989년에는 튀르키예 고등교육위원회(YÖK)로부터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1992년 아타튀르크 대학교 튀르크 연구소



아프라시아말 게말마즈
 Source: <https://efrasiyap.tripod.com/ozgemicis/>

장, 1993년에는 정교수로 임명되었다. 이후 1998년~2000년에는 아타튀르크 대학교 문학부 부학장 및 교무위원을 역임한 다음 2001년 은퇴했다. 학계에 있는 내내 그는 컴퓨터 언어와 자연어, 특히 튀르키예어를 연구, 분석하는 데 집중했으며 그의 연구 자료와 학술 논문들은 아타튀르크 대학교 문학연구소, 아타튀르크 투르크학 연구소 학술지 등의 저널에 게재되었다.

학술 활동과 관련된 작품으로는 「고대 투르크어의 첨가어(Eski Türkçenin Ekliği, 1971)」, 「에르주름 지방의 방언들(Erzurum İli Ağızları, 1978)」, 『현대 아제르바이잔어 텍스트 명문선집(Çağdaş Azeri Türkçesi Metinleri Antolojisi, 1986)』, 『고대 투르크어 텍스트 명문선집과 번역(Eski Türkçe (Köktürk-Uygur-Karahanlı Türkçeleri) Metinleri Antolojisi, 1986)』, 『언어학분야에서의 컴퓨터 사용(Dil Bilimi Alanında Bilgisayar Kullanımı, 1990)』, 『튀르키예어 사전의 역구문: 튀르키예어 사전 항목의 알파벳 역순(Türkçe Sözlük'ün Ters Dizimi: Türkçe(STT) Sözlük Ögelerinin Sondan Başa Alfabetik Dizimi, 1998)』, 『투르크어들의 공통적 측면과 경향(번역본, Türk Dillerinin Müşterek Tarafları ve Temayülleri, 1979)』, 『역사적 투르크 방언들(번역, Tarihi Türk Şiveleri Jean Deny'den, 1979)』, 『투르크멘어의 텍스트들(번역, Türkmençe Metinler, 1987)』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프라씨얍 게말마즈, 에프라시얍 게말마즈
- 연관 검색어 앙카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frasiyap.tripod.com/ozgecmis/ozgecmis.html>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biyografya.com/biyografi/3197>
- 참고문헌(오프라인) Alyılmaz, C.. “Prof. Dr. Efrasiyap Gemalmaz’ın 80. Yaşı Dolayısıyla”, *Uluslararası Türkçe Edebiyat Kültür Eğitim Dergisi*, 6(4), 2017, pp.1980~2011.

I E132 | 아하탄헬 크림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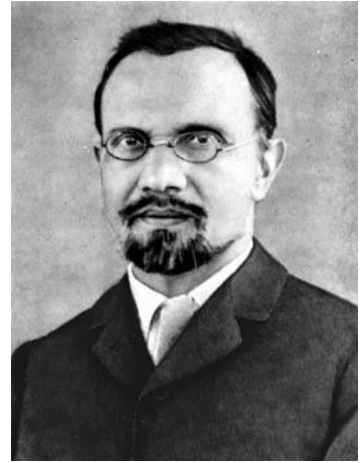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우크라이나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Ahatanhel Krymsky

‘아하탄헬 크림스키’는 현재 우크라이나 볼린(Volyn, 당시 러시아 제국)에서 벨라루시 혈통의 타타르인 아버지, 폴란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그의 성 ‘크림스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Krymsky’(우크라이나어: Кримський)는 “크림”을 의미하며, 자신을 크림 타타르인이라고 타타르인이라 칭하곤 했다.

3세에 읽고 쓰기를 배웠던 그는 5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에 의해 지역 학교에 입학하여 5년간(1876년~1881년) 공부했다. 이후 프로토 김나지움에서 3년(1881년~1884년), 키예브 김나지움에서 1년(1884~1885), 바울 갈라간 콜레지에서 4년(1885~1889)을 공부했다. 그리하여 그는 폴란드어,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튀르키예어 등 16개의 언어에 능통했다.

1889년~1892년에 그는 모스크바에 위치한 라자레프 동양어 연구소에서 공부했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및 튀르키예어문학이었다. 1892년~1896년에는 언어학자(Vsevolod Miller), 슬라브 학자(Roman Brandt), 인도유럽어 전문가(Philip Fortunatov)의 지도 하에 모스크바 대학 역사 문헌학부에서 슬라브학 전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으며, 1896년에는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슬라브어 문헌학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라자레프 연구소에서 2년 장학금을 받아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을 여행했으며, 1898년 귀국 후 라자레프 연구소에서 셈어를 가르쳤다. 또한 러시아어에서 아랍어로, 아랍어에서 러시아어로의 번역학 수업과 아랍 문학사에 대한 강의도 맡았다.

라자레프 동양어 연구소에서 강의하는 동안 그는 중동의 문헌학 및 역사, 코란, 이슬람, 아랍, 페르시아인 및 튀르키예인의 역사 문학 과정에 대한 학술 교과서 전체를 집필하고 출판했



아하탄헬 크림스키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으며, 투르크 민족의 언어 및 문학에 대한 모노그래프, 크림 타타르인에 대한 기사 모음집 등을 편집했다. 그리고 1918년에 키예프로 이주하여 우크라이나 과학 아카데미에서 일을 시작해 역사 및 문헌학, 사전위원회, 역사위원회, 변증법 및 철자법 위원회를 이끌며 우크라이나 동양학 창시자로 거듭났다.

1918년~1921년에 그는 키예프 대학교에서 세계사 교수로 재직했다. 동시에 1925년 8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 과학 아카데미(Ukrainian Academy of Sciences)의 역사 및 문학 부서의 편집자로 근무했다. 1931년의 우크라이나 과학 아카데미는 크림스키의 지도 하에 『튀르키예의 역사』, 『튀르키예의 역사와 문학』, 『투르크인들의 역사 소개』, 『투르크, 그들의 언어』를 출판했다. 그리고 1930년대 다행히 숙청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으나, 이후 10년 동안 학술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때 그의 작품들은 모두 금서에 포함되었다. 1939년 그는 복권되었으나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1941년 7월 20일 “반소비에트 민족주의 활동” 혐의로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감옥에서 수감 도중 7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공식적으로 그는 교도소 수감 중 자연사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고문이라는 설도 함께 전해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하탄헬 크림스키

● 다국어 표기 Кримський Агатангел Юхимович(우크라이나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b/Agatangel_Krymskyi.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гатангел Кримський — учений, письменник, українець. Збірник наукових праць. — Луцьк: Волинська книга, 2007. — 116 с.

Бурій В. Наш земляк: [Іван Олексійович Григорович] про геніального Агатангела Кримського / Валерій Бурій // Місто робітниче: громадсько-політична газета Ватутінської громади. — 2021. — 19 лютого.

Бурій В. Агатангел Кримський // Катеринопільський вісник. — («Незабутні імена»). — 2001. — 14 лютого. — С. 2.

I E133 | 아흐마트 더니쉬

● 시기 AD.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지식인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hmad Donish

‘아흐마트 더니쉬’의 본명은 ‘아흐마트 더니쉬 마흐둠 이븐 너시르’(Ahmad Donish Maxdum ibn Nosir), 예명은 칼라(Kalla)이며 저술 활동은 타직어로 했다. 1826년 무다리스 가문에서 태어난 더니쉬는 어머니로부터 초등교육을 받은 후 마드라사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문학, 역사, 철학, 의학, 수학 및 천문학을 독학했고 서예, 회화, 조각과 같은 예술 분야를 비롯하여 점성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궁정 건축가의 제자로 들어가기도 했고 당시 부하라의 통치자였던 ‘아미르 나스룰라흐’(Nasrullah, 재위: 1806년~1860년) 밑에서 화가이자 서예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1857년, 1869년, 1873년에 부하라 에미르의 대사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기도 했는데 그는 이 여정을 바탕으로 『귀중한 사건들(Nodir voqealar)』과 같은 작품을 저술했다.

그 여정에서 그는 부하라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행기 이외에도 『부하라 아미르 전기(Tarjimai ahvoli amironi Buxoro)』를 저술하며 당시 부하라의 개혁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개혁 의지는 이 작품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어 1870년~1873년 개혁과 관련한 『문학과 사회의 질서에 관한 논문(Rasolai dar nazmi tamaddun va taovun)』이라는 글을 집필했다. 그는 재무 구조 관련 개편, 임금과 공무원의 윤리 기준에 관하여 논했는데 국가를 이루는 주요 5개의 요소가 강력한 통치자, 정직한 공무원, 유능한 의사, 교육받은 인구와 충분한 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학 및 기술 교육을 마드라사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아미르와 종교 법정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어 1874년 더니쉬는 궁에서 쫓겨났고, 아미르가 사망한 다음 다시 부하라로 돌아왔다.

그는 부하라로 귀향 후 마드라사에서 교사직을 수행하며 저술 활동에 집중한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 자연 현상, 지리학, 우주의 기원과 일식, 지진 등에 관련한 책을 집필하며 유럽 과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접 그린 세밀화에는 여성교육에 관한 이념을 담아냄과 동시에 당시 시대상을 풍자하기도 했다. 1897년 부하라에서 사망할 때까지도 꾸준히 다양한 방면에

서 저술 활동을 이어갔으며 국가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의 마지막이자 미완성 작품인 『역사 논문(Risolai tarixi)』에서도 정권의 부패에 대한 비판 의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작품과 생애 전체가 19세기 당시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변화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흐마드 다네스, 아마디 도니쉬
- 다국어 표기 Ahmad Danes Makdum(영어), Ahmad Donish(우즈베크어), Аҳмади Дониш(타지크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danes-donis-ahmad-makdum-b>
- 참고문헌(오프라인) Мўминов И., *Ўзбекистон ижтимоий-фалсафий тафаккури тарихидан*, Тошкент, 1964.

I E134 | 아흐마트 알 파르거니이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과학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hmad al-Fargʻoniy

파르거니이(우즈베크어 표기: Fargʻoniy, 영문 표기: Farghani, 파르가니)가 활동한 시기는 트란스옥시아나 지역과 호라산, 호라즘 출신의 많은 사상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펼쳤던 때이다. 파르거니이는 811년경 페르가나에서 메르브로 이주한다. 당시 메르브는 중앙아시아에서 문화와 과학의 가장 큰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앞서 언급한 지역 출신 학자들이 모이던 곳이었다.

마침 당시 메르브에 머물렀던 압바스 7대 칼리프 ‘알 마문’(al- Maʻmun, 재위: 813년~833년)은 바그다드로 이주하면서 메르브의 학자들을 데려가게 되었는데 그 일행에 합류했던 파르거니이는 바그다드의 천문대에서 한동안 일을 하다 알 마문의 명으로 다마슈크의 천문대에서 지즈(Zij: 태양, 달, 별, 및 행성의 위치를 천문학적으로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매개 변수를 정리한 천문학 표) 제작을 총괄하게 된다.

파르거니이는 그리스 천문학 서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랍어 과학 용어 연구 및 용어 정의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천문학을 위한 아랍어 기초 교육 과정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

여했다. 또한, 천문 기구를 개발하여 832년~833년에 신자르의 북시리아 사막, 팔미라와 (지금의 시리아 기준) 라카까지의 자오선 길이를 측정하는 데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압바스조의 칼리파 ‘알무타와킬’(Abul Fazl Ja’far al - Mutavakkil, 재위: 847년~861년)이 파르거니이이를 나일강 범위 측정 시설 건설을 위해 이집트로 보낸다. 이 당시 만든 측정기 미크야스(Miqyas)는 아직까지도 보존되어 있는데 이 작업을 마친 뒤 파르거니이이가 푸스타트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생전에 파르거니이이가 남긴 논문과 저술은 단지 중앙아시아나 아랍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천문학 기초에 관한 책(또는 천체 운동과 별 과학에 관한 간단한 설명집: Kitab al- harokot as- samoviya va javomi’ ilm an- nujum)』은 12세기에 라틴어로 번역되어 수 세기 동안 유럽 대학의 천문학 기본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특히 17세기에 다시 번역된 판본이 큰 명성을 얻었는데 이 책에는 아랍, 시리아, 로마, 이란 및 이집트 달력, 우주에서의 지구의 위치와 움직임, 일식의 예측, 유명한 국가와 도시, 지구 측정, 태양, 달, 별 및 행성의 위치와 운동, 별과 달의 상태, 달의 위상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더불어 프톨레마이오스의 저술과 그에 대한 반론이 함께 실려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파르거니이이 사후 그에 대한 연구가 독립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1998년에 열린 ‘파르거니이이 탄생 1,20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페르가나에 그의 이름을 딴 공원과 동상을 건설하는가 하면, 그와 관련한 학술행사와 관련 서적 출판 및 연극, 영화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달에 있는 커다란 분화구 하나를 그를 기념하는 의미로 ‘아흐마트 알 파르거니이이’로 명명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프라가누스, 파르가니

● **다국어 표기** Fergāni(튀르키예어), Al-Farghani(영어), Ahmad al-Farg'oniy(우즈베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Ахмедов, А.. *Аҳмад ал-Фарғоний*, Тошкент, 1998.

Буюк сиймолар, *алломалар (Ўрта Осиёлик машхур мутафаккир ва донишмандлар)*, 1-китоб, Тошкент, 1995.

Кары-Ниязов, Т. Н.. *Астрономическая школа Улугбека*, М.-Л., 1950.

Носиров, А., Ҳикматуллаев Х., *Аҳмад Фарғоний*, Тошкент, 1966.

Kaya, Mahmut. and Sami Şelhub, “FERGĀNÎ”,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2, İstanbul: 1995, pp.377~378.

I E135 | 아흐메드 1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Ahmed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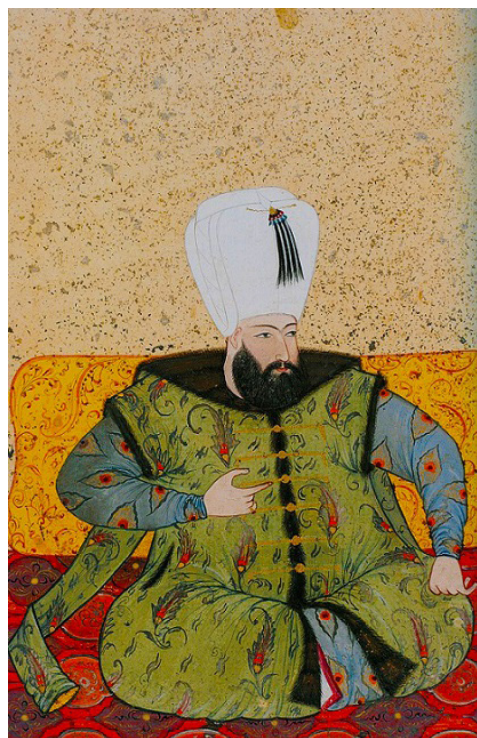
‘아흐메드 1세’(1590년~1617년, 재위: 1603년~1617년)는 메흐메드 3세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가 서(西) 아나톨리아의 마니사에서 지방관으로 근무할 때 태어났다. 그 뒤 1595년 아버지가 즉위하면서 톱카프 궁전으로 이사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같은 곳에서 즉위했다. (그는 톱카프 궁에 계속 거주하다가 즉위한 최초의 술탄이며, 아버지 메흐메드 3세는 지방관 경력이 있는 마지막 술탄이었다.)

‘메흐메드 3세’는 1603년 큰 아들 ‘마흐무드’를 왕위 찬탈을 시도했다는 죄목으로 처형했는데 같은 해 사망했기에 그 사건으로 왕위 계승 후보 중 남은 왕자는 아흐메드와 그의 동생 무스타파뿐이었다. 메흐메드 3세가 사망했을 때부터 이미 그의 즉위는 대재상을 비롯한 고위관료들과의 논의 없이 궁정의 한 파벌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 이는 이전까지의 즉위 형태와 매우 다른 변화였는데 이전에는 여러 지방관 경력자인 왕자들이 큰 지리적 범위에서 경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술탄의 즉위를 결정하는 것은 좁은 궁정 내 파벌들 간의 경쟁과 협상에 의한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아흐메드 1세는 14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후 형제살해가 당연시 되던 종전의 오스만 제국의 관습과는 반대로 동생 무스타파를 죽이지 않고 궁 안에 유폐시켜 두었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흐메드 1세가 즉위 당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하지만 아흐메드 1세는 아들을 여럿 낳은 후에도 무스타파를 처형하지 않고 낳았으며, 이는 아흐메드 1세가 사망했을 때 동생과 큰아들 모두에게 왕위계승 자격이 있다는 주장과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아흐메드 1세는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 그래서 통치와 행정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만큼 주변의 측근들에 많이 의존했다. 특히 즉위 초기의 술탄 ‘모후 한단’과 그를 어린 시절부터 가르쳤던 스승 ‘무스타파 에펜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에는 아흐메드 1세 재위 기간 내내 궁정의 환관장을 맡았던 ‘엘 하즈 무스타파 아아’가 최측근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술탄이 궁 안에 은거하는 생활 패턴이 점점 더 자리 잡자 어느 순간부터 청원

과 정보는 모두 궁 안의 술탄 측근들이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부, 권력, 연줄을 술탄의 이름으로 분배하는 권력을 누렸다.

아흐메드 1세의 시대는 부왕 메흐메드 3세 시대에 이어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비록 헝가리 전쟁은 합스부르크와의 지트바토록 조약으로 큰 영토 손실 없이 마무리되었으나, 사파비 샤 압바스의 이란과의 전쟁은 간헐적으로 지속되었으며, 1690년대 중엽에 시작된 젤랄리 반란까지 대단한 기세로 아나톨리아와 시리아의 여러 지역에서 세를 떨치다가 1610년경에 이르러서야 ‘쿠유주 무라드 파샤’가 이끄는 중앙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대외 상황 속에서도 아흐메드 1세는 1609년~1616년에 걸쳐 지금 이스탄불에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는 거대한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를 지었다. 전쟁터에서 군사를 성공적으로 지휘한 경험이 없는 데다 대외 전쟁에서의 승전이 없이 큰 반란을 진압한 것을 빌미로 자신의 모스크를 지은 아흐메드 1세는 변화한 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만하다.



레브니가 그린 아흐메드 1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흐멧 1세, 아흐메트 1세
- 다국어 표기 I. Ahmed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메흐메드 3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3/30/Sultan_Ahmed_I.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örekçi, Günhan. "Ahmed 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edited by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Facts on File, 2008, pp.22~24.
- İlgürel, Mücteba. "Ahmed 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 İstanbul: TDV, 1989, pp.30~33.

I E136 | 아흐메드 2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Ahmed II



콘스탄틴 카프다올르가 그린 아흐메드 2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아흐메드 2세’(1643년~1695년, 재위: 1691년~1695년)는 이브라힘 1세의 아들이자, 메흐메드 4세와 쉴레이만 1세의 동생이며, 쉴레이만 1세가 죽자 에디르네에서 왕위를 계승했다. 전임자 쉴레이만 1세와 마찬가지로 하렘에 유폐되어 오랜 세월을 독신으로 보낸 후 젊지 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에 짧은 재위 기간 후 사망했다.

짧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마침 합스부르크와의 전쟁과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던 만 큼 전쟁을 조직하고 전비를 조달하는 데 필요한 종신 세금 청부계약(말리카네)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1695년). 당시 쉴레이만 1세 시대부터 대재상직에 있던 쿠피르뤼 가문 출신의 ‘파즐 무스타파 파샤’가 많은 개혁을 주도했고,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탁월한 그에게 아흐메드 2세는 즉위 초부터 크게 의존했다. 그러

나 즉위 후 두 달만인 1691년 8월, 파즐 무스타파 파샤가 슬란카멘에서 크게 패배하고 전사하면서 오스만 제국 전체에 큰 타격이 되었다. 그 후 합스부르크를 상대로 패전이 이어졌고, 1692년에는 루마니아의 바라드(Varad, ‘오라데아’라고도 함)를 점령당해 빼앗겼고, 1695년 1월에는 줄러(Gyula) 요새도 내주게 되었다. 이로써 헝가리에 있던 오스만 영토 중에서 티서 강 동쪽, 무레슈 강 남쪽의 티미쇼아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급기야 1695년 2월에 에디르네에서 아흐메드 2세가 사망하고 말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흐멧 2세, 아흐메트 2세
- 다국어 표기 II.Ahme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브라힘 1세, 메흐메드 4세, 쉴레이만 1세, 코프룰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7/74/Ahmet_II.jpg/800px-Ahmet_II.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goston, Gabor. "Ahmed I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edited by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Facts on File, 2008, p.24.
- İlgürel, "Mücteba. Ahmed I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 İstanbul: TDV, 1989, pp.33~34.

I E137 | 아흐메드 3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Ahmed III

‘아흐메드 3세’(1673년~1736년, 재위: 1703년~1730년)는 ‘메흐메드 4세’와 ‘라비아 쿨누쉬’의 아들로, ‘무스타파 2세’의 동복동생이다. 무스타파 2세가 에디르네 사건(1703년)으로 폐위당한 후 즉위했으며, 반란자들의 요구대로 에디르네에 오래 자리잡았던 술탄의 궁정을 다시 이스탄불로 옮긴 후 권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정작 그 의견을 냈던 반란자들은 곧 숙청했다.

외교의 측면에서 그는 카를로비츠 조약의 상대국과 가급적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1703년~1714년)이나 대북방전쟁(1700년~1721년)의 기회를 틈타 실지 회복을 도모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스웨덴의 ‘카를 12세’가 러시아와의 폴타바 전투에서 패배하고 오스만 영내로 도망쳐 오는 일이 벌어져 러시아군이 그를 추격하기 위해 오스만 영토를 침범하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1711년 프루트 전투에서 ‘표트르 대제’가 오스만군에게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러시아는 비교적 가벼운 손실, 즉 아작(아조프)의 양도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오스만 제국은 1715년 육군과 해군의 협동작전을 통해 베네치아로부터 모레아 전체를 되찾았다.



레브니가 그린 아흐메드 3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하지만 이러한 연승 소식에 경각심을 느낀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가 오스만 제국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평화는 깨지고 페트로바라딘에서 오스만군이 패배하면서 ‘베오그라드를 넘겨준 파사로비츠 조약’(1718년)이 체결되었다. 조약에 의해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는 바나트를 획득했다. 이때의 조약은 카를로비츠 조약 당시의 영토 손실보다 한층 더 심한 영토 손실이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은 더더욱 평화 외교 노선을 추구했고, 유럽과 이란에서 모두 외국 문물을 수입하여 엘리트 문화의 세련된 발전을 이루어갔다.

아흐메드 3세의 재위 기간 중에서 후반기를 ‘툴립의 시대’(Lale Devri, 1718년~1730년)라고 흔히 부르는데, 술탄과 대재상 ‘이브라힘 파샤’가 이스탄불 엘리트의 사치스러운 문화 향유의 모델이 됨으로써 그들을 지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툴립 재배, 저택 건축, 축제와 연회 등 경쟁적으로 과시적 소비 행태를 보였고, 왕실의 아기 탄생, 왕자의 할례, 공주의 약혼과 결혼, 군사적 승리 등은 모두 성대한 축제의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이때의 오스만 제국은 ‘극장 국가’라고까지 불렸다. 당시의 유흥과 소비문화, 여성들의 외출, 풍기 문란 등의 시대상은 그 자체로 상당히 놀라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트의 사치와 대재상 이브라힘 파샤의 족벌주의는 이란 원정의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한 후 원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상공인들과 하층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기에 결국 예니체리를 포함하는 대규모 민중 반란(파트로나 할릴 반란, 1730년)이 일어나 대재상 이브라힘이 처형되고 아흐메드 3세도 폐위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흐멧 3세, 아흐메트 3세

- 다국어 표기 III.Ahme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툴립시대, 메흐메드 4세, 무스타파 2세, 카를로비츠 조약, 파사로비츠 조약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5/5c/Levni_002_detail.jpg/393px-Levni_002_detail.jpg?20070923101036
- 참고문헌(오프라인) Şakul, Kahraman. "Ahmed II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edited by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Facts on File, 2008, pp.24~26.
Aktepe, M. Münir. "Ahmed II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 İstanbul: TDV, 1989, pp.34~38.

I E138 | 아흐메드 낙시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hmed Nakşî

‘아흐메드 낙시’는 오스만 제국에서 16세기 말~17세기 초에 활동했던 세밀화가이다. 이스탄불에서 자란 이스탄불에서 자란 그는 쉴레이마니이에 모스크에서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무악 키티(muvakkiti)로 일하기도 했는데, 시인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밀화가로서 아흐메드 낙시는 사실적인 묘사를 바탕으로 3/4 측면 초상화와 뒷모습 초상화를 그렸다. 배경으로는 창문이나 배경을 보여주는 틀을 이용하여 구성에 깊이감을 더했으며, 건축물 묘사에 있어서는 삼차원의 흰색으로 칠해 16세기 동시대의 다른 세밀화가와 다른 특징을 선보였다. 그가 그린 작품이 담긴 필사본에는 『산 툴립의 번역본(Tercüme-i Şakayık-ı Numaniye)』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 소장, Topkapı Sarayı Müzesi Hazine, .1263], 『나디리의 샤희나메(Şahname-i Nadiri)』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 소장, Topkapı Sarayı Müzesi Hazine, 1124] 등이 있다.

특히 『산 툴립의 번역본』에서는 오스만 1세(I.Osman, 재위: 1299년~1326년)부터 술탄 쉴레이만 1(I. Süleyman, 재위: 1520년~1566년)에 이르는 시대의 180명의 종교인과 학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49명의 인물화를 아흐메드 낙시가 그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흐멧 낙쉬, 아흐메드 낙쉬이

● 다국어 표기 Ahmed Nakşî(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Başkan, Seyfi. *Başlangıcından Cumhuriyet Dönemine Kadar Türklerde Resim*, Ankara:Atatürk Kültür Merkezi, 2009.

Mahir, Banu. *Osmanlı Minyatür Sanatı*, İstanbul: Kabalcı Yayınevi, 2005.

Mahir, Banu. "Osmanlı Padişah Porteciliğinde Ahmed Nakşî" *VI. Ortaçağ ve Türk Dönemi Kazı Sonuçları ve Sanat Tarihi Sempozyumu(8-10 Nisan 2002 Bildiriler)*, Kayseri, 2003, pp.563~572.

I E139 | 아흐메드 웨피크 파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Ahmed Vefik Paşa



아흐메드 웨피크 파샤

Source:<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튀르키예 공화국의 정치가이자, 투르크 학자, 연극 문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아흐메드 웨피크 파샤’는 오스만 제국의 30대 술탄이었던 마흐무드 2세 집권 당시 태어났다. 그의 생년에 관련된 견해는 1813년에서 1823년까지 다양하지만, 이후 그의 손자가 전한 정보를 통해 추론한 결과 (그의 취학 연도, 취임 일자와, 사망 당시 70세가 훨씬 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823년 보다는 1813년이 타당하다고 추정되고 있지만) 공식 문서에는 1823년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탄지마트 시대에 ‘언어의 단 순성’, ‘민족 언어, 고유의 언어에 대하여’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투르크 언어 분야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당시 민중들이 사용하는 오스만 투르크어가 투르크어의 한 분파, 방언의 일종이라 주장하며, 최초로 투르크어 중 오스만 투르크어를 따로 분류했다. 언어에 대한 그의 관심은 1876년에 출판된 『투르크인의 언어

(Lehçe-i Osmani)』라는 책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책은 이후 많은 투르크 학자들의 연구에 토대를 제공했다.

그는 1877년 오스만 제국 최초로 소집된 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1878년과 1882년, 두 차례 오스만 제국의 총리로 임명된다. 그리고 1879년 튀르키예의 부르사의 총독이 되어 공중위생과 교육, 농업 분야에 대한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부르사에서 총독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극장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는 이스탄불 이후 아나톨리아반도에 최초로 세워진 극장이었다. 사망할 때까지 이스탄불의 루멜리히사르 인근 그의 자택에서 투르크학 연구에 매진한 그는 1891년 4월 2일 생을 마감했고, 루멜리 히사르의 카야라르 묘역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흐멧 베픽 파샤, 아흐멧 베피크 파샤, 아흐메트 베픽 파샤
- 다국어 표기 أحمد و فېق باشا(아랍어), Ахмед Вефик-паша(러시아어), 艾哈邁德·韋菲克帕夏(중국어), Ahmed Vefik Pashá(스페인어)
- 연관 검색어 레흐체이 오스마니, 오스만 투르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0/Ahmed_Vefik_Pa%C5%9Fa.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kün, Ö.F., "Ahmed Vefik Paş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 ss.143~157, İstanbul: Türkiye Diyanet Vakfı, 1989.

I E140 | 아흐메드 제브데트 파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정치가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Ahmed Cevdet Paşa

‘아흐메드 제브데트 파샤’(1823년~1895년)는 오스만 제국 말기의 정치가이자 관료, 법률가, 역사가였다. 그는 불가리아 지역의 로베치에서 태어났으며 1839년 이스탄불로 상경하여 문학, 수학,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수피즘을 공부했다. 1844년 프레메디의 카디가 됨으로써 관직 생활을 시작했고 1850년에 교육 개혁 위원회의 위원, 1845년에는 오스만 학술 협회(Encümen-i Danış)의 회원이 되었다. 이후 1853년에 1774년부터 1826년까지의 오스만 역사를 저술하도록



아흐메드 제브데트 파샤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위촉받았는데 그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이 인정되어 1855년 역사 편수관(vak'anuvîs)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후 시리아 알레포 지역의 총독으로 2년간 봉직하여 1868년에는 법무 장관이 되어 근대적 법정을 제도화하고 관련 법들을 입법하는 데도 공헌했다.

예컨대 그는 하나피 법학파의 법적 견해를 주로 반영하고 다른 법학파의 견해도 일부 반영하여 만든 오스만 제국의 민법전 '메젤레'(Mecelle)를 기초하여 입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뒤로도 1872년 자문기구이자 사법기관이었던 국가 평의회(Şura-yı Devlet, Council of State) 의원이 되는가 하면 1873년에는 와크프 부처의 장관이면서 동시에 교육부 장관직까지 맡았다. 그는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 도중 교과서 집필에

도 직접 참여했으며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사법 관련 기관들의 건립에 간여했으니, 그도 교수진에 참여했던 법학전문학교의 설립(1880년)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봉직했던 관직은 고등 개혁 위원회(Mecalis-i Aliye)의 위원직이었다.

이처럼 그는 많은 관직을 역임했으나 그의 문화적 정치적 공헌은 관직너머에서도 꾸준히 이뤄졌다. 그는 또한 탁월한 언어학자, 역사학자, 법률가, 교육자로서 활동하며 튀르키예어를 쉽게 만들고 과학의 공부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가급적 단순한 튀르키예어로 글을 썼다. 그리고 역사가로서 오스만 제국의 고전적인 역사 서술에 새로운 논리와 방법론, 분석적 스타일을 가미했다. 그의 대표적인 역사 저술로는 『제브데트의 역사서(Tarih-i Cevdet)』와 『크림 및 캅카스 소사(小史, Kırım ve Kafkas Tarihçesi)』가 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탄지마트 시대의 법률가이자 위정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는 오스만 민법, 형법, 토지법의 제정에 참여했으며, 새로 만들어진 법전과 법령집을 계속 덧붙이고 폐지된 것을 삭제하는 일종의 통합적인 법률 전서였던 뉘스투르(düstür)를 1863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다.

아흐메드 제브데트 파샤는 서양화와 근대화를 조심스럽게 추진하자는 온건한 개혁가였고,

전통주의적, 보수주의적 개혁가들과 서양화 정책을 옹호하는 개혁가들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고자 했다. 그는 근대화 과정 가운데서도 칼리프제 혹은 술탄제 같은 전통적인 통치제도와 오스만 제국의 정치적 통일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광범위한 영향력과 오랜 공무 수행을 통해 19세기 오스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정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힐 만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흐메드 제브뎃 파샤
- 다국어 표기 Ahmed cevdet paşa(튀르키예어), Əhməd Cövdət paşa(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카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e/Ahmed_Cevdet_Pasha.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Halaçoğlu, Yusuf ve Mehmed Akif Aydın, “Cevdet Paşa.” *TDV İslam Ansiklopedisi*; Vol. 7, 1993, pp.443~450.
- 참고문헌(온라인) Çelik, Yüksel. “Ahmed Cevdet Pasha.” *T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edited by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Facts on File, 2008, pp.26~27.

I E141 | 아흐메드 파키흐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Ahmed Fakih

‘아흐메드 파키흐’는 18세기 아나톨리아반도의 수피파 시인이다. 그의 출생연도와 출생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19세기까지 아흐메드 파키흐와 동명이인이 여럿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파키흐의 삶에 대한 정보는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다. 그간 아흐메드 파키흐의 대표 저서로 알려진 『차흐나메(Çarhnâme)』, 『키타부 예브사피 메샤지뒤쉬 세리페(Kitâbu Evsâfı Mesâcidî 'ş-Şerife)』는 수많은 아흐메드 파키흐 중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없어서 학자들 사이에서 현재까지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아나톨리아에서 ‘오구즈-투르크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호칭했다. 일설에는 코니아에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러한 정보 역시 메블레비(Mevlevi) 또는 벅타슈

(Bektashi)의 출처에 근거한다. 그는 메블라나의 아버지 ‘바하데딘 벨레드’(Bahaeddin Veled)에게서 피크흐(fiqh)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순례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두 달간 머물면서 『키타부 에브사피 메사지뒤쉬 세리페(Kitâbu Evsâfî Mesâcidî ‘ş-Şerife)』를 집필했다. 그의 무덤도 코니아에 있다.

아흐메트 파키흐의 작품 『차흐나메(Çarhnâme)』는 14세기의 가장 중요한 언어 텍스트 중 하나이다. 100쌍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유일한 사본은 베이아지드 도서관에서 보관 중이다. 아흐메드 파키흐의 대표 저서인 『키타부 에브사피 메사지뒤쉬 세리페(Kitabu Evsafi Mesâcidü’ş-Şerife)』는 런던 대영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흐메트 파키흐
- 연관 검색어 코니아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ahmed-fakih>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05.

I E142 | 아흐메드 하심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Ahmed Haşim

아흐메드 하심(Ahmed Haşim)은 1887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태어났다. 친가 집안 식구 대부분이 학자와 문학가로 성공한 올라마(이슬람의 신학자와 법학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였고, 외가는 보좌관 가문(Kâhyazâdeler)이었다. 양가 집안에는 주석가, 이슬람 법학자, 종교 지도자가 여럿이었다. 하심의 아버지가 아랍 지역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하심은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옮겨가며 교육을 받았다. 하심이 7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아버지를 따라 이스탄불로 왔다. 1896년 셰흐자데바쉬은다 마을에 있는 누무네이 테라키 맥테비(Numûne-i Terakkî Mektebi; 현재의 이스탄불 남자 고등학교)에서 일 년 동안 튀르키예어를 배웠고, 1987년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에 기숙생으로 입학했다. 그의 친구들은 “하심은 짓궂

은 학생이었다. 갈라타사라이의 정원에서 뛰어놀다가 가끔은 친구들을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 화내며 싸우기도 했다. 천성적으로 활달한 아이였다”고 그를 기억했다.

그는 190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담배공사에 입사했고, 동시에 법대(Mekteb-i Hukuk)를 다녔다. 그러다 법 공부를 그만두고 이스미르로 가서 이스미르 술탄니시(현재의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와 문학을 가르쳤다(1910년~1914년). 이후에는 재정부에서 번역 업무를 맡았다. 아흐메드 하심은 1차 세계 대전 때에는 군 복무를 하면서 아나톨리아 각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는 한동안 의식(衣食) 지원센터(İâşe Nezâreti)와 오스만 공공부채 관리국에서 근무했다(1922년~1924년). 그 후에는 예술학교(Sanâyi-i Nefîse Mektebi)에서 신화학 강의를 했고, 정치대학(Mülkiye Mektebi)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하심의 첫 번째 시 「연인의 초상(Hayal-i Aşkım)」은 1901년 3월 7일 당시 발행되던 <문예지(Mecmua-i Edebiye)>에 실렸다.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에는 튀르키예 문학사에 매우 중요한 두 인물이 있었다. 바로 테브피크 피크레트(Tevfik Fikret)과 아흐메드 히크메트 뮈프튀오울루(Ahmed Hikmet Müftüoğlu)였다. 운이 좋게도 하심은 그 두 사람의 제자가 됐다. 그의 시적인 재능을 발견한 것은 문학교사인 아흐메드 히크메트 뮈프튀오울루였다. 하심이 청년 시절에 썼던 시는 간행물 <문예지(Mecmua-i Edebiye)>, <무사베르 테라키(Musavver Terakki)>, <아쉬얀(Aşîyan)>, <잘레(Jale)>, <무사베르 무히트(Musavver Muhit)>, <세르베티 뤼눈(Servet-i Fünun)>, <그림 담긴 책(Resimli Kitap)>에 실렸다. 아흐메드 하심은 갈라타사라이 고교에서 보냈던 학창 시절 프랑스와 벨기에의 상징주의를 통해 서양의 미학과 시학(詩學)의 기본을 다졌다.

그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이번에는 이스탄불에서 발행되는 신문 <저녁(Akşam)>에 에세이와 논평 그리고 연대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신문에 쓴 기고문들을 모아 『구라바하네 이 락라칸(Gurâbahâne-i Laklakan)』을 출간했다. 1921년에는 잡지 <예배당(Dergâh)>에 실



AHMED HAŞİM

GÖL SAATLERİ

Hazırlayan: Dr. Sabahattin ÇAĞIN

『호수의 시간(Göl Saatleri)』 표지
 Soruce: <https://m.media-amazon.com>

은 시의 일부를 모아 『호수의 시간(Göl Saatleri)』이라는 시집을 발간했고, 1926년에는 <그림 담긴 책>, <예배당>, <신(新) 문예지(Yeni Mecmua)>에 실은 시를 묶어 시집 『피알레(Piyale)』를 펴냈다. 이때 당시는 신문 <노력(Ikdam)>의 에세이 작가를 겸하고 있었다.

하심은 튀르키예 문단 사정에 무관심한 시인이었다. 한참 명성을 떨치던 시절에도 혼란스러운 튀르키예 사회에 대해 다른 시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기 시작하자 하심은 더더욱 언행을 조심했다. 그리고 그는 종교 문제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데뷔 초기에 「신은 위대하시다(Allahü ekber)」라는 시에서 종교, 「자유의 요정(Perî-i Hürriyet)」이라는 시에서 사상 그리고 「국기(Bayrak)」라는 시에서 민족을 주제로 세 편의 시를 집필했다. 그러나 그는 이 시 세 편만큼은 살아생전에 발표하지 않았다.

오카이(Okay)는 아흐메드 하심의 상징주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는 상징주의를 신비주의로 접근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심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상징주의는 형상과 물질을 묘사하는 사실주의가 아니며, 문학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고양한다. 시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혼’과 ‘세속적인 수피(lâdinî mutasavvıflar)’가 되며, ‘신성한’ 변화를 통해 시어(詩語)를 생활언어로 만든다. 그래서 이러한 시(詩)를 통해 종교가 아니어도 깊은 사색과 성찰을 할 수 있다. 시를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심이 쓴 시 「길(Yollar)」이 이슬람 사원을 주제로 삼은 것도 이러한 그의 세계관의 산물이다.”

하심의 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수식어는 인상주의이다. 보통은 외부세계를 관찰하지만, 하심은 내면을 성찰한다. 자신이 느끼는 기분과 모든 감정 그리고 떠오르는 연상을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한다. 하심은 풍부한 상상력의 소유자였으며, 튀르키예에서 가장 유명한 인상파 시인이다.

1924년 오스만 공공부채관리국 지원으로 프랑스에 다녀온 아흐메드 하심은 파리에서도 작품활동을 지속했다. 하지만 1928년 두 번째 파리 방문은 치료를 위해서였다. 한번 더 치료를 위해 프랑크푸르트로 떠났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1933년 6월 4일 아흐메드 하심은 카드코이에 있는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고, 에옴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흐멧 하심

● 다국어 표기 AHMET HASIM(영어), Ahmed Haşim(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이즈미르, 세르베티 튀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8yhn>

● 참고문헌(오프라인) Ayvazoğlu Beşir, *Ömrüm Benim Bir Ateşti Ahmet Haşim'in Hayatı, Sanatı, Estetiği, Dramı*, Kapı Yayınları, 3. Baskı, İstanbul, 2006.

Bezirci Asım, *Ahmet Haşim*, Gözlem Yayınları, İstanbul, 1979.

Hisar Abdülhak Şinasi, *Ahmed Haşim, Şiiri ve Hayatı*, Hilmi Kitabevi Yayınları, İstanbul, 1963.

Işık İhsan, *Yazarlar Sözlüğü*, Risale Yayınları, Ankara,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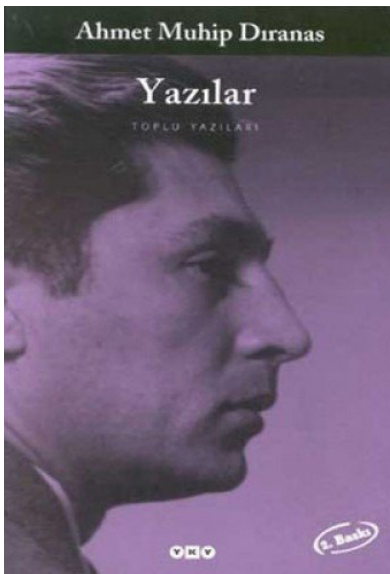
Okay O., "Ahmed Haşim'in Şiirlerinin Sembolizm Açısından Yorumu", *İstanbul Üniversitesi Edebiyat Fakültesi Türk Dili ve Edebiyatı Dergisi*, Cilt: 22, Temmuz, 2012.

I E143 | 아흐메트 무히프 드라나스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AHMET MUHIP DIRANAS

‘아흐메트 무히프 드라나스’는 튀르키예의 현대 희곡작가이자 시인이다. 아흐메트 무히프 드라나스(Ahmet Muhip Diranas)의 부인 ‘뭉니레 드라나스’(Münire Diranas)에 의하면 그는 1908년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공식적인 기록에는 1909년 튀르키예 흑해 지역에 있는 도시 시노프(Sinop)로 적혀 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갈리프’(Galip)는 시노프에 있는 에르펠레크 카자스 살르(Erfelek Kazası Salı) 지역 출신이고, 나중에 이스탄불로 이주했는데, 이 때문에 드라나스의 출생지 관련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아흐메트 무히프 드라나스의 어린 시절 튀르키예는 사방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발칸 전쟁에 이어 차낙칼레 전쟁이 일어났고 그 뒤에는 4년 동안 1차 세계 대전이 벌어졌다. 아흐메트 무히프가 2~3살이 되던 무렵 그의 아버지 역시 발칸과 차낙칼레 전쟁에 참여했고 그 이후에는 캅카스 불모지에 파병됐다. 연이은 전시 상황으로 인해 아흐메트 무히프는 학교 입학이 늦어져 9살이 되어서야 초등학교에 갈 수 있었다. 시노프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다니게 된 그는 여름에는 아버지 고향 동네인 살르에 가서 목동 일을 했다. 창작 활동에 바탕이 된 자연에 대한



아흐메트 무히프 드라나스의 기고문 모음집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사랑은 그때 당시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추억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독립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튀르키예 공화국이 세워지면서 아흐메트 무히프의 아버지 갈리프는 수도 앙카라에 정착한다. 그리고 총기를 정비하는 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아흐메트 무히프는 앙카라에서 초등학교에 이어 중,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 그후 법대에 진학했는데 법 공부는 천성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이스탄불대학교 문과대에 입학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중간에 그만두고 말았다. 그는 결국 1938년에 앙카라로 돌아와 일을 시작한다.

그 후 그는 아동보호협회(Çocuk Esirgeme Kurumu) 어린이 연극 단원 선발 위원회에서 임무를 맡았는데 그 무렵 이제 막 15살 된 ‘뮤니레’를 만나 결혼 한다. 그런데 슬하에 자녀가 없었고, 부부는 여자아이 한 명을 입양해 키웠다.

한편, 그는 예전에 잡지 <미술(Güzel Sanatlar)>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1940년에 문예지 <이상(Ülkü)>과 잡지 <어린이(Çocuk)>의 편집부장을 맡게 된다. 당시 시인이자 문학·역사가인 교육부 장관 하산 알리 유젤(Hasan Ali Yücel)이 드라나스를 CHP(공화인민당) ‘민중의 전당(Halkevleri: 인권단체명)’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드라나스는 튀르키예의 문화예술 정책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40년대부터 CHP(공화인민당) 안에서 활동하다가 1950년 이후에는 DP(민주당)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앙카라 라디오, 국립극단 집행위원회 등에서 직책을 맡아 유럽의 다양한 도시에 다닐 기회가 많았고, 덕분에 서구 문화와 예술 세계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다.

집권당과 가까웠던 아흐메트 무히프 드라나스는 이처럼 한 때 다양한 기회를 얻었지만, 1960년대에 이뤄진 군사 쿠데타 이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당연히 아동보호전문기관(Çocuk Esirgeme Kurumu) 관사에서도 나와야 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다시 관운이 열리기 시작하여 1966년에는 노동 은행(İş Bankası) 이사, 이후에는 튀르키예 상

업은행(Türk Ticaret Bankası) 이사까지 맡게 되었다. 그때가 그의 경제적 상황이 가장 안정된 시기였다.

아흐메트 무히프 드라나스는 평소 술, 담배, 나르길레(물 담배)등 음주가무를 즐겼고, 여성들과 쉽게 관계를 맺었다. 14세~15세부터 음주를 시작했으며 1929년 이후 약 9년 동안 이스탄불에서 머물면서 보헤미안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자유로운 삶은 그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쳤고 한동안 정신과 치료도 필요로 했다. 그와 시에 대한 이해나 생활 방식이 비슷했던 친구로는 ‘자히트 스트크 타란즈’(Cahit Sıtkı Tarancı)와 ‘오르한 벨리 카르크’(Orhan Veli Kanık)가 있다.

아흐메트 무히프 드라나스의 시는 여느 20세기 초반의 튀르키예 시인들처럼 프랑스 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예술가로 비용(Villon), 네르발(Nerval), 보들레르(Baudelaire), 베를렌(Verlaine), 아폴리네르(Apollinaire), 랭보(Rimbaud) 등을 들 수 있다. 드라나스는 이스탄불 타쉬 학교(Taş Mektep)에 재학 중에 교사 ‘아흐메트 함디 탄프나르’(Ahmet Hamdi Tanpınar)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 세대를 이끌었던 야흐야 케말(Yahya Kemal), 아흐메트 하심(Ahmet Haşim) 등의 영향을 받았고, 시를 쓸 때 이들의 스타일 계보를 이어 나갔다. 평론가 우야르(Uyar)는 그의 시에 대해 “아흐메트 무히프는 노련하고 섬세하며 과거의 경험을 잘 활용한다. 모든 지식을 능란하고, 감각적으로 배치하며 갈팡질팡하지 않고 일관된 시를 짓는다”고 평가했다.

드라나스가 만든 연극 작품의 기본적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을 형이상학적 방법으로 다루고 문학 작품에 철학을 담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미야소울루(Miyasoğlu)는 나이가 든 이후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기 시작한 그의 작품을 지적하며 “나이가 들어가자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던 드라나스의 작품에서는 1940년대 활동했던 스칸디나비아 작가들처럼 비관적인 시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도스토옙스키도 드라나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평한다.

그는 1980년 6월 21일 앙카라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 남겼던 유언에 따라 그가 좋아했던 고향 시노프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흐메트 무힘 드라나스

● 다국어 표기 AHMET MUHIP DIRANAS(영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앙카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media-amazon.com/images/I/41gjo7NHLWL.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Dıranas Ahmet Muhip, *Oyunlar*, İstanbul: İş Bankası Kültür Yayınları, 1977.

Dıranas Ahmet Muhip, *Şiirler*, Ankara: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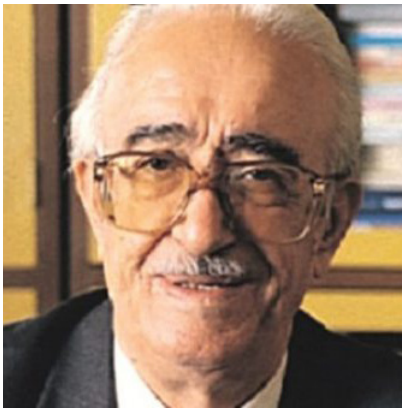
Gür Alim, *Ahmet Muhip Dıranas, Hayatı-Eserleri-Sanatı*, İstanbul: Milli Eğitim Bakanlığı Yayınları, 2007.

Miyasoğlu Mustafa, "Ahmet Muhip Dıranas'ın Sanatçı Portresi", *Ahmet Muhip Dıranas* (Editör: Bahriye Çeri), Ankara: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2003.

Uyar Turgut, *Bir Şiirden*, İstanbul: Ada Yayınları, 1983.

I E144 | 아흐메트 카박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Ahmet Kabaklı



아흐메트 카박르

Source: <https://www.islamveihsan.com/wp-content/upload>

‘아흐메트 카박르’는 1924년 5월 24일, 행정구역상 엘라즈으(Elazığ)에 속하는 하르푸트(Harput)의 고틀루바으(Göllübağ)에서 태어났다. 그는 하르푸트에서 초, 중, 고등 교육을 받았고, 1948년에 이스탄불 고등 교사학교(사범대학)와 튀르키예어문학부를 졸업했다.

그는 이스탄불 고등 교사학교 재학 시절부터 뛰어난 글 솜씨로 유명했기에 신문, 잡지 등에 비평문, 논평, 시, 수필 및 비평 등을 게재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마니사에서 군복무를 마친 이후, 1951년 아이든 무역 고등학교(Aydın Ticaret Lisesi)에서 문학교사로 임명되었으며 교육부 소

속으로 파리로 파견되어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온 후 차파 교육연구소(Çapa Eğitim Enstitüsü)와 사범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와 동시에 앙카라 대학교 법학부(1955년~1960년)에서 공부하며 학위를 받고, 잠시 변호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아흐메트 카박르는 차카 교육연구소에서 교사로 근무할 당시 강의 노트로 사용했던 것을 바

탕으로 『문학사』라는 작품을 집필했는데, 이 책은 민족주의와 보수주의 관점으로 서술되었는데, 엄선된 텍스트를 기초로 문학사를 포괄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손꼽힌다. 동시에 카박르의 문학적 취향과 문학 평론가로서의 그의 특별한 견해가 반영된 비평서로도 읽혀진다. 1965년에 이 작품은 총 세권으로 구성된 초판 인쇄본으로 출판되었는데 이후 1991년에는 『문학사』의 제9판이 재구성을 거쳐 5권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1권에는 일반적인 문학에 대한 정보, 2권에는 초기 튀르키예 문학에서부터 탄지마트 시대까지의 문학에 대한 정보, 3권에는 탄지마트 문학, 민족 문학, 민족 투쟁 및 공화국 시대의 문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4권에서는 1940년대 이후의 시를 다루며, 5권에서는 단편소설 및 소설 등을 다룬다. 특히 4권과 5권은 폭넓은 정보가 담겨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흐메트 카박르는 1972년 튀르키예 문학회(Türkiye edebiyat Cemiyeti) 회장으로서는 1972년 1월 튀르키예 문학잡지를 출간하는가 하면 1978년에는 튀르키예 문학재단을 설립하고 개척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84년에 튀르키예작가협회와 튀르키예 국립 문화재단으로부터 수상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으며 1989년엔 그의 저서 『Temellerin Duruşması』가 철학-사상 분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이외에도 많은 상을 수상한 그는 1996년에는 지식인들의 모임(Aydınlar ocağı) 등 55개 단체에 의해 ‘Şeyhülmuarririn(현명한 작가, 최고의 작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2001년 2월 8일 이스탄불에서 사망하며, 예립 술탄 지구에 묻혔다.

그의 학술 활동과 관련된 작품들로는 『문학사(Edebiyat Tarihi. Türk Edebiyatı I, 1965; II-III, 1966)』, 『무슬림 튀르키예(Müslüman Türkiye, 1970)』, 『사원과 국가(Mâbet ve Millet, 1970)』, 『문화제국주의(Kültür Emperyalizmi, 1970)』, 『관료주의와 우리(Bürokrasi ve Biz, 1976)』, 『우리들의 알키비아데스(Bizim Alkibiyades siyasî hicivler, 1977)』, 『월칙들의 태도(Temellerin Duruşması, 1989)』, 『시의 연구들(Şiir İncelemeleri, 1992)』, 『메흐메트 아키프(Mehmet Âkif, 1971)』, 『이우누스 엠레(Yunus Emre, 1971)』, 『메블라나(Mevlânâ, 1972. Selçuk Üniversitesi ve Konya Turizm Derneği ödülü)』, 『술타누쉬 쉬아라 네집 파즐(Sultanü ş-Şuara Necip Fazıl, 1995)』, 『용의 돌(작가의 어린 시절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 (Roman, Hikâye, Senaryo. Ejderha Taşı, 1978)』, 『시인 지한 네담(Şair-i Cihan Nedim, 1996)』, 『담화 I (Sohbetler I (Mevlânâ, Yûnus Emre, Fuzûlî, Erzurumlu İbrâhim Hakkı ile, 1987)』, 『담화 II (Sohbetler II (Mehmed Âkif, Yahya Kemal, Necip Fazıl ile, 1987)』, 『픽익

의 모험(Pikwik'in Maceraları (Charles Dickens'tan, 1962))』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흐메트 카박리, 아흐메트 카박리, 아흐메드 카박, 아흐메드 카박리, 아흐메드 카박르
- 다국어 표기 Ahmet Kabakli(영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앙카라, 탄지마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islamveihsan.com/wp-content/uploads/2017/03/ahmet_kabakli2-702x336.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islamveihsan.com/ahmet-kabakli-kimdir.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Ayvazoğlu, B., "Ahmet Kabaklı", *Türkiye Araştırmaları Literatür Dergisi*, (8), 2006, pp. 549~558,

I E145 | 아흐메트 쿠트시 테제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AHMET KUTSI TECER

아흐메트 쿠트시 테제르(Ahmet Kutsi Tecer)는 1901년 9월 4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시인으로 등단하여 첫 번째 시를 잡지 <안식처(Dergâh, 1921~1922)>와 <민족지(Milli Mecmua, 1924~1925)>에 기고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이후였다. 게다가 1932년에 딱 한 번, 튀르키예 시바스에서 극소량으로 출판하여 주변 지인에게 나누어준 시집 『시(Şiirler)』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작품을 단행본으로 발행하지 않았다.

그가 시를 접한 시대는 모두 애국심에 불타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애쓰던 시기였다. 그 영향으로 그는 당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익히는 동시에 자신의 시에 역사적 관점과 윤리관 그리고 예술가와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아냈다. 그는 과거 튀르키예 문단에서 고집하던 시형식에서도 벗어났으며 확장된 시형식을 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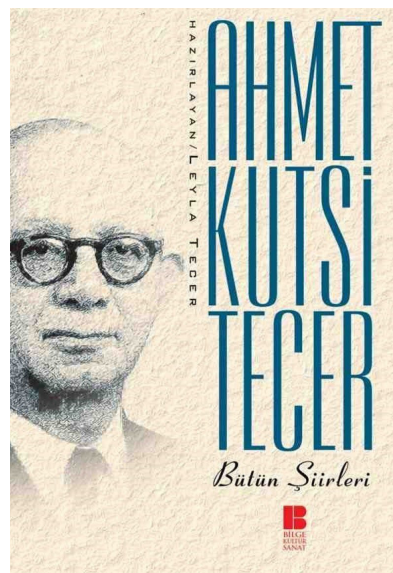
테제르의 시에 영향을 미친 시인들은 오르한 세이피 오르훈(Orhan Seyfi Orhon), 파루크 나피즈 참르벨(Faruk Nafiz Çamlıbel), 유수프 지야 오르타치(Yusuf Ziya Ortaç), 할리트 파흐

리 오잔소이(Halit Fahri Ozansoy), 에니스 베히취 코르유 레크(Enis Behiç Koryürek)와 음절시인 5인(Beş Hececi)이다. 이후 ‘햇불기수 7인(Yedi Meşaleciler, 1928)’이라는 동인이 등장하는데 테제르는 이 두 동인의 영향력이 문단에서 상당히 컸던 시기에 시를 썼다. 하지만 문학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동인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것은 비단 그의 개인주의 성향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가 쓰고자 하는 시는 사뭇 달랐다.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괴칼프(Gökalp)가 꿈꾼 ‘민중을 향한(halka doğru)’ 것이었다. 테제르와 당시 주요 시인들의 시를 살펴보면 18세기 오스만 제국의 내부 구조 및 사회에 대항하여 다양한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19세기에 개혁의 속도가 급물살을 탔으며, 정치권력과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른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국제사회의 시선이 아나톨리아로 쏠리기 시작할 때 할리트 파흐리(Halit Fahri), 오르한 세이피(Orhan Seyfi), 유수프 지야(Yusuf Ziya), 파룩 나피즈(Faruk Nafiz), 아흐메트 쿠트시는 ‘국내’ 문제에 집중했다. 아흐메트 쿠트시는 민속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파룩 나피즈는 야흐야 케말에게서 영향을 받아 시에 역사적 감수성을 더했다. 그들은 전설과 위인전을 주제로 삼아 시를 쓰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아흐메트 쿠트시 테제르는 시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예술적 영감을 민속 문화에서 얻었다. 그는 운율시를 노래로 부르는 전통을 계승한 카라자오울란(Karacaoğlan), 코르오울루(Köroğlu), 루흐사티(Ruhsati)처럼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는 운율시를 쓰고 싶어 했다. 그는 공화국 건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들의 이상과 문제의식을 작품에 담아냈다. 연극, 민속학, 교원, 저널리즘, 출판 등 그가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공화국 설립 정신을 널리 알리고, 튀르키예 공화국만의 근간을 형성하면서 문화공공기관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것이었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면서 형성된 민족 문화는 서구에서도 민중



아흐메트 쿠트시 테제르 시집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곤 했기에 아흐메트 쿠트시 테제르 역시 국가의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문화기관을 설립하고자 했다. 이때 그의 통찰력은 핵심 인사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포괄적이었고 추진력도 탁월했다.

테제르는 쇠락해가는 오스만 제국이 내팽개친 문학 전통을 새로 수립되는 튀르키예 공화국에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래서 전통을 재창조하는 주체자로 선봉에 섰다. 새로운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제들을 발굴해 전통을 만들어가는 데 힘썼다. 그리하여 튀르키예만의 문화를 구축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확장시켜나가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그는 민중의 집(Halkevleri), 민속음악 연구(Halk Müziği Derlemeleri), 민속연구협회(Folklor Araştırmaları Kurumu), 민중시인 보존협회(Halk Şairleri Koruma Derneği), 음악예술학교(Konservetuvar), 시바스 아시옥 축제(Sivas Aşıklar Bayramı) 등의 유관기관을 설립하고 행사를 정례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

하지만 테제르는 세이한, 우르파에서 국회의원을 2번 연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써 정체성을 느끼지는 못했다. 대신 예술, 문학, 출판 활동을 하면서 연기자, 화가, 시인, 작가라는 총체적인 정체성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다. 그가 문인과 정치인을 겸했는데도 정치에서 ‘희생자’로 남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아흐메트 쿠트시 테제르는 교원, 국회의원, 민속학자, 시인, 극작가로 공화국 시대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남았다. 그는 당시 극소수에게만 볼 수 있던 ‘유별나게 노력한’ 인물이었다. 늘 나라의 구석구석을 알아보고, 배우고, 소개하는 것을 즐기며 민중을 계몽하고 의식화하면서 새로 건설된 튀르키예 공화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시인 아흐메트 쿠트시 테제르의 이름이 거론되면 늘 ‘저기 마을이 있다. 저 멀리(Orada bir köy var uzakta)’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 말은 소외된 시골마을 하나라도 찾아내 문화를 보급하려던 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담긴 표현이다. 이처럼 테제르가 시인으로써 바친 열정은 이후로도 전통을 이어 나가는 사즈 시인이며 소리꾼인 아시옥들의 창작물에도 반영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시옥 웨이셀(Âşık Veysel)이다. 그들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발전된 시를 쓸 수 있었다.

1950년 유네스코 본부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던 테제르는 튀르키예로 돌아와서 1966년 은퇴했다. 그때까지 이스탄불에서 교육자로 여생을 보냈다. 1967년 7월 23일 이스탄불

에서 눈을 감은 테제르는 진지르릭쿠유에 안장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흐메트 쿿시 테제르

● 다국어 표기 AHMET KUTSI TECE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시옥 웨이셀, 이스탄불, 아흐야 케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media-amazon.com/images/I/71tabZ5MYLL._SL1146_.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Çongar Rıdvan, *Doğumunun 100. Yıldönümünde Ahmet Kutsi Tecer*, Ankara: Kültür Bakanlığı Milli Kütüphane Başkanlığı Yayınları, 2001.

Eroğlu Ebubekir, *Yenilenme Bilinci*, İstanbul: Nehir Yayınları, 1988.

Eroğlu Ebubekir, *Modern Türk Şiirinin Doğası*, İstanbul: Yapı Kredi Yayınları, 1993.

Ertop Konur, 'Kutsi Tecer', *Türk Folklor Araştırmaları Dergisi*, Ahmet Kutsi Tecer Özel Sayısı, Sayı: 218, 1967.

Gökalep Ziya, *Türkçülüğün Esasları*, 1000 Temel Eser Serisi: 21, İstanbul: MEB Basımevi, 1970.

Gökdemir Sevgi, *Ahmet Kutsi Tecer*, Ankara: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1987.

Kaplan Mehmet, *Türk Edebiyatı Üzerine Araştırmalar (2)*, 5. Basım, İstanbul: Dergah Yayınları, 2002.

Kazmaz Süleyman, *Ahmet Kutsi Tecer Hayatı ve Eserleri*, Ankara, 2008.

Koz Sabri, *Doğumunun 110. Yılında Ahmet Kutsi Tecer* (Haz. Dr. Ferhat Aslan), İstanbul Büyükşehir Belediyesi Yayınları, İstanbul, 2011.

Külebi Cahit, *İçki Sevdası Dolu Yolculuk*, İstanbul: Adam Yayınları, 1986.

Mutluay Rauf, *Bende Yaşayanlar*, İstanbul: Yapı Kredi Yayınları, 2004.

İlgaz Rifat, *Sarı Yazma*, Türkiye İş Bankası Yayınları, İstanbul, 2015.

Özbalcı Mustafa, *Ahmet Kutsi Tecer*, Akçağ Yayınları, Ankara, 1998.

Tanpınar Ahmet Hamdi, *Edebiyat Üzerine Makaleler*, 4. Baskı, İstanbul: Dergah Yayınları, 1997.

Tecer Ahmet Kutsi, "Büyük İstirap", *Ülkü Dergisi*, sayı: 28, Ankara, 1942.

Tecer Leyla (Haz.), *Ahmet Kutsi Tecer'in Bütün Şiirleri*, Ankara: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2001.

Temo Selim, *Türk Şiirinde Taşır*, İstanbul: Agora Kitaplığı, 2011.

Timuroğlu Vecihi, *Ahmet Kutsi Tecer -Kişiliği, Sanat Anlayışı ve Tüm Şiirleri-* Ankara: Türkiye İş Bankası Kültür Yayınları, 1980.

Tuncel Bedrettin, 'Koçyiğit Tecer'imiz', *Türk Folklor Araştırmaları Dergisi*, Ahmet Kutsi Tecer Özel Sayısı, Sayı:218, 1967.

Yıldırım Cafer, *Şiir Hayatları Sesler, Yüzler ve Şehirler*, İstanbul: Babıali Kitaplığı, 2006.

I E146 | 아흐메트 함디 탄프나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문학비평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Ahmet Hamdi Tanpınar

‘아흐메트 함디 탄프나르’(Ahmet Hamdi Tanpınar)는 튀르키예 근현대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비평가이며, 문학연구자이다. 1901년 6월 23일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그는 오스만 제국시대에 이슬람 법관으로 근무한 ‘휘세인 피크리’의 아들이다. 탄프나르는 아버지의 직업적 특성상 어린 시절을 여러 도시에서 보냈고, 그만큼 학습 환경도 자주 바뀌었다. 1902년~1905년에는 유아기를 디야르바크르 예르가니에서 보내다가 1905년 4월 가족과 함께 이스탄불로 돌아왔다. 이후 이스탄불 라브자 초등학교(Ravza-i Maarif İptidai Mektebi)에 입학했으나 아버지가 시노프로 발령이 나면서 1908년부터 1910년까지 시노프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또다시 1910년 9월~1913년 5월에는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 위치한 시이르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프랑스 도미니크 미션스쿨(Dominicain Misyoner Mektebi)에서 학업을 이어 나갔다. 1913년에 이스탄불 베파 고등학교(İstanbul Vefa İdadisi)에 입학했지만 아버지가 이라크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키르쿠크로 부임하면서 1914년 7월 탄프나르는 키르쿠크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그리고 그는 키르쿠크에서 전염병 장티푸스로 어머니를 잃는 큰 슬픔을 겪었다.

그러나 동시에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된 것도 키르쿠크에서 지내던 시기였다. 『예언자들의 이야기(Kıssas-ı Enbiya)』, 『제즈미(Cezmi)』, 『잘랄 웃 딘(Celalettin Harzemşah)』 등을 읽은 탄프나르는 아흐메트 하심(Ahmet Haşim), 야쿠프 카드리(Yakup Kadri), 쉴레이만 나지프(Süleyman Nazif), 아흐메트 라심(Ahmet Rasim), 야흐야 케말(Yahya Kemal)을 접했고 프랑스어도 배우기 시작했다. 거주하는 곳이 계속 바뀌면서 탄프나르의 내면세계는 깊어질 수 있었다. 탄프나르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아버지가 아나톨리아에서 근무하셔도 한곳에 머물지 않아서 근무지로 가는 데는 기나긴 이동 시간이 필요했다. 제국에서 멀리 떨어져 고국과 다른 기후에서 살아가는 타국에서의 삶과 갑작스런 이주로 인한 슬픔 그리고 귀향의 기쁨... 어린 나이임에도 나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내

삶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모든 순간과 여정을 모험으로 여기게 되었다.”

아버지 휘세인 피크리는 1916년 9월 안탈리아로 발령받았다. 그래서 안탈리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탄프나르는 대학 진학을 위해 1918년 이스탄불로 향했다. 먼저 그는 바이타르 학교(Baytar Mektebi)에서 일년 동안 수학했고 그 다음 1919년 문과대에 입학했다. 먼저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전공하려 했으나 ‘야흐야 케말’이 문학과 교수로 임명된다는 소식에 생각을 바꿔 그는 문학과로 등록했다.

그렇게 그는 야흐야 케말의 제자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벗이 되었다. 야흐야 케말은 아흐메트 함디의 사고가 확장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탄프나르는 시(詩)와 민족문화의 가치를 야흐야 케말을 통해 알게 되었다. 탄프나르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정이 가득한 문학 애호가로서 당시 야흐야 케말과 마주했던 속마음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야흐야 케말의 수업을 들을수록 복잡한 내면의 세계가 정리되었다. 감정의 세계에서 서서히 사색의 세계로 넘어갔다. (...) 나는 그저 열심히 나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야흐야 케말은 나에게 나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라고 일깨워줬다.”

탄프나르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즐겼고 결국 문학도가 되었는데 야흐야 케말과 가까이 지내면서 큰 영향을 받아 의식을 고양하고 확고한 문학관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야흐야 케말을 통해 서구 문학, 특히 프랑스 시에 눈을 뜨는가 하면 국내외 고전문학도 가까이하게 돼 보들레르, 베를렌, 말라르메, 아나톨 프랑스, 괴테, 호프만,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을 즐겼다. 1921년 야흐야 케말의 지도를 받아 몇몇 친구들과 만든 잡지 <데르가흐(Dergâh)>에 첫 번째 시와 산문을 실었다. 탄프나르는 이후 이때 실었던 소설과 단편, 수필, 조사 보고서 등을 단행본으로 묶어서 출판했다. 그러나 시집만은 생을 마감하기 직전인 1961년이 되어서야 출간했다.



아흐메트 함디 탄프나르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탄프나르는 1923년 3월 ‘페르시아 설화 휘스레브와 쉬린’(Hüsrev ü Şirin)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제출했고, 다뤘던 문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해 에르주룸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았는데, 1924년 9월 말 에르주룸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진 피해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온 아타튀르크를 만날 기회가 있었고 대화도 잠깐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고 1925년 1월에 코니아 고등학교 문학 교사로 발령받은 탄프나르는 1926년에 코니아에서 폴 발레리의 평론집 『바리에테(Variété) I』을 접했다. 1927년에는 앙카라 남자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쳤는데 재직 중인 동료 교사로 튀르키예 문학에서 중요한 인물인 ‘수우트 케말 예트킨’(Suut Kemal Yetkin), ‘지야엠티 파흐리 펀득오을루’(Ziyaettin Fahri Fındıkoğlu), ‘파루크 나피즈 참르벨’(Faruk Nafiz Çamlıbel)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에 튀르키예 문단에서 유명한 ‘오르한 벨리’(Orhan Veli), ‘멜리흐 제브데트’(Melih Cevdet), ‘옥타이 리파트’(Oktay Rifat), ‘아흐메트 무히프 드라나스’(Ahmet Muhip Dıranas)가 제자로 들어온다. 1929년부터는 가지 전문학교에서 근무했으며 1931년에는 앙카라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특히 이 기간에 서양 고전음악을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내 삶에서 제대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서구 음악을 접했을 때부터다. 나는 가지 전문학교에서 근무하던 2년 동안 수백 개의 LP를 들으며 보냈다. 그러면서 우리 음악가들을 알게 되었다. 아주 짧은 시(詩)라도 나의 모든 작품 도입부에는 서구이나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이 흐른다.”

1933년 시인 ‘아흐메트 하심’이 사망한 뒤, 탄프나르는 예술아카데미(Gazi Terbiye Enstitüsü)에서 예술사를 가르쳤고, 1934년에는 여기서 미학과 신화 수업을 담당했다. 그리고 『시간의 어려움(zaman meselesi)』이라는 작품을 통해 거의 모든 사물, 장소, 무생물과 시간의 관계를 다루었다. 카프란(Kaplan)은 이 작품을 보고 “시, 이야기, 소설, 학술조사, 수필 등 모든 장르에서 사람의 인생과 기본 원리가 가장 추상적인 형태에서 가장 구체적인 모습까지 수만 가지 관점으로 설명돼 있다”고 평했다.

1939년 11월 15일 당시 교육부 장관 ‘하산 알리 유젤’이 아흐메트 함디 탄프나르를 이스탄불대학교 문과대 튀르키예 현대문학 교수로 임명했다. 이후 탄프나르는 1942년 보궐선거와 1943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마침내 당선되어 3년 반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는데 그때에도 예술과 학문적 연구, 글쓰기와 출판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1943년에 선보인 단편 소설 「압둘라의 꿈(Abdullah Efendi'nin Rüyaları)」은 1944년에 출간한 『마후르 작곡(Mahur

Beste)』이라는 소설집에 실었다. 1946년에는 『다섯개 도시(Beş Şehir)』라는 전공 논문을 완성했다. 탄프나르는 1946년에는 교육부 감사가 되었고, 1948년에는 예술아카데미 미학과 교수로 발령받는가 하면, 1년 뒤에는 다시 이스탄불대학교 문과대 튀르키예 현대문학 교수로 돌아가기도 했다. 1949년에는 긴 시간 동안 집필한 유명한 작품 『19세기 튀르키예 문학사(XIX. Asır Türk Edebiyatı Tarihi)』를 출간했다.

그는 1953년 유럽국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 다녀왔다. 이후 네 번째 소설 『시간 분배 연구소(Saatleri Ayarlama Enstitüsü)』는 1954년에 신문 <새로운 이스탄불(Yeni İstanbul)>에 연재했다. 두 번째 단편소설집 『여름비(Yaz Yağmuru)』는 1955년에 출간했다. 1959년 두 번째 유럽방문에서는 프랑스, 영국, 스위스, 포르투갈을 다녀왔고, 다년간의 유럽 여행을 통해 책으로 접한 서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문학평론가 바셰르(Başer)는 아흐메트 함디 탄프나르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희곡을 제외한 모든 문학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을 쓴 아흐메트 함디 탄프나르의 특징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인류사에 등장한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를 마주보게 하는 것이다. (..) 그렇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아흐메트 함디 탄프나르는 문화를 담은 소설가이다. 그는 자신이 속한 문화 세계에서 겪은 위기를 시간을 통해 널리 확산시키고 절대화하여 소설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작품에서 우리는 플라톤부터 헤겔까지, 바그너에서 무스타파 이트리까지, 야흐야 케말에서 피카소까지 많은 위대한 사람들과 직면하게 된다. 이 인물들은 백과사전처럼 단순히 사진을 보여주면서 인물정보를 요약하듯 남길 수는 없다. 이에 탄프나르는 이들에 대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신만의 해석을 보여주었고, 안목을 넓혀주었다. 덕분에 우리 내면에서 이 예술가와 사상가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고, 그들의 세계에 다시 빠져들고 싶은 욕구가 커졌다.”

1962년 1월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한 탄프나르는 이스탄불 루멜리히사르 묘지에 묻혔다. 자신과 비슷하게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독신으로 산 선생님이자 친구인 야흐야 케말의 곁에 나란히 묻힌 것이다. 앙카라에서 만난 제자 오르한 벨리도 같은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흐멧 함디 탄프나르

● 다국어 표기 AHMET HAMDİ TANPINAR

● 연관 검색어 앙카라,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8/Ahmet_hamdi_tanpinar.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lptekin Turan, *Bir Kültür Bir İnsan Ahmed Hamdi Tanpınar ve Edebiyatımıza Bakışlar*, Nakışlar Yayınevi, İstanbul, 1975.

Başer Nami, “Tanpınar’da Proust”, *Doğumunun 100. Yılında Ahmed Hamdi Tanpınar* (Hazırlayan: Sema Uğurcan), Kitabevi Yayınları, İstanbul, 2003.

Kaplan Mehmet, “Saatleri Ayarlama Enstitüsü”, *Çağır*, S.49, Şubat, 1962.

Tanpınar Ahmet Hamdi, *Edebiyatçılarımız Konuşuyor* (Hazırlayan: Yaşar Nabi Nayır), Varlık Yayınları, İstanbul, 1953.

I E147 | 아히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유형 소분류2 종교집단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Akhi

‘아히 형제단’(Akhi brotherhoods), 혹은 ‘아히야’(Akhiya)는 몽골의 침입 및 셀주크의 멸망으로 혼란스러웠던 13세기 아나톨리아에서 나타난 길드와 푸투와(Futuwwa) 조직의 결합체였다. 아히 형제단은 처음에는 젊은 장인들의 길드 조직으로 시작되었는데 푸투와(중세의 여러 집단에서 만들어낸 윤리적 행동의 개념)의 이상 및 일반적인 규범을 받아들여 구성원들 간의 연대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강력한 조직이 되었다. ‘아히’는 아랍어, 혹은 투르크-몽골어에서 ‘형제’라는 뜻인데, 이때의 ‘아히’라 불리는 자는 아히 형제단의 장(長)을 의미한다. 이 장(長)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Fityan)과 함께 젊은이들의 연대를 구축했다.

그들의 주요 모토는 ‘연대와 후대(solidarity and hospitality)’였다. 이븐바투타가 14세기 전반에 아나톨리아를 여행하며 남긴 아히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아히들은 아나톨리아의 전 지역에 호의를 베풀며 아나톨리아처럼 다양한 집단이 모여 사는 곳에서 긴요한 응집적 요소를 부여했다. 또한 지배층이 없는 도시에서는 아히가 아미르의 지위로 행정을 펼치기도 했고, 혹은 군주의 수행단이나 군대의 일부로 참여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한번 오스만 제국이 기틀을 마련하면 다른 집단의 중요성은 감소하게 되는데, 아히들이 전제국가의 강력한 지배력이 미치지 못

하는 곳에서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곤 했다.

한편 그들은 자신만의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서 수피들이 수피 기도소(Khanigha)를 중심으로 마치 다르비시와 같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도 했다는 점에서는 종교적인 색채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체가 비 무슬림에게 배타적이지 않고 후대로 갈수록 그리스도교도들의 참여도 두드러졌다는 점, 카르마트와 같은 다소 이단적인 세력의 영향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아히는 몽골 침입~오스만의 성장 이전 혼란의 시대에 성장한 여러 집단 중에서 종교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닌 집단이었으며,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적응하여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지녔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들은 오스만의 세력이 부상함에 따라 점차 여러 도시를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위치를 상실하고 쇠퇴했지만 초기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길드나 푸투와 집단과 같이 향후 여전히 세력을 지켜낼 수 있는 도덕률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하여 초기 오스만 사회, 특히 예니체리 등의 특수 집단이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아히 조직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젊은이들(Yigit)과 아히(각 연맹의 수장이자 만남의 장소(Zāwiyya)의 주인), 그리고 셰이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셰이흐는 실제적인 기능이 없는 존재이며, 나머지 두 단계인 'Yigit'와 'Akhi' 사이의 소속감이 크게 작용했다. 그들은 일반적인 푸투와 조직이 그렇듯 특수한 입회 의식이 있었으며 짧은 머리카락, 여밈, 소금기 있는 물컵 통 및 바지 착용 등 그들만의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다방면에서 다양한 활약을 보인 것과 별개로 종교-정치적 입지를 확고하게 굳힌 것이 아니어서 몇몇 관습이나 이론이 칼리프 알리에 대한 추종과 매우 닮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피 계열의 수니파를 표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5세기 이후 아히는 점차 쇠퇴하여 점차 역사서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히

● 다국어 표기 AHî(튀르키예어), اخی(아랍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Rewis, Bernard. "The Islamic Guild." *The Economic History Review* 8-1, 1937, pp.20~37.

Arnakis, G. G. "Futuwwa Traditions in the Ottoman Empire Akhis, Bektashi Dervishes, and Craftsmen."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12-4, 1953, pp.232~247.

Taeschner, Fr. "AKHI." *Encyclopaedia of Islam* 1, Leiden: Brill, 1986, pp.321~323.

I E148 | 악 마자르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q Mazar

악 마자르 영묘는 중국 신장 지구 카쉬가르에 있다. 명나라 말기 또는 청나라 말기인 17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 이 영묘와 관련된 문서 자료는 거의 없어 대부분의 연구 자료는 현지 인과의 인터뷰에 기반해 구성된 것이다.

카쉬가르 주민들은 17세기 악수(Aqsu)의 통치자가 이 영묘를 건설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건설만 했을 뿐 정작 그 자신은 다른 곳에 묻혔고 이곳은 비워두었다고 한다. ‘악(Aq)’은 흰색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영묘에 석관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이 영묘는 신장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앙아시아 스타일을 따르고 있으며, 17세기~18세기에 지어진 다른 영묘와 유사하다. 전면부 상단에 아치형 벽감이 있는 피슈타크(Pishtaq, 이완을 둘러싸고 있는 직육면체 형태의 구조물)가 있다. 이 피슈타크의 측면은 얇은 아치형 벽이 있는 패널로 덮여 있으며, 미너렛으로 전면부와 연결되어 있다. 전면부는 리브 볼트가 입구 통로를 덮고 있으며 전면부 이완 각 측면의 상, 하단에 아치가 있는데, 상단 아치에는 창문이 있고 하단 아치가 입구 역할을 한다.

피슈타크는 푸른색과 하얀색의 타일이 기하학 문양을 이루고 있으며, 측면은 벽의 절반을 지나가는 벽돌 띠를 제외하고는 노출된 벽돌 그대로 장식이 없다. 정사각형 묘실을 덮고 있는 돔 역시 타일로 장식되어 있고, 최상단 부분에는 팔각형의 랜턴이 달려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크 마자르

● 다국어 표기 مزار ناق(위구르어)

● 멀티미디어 링크 악 마자르 전면부

https://s3.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40310/original/IMG08922.jpg?1384711377

악 마자르 전면부 장식 일부

<https://monash.figshare.com/ndownloader/files/6020229/preview/6020229/preview.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5014>

● 참고문헌(오프라인) Qiu, Yulan. *Ancient Chinese Architecture: Islamic Buildings*(ed:Sun Dazhang), Vienna: Springer-Verlag, 2003.

I E149 | 악사라이 궁전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궁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q Saray Palace

우즈베키스탄의 샤흐리스라브즈(Shahrisabz) 북동쪽에 위치한 ‘악사라이 궁전’은 티무르 시대(1370년~1405년)에 건설된 궁전이다. 샤흐리스라브즈는 티무르의 고향이자 티무르 조의 첫 번



악사라이 궁전 유적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째 수도였는데 1380년 우르겐치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티무르의 명령으로 궁전을 건설했으나 현재는 거의 모든 부분이 훼손된 상태이다. 따라서 궁전에 대한 연구의 많은 부분을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1404년 티무르를 방문한 스페인 사절인 ‘루이 곤잘레스 드 클라비조’(Ruy Gonzales de Clavijo)의 기록과 바부르(Babur)가 작성한 바부르나메(Baburname)에 완공 100년 후의 모습이 담겨있다.

기록에 따르면 이완이 아닌 장식된 피슈타크가 입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당대 최대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완들이다. 높이는 약 22m와 30m이지만 원래 볼트는 약 50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더 큰 이완은 정문 형식으로 두 개의 원통형 탑이 측면에 붙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탑의 높이는 약 60m~70m 정도다. 또 다른 작은 이완의 높이는 약 13m 가량으로 아치형 벽으로 막혀 있다.

클라비조의 기록에 의하면 궁전은 여러 개의 안뜰과 갤러리 및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인상적인 기록은 화려한 타일로 덮인 벽돌로 쌓은 아치가 있는 입구가 묘사된 부분인데 거대한 수조와 장식이 있는 방이 궁전의 주요 공간이라고 한다. 또한, 귀중한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높고 넓은 문이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티무르가 하렘의 여성들과 잔치를 보내던 특별한 방이 넓고 고급스럽고 과실수가 있는 넓은 정원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는 화려한 장식은 남아있지 않고 타일 장식의 잔해만이 남아있다. 두 개의 탑에는 지그재그 패턴과 이완의 내벽에 하프트 랑기(haft rangi: ‘일곱 색’이라는 뜻으로 상회와 하회 기법이 함께 쓰인 타일 제작 기법이다. 미나이 기법이라고도 한다) 기법으로 제작된 육각형 타일로 이루어진 식물 문양과 서체 장식이 남아 있다. 또한, 비문 장식이 남아 있는데, 동쪽 탑에 새겨진 비문은 1395년이 기록된 것이다. 추측건대 건축이 1380년에 시작되었다는 기록을 상기한다면 장식도 139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테브리즈(Tabriz)에서 제작해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장인과 예술가는 화레즘 지역에서 왔다고 한다.

이처럼 당대 이 지역에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 이 성의 잔재는 2000년 UNESCO 문화유산 목록에 선정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옥사라이, 역사라이

● 다국어 표기 Oqsaroy(우즈베크어)



악 사라이 궁전 유적의 티무르 동상

- 연관 검색어 티무르, 바부르나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22363/medium/IAA13370.jpg?1384699229
<https://zrr.kr/MBrt>
- 참고문헌(온라인) <http://archnet.org/sites/2481>
- 참고문헌(오프라인) Blair, Sheila., Jonathan Bloom. *The Art & Architecture of Islam 1250-18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Pope, Arthur Upham. *A Survey of Persian Art from Prehistoric Times to the Present*,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38.

I E150 | 악 치벡 아르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hk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Akh Chibek Arygh

‘악 치벡 아르그’는 1966년 민담꾼 ‘세멘 카디셰프’(Semen P. Kadyshev)가 낭독하고 ‘타트야나 타체예바’(Tatyana G. Tacheyeva)가 기록한 하카스 영웅 서사시이다. 2007년 튀르키예에서 처음으로 에크렘 아르크올루(Ekrem Arıkoğlu)에 의해 소개되고,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서 출판되었으며 2015년 하카스인 ‘티무르 다블레토브’(Timur B. Davletov)에 의해 ‘민담꾼 세멘 카디셰프 탄생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두 번째로 튀르키예어 번역판이 출판되었다.

다른 많은 하카스 서사시처럼 주인공이자 칸은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서사시의 시작은 다른 하카스 서사시 형태와 매우 비슷하며, 세계와 우주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알타이 민족들의 샤머니즘 그리고 다신교 신앙 체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모티프들을 통해 하카스인들의 문화 및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사시에서 전사들이 말과 함께 매장되어있는 모습은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고, 서사시에 묘사된 무덤들의 형태 및 장례의식등은 역시 오늘날 하카스인들이 보존하고 계승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처럼 수백 년 동안 남부 시베리아 투르크인들의 삶에 존재하던 사상, 관습, 행동등이 오랜 기간 서사시의 형태로 구전되어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문화적 연속성의 한 예이기도 하다.

서사시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문학작품의 검열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던 소비에트 시절, 구전문학으로 기록이 되었음에도 사유재산 존중이라는 의미에서 이 서사시가 검열에 희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치벡 아르크

● 다국어 표기 아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Davletov, T. B., *Ah Çibek Arğ: Hakas Türklerinin Kız Alp Yiğitlik Destanı*. Ankara: TÜRKSOY Yayınları, 2015.

I E151 | 악 타스

- 시기 B.C. ~ A.D.1000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Akh Tas

‘악 타스’는 오쿠네프 문화의 우상들처럼 4,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1,500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발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카스인들은 악 타스가 심장병, 혈액 관련 질환, 부종 등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치유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석상이 주변에 매우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에너지를 ‘지구의 힘(çir hudı)’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악타스를 치유의 원천으로 보는 하카스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이러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예: Ah közee: ‘하얀 돌은 민중의 우상, 생명의 원천’) 그래서 하카스인들은 악 타스에게도 다른 석상들과 동일



시베리아 하카시아 인근의 악타스 석상

하게 재물을 바친다. 재물로는 주로 음식, 동전 또는 담배 등을 제공하며 소원을 비는 의식이 끝난 뒤 석상에게서 좋은 에너지를 받기 위하여 거대한 석상에 몸을 기대로 팔로 돌을 최대한 감싸 잠시 그 석상을 안아준다.

악 타스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믿음이 있다. 일부 하카스인들이 이 석상이 산의 영주(산신/신령)가 지나가는 길 한가운데 서있기 때문에 밤에는 석상 근처에 가서는 안되며, 만일 이를 어길 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믿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정교회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선교사들은 샤머니즘을 타파하고, 그들의 모든 전통과 관습을 파괴하려고 했음에도 오늘날 이 지역의 하카스인들은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 혹은 다른 민족들과 함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샤먼의 도움을 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악타스, 아크타스
- 다국어 표기 Ah Tas /Ax Tac(하카스어), Ak Taş(튀르키예어), Белая каменная стен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오쿠네프 문화
- 참고문헌(오프라인) Okutan, N., *“Hakaslarda Atalar Kültü ve Günümüz Hakas Kültürüne Etkileri.”*(Yayımlanmamış Yüksek Lisans Tezi). Hacettepe Üniversitesi, Türkiyat Araştırmaları Enstitüsü, Ankara, 2016.
Davletov, Okutan N., *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leri*. İstanbul: Ötüken Neşriyat,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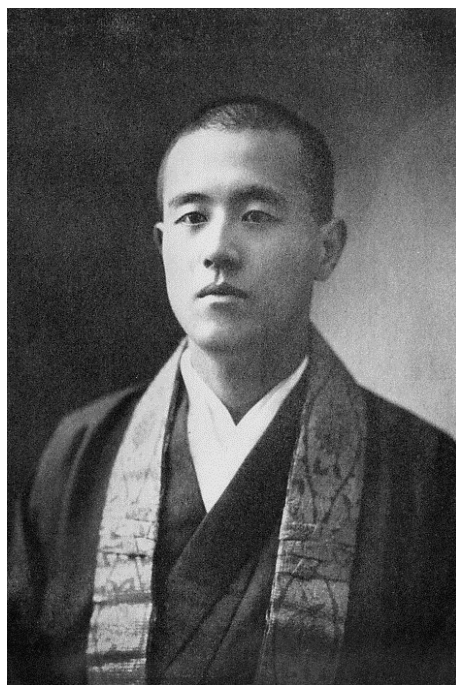
Ⅰ E152 | 오타니 고즈이

- 시기 A.D. 1800 ~ 현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일본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승려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Otani Kozui

‘오나티 고즈이 백작’(1876년 12월 27일~1948년 10월 5일)은 일본의 승려이며 탐험가이자, 니시훈간지 22대 세습 법주이다. 작위는 백작이었으며, 법명은 교노(鏡如)였다. 부친으로부터 서본원사(西本願寺)의 문주직을 물려받기 전까지 영국 런던에서 유학하며, 영국 왕립 지리학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1902년 27세가 되던 해에 ‘스타인’의 중앙아시아 탐험 소식을 듣고 곧

바로 중앙아시아 1차 탐험(1902년~1904년)을 시작하여 1914년까지 총 3차례 고고학 조사단(발굴단)을 중국령 중앙아시아로 보냈다.

1차 탐험에서 오타니 백작의 고고학 조사단은 최초로 키질 석굴을 발견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해 탐험대는 곧 떠나야 했으며 그곳에서 촬영하고 수집한 미술품 사진 및 작품들도 잃어 버리게 되었다. 오타니 백작은 발굴단을 통해 둔황과 쿠차 등지에서 유물들을 구입하거나 약탈하여 자신의 별장이었던 효고현 나라쿠소에 소장하고 있었는데, 국가 지원이나 박물관의 후원을 받았던 서구 열강의 중앙아시아 탐험과는 달리 오타니는 탐험을 위해 사찰의 자금을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파산과 함께 1914년 6월에는 서본원사 문주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1916년 나라쿠소를 헐값에 구입한 광산재벌이 구하라 후나노스케가 조



오타니 고즈이

Source:<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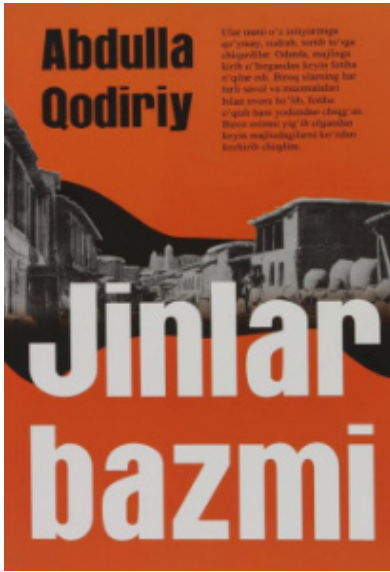
를 헐값에 구입한 광산재벌이 구하라 후나노스케가 조선 광산 채굴권을 얻기 위해 1916년 5월 데라우치 조선 총독에게 나라쿠소에 소장된 유물들을 기증하자 데라우치가 1945년 경복궁 수정전에 유물을 보관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오타니 유물은 한·중·일 모두 합쳐 대략 5,000점 정도이며, 이 유물들은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의 여순 박물관,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에 수장되어있으며, 문서류의 경우 교토 류코쿠대가 보관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타니고즈이
- 다국어 표기 Отани, Кодзуй(러시아어), 大谷光瑞(중국어), Ōtani Kōzui(영어, 독일어)
- 연관 검색어 실크로드, 둔황, 쿠차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7/Kozui_Otani_0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Hopkirk, P., & Case, D., *Foreign devils on the Silk Road*, Books on Tape, 1990.

I E153 | 악령들의 잔치

● 시기 A.D.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품 ● 유형 소분류2 단편소설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Jinlar bazmi



「악령들의 잔치(Jinlar bazmi)」 표지

「악령들의 잔치(Jinlar bazmi)」는 압둘라 커드리이 (Abdulla Qodiriy)가 1921년 <동방의 꽃(Sharq chechagi)>에 발표한 단편소설이다.

「악령들의 잔치(Jinlar bazmi)」는 액자소설 형식으로 화자는 어린 소년이다. 소년의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소년의 시선에서 그려진 사건의 전개가 흥미롭다.

어느날 소년의 이모가 그들의 집을 찾아온 날, 아버지가 다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소설은 시작된다. 소년은 두려워하며 이불 속으로 숨어들어가고, 아버지는 그런 소년의 모습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 때 작품의 화자는 아버지로 변경된다.

혼례를 치른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는 포도밭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 잔치를 몰래 구경하게 되었다. 구경하다 들킨 아버지는 잔치에 초대된다. 이슬람 예절에 따라 손님이 식탁에 앉고 나면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바람에 기도를 깜박 잊게 된다. 누군가 그에게 식사를 권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에게 춤과 노래를 먼저 듣기를 권한다. 아버지는 배가 고팠지만, 손님이기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음악을 먼저 들어야 했다.

처음에는 연주가들이 슬픈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너무 슬픈 음악이어서 아버지는 마음이 아파 울기 시작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다. 슬픈 음악이 멈추자 아버지는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연주자들이 분위기를 바꿔서 신나는 음악을 연주하자 이번에는 무대로 열대여섯 살쯤 되는 소녀가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버지도 무대 중앙으로

나와 어린 소녀와 같이 춤을 주기 시작했다. 파티장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보고 놀라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지만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춤을 췄다. 그런데 아버지는 갑자기 넘어지고 말았다. 일어나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연주자도, 파티장에서 웃고 박수를 보내던 그 많은 사람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고, 아버지만 혼자 넓은 밭 도랑 한가운데 덩그러니 누워있었다. 아버지의 무서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다시 소년으로 화자가 변경된다. 소년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아버지의 이야기 “악령들의 잔치”에 대해 말한다. 선생님은 이것은 모두 “환상”이라고 하면서,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으면 금요일 수업에 오너라”라고 한다. 이야기는 어린 소년이 금요일에 학교에 가서 꼭 강의 를 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여 마무리된다.

이 소설은 자디드(jadid) 사상을 바탕으로 쓰였는데, 이 이야기는 공포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소년의 내면세계를 어린이의 시선에서 조망한다.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던 민간신앙에서 벗어나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려던 자디드 계몽주의 사상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진라르 바즈미

● 다국어 표기 Jinlar bazmi(우즈베크어), Пир злых дух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압둘라 커드리아, 자디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kitoblardunyosi.uz/image/cache/catalog/001-Kitoblar/003_boshqalar/002_badiy/2023/jinlar-bazmi-550x550h.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Qodiriy Abdulla, “Cinlar Bazmi (Cinler Şöleni)” (aktaranlar: Aziz Merhan-Nuran Kılıç), *Türk Dünyası Dil ve Edebiyat Dergisi*, Yıl 2015, Sayı 39, 209, pp.209~212.

Qodiriy Habibulla, *Otam haqida xotiralar*, Toshkent: Gofur Gulom, 1983.

Xondamir Qodiriy, *Abdulla Qodiriy ta'rif adib*, Toshkent: Abdulla Qodiriy nomidagi xalq merosi nashriyoti, 2004.

Qodiriy Xondamir, *Abdulla Qodiriy*, Diyorlari: Toshkent: Yangi asr avlodi, 2007.

I E154 | 악사라이 대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ksaray Great Mosque

‘악사라이 대모스크’는 오스만 시대의 기록에는 ‘카래란오으루 메흐메드 베이 모스크’(Karamanoğlu Mehmed Bey Camii)라는 명칭으로 나와 있으며 대모스크(Ulu cami)의 칭호는 후에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모스크의 후원자와 건설 일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다. 모스크에 존재하는 설교단에 적힌 일자를 기반으로 해석할 경우 아나톨리아 셀주크 조의 술탄 ‘메수드 1세’(Sultan I. Mesud, 재위: 1116년~1155년)시대에 건설했고 ‘클르츠아르슬란 2세’(II. Kılıçarslan, 재위: 1155년~1192년) 시대에 수리했다는 학설이 있다. 이 설교단에 적힌 건축가는 ‘호자 누쉬텐긴 엘 제말’(Hoca Nûştegin el-Cemâl)이다.

다른 설로는 악사라이 박물관에 있는 이 모스크의 석문을 기반으로 ‘카래란오으루 메흐메드 2세’(Karamanoğlu II. Mehmed, Sultanzâde II. Mehmed Bey : 재위: 1398년~1399년, 2차 재위: 1402년~1420년, 3차 재위: 1421년~1423년) 시대였던 1407년에 새롭게 복구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학설 역시 비문을 기반으로 해석하여 모스크가 ‘메흐메드 베이 2세’(II. Sultanzâde Nâsireddin Mehmed Bey, 재위: ?~1423년)시대 때 건설을 시작하여 그 아들인 ‘이브하림 2세’(II. İbrâhim, 재위: 1424년~1464년) 시대였던 1431년 건설을 완료했으며 설교단은 셀주크 시대의 건축물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 비문에 적힌 건축가는 ‘메흐메드 피루제 베이’(Mehmed Firuze Bey)이다.

당시 오스만 공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했던 투르크멘계의 공국이었던 카라만 공국(1256년~1483년)은 자신들이 셀주크 조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다소 의도적으로 셀주크 조의 양식과 전통을 이어 나갔다. 따라서 카라만 공국의 건축물은 대체로 새로운 양식이나 발전은 없는 편이다. 그렇기에 사실상 양식만으로는 건축물의 건설 연도를 알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분명한 것은 남아있는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명확한 흔적이다. 모스크는 1706년에 미너렛이 추가되었고 1883년 다시 한번 복구공사를 거쳤으며 1901년 ‘샤드르반’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악사라이 대모스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1925년 전체적인 복구공사를 거치면서 정문에 변화를 주었고 미너렛과 샤프르반 역시 새롭게 건설했다. 1980년에는 돔까지 새롭게 건설되었다.

이 모스크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으로 건설되어 있다. 서쪽 벽에 5개, 북쪽 벽과 남쪽 벽에 3개의 부벽이 존재하며 남쪽과 북쪽 벽에는 두 줄로, 서쪽과 동쪽 벽에는 한 줄로 창문이 나 있다. 남쪽과 동쪽 벽은 오지 아치형의 블라인드아치로 장식했으며 이 아치 내에 창문이 나 있다. 서쪽 벽에는 정문이 있으며 북쪽 벽에 입구가 하나 더 있다. 직사각형 대문은 벽 중앙에 위치해있으며, 무카르나스가 있는 단층 아치가 함께 있다. 그리고 입구 양옆에 벽감이 있다.

대문 양 옆에는 벽기둥으로 이층처럼 보이게 했다. 1층에는 무카르나스가 있는 벽감과 카르투슈와 유사한 문양이 자리하고 있다. 카르투슈 문양의 양옆에는 작은 로제트 문양이 존재한다.



악사라이 대모스크 벽면

2층에는 쉼세(şemse: 태양) 문양 형태로 식물 문양 장식을 볼 수 있으며 전면부 최상단에는 코니스 형태로 되어있고 내부에 식물문양이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장식되어 있다.

모스크 내부는 첨두아치로 연결된 열두 개의 지지대로 2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미흐랍과 무에딘을 위한 공간은 돔과 볼트로 덮여 있다. 그 외에 내부 북쪽에는 무카르나스가 있는 볼트가 존재한다. 이 북쪽 공간은 2층으로 나뉘어있는데, 서쪽으로 연결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설교단은 셀주크 시대에 목재로 만들어졌다. 당시 특징적 양식 중 하나였던 쿤데카리(kündekârî)기술로 만들어졌으며 자개 장식이 되어 있다. 미흐랍은 회반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미너렛 역시 1925년 복구공사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마름돌을 사용해 밑받침은 육각형, 몸체는 다각형, 지붕은 원뿔형으로 만들었다. 위치는 모스크의 남서쪽으로 건물과는 떨어져 있다.

이 모스크의 정확한 건설 연도를 알기 어려우나 어떤 학설을 지지하든 카라만 공국의 건축에 대해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약사라이 대모스크, 약사라이 울루 자미, 아크사라이 울루 자미, 아크사라이 모스크

● **다국어 표기** Aksaray Ulu cami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약사라이 대모스크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large/uploads/ulu-camii-5_0.jpg?format=jpg&quality=50

약사라이 대모스크_정문 상단부

https://www.kulturportali.gov.tr/contents/images/ulu-camii-4_0.jpg

약사라이 대모스크 전면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9/9d/AksarayUluMosque.jpg/1024px-AksarayUluMosque.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kulturportali.gov.tr/turkiye/aksaray/gezilecekyer/ulu-camii-karamanoglu-mehmed-bey-camii>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Kurtbil, Zeynep Hatice. "Aksaray Ulucami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2, İstanbul: TDV, 2012, pp.83~84.

I E155 | 악사라이 술탄 한

- 시기 A.D. 1000년 ~ A.D.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대상 숙소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ksaray Sultan Han

‘악사라이 술탄 한’은 코니아(Konya)에서 94km, 악사라이(Aksaray)에서는 40km 떨어진 곳에 건설된 당대의 가장 큰 대상 숙소로, 전체 크기는 약 4500제곱미터 정도이다. 당시 술탄의 명으로 지은 대상 숙소에는 ‘술탄 한(Sultan Han)’이라는 명칭 붙었는데, 튀르키예 내에 이런 이름이 붙은 대상 숙소 중 가장 크고 예술적 가치가 높다.

대문에는 술루스(Thuluth) 서체로 쓴 비문이 남아있는데 내용은 ‘알라엿딘 케이크바드 1세’(Alaeddin Keykubad I, 재위: 1220년~1237년)의 명으로 1229년에 건설되었다는 것이다. 대문의 양쪽에는 육각형 메달이 있으며 여기에 건축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건축가는 ‘아멜



악사라이 술탄 한 중정



악사라이 술탄 한

레 무함메드 빈 하브란 엘 디미시키'(Amele Muhammed bin Hav(la)n el Dimişki)이다. '알라엣딘 케이크바드 1세'는 시리아 출신의 이 건축가에게 코니아에 모스크를 만들게 한 다음 대상 숙소를 건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후 여러 번의 수리와 복구공사를 거쳤는데 한차례 화재를 겪은 후 1278년 이 지방 태수인 '세라젯딘 아흐메드 빈 엘 하산'(Seraceddin Ahmed bin el Hasan)이 복구했다는 비문을 남기기도 했다.

대상 숙소의 경우 주재료가 석재인데다 외부에는 망루가 있어 언뜻 성처럼 보이기도 한다. 앞으로 튀어나온 대리석 대문과 탑을 합쳐 약 500제곱미터 넓이의 전면은 건축물을 더욱 웅장하게 보이게 한다. 또한 대상 숙소의 벽보다 조금 높고 앞으로 튀어나오게 건설한 대문은 두 가지 색상의 대리석을 교차로 배치하여 장식성을 살렸고 대문의 양옆에는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된 띠가 있으며 전면 아치는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다.

동편은 중정으로 되어있고, 서편은 중정과 연결된 지붕이 있는 홀이 있다. 특히 이 대상 숙소에는 다른 대상 숙소와 달리 기도 공간이 중정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사각형의 기도 공간은 4개의 아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의 미흐랍은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중정의 오른쪽은 장식된 아치 갤러리가, 왼쪽에는 장식된 문이 달린 방들이, 중앙에는 네 개의 볼트가 있는 기도 공간, 더 안쪽에는 홀로 진입할 수 있는 대문이 보인다. 이 대문은 외부 대문과 달리 좀 더 단순하게 장식되어 있다.

아홉 개의 중랑으로 구성된 홀의 중앙에는 빛을 받을 수 있는 돔이 있으며, 이 돔은 볼트, 화려하게 장식된 팬던티브, 무카르나스로 장식된 트롬프로 받혀져 있다. 홀에 그 외의 장식은 없으며 돔의 외부는 팔각뿔 형태로 덮여 있다. 본 대상 숙소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기하학 문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대상 숙소는 당대의 가장 거대한 대상 숙소로써 장식과 건축적 관점에서 후대의 대형 대상 숙소의 모범이 되었다. 또한 건축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집트, 시리아, 이란, 이라크, 크림 아반도,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당대 무역로의 중요한 지점이었던 아나톨리아 코니아 인근의 가장 큰 대상 숙소로서도 의의를 지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크사라이 술탄 한, 악크사라이 술탄 하느, 악사라이 술탄 한, 아크사라이 술탄 하느, 알사라이 술탄 하느, 아크사라이 술탄 케라반사라이

● 다국어 표기 Aksaray Sultan Han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rchive/f/f3/20091126165118%21Turkey.Aksaray004.pn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4/Turkey.Aksaray014.jpg/1200px-Turkey.Aksaray014.jp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0/04/Turkey.Aksaray014.jpg/1200px-Turkey.Aksaray014.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Durukan, Aynur. “Aksaray Sultan Hanı”, *Anadolu Selçuklu Dönemi Kervansarayları*(ed.Hakkı Acun), Ankara: T.C.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2007, pp.141~159.

I E156 | 악사칼

- 시기 근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공동체 ● 유형 소분류2 사회공동체
- 집필자 황영삼, 김홍중 ● 라틴 문자 aksakal (aqsaqal)

유목민 카자흐인들의 기초 공동체인 ‘아울’을 대표하는 원로, 즉 촌장에 해당한다. 대개 나이가 많고 존경을 받는 원로인 악사칼은 전통 사회에서 실질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악사칼은 카자흐인, 우즈베크인, 키르기스인 사회에서도 존재가 확인되며 다만 표기가 현지인 발음에 맞게 되어 있다. 가령 우즈베크 사회에서는 옥소콜(oksokol)이라고 말한다. 악사칼의 뜻은 악(흰, white)과 사칼(수염, beard)을 합한 용어인데 실제로도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의 모습을 보고 악사칼인지 여부를 짐작할 수도 있다.

카자흐인 공동체에서는 남자 나이가 45세에 이르면 ‘카라사칼(검은 수염)’이라고 하는데 현



악사칼

명한 판단력을 가진다는 연령대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70세 무렵이 되면 악사칼이 된다. 그러나 모든 노인이 다 악사칼은 아니다. 그만큼 건강과 지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인품이 있어야 한다. 악사칼은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 해결하는 역할도 하며 사실상 마을 사람들을 거의 다 알고 있으며 마을 경조사에 참석해 젊은이들에게 인생살이에 대한 조언도 한다.

한 동네(아울, 혹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마할라)에서 악사칼은 사회적으로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악사칼의 결정에 순응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윗사람에 대한 존경의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에서 경로 문화가 강한 것은 이러한 전통과도 무관하지 않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악사칼, 역서컬
- 다국어 표기 ақсақал(카자흐어), аксакал(러시아어), oksokol(우즈베크어), Aqsaqqallı(아제르바이잔어), Aksakall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울, 마할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RTGqohN4FQ>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vestnik.kz/aksakal-simvol-mudrosti/>, https://35photo.pro/photo_33031/, <https://forum-eurasica.ru/gallery/image/1928>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1, Алматы, 2004.

Ⅰ E157 | 악순쿠르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송경근 ● 라틴 문자 Aqsunqr's Mosque

셀주크와 맘루크의 역사에서 ‘악순쿠르’라는 이름은 흔히 볼 수 있다. 그중에 술탄 ‘알-나시르 무함마드’와 그의 후손이 지배했던 시절에 악순쿠르는 주요 ‘아미르’ 중 한 사람이자 술탄



악순쿠르 모스크 내부 타일 장식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알-나시르 무함마드’의 사위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그 시대 정치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아미르’이자 술탄 ‘알-나시르 무함마드’의 사냥 책임자였다. 그는 가자와 트리폴리의 지사이기도 했다. 맘루크 시대가 전성기에 이르렀던 무렵 당시 실력자들은 많은 건축물을 남기었다. 고위관리에 불과한 이들이 기념 건축물을 세웠다는 것은 얼마나 맘루크 시대에 지배층의 부가 막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카이로의 밥 알-와지르가에는 1347년에 악순쿠르가 세운 블루모스크가 있다. 또한 사원 주변에도 많은 훌륭한 이슬람 중세 건축물이 즐비하다. 카이로 남문에서 살라딘 성벽을 따라 동쪽으로 250m쯤 걸어가다가 왼쪽으로 꺾은 뒤 언덕을 따라 내려가는 길로 들어서면 이런 건축물

이 즐비한 광경을 볼 수 있다. 특히 블루모스크에는 술탄 ‘알라 알-딘 쿠죽’(1341년 8월~1342년 1월)이 묻혀 있다. 그는 6세에 술탄이 되어 6개월 간 술탄의 자리에 있다가 퇴위당한 후 성에 투옥되었던 허수아비 군주였으며 결국 형제인 술탄 ‘알-카밀 샤아반’(1345년 8월~1346년 9월)에 의해 교살되었다. 그 후 아미르 악순쿠르의 매제였기에 여기에 묻혔다. 이 사원을 블루모스크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1652년~1654년에 ‘이브라힘 아그하’가 푸른색 타일로 이 건물을 보수하면서 넣었기 때문이다.

이브라힘 아그하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친위대인 정예부대 예니체리의 장군이였다. 그 당시 카이로 인근 공동묘지가 짝 차 자리가 없자 많은 오스만인들이 기존의 사원을 재활용했는데 그는 안뜰의 오른쪽에 있는 미너렛 옆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스탄불 혹은 다마스쿠스에서 수입한 오스만식 타일로 사원을 장식했다. 오스만 타일로 장식된 이 사원은 카이로에서 가장 화려해 보이는 사원으로 키프로스 나무, 카네이션, 튜립, 복숭아꽃 등 꽃과 나무 문양이 많이 들어갔다. 이브라힘은 악순쿠르의 사원을 자신의 무덤으로 가로챘으나, 사원 자체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블루모스크

● 다국어 표기 جامع اق سنقر (아랍어), Aksungur Camii (튀르키예어), Oqsungur masjidi (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맘루크, 알-나시르 무함마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9/9c/Aqsunqur_Mosque_DSCF8257.jpg/1024px-Aqsunqur_Mosque_DSCF8257.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최준석, 『함두렐라, 알카히라』, 서울: 메디치, 2009, pp.158~162.

Ahmad “Attayah Allah”, *Al-Qamus al-Islamiyun*, al-Qahirah:Maktabah al-Nahdah al-Misriyah, 1963, V.1, p.150.

Bosworth, Clifford Edmund. *The new Islamic dynasties: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p.76~77.

I E158 | 악시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 지역 ● 유형 소분류2 역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ksy

‘악시’는 악시켄트, 악시케트, 악시카트라고도 불리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이다. 코(Koson)강이 시르다리야강(syrdarya)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 근처에 있다. 현대의 나망간(Namangan) 지역 인근이다. 악시는 B.C. 3세기~2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A.D. 9세기~10세기에는 페르가나의 수도로 존재했다. 그러나 1219년에는 몽골의 침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아미르 티무르(Amir Timur) 시대에 고대 악시 지역에서 5km~7km 떨어진 곳에 신도시라 할 수 있는 쿠르간(Kurgan)이 세워졌다.

『바부르나마(Baburnama)』에서도 악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할 만큼 이곳은 중요한 지역이었다. 『바부르나마』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악시는 15세기 말~16세기 초 강력한 요새였으며 마을은 요새에서 북쪽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15세기 말 페르가나 지역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이 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페르가나의 통치자였던 ‘우마르 샤이이흐 미르저’(Umarshayh Mirzo, 재위: 1469년~1494년)가 악시를 위해 전쟁을 했다는 기록, ‘술탄 무함마드 칸’(Sulton Maxmudxon, 재위: 1388년~1404년)이 악시를 공격했으나 악시의 ‘자한기르 미르저’(Jaxongir Mirzo, 1356년~1376년)의 추종자들이 본 요새를 지켰다는 기록 등이 『바부르나마』에 남아 있다. 또한, 『바부르나마』에서는 ‘버부르’(Babur, 우즈베크어 표기: Bobur, 버부르)가 사마르칸트를 떠나 안디잔으로 돌아올 때 악시가 정치적인 격변기로 인해 혼란에 빠졌으며, 버부르와 자한기르 미르저 사이에 예정되었던 평화 협정에 따라 악시를 포함한 시르다리야 북부 영토가 자한기르 미르저에게 넘어갈 예정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버부르는 사마르칸트를 다시 정복하고 그의 동생으로 하여금 안디잔의 지배권을 넘길 계획이었다. 그는 그 계획에 성공했으나, 사르이풀 전투에서는 패전하여 악시를 차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당시 악시 요새를 공격했던 ‘아흐마드 탄발’(Axmad Tanbal, ?~1504년)의 세력이 더 강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 다른 기록에서 버부르는 당시의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을 점령했던 ‘무함마드 샤이버니

이'(Muhammad Shayboniy, 1451년~1510년)가 악시를 공격했을 때 충실한 베크(bek)이었던 도스트베크(Do'stbek)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언급하며 그를 추모한 적이 있다. 이렇듯 주요한 도시였던 악시는 1620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악시의 요새(qo'rg'on)와 근교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지역 주민 대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고고학 발굴 작업 당시 무늬가 있는 도자기를 비롯하여 코칸트 칸국 동전이 발견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악스

● 다국어 표기 Aksy(영어), Aysi(우즈베크어), Aksi(튀르키예어), Аксы(키르기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Ахраров.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в Узбекистане”, Исследования городища Ахсикет 1960 г, № 8, 1962.

Ахраров, И., “Новы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с городища Ахсикет XIV-XVI веков.”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в Узбекистане. №№8-9, 1969.

I E159 | 악시암 нама즈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형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Akşam namazi

무슬림은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행한다. 예배의 명칭은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데 임사크(İmsak, 아랍어 파즈르 Fajr): 새벽예배(동 트기 전) 외올레(Öğle, 아랍어 주흐르 Zuhr): 정오예배 이킨디(İkindi, 아랍어 아스르 Asr): 오후예배 악시암(Akşam, 아랍어 마그립 Maghrib): 저녁예배 야트(Yatsı, 아랍어 이샤 Isha): 밤예배라 부른다

‘악시암 нама즈’는 그중 4번째 예배로 일몰 때 한다. 예배 시각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기에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 예배 전에는 반드시 소정례(압데스트)를 해야 하며 크게 오염된 경우에는 대정례 후 소정례를 해야 한다. 무슬림은 예배할 때 신을 향해 절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바로 서서 절을 하고 난 후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오는 일련의 동작을 ‘라크아’(rak‘ah)라고 한다.

하루 예배때 하는 라크아는 모두 17번이다. 각 예배 당 규정된 라크아 횟수는 임사크 2회, 외올레 4회, 이킨디 4회, 악시암 3회, 얏스 4회다. 저녁예배는 수니와 시아 간 시차가 다소 있다. 수니와 달리 시아는 석양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 예배를 한다. 또 저녁 예배를 한 후 잠시 시차를 두고 밤예배를 한다. 그래서 시아파의 예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아파가 하루에 세 번만 예배한다고 주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새벽예배만 수니와 같이 하고, 정오예배 후 오후예배, 저녁예배 후 밤예배를 각각 잠시 시차를 두고 이어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기에는 세 번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배를 다섯 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녁예배는 전통 무슬림 사회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몰과 함께 하루가 끝나고 새날이 시작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악삼 нама즈
- 다국어 표기 Salat al-Maghrib(아랍어), Akşam namazi(튀르키예어), Shom namozi(우즈베크어), Şam namazi(아제르바이잔어), Ақшам намазы(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압데스트, 주마, нама즈, 월레 нама즈, 이킨디 нама즈, 악시암 нама즈, 얏스 нама즈, 두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OzzOs4uvY_c<https://www.youtube.com/watch?v=ppLV1AA59ko><https://www.youtube.com/watch?v=JPDCDT90LfY>
- 참고문헌(오프라인) Monnot, G. “Şalât.”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 vol. 8, Leiden: Brill, 1995, pp.925~934.

I E160 | 악오르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기관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Aqorda

‘악오르다’는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에 위치한 대통령궁을 뜻한다. ‘악’(white)과 ‘오르다’(horde)의 합성어로서 대통령궁을 의미할 때는 두 단어를 붙여서 ‘악오르다’(Akorda 혹은 Aqorda)로 표기한다.



카자흐스탄 대통령궁 '악오르다'

이곳은 카자흐스탄이 1997년에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당시 악몰라, 현재명은 누르술탄)로 이전할 때 신수도에 걸맞는 대통령궁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건축되었다. 2001년에 기공해서 2004년에 완공된 4층 건물은 중앙에 둥근 돔 모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산 대리석을 수입해서 아름다움과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누르술탄을 통과하고 있는 이십강 좌안에 위치해 있다. 건물 높이는 80m이며 누르술탄 도시의 상징탑인 바이테렉이 인근 30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1층은 1,800제곱미터에 이르며 대통령이 주관하는 연회 행사에 사용되며 기자회견장도 배치되어 있다. 2층은 사무실 공간, 3층에는 정상간 회담장 및 주요 고위직 인사와의 회의가 열리는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각종 조약 체결 등이 이루어진다. 4층 또한 다양한 회의 및 행사 등이 거행되는 몇 개의 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도서관 및 사무실 등이 있다.

카자흐스탄의 백악관이자 청와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은 건물 외형에서 카자흐인들의 전통 가옥인 유르타를 연상케 하고 누르술탄의 도시적 특징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한편 악오르다는

몽골 지배기에 형성된 킵차크 칸국을 구성했던 하나의 칸국으로서 오늘날 카자흐스탄 중북부 지역에 형성된 역사적인 국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악오르다 세력이 15세기에 남하하여 오늘날 우즈베크인과 카자흐인의 국가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고로 오늘날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의 명칭이 바로 역사적 실체였던 악오르다와 무관하지 않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크오르다
- 다국어 표기 Ақорда(카자흐어), Акорд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대통령, 유르트, 누르술탄
- 멀티미디어 링크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소재 대통령궁인 ‘악오르다’의 모습
https://www.youtube.com/watch?v=ThmH4O2_-VE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akorda.kz/ru>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1, Алматы, 2004.

I E161 | 악체

- 시기 A.D. 10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화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Akçe

‘악체’는 오스만 제국 초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최초의 은화에서 유래한 용어로 ‘돈, 화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악체는 튀르크어의 ‘깨끗한, 흰, 청결한’의 의미를 가진 ‘ak’ 과 지소접미사인 ‘+CA’가 결합하여 “작은 흰것”을 의미한다. 유럽인들은 그리스어 아스프론(Aspron)에서 기원하여 오스만 사람들이 사용했던 통화를 ‘아스퍼’, 혹은 ‘아스프레’(asper/aspre)라 표현했다. 악체라는 용어는 12세기 셀주크 조부터 사용되었지만, 1327년(이슬람력 727년) 오르한(Orhan Gazi 1281년~1362년)이 오스만 제국의 독자적인 화폐 악체 은화를 도입하면서 공식적인 화폐 단위로 위치를 확고히 했다.

악체 은화는 당시 6크라트(Kirdts), 즉 은 90%합금으로 주조되었다. 무라드 2세 통치 기간에는



바이에지드 2세 시대의 악체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악체의 무게가 다소 감소했지만 순도의 기준과 무게까지 꽤 잘 유지 되었다. 하지만 메흐메드 2세, 베이아지드 2세, 셀림 1세 직위 기간에 악체의 크기는 표준보다 5% 정도 감소하여 무게는 3.75 크랏(Kirdts)정도가 되었고, 이후 16세기가 되어서 쉴레이만 1세와 셀림 2세 때는 악체 자체가 표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무게가 더욱 줄어들어 1.5 크랏(Kirdts)이 되어 두께 자체도 더 얇아지게 되었다. 무라드 4세 이브라힘 및 메흐메드 4세의 경우 무게와 크기는 이전 시대와 비슷했지만 은의 함량 자체는 70%으로 그 이후에는 50%까지 감소했다. 악체는 마흐무드 2세 통치까지 계속해서 주조되어 사용되었지만, 17세기가 되어서 그 가치가 점점 감소하여 탄지마트 시기에는 발행이 중지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악체, 아크체
- 다국어 표기 آقچه(오스만투르크어), Akç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라드 2세, 메흐메드 2세, 셀림 1세, 무라드 4세, 쉴레이만 1세, 마흐무드 2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8/86/1692_osmanli_2_beyazid_ankara_886.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Campo, J. E. *Encyclopedia of Islam*. Infobase Publishing, 2009.

I E162 | 악타반 쉬브르드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지진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Akhtaban Shubyryndy

‘악타반 쉬브르드’는 1722년~1723년에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재앙으로서 동쪽에서 준가르족이 침입하면서 카자흐 민족이 큰 곤경에 처했던 일을 말한다.

당시 카자흐인들의 대부족 연합체인 대, 중, 소쥬즈들 모두에서 기아와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았다. 17세기 후반부터 카자흐인들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준가르인들이 세력을 키우고 카자흐인들의 땅을 침략하기 시작했으며 1722년 말에 청나라의 세력에 밀리던 준가르 제국이 서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듬해 봄부터 본격적인 원정을 개시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발하쉬 호수 동쪽 지대 즉 일리 지방을 비롯하여 추이 강변 그리고 시르다리아 강변 지역까지 준가르 제국의 대부대가 카자흐인들의 땅을 침범했던 것이다. 이 전투로 인해 약 10만 명의 카자흐인들이 희생되었는데 그중에는 일반 백성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카자흐인들은 침략을 피해 살고 있던 땅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며 키우던 가축과 가옥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반면 준가르인들은 일리 지역에서 시작하여 제티수 지방 그리고 남부의 사이람, 투르키스탄 그리고 타슈켄트까지 점령했다. 점령된 지역은 대부분 대쥬즈의 영역이 많았고 북부 일부 지역은 중쥬즈 영역, 그리고 남서부 지역에는 소쥬즈 영역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카자흐인들이 외침을 받아 피해를 당했다. 나아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던 생활 공간도 상실하면서 기름진 목초지마저 잃게 되었다. 이렇게 연이어 터전을 잃어간 카자흐인들의 위축을 틈타 불가 지역의 칼묵인(준가르, 오이라트계)과 코사크족 그리고 바쉬키르인이, 남쪽에서는 히 및 부하라 우즈베키즈인의 진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위기는 보겐바이 바트르 장군 등 영웅적인 카자흐인들의 등장과 아블라이 칸의 노력으로 곧 극복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악타반 쉬비린디, 악타반 쉬브르드
- 다국어 표기 Ақтабан шұбырынды(카자흐어), Годы великого бедствия(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역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Hu7yBWk1WqQ>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caa-network.org/archives/8718>
- 참고문헌(오프라인) Қазақ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2, Алматы, 2005.

I E163 | 안개 낀 슈샤 산 꼭대기

- 시기 A.D.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노래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Şuşanın dağları başı dumanlı

「안개 낀 슈샤 산 꼭대기(Şuşanın dağları başı dumanlı)」라는 민요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인기 있는 민요 중의 하나이다. 이 곡은 신비로운 슈샤의 자연미를 묘사하고 있는데, 내용은 사랑에 빠진 연인을 위해 부르는 노래이다. 시의 후렴구에서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의 눈썹과 머리카락을 묘사하면서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한다.

20세기에 아제르바이잔 하넨대(xanəndə, 주로 전통음악 무감을 부르는 가수)인 ‘한 수원스키’(Xan Şuşinski)가 이 노래를 최초로 불렀고, 가사도 썼다. 이 곡은 인기를 얻으면서 전통 음악인 민요로 불리기 시작한다. 한 수원스키(Xan Şuşinski)는 이 노래를 도시 슈샤에 헌정했다. 이 곡은 아제르바이잔 전통 악기인 타르(Tar)와 카만차(kamança) 연주로 부른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안개 낀 슈샤 산 꼭대기’라는 구절 자체로 비판을 받았다. 일부 학자들이 이 문장이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소비에트 정권은 슈샤 산 정상에 안개에 낀 이유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따져 물었다. 다음은 민요의 가사 전문이다:

안개 낀 슈샤 산 꼭대기

빨간 블라우스, 초록 치마를 입은 당신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당신 눈썹과 머리카락은 또 왜 이렇게 예쁜지

당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말없이 웃고만 있는 당신
 별빛 반짝이는 슈샤의 밤 별빛들보다 더 아름다운 당신
 여인들이 길가에 앉아 연인을 기다리고 있네
 당신 눈썹과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예쁜지
 당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말없이 웃고만 있는 당신.
 사방에서 들려오는 슈샤 소식
 이사 블로그는 칭송하네
 산을, 정원을, 여인을, 평원을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슈샤는 다르르 바쉬 두만르
- 다국어 표기 Şuşanın dağları...(튀르키예어), Tops of the Shusha(영어) Шушинские горы(러시아어), Şuşanın dağları başı dumanlı(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youtu.be/_P1tKp96zkQ?si=tNnGL-JxNDCGLCAH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0 cildde, 1 c., Bakı, 2018. |Anatolloğlu A., Qədim el havalarımız: Musiqi folkloru, Qobustan: Sənət Topplusu, № 4, 2012, S.86~89.
 Köçərli İ., Aşiq havalarında musiqili-poetik sintez problemlərinin tədqiqi, *Musiqi Dünyası*, №2/47, Bakı: Xalq mahnıları, 2014, s.54~56.

I E164 | 안개 낀 태브리즈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소설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Foggy Tabriz

『안개 낀 태브리즈(Dumanlı Təbriz)』는 아제르바이잔 작가인 ‘맘매드 새이드 오르두바디’(Məmməd Səid Ordubadinin, 1872년~1950년)가 쓴 역사소설이다. 이 소설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고 평가되는데, 문학평론가들은 아제르바이잔 문학사 최초의



『안개 낀 태브리즈(Dumanlı Təbriz)』 표지
 Source: <https://static.insales-cdn.com/images/products>

소설이며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여긴다.

이 작품은 1933년~1948년에 고대 그리스 서사시에서 발전한 소설의 일종인 에포페야(roman-epopeya) 형식으로 쓰였다. ‘epopeya’는 고대 그리스어 ‘epos’에서 유래되었는데, ‘사건에 대한 넓고 상세한 서술’을 의미한다. ‘epopeya’는 서사시(epic) 장르 중 하나이다. 이 소설은 1905년~19011년에 발생한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남아제르바이잔인들의 저항과 투쟁 그리고 이란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전제정권과 헌법 혁명을 지지하는 민주 세력 간의 투쟁을 다루고 있다.

소설 속에서 갈등은 이란의 전제 정권(Iran’s despotic regime)과 헌법혁명(Məşrutə hərəkatı, 헌법 혁명)을 지지하는 민주 세력 간에 일어난다. 주요 등장인물은 셋타르 칸(Səttar xan)과 바그르 칸(Bağır xan)이다. 이들과 함께 작가는 새매드 칸(Səməd xan), 새르다르 래시드(Sərdar Rəşi), 마흐루 카눔(Mahru xanim), 미스 한나(Miss Hanna), 튀튀치오굴르(Tütüncüoğlu) 등 역사적, 예술적 인물들의 이미지를 재현해냈다.

등장인물 중 셋타르 칸(Səttar xan)은 남아제르바이잔 출신으로 하자르 왕조의 6번째 왕이자 페르시아의 샤(Shah) 모함마드 알리 샤 가자르(Mohammad Ali Shah Qajar)의 독재에 저항하는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이다. 그리고 국민영웅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이란의 헌법혁명을 지지하면서 이란에 민주정권이 수립된 후 남아제르바이잔이 독립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인물이다.

또 다른 등장인물인 바그르 칸(아제르바이잔어 Bağır Xan; 영어 Baqir Khan, 1870년~1916년)은 이란에 거주하는 투르크 민족 출신으로 셋타르 칸(영어 Sattar Kahn, 1866년~1914년)과 연합하여 이란에서 발생한 헌법 혁명을 주도한 인물 중의 한명이다. 그리고 그는 당시 1907년 타브리즈(Tabriz, 아제르바이잔어 태브리즈)에서 군사혁명에 합류한 후 조직된 군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었다.

작가는 이런 각각의 인물들이 가진 개인의 특성을 살려내려고 노력하면서 외국 침략자들이

남아제르바이잔과 이란에서 시행한 식민지 정책에 대하여 날카롭게 폭로하고 있다. 그 결과 작품은 남아제르바이잔과 이란에서의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브리즈의 역사, 문화, 생활도 독창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소설에 묘사된 사건들과 이야기들은 주인공 애빌해센 베이(Əbülhəsən bəy)의 말로 서술된다. 그러나 그의 신원은 작품의 결말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쓰였으나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사건과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자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건이 어떻게 될지, 주인공인 애빌해센 베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속 궁금해하며 작품에 빠져들게 된다.

『안개 낀 태브리즈』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지속적으로 재판 인쇄되었으며, 러시아어와 페르시아어로도 번역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두만르 태브리즈
- 다국어 표기 Sisli Tebriz(튀르키예어), Tumanli Tabriz(우즈베크어), Тавриз туманный(러시아어), تبریز مه آلود(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tatic.insales-cdn.com/images/products/1/4679/191164999/Ordubadi_Dumanli_Tebriz_Esas_1_.png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I E165 | 안드레아스 티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오스트리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Andreas Tietze

투르크학자이자 동시에 언어학자인 안드레아스 티체(Andreas Tietze)는 1914년 4월 26일 오스트리아 빈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라틴

어, 고대 및 현대 그리스어를 비롯하여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들을 공부했다. 1932년 비엔나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역사학과 함께 튀르키예어, 아랍어 및 페르시아어를 배웠다. 재학 도중 1935년~1936년 튀르키예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1937년 박사학위를 마친 다음 오스만 제국 역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튀르키예로 떠났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여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의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로 혼란스러웠을 때도 그는 귀국 대신 튀르키예에 머물며 투르크 언어, 역사, 문학과 관련한 많은 책과 논문을 집필했다.

티체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로부터 튀르키예로 이민 온 다른 학자들과 함께 튀르키예 이스탄불 대학에서 일하며 독일어와 영어를 가르쳤다. 1958년 그는 튀르키예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동양 언어 문화학부에서 명예 교수로서 재직한다. 그때부터 이미 미국에서 투르크학자로서 이름이 나 있었기에 오스만 시대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반영한 저서를 몇 권 출판한다. 그리고 1973년에 그의 고향 오스트리아로 다시 돌아가 비엔나에서 오스만 제국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 집중한다.

1984년 비엔나 대학교에서 은퇴한 그는 이후 이스탄불 보아즈이치 대학에서 잠시 근무를 하기도 했다. 투르크학의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티체는 주로 오스만 제국 시대의 언어, 문학 및 역사에 중점을 두고 연구에 매진했다. 그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아나톨리아 방언으로 유입된 어휘들, 오스만 제국 시대에 사용되었던 다른 언어, 문화들과 관련된 문헌들, 카라괴즈(Karagöz), 수수께끼, 14세기부터 현재까지 오스만시대에 작성된 어휘학, 어원학과 관련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다. 그의 연구 성과는 이후 투르크학 연구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 기본 연구 자료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티체의 죽음 이후 미완성으로 남은 티체의 튀르키예어 역사 사전은 그가 남긴 초고와 분류법을 활용하여 투르크 학자들에 의해 완성되어 출판되면서 투르크 언어학의 또다른 기념비적 작품이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안드레아스 티에트체, 안드레아스 티에체

● 다국어 표기 Andreas Tietze(영어)

● 연관 검색어 카라괴즈

● 참고문헌(오프라인) Anetshofer, Helga. “Andreas Tietze”, *Türkiye Diyanet Vakfı İslam Ansiklopedisi*, Cilt. 41. İstanbul, 2012, pp.147~148.

I E166 |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코노노프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Andreï Nikolaevič Kononov (Andrey Kononov)

투르크학 발전을 위해 평생 연구에 몰두했던 러시아 언어 학자이자 투르크학자인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코노노프 (Andreï Nikolaevič Kononov)는 1906년 10월 14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2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장에 취직해 근무하다가 1926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지금의 국립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의 동양학과에 입학하여 오스만 제국 역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코노노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저명한 투르크 역사학자인 바르톨드(W. Bartold), 사모일로비치(N. Samoylovič), 세르게이 말로프(Sergey Malov) 등에게서 수학하면서 동시에 튀르키예어도 배웠다. 그

후 193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튀르키예어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1938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의 동양학과가 모스크바로 이전하게 되면서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의 과학 아카데미 동양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임명된다. 그리고 1939년 튀르키예어 어순과 관련된 논문을 썼으며, 1948년 에빌 가지 바드르한의 세체레이 테라키메에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50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의 정교수로 임명된다.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코노노프는 1957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의 명예 회원, 1958년 소련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으며, 1974년에는 소련 과학 아카데미의 정회원이 되었다. 1953년부터 1964년까지 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동양학부 학장을 맡아왔으며, 1978년에는 인디애나 대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코노노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학교에서 PIAC 메달을 수여받았다. 오르콘 투르크 문법에 관련된 연구 공적으로 1985년에는 이스탄불 대학교 투르크학 연구소로부터 ‘투르크학 우수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코노노프는 문법, 음성학, 통사론, 어원학, 투르크 역사와 텍스트 분석과 관련한 여러 투르크학 분야에서 연구 업적을 쌓아 왔는데, 특히 문법학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안드레이 코노노브, 니콜라예비치 코노노브, 니콜라예비취 코노노브
- 다국어 표기 Кононов, Андрей Николаевич(러시아어), Andrej Nyikolajevics Kononov(헝가리어), Andrey Nikolayevich Kononov(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오르콘,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ru/d/d4/%D0%9A%D0%BE%D0%BD%D0%BE%D0%BD%D0%BE%D0%B2.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kononov-andrey-nikolayevic>
- 참고문헌(오프라인) Yalçın, Süleyman Kaan. “Andrey Nikolayevič Kononov”, *Bizimkülliye*, 18, 2017, 96~98.

I E167 | 안디잔 봉기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봉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ndijan uprising of 1898

안디잔 근처 밍테파 마을에 살던 예션 무함마달리(Muhammadali eshon, 1856년~1898년)는 당시 영향력 있던 낙쉬반드 교단의 성직자 밑에서 공부를 했다. 1886년~1888년에는 메카로 순례를 했고, 그 후 『무지한 자를 위한 교훈(Ibrat ulg'ofliyn)』이라는 책을 쓴다. 명성을 얻은 그에게 수많은 제자와 동료가 생기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식민체제에 불만을 타파하기 위해 러시아의 통치체제를 폐하고 페르가나를 칸국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식민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안디잔, 마르글란 및 오쉬 진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 거사와 관련하여 낙쉬반드 형제단이 재정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안디잔 봉기 참여자들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1898년 5월 17일 무하마드알리 에선은 봉기를 주도하여 무기를 가지고 안디잔으로 향했다. 곤지 마을에서 200명의 반군과 합류했고 카라쿠르간과 옥치를 지나 코일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사령관 오이브나자르를 비롯한 그의 부하들과 합류했으며, 안디잔에서는 상인 알리보이가 고용했던 190명의 무장 세력이 합류했다. 그러자 그 규모가 약 2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만큼 당시 차르 통치에 반발심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에선이 이끄는 반군은 안디잔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제20대대를 침공하여 약 30개의 막사를 약탈하여 소총을 탈취했으며 병사들을 공격했다. 수비대 병사들이 약 30분 동안 저항했고, 이때 발생한 총격으로 반군 중 1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남은 반군은 후퇴했다. 주둔군은 22명이 사망했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안디잔의 식민 관료를 비롯한 일반 시민, 특히 러시아인은 이 사태로 각자 집으로 피신했다. 이후 재편성한 군대에 의하며 반란군뿐만 아니라 당시 안디잔의 무슬림 일반 시민이 살해를 당했고, 봉기는 진압당했다. 에선을 비롯하여 반군 체포를 위해 러시아 군대는 밉테파로 향했고 약 3시간에 걸친 총격과 수색 끝에 에선은 아르슬론보프 근처 타시코프리크에서 체포됐다. 니콜라이 2세는 봉기의 주동자들을 처벌할 것을 명령했고 에선의 지인과 동료들은 끔찍한 박해를 받았다.

결국 1898년 7월 18일 무함마드 에션과 동지 5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한, 안디잔 봉기에 참여했던 동지 18명이 시베리아로 추방되었으며, 시민 388명은 총살형을 받았다. 그 외에도 수백 명이 투옥되었다. 안디잔 봉기는 진압되었지만, 그 후 반식민지운동은 페르가나 계곡 전역에서 지속되었다. 안디잔 봉기로 인하여 러시아의 억압적인 식민지 정책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안디잔 봉기는 독립 투쟁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안디잔 반란

● 다국어 표기 Andijan uprising of 1898(영어), Andijon qo'zg'oloni(우즈베크어), Андижанский мятеж(러시아어), Өндіжан көтерілісі(카자흐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t2oD>

● 참고문헌(오프라인) Usmonov, Q. M.Sodiqov; S.Burxonova,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d'Encausse, Helene Carrere. "Organizing and Colonizing the Conquered Territories", *Central Asia, 130 years of Russian dominance : a historical overview* (ed: Edward Allworthpp),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4, pp.151~171.

I E168 | 안바르 어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Anbar Otin

안바르 어틴(Anbar Otin: Anbar Otin Farmonqul qizi)은 우즈베크 근대 여성 시인이다. 그녀는 1870년에 코칸드(Qo'qon)의 가난한 장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녀의 이름 어틴(Otin)은 구식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혹은 신학 및 샤리아(shariyat)를 아는 지식인을 뜻한다.

안바르 어틴은 우즈베크어 및 타지크어로 작품을 쓰며 시인으로 활동을 했다. 그녀는 '알리셰르 나비이'를 자신의 스승으로 삼았으며, 동시대 시인 무키미이(Muqimiy), 푸르캣(Furqat), 자브키의(Zavqiy)와 함께 활발한 토론과 문학 교류를 했다.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고전시집 『데번(Devon)』이 있다. 이 시집은 41편의 가잘(g'azal), 4편의 무함마스(muxammas), 1편의 기타(qit'a), 1편의 마스나비(masnaviy), 1편의 무스타조드

(mustazod)로 구성돼 있다.

그녀는 계몽주의 사상에 깊이 심취했다. 특히 그녀의 세계관과 철학을 담은 『흑인들의 철학(Qarolar falsafasi)』은 당대 정치·사회적 이슈부터 철학적 문제 그리고 문예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녀의 세계관을 표현했다. 안바르 어틴의 작품들은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에 소장돼 있다.

그녀가 해학과 풍자를 작품 속에 직설적으로 투영시켰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들도 많았다. 그녀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그녀를 높은 계단 위에서 떠밀었고, 이 사고로 인하여 그녀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안바르 어틴(Anbar Otin) 사망일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안바르 오티
- 다국어 표기 Anbar Otin(우즈베크어), Анбар АТЫ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코칸드, 우즈베크어, 알리셰르 나비이, 우와이시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Karimov G'ulom, *O'zbek adabiyoti tarixi uchinchi kitob*, Toshkent: O'qituvchi, 1975.

I E169 | 안장

- 시기 A.D.1000년~A.D.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불교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ntsang

안장은 13세기 위구르의 불경 번역가이자 시인이다. 그에 대한 기록은 정문해(程文海, 1249년~1318년)가 지은 진국문정공신도비(秦國文靖公神道碑) 같은 비문에 남아 있다. 안장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으나 고향은 베쉬발릭(Beshbaliq, 別石八里) 즉, 지금의 북성고성유지(北庭故城遺址)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다섯 살에 불경과 샤스트라(Śāstra: 불

교 경전 주석서)를 형과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아홉 살에 스승을 모시기 시작했다. 기록에 의하면 매우 영민했고, 열세 살에 『아비달마구사론 샤스트라(Abhidharmakośabhāṣya-śāstra)』를 암송했으며, 열다섯 살에는 모든 불교와 유교의 주요 경전을 읽었다고 한다.

열아홉 살에 법에 따라 몽골 제국의 궁정에 출입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처음 궁정에 들어갔을 때는 몽케 칸(Möngke Khan, 재위: 1251년~1259년)이 제위에 있었다. 이때, 아리크부카(Ariq Böke, 1219년~1266년)와 만난 것으로 보인다. 안장이 아리크부카와 관계를 맺은 것을 기록한 것은 도교를 비판하기 위하여 작성된 『변위록(辨僞錄)』이 유일하다. 안장은 당시 도교와 불교의 논쟁에서 아리크부카의 통역을 맡았다.

쿠빌라이 칸(Kublai Khan, 재위: 1260년~1294년)의 즉위 때, 안장은 자신의 저서인 『보장론현연집(寶藏論玄演集)』과 번역 작품인 『상서무일편(尚書無逸篇)』, 『정관정요(貞觀政要)』, 『신감(申鑒)』을 바쳤다.

1260년 쿠빌라이 칸은 반란을 일으켰던 아리크부카와의 서신 교환을 위하여 안장을 일종의 대사로 삼았다. 그렇게 아리크부카 반란 후 안장은 한림학사가 되어 원나라 궁정에서 황제의 명령으로 『상서(尚書)』, 『자치통감(資治通鑑)』, 『난경(難經)』, 『본초서(本草書)』 등을 번역했다.

이 외에도 티베트어 불교 경전과 중국어 대장경을 비교하기 위한 『지원법보감동총록(至元法寶勘同總錄)』에서 안장은 번역 용어 감수 및 『성도불구모이십일종례찬경(聖敕度佛母二十一種禮贊經)』의 번역을 맡았다. 둔황 석굴에 남은 문서에 의하면 안장은 『성묘길상진실명경(聖妙吉祥真實明經, Mañśrīnāmasaṃgīti)』의 번역을 맡았으며, 1263년 『백단불의 중국여행 기록(티베트어: tsan dan gyi sku rgya nags na bzhuḡs pa'i byon tshul bzhuḡs so)』을 한역본에서 위구르어로 번역했다.

1293년 그가 사망한 후 그의 집에서 『계송(Gāthā)』, 『불교 찬송가』, 『잡시』 등 12권이 발견되었고, 쿠빌라이 칸은 그의 시를 출판하도록 명령했다. 그의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는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위구르어-한역 번역과 시인으로서의 작품으로도 가치가 충분하지만, 초기 생애와 가족 관계, 업적 등을 통해 당시 위구르와 원나라의 불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인물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안창

● 다국어 표기 Antsang X(a)nlim-Kävši(위구르어), 安藏(중국어), Antsang(튀르키예어), Antsang(위구르어)

● 연관 검색어 대방광불화엄경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aayak, Tümer. “Eski Uygurca Avataṃsaka-sūtra Üzerine Yapılan Çalışmalar”, *Akademik Dil ve Edebiyat Dergisi*, 3 (3), pp.354~373.

Kılıç, Ayşe. *Budist Dönemi Türk şiiri üzerine incelemeler; An-tsang'a ait bir şiir metni:Metin, tercüme, notlar, dizin, tipkibasım* (basılmamış yüksek lisans tezi), Ankara, 2012.

Kitsudo, Koichi. “New Light on the Huayan jing in Old Uighur from the Krotkov Collection and Yoshikawa Photographs”, *Essays on the Manuscripts Written in Central Asian Languages in the Otani Collection: Buddhism, Manichaeism, and Christianity*, Kyoto, 2017, pp.105~153.

I E170 | 안탈리아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ntalya

안탈리아(Antalya)는 지중해 지역 여행을 위한 튀르키예의 관문도시이다. 해발 35m 높이의 석회석 지반 위에 세워진 항구 도시인 안탈리아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대표적 휴양 도시다. 매년



안탈리아 구시가지



안탈리아 옛 항구

휴가철이 되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안탈리아로 몰려오며, 안탈리아 국제공항은 유럽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 도시는 B.C. 158년 페르가몬의 ‘아탈로스 2세’에 의해 건설됐으며, 옛 도시 명은 그의 이름을 딴 ‘아탈레이야’였다. 하지만 B.C. 133년에 로마인의 손에 넘어간 것을 시작으로 7세기에는 아랍인의 침략을 받았고, 1206년 셀주크 투르크인이 오기 전까진 비잔틴에게 장악당했으며, 성지로 향하는 십자군의 통로가 되기도 했다. 또한 1390년에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 1919년에는 이탈리아가 점령했다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이끄는 독립전쟁이 승리하면서 신생 튀르키예 공화국의 영지가 되었다.

안탈리아는 관광뿐만 아니라 비옥한 땅에서 나는 농산물과 과일로도 유명하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는 튀르키예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더불어 목화밭을 배경으로 면방직



하드리아누스의 문

공업도 발달했다. 오랫동안 번영을 누린 안탈리아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유물들이 산재해 있어서 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칼레이치(Kaleiçi)라고 불리는 구시가지가 중요한 관광지 중의 하나인데 자갈이 박힌 좁은 길 양쪽으로 튀르키예의 전통가옥들이 들어서 있어 매우 정취 있는 거리이다. 오스만 제국 시대 건축양식의 가옥들이 숙소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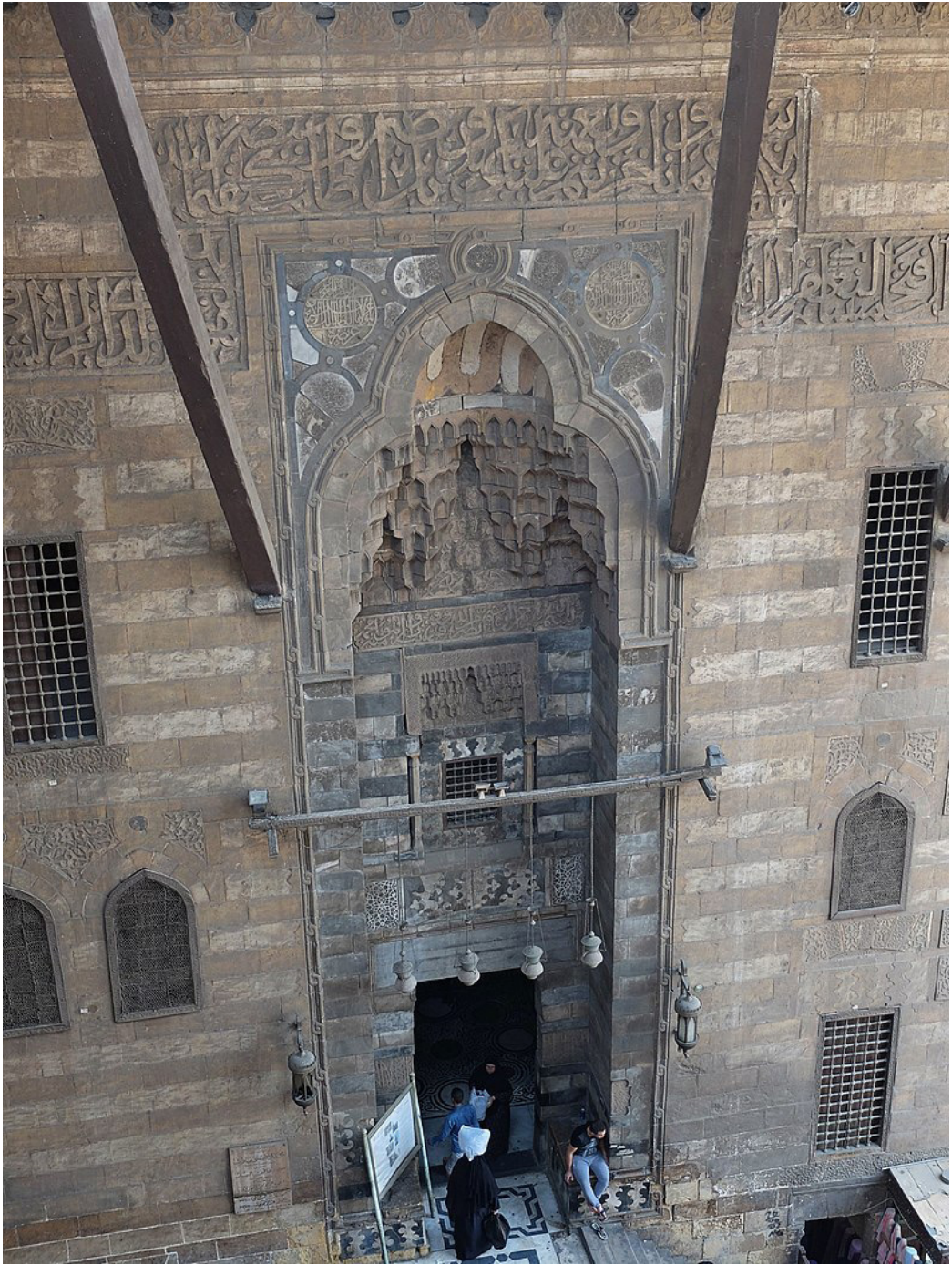
안탈리아 고고학박물관은 그리스 로마 유물들의 정수를 볼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다. 인근에는 시대, 페르게 그리고 아스펜도스 등의 고대 팜필리아 지역의 유적들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안탈야
- 다국어 표기 Attalia(그리스어), Antaly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citypopulation.de/en/turkey/cities/>
- 참고문헌(오프라인) 유재원, 『터키, 1만년의 시간여행 01』, 책문, 2010.

I E171 | 알-구리 복합단지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집트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복합단지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Sultan al-Ghuri Complex

‘술탄 알-구리 복합단지’는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한 모스크와 영묘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단지(Complex)이다. 1503년~1505년 사이에 건설된 알-구리 복합단지의 건물 동쪽으로는 영묘와 급수탑이 있고, 서쪽으로 모스크가 위치한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이 복합단지를 조성한 이는 ‘칸수 알-구리’(Qansuh al-Ghuri, 재위: 1501년~1516년)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맘루크 조를 다스린 마지막 술탄으로 오스만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르다가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영묘에 안치되지 못했다. 알-구리는 잔인한 성정을 가진 데다 미신을 신봉하고 독재적 정권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예술 영역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알-구리 복합단지 모스크 입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그는 카이로 내에 위치한 시장(알-무이즈 주변부) 중심 지역에 자신의 영묘를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지역의 가옥과 교육시설 등은 강제 철거한 다음 1502년에 복합단지 건설에 착공했다. 알-구리의 목적은 단순히 자신의 영묘를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언자 무함마드 및 3대 칼리프인 우스만(Uthman)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코란(Quran)을 보관하고자 했다. 그래서 1504년 복합단지를 완공했으나, 영묘 상단에 위치한 돔 구조물이 불안정하게 설계되어 1512년과 1513년, 두 번에 걸쳐 재건했다. 그리고 1517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인 셀림 2세는 복합단지에 있던 대리석 장식을 떼어내 이스탄불로 가져갔다. 이후 19세기에 영묘의 돔과 첨탑이 교체되었고, 1992년 지진으로 붕괴된 부분을 2000년에 복원했다.

이 복합단지는 카이로 중심에 위치한 시장을 가로지르는 길을 가운데를 끼고 양옆으로 건설되었다. 복합단지가 있는 시장에는 그들이 드리워지며 특히 해당 시장은 직물과 의류를 주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현재도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 길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모스크와 미너렛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영묘와 급수대가 있다.

복합단지 남쪽에서 바라보면 미너렛과 돔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이다. 길을 중심으로 분리되어 설계되었지만 남쪽에서 바라보면 동일한 건물과 같은 느낌을 받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파란 세라믹을 활용한 장식이 인상적이다.

서쪽의 모스크는 두 가지 색을 활용하여 장식하는 맘루크 조의 다른 건축과 유사한 양식을 보인다. 특히 거대한 입구를 뜻하는 이완(iwan)으로 출입구를 구성했으며 이완 상부와 옆면은 아랍어 명문을 활용해 장식이 되어 있다. 미너렛은 이집트에서 주로 활용된 직사각형 기둥 형태의 타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로 건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건축 직후 벽돌로 대체되어 현재에 이른다. 동쪽에 위치한 영묘는 두 개의 입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 건물 남서쪽에는 영묘 묘실이 위치하며, 서쪽에는 이슬람 교육시설인 칸카(Khanqah)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영묘가 복합단지로 함께 건설될 경우 모스크 옆면이나 미흐랍 앞쪽에 영묘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알-구리 복합단지의 경우 특이하게도 모스크와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으며, 이슬람 교육시설 칸카와 나란히 위치하도록 설계되었다. 영묘 자체는 사각형 구조로 원래는 벽돌 돔으로 덮여 있었으나, 현재 평평한 나무 지붕으로 대체되었다. 최초의 돔은 맘루크 시대 건축물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로 1860년 완전히 붕괴했고 현재와 같은 구조로 변경되었다.

알-구리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1516년 마르즈 다비크 전투(Marj Dabiq) 후 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묘에 안치하지 못했다. 1505년 알 구리보다 먼저 사망한 딸과 아들, 어머니가 이곳에 안치되었고, 오스만 제국이 카이로를 점령한 이후, 카이로를 통치했던 술탄 투만바이(Sultan Tumanbay)가 안치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술탄 알 구리 콤플렉스
- 다국어 표기 Sultan al-Ghuri Complex(영어)
- 연관 검색어 셀림 2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6/61/Al-Ghuri_madrassa_portal_DSCF8976.jpg/800px-Al-Ghuri_madrassa_portal_DSCF8976.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ehrens-Abouseif, D. *Islamic architecture in Cairo: An introduction*. Brill, 1989.

I E172 | 알 누르 모스크(모슬)

- 시기 A.D. 10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라크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al-Nouri Mosque

‘알 누르 모스크’는 1170년에 건립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알 말리크 누르 앳딘’으로 알려진 셀주크 왕조의 아타베크(Atabeg) 정권인 잔기 조(Zangid) 두 번째 술탄 이름을 사용해 명명되었다. 누르 앳딘은 제2차 십자군 전쟁의 중요한 인물인데, 특히 시리아의 알레포와 이라크의 모술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모술에 건설한 모스크가 현대까지 전해졌다. 알 누르 모스크는 이라크 모술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1170년에 건설된 이후 복합단지로 확장되었고, 수차에 걸쳐 개축되었으나 2017년 모술 전투 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12세기까지 모스크는 기도 공간과 교육시설이 공존하여 복합단지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학교의 위치와 형태와 관련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미너렛도 함께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남겨진 기록이 없다. 19세기에 이르러 알 누르 모스크에 병원, 학교가 추가



파괴된 알 누리 모스크 모습

로 건설되며 확장되었다. 미너렛의 모습이 마치 남성이 절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꼭추’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예배실의 경우, 초기 이슬람 종교 건축과 동일한 형태, 즉 다수의 기둥이 천장부를 지지하는 열주 양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꾸준히 모스크 내부 중정을 재포장하고, 새로운 세정 시설을 건설했다. 1980년 발발한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미너렛 한쪽이 3m~4m 가량 기울어진 모습이 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탔다. 2014년에는 주변 지역을 추가로 매입하여, 모스크 기능을 확대하려 했으나 이라크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는 2017년 알 누르 모스크를 폭파시켰다. 이로 인하여 미너렛과 예배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에 2018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유네스코는 알 누

르 모스크를 재건하기 위한 협약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 누리 사원
- 다국어 표기 مسجد النور (아랍어), al-Nouri Mosque (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dVNU>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archdaily.com> > Projects > Mosque > Iraq
- 참고문헌(오프라인) Matloob, F. A., & Sulaiman, A. B. “The impact of spatial organization on locating the Friday mosques in the traditional Islamic city–The Old Mosul city as a case study”, *Jurnal Teknologi*, 71(1), 2014, pp.2718~2723.

I E173 | 알 파라비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중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우덕찬, 황영삼 ● 라틴 문자 Al-Farabi

알 파라비(Al-Farabi)는 중아시아의 파라브 족 지금의 오프라르 출신의 투르크계 정치철학자이다. 그의 정식 이름은 ‘Abū Nasr ibn Muhammad al-Fārābī’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많은 저술에 대한 뛰어난 주석서를 내놓아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어 ‘제2의 사부(師父)’로 일컬어진다.

알 파라비는 이슬람의 정치철학이 서양 중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상가였다. 단순히 그가 복원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들이 광범위하게 읽혔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정치철학이 ‘계시’와 ‘이성’의 관계를 고민하던 중세 철학자들에게 시의적절한 혜안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의 사색은 철학을 비롯하여 논리학, 수학, 천문학, 의학,



카자흐스탄 지폐 속의 알 파라비



알 파라비 동상(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연금술, 음악, 정치학 등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었으나, 가장 탁월한 것은 철학 영역이었다. 그를 선행한 킨디(Kindi)가 있었는데 그는 이슬람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최초의 이슬람 철학자로 이성주의적 방법을 가장 먼저 코란에 적용시켰던 인물이다.

알 파라비는 킨디와 마찬가지로 신플라톤주의적 입장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일하려 했는데, 그의 학설 중에서 특히 후세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본질(本質)’과 ‘존재(存在)’의 구별이었다. 그는 본질은 ‘…이다’라는 정의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이 있다’는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본질에 있어 존재란 우연적이며 이 우연적 존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본질인 것, 즉 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질과 존재에 관한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성찰은 이후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하여 철학의 중요한 테마가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 하라비

● **다국어 표기** **فارابی محمد بن محمد بن نصر**(페르시아어), Al-Farabi(영어), Ferabi(아제르바이잔어), Forobiy(우즈베크어), Әл-Фараби(카자흐어), Fârâbî(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정치철학 다시보기, 알 파라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0187&cid=51609&categoryId=51609>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알 파라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3092&cid=40942&categoryId=40099>

● **참고문헌(오프라인)** *Al-Farabi's Commentary and Short Treatise on Aristotle's De interpretatione* (Trans: F. W. Zimmerm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Alfarabi's Philosophy of Plato and Aristotle (Trans: Muhsin Mahdi),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I E174 | 알기스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Algys

‘알기스’는 야쿠트의 전통적인 축복 의식인데, 투르크어로 축복하거나 인정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 알기스(алгыс)에서 유래했다. 또한 천상의 신에게 정화와 축복의 기원을 하는 샤먼의 의례 중 하나이다.

알기스의 내용은 기원, 축복, 또는 ‘저주’인 키리이스(кырыыс)로 구성된다. 키리이스는 매우 드물게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며 보통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로 사용되는 주제는 목축, 수공업, 대장장이의 의례, 가정사, 자손과 관련된 내용이다. 전통적으로 야쿠트인은 멀리서 온 손님을 운문 형태의 알기스로 맞이한다. 알기스의 모든 의례는 불의 정령이나 특정 장소의 정령을 숭배하고 ‘오수하이(осухай)라는 원무를 통해 정령과 접촉한 뒤, 위대한 레나 강가에서 피운 의식용 장작에서 나온 재를 이마에 바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

알기스에서 축복은 의례 시로 이루어지는데, 북방 투르크계 민족에게도 알기스와 유사한 축

복 의례들이 존재한다. 돌간인 신화에도 운문 형태의 알기스가 존재하며, 투바인은 알기시타르라는 샤먼 축복 의식을 행한다.

야쿠트인의 알기스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신이나 수호신을 부르는 것, 두 번째는 부탁하는 것, 세 번째 부분은 신을 대접하는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그스
- 다국어 표기 Алгыс(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인, 투바인, 돌간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dGvoW66-G4>
- 참고문헌(온라인) <http://akademiyadukhovnosti.ru/2018/08/17/%D0%B0%D0%BB%D0%B3%D1%8B%D1%81/>
https://samopoznanie.ru/trainings/algys__shamanskaya_praktika__obryad_blagosloveniya/?date=543214
- 참고문헌(오프라인) Ефимова Л. С. Алгыс якутов в системе жанров обрядовой поэзии народов Сибири // Вестник СВФУ. 2007. №3.

I E175 | 알-나시르 무함마드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송경근 ● 라틴 문자 Al-Nasir Muhammad

행동이 너무 포악하여 살해된 술탄 ‘알-아쉬라프 칼릴’(재위: 1290년~1293년)의 동생 ‘알-나시르 무함마드(Al-Nasir Muhammad)’는 술탄 ‘칼라운’의 아들이다. 그는 9세의 어린 나이에 술탄에 오르다 보니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두 번이나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의 재위 기간은 1293년~1294년과 1299년~1309년이었다. 세 번째 집권기(1310년~134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30년 이상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맘루크 조의 빛나는 강성기를 만들어냈다.

그의 집권 기간 동안 많은 공공건물이 세워졌고, 지진으로 부서진 건물들이 복원되었다. 그리고 ‘아불 피다아’ 같은 많은 학자들이 출현하여 활약했다. 그는 압제적 아미르들이 농민들에



알-나시르 무함마드 모스크(카이로, 이집트)

게 강요하던 부당한 세금을 무효화시키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과도하게 부유해진 아미르들에게 부족한 세금을 벌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기근이 발생한 기간동안 아미르들이 곡물의 매점 매석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리고 엄격한 법 집행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규정을 어긴 사위를 붙잡아다가 매질을 한 적도 있다. 이런 엄격한 태도는 국가 경제가 빠르게 운용되고 국민 생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했다.

그는 국가의 세입과 세출이 분명하게 운영되게 만들었으며 디완의 관리에게는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뇌물을 받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다. 술탄 ‘알-나시르 무함마드’의 세번째 집권기에 몽골의 일 칸이 네번째 침략을 감행했을 때도 격파하여 도리어 일 칸의 군주가 분노로 병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술탄이 귀국할 때 카이로에서는 북문인 나스르 문에서부터 비단 양탄자가 길에 깔렸고,

술탄과 병사들이 그 위를 밟고 시내를 통과해서 살라딘 성까지 행진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그런 군인들 뒤에는 700명의 몽골 포로가 쇠사슬에 묶인 채 발을 끌려가고 있었으니 몽골 포로의 목에는 다른 몽골 병사의 수급들이 몇 개씩 걸려 있었고 모두 합하면 1,000개가 넘는 몽골 병사들의 수급이 술탄을 따르는 병사들의 창 끝에 꽂혀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술탄 알-나시르 무함마드는 번성하는 이집트의 경제를 바탕으로 안정된 재원을 이용해서 많은 건축물을 지어 ‘건축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는 1320년~1340년 사이에 33개의 이슬람사원, 무덤, 마드라사를 건축했는데 그가 남긴 3대 건축은 나일강에서 살라딘 성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수도교, 카이로의 변화가 ‘베인 알 카스린’에 있는 그의 무덤 및 마드라사, 왕성인 살라딘 성 내의 이슬람 사원이다.

또한 정복 전쟁에도 활발히 참여했기에 그의 지배 기간에 맘루크 국의 영토가 크게 확장되어 북쪽으로는 시리아 다마스쿠스, 알레포, 동쪽으로는 아라비아반도의 메카, 제다, 서쪽으로는 리비아의 트리폴리가 맘루크 국의 영토가 되었다. 번영하는 국가 체제를 통해 풍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던 그는 한없는 사치를 부렸다.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동식 채소밭을 만들어 순례를 가셔도 신선한 채소를 먹었고, 그의 자식들도 부친이 준 재원으로 온갖 사치를 부렸다.

더욱이 전반적으로 그의 통치는 가혹했다. 수많은 고위 대신을 처형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했다. 세금 징수는 엄격했고, 법 집행은 무자비했다. 반정부 시위는 그의 집권 말기로 갈수록 빈번해져 갔으며, 그의 사후에는 내란, 기근, 페스트의 만연으로 이집트는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맘루크의 건축왕

● 다국어 표기 محمد الناصر (아랍어), I. Muhammed (튀르키예어), Nəsrəddin Məhəmməd (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맘루크, 일 칸국, 칼라운

● 참고문헌(오프라인) 송경근, 「이집트 맘루크조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0집, 한국이슬람학회, 2000, pp.20~21.

최준석, 『함두릴라, 알카히라』, 서울: 메디치, 2009, pp.150~157.

Ahmad ‘Audat, Jamil Baidun, Shahadah al-Natur, *Tarikh al-Maghul wa al-Mamali*, Irbid: Dar al-Kind, 1990, p.112.

Afaf Lutfi al-Sayyid Marsot. *A Short History of Modern Egyp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30~31.

Bosworth, Clifford Edmund. *The new Islamic dynasties: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p.76~77.

Said 'Abd al-Fatah 'Ashur, *Misr wa al-Sham fi 'Asr al-Awubiyin wa al-Mamalik*, Bayrut: Dar al-Nahdah al-Arabiyyah liItaba'ah wa al-nshri, pp.213~216.

I E176 | 알다르와 주흐라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Aldar and Zuhra

알다르와 주흐라(Алдар и Зухра, Алдар менән Зөһрә)는 바시키르 민족의 형성을 다룬 구비 서사시이다. 19세기 초 러시아 시인 벨랴예프(Т.С. Беляев)가 쿤카스 세첸의 구연을 채록하여 러시아어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번역 후 출판되지는 않았고, 「나의 밤들. 바시키르 민담들」이란 제목의 원고가 1961년 러시아 국립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러시아어 원고는 바시키르 시인 가리포프(Рами Гарипов)가 바시키르어로 다시 번역했다. 1992년에 7세기 후반의 묘지에서 알다르와 주흐라의 아랍식 삽화가 발견되면서 이 서사시의 오래된 역사를 증명해 주었다.

알다르와 주흐라는 미녀 용사 주흐라에 관한 이야기들로 진행된다. 그녀는 어린시절부터 활 쏘기와 말타기를 연마했는데,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그녀를 당해낼 자가 없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용맹했고 남장을 하고 괴물과 싸웠기에, 다른 남자 용사들은 그녀를 두려워해서 감히 청혼하지 못했다. 한편 미래를 알기 위해 길을 떠난 주흐라는 일곱 종족(후일 바시키르 민족이 되는)의 용사 알다르를 만나게 된다. 서사시는 주흐라와 용사 알다르의 만남, 사랑, 그리고 이들의 결혼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바시키르의 세태와 관습, 전통, 신념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으며, 여러 부족이 바시키르 민족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다르-주흐라
- 다국어 표기 Алдар и Зухр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세션

● 멀티미디어 링크

● 참고문헌(온라인) [АЛДАР И ЗУХРА/http://bashenc.online/ru/articles/97289/](http://bashenc.online/ru/articles/97289/)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ашкирское наро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Эпос// Сост. М. М. Сагитов. Комментар. Н. Т. Зарипова, М. М. Сагитова и А. М. Сулейманова. — Уфа, 1987. — Т. I. — С. pp.335~463.

I E177 | 알도 갈로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이탈리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Aldo Gallotta

알도 갈로타(Aldo Gallotta)는 1941년 7월 17일 살레르노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등학교 때 부터 오스만 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스만 제국의 역사적, 문화적 발전의 복합성에 감탄했던 그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뿐만 아니라 알레시오 봄바치(Alessio Bombaci)의 지도하에 현대 튀르키예어와 오스만 투르크어를 배웠다. 교육을 마친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같은 대학 튀르키예어문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갈로타는 16세기 세이드 무라드(Seyyid Murad)가 작성한 『Gazavât-ı Hayreddin Pasha』에 대한 텍스트를 언어학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했으며, 문서가 작성되던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오스만 제국과 지중해 지역을 조사했다. 더불어 그는 아나톨리아반도에서의 투르크인들의 확산에 대해 분석하며 오구즈 신화와 오스만 제국의 기원에 대한 논평과 함께 아나톨리아 셸주크 공화국의 베일레르베이의 칭호 사용에 대해 상세히 연구했다.

루이지 보넬리(Luigi Bonelli), 에토레 로시(Ettore Rossi), 알레시오 봄바치(Alessio Bombaci) 등 이탈리아 동양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오스만 고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또한 이탈리아 기록 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던 오스만 제국 당시의 문서 판본들을 출판했다. 그는 나폴리와 토리노의 국립 도서관에서 튀르키예어 사본을 목록화하는 두가지 프로젝트 외에도 프로젝트 외에도 사본들에 대한 연대기적 접근과 이론 연구를 수행했다.

기오반니 바티스타 몬탈바노(Giovanni Battista Montalbano)가 라틴어로 작성한 튀르키예어 문법책, 희랍문자로 작성된 튀르키예어 필사본 문서 등 다양한 텍스트를 분석했다.

갈레타의 이런 언어학에 대한 관심은 오스만 제국과 유럽의 상호 관계 분석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그는 비교적 연구가 덜 이루어진 남부 이탈리아의 투르크인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기도 했다. 말년에 그는 오스만 제국의 지리에 관심을 갖고 많은 미공개 작품과 피리 레이스(Piri Reis)의 저서 『키타브 바흐리예(Kitab-ı Bahriye)』를 연구했다.

또한 16세기 인도양에서의 확장이라는 맥락에서 오스만 제국에 대한 포르투갈인들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97년 6월 18일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도 갈레타, 알토 갈로타
- 다국어 표기 Aldo Gallotta(이탈리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Şakiroğlu, Mahmut. “Aldo Gallotta”, 77, V/30 1986, s.336~338.

I E178 | 알라 웃 딘 칼지 영묘와 마드라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인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마드라사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Ala ud din Khalji's tomb and madrasa

‘알라 웃 딘 칼지’(Ala ud din Khaji, 재위: 1296년~1316년)는 인도에서 번성했던 델리 술탄국 왕조 중 하나인 칼지(Khalji) 조의 술탄이었다. 특히 ‘알라 웃 딘’은 델리 술탄국의 행정 개혁을 이루어낸 인물이자 몽골의 침략을 막아냈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던 몽골을 몰아내고 해당 영토를 수복하기도 했다.

알라 웃 딘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도 유명했다. 그가 1296년 건설한 하우스지 알라이(Hauz I Alai) 저수지는 델리의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되었으며 14세기 초에는 시리 성벽(Siri Fort)을 건설하기도 했다. 또한 쿠틀 미나르 복합단지 남쪽 관문 역할을 하는 알라이 다르와자(Alai Darwaza) 건설을 지원하며 1311년 완공했다. 그리고 쿠틀 미나르의 두 배 규모인



알라 웃 딘 칼지 마드라사

Source:<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알라이 미나르’(Alai Minar) 건설을 시작했으나, 알라 웃 딘이 사망하면서 건설이 중단되었다.

쿠티브 미나르 복합단지 안에는 알라 웃 딘의 영묘와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가 있었다. 먼저 알라 웃 딘의 영묘가 마드라사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처럼 영묘를 마드라사 내부에 건설한 것은 인도에서 최초로 시도된 형태였다. 한편 마드라사는 인도에서 번영했던 무굴 제국 건축 이전 양식의 건설된 현존하는 건물 네 곳 중 하나로서 알라 웃 딘 칼지가 직접 건설하여 사망하기 1년 전인 1315년에 완공되었다. 특이한 점은 위치상 쿠티브 미나르 복합단지 내부 동쪽 측면에 L자 형태의 구조로 건설되었는데 동쪽 측면에서 보면 중앙에 위치하지만 쿠티브 미나르와 쿠와틀 이슬람 모스크에서 보면 남서쪽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드라사에 갈 때는 북쪽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었으며 일곱 개의 작은 공간과 두 개의 돔으로 덮인 거대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돔의 경우 높게 솟아 있는 형태로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돔을 장식하는 펜던티브 양식을 이용했는데 이것이 당시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사용된 건축 형태였다.

마드라사 남쪽에는 세 개의 작은 방이 있다. 이 중 가운데 방에 알라 웃 딘 칼지의 무덤이 있다. 가운데 방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4.9m와 3.7m으로 벽은 두께는 얇고 석회암으로 만들어졌다. 영묘 지붕에 있던 돔 장식은 현재 파괴된 상태이며 영묘로 들어가는 좁은 복도는 마드라사와 영묘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영묘 안에 있는 알라 웃딘의 관의 크기는 2.1m X 1.2m로 관 자체는 전혀 장식이 되어 있지 않다.

알라 웃 딘의 영묘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소원을 빌기 위한 순례지로 사용되었는데, 2018년 인도에서 알라 웃 딘과 관련한 영상이 제작되고 보급되면서 이 장소를 찾는 순례객이 더 늘어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라 웃 딘 칼지 마드라사와 영묘
- 다국어 표기 Ala ud din Khalji's tomb and madrasa(영어)
- 연관 검색어 쿠티 미나르 복합단지, 마드라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5/53/Alauddin%27s_Madrasa_%283362834285%29.jpg/1024px-Alauddin%27s_Madrasa_%283362834285%29.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urton-Page, J., & Michell, G., *Indian Islamic architecture: Forms and typologies, sites and monuments*. Brill, 2007.

I E179 | 알라거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Alagou

알라거우 유적은 중국 신강성 투루판지구(吐魯番地區) 툽터신현(托克遜縣), 천산 산맥 중간의 산맥 자락에 위치한다. 무덤은 10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무덤 상부에 돌을 돌렸는데, 그 모습이 장방형이다. 그리고 크기 3.2m, 너비 1.6m, 깊이 6.1m 정도의 무덤 구덩이를 파서 안쪽 바닥에 나무를 깔고 벽과 두께도 통나무로 관을 짜서 시신을 안치했는데 목실에 가깝다.

알라거우 30호에서는 다양한 유물과 함께 인골이 출토되었는데, 성년 여성으로 밝혀졌으며

두개골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두개골과 흉골 등에는 붉은 물감이 칠해져 있었다. 발굴된 금제품 중에 대표적인 것은 원판형으로 호랑이가 부조된 것인데, 호랑이의 머리와 뒷다리가 붙은 형태이다. 금제 허리띠 장식으로 호랑이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장식도 있다. 표현기법은 맹수가 나는 자세를 타출기법으로 표현했다. 앞발을 뻗고 하체를 만곡하는 형태는 스키토-시베리아 유형에서도 보이는 유물 형태인데 청동제로 된 동물장식이 표현된 기대가 붙은 접시, 목제쟁반과 칠기, 목제 나무 수레의 모형도 함께 출토되었다. 토기는 붉은색 채색토기인데, 교하고성(交河古城), 구서 유적 등에서 출토되는 유무로가 유사한데 신장 중부의 기원전 후한 시기의 특징과 같다.

깊은 묘광과 무덤의 구조, 봉분, 칠기, 금제품 등에서 몽골의 노인 올라 고분과 공통점이 있으며 유적 자체는 절대연대 측정치로 보아서 BC 3세기 경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유적은 인접한 파지리크(Pazyryk) 문화의 특징도 있지만 무덤의 구조는 중앙아시아의 사카 문화와도 닮아 있다. 알라거우 유적을 통해서 일리강 유역에서 사카 문화가 신장 지역 중부로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라거우

● 다국어 표기 阿拉溝(중국어)

● 연관 검색어 투루판지구(吐魯番地區), 托克遜縣

● 참고문헌(오프라인) 新疆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新疆阿拉溝豎穴木槨墓發掘簡報」, 『文物』1期, 文物出版社, 1981.

古麗比婭, 「新疆塞人藝術初探」, 『美術研究』4期, 東京文化財研究所, 1991.

강인옥, 「북흉노(北匈奴)의 서진(西進)과 신강성의 흉노시기 유적」, 『中央아시아研究』13, 중앙아시아학회, 2008.

I E180 | 알라만 베이게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마술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Alaman Bayge

베이게 경기 혹은 알라만(공격) 베이게는 카자흐 유목민들이 축제나 주요 행사 때 행하는 장거리 달리기 말 경주이다. 25km~100km 경주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장소에 따라서 거리가 줄어들기도 하며 대개 10km 거리를 설정하고 달린다. 히포드롬(경마장) 트랙을 몇 바퀴 도는 것으로 순위를 결정하는데 초원과 말이 중요한 생활 수단이던 고대 시기의 유목민들은 장거리 달리기 필수적이었고, 특히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고 재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에 이를 단련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튼튼한 체력을 지닌 말이었는데 초원 지대에서 양육된 말이 선호되었고, 아랍 지역에서 들여온 말은 선택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말을 사육할 때 장거리 경주용으로 키워지는데 말의 건강 상태와 체격 조건을 중시한다. 지구력이 뛰어난 말을 정확하게 골라야 하고, 장거리 경주인 만큼 말의 상태 외에도 선수의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 속도의 완급을 잘 조절해야 말이 덜 지치면서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이 주로 선택된다. 하지만 선택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포상도 큰 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승리자에 대한 존경도 크게 이루어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라만 베이게
- 다국어 표기 Аламан бәйге(카자흐어), Аламан байге(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콕파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old.qazaqtv.com/en/programms/viewArchive?id=23893>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ssembly.kz/ru/ethnos/ru/kazakhi/natsionalnye-igry/alaman-bayga/>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1, Алматы, 2004.

I E181 | 알라만과 졸라만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민담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Alaman and Zolaman

카자흐인들의 전통 민담인 ‘알라만과 졸라만’은 부부간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다분히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 무사 알라만에게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미인인 아내에게 마귀가 접근하여 가정을 파탄내 버린다. 먼저 외눈박이 마귀는 불쌍한 할머니로 변장하여 사냥을 즐기고 있는 알라만의 동정을 사서 집으로 오게 된다. 매일 밖으로 일을 떠나고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마귀는 아름다운 아내를 꾀어 내어 주변의 멋진 남자와 살도록 유혹한다. 솔탄 칸이라는 이 새로운 남자는 이미 넷물로 떠내려온 금발 머리카락의 주인을 찾으려고 마귀에 접근했고 결국 사악한 음모는 성공하게 된다. 여자였던 아내와 딸은 솔탄 칸과 같이 살게 된 것이다. 알라만은 밧줄로 묶여 감금되고 말았는데 딸에게 자신의 소중한 단검을 갖다 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되어 절망적인 상태로 되어 버렸다.

아들인 졸라만은 아버지의 청을 듣게 되었고 단검을 얻은 알라만은 밧줄을 끊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솔탄 칸 및 그 부대를 섬멸하는 동시에 아내와 딸을 장인에게 돌려 보냈다. 마귀는 이에 또다시 변신을 하여 알라만에게 접근하여 또 다른 흥계를 꾸몄으나 이번에는 아들 졸라만의 활약으로 마귀를 죽임으로써 알라만은 비극에서 벗어났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악을 처단하는 전형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부도덕한 아내의 정절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단죄하는 스토리이다. 아내와 딸은 결국 알라만의 장인에게 최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알라만과 졸라만’은 이렇듯 지극히 교훈적이고 권선징악을 표방하는 카자흐인들의 전통 민담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라만과 졸라
- 다국어 표기 Аламан мен Жоламан(카자흐어), Аламан и Жолам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구전문학
- 멀티미디어 링크 카자흐스탄 전통 민담인 알라만졸라만 구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nmaXqPzvWY>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ertegi.ru/index.php?id=1&idnametext=26&idpg=1>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в трех томах. Том первый, Алма-Ата: Жазушы, 1971 г.

I E182 | 알라엠티 저택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궁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laeddin Pavilon

알라엠티 저택(köşk)은 클르츠 아르슬란 4세(IV.Kılıç Arslan, 재위: 1249년~1266년)와 클르츠 아르슬란 2세(II.Kılıç Arslan, 재위: 1155년~1192년)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스만 제국 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1173년에 코니아 궁전을 지었으나 지진으로 무너져 훗날 알라엠티 케이쿠바드 1세(I. Alâeddin Keykubad, 재위: 1220년~1237년)가 수리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이 저택을 통상 알라엠티 저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셀주크의 멸망 이후 이 지역에 세워졌던 카라만 조가 이 저택을 사용했고, 이후 오스만 시대에는 지방관의 관사로 이용하기도 했다. 다만 그런 기간은 백년도 채 되지 않았다. 17세기에는 이 저택에서 돌을 가져가지 말라는 칙령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초에 이미 많이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역을 탐사했던 프랑스 고고학자 찰스 텍시에(Félix Marie Charles Texier, 1802년~1871년)가 남긴 그림에 따르면 원형과 장식은 아직 보존되어 있었으나 이미 대부분 폐허가 된 상태였다. 저택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05년~1908년에 코니아 시장이었던 '제바드 베이'(Cevad Bey)의 명령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동편 벽만 일부 남아 있으며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막을 설치했다. 남은 부분과 과거 기록을 통해 관찰될 수 있는 곳은 성벽과 연결된 궁전의 벨베데레(궁전이나 주택의 위층 또는 정원의 높은 곳에 전망용으로 건조된 일종의 옥상 노대) 일부이다. 이 노대는 벽돌로 만든 콘솔 위에 발코니로 둘러싸인 정사각형의 공간으로 석재로 만들어진 탑 아래는 사자 장식이 있었으며 건물 내부와 외부에는 타일과 스투코 장식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발코니로 나가는 문



복원 작업 중인 알라멧딘 저택 노대

은 첨두 아치로 남색 위에 흰색 양각 비문이 있었으며 여기에 ‘클르츠 아르슬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양각된 판 주변은 팔각형과 별 모양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고, 그 타일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다. 현재는 이 노대 건물과 연결된 수많은 건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 아직 어떤 흔적도 발견된 바 없다. 이처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건축물이지만, 초기 아나톨리아 셀주크 조의 궁전 건축 경향과 타일 예술 및 석고 장식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내부를 장식했던 타일에는 양반다리를 한 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나 기사(騎士)가 있는가 하면, 날개 달린 사자와 같은 전설 속의 짐승도 묘사되어 있다. 타일뿐만 아니라 타일 면 주변에 리본 형식으로 둘러싼 석고 양각에는 달리는 짐승과 이를 사냥하는 사냥개, 말 위에서 용과 싸우는 영웅, 그 외에도 다양한 동물과 새가 조각되어 있다. 타일 중 일부는 대 셀주크 조의 영향을 받아 미나이 기법으로 만들었는데 타일과 석고 장식은 현재 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특히 미나이 기법의 경우 클르츠 아르슬란 시대 말기(1192년경) 코니아에서도 등장했으나 13세기 아

나톨리아에서도 꾸준히 발견된다.

2022년 현재 알라엠티던 저택은 주변 코니아 성벽과 함께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라엠티던 괴쉬퀴, 코니아 알라엠티던 괴쉬퀴, 콘야 알라엠티던 괴쉬퀴, 클르츠 아슬란 괴쉬퀴, 클르츠 아슬란 궁전

● 다국어 표기 Konya Alaeddin Köşkü(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코니아 성벽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dn.islamansiklopedisi.org.tr/madde/2/alaeddin-kosku-1.jpg>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small/SehirRehberi/GezilecekYer/20170213122925224_SelcukluKosku.png

● 참고문헌(오프라인) Sarre, Friedrich. *Konya köşkü (Çev:Şahabeddin Uzluğ)*, Ankara: Türk Tarih Kurumu Basimevi, 1967.

Eyice, Semavi. "ALÂEDDİN KÖŞKÜ"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 İstanbul: TDV, 1989. pp.330~331.

Akok, Mahmut. "Konya Alâeddin Köşkü", *Türk Etnografya Dergisi*, XI, İstanbul, 1968, pp.47~73.

I E183 | 알라이

● 시기 A.D. 15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의례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Alay

‘알라이’는 아마도 비잔티움군의 일부 부대들을 부르는 용어였던 그리스어의 알라기온(allagion)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튀르키예어이며, 오스만어에서 ‘군단’, ‘행진’, ‘군중’, ‘수가 많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19세기 군사 개혁의 시기부터 군대의 연대(regiment) 단위를 의미하는 말로도 쓰였다. 이 이름이 붙은 행진 중에서 널리 알려진 것은 ‘클르츠 알라이으’(kılıç Alay)였는데, 이것은 즉위하는 술탄이 예워 영묘를 방문하여 건국 군주인 시조 오스만의 칼을 차는 의례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 알라이-으 휘마운은 군사 원정의 또 다른 이유는 술탄이 이스탄불을 떠나거나 이스

탄불로 돌아올 때 거행하는 행사였고, ‘쉬르레(sürre) 알라이으’는 성스러운 메카와 메디나로 술탄이 매년 보내는 선물을 떠나보낼 때 궁에서 개최하는 의례였다. ‘메울루드’와 ‘바이람 알라이으’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신일이나 연중 두 번의 종교 명절인 이드(id)에 술탄이 모스크들을 방문할 때 거행했으며, ‘왈리데(valide) 알라이으’는 새로운 왈리데 술탄이 옛 궁전에서 새 궁전(톱카프 궁)으로 건너갈 때에 거행했다. 또한 ‘알라이 베이’라는 용어는 산작이나 에알레트의 기병을 지휘하는, 자신들도 지방에 영지를 가진 지휘관들을 지칭하거나 혹은 행진이 있을 때 거리를 정돈하는 임무를 맡은 차우쉬(çavuş)들 혹은 전투 중에 큰 소리로 명령을 전달하는 자들을 가리켰다.

한편 ‘알라이 코슈퀴’(Alay köşkü)는 톱카프 사라이에 무라드 3세 시대에 지어진 정자로서 술탄들이 거기에서 궁의 담 아래를 지나가는 행진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라이

● 다국어 표기 Alay(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Bowen, H., “Alay.”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1, Brill, 1986, p.358.
Kazıcı, Ziya. “Alay.”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 TDV, 1989, pp.347~348.

I E184 | 알라이 다르와자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인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Alai Darwa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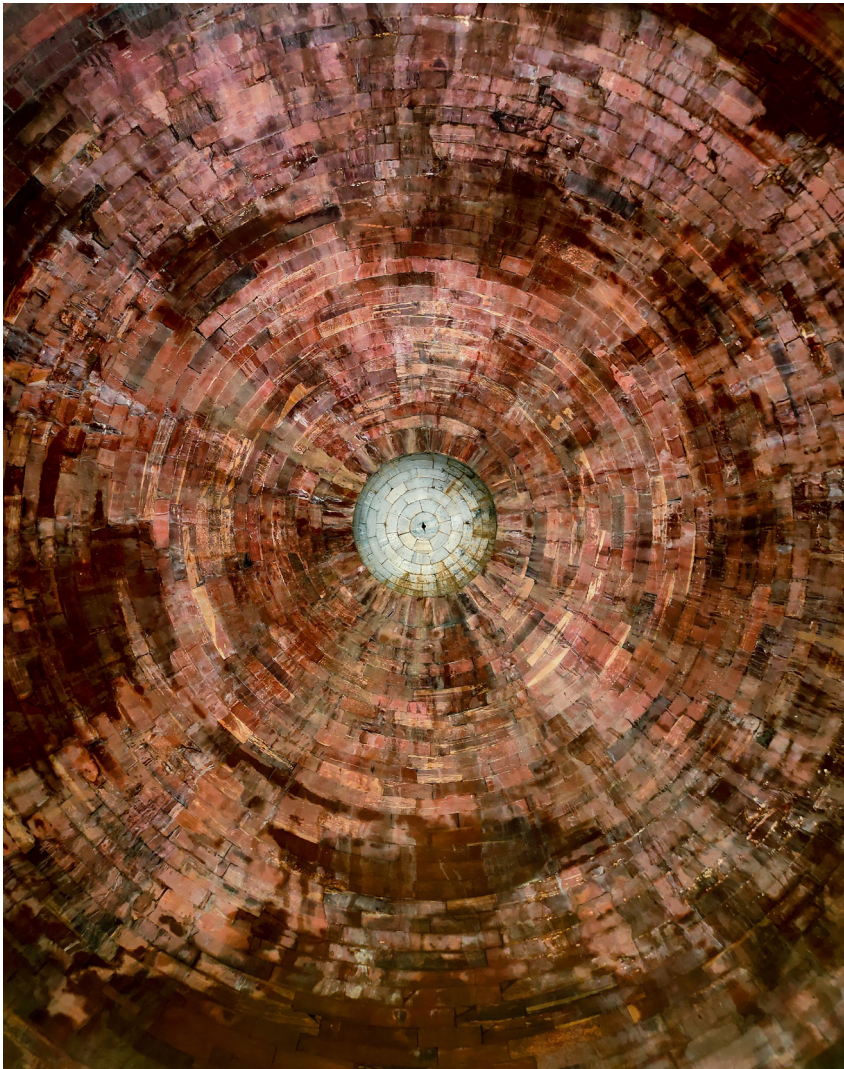
델리 술탄국을 다스리던 칼지 조(Khalji Dynasty)의 술탄이었던 ‘알라 웃 딘 칼지’는 자신의 권력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쿠툽 미나르 복합단지 안에 다양한 건축물을 추가로 건설했다. 이전에 델리 술탄국을 다스렸던 ‘아이박’(Aibak)이 건설한 쿠툽 미나르 두 배 규모의 미나르 건설을 추진하기도 했고, 마드라사를 건설하기도 했다. 그리고 알라 웃 딘 자신은 사후에 마드라사 안에 만들어진 영묘에 안장되었다.



알라이 다르와자

‘알라 웃 딘’이 통치자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대한 첨탑 형태의 미나르인 ‘알라이 미나르’를 건설하는 계획을 진행하면서 옆에 위치한 ‘쿠와틀 이슬람 모스크’의 입구도 증축했다. 아마 모스크의 입구가 알라이 미나르의 규모와 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계획은 모스크로 들어가는 4개 입구 모두에 동일한 형태의 문을 건설하고자 했으나, 1316년 알라 웃딘이 사망함에 따라 공사가 진척되지 못했고, 지금은 완공된 한 개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 문을 일컬어 ‘알라이 다르와자’(Alai Darwaza)라고 부른다.

알라이 다르와자는 쿠와틀 이슬람 모스크의 동쪽 입구에 건설되어 있다. 인도-이슬람 건축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인도 내에 건설된 기념비적 건축물이면서 이슬람 건축 양식을 사용한 고유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알라이 다르와자 내부 돔

구조를 살펴보면 단독 홀로 구성되어 있는 사각형 구조의 건물로, 내부 규모는 각 면이 10.5m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 외벽은 17.2m이며, 높이는 18m에 달한다. 벽은 3.4m 두께로 건설되었다. 멀리서도 조망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 알라이 다르와자는 당시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건축물이었다. 특히 외벽은 붉은 사암과 하얀 대리석을 활용하여 장식되었는데, 알라이 다르와자에서 사용된 이 색감은 후대의 인도-이슬람 건축의 상징처럼 반복해서 사

용되었다. 이전에도 인도 내 이슬람 예술은 페르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색감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인도-이슬람 세계에서 건축에 활용하는 색감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건축에 사용한 아치 구조의 경우 가운데 부분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첨두 아치(pointed arch)를 사용했고, 아치의 끝부분을 약간 안쪽을 향하게 하면서 말굽 아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내부에는 식물 문양의 패턴 장식을 사용했다. 돔의 높이는 14m이다. 인도에서 건설된 최초의 반구형 돔으로, 이전에 건설하여 사용한 반구형 돔은 유지되지 못하고 붕괴했다. 기본적으로 붉은 사암을 사용해 건설했고 외벽에 흰색 대리석을 상감하는 형태로 장식하고 색감을 부여했다. 또한 외벽에는 전체적으로 아랍어 명문 장식이 되어 있다. 외부에 보여지는 전면 장식을 뜻하는 파사드에는 투르크 계열 장식과 패턴이 새겨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라이 다르바자

● 다국어 표기 Alai Darwaza(영어)

● 연관 검색어 쿠틸 미나르 복합단지, 마드라사

● 참고문헌(오프라인) Burton-Page, J., & Michell, G.. *Indian Islamic architecture: Forms and typologies, sites and monuments*. Brill. 2007.

I E185 | 알라이 미나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인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물 ● 유형 소분류2 미너렛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Alai Minar

‘알라이 미나르’는 델리에 위치한 쿠틸 미나르 복합단지 안에 조성된 미완성 첨탑이다. 알라이 미나르를 건설하고자 한 인물은 ‘알라 알 딘 칼지’로 델리 술탄국을 다스린 칼지 조(Khalji Dynasty)의 통치자였다. ‘알라 알 딘’은 델리 술탄국을 앞서 다스린 ‘쿠틸 옷 딘 아이박’이 건설한 쿠틸 미나르보다 더 크고 웅장한 기념비적 건축을 남기려 했다.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알라이 미나르

에서 주로 건설된 미나르는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태의 거대한 첨탑 구조물로 원형에서 다각형까지 형태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을 점령한 것을 강조하고 표출하는 의미, 거대한 건축을 남길 수 있는 권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건설된 것이다.

알라 웃 딘은 아이박을 넘어서는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쿠툽 미나르 높이 두 배 규모의 미나르 건설을 추진했다. 이를 위하여 옆에 위치한 쿠와툴 이슬람 모스크의 입구를 기존의 4배 규모로 건설했다. 이는 알라이 미나르와 동일한 규모를 만들어 균형감을 얻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1316년 알라 웃 딘이 사망하게 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당시 1층 공사만 완료된 상태였는데, 1층의 높이는 24.5m에 달한다. 현재 남아 있는 1층 기단부 장식을 살펴보면 울룩불룩한 물결모양을 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라이 미너렛, 알라이 미나렛

- 다국어 표기 Alai Minar(영어)
- 연관 검색어 쿠트 미나르 복합단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5/5f/Qtub_Complex_Alai_Minar.JPG/1024px-Qtub_Complex_Alai_Minar.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urton-Page, J., & Michell, G. *Indian Islamic architecture: Forms and typologies, sites and monuments*. Brill, 2007.

I E186 | 알라잔 강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강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Alazan

알라잔(Alazan 또는 알라자니(Alazani) 조지아어 표기: ალასანი) 강은 조지아어식 이름으로, 아제르바이잔어로는 가느흐(Qanıx) 강이라고 한다. 이 강은 캅카스 산맥에 있는 디디 보르발라(Didi Borbal, 높이: 2,837m) 산에서 발원하고, 길이는 351km이다. 유역 면적은 12,080제곱킬로미터이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과 조지아 공화국 사이의 국경 일부를 형성하기도 하는 알라잔 강은 민개체비르 저수지(Mingəçevir su anbarı)로 모인다. 퀴르(Kür) 강의 지류이기도 하다.

알라잔 강의 이름은 조지아어와 차후르어의 ‘물’ 또는 ‘습한 곳’을 의미한다는 설이 있으며, 투르크어의 넓은 지역, 넓은 평원을 의미하는 알(al)과 강을 의미하는 ‘외젠-위젠’(özən-üzən)’의 합해진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알라잔 강의 지류에는 일토(İlto), 카벨레(Kabeli), 발라켄차이(Balakənçay), 카헛차이(Kaxetçay), 탈라차이(Talaçay), 가라차이(Qaraçay), 퀴므뤼차이(Kümürüçay), 에이르차이(Əyriçay) 등이 있다. 알라잔 강은 에이르차이(Əyriçay) 지류에 합류한 후 남쪽에서 가느흐-해프타란 계곡(Qanıx-Həftaran vadisi)이 둘러싼 저지대 산악지대를 지나 가파른 경사의 좁은 협곡을 통해 흐른다. 민개체비르 저수지(Mingəçevir su anbarı) 저수지로 흐르는 가블르(Qabrri)



알라잔강

강도 예전에는 알라잔(Alazan)으로 흘렀다.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스트라본(Strabo, 기원전 64년~기원후 24년)의 저작에서 이 강은 자네스(Xanes)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또한, 아바스 전투(Battle of the Abas, 기원전 65년)이 알라잔 강 인근에서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

현대의 알라잔 강은 주로 레프팅과 같은 레저 활동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1990년대에는 알라잔 강의 강한 수류를 이용하여 중국인 투자자들이 소규모의 많은 수력 발전소들을 건설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라자니, 가나흐, 카나흐 강
- 다국어 표기 Alazan çayı(아제르바이잔어), ალაზანი(조지아어), Alazani(튀르키예어), Алазани(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5/5d/Qanix_river.jpg/1024px-Qanix_river.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Sovet Ensiklopediyası*, Bakı, 3-cü cild, 1979, səh. 35.
- Məmmədov Q.Ş., Xəlilov M.Y. *Ekologiya, Ətraf Mühit Və İnsan*. Bakı, “Elm”, - 2006, səh.362~364.
- Rüstəmov, S.Q., *Azərbaycan SSR-Nin Çayları Və Onların Hidroloji Xüsusiyyətləri*. Bakı: 1960, s.251.
- Халилов, Ш.Б., *Водохранилища Азербайджана и их эколог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Баку: 2003, 360 с.

I E187 | 알레비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종단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levi

‘알레비’라는 용어는 튀르키예어로 칼리프 알리를 추종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마치 튀르키예인들이 유태인들을 모세(튀르키예어로 Musa)를 추종한다는 무세비(musevi), 기독교인들을 예수(튀르키예어로 İsa)를 추종한다는 이세비(İsevi)라 부르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알레비 종파는 그 신자 수나 규모면에서 볼 때 튀르키예 내에서 제2의 종파를 형성하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 부족으로 그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혹은 통계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튀르키예 인구의 1/4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알레비들의 대부분은 인종적, 언어적 측면에서 볼 때 서부, 중부 아나톨리아 출신의 튀르키예계가 주를 이루고 약 20%가 쿠르드계가 차지하고 있다. 튀르키예계는 카이세리(Kayseri), 시바스(Sivas) 그리고 디비르이(Divirği)를 잇는 삼각지역을 주 근거지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쿠르드계의 경우, 주로 툰제리(Tunceri), 엘라지(Elazıği) 그리고 무쉬(Muş)등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알레비 종파의 대표교리는 알라(Allah)-무함마드(Muhammad)-알리(Ali)로 표현되는 신의 구현사상과 12이맘 숭배사상이다. 이 종파는 코란의 해석에 있어서도 튀르키예 내 주류 수니파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원래의 코란이 하루에 다섯 번에 걸친 기도, 모스크 참배, 단식, 메카순례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니파가 코란의 중요구절들을 잘못 해석하고 변형시켜 초기의 이슬람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수나나 하디쓰도 아랍인 엘리트들이 조작을 통해 경배를 위해 만든 창작물에 지나지 않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 대신 그들은 코란과 종파의 계율과 종교의식등이 기술된 독작인 성서 부이룩(Buyruk)을 중



알레비의 예배 장소인 잼 에비에 모인 신자들
 Source: <https://www.memorializeturkey.com/>

시한다. 이 종파는 투르크민족이 전통 신앙으로 신봉해 온 천신사상, 애니미즘, 샤머니즘과 그들이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이동과정에서 접한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기독교, 불교 등의 영향 하에서 고등종교인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사회구조에 적응시키는 교리 혼합주의적 성격의 비정통 이슬람 종파이다.

튀르키예 내 알레비는 크게 동부 알레비와 서부 알레비로 나뉜다. 동부 알레비는 ‘크즐바쉬 알레비’(Kızılbaş)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튀르키예 동부의 시골을 중심으로 유목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알레비를 지칭한다. 민족적 측면에서 볼 때 쿠르드계 언어인 자자(Zaza)와 쿠르만지(Kurmandji)를 사용하는 쿠르드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부 알레비는 ‘벡타슈 알레비’(Bektaş Alevi)라고도 부른다. 서부 알레비는 주로 튀르키예 서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동부 알레비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구 상으로 볼 때도 벡타슈 알레비가 다수를 점유하고 있기에 이로 인해 국제학계에서도 튀르키예 알레비하면 벡타슈알레

비가 일반적 모델로 간주되어 이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알레비 조직은 우리말로 가문 또는 문중을 뜻하는 오작(Ocak)을 통해 조직되어 있다. 벡타슈 알레비는 데데간 콜루(Dedegan Kolu)라고 부르는 벡타슈 본부에 연결되어 있고 크즐바쉬 알레비는 12이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벡타슈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인 ‘데데’에 대해서도 벡타슈 알레비는 부계를 통한 세습이 되지만 크즐바쉬 알레비는 데데의 세습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 다른 혈통의 데데들이 존재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레위, 알레이
- 다국어 표기 Alevilik(튀르키예어), Alevi(튀르키예어), Alevism(영어), Ələvilik(아제르바이잔어), alaviylar(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크즐바쉬, 벡타슈, 쟈에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memorializeturkey.com/sites/default/files/profile/cemevi_diyarbakir_DTRRL09A000013_HD00002.jpeg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터키 알레비종파 에 나타난 샤머니즘 모티프」, 『중동문제연구』제8권 1호, 2009.
우덕찬, 「터키 알레비종파 에 나타난 싱크레티즘」, 『중동문제 연구』제9권 2호, 2010.
우덕찬, 「터키 알레비정체성 문제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제28권 3호, 2010.
우덕찬, 「1960년대 터키 사회주의운동의 성격」, 『중동문제연구』제14권 3호, 2015.
우덕찬, 「독일이주 터키알레비의 정체성문제에 관한 연구」, 『중동문제연구』제16권 3호, 2017.

I E188 | 알렉산더 콘스탄티노비치 보로브코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Borovkov, Aleksandr Konstantinoviç

러시아의 투르크 학자 ‘알렉산더 콘스탄티노비치 보로브코프’는 1904년 3월 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그는 열네 살이 되던 해부터 아버지가 일하던 탄광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1928년 타슈켄트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립 대학교 동양학부를 졸업했다. 그는 미카일 스테파노비치 안드레예프(M. S. Andreyev), 알렉



알렉산더 콘스탄티노비치 보로브코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산드르 세묘노프(A. A. Semenov)의 밑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대학 재학시절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졸업 이후 그는 중앙 아시아 국립 박물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타슈켄트 농의학부에서 우즈베크어를 가르쳤다. 1929년부터 1935년까지 레닌그라드 대학(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동양언어학부에 근무하면서 세르게이 말로(S. E. Malov), 레프 셰르바(L. V. Shcherb)와 같은 유명한 투르크학자에게서 다양한 투르크 방언을 배웠으며, 언어학을 전공했다. 언어학을 배우며 동시에 우즈베크어와 위구르어 강의를 맡았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문학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그는 레닌그라드와 타슈켄트의 여러 대학과 아카데미에서 우즈베크어, 위구르어, 카자흐어, 키

르기스어, 투르크멘어를 가르치면서 연구를 수행했다.

1928년에 보로브코프는 투르크어의 아랍문자 표기를 라틴 문자로 전환한 투르크 민족 학교들을 위한 교과서를 편찬하는 위원회에서 일했다. 1935년 그는 승진을 위한 별도의 논문 발표 없이 부교수가 되었으며, 1938년 우즈베키스탄으로 발령받았다. 같은 해, 소비에트 연방 내 투르크어 표기 방식이 라틴문자에서 키릴문자로 변경되는 법이 제정되면서 우즈베크어 표기를 위한 새로운 문자 제정과 함께 철자 규칙을 정하는 위원회에서 일했다. 1939년~1943년에 소비에트 연방 과학 아카데미의 우즈베키스탄 지부, 언어 문학 연구소의 부국장을 지냈다. 이후 1943년 설립된 우즈베키스탄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에서 우즈베크어 학과장을 2년간 역임했다. 1945년 레닌그라드로 돌아온 그는 소비에트 연방 과학 아카데미 레닌그라드 분과의 동양학 연구소에서 중앙아시아 및 튀르키예어 관련 연구를 담당했다. 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의 우수 회원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1957년에는 소비에트 연방 과학 아카데미 위원이 되었다. 1959년부터 1962년까지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소비에트 연방 과학 아카데미의 언어학 연구소 부국장을 지냈다.

1962년 11월 15일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망하여 슈발로프 묘지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렉산더 콘스탄티노비치 보로브코프

- 다국어 표기 Алексáндр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Боровк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WIEF>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borovkov-aleksandr-konstantinovic>
- 참고문헌(오프라인) Artun, Ali. *Sanat Manifestoları Avangard Sanat ve Direniş*.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İstanbul, 2015.
- 참고문헌(오프라인) Artun, Ali. *Sanatın İktidarı 1917 Devrimi, Avangard Sanat ve Müzecilik*.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2016.

I E189 | 알렉세이 그리고레비치 칼킨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Alexei Grigorievich Kalkin

알렉세이 그리고레비치 칼킨(Алексей Григорьевич Калкин, 1925년~1998년)은 알타이인들에게 최고의 카이치로 꼽히는 사람이다. 알렉세이 그리고레비치 칼킨은 사갈 올라간 아이마크(Аймак) 부족 출신이다. 이미 유년시절에 그는 서사시 연주자의 대가들인 오스피나크(Оспыйнак), 톨토굴로프(Т.Токтогулов), 진진레이(Дьиндъилей), 올라가셰프(Н.Улагашев)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카이치들 중에는 아버지나 외삼촌 등 주변의 대가로 부터 개인적으로 창법을 전수받아 대를 물리는 방식으로 카이치가 된 사람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세이 칼킨인데, 부친 그레고리 칼킨의 대를 이어 알타이에서 가장 훌륭한 카이치가 된 경우이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세습 카이치인 그의 아버지 그레고리 칼킨에게서 카이치 예술을 직접 배웠다.

알렉세이 칼킨은 이미 22세 때 알타이에서 최고의 카이치로 인정받았다. 그의 나이 23세에는 모스크바의 연방 경연장에서 전국 규모의 공인을 받았다. 그때 최초로 기념비적인 영웅 서사시 『마아다이-카아라(Маадай-Кара)』를 음반으로 녹음했다. 이 작품은 현재는 노보시비르스크의 시인 플리첸코의 번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알렉세이 칼킨의 연주 목록에는 30편 이상의 영웅서사시, 전설, 신화, 이야기, 노래들이 실려 있다. 1997년에 발행된 제15권 『시베리아와 극동 민족들의 민속 기념비 (Памятники фольклора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에는 1987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녹음한 『오치 발라(Очи-Бала)』의 마지막 버전이 들어 있다.

알렉세이 칼킨에게 있어서 신화와 서사시의 세계는 살아 있는 세상과 다름 없었다. 그의 기억의 심연은 아주 먼 옛날까지 닿아 있으며, 먼 과거에 벽화로 그려진 내용들이 실제로 책으로 펼쳐져 그에 의해 낭송됐다. 그의 예술적 영감은 그가 구연하고 노래하는 사연들과 영웅들이 실제로 겪어왔던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는 마치 서사시 속 영웅들이 전투를 벌이는 전장에 자신도 직접 참여하고, 그들이 천상계와 지상계를 누비고 다니듯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서 그는 알타이를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시켜주었다. 그는 서사시 속의 사건들에 색깔을 입혀 빛과 암흑의 투쟁으로 그려냈다.

구비서사시는 어떤 면에서 시베리아 민족들에게는 부재하는 회화예술을 대체해 왔다. 그가 구사하는 시구들은 이 세상에 색깔을 입혔다. 이 세상을 선명하고 조화롭게 노래로 그려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서사시는 알타이 민족 회화예술의 풍요로운 근간이자 현대 회화작가들의 마르지 않는 창작의 원천이 되고 있다. 알렉세이 칼킨은 화가들에게 민속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어떤 색상으로 작품 속의 풍경과 주변의 우주적 공간이 어우러지는지 전해 주고 있다.

알타이에서 알렉세이 칼킨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다.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도처에서 그를 찾아왔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까지 파고들어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믿었다. 과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지도 그에게 물었다. 알렉세이 칼킨은 감히 평범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위엄의 소유자였다. 때문에 재앙이 닥치면 모두들 그를 찾았다. 어느 날 타이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는 알타이인들이 신성시 여기는 돌을 찾아내 그것으로 화재를 멈추게 하고 비를 불렀다는 일화도 있다.

알렉세이 칼킨은 서구적 개념으로 보면, ‘성인(聖人)’이고 현자(賢者)이다. 알렉세이 칼킨은 이 시대까지 살아남은 온전한 샤머니즘 문화의 단편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대 문명에 물들지 않은 알타이 토속 문화의 현실이기도 하다.

알타이어로 영웅서사시를 ‘kay/qay(카이/까이/가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고대 차가타이어에서 기원하며 ‘마력 혹은 샤먼의 영혼’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의 어원만 보아도, 카이치와 샤먼과의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알타이의 경우에는 19세기까지도 카이치가 샤먼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왔다. 알타이어로 ‘kam(감/깜/감)’이라고 불리는 샤먼과 샤먼이면서 동시에 카이치이기도 한 ‘감-카이치’로 두 가지 부류가 존재했다. 알타이 카이치의 대가 알렉세이 칼킨의 경우가 대표적인 ‘감-카이치’의 사례이다. 알렉세이 칼킨의 사망 이후에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감-카이치는 현재 알타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감-카이치는 사라지고 카이치만 현존하는 셈이다. 감-카이치를 통해 과거에 카이치는 종교인이며, 주술을 담당하는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렉세이 그레고리비치 칼킨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카이치 중에는 자신이 카이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영적인 방법으로 신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알렉세이 칼킨이다. 그는 자신이 아주 어린 나이에 카이치가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누이동생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수염이 길게 난 누군가가 나체로 다가와서 양들을 위협했는데, 알렉세이 칼킨이 누이동생의 말을 듣고 달려가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는 누이동생 양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면서, 알렉세이 칼킨에게 너는 장차 위대한 카이치가 될 것이니 저기 살고 있는 지신(地神)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저 멀리 있는 우물을 가리켰다는 것이다.

1978년에 그는 소련 작가 연맹의 회원이 되었고 1995년에는 우정훈장을 수상했으며, ‘알타이 공화국 인민 카이치’ 칭호를 받았다. 그는 1998년 알타이 공화국에서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렉세이 그레고리비치 칼킨
- 다국어 표기 Alexei Grigorievich Kalkin(영어), Алексей Григорьевич Калки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다스탄, 두타르, 아시옥, 오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9/9f/KalkinA.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오은경·김근식, 「알타이 투르크족의 카이치 전통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7권 제2호, 2016. 10, pp.17~18.

Энциклопедия,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Гл. ред. АМ Прохоров. Изд. 3-е.» М.: Сов. Энцикл, 3, 1970, 154~155.

I E190 | 알렘다르 무스타파 파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불가리아,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대재상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Alemdar Mustafa Pasha

‘알렘다르 무스타파 파샤’(1765년~1808년)는 오스만 제국 최초의 지방 호족(아이안) 출신 대재상으로 개혁 군주 ‘셀림 3세’의 폐위 후 개혁 성향의 ‘마흐무드 2세’를 즉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는 예니체리였다고 하며, 그 자신도 예니체리 부대 안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의 별명으로 붙은 알렘다르 혹은 바이락다르(기수)라는 명칭은 아마도 예니체리 부대 안에서 그의 직책이었을 것이다. 1787년부터 1791년까지 이어진 러시아 및 합스부르크와의 전쟁 후 그는 예니체리 부대를 떠나서 대규모의 목축과 농업에 종사하기도 했는데, 루스족의 강력한 아이안이었던 ‘이스마일 아아’(İsmail Ağa)의 오른팔이 되어, 비딘에 기반을 두고 북서 불가리아와 북동 세르비아를 차지한 지방 명사 ‘오스만 파즈완토을루’의 도발을 막아내고 중앙정부의 힘을 강화시키는 ‘니잠 으 제디드 개혁’에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군사적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 이러한 그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 이스마일 아아는 무스타파를 인근의 라즈그라드의 아이안으로 만들어주었고, 이스마일 아아가 죽은 후 무스타파가 그의 영역을 이어받아 불가리아 동부 대부분을 지배했다. 또한 발칸반도에서 니잠 으 제디드 개혁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주도한 적도 있으나 곧 중앙정부에 의해 포섭되었고, 1806년에 시작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의 공로의 대가로 웨지르의 품계를 인정받아서 다뉴브 전선의 총사령관이자 실리스트라 주의 주장관으로 임명받았다.

비록 일찍이 개혁을 반대했지만 점차 중앙정부와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그는 오스만군의 근대

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807년 5월 예니체리 반란으로 셀림 3세가 폐위된 후, 셀림 3세 휘하에 있던 개혁파 인사들의 일부와 함께 모여 셀림 3세를 복위시킬 계획을 모의했다. 그리하여 1808년 7월 군대를 이끌고 수도에 진입하여 톱카프 궁으로 쳐들어갔으나 무스타파 4세가 셀림 3세를 살해했기에 그 대신 개혁 성향의 마흐무드 왕자가 등극하게 되었다.

마흐무드 2세 재위 초년에 알렘다르 무스타파는 대단한 권력을 가졌으며, 대재상으로 재임한 짧은 기간 동안 전국의 아이안을 불러 모아 개혁을 지지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세습 권력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협약 문서(sened-i ittifak)에 서명하게 했다. 그리고 셀림 3세가 폐위되고 명맥이 끊겼던 신식 군대를 새로 창설하여 엄청난 변화를 주도했다.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중단해야 했으므로 러시아와 영국에 평화 교섭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1808년 11월 예니체리들이 또 한 번 반란을 일으켰고, 이때 알렘다르 무스타파 파샤의 병력은 루스축에서의 그의 입지를 유지하고 러시아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기 위해 대부분 이스탄불을 떠나 있었으므로 반란군을 막아낼 수 없었다. 그는 포위당하여 버티기가 어렵게 되자 화약고로 도망친 다음, 많은 예니체리들이 그를 잡으러 들어왔을 때 화약을 폭발시켜 그들과 함께 폭발했다. 그가 만들었던 신군은 바로 해산되었고, 술탄 마흐무드 2세는 이복형 무스타파 4세를 살해해 겨우 왕위를 지켰다. 그가 주도했던 협약 문서의 조인은 17세기 이래 오스만 제국에서의 술탄과 신민, 특히 예니체리의 협의 전통을 이은 것이며, 이후 19세기 후반 본격화되는 헌정의 발전과도 흔히 연결하여 인식되곤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물론 아이안들과의 협약은 술탄의 권력을 제한하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마흐무드 2세는 이 협약을 좋아하지 않았고, 알렘다르 무스타파를 반란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렘다르 무스타파 파샤

● 다국어 표기 Alemdar Mustafa Paş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셀림 3세, 마흐무드 2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Beydilli, Kemal. "Alemdar Mustafa Paşa."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 TDV, 1989, pp.364~365.
Gradeva, Rossitsa. "Alemdar Mustafa Pasha."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9, pp.29~30.

I E191 | 알리 베이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송경근 ● 라틴 문자 'Ali Bey

이집트의 실질적 지배자 집단인 맘루크 베이 중에 '무스파타 카크쿠다 알-카즈두글리야'(al-Qazdughliyyah)는 17세기 말에 하나의 파당을 만들었는데 이 파당의 힘이 강해져 1748년 무렵에는 맘루크 지휘관 중에 약 40%가 이 파당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캅카스 지방의 조지아 내 압하지야 출신인 알리 베이는 이 파당의 힘을 배경으로 당시 맘루크 최고위직인 셰이크 알-발라드 직을 1760년~1766년, 1767년~1772년 등 두 차례 연임하면서 이집트의 실질적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는 오스만 제국 정부가 보낸 이집트 총독들을 술탄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내쫓았고, 책임자가 올 때까지 자신이 총독 대행으로 이집트를 통치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오스만 전쟁(1768년~1774년)으로 오스만 제국이 크게 흔들리자 알리 베이는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치했던 맘루크국을 재건하고자 아라비아와 시리아 문제에 간여하기 시작했다. 알리 베이는 1770년에는 홍해의 아라비아 해안을 점령했고, 1771년에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점령했다. 그의 군대가 시리아로 출병했을 때에 아카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히르 알-우마르'와 러시아가 그를 도왔다. 혼미한 국제정세 속에 러시아에 힘으로 밀렸던 오스만 제국은 이런 알리 베이의 행위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은 맘루크 간의 이간책을 써서 그를 제압할 방법을 찾아냈는데 제국 정부가 다마스쿠스 원정군 사령관 '아불 다합'을 회유하자 제국의 반격에 대한 두려움과 야심을 이기지 못했던 그는 주군 알리 베이를 배반했다. 결국 그는 시리아 원정군을 이끌고 카이로로 쳐들어와 그의 주군을 죽이고, 그 자신이 이집트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이후 그는 '무함마드 베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무함마드 베이는 1775년 전장에서 사망하면서, 권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그의 사후 이브라힘 베이와 무라드 베이 두 사람이 이집트를 지배했으며 이 양두체제는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쳐들어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이전인 1760년부터 1798년까지를 '네오 맘루크 시대'라고 부른다. 이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를 지배했으나, 맘루크 베이들이 이집트의 실질적 지배자였다. 사실상 이집트는

그 당시에 독립국으로써 유럽, 특히 프랑스와 무역을 자유롭게 행했고, 농업 생산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커피 무역이 계속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리 베이 알-카비르, 브루트 카판, 클라우드 캐칠

● 다국어 표기 علي بي الكبير (아랍어), Ali bey(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맘루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송경근, 「이집트 맘루크조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0집, 한국이슬람학회, 2000, p.28.
최준석, 『함두릴라, 알카히라』 서울: 메디치, 2009, pp.269~270.

Afaf Lutfi al-Sayyid Marsot. *A Short History of Modern Egyp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48~49.

Hitti, Philip K. *History of the Arabs*(10th Ed), Hong Kong: Macmillan1984, p.720.

Philipp, Thomas & Haarmann, Ulrich. *The Mamluks in Egyptian politics and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125.

I E192 | 알리 에미리 에펜디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Ali Emiri Efendi

문헌학자이자 민족 도서관(Millet Kütüphanesi)의 건립자인. '알리 에미리'는 1857년 디야르 바크르에서 시인 '사임 세이드 메흐메드 에미리 첼레비'의 손자로 태어났다. 초등 교육을 마치고 나서 그는 디야르바크르와 마르딘에서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를 배웠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오스만어로 고전적인 시를 썼다. 그때부터 많은 저술을 남겨 일부는 출판되고 일부는 출판되지 않았는데, <오스만 역사와 문학지(Osmanlı Tarih ve Edebiyat Mecmuası)>와 <역사와 문학(Tarih ve Edebiyat)> 같은 중요한 잡지에 평론을 실었고, 그의 문헌 연구, 시, 여러 지역의 시인들의 집단 전기(tezkire) 등은 당시 튀르키예 문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오스만 아카이브 분류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분류한 수천 건의 문서들이 오늘날 알리 에미리 컬렉션으로 알려져 있다. 1908년 은퇴한 후 이스탄불에 가서 거주했으며 1924년 세상을 떠났다.



민족 도서관(Millet Kütüphanesi) 내부(앙카라, 튀르키예)

알리 에미리는 재정 관료이자 감찰관으로 공무상 오스만 국토 전역을 여행하면서 책을 수집하기도 했다. 대단한 규모의 서적을 모으느라 봉급을 다 썼는데, 그가 살 수 없는 책들은 빌려서 필사했다. 그는 도서 수집에 평생을 바쳤으니, 결혼을 하지 않았고 도서 수집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일찍 은퇴했다. 알리 에미리의 컬렉션은 약 16,000권 정도 되었는데 그중 8,800건은 필사본이었고 7,200건은 인쇄본이었는데 한 권밖에 없는 귀중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특별히 가치있는 것은 1072년~1074년 사이에 쓰여진 ‘마흐무트 알 카쉬가리’의 유명한 최초의 튀르키어 사전인 『고대 튀르키어 대사전(Dîvânu Lugâti't-Türk)』이고, 17세기 프랑스인 몰리에르의 희곡 필사본, 그리고 언어, 문학, 철학, 역사, 예술에 대한 튀르키어 이슬람 권의 저작들 등이 있다.

알리 에미리는 튀르키어 국가를 위해 서적을 수집한다는 목적의식이 있었으며, 1916년 4월 17일 이스탄불에서 페이줄라 에펜디 마드라사의 일부로 설립된 민족 도서관(Millet Kütüphanesi)에

그의 도서 컬렉션을 기증했다. 이 도서관의 알리 에미리 컬렉션은 언어와 분야에 따라 분류되고 기록되었으며, 아랍 문자로 된 튀르키예어 신문과 잡지, 그리고 오스만 술탄들의 칙령 46건이 포함되었다. 민족 도서관은 1962년부터 1993년까지 공중에 개방되어 있었으며, 1993년 연구 도서관이 되었고, 듀이 십진 분류법을 채택했다. 1999년 마르마라 지진으로 도서관 건물이 큰 피해를 입어 컬렉션이 일시적으로 베야지트 국가 도서관에 옮기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리 에미리 에펜디

● 다국어 표기 Ali Emîrî Efendi(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Tayşi, Mehmet Serhan. "Ali Emiri Efend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 1989, pp.390~391.
Yıldız, Asiye Kakirman. "Ali Emiri Efendi."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34~35.

I E193 | 알리 쿠쉬치

● 시기 A.D.1000년~A.D.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Ali Qushji

알리 쿠쉬치는 15세기 이슬람권의 대표적인 자연과학자이자 천문학자이다. 그 당시 지식인들은 다양한 학문을 구분 없이 연구하고, 한 사람이 다양한 방면의 연구성과를 남겼는데, 알리 쿠쉬치도 자연과학, 천문학, 수학뿐만 아니라 신학, 언어학 등에도 성과를 남겼다. 그중에서도 그가 뚜렷한 학문적 족적을 남긴 것은 자연과학 분야였다.

1403년에 사마르칸트에서 태어난 그의 이름은 Abū al-Qāsim ‘Alā’ al-Dīn ‘Alī ibn Muḥammad Qushċi-zāde이다. 그가 쿠쉬치(Qushchi)의 아들(Zade)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음을 통해 그의 부친이 쿠쉬치, 즉 매를 관리하는 직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부친은 티무르 조의 3대 군주 ‘샤루흐’의 아들이자 사마르칸트를 지배했던 ‘울루그 베그’의 쿠쉬치였는데, 이를 통해 몇몇 학자들은 그가 투르크계일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왜냐하면 쿠쉬치는 본

래 몽골 제국의 케식관명 중 하나로, 몽골-투르크계 유목 지배계층이 주로 이 관직을 도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일군의 학자들은 그가 페르시아계라고 추측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울루그 베그 휘하의 여러 학자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학문 교육 과정을 밟았기 때문이다.

알리 쿠쉬치와 여러 학생들을 가르쳤던 학자들로는 울루그 베그 천문표 이전에 천문표를 제작하기도 한 ‘기야스 앳 딘 잠시드 카시’(Ghiyath al-Dīn Jamshīd Kāshī)나 ‘카디자데 알 루미’(Qāzi-zāda al-Rūmī) 등이 있었으며 울루그 베그 본인도 천문학에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들은 티무르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광대한 영역을 점령하는 도중에 각지에서 소집하여 사마르칸트로 데려왔던 지식인, 혹은 사마르칸트가 수많은 지식인들의 후원처임을 알게 되면서 직접 후원을 얻기 위해 찾아온 학자들이었는데, 이들을 울루그 베그 휘하에서 뛰어난 학생을 가르치고 양성했고, 그렇게 길러낸 다음 세대의 학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알리 쿠쉬치였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학문을 연구한 곳은 울루그 베그 천문대로 불렸던 사마르칸트의 천문대이다.

1420년에 쿠쉬치는 동료인 ‘물라 자미’와 더불어 이란 동남부의 도시, 키르만으로 은밀히 이주했고 그곳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구를 한 후 1428년에 사마르칸트로 돌아와 울루그 베그에게 자신의 논문을 바쳤는데, 이 논문은 수성(Mercury)에 관한 것이었다. 그 논문은 ‘나시르 앳 딘 투시’의 행성 모델을 발전시키는 한편, 수성의 움직임에 관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천문학에 뛰어난 울루그 베그가 선 자리에서 전체를 읽을 만큼 뛰어난 논문이었다. 사마르칸트 천문대의 책임자였던 카디자데가 사망한 후, 울루그 베그는 쿠쉬치를 책임자로 세웠고 그는 종종 사료에서 ‘천문대의 주인’(Şāhib-i Raşad)라 불렸다. 하지만 그가 울루그 베그 천문표를 전체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정도 있는데, 이것은 그가 별도로 『울루그 베그 천문표에 관한 주석(sharḥ-i Zij-i Ulugbeg)』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천문표의 오류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1449년에 울루그 베그가 사망한 후, 그는 가족 및 학생들과 더불어 헤라트로 잠시 이주하여 그곳에서 티무르 조의 새로운 군주 ‘아부사이드’에게 『나시르 앳 딘 투시의 신학서 al-Tajrīd al-Kalām에 관한 주석서(sharḥ-i al-Tajrid)』를 바쳤다. 그러나 그가 1469년에 아크코윤루의 군주 우준 하산에 의해 사망하자, 이번에는 타브리즈로 이주하여 ‘우준 하산’의 휘하에 들어갔고, 1470년에는 오스만 술탄 ‘메흐메트 2세’와 ‘우준 하산’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타브리즈로 돌아왔으나, 1472년에 재차 가족과 학생들을 이



알리 쿠히치가 일했던 울루그 베그 천문대 내부

끌고 이스탄불로 이주하여 메흐메드 2세의 후원을 받았다. 그는 술탄이 세운 ‘사흔 사만 마드라사’(Şahn-ı Thamân Madrasa)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후에는 아야소피아 마드라사의 수장이 되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친 후 1474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 해박하고 업적을 남긴 인물이지만, 제일 중요한 업적은 주로 천문학에서 거두었다. 티무르 조의 사료 『양성의 상승과 두 바다의 만남(Matla’ Sa’dain wa Majma’ Bahrein)』에 의하면 그는 당대의 프톨레미라 불렸지만, 프톨레미가 기반으로 삼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문학적 기본 관점을 부정하고 새로운 관점을 주장했다.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문학적 기본 이론은 실증적이고 수학적인 과학 이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구 중심의 천체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자연현상을 그것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 발전한 이론이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쿠히치의 혜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그가 투시의 이론을 받아들여 지동설의 근거가 될만한 실험적 증거를 찾았고 지구가 공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학 분야에서도 당시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던 헤르메스-피타고라스 식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서 보다 실증적인 이론을 세우고자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리 쿠쉬추

● 다국어 표기 Ali Kuşçu(튀르키예어), علی قوشچی(페르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Fazlıoğlu İhsan, “Qūshjī: Abū al-Qāsim ‘Alā’ al-Dīn ‘Alī ibn Muḥammad Qushċi-zāde”, Thomas Hockey et al. (eds.). *The Biographical Encyclopedia of Astronomers, Springer Reference*, New York: Springer, 2007, pp.946~948.

Gábor Ágoston, Bruce Alan Masters;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Turkey: Infobase Publishing, 2009, p.35.

I E194 | 알리 파샤(메흐메드 에민)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대재상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ehmed Emin Ali Paşa

‘알리 파샤’는 19세기 탄지마트 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 중의 하나로, 대재상을 5번, 외교부 장관을 8번 역임했다. 그는 이스탄불의 향료 시장(Mısır Çarşısı)의 작은 점포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고 기초 교육을 마친 후 아랍어를 배웠고, 1833년 번역실(tercüme odası)에 들어가서 프랑스어를 2년간 배웠다. 동시에 그는 오스만어의 작문 스타일과 관료 업무처리를 배웠으며, 그 과정에서 당시의 주요 외교관이었던 ‘무스타파 레시드 파샤’의 총애와 신임을 얻게 되었다.

레시드 파샤의 도움으로 알리 파샤의 진급은 빨라졌으며, 곧 주요 외교 및 행정 직위에 임명되었다. 그는 빈과 런던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고, 국내에서는 디완 부속 통역관, 외교부 차관(undersecretary) 등을 역임했다. 오스만 제국 정부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높다’는 뜻의 알리(Ālī)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아마도 그의 작은 키를 역설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 하지만 곧 그의 본명 ‘메흐메드 에민’은 잊혀지고 주로 ‘알리 에펜디’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1846년 레시드 파샤가 대재상이 되었을 때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받으면서 1848년 비로소

‘파샤’의 칭호를 얻었다.

레시드 파샤와 함께 해임과 재임명 등 여러 굴곡이 있었으나, 1852년 레시드 파샤가 대재상직에서 해임되었을 때 뒤를 이어 대재상에 오른 인물이 알리 파샤였다. 이때부터 그는 독자적으로 팀을 꾸리기 시작했고 가까운 동료 ‘푸아드 파샤’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1853년에는 이즈미르, 1854년 휘다웬디가르의 지방관으로 나가기도 했으나 1854년 탄지마트 위원회의 장으로 임명된 후부터는 대재상 ‘레시드 파샤’ 밑에서 외교부 장관이 되었다.

크림 전쟁 발발 후 알리 파샤는 협상을 위해 빈에 파견되었고, 1855년 두 번째로 대재상이 되었다. 이듬해 그는 파리에 가서 오스만 대표로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했고 1856년의 파리 조약을 조인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모든

비무슬림 신민들에게 종교의 실천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파리 조약 직전에 발표된 개혁 칙령이 국내 무슬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고, 그는 파리 평화회의에서 제국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해직되었다. 그러나 1858년 레시드 파샤의 죽음은 알리 파샤가 대재상직에 다시 한번 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다음 해에 제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것과 공공연히 왕실의 사치를 비판한 것이 원인이 되어 다시 해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탄지마트 위원회의 장이 되었고, 1861년에 여섯번째로 외교부 장관이 되었다.

1861년부터 시작된 술탄 압둘아지즈 재위 기간에도 이와 같이 대재상직과 외교부 장관직에의 임명과 해임은 반복되었다. 것처럼 지속적으로 비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리 파샤는 제국의 문제들과 유럽의 국제정치의 역동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대외 정책에서 타협을 선호했고 국내 개혁의 필요를 주장했다. 또한 알리 파샤는 원칙과 예절을 중시한 정치가로서 동시대 유럽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와 긴밀하게 협조했던 푸아드 파샤가 1869년 사망하자 그는 외교장관직과 대재상직을 모두 떠맡아서 1871년 9월 사망할 때까지 봉직했다. 그의 사망은 탄지마트 개혁의 동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이후 술탄 압둘아지즈와 압뉘하미드 치하에서



알리 파샤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는 개혁 관료들에 대한 불신 속에서 술탄 독재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 다국어 표기 Ali Paş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스타파 레시드 파샤, 푸아드 파샤, 탄지마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1/Mehmet_amin_ali_painting.jpg
- 참고문헌(온라인) Bowen, H., “Ali Paşa Muḥammad Amīn”, in: *Encyclopaedia of Islam, Second Edition*, Edited by: P. Bearman, Th. Bianquis, C.E. Bosworth, E. van Donzel, W.P. Heinrichs. Consulted online on 30 September 2020 <http://dx.doi.org.libproxy.snu.ac.kr/10.1163/1573-3912_islam_SIM_0536>
First published online: 2012 First print edition: ISBN: 9789004161214, 1960-2007
- 참고문헌(오프라인) Bowen, H., “Ali Paşa Muḥammad Amīn”,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1, 1986, pp.396~398.
Yurdakul, İlhami. “Ali Pasha, Mehmed Emin.”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36~37.

I E195 | 알리셰르 나버이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Alisher Navoiy

알리셰르 나버이이(1441년~1501년)는 우즈베키스탄의 중세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사상가이며 정치가이다. 그의 본명은 미르 알리셰르 지오시딘 우굴리(Mir Alisher Giyosiddin ugli)이다. 그의 아버지는 지오시딘 무함마드 바호드르(Giyossidin Muhammad Bahodir)이며, 티무르 왕조 전성기에 바부르 궁과 삽자보르(Sabzavor) 시장(市長)을 지낸 고위 관료였다. 어머니는 아미르 샤 아부 사이드 찬기이(Shayh Abu Sayyid Changiy)의 딸이었으며, 할아버지는 아미르 티무르와 의형제였던 우마르샤(Umarshayx)이다.

이처럼 알리셰르 나버이이는 고위관료 집안에서 태어났고, 티무르 왕조의 후세인 버이카러(Husayin Boykaro) 왕자와 유년기를 같이 보내는 등 왕실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4살 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 튀르키예어, 페르시아어 그리고 아랍어를 익혔다. 또한 1465년~1469년에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있는 헤라트(Herat), 이란의 마쉬하드(Mashhad) 및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서 수학했다. 그는 호자 유수프 안디지오니(Hoja Yusuf Andijoniy)에게서 음악교육도 받았다. 알리셰르 나버이이는 헤라트(Herat)에서 아불커심 버부르(Abulqosim Bobur) 궁에서 일했고, 유년기를 함께 했던 왕자 후세인 버



알리셰르 나버이이 흉상

이카로(Husayin Boykaro)가 왕이 된 후인 1469년~1472년에는 직접 어보(御寶)를 관리하기도 했다. 이어 1472년~1476년에는 총리대신 자리에 올랐고, 1487년~1488년에는 아스트라바드 주지사 등의 직책을 맡아 수행했다.

알리셰르 나버이이는 궁에서 근무하는 동안 오직 국민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인지 그가 총리대신을 맡은 기간 동안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은 없었다. 그는 자비를 들여 마드라사와 40개의 라바트, 17개의 모스크, 10개의 모스크 안 예배당(xonaqoh), 병원, 9개의 목욕탕, 9개의 다리, 20여개의 저수지 등을 만들었다.

한편, 알리셰르 나버이이는 아버지 덕분에 시인과 학자들의 모임에 매우 어린 나이부터 참석할 수 있었다. 그는 3세~4세 때 이미 페르시아 시인 '커심 안버르'(Kosim Anvor)의 어려운 시를 암송했고, '파리딘 아터르'(Farididdin Attor)의 작품을 배웠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이미 당대의 유명한 문인들의 인정을 받았다. 알리셰르 나버이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7세~8세 때부터이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30여편의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사랑이야기 다섯 편으로 구성된 『함사(HAMSA)』이다.

그는 투르크어 고어에 해당하는 차가타이 투르크어로 작품을 집필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알리셰르 나비이 문학 박물관과 동상

매우 혁명적인 일이었다. 지성인과 문화언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페르시아어가 아닌 일상언어에 불과하며 격이 낮다고 여겨지던 투르크어로 작품을 썼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투르크인들이 대부분이었던 당시 백성들과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싶었던 알리셰르 나비이의 애민정신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들은 오스만 제국이나 타타르 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알리셰르 나비이로 인하여 투르크어는 문학어로 한 단계 격상될 수 있었으며, 투르크 민족들이 모국어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알리셰르 나비이는 1501년 세상을 떠났고, 그의 묘지는 헤라트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리셰르 나보이, 알리셰르 나비이

- **다국어 표기** АЛИШЕР НАВОИЙ(우즈베크어), Alisher Navoi(튀르키예어), Alisher Navoiy(영어), Əlişir Nəvai(아제르바이잔어), Əlişer Navai(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함사(HAMSA), 차가타이어, 헤라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마드라사
- **참고문헌(오프라인)** Togan A. Z. V., *Ali Şir Beg, Islâm Ansiklopedisi*, İstanbul, 1993.
 Абдурахманов А и другие, *Родоначальник узбек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зд-во узбекского филиала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Ташкент, 1940.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Алишер Навои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Изд-во АН СССР, Москва – Ленинград, 1946.
 Ахмедов Б, *Навоий замондошлар хотирасида*, Адабиёт ва санъат нашириёти, Тошкент, 1985.
 Бартольд В.В, *МИР-АЛИ-ШИР*, Сборник к пятисот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Ленинград, 1928.
 Бертельс Е.Э.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Навои и Джами, Наука, Москва, 1965.
 Бертельс Е.Э. *НАВОИ. Опыт творческой биографии*, Изд. АН СССР, М.-Л, 1948.
 Ганиева С, *Алишер Навоий*, Фан, Тошкент, 1968
 Гиёсиддин Хондамир, *Мақориму-л-ахлоқ*, Тошкент, 1948.
 Давлатшоҳ Самарқандий, *Шоирлар бустони*, Адабиёт ва санъат, Тошкент, 1981.
 Диёмов А, *Алишер Навоий*, Камалак, Тошкент, 1991.
 Сирожиддинов Ш, *Алишер Навоий, Манбаларнинг қиесий – типологик, текстологик тахлили*, Академнашр, Тошкент, 2011.
 Хаитметов А, *Темурийлар даври адабиети*, Фан, Тошкент, 1996.
 Шарофиддинов О, *Алишер Навоий, Хаёти ва ижоди*, ЎзССР ФА тил ва адабиёт институти, Тошкент, 1948.

Ⅰ E196 Ⅰ 알리프티그 니마흐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Alyptyg nymakh

‘알리프티그 니마흐’는 하카스의 영웅서사시 장르이다. 하카스어로 알리프(алып)는 용사, 무사란 의미이고, 니마흐(нимах)는 이야기, 전설이란 의미여서, 알리프티그 니마흐를 직역하면 ‘용사의 전설’이란 뜻이다.

알리프티그 니마흐는 한두 영웅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웅 자신의 가족과 핏줄, 민족, 가축을 적들로부터 지켜내는 삼대에 걸친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3만 행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작품 속에는 여러 민족과 가축을 거느린 용사 칸 가족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묘사되지만, 이 평화는 적의 침입으로 인해 곧 깨지게 된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여러 명의 전사들이 갑옷을 입은 적대자들과 결투를 벌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빛의 세력인 무사들은 어둠의 무사들과 겨루며, 이후로 6일~12일간 전투를 이어간다. 결투는 육체적 힘과 무기들의 도움으로 수행된다.

여러 작품을 통해 알리프티그 니마흐는 복잡한 구성을 보여준다. 하나의 이야기에서 평면적인 이야기가 다양한 차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에서는 줄거리와 주인공의 형상이 따로따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시공간적인 틀을 만들어 처음에는 영웅-할아버지가 등장하고, 결말에는 영웅-손자가 나타나는 식의 독특한 구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서 선이 악을 이기며, 영웅-용사는 침략자-강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웅서사시의 주된 주제를 보여준다.

알리프티그 니마흐는 하이지라고 불리는 하카스 이야기꾼이 긴 겨울밤에 관객이 모인 집이나 타이가의 사냥꾼, 곡식을 탈곡하는 방앗간, 장례식장 등에서 구연하곤 했다. 대표적인 알리프티그 니마흐로는 「알틴-아리그(Алтын-Арыг)」, 「아이-후우친(Ай-Хуучин)」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리프티그 니막, 알리프티그 니마그

● 다국어 표기 Алыптыг ныхах(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하이지

● 참고문헌(오프라인)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2, Абакан, 2008, 42~43.

Майногашева В.Е. Хакасски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Ай-хуучин», Новосибирск:Наука, 1997, 11~46.

I E197 | 알림 가스모브

- 시기 A.D.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성악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Alim Gasimov

알림 가스모브(Alim Qasimov)는 1957년 8월 4일 샤마흐(Şamaxı)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전통 음악 장르인 무감(muğam)을 부르는 가수 하넨대(xanəndə)이다. 국제 IMC 유네스코 음악상 수상자이며,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민족 예술가 및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명예' 훈장과 '영광' 훈장을 수여 받았다.

1978년~1982년에 아사프 제이날르 바쿠 음악 학교(Asəf Zeynallı adına Bakı Musiqi məktəbi)에서 수학한 그는 이어서 1983년~1989년에 아제르바이잔 국립 예술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İncəsənət İnstitutu)에서 공부했다. 1980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2회 올림픽에 참가했으며 1982년 개최된 제1회 공화국 무감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리고 1989년에는 모스크바, 파리, 모네, 쾰른, 보훔, 서베를린, 프라이부르크, 바젤, 제네바, 암스테르담 등의 도시에서 콘서트를 여는가 하면 많은 축제에도 참여했다.

2000년에 그가 발매한 음반 「사랑의 깊은 바다(Love's deep ocean)」는 유럽 세계 음악 차트(Avropa Dünya Musiqi xəritəsi)에서 9위에 올랐으며, 유럽 47개국의 라디오에서 송출되었다. 2009년에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와 전략연구센터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무슬림 500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500명의 무슬림에 포함된 아제르바이잔인은 4명에 불과했다. 2012년 5월 26일 알림 가스모브는 바쿠에서 열린 제57회 유로비전송 콘테스트 결승에서 아제르바이잔을 대표하는 '사비나 바바예바'(Səbinə Babayeva)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노브루즈의 날을 맞아 '일곱 미인' 무감 콘서트가 열렸을 때 알림 가스모브는 이



알림 가스모브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콘테스트에서 ‘무감’을 불렀다.

현재 그는 ‘아세프 재이날르 음악 학교’ 및 바쿠 음악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국립 오페라 및 발레 극장의 음악가다. 그는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을 많이 받았다. 그의 대표작으로 1996년 1월 3일 「고전 무감(Classical Mugham)」, 1997년 10월 15일 「무감의 전설적인 예술(The Legendary Art of Mugham)」 앨범이 있다. 그의 앙상블과 함께 1997년 12월 1일에는 「무감의 예술: 아제르바이잔(The Art of Mugham: Azerbaidjan)」, 1999년 10월 1일 「아제르바이잔의 무감(The Mugham of Azerbaidjan)」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1999년 10월 11일에는 Love’s Deep Ocean 앨범을 그의 딸이자 무감인 하넨대 페르가네 가스모바(Fərqanə Qasımova)와 함께 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림 가스모브
- 다국어 표기 Алим Касимов(러시아어), Alim Kasimov(영어), Alim Gasimof(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a/ac/Alim_Gasimov.jpg/800px-Alim_Gasimov.jpg
- 참고문헌(온라인) www.alimqasimov.az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Hacıbəyov Üzeyir, *Azərbaycan xalq musiqisinin əsasları*, Bakı, 1950.
Каджар Чингиз, *Выдающиеся сыны древнего и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Азербайджана.* – Баку, издательство «Эргюн», 1995.

I E198 | 알바스티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악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Albasty

알바스티(Albasty)는 투르크 민족 및 중앙아시아, 근동지역의 신화에 등장하는 여성 악령이다. 보통 노란 머리카락을 길게 산발하고, 등 뒤로 던져진 축 늘어진 가슴을 가진 기괴한 형상의 벌거벗은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다. 때로 알바스티의 형상은 세 개의 눈을 가지거나 긴 손톱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알바스티는 동물이나 무생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카잔 타타르는 알바스티가 수레나 건초더미, 가문비나무의 형상을 취한다고 믿었고,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알바스티가 새의 발을 가졌다고 생각했으며, 몇몇 카자흐 민족의 신화에서는 발바닥이나 발굽이 뒤집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 알바스티는 이마에 눈이 하나 있으며 둘로 된 코(또는 붉은 구리이거나)을 가지고 있고, 등에는 피부가 없어 속이 흰히 보인다는 말도 있다. 또한 서(西)시베리아 타타르인들에 따르면 알바스티의 손에는 날카로운 갈퀴가 있다고 한다. 키르기스인들이나 카자흐인들은 알바스티를 여러 종류로 구분하는데 가장 해로운 것은 ‘검은’ 알바스티나 악취가 나는 노란색 알바스티이다.

알바스티와 관련된 물건은 마법의 책, 빛, 동전이다. 쿠미크 신화에서 알바스티는 ‘강철 가슴’(테리므 토시 темир төш)이라 불리는 남편이 있으며 카자흐 신화에서 숲귀신 소렐(леший сорель)이 알바스티의 남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족 신화에서 알바스티는 강이나 물 근처에 살고 있으며 강변이나 호숫가에서 머리를 빗으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알바스티는 질병이나 악몽을 전하고 피해를 끼친 후 피해자의 피를 마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신생아나 산모에게 특히 해를 끼친다고 한다. 이에 관해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 카자흐 및 몇몇 다른 민족의 신화에서 알바스티는 산모의 폐나 간, 심장 등을 훔쳐 물속으로 달아나거 결국 산모는 죽는다는 설이 있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알바스티가 유독 말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다. 알바스티는 말을 타고 밤마다 배회하는데 말갈기를 매듭지어 준다. 튀르키예, 카자흐, 쿠미크, 노가이, 투바 미신에서 알

바스티는 인간과 성관계를 갖는다고 믿기도 했다. 오히려 투바 신화에서 사냥꾼들이 알바스티와 관계를 가지면 사냥에 성공한다고 하며 자기 젓과 갈비에서 떼어낸 고기를 내어준다는 말도 있었다. 알바스티의 머리카락을 가지면 알바스티는 사람에게 복종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튀르키예, 투르크멘, 우즈베크 신화에서는 그녀의 옷이나 마법 책, 빗 등을 취함으로 알바스티를 복종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알바스티가 원래 선한 신, 가정과 다산의 수호자, 야생동물과 사냥의 신이었음을 암시하는 설도 있다. 일부 사람들은 알바스티를 지배하는 사람이나 샤먼은 산모에게서 알바스티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카라차예프인, 발카르인, 노가이인, 쿠미크인은 길들여진 알바스티는 집안일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다. 혹은 주인을 부자로 만들거나 자신이 아프게 만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알바스티의 형상과 역할은 많은 민족들의 신화에서 비슷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 몇몇 학자들은 알바스티를 투르크 신화에서 기원한다고 보지만, 알바스티가 페르시아어 ‘al’과 ‘basty’의 조합으로 보면서 이란 기원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다만 조로아스터교처럼 보다 발달된 종교체계가 등장하면서 알바스티는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바스트

● 다국어 표기 Albasdi(아제르바이잔어), Албасты(러시아어), Albasti(튀르키예어), Албасты(카자흐어), Albasdi(아제르바이잔어), Албасты(타타르어)

● 연관 검색어 시베리아 타타르인, 키르기스인, 카자흐인, 발카르인, 노가이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ред. Е.М. Мелетинский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г.- 672 с.

I E199 | 알빈지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Albynji

「알빈지」는 하카스의 영웅서사시이다. 이 작품은 1948년 ‘찬코프’(Д.И. Чанков)가 처음으로 하카스의 전통 구연자 하이저로부터 채록하여 문학적으로 번역했다. 그리고 ‘도모자코프’(В. И. Доможаков)가 여러 사냥꾼과 하이저의 후손들로부터 채록한 것을 추가하여 수정했다.

「알빈지」는 무운시와 운율시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각운은 동사에만 부여되며, 첫 행에 두운법이 사용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적 규칙들이 적용된다.

「알빈지」에는 여러 판본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 「홀라타이(Хулатай)」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주인공인 용사 홀라타이의 방탕한 삶이 교훈적으로 강조된다. 다른 지역에서 이 작품은 시의 주인공 용사 알빈지의 이름을 따서 「알빈지」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용감하고 고결한 영혼을 가졌으며 자신의 민족을 사랑한다. 그는 홀라타이의 아들이며 어릴 때부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데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갖지 못했다. 그는 민족의 행복을 위해 괴물 물고기에게서 마술 지팡이와 공의 비밀을 알아내는데 적들이 알빈지의 집에서 지팡이와 공을 훔쳐가면서 알빈지와 그의 친구들은 적들과 무자비한 싸움을 치룬다. 싸움에서 알빈지는 패배하지만 홀라타이의 여동생인 차리흐-케에크가 알빈지와 그의 친구들을 되살려낸다. 그리하여 이야기는 알빈지가 검은 힘들을 물리치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빈즈

● 다국어 표기 Албынж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하이저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ЛБЫНЖИ: Хакас. героич. сказание / Сказитель С. П. Кадышев; Лит. пер. И. Кычакова; Предисл. В. Доможакова; Худож. А. Новоселова. — Абакан: Хакасское област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51, 107.

I E200 | 알 아나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Al ana

‘알 아나’(Al ana)는 투르크, 타타르, 알타이, 야쿠트와 몽골 신화에서 나오는 악의 여신으로 ‘할 아나’(Hal ana)라고 부르기도 한다. 투르크어에서 알 아나(Al ana)의 ‘알(al)’은 ‘속이다’와 ‘빨간색’을 의미하지만 몽골에서 ‘Al-Hal’은 불을 의미한다. 알 아나는 붉은 옷을 입고 빨간 머리를 하고 있으며, 못생긴 외모와 헝크러진 머리, 피 투성이 눈에 긴 손톱을 가지고 있으며 키가 크고 힘이 매우 세다고 한다.

투르크인과 알타이인에게 마녀인 알 아나는 악령 알브스(Albıs)와 연관이 있으며, 때로는 알브스와 동일시된다. 일반적으로 알 아나는 알브스들의 수장으로 ‘아나(Ana)’는 투르크어로 ‘어머니’를 의미하고 아버지의 의미를 담은 알 아타(Al Ata)의 개념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몽골 민속의 갈 칸(Gal Xan, Gal Esege, Atəş Ata: 불의 아버지)가 알 아타(Al Ata)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알 아나는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접근하여 산모의 간을 빼앗아다가 자기 자식들과 먹는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모가 있는 집은 철 집게로 벽을 굽었다. 알 아나는 철 집게로 굽힌 벽은 통과하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산모의 상태가 나빠지면 알 아나가 어떻게든 벽을 통과했다고 믿었다. 알 아나가 산모의 간을 빼간 경우, 사람들은 흐르는 강으로 달려가 칼로 강의 물을 잘라야 했는데, 알 아나가 산모의 간을 강에서 먹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알 아나를 위협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 아나가 위협을 느끼면 산모의 간을 제자리에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간을 돌려주지 않아 산모가 사망한다고 믿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아나스
- 다국어 표기 Al ana(영어), Al Ana(튀르키예어), хал анасы(러시아어), Аль Ана(투바어)
- 연관 검색어 권 아나
- 참고문헌(오프라인) Beydili, Celal. *Türk Mitolojisi Ansiklopedik Sözlük*, Yurt Yayınevi, 2005. Əsətlər, *əfsanə və rəvayətlər*. Bakı: Şərq-Qərb, 2005.

I E201 | 알타이 제어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어족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Altaic languages

세계의 언어를 계통상 유사한 언어끼리 분류한 것을 어족(語族)이라고 한다. 알타이 제어, 알타이 어족에서 알타이(Altai)는 지명에서 유래한 아시아 대륙의 한 산맥의 이름이다. 후에 이 지리적 명칭을 달아 산맥의 동과 서에 분포하는 여러 언어를 어족으로 묶어 알타이 어족으로 불렀다.

알타이 어족은 크게 세 어군, 투르크어군(Turkic), 몽골어군(Mongolian), 통구스어군(Tungusic)으로 나눈다. 하지만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19세기 언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알타이 어족 가설이 받아들여졌으나, 100여년 넘게 알타이 어족은 계통론적으로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로 보고 알타이 어족(language family)이라고 부르지 않고 알타이 제어(languages)라고 표기한다.

이 언어군들을 사용하는 부족들은 알타이 영토의 동쪽, 북동쪽, 더 나아가 서쪽으로 퍼져나갔다. 알타이 제어 중에서도 특히 투르크어는 투르크계 부족들의 세력이 발칸반도, 내륙 유럽과 동유럽, 북부 아프리카, 근동, 이란 그리고 인도까지 넓게 그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 지역들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람스테트(Ramstedt)는 투르크어와 몽골어를 비교 연구하면서 그 전까지 우랄-알타이 어족설로 묶여 있던 우랄 어족과 알타이 어족을 분리하여 ‘알타이 어족설’을 내세웠다. 후에 만주-통구스어와 한국어를 대비 연구하면서 한국어를 알타이 어족에 소속시켰고, 이것을 포페(Poppe)가 더욱 발전시켰다. 그리고 람스테트와 폴리바노프, 밀러와 같은 알타이어 학자들이 알타이 어족에 한국어와 일본어도 추가시키면서 국내에서도 한국어의 알타이 어족설을 가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교 문법에서는 한국어가 알타이어와 친족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알타이 제어에서 유래된 언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7차 교과 과정부터 한국어가 알타이 제어에 속하는가에 관해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은 분명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가설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점을 덧붙이며 다른 계통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한국어와 투르크어는 이

처럼 알타이 제어에 속한 어족으로 계통론적 유사성이 자주 거론된다. 언어간의 친족 관계 가능성은 규칙적인 음운 대응이나 문법적인 일치로 통해 설명하는데, 알타이 제어의 공통적 특징은 한국어나 투르크어가 알타이어에 속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게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다른 가설보다는 두 언어를 알타이 제어와 관련지어 말할 수 있는 특질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

알타이 제어가 가진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알타이 제어의 공통적 특징인 ‘주어 - 목적어 - 동사(SOV)’의 어순을 가진다. 그리고 교착어(첨가어)와 모음조화가 있다. 어두의 자음군이 제약을 받으며 두음법칙이 있어 특정 자음은 (유음 /r/, /l/) 어두에 거의 쓰이지 않는다. 또한 부동사(converb)가 있는데 문법적 성은 없다.

알타이 제어의 두드러진 음운론적 특징으로는 모음조화가 있다. 이 언어들은 전설 및 후설 모음의 순행동화 현상이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원순모음의 순행동화 현상도 나타난다. 또한 단어의 어두에 둘 이상의 자음군도 나타나지 않는다. 형태론적으로는 문법적 성의 부재로 성에 따라 단어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특징이 있다.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오며 형용사가 명사 뒤에 놓여 서술어로 쓰일 경우에도 형태적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파생접사, 곡용 및 활용접사가 접미되어 문법적 범주가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교착어, 첨가어적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알타이 제어는 접미사가 풍부하다. 또한 통사론적으로는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오며, 구문 간의 연결은 동사 어간에 부사형 연결 어미가 접미되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한편, 알타이 제어를 계통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反)알타이 어족설을 주장하는 학자들(M. A. Schcherbak, D. Sinor, G. Doerfer, G. Clauson)은 이러한 알타이 제어에 나타나는 언어적 친근감을 차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몽골어와 투르크어의 관계가 오랜 옛날부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의하여 차용된 언어이지 친족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알타이어족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대부분 투르크어와 몽골어의 차용 관계에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현상이 한국어, 몽골어, 퉁구스어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타이 딜레리, 알타이어족
- 다국어 표기 Altay diller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교착어, SOV어순

● 참고문헌(오프라인) Poppe, N., “Review : G.J. Ramstedt,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3&4, 1950. pp.568~581.

Clauson, G., The case against the Altaic theory, *CAJ*, IT, 3, 1956, 181~187.

딜라차르 저, 최한우 옮김, 『터키언어사』, 한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출판부, 2011.

이기문,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1972.

I E202 | 알타이산맥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몽골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산맥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ltai Mountains

알타이산맥은 몽골 알타이(최고점 후이툰: 4,355m), 고비 알타이(최고점 수타이산: 4,090m), 소비에트 알타이(최고점 벨루하산: 4,509m) 등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지질은 고생대층의 혈암(頁岩), 녹니편암(綠泥片岩), 사암(砂岩), 화산분출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강암도 군데군데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강한 변위(變位)를 받아 칼레도니아 및 헤르시니아 조산 운동으로 습곡하면서 융기했는데, 나중에 준평원화 작용을 받았다가 다시 제4기 초에 심하게 융기했다.

알타이산맥은 낙엽송과 활엽수가 무성한 숲, 드넓은 고산 초원, 황량한 얼음 들판, 수천 개의 호수와 빙하 등 다양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험준하면서도 아름다운 이곳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이 만나는 지역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로지른다. 최고봉은 고라벨루하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따라 우뚝 솟아 있다.

중국 기록에 전하는 금산(金山)이 이곳인데, ‘알타이’는 투르크어와 몽골어 모두 ‘금’을 의미하며 실제로도 금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 산맥에는 서식하는 동식물도 풍부하다. 이곳의 초원은 오랜 세월 동안 ‘유목민들의 요람’ 역할을 했는데 유목민들의 고향이었으며 특히 흉노와 돌궐의 무대였다.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돌궐의 유연의 복속 민족으로 철작(鐵作)에 종사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알타이산맥은 러시아어로 ‘루드니알타이(광석이 많은 알타이)’라고 불



알타이산맥과 호수

리튬 금 이외에도 납, 아연, 주석 등이 다량 매장되어 있으며, 서부(주로 러시아연방)의 오비강과 이르티시강 유역의 상류는 유력한 전원(電源) 지대로서 부크타르마, 비야강 등에는 낙차가 큰 수력발전소가 많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타이 산맥
- 다국어 표기 Altay Dağları(튀르키예어), 阿尔泰山脉(중국어), Алтайские горы(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돌궐, 카자흐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Chisholm, Hugh (ed.). *Encyclopædia Britannica*. 1 (11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lmersen, G. von. *Reise nach dem Altai*, St Petersburg, 1848.

I E203 | 알타이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Altai people

알타이인은 현대에 스스로를 알타이인이라고 부르는 알타이 공화국의 구성원을 뜻한다. 텔레우트(телеут), 쿠만디네츠(кумандинец), 텔렝기트(теленгит), 투발라르(тубалар) 같은 소수 민족도 알타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2008년 기준으로 약 8만명 정도인 알타이인들이 알타이 공화국, 알타이 변강(край), 케메롭스키 주(州), 노보시비르스키 주에 살고 있다. 알타이 공화국의 알타이인들은 언어적, 문화적, 인류학적으로 남알타이인과 북알타이인으로 구분된다. 남알타이인들은 스스로를 ‘알타이-키지(алтай-кижи: 알타이 사람)’로 부르는데, 혁명 전에는 남알타이인들을 ‘알타이 타타르’라고 부르기도 했고 1948년까지는 오이로트(ойрот)인이라고 자신을 칭했다. 북알타이인에는 쿠만디네츠, 첼카네츠(челканец), 투발라르인들이 포함되는데, 혁명 전에 이들은 ‘체르네비에 타타르’(черневые татары)로 불렸다. 하지만 실제로 남알타이와 북알타이의 언어적, 문화적, 인류학적 차이는 크지 않다.

알타이어는 알타이어족 투르크어파에 속한다. 알타이 문자는 19세기 알타이-키지 방언에 기초하여 키릴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하기 시작했다. 알타이인들은 대부분의 투르크 민족들처럼 유르트에 살았고, 알타이 전통 주거 형태로는 반구형의 나무껍질 지붕의 목조주택인 아일(Аил)과 시베리아 민족들에게 고유한 원뿔 모양의 차아디르(чаадыр)가 있다.

그들은 투르크의 일원이지만 알타이 민족의 형성에는 서몽골(오이라트)과의 정치적 문화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19세기 말 발생한 부르하니즘 종교운동이 알타이 민족 정체성에 최종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타이족

● 다국어 표기 Altaylar(튀르키예어), Oltoylyar(우즈베크어), Altaylılar(아제르바이잔어), Алтайлықтар(카자흐어), Алтайцы(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텔레우트, 알타이어족, 유르트, 부르하니즘
- 참고문헌(온라인) <https://russia.rin.ru/guides/4705.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E204 | 알타이적 현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기후 ● 유형 소분류2 현상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ltaic phenomenon

중앙아시아의 중앙부에 위치한 알타이 지역은 다양한 자연과 문화의 집합체였으며 수십만 년에 걸쳐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온 인간’을 연구할 수 있는 최상의 과학적 모델을 제시해 준다. 특히, 자연적 현상으로 발굴된 고분들이 냉동 고분의 형태로 존재하는 ‘알타이적 현상’(Altaic phenomenon)으로 이 지역은 중앙아시아의 선사시대를 재조명하는 데 매우 적절한 장소가 되고 있다.

1993년 여름 러시아 남부 알타이산맥 남단의 중국·몽골·카자흐스탄 접경지역에 가까운 우코크 평원에서 무덤 하나가 발굴됐다. 1990년부터 발굴을 주도한 러시아 고고·민속학연구소 연구팀이 깊이 6m를 파고 들어간 끝에 마주친 관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관 내부가 얼음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것이다. 뜨거운 물로 얼음을 다 녹여내자 사후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관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흰 피부를 지닌 젊은 여성이었다. 이 미라의 존재가 공표되자 세계 고고학계는 놀라움에 휩싸였다. 머리 장식과 복식은 물론 팔과 손에 한 문신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이 여성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무당(샤먼)이었으며 몽골인종의 특징이 섞인 유럽인종으로 밝혀졌다. 사망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으로 추정됐다. 시신은 방부처리돼 있었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낸 뒤 풀이나 양털로 채우고 말총으로 꿰맸다. 두개골에는 구멍을 뚫어 뇌를 꺼낸 다음 흙과 양털, 풀로 채웠다. 시신의 부패를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미라는 말 등의 각종 부장품과 함께 B.C. 6세기~B.C. 2세기에 산악 알타이 지역에 존재한

파지리크 문화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 파지리크 문화는 중앙아시아 초원지역에서 이주해 온 강력한 전투 기마 유목민들이 현지 주민을 정복하면서 이루어졌다. 정복자들은 고대 앗시리아, 미디어, 이란 계열에서 온 문화를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정복자와 알타이 원주민의 상호 결혼 등으로 두 전통이 융합되면서 파지리크 문화가 형성됐다. 이 발굴은 한국 고고학계에도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1995년 4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미라와 발굴품 등을 들여와 ‘알타이 문명전-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고고학계의 관심은 이 지역 문화와 고대 신라의 연관성 때문이었다. 우선 무덤 양식이 나무로 묘실을 만들고 그 안에 관을 안치한 뒤 묘실 외부를 돌로 쌓아 올린 적석목곽분은 신라 시대 특정 시기의 무덤 양식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고대의 무덤 양식은 문화권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고유의 양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양식의 동일성은 같은 계열 문화권이라는 방증이 된다. 또한 4세기~5세기 150여년간 신라의 김씨계 왕조가 만들어 쓴 금관은 시베리아 무당(샤먼)의 나뭇가지와 사슴 장식을 양식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저런 고고학적 증거를 들어 학계에서는 신라의 김씨계 왕조가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기마민족의 후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타이 일대 고대 문화에 대한 한국 학계의 관심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미라가 냉동 고분에 잘 보존된 것은 ‘알타이적 현상’ 때문이었다. 이 현상은 알타이산맥 일대의 특이한 기후 때문에 고분 내부가 얼음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말한다. 고분이 발견된 우코크 평원은 해발 2,500m의 고원으로 겨울이 매우 춥고 짧은 여름에도 지면이 완전히 녹지 않는다. 이런 기후 조건에서 돌로 덮인 무덤 내부는 틈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가 묘실은 완전히 물로 채워진다. 물은 겨울에는 얼고 이듬해 여름에도 잘 녹지 않는다.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미라와 부장품이 고스란히 보존된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타이적 현상
- 다국어 표기 Altaic phenomenon(영어)
- 연관 검색어 파지리크 문화, 우콕공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britannica.com/place/Pazyryk>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eb.archive.org/web/20070622035146/http://www.hermitagemuseum.org/html_En/03/hm3_2_7.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Bunker, Emma C. *Nomadic Art of the Eastern Eurasian Steppes: The Eugene V. Thaw and Other Notable New York Collections*.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2.

Jordana, Xavier. "The warriors of the steppes: osteological evidence of warfare and violence from Pazyryk tumuli in the Mongolian Altai".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36 (7). 2009.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I E205 | 알탄 우룩

- 시기 기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체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ltan urug

흉노에서 시작되는 고대 유목국가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알탄 우룩, 즉 황금씨족(Altan urug, 黃金氏族)의 존재이다. 둘째, 기본 구조적 특징은 부족 연합체이다. 즉, 이것은 유목경제를 영위하는 부족들의 연합을 바탕으로 구성된 하나의 통일적인 정치적 결합체를 의미한다. 셋째, 전형적인 유목국가의 지배체제는 외형상 대체로 삼분 구조를 이루었다. 즉, 군주가 통할하는 중부(中部)와 그의 자제나 일족이 장악 관리하는 좌부(左部)와 우부(右部)가 있었다. 넷째, 유목 군주는 천명사상에 근거해서 등극하여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초부족적 차원에서 제부족들을 통합, 지배했다.

알탄 우룩(황금씨족)이란 유목국가에 있어 핵심지배집단으로 왕을 배출하는 왕족집단과 왕에게 왕비를 제공해 주는 인척집단을 지칭한다. 대표적으로 흉노는 허련제가(虛孛蠃家)가 존재했고, 인척집단으로는 호연가(呼衍家), 난가(蘭家), 수복가(須卜家), 구림가(丘林家) 등이 있었다. 유연은 카간을 배출하는 왕족집단인 옥구려가(郁久閭家)가 존재했다. 돌궐은 카간을 배출하는 아사나씨(阿史那氏)와 카툰을 배출하는 아사덕씨(阿史德氏)가 있었다. 회흘은 카간을 배출하는 약라갈가(藥羅葛家)가 존재했다.

몽골 제국의 경우 보르지긴(몽골어: Боржигин)이 그 대표적인 알탄 우룩이다. 이 씨족은 몽골 제국의 전신격인 카마그 몽골의 수장인 보돈차르 문카그에 의해 개창된 씨족으로 13세기경 보르지긴 씨족의 수장인 보르지긴 테무친은 주변 몽골 부족들을 통합하고 쿠릴타이에서 칭기

즈 칸으로 즉위한 후 몽골 제국을 건설했다. 고구려의 경우도 비슷한데 계루부(桂婁部)와 순노부(順奴部)가 그것이다. 황금씨족의 존재는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황금씨족

● 다국어 표기 Altan urug(몽골어)

● 연관 검색어 쿠릴타이, 칭기즈 칸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Franke, Herbert; Twitchett, Denis; Fairbank, John King.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和田清, 『東亞史研究(蒙古編)』, 東京, 1959.

I E206 | 알트바칸(그네타기)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놀이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ALTYBAKAN

그네타기로 풀이되는 ‘알트바칸’은 1년 중에서 날씨가 비교적 화창한 여름과 가을에 행해지며 젊은 남녀가 주된 참여자이다. 10대 청소년들은 참가 허락이 안 되지만 관람은 할 수 있다.

‘알트바칸’의 뜻은 6개의 기둥(좌우 각각 3개씩)으로 고정된 그네를 탄다는 뜻으로서 카자흐인들의 전통 놀이다. 그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튼튼한 통나무 6개를 준비하고 이를 3개씩 좌우로 적절히 나누고 밧줄로 동여맨다. 그 다음 높이 4m~5m 수준의 3인이 탈 수 있는 정도의 큰 크기로 만들어 2명이 마주보고 동시에 탈 수 있도록 한다. 나무가 많은 한국에서는 큰 나무를 이용한 그네가 보편적이지만 초원지대의 유목민인 카자흐인은 이와 같이 큰 통나무를 땅에 세워서 그네를 만든다. 그네를 타는 여성은 잘 차려진 옷을 입고 타면서 멋을 과시하는데 명절 때 그네 타는 여인을 생각하면 된다. 물론 남자들도 그네를 타는데 이때는 매우 용맹스럽게 타는 것



알트바칸(그네타기)

Source:<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이 일반적이다.

그네를 타면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사실 힘차게 그네를 타면서 노래 부르는 일은 쉽지 않은데 바로 이 점 때문에 간접적인 노래 경쟁도 펼쳐졌다. 또한 이때 부르는 노래는 민요인데 마을에서 일부러 민요를 잘 부르는 사람을 초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네타기 놀이에서 그네의 주인은 양을 잡아서 가장 흥을 잘 돋운 그네타기 참여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부잣집 자녀들은 일부러 부모의 도움으로 그네타기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친척과 친

구 등을 초대하여 대대적인 집안 행사로 만든다. 그네는 화려하게 장식되고 음식도 최대한으로 준비되어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한편에서는 간단한 그네도 준비되어 다음 날 아침까지 타기도 한다. 이를 ‘크즈 오이낙(Kyz oinak)’이라고 하며 주로 젊은 남녀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낸다. 오늘날 알트바칸은 주요 행사 때 마련되는데 이때 젊은이들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한다. 과거에는 카자흐인들이 음주를 하지 않았지만 요즈음은 술을 곁들여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트바칸
- 다국어 표기 Алтыбақан(카자흐어), Алтыбак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전통놀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gBw02OhtLw>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kk/5/52/Altybahan.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old.qazaqtv.com/en/programms/viewArchive?id=24626>
<https://doclecture.net/1-8173.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1, Алматы, 2004.

I E207 | 알틴체츠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연 ● 유형 소분류2 오페라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Altynchech

「알틴체츠(Алтынчеч)」는 타타르 시인 무사 ‘잘릴’(Муса Джалиль)의 3막 대본을 기반으로 타타르 작곡가 ‘나지프 지가노프’(Назиб Жиганов)가 작곡한 오페라이다. 1941년 6월 9일 카잔에서 초연되었으며 타타르어로 알틴(Алтын)은 ‘황금’이란 뜻이고, 체츠(Чеч)는 ‘머리카락’이란 뜻이기에 알틴체츠는 ‘금발’을 의미한다. 러시아어로 「즐라토블라스카(Златовласка)」라고 부르기도 한다.

무사 잘릴은 알틴체츠의 대본에 여러 타타르 민담을 결합시켰는데, 「알틴체츠」, 「지크-메르겐(Джик-Мерген)」, 그리고 「황금 깃털(Золотое перо)」이 그것이다. 러시아 비평가이자 음악연구자인 ‘보리스 아사피예프’가 이 줄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오페라를 쓴 적이 있었는데 너무 길고 장대해서 극장에서 공연되지 못했다. 1938년 무사 잘릴은 ‘나지프 지가노프’에게 오페라를 써 줄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작곡가와 시인의 공동작업이 성사되었다. 오페라의 시대적 배경은 몽골의 칸이 불가강, 카마강, 벨라야강 유역에 사는 불가르인을 침공했던 13세기로, 아홉 명의 아들을 가진 투그자크의 가족에 손자가 태어나는 경사가 생긴다. 손자의 이름은 지크였는데 불행히도 콜라한이 이끄는 몽골의 군대가 침입하면서 투크자크 집안의 평화로운 삶은 끝난다. 전투에서 투그자크의 모든 아들이 죽게 되는데 다행히 현명한 어머니 투그자크에 의해 손자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다.

1막: 몽골의 침입 이후 10년이 흘러 숲 가장자리의 시냇가에서 알틴체츠는 여자친구들에게 숲에서 기마전사를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칸의 군대가 다가왔고, 그 소리를 들은 소녀들은 도망을 친다. 이내 칸과 그의 참모 우르마이, 그리고 기병이 등장해 칸이 금발을 발견하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금발의 소녀를 찾으라고 명령한다. 숲의 나무 아래에는 성인이 된 지크가 앉아 있는데, 그는 자신의 부모를 본 적이 없다. 그는 금발의 아름다운 처녀를 뒤쫓는 칸의 군대를 보고, 소녀를 지키며 칸의 군대로부터 도망간다. 청년과 소녀는 서로 사랑에 빠진다.

2막: 알틴체츠의 마을에서 지크는 알틴체츠에게 세 개의 황금 백조의 깃털을 선물한다. 그리

고 만일 깃털이 검게 되면 그것은 지크가 위험에 처한 것이고 알틴체츠가 부르면 마법의 백조가 지크에게 날아갈 것이며, 만일 알틴체츠가 위험에 처하면 마법의 깃털 스스로가 지크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투그자크는 알틴체츠의 할아버지를 찾아가 자기 손자를 만나는데 이때 지크는 자신의 내력에 대해 알게 되고 조국을 위해 복수하고 조국을 해방시킬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영웅을 전장으로 배웅할 때 칸의 군대가 알틴체츠를 납치한다.

3막: 화려하게 장식된 칸의 게르에서 알틴체츠는 칸의 선물을 거부한다. 칸은 고집 센 알틴체츠를 처벌하고 싶지만 전투를 알리는 지크의 화살이 날아든다. 백조의 깃털이 검어지는 것을 본 알틴체츠는 마법의 백조를 부르고 백조 무리가 그녀를 게르에서 꺼낸다. 밤에 지크는 결전을 앞두고 사색에 빠진다. 그는 거인 쿨루파이와 싸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오랜 싸움에서 지크는 승리하지만 칸의 군대가 지크를 포위한다. 이내 날갯짓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새들이 날아들어 황금 깃털이 번쩍이며 칸의 군대를 눈멀게 하고, 지크의 화살 소리를 듣고 군대가 등장한다. 그리고 칸을 포로로 잡은 민중은 영웅과 조국을 찬양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틴체츠

● 다국어 표기 Алтынчеч(타타르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атар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 Казань: Институт Татарской энциклопедии АН РТ. — 1999.

I E208 | 알파강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강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Arpa River

알파(Arpa)강은 아라즈(Araz)강의 지류이다. 알파강은 동서로 동알파강(Şərqi Arpaçay)과 서알파강(Qərbi Arpaçay)으로 나뉜다. 서알파강은 현재 아르메니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르메니아어로는 아쿠리안(Akhuryan, Ախուրյան)으로 부른다. 이 강은 해발 2,985m의 바오투스

드조르(Vaotsdzor)산에서 발원하며, 그 길이는 126km에 달하고, 유역 면적은 2,630제곱킬로미터이다. 세반호수(Sevan gölü)의 수량이 줄어들어서, 예드나드조르(Yegnadzor)시의 귄뤼뒤즈(Gülüdüz) 마을 부근 산 밑에 세반 호수 방향으로 48.6km 길이의 터널을 건설하여 연간 2억 8천만 입방미터 가량의 물을 호수에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 물이 전체 강물의 40%를 차지한다.

반면 알파강에서 세반호수로의 방류는 호수 내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어류의 폐사(斃死)를 초래했기 때문에 한동안 방류를 중단해야 했다. 또한, 이 방류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세루르시(Şərur rayonu)의 농경지 파괴를 일으켜서 1977년 세루르시(市)의 귀뮈실뤼(Gümüşlü) 마을 부근에서 알파강 저수지를 건설했다. 이 저수지는 1억 5천만 입방미터의 물을 수용하고, 에너지를 공급한다.



알파강 협곡

알파강에는 알라괴즈강(Alagöz çayı) 및 가바흘르강(Qabaxlı çayı)의 큰 두 지류가 있다. 이 강들은 인근 지역의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그 물이 아라즈강까지 도달하지는 못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르파강, 알파차이, 아르파 차이

● 다국어 표기 Arpaçay(아제르바이잔어), Arpaçay(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Sovet Ensiklopediyası*, Bakı, 1976, səh.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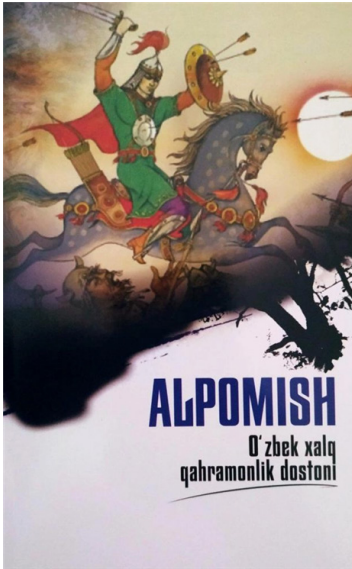
Məmmədov, Q.Ş., Xəlilov M.Y. *Ekologiya, Ətraf Mühit Və İnsan*. Bakı, “Elm”, – 2006, səh.362~364.

Rüstəmov S.Q., *Azərbaycan SSR-Nin Çayları Və Onların Hidroloji Xüsusiyyətləri*. Bakı: 1960, s.251.

Халилов Ш.Б. Водохранилища Азербайджана и их эколог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Баку: 2003, 360 с.

I E209 | 알퍼므쉬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Alpomish



『알퍼므쉬(Alpomish)』 표지
Source: <https://asaxiy.uz/>

『알퍼므쉬(우즈베크어, Alpomish)』는 『고르오글루(괴르오울루)』와 더불어 투르크 민족의 대표적인 영웅서사시 중 하나로 투르크 족의 이동과 민족의 분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무형문화유산이다. 『알퍼므쉬』 서사시는 투르크 족의 이동과 전파에 따라 여러 가지 판본이 전해진다. 『알릅-마나쉬(ALIP MANAŞ)』라 불리는 알타이 판본, 『알퍼므쉬(ALPAMIŞ)』로 전해지는 우즈베크 판본, 카자흐와 카라칼팍인들에게는 『알파므스(ALPAMIS)』로 칭해지는 카자흐 판본, 『알파므사(ALPAMISA)』로 불리는 바시키르 판본, 『알릅 멘첸(ALIP MEMŞEN)』이라는 이름이 붙은 타타르 판본이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에 퍼져 있는 오우즈 부족에게는 「밤스 베이렉(BAMSI BEYREK)」 혹은 「베이 보이렉(BEY BÖYREK)」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진다.

『알퍼므쉬』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져서 투르크 민족마다 각각 독자적인 판본을 형성했다. 그럼에도 문학적 수준과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우즈베크 판본이다. 우즈베크 판본 『알퍼므쉬』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부터였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작품이 최초로 채록 및 기록된 것은 1922년 여름이었다. 당시 ‘가지알림 유누서브’가 구비서사시 구연자인 퍼즐 울다쉬오글루(Fozil Yo‘ldosh o‘g‘li, 1872년~1955년) 바흐쉬(Baxsh, 명창)의 암송과 구연을 채록했고, 1928년에 활자화되었다. 하지만 같은 우즈베크 판본이라고 하더라도 유파나 바흐쉬에 따라 서사시 『알파므쉬』의 내용과 구조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현재는 『알퍼므쉬』 우즈베크 판본의 33개 구연본(같은 우즈베크 판본이라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버전)이 전해지는 것으로 집계된다. 수르헨다리여,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인근, 남부 타지키스탄 지방 등 같

은 우즈베크 민족이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유파가 달라 다양한 구연본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가에서 공인한 공식 국민 바흐쉬는 28명이다. 콘그로트 판본이라고 알려진 우즈베크 판본은 대체로 채록 후 출판된 인쇄본으로 300여 페이지가 넘는다. 가장 대표적이며 정본으로 인정받는 퍼즐 올다쉬 오굴루 본은 운문과 산문을 포함해서 394 페이지에 달한다.

『알퍼므쉬』의 다양한 판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지르문스키’(Zhirmunsky)는 『알퍼므쉬』가 7세기~8세기경 알타이 산맥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9세기~10세기경 오우즈 부족의 이동 경로를 따라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수르한다리여 남부로 전파되었다고 유추했다. 이어 그는 『알퍼므쉬』가 킵차크 부족에게 전파된 후, 이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자 그 경로를 따라 카자흐 스텝지역으로 퍼져 나갔다고 보았다. 15세기 이후부터는 ‘우즈베크’와 ‘카자흐’의 민족 분화가 생겨나는데, 이 과정에서 우즈베크 민족이 16세기 초에 다시 남부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오늘날 우즈베크와 카자흐 민족의 판본이 공유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어 쉐이반 한을 중심으로 우즈베크 민족이 목초지를 따라 아랄해 인근 지역에서 현재의 남부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우즈베크 판본 『알퍼므쉬』 서사시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지르문스키는 우즈베크 판본 『알퍼므쉬』의 완성 시기를 16세기 경으로 추정했다.

‘자리퍼브(X.Зарифов)’는 서사시 내용을 분석하여 발생 연대를 추론했다. 그에 따르면, 『알퍼므쉬』 서사시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투르크인들의 전형적인 생활풍습이나 정신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슬람화되기 이전 씨족 단위의 투르크인들의 사회구성체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9세기~10세기 투르크인들의 민속체계와 비슷하며, 이슬람적인 요소들은 비교적 시간이 많이 흐른 15세기나 16세기경 첨가되어 모티프의 변형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추론이다. 그리고 알타이 투르크인들이 외적 침입 때문에 일부는 현재 튀르키예 지역으로, 또 다른 일부는 고르노 알타이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일부만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정착해 남아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10세기~11세기가 『알퍼므쉬』 서사시의 발생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때는 아직 몽골 침입 이전이며, 당시 투르크인들은 같은 종족이 대규모로 알타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과거 역사와 문화를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 역사와 삶을 서사시로 만드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과거 역사를 악기 반주를 이용해서 명절이나 국가 행사 때마다 공연하는 풍습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즈베크 민족의 정확한 형성 시기를 추론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다만, 15세기를 전후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칭기즈 칸의 다섯 번째 부인의 아들 주치한에서 시작된 사이반 계열인 ‘우즈베크 칸’(Узбек-хан, 1312년~1342년, 재위: 1312년~1341년)이 아랄에서 사마르칸트, 우르겐치에 이르는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오우즈 부족 92개를 통합하여 통일체를 이루었고, 이때 우즈베크어가 생겨나고 언어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를 공용어로 하는 우즈베크인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알퍼므쉬』 서사시 본문에 등장하는 콘그라트(Kongrat)는 우즈베크인의 다른 명칭이며, 우즈베크 민족 형성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종족이라는 설이 있다. 서사시 본문에도 ‘우즈베크’라는 용어가 몇번 등장하지 않으며, 콘그라트가 우즈베크인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리퍼브(X.Зарифов)는 콘그라트인들을 킵차크 칸국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지금의 우즈베크 키스탄 영토에 정주하고 있던 정주민 투르크로 보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즈베크 학자들은 『알퍼므쉬』의 성립 시기를 10세기 전후로 보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파므쉬, 알파미시, 알퍼므쉬

● 다국어 표기 Alpomish(우즈베크어), Alпамış(튀르키예어), Алпомиш(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바흐쉬

● 참고문헌(오프라인) Celilov G., *Alпамış Destanı ve Masallar*, Özbek Dili ve Edebiyatı, Taşkent, 1999, ss.11~14.

Chawick & Zhirmunsky, *Oral Epic of Central Asia*, Cambridge Univ. Press, 1969.

Mirzayev T., *Alпамış Destanının Özbek Varyantları*, Fan, Taşkent, 1968.

Алпомиш, Саидмурод Паноҳ ўғли варианты. Т., 59-бет, 1969.

오은경·마맛쿨 조라예브, 「알퍼므쉬 서사시에 재현된 신화적 요소」, 『중앙아시아·카프카즈 연구』, 제 3권 제1호, 2011, pp. 47~66

오은경·마맛쿨 조라예브, 「알퍼므쉬 서사시의 수르한다리여 판본에 대한 고찰」, 『중동연구』, 제 30권 2호, 2011.

오은경, 「우즈베크의 구연자와 구연학파, 알퍼므쉬 콘그라트(우즈베크) 판본의 구연본 연구」, 『중동연구』, 제 32권 1호, 2013, pp.139~166.

I E210 | 알퍼므쉬 콘그로트 판본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Kongrot Version of Alpomish

알퍼므쉬 서사시는 투르크족의 이동과 전파에 따라 여러 가지 판본이 전해진다. 알타이 판본(ALIP MANAŞ), 우즈베크 판본(ALPAMIŞ), 카자흐 판본(ALPAMIS), 바쉬쿠르트 판본(ALPAMISA), 타타르 판본(ALIP MEMŞEN), 오구즈 판본(BAMSI BEYREK/BEY BÖYREK)이 그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널리 퍼진 『알퍼므쉬』는 콘그로트 판본이다. 우즈베크 판본이라고도 불린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존하는 콘그로트 판본은 총 30개 구연본이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분량이 가장 많고, 완성도가 높아 모든 연구로 기본 텍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퍼즐올다쉬 오굴루 구연본, 풀칸 셔이르 구연본, 벅무렛 조라버이 오굴로 구연본, 베르디 바흐쉬 구연본을 비롯한 4개 구연본이 채록된 후 출판되었다. 남부지방인 수르헌다리여 판본은 일부가 채록이 진행 중이다. 30개 콘그로트 구연본-판본 중에서 22개 구연본은 채록되기는 했지만 알리셰르 나보이 국립 과학 아카데미 언어문학 연구소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Фанлар академияси Алишер Навоий номидаги Тил ва адабиёт институти) 도서관 아카이브에 소장돼 있다. 이 구연본 판본을 채집, 기록하는 데는 바흐쉬와 구비문학자들이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

가장 완성도가 높고 문학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콘그로트 판본은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카라칼파크어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콘그로트 판본의 주제와 서사는 대부분 16세기부터 투르크스탄 투르크인들에게 위협적 존재가 되었던 몽골족 칼묵의 침략과 관계가 있다.

구비 영웅서사시를 구연하는 명창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바흐쉬(Baxsh, Bahsh)’하고 부른다. 바흐쉬는 지방마다 학파나 유파가 있어서, 그들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특색이 있다. 같은 영웅서사시도 학파나 유파에 따라 내용과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지방에 따라 소수 부족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문화와 정신세계가 반영되기도 한다.

첫번째로, 퍼즐 올다쉬 오굴루 구연본이 있다. 퍼즐 올다쉬 오굴루는 사마르칸트 불룬구르 학

파를 대표하는 바흐쉬이다. 이 판본이 알퍼므쉬 연구의 모든 분야에서 표준 텍스트로 취급되고 있을 정도로 문학적, 미학적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다. 1922년도에 최초로 채록되었으나 분실되었다가 1928년도 다시 채록되었다. ‘omin deca parishtayu maloyik’라는 후렴구는 오직 퍼즐 올다쉬 오굴루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후렴구이다. 이 문구는 그의 종교적 색채를 드러낸다. 이렇게 짧은 문구로 종교적 의미를 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의 시적 재능이 높이 평가 받기도 한다. 그의 작품 속에는 바흐쉬로서의 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그의 높은 의식수준과 정신세계가 작품 속에 드러나고 있다. 퍼즐 올다쉬 오굴루 구연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콘그로트’라는 나라에 바이보리와 바이사르라는 형제가 살았다. 바이보리는 왕이고, 바이사르는 동생이었다. 두 사람은 자식이 없어 40일간 기도를 하여, 기도 끝에 성인의 계시를 받고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은 베척토이(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벌이는 잔치, 우즈벡 전통) 잔칫날 성인이 나타나 이름을 지어준다. 바이보리가 낳은 쌍둥이 중에서 아들에게는 하킴벡, 딸에게는 칼드르거치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바이사르의 딸에게는 바르친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성인은 하킴벡의 오른쪽 어깨에 손바닥 자국을 내고는 이 손바닥 자국이 어떠한 위기에서도 그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하킴벡은 일곱 살이 되자 그의 조부가 남긴 성물(聖物) 활을 들어 올림으로써 영웅성을 인정받고 ‘알퍼므쉬’라는 이름을 얻는다.

시간이 지나 바이사르는 형이 세금을 내라는 명을 받고 화를 내며, 칼먹 땅으로 이주하는데, 바르친은 칼먹 땅에서 그곳 전사들에게서 청혼을 받는다. 바르친이 청혼을 거절하면 그의 아버지가 칼먹땅으로 이주한 일가가 몰살 당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에, 바르친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알퍼므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 이 소식을 알린다.

이 편지를 알퍼므쉬의 아버지가 받게 되지만 아들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아버지는 편지를 숨긴다. 우연히 알퍼므쉬의 쌍둥이 여동생 카드르거치가 편지를 찾아내 알퍼므쉬에게 전해준다. 알퍼므쉬는 당황하여 망설이지만 칼드르거치가 약혼녀인 바르친을 도와야 한다며 독려한다. 쿨터이가 말을 골라주고 그는 길을 떠난다.

그사이 칼먹의 전사 중 가장 막내인 커라존은 무슬림이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을 계기로 알퍼므쉬를 돕는 친구가 된다. 칼먹에 도착한 알퍼므쉬는 바르친이 제안한 네 가지 경합에 참여하여 승리한 후 바르친을 구한다. 경합 조건은 말 경주, 활쏘기, 레슬링, 천 걸음 뒤에서 총알로

활판 맞추기이다.

그들이 돌아가 칼먹의 왕 터이치한은 베이사르의 재산을 몰수하고 양치기로 만든다. 그는 바르친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 알퍼므쉬는 그를 구하기 위해 다시 칼먹으로 간다. 그 과정에서 수르한 노파의 계략에 말려 지하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터브카의 도움을 받아 그의 말 베이치버르가 구해준다. 지하감옥에서 나온 알퍼므쉬는 터브카를 코칼더쉬와 혼인시키고 그를 왕으로 만든다.

한편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그의 배다른 동생 울턴터즈가 왕이 되고 그의 여동생은 낙타를 돌보는 종으로 전락해 있다. 울턴터즈가 바르친과 결혼하고자 하는 혼례식 날 알퍼므쉬는 쿨터이복장을 하고 돌아와 활쏘기 경주를 통해 자신의 영웅성을 증명하고 왕위를 차지한다. 다시 콘그로트에는 평화가 찾아온다.

두번째는 풀칸 셔이르 바흐쉬 구연본이다. 이 구연본 판본은 코르건 유파의 성향과 전통을 담고 있어 중요한 구연본이다. 무함마드쿨 전무렛 오굴루 풀칸, 그리고 에르가쉬 주만불불 오굴루 구연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퍼즐올다쉬오굴루 구연본과 비교하여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식이 없는 베이보리와 베이사리가 이 판본에서는 외삼촌 헨더르 마흐람으로 나온다. 베이보리가 변형된 인물인 헨더르백은 아들을 보게 되는데 이름을 ‘동커라’라고 붙인다.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헨더르백은 대단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거의 등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사건의 마지막에서 울턴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주변 인물에 의해 한 번 더 회자될 뿐이다.

풀칸 바흐쉬는 주로 ‘고르오굴루’ 더스탄을 구연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 영향 때문인지 알퍼므쉬의 내용도 고르오굴루와 비슷하게 변형되었다. 고르오굴루 더스탄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말과 같은 날 태어난다. 그래서 그 말의 어미 말의 젖을 먹고 자란다. 알퍼므쉬 풀칸 셔이르 구연본에서도 하킴백은 자신이 기르는 말의 어미젖을 먹는다. 이 구연본에서는 주인공의 신성함이나 비상함이 이 사건 하나만을 통해 드러나게 되며, ‘알퍼므쉬’라는 이름을 얻는 과정이나 에피소드는 삭제되었다.

베이사리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계기도 다른 구연본과는 차이가 있게 묘사되고 있다. 베이보리가 “베이사리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내 아들이 물려받을 것”이라고 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주하게 되며, 카작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정착하게 된다. 그런

데 어떠한 이유로 굳이 카작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게 되는지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며, 사건 전개에 별다른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이주한 곳의 파디샤인 터이치헌은 90명 용사를 중매장으로 버이사르에게 보내는데, 이 장면에서도 용사들의 이름이 커라존을 제외하면 다른 퍼즐 올다쉬 구연본과는 완전히 다르다. 버이사르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용사들에게 석 달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바르친은 콘그로트로 곧장 소식을 보낸다. 알퍼므쉬는 바르친이 보낸 편지를 메흐조르 노파에게서 받게 되는데, 말을 관리하는 쿨터이는 알퍼므쉬에게 가지 말라고 잡는다. 퍼즐 올다쉬 오굴루 구연본에서 쿨터이가 말을 골라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구연본에서는 바르친과 결혼하고자 하는 경쟁자로 파디샤인 터이치헌이 등장한다. 나머지 90명 용사는 파디샤를 돕는 인물로 묘사된다. 알퍼므쉬의 친구로 등장하는 커라존은 꿈속에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알퍼므쉬와 친구가 된다. 그런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울턴터즈에게 돌아가 그를 도와주는 배신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친구의 배반 모티프는 신의를 지키는 모티프보다 더 오래된 모티프이다.

바르친이 제시한 경쟁조건도 세 가지로 말 경주, 활쏘기 그리고 레슬링이다. 퍼즐 올다쉬 판본에서 조건이 네 가지였던 것이 세 가지로 축소된 것은 예로부터 숫자 3이 신성한 숫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구연본에서는 경주에서 승리한 알퍼므쉬가 바르친을 데리고 떠나자마자 터이치헌은 버이사르와 그의 부인을 살해하고 그의 재산을 몰수해간다. 울턴터즈도 이 판본에서는 알퍼므쉬의 배다른 동생이 아니라 버이보리의 종으로 나온다. 그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을 버이보리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행세한다. 그리고 콘그로트 지방을 다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하감옥에서 나오는데 도와주었던 터이치헌의 딸 터브카의 경우, 퍼즐올다쉬 판본과는 달리 알퍼므쉬는 그녀를 자신의 두 번째 부인으로 삼고, 카이쿠벳과는 터브카의 동생을 결혼시킨다. 알퍼므쉬가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왕이 되는 과정은 퍼즐올다쉬 오굴루 구연본과 흡사하다.

이 구연본에서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르친이 민중의 요구에 따라 영웅으로 묘사되는 과정을 변형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이 구연본에서는 이슬람적 요소는 여전히 드러난다. 그리고 알퍼므쉬가 수호신의 도움으로 영웅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알퍼므쉬가 자신의 조상과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작품의 초기에 그 이름을 명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세번째, 백무럿 조라버이 오굴루 구연본이다. 이 구연본에서는 버이보리와 버이사리가 형제가 아니라 친구 관계로 드러난다.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다. 버이보리와 버이사르가 형제가 아니라는 것은 사건이 전개되면서 조금씩 드러난다. 버이사르는 바르친을 얻기 위해 터이치헌이 보낸 중매장을 통해 버이슨을 장악하고, 알퍼므쉬를 물리치고 오라고 조건을 건다. 그런데 이 조건은 별다르게 전개되지 않는다. 버이사르는 알퍼므쉬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자신이 버이사르의 동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건이 전개되면서 버이보리와 버이사리 두 사람의 관계나 사건의 전개가 논리에 맞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터이치헌 청혼으로 인해 바르친이 소식을 보내자 알퍼므쉬는 어느 노파에게서 소식을 전해 듣는다. 그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허락을 하지 않지만 그의 용맹성을 확인한 후에는 가도 좋다는 허락을 한다. 그러나 마땅히 준비된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버이치보르를 선택한다. 이 점은 다른 구연본에서 말 관리인 쿨터이가 말을 직접 골라주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이 구연본에서도 알퍼므쉬가 바르친과 결혼하는데 있어 경쟁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단지 터이치헌 한 사람 뿐이다. 커라존은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 등장하는데 터이치헌을 도와 그를 물리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결혼을 하는 데 거는 조건은 이 구연본에서는 말 경주와 레슬링 두 가지 뿐이다. 이 조건도 바르친이 아니라 터이치헌이 제안한다. 결국 승리한 알퍼므쉬는 바르친을 데리고 귀환한다.

그 사이 터이치헌은 버이사리를 포함하여 버이슨에 있는 만 오천 가구를 몰살시킨다. 이 소식을 들은 알퍼므쉬는 콘그로트로 가지 않고, 복수를 하기 위해 다시 길을 튼다.

알퍼므쉬의 동생 칼드르거치는 거위가 전해준 편지의 도움으로 바르친을 찾는데 성공한다. 콘그로트로 돌아온 커라존은 알퍼므쉬를 따라 칼먹으로 가는데, 다른 구연본과는 다르게 알퍼므쉬를 배신하는 인물로 나온다. 알퍼므쉬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고는 왕위를 차지한 울턴터즈를 찾아가 그를 돕는다.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는 결국 처형된다.

카이쿠벳과 터브카와 관계된 부분은 퍼즐 올다쉬 오굴루 구연본과 흡사하다. 그러나 백무럿 조라버이 오굴루 구연본에서는 해학적이며 청중에게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장면이 더 풍성하다.

백무렛 조라버이 오굴루 구연본에서는 칼드르거치와 쿨터이라는 인물 또한 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더스턴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칼드르거치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인공들은 운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된다. 거위도 마치 알퍼므쉬를 구하기 위해 세상에 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알퍼므쉬의 이마에 쓰인 “7년”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5분 안에 편지를 바이순으로 전달한다.

네번째, 베르디 바흐쉬 구연본이다. 베르디 바흐쉬 구연본은 타슈켄트 유파에게서 계승되어 채록된 유일한 작품이다. 분량 면에서는 그다지 방대하지 않지만 문학적, 시적 측면에서 매우 완성도가 높다.

이 구연본에서는 알퍼므쉬의 조상인 더번비의 아들들, 즉 바이보리와 베이사르가 셔셔버드에 살았다. 더번비는 아들들을 결혼시키자마자 나라를 두 개로 나누고 하나는 콘그로트, 나머지 하나는 바이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콘그로트는 바이보리, 바이순은 베이사리가 지배하도록 했다. 자식이 없는 형제는 지성을 들여 자식을 얻게 되었고, 이름은 흐즈르가 붙였다. 여기서는 알퍼므쉬가 용맹성을 과시하고 알퍼므쉬라는 이름을 얻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다만 기도를 통해 아이를 얻게 되며, 흐즈르가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비범함이 묘사된다.

여기서 베이사르가 9만 명을 이끌고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은 세금 문제인데, 이주를 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베이사르가 아니라 하킴벡이다.

카라존의 경우, 퍼즐 울다쉬 오굴루 구연본에서처럼 친구가 되는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지 않는다. 다만 알퍼므쉬와 카라존은 경합을 벌이는데, 카라존이 지게 되자 알퍼므쉬의 친구가 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 구연본에서도 바르친의 조건은 세 가지이다. 활쏘기, 말 경주, 레슬링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구연본에서는 바르친 자신이 직접 경합에 참가하는데, 알퍼므쉬의 활을 부러뜨린다는 점이다.

카이쿠벳과 터브카, 그리고 알퍼므쉬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다른 구연본과 거의 비슷하지만 베르디 바흐쉬는 이 부분에 많은 에피소드를 첨가해서 이 부분을 문학적으로 풍요롭게 장식한다.

말의 도움을 받아 지하감옥에서 빠져나온 알퍼므쉬는 카이쿠벳을 왕으로 등극시키고, 코칼 더쉬의 딸 헨더르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시킨다. 자신은 터브카와 결혼한다.

베르디 바흐쉬에서도 알퍼므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쿨터이의 옷을 입고 돌아

와 바르친의 결혼식 날 그녀를 구하는 점은 변형되지 않고 전해진다.

베르디 바흐쉬 구연본은 문학적으로 수준이 높고, 독특한 해학과 풍자 기법이 돋보인다. 베르디 바흐쉬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 구연본은 문학적 형식 측면에서 볼 때 서정서사시(romanik dostan) 특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베르디 바흐쉬만의 고유한 서정적 묘사나 시적 묘사, 운율 또한 문학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베르디 바흐쉬가 지적 수준이 매우 높았고, 많은 고전을 습득했던 덕택에 기록문학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전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파르시의 콘그롯 판본, 알파르쉬의 콘그로트 버전

● 다국어 표기 Kongrot Version of Alpomish

● 연관 검색어 알퍼르쉬, 바흐쉬

● 참고문헌(오프라인) Celilov G., *Alpamiş Destanı ve Masalları, Özbek Dili ve Edebiyatı*, Taşkent, 1999, ss.11~14.

Chawick & Zhirmunsky, *Oral Epic of Central Asia*, Cambridge Univ. Press, 1969.

Mirzayev T., *Alpamiş Destanının Özbek Varyantları*, Fan, Taşkent, 1968.

Алпомиш, Саидмурод Паноҳўғли варианты. Т., 59-бет, 1969.

오은경·마맛골 조라예브, 「알퍼르쉬 서사시의 수르한다리여 판본에 대한 고찰」, 『중동연구』, 제 30권 2호, 2011.

오은경, 「투르크 구전서사시의 사머니즘적 모티프 연구」, 『중동문제연구』, 14(3), 2015, pp.117~147.

오은경, 「우즈베크의 구연자와 구연학파, 알퍼르쉬 콘그롯(우즈베크) 판본의 구연본 연구」, 『중동연구』, 제 32권 1호, 2013, pp.139~166.

Ⅰ E211 | 알프 아르슬란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이란,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이주연, 우덕찬
- 라틴 문자 Alp Arslan

알프 아르슬란은 11세기~12세기에 중앙아시아에서 아나톨리아까지 차지했던 오구즈 투르크계 지배층의 유목 제국인 셀주크 조의 두 번째 술탄(? ~ 1072년, r.1063)이다. 그의 탄생 시점은 기록마다 달라 확실치 않다. 다만 셀주크 조의 건국 군주인 '토그릴 벡'(Tughril Beg)의 조카이며 후라산을 통치하던 토그릴 벡의 형제, '차그리 벡'(Chaghri Beg)의 아들이라 한다. 그

리고 무슬림이 된 후에는 ‘무함마드 빈 다우드 차그리’(Muhammad bin Dāwūd Chaghri)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어릴 때부터 그의 부친이 후라산에 주둔하여 참여했던 가즈나 조와의 전투에 참전했으며, 부친이 1059년~1060년경에 사망한 후에는 그 자리를 계승했는데, 곧 가즈나 조와 화평을 맺었다. 이후 토그릴의 명을 받아 서쪽으로 부이 조, 파티마 조와 전투를 했으며, 백부인 토그릴 백의 생명을 살려준 적도 있다. 다만 토그릴 백은 그의 형제였던 술레이만을 양자로 들인 적이 있어 그의 사후에 술레이만이 술탄으로 선포되었으나, 토그릴 백의 일부 관료들과 알프 아르슬란의 반발로 인해 술레이만은 다시 후계자의 지위로 격하되고 알프 아르슬란이 당대의 칼리프, 알 카임(al-Qā'im)의 승인을 얻어 술탄이 되었다. 그는 제위 계승 직계가 아니었으나 숙부를 물리치고 35세 때 술탄의 지위에 올랐다. 탁월한 무예와 군사적 역량, 용기를 지녀 튀르크어로 ‘영웅적인 사자’라는 의미의 알프 아르슬란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는 등극한 후에 토그릴 백에게 특권을 부여받아 각지에서 큰 세력을 누리고 있던 왕자들, 즉 헤라트의 야브구(Yabghū)나 카스피해 남단의 쿠틀루미시(Kutlumush), 키르만에서 파르스를 넘보고 있던 동생 카우르트(Qāwurt) 등을 제압하여 복속시켰다. 그리고 1064년에는 아르메니아에 있던 비잔틴 세력을 공격했고, 1065년에는 본거지인 아랄해 부근에서부터 카라쿰 사막까지 진출해 있던 킵차크와 투르크멘 부족의 연합체, 잔드 칸의 세력도 몰아냈다. 하지만 가즈나 조 및 카라한 조의 군주와는 혼인을 통해 동맹을 강화했다. 그리고 1066년에는 카라한 조의 딸과 결혼시켰던 아들 말릭샤를 후계자로 삼았다.

1069년~1070년에 그는 다시 한번 비잔틴과의 변경으로 진격했다. 그가 비잔틴을 공격한 이유는 그들이 시리아까지 진출하여 그곳의 여러 도시에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이때 비잔틴의 황제 ‘로마누스 디오게네스’(Romanus Diogenes)가 그에게 속임수를 쓰려고 한다는 보고가 전달되자, 튀르키예 동부에 위치한 만지케르트로 나아가 비잔틴 군을 대파하고 황제를 포로로 잡기도 했다. 이 전쟁은 비잔틴의 동부 방어선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한편 알프 아르슬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비잔틴에서 파견된 평화 사절은 알프 아르슬란에게 파티마 조에 대한 공격을 은밀히 선동했다. 파티마 조는 당시에 이슬람권에서 시아파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바그다드에 있는 칼리프를 반대하는 선봉장이었다. 그러나 알프 아르슬란의 관심은 주로 아나톨리아나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초원과 그곳의 유목민에 있었다. 즉,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교조적인 후라산 출신의 수니 무슬림, 재상 니잠 알 물크의 판단에 크게 의존했으나, 그 자신은 수니라는 교파에 얽매이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야계의 파티마 조와도 동맹을 맺기도 했다. 그가 주변의 세력과 동맹을 맺거나 전쟁을 하는 이유는 주로 그의 휘하에 있는 투르크멘 군사 세력이 초지와 물자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시리아를 장악한 알프 아르슬란은, 자신의 남매인 ‘아이샤’를 죽인 ‘카라한 조의 샴스 알 물크 나스르’를 처단하기 위해 트란스옥시아나의 카라한 조 정벌에 나섰다. 아무다리야 강을 건넌 직후 한 포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어 1072년(혹은 1073년)에 사망했고, 그의 아들 말릭샤가 그의 자리를 계승했다. 그에 관한 당대의 사료는 거의 소실되었으나, 가장 많은 기록을 담고 있는 사서는 이븐 알 아티르의 『al-Kāmil fī al-Tārikh』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프 아르슬란
- 다국어 표기 آلپ ارسلان(페르시아어), Alp Arsl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조
- 멀티미디어 링크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알프 아르슬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3124&cid=40942&categoryId=34312>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alp-arслан-saljuq-sultan>
- 참고문헌(오프라인) Cahen, Cl. “Alp Arslan.” *Encyclopaedia of Islam* 1, Leiden: Brill, 1986, pp.420~421.
Minorsky, Vladimir, A History of Sharvān and Darband in the 10th-11th Centuries. University of Michigan, 1958.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Ⅰ E212 | 알프 에르툽가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주인공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Alp Er Tunga, Alp Er Tonğa

알프 에르툽가는 위대한 투란의 왕, 투르크 민족의 영웅, 투르크 왕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 페르시아어로는 ‘아프라시압’으로 불리는데, 『샤흐나메(Shoخنoma)』에서 ‘아프라시

압'으로 명시된 이후부터 이 이름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아베스터(Avesto)』에는 위대한 구론(Guron)의 왕 '알프 에르툽가' 혹은 '아프라시압'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프랑크라시얀(Franxrasyan)', 아시리아(Assiriya) 출처에는 '마두바(Maduva)', 헤로도토스 『역사』에서는 '마이데스(Maydes)'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현자 코르쿠트의 서(書)』에서는 알프 에르툽가가 사카인들의 왕이라고 묘사된다.

기록으로 전해지는 사료 중에서 알프 에르툽가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것은 '오르혼 비문'이다. 투르크어로 '알프'는 '용감한 자' 혹은 '영웅'이라는 뜻이며, '에르'는 '남자', '군인'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툽가'는 '시베리아의 호랑이'를 뜻하지만 '맹수'를 영웅의 이름으로 사용함으로써 영웅이라는 뜻을 배가시키고 있으며 '신화적 영웅'이라는 의미에 더욱 가깝다.

사흐나메에 따르면 알프 에르툽가는 페르시아-투란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고 이에 대한 노래와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 그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용맹담 중 하나는 그가 영원불멸의 괴물을 죽였다는 이야기다.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Mahmud al-Kashgari)의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Divâu Lügati't-Türk)』에서는 알프 에르툽가가 아프라시압과 동일 인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알프 에르툽가의 영웅성에 대해 언급된 많은 문학 작품들이 남겨졌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알프 에르툽가의 죽음에 바쳐 쓴 시이다.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Mahmud al-Kashgari)의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Divâu Lügati't-Türk)』에서는 알프 에르툽가가 아프라시압과 동일 인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알프 에르툽가의 영웅성에 대해 언급된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알프 에르툽가의 죽음에 바쳐 쓴 시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페르 툽가, 알페르 툽가
- 다국어 표기 АЛП ЭРТУНГ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 아프라시압
- 참고문헌(오프라인) *Kitabi-Dada Qorqud ensiklopediyas*, Baki: Yeni Naşrler Evi, 2000. S.21.

Кошгарий М. Девону луготит турт. Т.: Фан, 1961; Фитрат. Энг зеки турк адабиёти намуналари. Т.: MUMTOZ SO'Z, 2009.

Беруни. Избра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Т. I. – Т.Н Фан. 1957. С. 114~115, 231~232.

Хомидий Х «Авесто»дан «Шохнома»га. Т.: Шарк НМАК, 2007.

I E213 | 암바르 오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Ambar-ona

‘암바르 오나’는 호라즘 오아시스의 여러 민족(특히 우즈베크인)의 신화에 나오는 여성과 여성의 일을 수호하는 신으로 ‘하킴 아타’의 아내였고, 그가 죽고 난 뒤엔 큰 뿔 달린 가축의 수호자인 ‘젠기-바바’의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호라즘 오아시스 밖에서는 암바르 오나에 대한 개념은 분명하지 않다.

암바르 오나의 어원은 ‘헛간’, ‘창고’, ‘광’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anbār*와 ‘어머니’를 의미하는 투르크 어원의 ‘ona’, ‘ana’가 결합한 단어이다. 그 형상으로 미루어 볼 때, 암바르 오나는 아베스타의 다산의 신이자 물과 생명을 관장하는 아르드비 수라 아나히타(*Aredvi Sura Anahita*)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암바르 오나가 아들 후비-호드지(*Хубби-Ходжа*)를 찾으려 오랫동안 성과 없는 여행을 했다는 신화가 남아 있다. 이것은 다산의 신에 관한 전형적인 줄거리이다. 후비-호드지는 번제가 되어 먹힌 짐승들이나 물에 빠진 사람들을 되살리는 능력을 가졌는데, 자기 아버지의 성스러움을 능가하는 것이 부끄러워 아무다리야 강에 숨어 버렸기 때문이다.

후비-호드지는 아무다리야 강을 주관하고 강을 따라 항해하는 이들을 지켜준다고 한다. 그래서 조산사, 주술사, 무당 등이 암바르 오나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하며, 암바르 오나를 기리는 관습들은 물의 힘과 관련되거나 아무다리야 강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아무다리야 강을 운항하는 배의 이물에 암바르 오나의 선수상을 달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암바르 아나

● 다국어 표기 Амбар он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무다리야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 1991, 66.

Снесарев Г.П., Реликты домусульманских верований и обрядов у узбеков Хорезма, М., 1969, 240~262.

I E214 | 압둘 카디르 길라니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bdul Qadir Gilani

‘압둘 카디르 길라니’는 1077년 카스피해 남서쪽 길란 지방에서 종교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역시 유명한 수피의 딸이었다. 그의 족보는 4대 칼리프 알리까지 이어져 있다고 전해진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조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18세에 바그다드로 유학을 간다. 그리고 그는 바그다드에서 유명 학자들 밑에서 이슬람 법학, 피키흐, 하디스, 문학을 비롯하여 상속법상의 계보, 방법론, 분파 등 다양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익히게 된다.

이 당시 그는 바그다드의 수피였던 ‘압둘 카히르 이븐 무슬림 알 닷바스’(Abu’l-Khair Hammad ibn Muslim al-Dabbas, ? ~1131년)를 만나 수피즘에 입문하게 된다. 그는 스승의 지시에 따라 마드라사에서 하디스, 코란 해설, 코란 낭송, 율법학, 통사론 등을 가르쳤고, 설교 역시 병행했다. 그러나 곧 25년간 은둔 수행에 들어가게 된다. 은둔 수행 후 ‘한발리테 카지’(Hanbalite qāzī)는 셰이크가 입는 망토인 케르카(kerqa)를 입혀 그를 인정한다. 그가 언제 결혼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명의 부인이 있었으며, 49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1166년 바그다드에서 사망한다.

바그다드에서 공부할 당시 한발리 학파의 열렬한 지지자였기에 바그다드에서 세가 약했던 한발리 학파에 부흥을 위하여 노력했다. 그의 수피즘 타리카트 역시 한발리 학파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127년 처음 설교했을 때는 소수의 지지만 있었으나 이후 점점 세가 확산되며 수만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그의 설교는 12세기 이라크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 이슬람교도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약 천 개의 저서를 지었다고 전해지나 실제로 오늘날까지 남은 작품 수는 50여 점이며, 게다가 대부분은 실제 그의 저서도 아니다. 설교와 저서 모두 선배 수피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예로 시작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수피 문학의 좋은 예로 평가받는다. 연설과 저서의 주제는 모두 감동적인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 등을 주로 삼았고, 연설에서

는 진심 어린 간청을 담은 표현법이 사용되었다. 독자와 회중에게 영혼의 취약함과 악마가 사람에게 침투하는 것을 실감나게 묘사했고, 낙원의 묘사를 통해 희망과 열정을 전했다. 그가 창설한 카디리야 타리카트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이런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대표 작품에는 『비밀들의 비밀과 빛의 현현의 책(Kitab Sirral-Asrar wa Mazhar al-Anwar)』, 『보이지 않는 비밀들(Futuh al ghaib)』, 『탐사자들의 보물들(Ghunyat tut talibeen)』, 『주의 은혜의 발산(Al-Fuyudat al-Rabbaniya)』 등이 있다. 이 중 『보이지 않는 비밀들(Futuh al ghaib)』은 길라니의 아들이 수집한 길라니의 설교와 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둘 까디르 길라니, 압둘 카디르 질라니
- 다국어 표기 Abülkâdir-i Geylâni(튀르키예어), Gelonii Muhiddin Abduqadir(우즈베크어), ʿabdülqadir Gilan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카디리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iranicaonline.org/articles/abd-al-qader-jilani>
- 참고문헌(오프라인) Uludağ, Süleyman. “ABDÜLKÂDİR-i GEYLÂNÎ”,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 Istanbul: TDV, 1988, pp.234~239.

I E215 | 압둘라 칸 칼라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소분류1 건축 ● 유형소분류2 성벽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bdullah Khan Qala

‘압둘라 칸 칼라’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도시 메르브를 둘러싸고 있던 성벽의 일부분의 이름이다. 메르브는 고대에서 근대인 BC 6세기부터 AD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벽을 건설하고 증축했다. 이들 성벽은 각기 에르크 칼라(Erk Kala: 성벽 중 가장 오래된 부분), 가누르 칼라(Gyaur Kala: 헬레니즘 시대에 건설되어 우마이야 시대까지 이용), 술탄 칼라(Soltan Kala: 압바스 시대부터 셀주크 시대까지 이용, 술탄 산자르 영묘가 위치), 샤임 칼라(Shaim Kala), 압둘

라 칸 칼라(Abdullah Khan Kala). 바이람 알리 칸 칼라(Bairam Ali Khan Kala: 18세기 이후 건설됨)등의 이름을 가진 성벽들로 구성되어 있다.

13세기 초 몽골의 침략으로 술탄 칼라가 파괴된 후 이 지역은 티무르 인들이 14세기 통일을 할 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샤 루크’(Shahrukh, 재위: 1405년~1447년)는 수도를 지정하지 않고 술탄 칼라에서 1km 떨어진 곳에 압둘라 칸 칼라로 알려진 새로운 정착지를 건립하며 모스크, 시장, 대상 숙소 건설과 같은 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관개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댐 건설을 시도하게 된다.

그때 만들어진 압둘라 칸 칼라의 크기는 650m x 700m이며, 벽의 평균 높이는 5m~7m였다. 폭 15m~30m, 깊이 5~8m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으며 54개의 탑과 요새가 있었다. 그리고 각 벽면 중앙에 위치한 네 개의 문을 통해 성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 북쪽 방향 모서리에 직사각형의 성채가 있었으며 모스크와 마드라사 및 저수지는 북쪽 중앙에 위치했다. 주재료는 흙벽돌과 진흙 벽돌이다.

그러나 샤 루크가 다시 사마르칸트로 이주하며 건설은 중단되었고, 샤이반 왕조 시기까지는 압둘라 칸 칼라의 발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이람 알리 칸 칼라’로 알려진 부분은 18세기 압둘라 칸 칼라의 서쪽을 연결해 건축한 것이다. 이곳은 19세기까지 유지되었으나 러시아가 정복 후 건축 자재 확보를 위해 철거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둘라 칸 칼레

● 다국어 표기 Abdulla Han Gala(투르크멘어), Abullah Han Kale(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압둘라 칸 칼라

https://s3.us-east-1.amazonaws.com/media.archnet.org/system/media_contents/contents/28781/medium/ICW0176.jpg?1384703460

● 참고문헌(온라인) <http://archnet.org/sites/2898>

● 참고문헌(오프라인) Brun, Pierre. “From arrows to bullets: the fortifications of Abdullah Khan Kala (Merv, Turkmenistan)”, *Antiquity*, Volume 79, Issue 305, September 2005, pp.616~624.

I E216 | 압사 타스

- 시기 B.C. ~ A.D.1000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Apsakh Tas

투르크 문화의 보고인 남부 시베리아의 하카스 공화국 영토는 의인화 및 동물화된 수 백개의 암석과 우상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샤머니즘 의식과 신화들로 잘 알려져 있다. 신화의 대상이자 하카스인들에게 숭배되는 석상 중 하나는 늙은(할아버지)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압사 타스’(Apsah Tas)이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압사(apsah)와 그의 아내 이니(iney)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살 거주 공간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쿨그(Küg) 계곡에 다다랐을 무렵 이니는 그곳이 자신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여겼지만, 압사는 그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이니가 압사를 밀치면서 압사는 아아르산(Aar Tag) 꼭대기에 떨어지게 된다. 너무 화가 난 상태로 떨어졌기에 압사는 순간 돌로 변했고 현재까지도 전설처럼 남아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니는 남편을 죽게 한 죄책감에 오늘날까지 하카스 주민들이 이니 타스(Iney Tas)라 부르는 석상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리고 훗날 한 노부부의 자녀들이 결국 이 지역에 정착하여 그들의 부모를 기리고 추모했으니 그들이 오늘날 하카스의 ‘마이나가셰브’(Maynagashev) 혈통의 조상이 되었다.

압사 타스와 관련된 종교적 관습 및 의례는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른 석상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하카스인들은 아이의 이름을 바꿔야 할 때 의식을 압사 타스 앞에서 수행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아이가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악령이 그 아이를 괴롭혔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경우 ‘바보’, ‘대머리’, ‘개구리’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물 혹은 동물의 이름을 아이의 미들네임 등으로 지어주는데, 그것이 악령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아이가 건강해질 것이라 믿어 오래도록 전통처럼 지켜왔던 것이다. 단, 아이가 회복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이름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이런 여러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압사타스가 위치한 이 지역은 오늘날 현지인들에게는 야외 사원이자, 일종의 치유센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사 타쉬

● 다국어 표기 Apsah Tas/Ancax Tac(하카스어), Apsa taşı(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Okutan, N., *“Hakaslarda Atalar Kültü ve Günümüz Hakas Kültürüne Etkileri.”*
(Yayımlanmamış Yüksek Lisans Tezi). Hacettepe Üniversitesi, Türkiyat Araştırmaları Enstitüsü, Ankara, 2016.

I E217 | 압자르 이야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Abzar Iyase

‘압자르 이야세(Abzar Iyase)’는 카잔 타타르 신화에 등장하는 마당과 우리에 사는 정령이다. ‘압자르’(абзар)는 타타르어로 ‘가축우리’, ‘축사’를 의미하고 ‘이야세’(иясе)는 주인, 지배자란 의미이다. 그래서 압자르 이야세는 ‘가축우리의 주인’이란 의미가 된다.

압자르 이야세는 오이 이야세(ой иясе)와 자주 동일시된다. 또한 밤에 압자르 이야세가 사람의 형상이나 여러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미신이 전해진다. 압자르 이야세는 가축에게 먹이를 주거나, 말갈기를 땅는 등 가축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축을 못살게 굴기도 한다. 그래서 압자르 이야세가 좋아하지 않는 가축은 팔아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 가축은 죽어 버리기 때문이다.

압자르 이야세는 서시베리아 타타르 신화에 나오는 말 이야세(Мал иясе), 잔기(산기) 바바(Занги, Санги баба)나 페샤 아나(Пэша ана)와 같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사르 이야세

● 다국어 표기 Абзар иясе(러시아어), Abzar Iyase(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ред. Е.М. Мелетинский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г. – С.13.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 1991, С.22.
Татар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 Под. ред. М. Х. Хасанова – Казань: Институт татарской энциклопедии АН РТ, 1998 – С. 703.

I E218 | 앓파자리 오스만 파즐르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 1 이슬람 ● 유형 소분류 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Atpazarî Osman Fazlı

17세기 오스만 제국의 수피즘 학자이자 셰이크였던 오스만 파즐르(Osman Fazlı)는 1632년에 지금의 불가리아 슈멘 지역에서 탄생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이외에는 가족과 초년 시절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다만 청년기에는 에디리네로 가서 수피즘 종단 중 하나인 젤베티(Jelveti) 타리카트(종단)의 아지즈 마흐무드 휘다이이(Aziz Mahmud Hüdâyî)의 칼리파인 사츨르 이브라힘 에펜디(Saçlı İbrâhim Efendi)를 사사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때 에디리네에서 철저한 수행을 하던 파즐르는 그의 셰이크가 오스만 파즐르를 사위로 삼길 바란다는 것을 알아채고 위스퀴다르에 있는 다른 젤베티 타리카트 텍케로 도망친다. 그리고 그곳에서 8년간 머물며 여러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히리 법학파에 관한 지식을 발전시키는가 하면 매 화요일에 파티흐 모스크에서 젤베티 종단의 기도를 거행하며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을 바탕으로 여러 작품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의 셰이크가 에디리네의 아이도스 지역의 칼리파로서 오스만 파즐르를 보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와 입문자들을 지도를 하던 오스만 파즐르는 비로소 영적 깨달음에 도달한다.

그는 1657년~1658년 지금의 불가리아 플로브디프로 갔는데, 그의 설교가 큰 인기를 얻자 그것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관청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1672년 플로브디프로 떠나야 했다. 이스탄불로 간 오스만 파즐르는 인맥을 통해 플로브디프 재판관이 되어 다시 플로브디프로 돌아갔지만, 어떤 꿈을 꾸고 이스탄불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오스만 파즐르는 마니살르 메흐메드 파샤 모스크(Manısallı Mehmed Paşa Camii) 내 텍케에서 자리를 잡고 지도 활동과 설교 활동을 병행해 나간다. .

1683년 오스만 제국의 오스트리아 원정 당시 오스만 파즐르는 원정에 반대했으며 평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당시 원정 책임자인 카라 ‘무스타파 파샤’(Kara Mustafa Paşa, 1634년~1683년)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의 예상처럼 원정은 실패로 끝났고 이후 오스

만 파즐르는 술탄과의 대화에서 이 원정과 기타 정부의 실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며 용서를 구했다. 다행히 술탄은 그를 용서했으나 당시 재상은 그를 슈멘으로 유배를 보내 버렸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와 오스만 제국 정부와 관계는 틀어지게 된다. 다행히 세달 후 새로 임명된 재상이 그를 다시 이스탄불로 불러들였으나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의 원정과 실책에 대해 비판했기에 1690년 또다시 지금의 복사이프러스에 위치한 파마구스타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그의 제자인 ‘이스마일 하크 부르세비’(İsmâil Hakkı Bursevî, 1653년~1725년), 아들인 ‘무스타파’(Mustafa), ‘오스만 데데’(Osman Dede), ‘야쿠티 데데’(Yakut Dede), ‘야히야 데데’(Yahya Dede)와 함께 파마구스타로 향해 여러 셰이크들을 방문하던 도중 1691년 9월 11일 파마구스타에서 사망했다. 파마구스타에는 그의 영묘가 남아 있으며 후에 그 곁에 ‘쿠티프 오스만 테케’(Kutup Osman Tekke)가 건설되었다.

생전에 아트 파자르 오스만 파즐르는 많은 제자를 발칸반도와 아나톨리아, 히자즈 지역으로 보냈으며, 젤베티 종단의 학크이이에(Hakkiyye) 분파 설립자인 ‘이스마일 하크 부르세비’를 키워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17세기 아나톨리아와 발칸반도에서 수피즘을 발전 및 전파시킨 주요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는 형이상적, 형이상적 양측의 학문에 대한 저술을 비롯하여 수피즘에 대한 저술을 남겼다. 특히 수피즘에 대한 저작들은 은둔 후에 마음에서 솟은 영감을 바탕으로 저술했기에 작품 속에는 말을 잘 전달하는 동시에 그가 도달했던 깨달음이 잘 드러나 있다.

대표 작품으로는 코란의 일부 구절을 수피즘 관점에서 해석한 『비밀의 발견에서의 번개 같은 떠오름과 일부 하디스와 코란 구절의 비밀을 읽는 다양한 방법의 비밀(el-Lâ'ihâtü'l-berkıyyât fî keşf'l-ḥucüb ve'l-estâr 'an vücûhi esrârı ba'zî'l-eḥâdîs ve'l-âyât)』이 있다. 이 작품은 존재의 단일성(Waḥdat al-wujūd)의 선상에 있는 수피즘 이론을 다루고 있으며 후일 ‘이스마일 하크 부르세비’가 집필하면서 많이 참고했다고 밝힌 책이기도 하다. 현재는 이 책을 포함하여 오스만 파즐리가 저술한 16개의 작품이 전해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앓파자리 오스만 파즐르, 아트파자르 오스만 파즐리
- 다국어 표기 Atpazarî Osman Fazl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와흐다트 알 우주드

- 참고문헌(오프라인) Çetiner, Bedrettin. “Atpazarî Osman Fazlı ve el-Lâihâtü’l-berkıyât Adlı Tasavvufî Tefsir Risalesi”, *MÜ İlahiyat Fakültesi Dergisi*, Sayı 16-17; 1998-1999: 7~54.
- Yıldız, Sakıb. “ATPAZARÎ OSMAN FAZL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 İstanbul: TDV, 1991, pp.83~85.

I E219 | 앙카라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nkara

앙카라는 행정과 교육의 중심 도시로서 1923년 10월 29일 튀르키예 공화국이 선포되면서 새로운 수도가 되었다. 과거 로마시대에는 앙고라(Angora)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수도가 된 이후부터는 개발 여부에 따라 옛 도심지였던 울루스(Ulus)와 신개발 지대인 예니세히르(Yenişehir)로 구분된다. 울루스는 로마·비잔틴·오스만 양식의 옛 건물과 좁은 도로로 대표되는데 반해 예니세히르에는 넓은 도로, 호텔, 극장과 아파트 건물이 들어차서 더 현대 도시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정부 청사와 외국 공관도 예니세히르에 소재해 있다.

앙카라 시의회는 정치적으로 이슬람주의 보수당인 정의개발당(AKP, Adalet ve Kalkınma Partisi) 케말주의 중도좌파인 공화인민당(CHP, Cumhuriyet Halk Partisi) 민족주의 극우인 민족주의자운동당(MHP, Milliyetçi Hareket Partisi)이 의석을 나누어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스미르나 이스탄불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2013년 튀르키예 반정부 시위 때 앙카라에서도 이스탄불, 이스미르 못지않은 격렬한 시위가 발생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상업·공업도시이며 주변의 농업 지대의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앙고라 염소털로 만든 모헤어, 앙고라 토끼 털로 만든 앙고라 울을 생산하는 섬유산업이 발달했으며 중앙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포도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카바클데레 와인(Kavaklıdere wine)이라는 와인의 산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는 공업 중심지로서 TAI(Turkish Aerospace Industries), MKE, 아셀산



앙카라 전경

(ASELSAN), 하벨산(Havelsan), 로켓산(Roketsan), 누롤 마키나(Nurol Makina) 등의 항공산업 및 방위산업 관련 회사들의 본사가 있다. 이들 업체의 수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독일의 버스, 트럭 제조 회사인 MAN SE의 공장도 이곳에 위치해 있다. 그 외에도 앙카라에 위치한 앙카라 대학교, 중동공과 대학교, 빌켄트 대학교 등에서 꾸준히 인지를 배출해 산업에 투입하는가 하면 국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영묘 아노트카비르(Anıtkabir)와 울루스에 있는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이 있다.

- 다국어 표기 Ankara(튀르키예어, 영어), Ancyra(그리스어)
- 연관 검색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아노트카비르, 이스탄불,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
- 참고문헌(오프라인) 유재원, 『터키, 1만년의 시간여행 01』, 2010, 책문.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5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4.

I E220 | 앙카라 전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쟁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Battle of Ankara

1402년 7월 20일 앙카라 근교의 평원에서 발생한 오스만 술탄 ‘바야지드 1세’와 티무르 조 ‘아미르 티무르’의 충돌을 앙카라 전투라 한다. 1299년에 아나톨리아반도에서 룸셀주크 투르크의 약화를 틈타 성장한 오스만 투르크 조는 1335년 일 칸국이 붕괴된 이후 14세기 후반 당시에 아나톨리아에 자리하고 있던 여러 투르크-투르크멘 공국들을 병탄하거나 가신으로 만들면서 아나톨리아의 패자로 성장했다. 그리고 1395년에 이를 무렵 당시 콘스탄티노플(현 이스탄불)에 있던 동로마(비잔틴) 제국을 넘어 발칸반도까지 진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오스만의 유럽 진출을 두려워하고 있던 교황과 헝가리의 왕 ‘지그문트’가 동유럽 여러 국가의 연합군(헝가리, 신성로마제국, 프랑스, 왈라키아, 폴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등)과 함께 쳐들어왔기에 양국은 다뉴브강 유역에 위치한 현 불가리아의 니코폴리스에서 전투를 벌여 1396년 오스만이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 승리가 유럽에 대한 이슬람의 승리처럼 여겨지게 되면서 카이로의 맘루크 조로 피난해 있던 칼리프가 바야지드에게 이슬람의 군주를 지칭하는 ‘술탄’이라는 칭호를 내릴 정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1370년 중앙아시아 아랄해 유역의 오아시스 지대인 마와라안나흐르에서 몽골 제국의 후계자를 자칭하며 투르크계 유목 군주인 티무르가 등장했다. 티무르는 1370년대에 마와라안나흐르 주변지역인 동 투르키스탄과 호라즘, 1380년대에 동 이란의 후라산과 이란의 아제르바이잔을 차지했고 1390년대에는 인도의 델리와 킵차크 초원 및 러시아 공국 등으로 원정길에 올랐다. 그런 그의 마지막 원정을 두고 ‘이란 7년 원정’이라 불렀는데 그 명칭만 들으면 주요 공격 대상이 이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란에 근거지를 둔 채로 주변 지역을 공격했다.

이때 티무르의 공격 대상이 된 세력이 이집트-시리아의 맘루크 조와 캅카스 산맥의 조지아 왕국, 아제르바이잔과 바그다드를 오가며 떠돌고 있던 투르크멘 카라 유수프, 그리고 아나톨리아의 오스만 투르크를 비롯한 여러 투르크-투르크멘 공국이었다. 1399년 가을, 티무르는 아제

르바이잔으로 진격하여 아라스강 유역의 카라바흐에 머무르며 지난 이란 원정 도중 바그다드 근방에서 조지아로 달아난 잘라이르 조의 ‘타히르’, 그리고 카라 유수프와 결탁한 술탄 ‘아흐마드’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다. 이때 조지아는 티무르가 아제르바이잔으로 진격하자마자 바로 ‘타히르’를 내쫓고 복속했다. 하지만 술탄 ‘아흐마드’와 ‘카라 유수프 투르크멘’은 룸(오스만 투르크 조)으로 달아났다.

이에 1400년 여름에 티무르는 술탄 ‘바야지드 1세’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두 사람을 내쫓고 항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바야지드는 이를 거부했고 티무르는 세 사람을 쫓아 아나톨리아 중부까지 진격했다가 맘루크 술탄국의 ‘바르쿱’이 그의 사신을 살해하자 방향을 돌려 1401년에 시리아 전역을 공격했다. 그 틈을 타 술탄 ‘아흐마드’는 다시 바그다드로 귀환했고, 티무르는 1401년 여름에 바그다드를 공격한 후 ‘카라 유수프’를 따라 아나톨리아로 들어온 다음 1402년 봄에 바야지드에게 재차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바야지드는 항복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티무르는 아나톨리아의 사방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바야지드와 그의 자녀들이 이끄는 군대, 그리고 아나톨리아 각지에 있던 여러 투르크-투르크멘 세력을 각개격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1402년 7월 무렵 앙카라에서 바야지드의 주력군을 만나 그들을 궤멸시키고 바야지드를 포로로 잡았다. 바야지드는 포로가 되어 티무르의 원정에 동행했다가, 티무르가 아나톨리아 일대를 평정하고 귀환하던 1403년 3월에 아크셰히르에서 사망했다. 이후 오스만 투르크 조는 여러 후계자들 간의 분열로 10여년간 공위 상태가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 전투로 인해 바야지드가 1380년대부터 병탄했던 여러 투르크멘 공국들이 부활했고 오스만 투르크 조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여러 학자들은 1453년에 발생한 오스만 투르크 조의 동로마 멸망 및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티무르의 공격이 없었다면 반세기 가량 일찍 발생했을 것이라 보기도 한다. 그만큼 이 전투는 세계의 역사를 바꾼 유명한 전쟁 중의 하나로서 전쟁사의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자들에 의하면 티무르의 당시 병력은 14만에서 20만 사이로, 8만 5천명 정도를 동원한 바야지드에 비해 수적으로도 우세하기도 했으나 당시에 유라시아의 초원지대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서아시아의 건조지대 일대를 모두 휩쓴 티무르의 전략이 가장 빛을 발한 전투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앙카라 전투, 안카라 전투

● 다국어 표기 Ankara Savaşı(튀르키예어), نبرد_آنکارا(페르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Tucker Spencer C., *Battles That Changed History : an Encyclopedia of World Conflict*, California: ABC-CLIO, LLC, 2011, pp.139~142.

Sharaf al-Dīn 'Alī Yazdī, *Zafar nāma*, ed. Şādiq, Sayyīd S'āid Mir Muḥammad, Tehran : Markaz-i Asnād Majlis, 1387 Sh./2008-9.

I E221 | 애이누어

● 시기 기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Eynu Language

‘애이누어’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서쪽에서 사용되는 튀르크어이다. 애이누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대략 3만명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들 중 일부는 타클라마칸 사막 부근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그들 중 대다수의 거주지는 카쉬가르, 야르켄트 부근에 밀집되어 있으며, 일부가 악수의 동부 그리고 호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애이누어는 광범위한 외국어의 차용 현상이 일어났던 언어로서 특히 대부분이 페르시아어 단어를 위구르어와 결합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위구르어의 기본적인 어휘들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특히 음운, 형태 그리고 통사 형식은 위구르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어휘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용어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 언어학자들은 애이누어가 두 개의 다른 언어를 기반으로 새롭게 생성된 언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근거가 약해 설득력이 부족하다.

언어를 가리킬 때도 호탄 지역에서만 ‘애이누어’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 그 이외 지역에서는 압달(Abdal)이라고 불리는 게 일반적이다. 압달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강한 차별과 함께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 중 일부가 한때 구걸 등으로 생활을 연명하며 살아왔다는 데에서 연유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애이누인들은 농업에 종사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이누어, 압달
- 다국어 표기 Eynuca(튀르키예어), ئىنۇ(위구르어)
- 연관 검색어 위구르, 타클라마칸
- 참고문헌(오프라인) Johanson, L., *Türk dili haritası üzerine keşifler* (Vol. 7). Grafiker, 2002.

I E222 | 애지재 재패르자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Azize Jaafarzade



애지재 재패르자대

Source:<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유명한 작가이자 문학비평가인 애지재 재패르자대(Əzizə Cəfərzadə)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초 등교육을 바쿠 25번 학교에서 마친 후 공연기술학교와 교육 대학교(Müəllimlər Institutu)에 진학했다. 졸업 후 1946년~1947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 아제르바이잔어문학과에서 수학했다.

그녀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던 1942년~1944년 무렵 소도시 악수(Çaparlı kəndi)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그 후 1944년부터 1946년까지 재패르 잡바를르(Cəfər Cabbarlı) 아제르바이잔 영화 스튜디오 시나리오부 부서장을 역임했다. 1950년~1955년에는 교육대학교 조교수, 1956년에는 캄차카 교육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1957년~1974년에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 고문서(古文書)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부서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1974년부터는 바쿠 국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다.

연구 업적으로는 1950년대에 「19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의 지식인-교육자」란 주제를 연구했으며, 1970년에는 「19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의 민속시 스타일 연구」로 박사학위

를 받았다. 그녀는 예술 창작과 함께 끊임없이 문학 비평에 몰입했으며 그런 그녀의 연구 업적은 이후 아제르바이잔 민속 연구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녀가 처음 문예 창작을 시작했던 시기는 16살 무렵이었다. 그녀는 1937년에 자신의 첫 번째 단편인 「애즈라이을(Əzrayıl)」을 <문학신문>에 실었다. 첫 번째 책은 1948년에 출판됐으나, 모스크바 중앙정부는 판매되기도 전에 금서로 지정한 후 모두 불태웠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오랫동안 작품을 출판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가장 많은 역사소설을 저술한 작가로도 알려져 있다. 그녀의 대표작은 『고향으로 돌아와라(Vətənə qayıt)』, 『나를 기억하라(Yad et məni)』, 『이 세상에는 내 목소리가 있다(Aləmdə səsim var)』, 『바쿠-1501(Bakı-1501)』,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Eldən-elə)』, 『재린타즈 타히래(Zərrintac Tahirə)』, 『빛을 향하여(İşığa doğru)』, 『굴뤼스탄 이전(Gülüstandan öncə)』, 『어느 목소리의 참사(Bir səsin faciəsi)』, 『카스피해의 눈물(Xəzərin göz yaşları)』, 『비탄의 술탄(Eşq sultanı)』 등이다. 거의 모든 작품이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 민족의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킨 것들이다.

그녀는 창작 이외에도 외국 작가들의 많은 작품을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했는데, 대표적으로 『브레스트 성(Brest qalası)』, 『강한 파도(Güclü dalğa)』, 리하노프(A. Lixanov)의 『내 장군(Mənim generalım)』, 카박래(Ə.Kabaklə)의 『용(龍)의 돌(Əjdaha daşı)』, 초쿰(S.Çokum)의 『우리 땅(Bizim diyar)』 등이 있다. 그의 작품들은 세계 많은 언어로 번역됐다. 민속을 모티브로 한 그의 저서 『내 어머니의 동화(Anamın nağılları)』는 튀르키예와 영국에서 출간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지자 자파르자데, 아지재 자페르자데

● 다국어 표기 Azize Jafarzade(영어), Aziza Jafarzadeh(튀르키예어), Азиза Джафарзаде(러시아어), Əzizə Cəfərzadə(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az/9/91/%C6%8Fiziz%C9%99_C%C9%99f%C9%99rzad%C9%99.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Əliyeva İfrat, *El anası Əzizə Cəfərzadə*, Bakı: Elm nəşriyyatı, 2001.

Bayram Parvana, *Azize Caferzade: hayati, edebi şahsiyeti ve hikayelerinin incelenmesi*, Ankara: Akçağ Yayınları, 2013.
Telmanqızı Asifə, *Əzizə Cəfərzadənin ədəbi dünyası*, Bakı: Nurlan nəşriyyatı, 2002.

I E223 | 애흐매드 배이 아가오글루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가
- 유형 소분류2 사회비평가, 정치비평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Ahmed Aghaoghlu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을 대표하는 저명한 문인 중 한 명인 ‘애흐매드 배이 아가오글루’(Əhməd bəy Ağaoğlu)는 1869년에 아제르바이잔의 도시 슈샤(Şuşa)에서 태어났다. 그는 1881년에 슈샤에서 6년제 학교와 트빌리시(Tiflis)에 있는 1번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이후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에서 유학했다. 공부를 마치고 슈샤로 돌아와 1896년에는 슈샤 지역 역사상 최초로 도서관과 독서실을 개관했다.

1897년 하즈 제이날라빃딘 타그예브(H.Z.Taghiyevin)의 초청으로 바쿠(Bakı)로 돌아와 <카스피(Kaspi)> 신문에 기사를 쓰며 ‘휘세인자대’(Ə.Hüseynzadə)와 함께 <해야트(Həyat)> 신문의 편집자로 일했다. 그리고 <태랙기(Tərəqqi)> 및 <이르사드(Irşad)> 신문의 편집자 일도 병행했다.

1905년 그는 짜르 정부와 다스나크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항하기 위해 비밀 조직인 ‘디파이’(Difai təşkilatı)를 설립했다. 하지만 곧 짜르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 1908년 말에 이스탄불로 이주를 결정했다. 이후 그는 ‘투르크 민족운동(Türk Ocağı)’의 주역이 되는가 하면 ‘투르크 민족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젊은 투르크인들의 연합진보당(İttihad və tərəqqi partiyası)에 가입하기도 했다. 한 때는 쉴레이마니에 도서관장직, 잡지 <투르크인의 조국(Türk yurdu)>의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이스탄불 대학(İstanbul Universiteti)에서 투르크·몽골 역사와 러시아 문학사를 가르치기도 했다.

1918년에는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을 도와주러 온 캅카스 이슬람 육군사령부의 정치 고문을 맡았다. 이후 아제르바이잔 민주 공화국(AXC)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아제르바이잔 민

주 공화국이 파리 평화회의(Paris Sülh Konfrası)에 참석할 때 파견된 대표단의 일원으로 활약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스탄불에 도착하자마자 연합진보당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영국인에게 체포되어 말타섬(Malta adası)으로 추방된다. 그는 말타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 문명(Üç mädəniyyət)」이라는 트락타트(traktat)를 집필했다. ‘트락타트’란 문학이론과 철학 분야에서 특정 주제를 시리즈로 다룬 학술논문을 뜻한다.



애흐매드 배이 아가오글루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그후 그의 행보는 다방면으로 활발했다. 앙카라에 있는 언론정보사무소(Press Information Office, Ankaradaki Mətbuat İnformasiya İdarəsi) 소장으로 근무하는가 하면 <하키미yyət-밀리에> 신문의 편집장 일을 하기도 했다. 제

2차와 제3차 튀르키예 대국민의회의 국회의원에 선출되었고,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정치외교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1933년에 튀르키예 사회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큰(Akın)>이라는 신문을 창간했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가치는 튀르키예의 단일 정당 체제와 상충되는 면이 있었기에 그가 활동한 신문은 늘 정부에 종속된 언론과 정부기관의 공격 1순위였고, 폐간을 피해갈 수 없었다.

반면 그의 작품들은 장르 면에서 다양하고 다채로웠으며, 문학적 완성도가 높았다. 그는 보도문, 기사, 칼럼, 짧은 산문 종류의 프리트차(Pritça), 에세이, 트락타트(traktat) 등 다양한 장르를 저술했으며 학술적 가치와 예술을 혼합하는 독창성을 갖고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이슬람에서 여성(İslama görə və islamlıqda qadın)』, 『투르크 사회의 본질(Türk-Təşkilati-əsasıyyəsi)』, 『세 가지 문명(Üç mädəniyyət)』, 『영국과 인도(İngiltərə və Hindistan)』,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Sərbəst insanlar ölkəsində)』, 『자유당의 기억들(Sərbəst fırqə xatirələri)』, 『정부와 차이(Dövlət və fərq)』, 『이란과 혁명(İran və inqilabı)』, 『나는 무엇인가?(Mən nəyəm)』, 『원하지 않는건 안 된다(Könülsüz olmaz)』 등이 있다. 이 모든 작품을 통해 그는 철학적, 사회학적 내용을 담아내며 특히 동양에 있는 나라들의 해방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하려 노력했다.

그는 1939년 5월 19일에 이스탄불에서 사망했으며, 페리콴이 이슬람 묘지에 묻혔다. 그의 작

품이나 작가에 대한 연구는 소비에트 시대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금지였고, 소비에트 정권의 붕괴와 아제르바이잔 독립이 이뤄진 이후인 1991년에야 그에 대한 연구가 비로소 시작됐다. 그의 아들인 ‘새매드 아가오을루’(Səməd Ağaoğlu)는 작가이자 정치인으로서 튀르키예에서 ‘아드난 멘데레스’(Adnan Menderes)의 재임 동안 부총리를 역임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애흐매드 베이 아가오글르
- 다국어 표기 Ahmet Ağaoğlu(튀르키예어), Ахмед Агаоглу(러시아어), Əhməd bəy Ağayev(아제르바이잔어), Əhməd bəy Ağaoğlu(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바쿠(Bakı), 이스탄불, 앙카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5/Ahmad_bey_Aghaoghlu.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ğaoğlu Əhməd, *Seçilmiş əsərləri*,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7.
 Quliyev Vilayət. *Ağaoğlular*, Bakı: «Ozan» nəşriyyatı, 1997.
 Sakal Fahri, Ağaoğlu Ahmed bey, Ankara: Türk Tarih Kurumu, 1999.
 Özcan Ufuk, *Ahmet Ağaoğlu ve rol dəyişikliyi: Yüzyıl Dönümündə Batıcı bir Aydın*, İstanbul: Donkişot Yayınevi, 2002.
 Shissler Holly A., *İki imperatorluq arasında Ahmet Ağaoğlu ve Yeni Türkiyə*, İstanbul, Bilgi Universitesi Yayınları, 2005.
 Sultanlı Vəqif, *Azərbaycan Mühacəret Edebiyatı*, İstanbul, Avropa Yakası Yayınları, 2007.
 Mirəhmədov Əziz, *Əhməd bəy Ağaoğlu*, Bakı: «Ərgünəş» nəşriyyatı, 2014.

I E224 | 애흐매드 자바드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əqif Sultanlı) ● 라틴 문자 Ahmed Javad

아제르바이잔 시인인 ‘애흐매드 자바드’(Əhməd Cavad)는 1893년 5월 5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샴키르(Şəmkir)의 세이팰리(Seyfəli kəndi) 시골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등교육을 마친 이후 갠재 무슬림 루하니 세미나리아(Gəncə Müsəlman Ruhani Seminariyası)에서 공부를 했으며 이후 아제르바이반 국립 교육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Pedaqoji İnstitutu)를 졸

업했다.

그의 문학 활동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 대학 졸업 후에도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나갔다. 지금까지도 그의 작품들은 풍부하고 심오하며 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인정받고 있는데 장르 면에서 화려하고 다채로웠으며 주로 시와 단편을 많이 써내려갔는데 그 작품들이 문학 창작사에서 지금까지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에흐매드 자바드의 마지막 사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첫 작품이었던 『수치(Utan)』 및 『선생님(Müəllim)』은 1910년에 출판되었으며, 1916년에는 『고쉬마(Qoşma)』라는 시집이 바쿠에서 출판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흑해는 철렁이고 있네(Çırpınırdın Qara dəniz)』, 『아제르바이잔(Azərbaycan)』, 『비스밀라흐(Bismillah)』, 『네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Nədən yarandın)』, 『우리의 언어(Dilimiz)』, 『그의 꿈을 꾀었는데(Röyasını görmüşdüm)』, 『나는 누구입니까(Bən kiməm)』, 『하늘과 호수(Göy-göl)』 등이 있으며 내용과 형식면에서 아제르바이잔 시를 대표하는 주요 작품으로 평가된다. 1919년에는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인 『파도(Dalğa)』가 출간되었다. 첫 작품은 고전적인 디반 시의 스타일로 저술했지만 이후부터는 주로 간단명료한 민속 시의 형태로 작품을 창작했다. 그의 시 작품 중 일부는 바야트(bayati)인데, 바야트는 아제르바이잔의 서정적인 민속 시 장르로 주로 4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마다 7음절 각운이 있는 형식을 말한다.

소비에트 시대에 심한 압박을 당한 시인은 번역에 종사하기도 했다. 프랑수아 라블레의 가르강튀와 팡타그뤼엘(Qarqantua və Pantaqrue) 소설 및 쇼타 루스타벨리의 『표범 가죽을 두른 기사』 시를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Azərbaycan Xalq Cümhuriyyəti, 1918년~1920년) 국가(國歌)를 작사했는데 그가 작사한 곡은 1991년 아제르바이잔이 독립을 되찾은 후에야 공식적으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국가로 채택되었다.

그는 1912년~1913년 튀르키예가 불가리아에서 일으킨 발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할 정도로 국가에 헌신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결국 그는 소비에트 압제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는 소비에트 정권에 체포되어 1937년 10월 13일 총살을 당했던 것이다. 그는 사후 1955년에야 무죄 선고를 받아 복권되었으며, 출판 금지되었던 작품도 해금될 수 있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애흐매드 자와드

● 다국어 표기 Ahmet Cevat(튀르키예어), Әхмәт Джавад(타타르어), Ahmad Javad(우즈베크어), Ахмед Джавад(카자크어), Ахмед Джавад(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5/Ahmad_Javad_in_1937.jpg/1024px-Ahmad_Javad_in_1937.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Əli Saləddin, *Əhməd Cavad*, Bakı: “Gənclik” nəşriyyatı, 1992.

Ələkbərli Nazif, *Üç budaq*, Bakı: “Gənclik” nəşriyyatı, 1999.

Nəbiyev Bəkir, *Əhməd Cavad*, Bakı: “Ozan” nəşriyyatı, 2004.

Məmmədli Afina, *Əhməd Cavad və Türkiyə*,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0.

I E225 | 애흐매트 재패르오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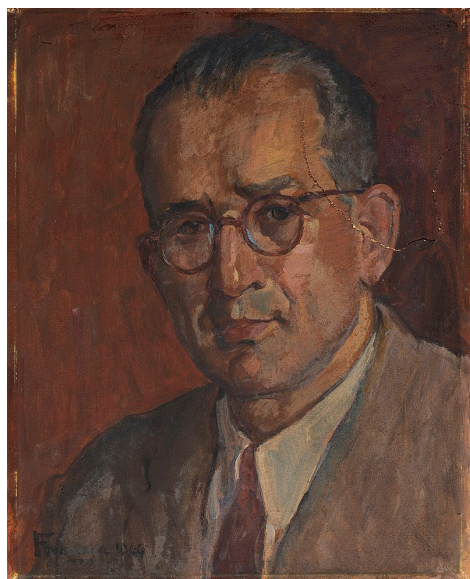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오은경, 장주영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Ahmed Jafaroghlu

아제르바이잔의 저명한 디아스포라 문학평론가 및 투르크학자인 ‘애흐매트 재패르오글루’(Əhməd Cəfəroğlu)는 1899년 4월 19일 아제르바이잔의 도시 갠재(Gəncə, 간자)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3살 때 사망했고, 그래서 가족들은 모두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됐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초등교육을 받은 그는 다시 고향인 갠재로 돌아와서 갠재 김나지움(Gəncə gimnaziyası, 중등교육 기관으로 대체로 한국의 중고등학교에 해당)에서 수학

했다. 그는 김나지움을 졸업한 이후 우크라이나 키예프 통상대학교(Kiyev Ali Ticarət İnstitutu)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1917년 10월 25일 혁명이 일어나자 아제르바이잔에도 민족해방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는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아제르바이잔으로 돌아와 1918년 아제르바이잔의 이슬람 군대에 자원 입대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애흐매트 재패르오글루는 1919년 바쿠 국립대학교(Bakı Dövlət Universiteti) 동양학과에 입학하였으나, 1920년 소련군의 아제르바이잔 점령으로 인하여 튀르키예로 망명했다. 그 후 튀르키예에서 이스탄불 대학교(İstanbul Universiteti)의 튀르키예어문학 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신학부 도서관과 투르크학 센터(Türkiyat mərkəzi)에서 조교로 근무했다. 그는 1925년~1929년에 독일 외교부의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베를린 대학교(Berlin Universiteti)와 브로츠와프 대학교(Breslau Universiteti)에서 유학했다. 1929년 브로츠와프 대학교에서 ‘겐재 방언에서 75개의 아제르바이잔 바야트에 대한 연구(Gəncə şivəsində 75 Azəri bayatları və lisana aid bir müqəddimə , 75 Azerbaidshanische Lieder «Bayatı»)’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튀르키예로 돌아와 1929년 이스탄불대학교 투르크 역사학부의 부교수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1938년에는 정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1946년부터 말년까지 이스탄불대학교 튀르키예어문학과의 과장으로 일하며 투르크 국가 내에서 투르크학 연구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유럽 국가 대학에서 특강을 열었고, 폴란드 동양학회(Polşa Şərqişünaslar Cəmiyyəti) 회원, 폴란드 과학 아카데미(Polşa Elmlər Akademiyası) 회원,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 쿼로시 스코마학회(Körösi-Skoma cəmiyyəti) 회원, 우크라이나 자유대학(Azad Ukrayna Universiteti) 명예박사이며, 우크라이나 자유 과학아카데미(Azad Ukrayna Elmlər Akademiyası), 국제 방언학센터(Beynəlxalq Dialektologiya Mərkəzi), 우랄알타이 협회(Ural-Altay Cəmiyyəti), 1949년 국제유전자학회(Beynəlxalq Onomastika Cəmiyyəti)의 튀르키예 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애흐매트 재패르오글루 초상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1955년 그는 투르크학 분야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스페인의 'De Alfenso el Sabio' 훈장을 받았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국가개황(Azərbaycan yurd bilgisi)」과 「투르크의 목표(Türk amacı)」를 집필했으며,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출판되는 <튀르키예 어문학(Türk dili və ədəbiyyatı)>의 편집자로 활동했다. 그의 『동양국가 구비문학전집(Doğu ellərimiz ağızlarından toplanmalar), 『북동국가 구비문학전집(Quzey Doğu ellərimiz ağızlarından toplanmalar)』, 『남동국가 구비문학전집(Güney Doğu ellərimiz ağızlarından toplanmalar)』, 『아나톨리아 민족들 구비문학전집(Anadolu elləri ağızlarından dərləmələr)』, 『시바스와 토카트 지방의 구비 문학전집(Sivas və Toqat elləri ağızlarından toplanmalar)』, 『중앙 아나톨리아 구비문학전집(Orta Anadolu ağızlarından dərləmələr)』, 『아나톨리아 방언론 자료집(Anadolu dialektolojisi üzərinə malzəmə 2권)』 등 다양한 저서들은 그의 민속학과 방언학 연구에서의 독보적인 업적이다.

한편 1940년부터 1951년까지 민속과 방언학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튀르키예의 초룸(Çorum), 토가트(Toqat), 에르주움, 시바스(Sivas), 예시크셰히르(Əskişəhər), 기레순(Girəsun), 앙카라(Ankara), 볼루(Bolu), 아마시아(Amasya), 이오즈가트(Yozqat), 가지안테프(Qaziantəp), 으디르(İqdir), 카르스(Qars), 포스호프(POshof) 등을 답사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그는 감옥에 수감 중인 죄수들을 만나 그들이 사용한 은어를 수집했다. 그가 수집한 자료로는 18편의 서사시, 48편의 기도문, 7편의 이야기, 42편의 노래, 8편의 자장가, 181편의 게임, 738편의 투르크 민요(türkü), 4편의 고전 놀이문학(yanıltmac qrupu, 놀이를 위한 고전 문학의 한 장르), 141편의 매설(məsəl, 함축된 이야기가 있는 정형화된 표현, 한국의 사자성어 혹은 속담과 비슷함) 등으로 상당히 방대하다.

민속 분야 이외에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고전과 현대 문학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대표작으로는 1932년~1933년에 출간된 『19세기 아제르바이잔 시인 시라지(XIX əsr azəri şairi Siraci), 『아제르바이잔의 독립 투쟁 문학(Azəri ədəbiyyatında istiqlal mücadiləsi)』, 『18세기 아제르바이잔 시인 맬리크 베이 아브치(XVIII əsr azəri şairi Məlik bəy Avçı)』 등이 있다. 특히 그는 『아제르바이잔어 문학의 전환기(Azərbaycan dil və ədəbiyyatının dönüm nöqtələri)』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어문학이 거쳐온 다양한 발전 단계를 살피며 민족문학 역사를 평가했다.

이외에 그의 저서로는 『투르크 민족들(Türk qövmləri)』, 『마흐무드 카쉬가리(Mahmud

Kaşğarlı』, 『아제르바이잔 문학(Azərbaycan ədəbiyyatı)』, 『현대 아제르바이잔 문학 살펴보기(Modern Azərbaycan ədəbiyyatına toplu bir baxış)』, 『위구르어 사전(Uyğur dili sözlüyü)』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두 권으로 이뤄진 『투르크어 역사(Türk dili tarixi)』는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다.

평생에 걸쳐 투르크학을 연구했던 그는 1975년 1월 6일 이스탄불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진질 리쿠유(Zincirlikuyu) 묘지에 안장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아흐메드 자페르오울루, 아흐멧 자페르오울루, 아흐메트 자페르오울루
- 다국어 표기 Ahmet Caferoğlu(튀르키예어), Ахмет Жафероглу(카자흐어), Ahmet Jafaroglu(투르크멘어), Ahmet Jafaroglu(우즈베크어), Ахмед Джафарогл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흐멧 자페르오울루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Br8i>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Əbülhəsənli Elşən, *Əhməd Cəfəroğlunun Ədəbiyyatı Ünaslıq Risi*, Bakı, 2006.
Müasir Azərbaycan ədəbiyyatı (dərslik), İki cildə, II cild, Bakı: BDU nəşriyyatı, 2007.
Sultanlı Vagif, *Azərbaycan Mühacəret Edebiyatı*, İstanbul: Avropa Yakası Yayınları, 2007.
Önal Kamil, "Prof. Dr. Ahmet Caferoğlu'nun Çalışma Sahaları." *Prof. Dr. Ahmet Caferoğlu Hatıra Kitabı*: İstanbul: İstanbul Üniversitesi; Türk Ocakları İstanbul Şubesi, 2019. pp.94~134

I E226 | 엘리 배이 휘세인자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비평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Əli bəy Hüseynzadə

엘리 배이 휘세인자대(Əli bəy Hüseynzadə, 1864년~1940년)는 20세기 투르크인들에게는 중요한 사상가이자 투르크학자이다. 그의 원래 직업은 의사였다. 그는 튀르키예에서는 ‘휘세인자대 알리 투란(Hüseynzade Ali Tura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그는 1864년 2월 24일 아제르바이잔의 도시 살얀(Salyan)에서 태어났다. 휘세인자대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티빌리스로 이주했는데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할아버지 아쿤드 애흐메드 샬야니(Axund Əhməd Səlyani) 손에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튀르키예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여러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초등학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중고등학교는 조지아에서 다녔다. 대학교육은 모스크바에서 마쳤다. 그 후 이스탄불에 정착해 거의 일생을 튀르키예에서 보냈다고도 할 수 있다. 튀르키예야말로 휘세인자대에게는 제2의 조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투르크학과 범투르크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티빌리시 김나지움(Tiflis gimnaziyası)에서 공부했던 1875년~1885년 무렵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88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 입학해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대학 재학시절에는 주로 중동 및 투르크학 관련 저명한 교수들의 강의에 심취해 있었다. 그가 열광했던 교수들은 ‘드미트리 멘델레예프’(Dmitri Mendeleev), ‘예고르 바그네르’(Yeğor Vaqner), ‘니콜라이 멘쉬트킨’(Nikolay Menşutkin), ‘니콜라이 베케토프’(Nikolay Beketov), ‘발렌틴 주코브스키’(Valentin Jukovski)와 같은 교수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점차 제국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자 엘리 배이 휘세인자대는 조국에 대한 열망을 느끼고 튀르키예로 떠난다.

그는 1894년 이스탄불 군의과대학교(Mekteb-i Tıbbiye-i Şahane: 오스만 제국 시기 세워진 튀르키예 최초 의과대학, 현 이스탄불 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한 후 의사가 된다. 1897년에는 잠시 적신월사(赤新月社, Red Crescent Society) 일원이 되어 이탈리아로 간다. 3년 정도 근무한 후 그는 다시 튀르키예로 돌아와 이스탄불 대학교 의과대학의 부교수로 임명된다. 이때부

터 그는 혁명적인 청년 투르크당(Young Turks)의 개혁운동에 참여한다. 그리고 ‘연합진보당’ 창당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된다. 이런 박해로 인해 그는 어쩔 수 없이 아제르바이잔으로 돌아온다.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수많은 잡지와 신문 등 언론에 글을 기고하면서 저술활동을 펴 나간다. 우선 <카스피(Kaspi)> 신문과 협력해 여러가지 주제로 기획 기사를 게재했으며, 곧이어 당대의 저명한 오피니언 리더 ‘애흐매드 베이 아가오글루(Ahmedbəy Ağaoğlu, 1869년~1939년)와 함께 <해야트(Həyat, 1905년~1906년)> 신문을 발행했다. 1906년부터는 <퓨이유자트(Füyuzat, 1906년~1907년)> 잡지의 편집장으로도 일했다. 그 후부터 1년간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아제르바이잔에 퓨이유자트 문예사조의 기반을 마련했다. 엘리 베이 휘세인자대가 다시 아제르바이잔을 떠난 것은 1909년이다.

이때부터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는 이스탄불에 살았다. 엘리 베이 휘세인자대는 1940년 세상을 떠났고, 가라자애흐매드(Qaracaəhməd) 묘지에 묻혔다.

그가 튀르키예에 정착해 사는 동안 저술활동에만 주력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으며, 그는 의사로도 명성을 떨쳤다. 그런데 투르크학 관련 사상과 정치이념은 그의 삶의 목표 및 이념이었기에 그는 일생을 투르크학 관련 저술과 활동에 바쳤다. 그의 사상이 담긴 출판물로는 「정치적-기획(Siyasəti-fürusət, 1995)」, 「짙은 어둠 속 희미한 불빛(Qırmızı qaranlıqlar içərisində yaşıl işıqlar, 1996)」, 「서구 서사시 두 개에 그려진 투르크인(Qərbin iki dastanında türk, 1998)」 등이 전해진다. 특히, 「투르크인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Türklər kimdir, kimlərdən ibarətdir, 1997)」라는 글은 투르크학의 기본 토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투르크학 관련 저술 활동을 통해 투르크인들의 역사, 민족분화 및 형성과정, 투르크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투르크인들의 이슬람적 요소 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들을 규명하려 노력했다. 그는 모든 투르크 민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투르크어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공용 투르크어’ 창제를 주창했다. 그리고 발칸반도와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그리고 신장-위구르 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있는 투르크인들의 연대를 강조하는 범투르크주의 사상을 옹호했다.

투르크학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엘리 베이 휘세인자대는 동양과 서양의 조화에 입각한 투



엘리 베이 휘세인자데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르크 국가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그가 제안했던 이상적인 모델은 서구 유럽국가에서는 진보된 기술을 습득하고, 동양의 정신문화는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투르크 문화와 이슬람 종교 그리고 유럽의 발전된 테크놀로지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투르크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사상과 이념은 아제르바이잔이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1918년~1920년)을 수립하던 시기 국가이념으로 반영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 국기도 이러한 이념을 상징화하는 세가지 색이 포함되었다. 그는 튀르키예의 중요한 민족주의 사상가 지이야 괴칼프(Ziya Gökalp, 1876년~1924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튀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며 국부(國父)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공화국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엘리 베이 휘세인자대는 투르크학 창시자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 소비에트 시대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그의 작품들은 모두 불온서적으로 규정돼 출판이나 연구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기초를 마련했던 범투르크 민족주의 사상이나 투르크 민족들의 공용 투르크어의 필요성에 대한 아젠다는 오늘날 다시 그 의미를 되찾고 있다.

다재다능했던 그는 왕성한 학술활동과 더불어 시를 발표하기도 하고, 화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실러나 괴테의 시들을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하는 등 유럽과 투르크-이슬람 세계를 문화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데도 주력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리 베이 휘세인자데, 휘세인자데 알리 투란
- **다국어 표기** Ali bey Hüseyinzade(튀르키예어), Hüseyinzade Ali Turan(튀르키예어), Али бек Гусейнзаде(러시아어), علی بیگ حسینزاده(페르시아어), Ali Bey Hussein Zade(불어), Əli bəy Hüseynzadə(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이스탄불, 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7/74/Ali_bey_Huseynzade.jpg/800px-

Ali_bey_Huseynzade.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ayat Ali Haydar, *Azərbaycanın yiğit evladı Ali bəy Hüseynzadə*, İstanbul: Kuşak Ofsen yayınları, 1992.

Mirzə Rəsim, *Türkçülüğün babası*, Bakı: “Elm” nəşriyyatı, 2000.

Sultanlı Vəqif, *Azərbaycan Mühacəret Edebiyatı*, İstanbul: Avrupa Yakası yayınları, 2007.

Turan Azər, *Əli bəy Hüseynzadə*, Moskva: 2008.

Turan Azər, *Əli bəy Hüseynzadə, Həyatı, mübarizəsi, yaradıcılığı, şəcərəsi*, Bakı, 2014.

Vəliyev Şamil, *Füyuzat ədəbi məktəbi*, Bakı: “Elm” nəşriyyatı, 1999.

| E227 | 엘리사 니자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Alisa Nijat

위대한 작가이자 출판인(publicist)인 ‘엘리사 니자트’(Əlisa Nicat)는 1936년 8월 10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도시 레리크(Lerik)에 있는 유하르 개디크(Yuxarı Gədik)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5년에 랜케란(Lənkəran) 3번 학교를 졸업했으며, 1957년~1963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아제르바이잔어문학과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했다. 1967년~1969년에는 아제르바이잔의 문예지 <젊음(Gənclik)>과 <예술(İncəsənət)>의 편집자로 일한 적이 있으며 이후 에크란(Ekran) 텔레비전 영화부에서 활동했다. 1973년~1983년에는 잡지 <학문과 삶(Elm və həyat)>에서 편집자와 부서장을 역임했다. 그는 오랫동안 아제르바이잔의 우수한 기관에서 근무하면서도 <민족의 소리(Millətın səsi)>나 <자유(Hürriyyət)>와 같은 신문에 칼럼이나 논평 등을 기고했다.

그는 1955년에 자신의 첫번째 시 「말 한 마디(Bircə söz)」를 <문학과 예술(Ədəbiyyat və incəsənət)> 신문에 기고하면서 시인의 삶을 시작했다. 그의 문예창작 능력은 시뿐만 아니라 산문에도 탁월했는데 1961년에 첫 단편소설집 『잘자요, 별들(Gecəniz xeyrə qalsın, ulduzlar)』, 1964년에 첫 시집 『한여름 밤(Yay axşamı)』, 1970년에는 『한 여자, 플라타나스 나무 세 그루』

(Bir qız, üç çinar)』를 출간했다. 그리고 1983년~1990년에는 바쿠를 떠나 랜케란(Lənkəran)에 살면서 「짜라투스트라(Zərdüşt)」, 「축제일(əsarət bayramı)」, 「무용(無用, Gərəksiz)」 등의 중편소설을 썼다. 이후 1987년에 중편과 단편소설을 엮은 작품집 『부족장(部族長, Qəbilə başçısı)』을 출간했다. 그런데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준 결정적인 작품은 역사소설이었다. 대표적으로 『붉은머리(Qızılbaşlar, 1983)』, 『간자출신 현자(Gəncəli müdrik, 1990)』, 『에흐람(Ehram, 2013)』 등이다.

소비에트가 붕괴하고 아제르바이잔이 독립한 후 그는 1993년~1994년에 <투란(Turan)>이란 잡지를 발간했다. 더불어 그의 대표작으로는 『옛날 이야기 같은 역사(Nağıllara dönən tarix, 1993)』, 『영혼들의 대화(Ruhların söhbəti, 1994)』, 『세계의 위인들(Dünya sərkərdələri, 1995)』, 『세계의 철학자들(Dünya filosofları, 1995)』, 『슬픔의 와인(Kədər şərabi, 1997)』, 『세계의 역사학자들(Dünya tarixçiləri, 1998)』, 『위대한 아제르바이잔인 100인(Yüz böyük Azərbaycanlı, 1999)』, 『케르반(Karvan, 2000)』, 『역사의 멸망(Tarixin qürubu, 2009)』 등이 있다. 그외에도 『현자들의 신전(Müdriklik məbədi)』은 전 세계 철학자들의 작품들을 모아 실은 선집이며, 총 50권으로 이뤄진 이 작품집 중 일부는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었다.

그는 1999년 4월 28일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AMEA)의 베흐만야르 철학과 법 연구소(Bəhmənyar adına Fəlsəfə və Hüquq institutu) 학술위원회에서 학술 및 교육 활동을 인정받아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엘리사 니жат, 엘리사 니자트
- 다국어 표기 Elisa Nicat(영어), Alisa Nicat(튀르키예어), Алиса Ниджат(러시아어), Əlisa Nicat(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Hüseynova Cəmil, *Əlisa Nicatın bədii nəsrı, Filologiya elmləri namizədi alimlik dərəcəsi almaq üçün təqdim olunmuş dissertasiya*, Bakı: BDU kitabxanası, 2009.
Sirlı Əlisa, *Nicat haqqında məqalələr toplusu*, Bakı: “Qanun” nəşriyyatı, 2000.

I E228 | 엘리와 니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소설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i) ● 라틴 문자 Ali and Nino

‘엘리와 니노’(Əli və Nino)는 1937년에 탈 베를라그(E.P. Tal Verlaq)에 의해 비엔나(Vyana)에서 독일어로 처음 번역, 출판된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애정 소설이다. 한국어로도 번역된 적이 있는 이 작품의 주제는 ‘사랑’이다.

이 책은 저자에 관련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바로 1937년 비엔나에서 출판된 초판에 저자가 ‘구르반 새이드’(Qurban Səid)로 나와 있는데 정작 아제르바이잔에는 그 이름을 가진 작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바쿠의 유대인이었던 ‘레브 니셈바움’(Lev Nissebaumun)의 필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유시프 베지르 채맨 재민리’(Yusif Vəzir Çəmənzməinli)의 필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명확하게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긴장감 있고 극적인 사건의 전개와 흥미로운 이야기의 진행이 특징적이다. 시대적 배경은 러시아 혁명, 아제르바이잔 민주 공화국의 수립, 붉은 군대의 바쿠 점령 등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던 시기이며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주요 장소는 바쿠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엘리 칸 시르완쉬르’(Əli xan Şirvanşir)는 러시아 학교에서 공부하는 무슬림 청년으로 그의 가족이 이슬람 전통에 충실한 것과는 달리 유럽의 영향을 받아 다소 개방적인 인물이다. 공부하는 학교는 물론이고, 서양과 기독교권인 조지아 출신 니노(Nino)를 사랑한다. 그러나 평생 조상의 전통을 지키며 아제르바이잔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엘리와 니노(Əli və Nino)』 한국어판 표지
Source: <https://image.yes24.com/>

작가는 이런 주인공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진정한 젊은 애국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는다. 주인공 엘리는 작품 속에서 다게스탄(Dağıstan), 카라바흐(Qarabağ), 조지아(Gürcüstan), 이란(İran)을 여행하고 니노와 학교를 마친 후 결혼을 결심한다. 엘리의 아버지는 다른 종교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지지한다. 그리고 니노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망설이지만 아르메니아 혈통의 친구를 통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다.

그러나 니노에게 반한 아르메니아인이 니노를 납치하면서, 사건은 급작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엘리는 니노를 납치한 아르메니아인을 명예 살인한 후 아르메니아인의 복수를 피해 바쿠를 떠난다. 몇 달 후, 니노는 외딴 마을에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엘리를 찾아내고 둘은 결혼한다. 두 주인공의 사건을 배경으로 작품 속에는 당시 일어난 러시아 혁명과 바쿠 해방을 위해 바쿠로 향한 튀르키예군의 진군이 잘 묘사돼 있다. 엘리와 니노는 러시아인들이 바쿠를 다시 침략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이란으로 떠나게 되고 그 후 니노가 이란에서 가택연금에 처해지면서 외로움과 불행을 느낀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둘은 바쿠로 복귀하고, 민주공화국의 문화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후 엘리는 프랑스 주재 아제르바이잔 대사직을 제의받고 니노도 이 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엘리는 끝내 제안을 거부한다. 그는 니노가 이란에서처럼 비참함을 느낄까 두려워한 것이다. 그러던 중 엘리가 1920년 5월에 러시아 침략자들에 대해 벌인 갠재운동(Gəncə üsyanı)에서 사망하게 되면서 니노는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조지아(Gürcüstan)로 도망친다.

소설은 그 당시 시대상과 정치적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 사건들 안에서 투르크-이슬람 전통과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지정학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고유성을 제시하고자 시도했다. 이후 1970년에 미국의 자유 라디오(Amerikanın Azadlıq radiosu)에서 아제르바이잔어로 방송된 것을 시작으로 1990년에는 ‘미르재 캐재르’(Mirzə Xəzər)가 번역해 <아제르바이잔> 잡지(Azərbaycan jurnalı)에 실었다. 그리고 이 소설을 바탕으로 2015년에 「알리와 니노」 영화가 제작됐는데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는 ‘크리스토퍼 험프톤’(Kristofer Hempton), 감독은 ‘아시프 카파디안’(Asif Kapadian)이 맡았다. 2016년에는 ‘엘빈 미르재예브’(Elvin Mirzəyev)가 감독을 맡아 두 번째 영화가 제작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리와 니노
- 다국어 표기 Ali ve Nino(튀르키예어), Али и Нино(러시아어), Ali und Nino(독일어)
- 연관 검색어 바쿠,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mage.yes24.com/momo/TopCate675/MidCate006/67452023.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Hüseyinoğlu Tofıq, Qurban Səid: *mübahisələr, həqiqətlər*, Bakı: Nurlan nəşriyyatı, 2004.
Qarabağlı Şəlalə, *Ədəbiyyatşünaslıqda "Əli və Nino" problemi*,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1.
Səid Qurban, *Əli və Nino*, Bakı: Qanun nəşriyyatı, 2012.
Xəlilov Pənah, *Əli və Nino problemləri*, Bakı: Nurlan nəşriyyatı, 2000.

I E229 | 애플래힘 배이 하그베르드예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희곡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Abdurrahim bey Haqverdiyev

‘애플래힘 배이 하그베르드예브’(Əbdürrəhim bəy Haqverdiyev)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저명한 극작가 겸 산문 작가이자, 위대한 기자, 출판인(publicist)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70년 5월 17일 도시 슈샤(Şuşa) 근처에 위치한 시골 마을인 아그불라그(Ağbulaq kəndi)에서 태어났다. 슈샤와 티블리시에서 학교를 졸업했으며 이후 1891년~1899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로드 엔지니어 대학(Peterburq Yol Mühəndisləri İnstitu)에서 수학했다. 그 후 1906년에 러시아 의회(Rusiya Dövlət Duması)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짧은 기간동안 존속했던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에서 아르메니아 대사를 역임했다.

그는 1933년에 사망했고, 바쿠에 있는 국립 현충원 ‘명예의 전당(Alley of Honor)’에 묻혔다.

그가 문학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슈샤에 있는 학교를 다니던 무렵이다. 1884년에 쓴 「하즈다쉬대미르(Hacı Daşdəmir)」 희곡으로 문단에 데뷔했으며 이후 1892년에 저술한 「거위고기를 먹으면 그 맛을 알게 될 거야(Yeyərsən qaz ətini, görərsən ləzzətini)」라는 희곡이 공식적인 첫 번째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으로 대중의 극찬을 받았다. 그렇게 희곡 창작을 이어가



Əfəndi bəy Həqibərdiyyəvi-nin xatirə abidəsi və mezarı

면서 한동안 새로운 작품들을 잇달아 발표했는데 대표적으로 1896년에 쓴 「파괴된 연대(Dağulan tifaq)」가 아제르바이잔 희곡 역사상 최초의 비극 중 하나로 지금도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불행한 청춘(Bəxtsiz cavan, 1900)」, 「요정마술(Pəri cadu, 1901)」, 「아가 모하마드(Ağa Məhəmməd şah Qacar)」 등 예술적 가치가 높은 희곡 작품들을 창작했다. 작가의 산문 작품들 중 「지옥에서 보낸 귀신 편지들(Xortdanın cəhənnəm məktubları)」, 「나의 사슴(Marallarım)」 등의 단편소설은 독자들의 큰 관심을 끈 작품이었다. 그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나의 사슴들(Marallarım, 1963)」, 「나는 결혼하고 싶다(Evlənmək istəyirəm, 1983)」, 「굵은 글

자들(Ac həriflər, 1993)」 등 여러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내용적인 면에서 이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가 사회·정치적, 도덕적 문제들은 물론, 여성 억압에 대한 비판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셰이크 샤반(Şeyx Şəban)」, 「달의 목격(Ayın şahidliyi)」, 「미르재 새페르(Mirzə Səfər)」, 「폭탄(Bomba)」, 「아버지와 아들(Ata və oğul)」 등의 여러 단편소설이 특히 큰 인기를 끌었으며 당시 소비에트 정치 체제가 심각한 정치적, 이념적 혼란(충격)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꾸준히 창작을 계속했다.

한편으로 외국 문학 작품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어로 번역하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셰익스피어의 「햄릿」, 프리드리히 실러의 「군도(Qaçqlar)」, 볼테르의 「술탄 오스만(Soltan Osman)」, 안데르센의 「나이팅게일」과 「벌거숭이 임금님」, 블라디미르 코롤렌코의 「장님 음악사」, 알렉세이 키리코브의 「유대인들」과 같은 작품들을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두라힘베이 하크베르디예프
- 다국어 표기 Abdurrahimbey Hakverdiyev(튀르키예어), Абдуррагим бек Ахвердиев(러시아어), Abdurahimbek Haqberdiyev(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Abdurrahim bey Haqverdiyev, Bakı: Khan publishing, 2015.
Azerbaijan Prose (Anthology), Moskow, Progress Publishers, 1977.
Azerbaijanian Prose, Anthology, Bakı: Araz, 2006.
Məmmədov Kamran, *Əbdürrəhim bəy Haqverdiyev*, Bakı, 1950.
Mütəllibov, Təhsin Əbdürrəhim bəy Haqverdiyevin poetikası, Bakı, 1988.
Qiyasbəyli Elxan, Əbdürrəhim bəy Haqverdiyev və “Molla Nəsrəddin” jurnalı, Bakı, 2000.
Məmmədova Mehri, *Əbdürrəhim bəy Haqverdiyevin arxivinin izahlı təsviri*, Bakı, 2012.

I E230 | 앵틸가디르 마라가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Abdllkadir Maregei

앵틸가디르 마라가이(Əbdülqadir Marağayi)는 1353년에 과학 및 문화의 도시였던 마라가(Marağa)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인이며 음악가이자 화가, 시인이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 교육을 받은 그는 열 살 때 동양 음악이론을 터득했으며 주로 문법, 수사학, 문체학을 공부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마다 코란 구절을 낭송하고 어려운 음악 작품을 연주하는 역할을 맡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명성이 마라가를 넘어 퍼져나갔다. 급기야 술탄 궁전의 행사에까지 초청받기 시작했다. 당시 가장 유명한 가수 및 시인들은 모두 술탄 위베이스 켈라이르(Sultan Üveys Cəlair)가 있는 곳으로 모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술탄 위베이스가 “앵틸가디르는 음악에 있어서 유일하고 유례가 없는 독보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시인으로서 그의 명성을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술탄 위베이스의 사후에도 앵틸가디

르는 술탄 위베이스스의 아들인 술탄 후세인(Sultan Hüseyin)의 궁전에 계속 머물렀다.

그가 남긴 작품 중 1377년에 쓴 『앨하니-시가내(Əlhani-siqanə)』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의 제목은 ‘30개의 곡’(Otuz nəğmə)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그의 생애 중 일어난 어느 사건과 관련이 있다. 어느 날 궁중의례 중 술탄 후세인이 앵달가디르에게 라마단 기간 동안 매일 곡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했다. 즉, 라마단을 위해 곡을 헌정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는 제안에 동의했고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음악가였던 리즈완사 태브리지(Rizvanşah Təbrizi)는 앵달가디르에게 조건을 얘기하고 이 일을 완성하면 돈도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고생스러웠지만 단기간에 조건을 충족시키며 30곡을 완성해낼 수 있었다. 그러자 앵달가디르의 재능에 감탄한 리즈반사 태브리지가 약속한 돈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을 앵달가디르에게 시집보냈다고 한다.

앵달가디르가 술탄 후세인에게 바쳤던 『봄의 리듬(Bahar ritmi)』이라는 작품은 앵달가디르와 술탄 후세인이 타브리즈 궁 정원에서 산책하던 중에 우연히 창작된 것이다. 1380년 아제르바이잔의 새 술탄이 된 애흐매드 이븐 위베이스스(Əhməd ibn Üveys)도 과학자이자 음악가였던 앵달가디르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앵달가디르는 30개에 달하는 별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되브리-샤히(Dövri-şahi)』라는 작품을 애흐매드 이븐 위베이스스의 영전에 바쳤다.

하지만 티무르가 즉위해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한 이후 많은 예술가들이 사마르칸트로 끌려갔다. 1397년에는 티무르의 처형 명령은 피했지만 여전히 사마르칸트로 끌려간 예술가들의 목록에 앵달가디르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같은 해에 티무르는 포고령을 내리고 그를 ‘음악가들의 왕’으로 삼았으며, 1399년에 타브리즈에 있는 티무르의 아들 미란샤 궁으로 앵달가디르를 끌고 가서 잠시 고향의 향기를 마시며 지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 티무르는 ‘반란자 미란샤의 친구’라는 죄목을 붙여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다행히 이번에도 앵달가디르는 티무르의 마음을 바꿔 죽음을 면한다. 처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는 사람들에게 투르크어로 호소해 살아났는데, 두 번째 선고에서는 형을 피하고자 암송한 코란 구절 하나가 너무 완벽해 티무르의 마음을 돌린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죽음은 피했지만 이내 그는 사마르칸트에 있는 테이무르 궁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자메 앨-앨한(Came əl-əlhan)』이라는 작품을 1405년에 시작해 1413년에 완

성한다. 『자메 엘-엘한』은 ‘멜로디들의 세트’(Melodiyalar məcmusu)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이어서 ‘멜로디들의 의도’(Melodiyaların məqsədi)이라는 뜻의 『매가시드 엘-엘한(Məqasid əl-əlhan)』, ‘음악(Musiqi)’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라히예』(Lahiyyə)』, ‘시대 해석(Dövrələrə şərhlər)’이라는 뜻의 『새르흐 엘-애드바르』(Şərh əl-ədvar)』와 ‘10개의 효능(On fayda)’이라는 뜻의 『패바이드-이 애사래』(Fəvaid-i əşər)』를 창작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은 전문 음악가, 훈련된 이론가, 연주자들을 위해 창작된 것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곡이다. 뮤지컬 작품 대부분이 페르시아어와 아제르바이잔어 시들로 완성되어 있기에 투르크 민족의 음악 중에서도 특히 아제르바이잔 전통음악인 ‘무감’을 전문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주로 불렀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음악 문화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장르 중 하나인 아시옥 음악(aşıq musiqisi)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의 작품에서 투르크의 9가지 주요 음계(lad)와 모든 동양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지만 특히 투르크 민족들의 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음계(lad), 즉 내바(Nəva), 부살리크(Busalik), 내호프트(Nehoft), 바야트-노브루즈(Bayati-Novruz) 등을 주로 사용했다. 투르크 민족의 해당 음계들은 당대 몽골 음악가들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음악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한 그의 시(詩) 대부분이 아제르바이잔과 이라크계 투르크인들(İraq türkləri) 사이에 널리 전해 내려오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털가디르 마라가이
- 다국어 표기 Abdülgadir Marağayı(튀르키예어), Абдулкадир Маррагаи(러시아어), Abdülkadir Marağalı(영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사마르칸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Bardağçı Murat, *Maragalı Abdülkadir*, Pan Yayıncılık, 1986.
100 böyük türk, Bakı, 1991, səh.29.

I E231 | 야르호토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Old city of Yarhoto

야르호토 유적은 중국 신강성 투루판시(吐魯番市) 야얼나이쯔거우촌(雅爾乃孜溝村)에 위치한다. 이곳의 지형은 매우 특이한데 수천 년 전에 홍수로 형성된 하천 골짜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천의 물이 점점 말라 없어지고 타원형의 하중도가 생기면서 생성되었다.

이곳은 B.C. 2세기 무렵의 차사전국, 5호 16국 시기~당대의 고창군과 교하현성 유적이 위치한 곳이다. 이곳에 차사전국(車師前國)이 위치했다는 사실은 『한서(漢書)』의 서역전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교하交河’라는 명칭은 차사전국의 왕이 이곳을 다스렸고, 강물이 성을 감싸는 모양새를 이루고 있어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렸다는 유래를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현존하는 교하고성(交河古城)은 당나라 때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거친 후 복원된 모습이기에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성의 서북부에 당 이전에 만들어진 무덤이 있었으나 도굴로 인해 심하게 파괴되어 흔적만이 남아 있다.

당대에 만들어진 성은 생토(生土)를 파서 벽을 세우고 그다음 지붕을 진흙으로 덮어 만들었다. 유적 중앙에는 대로가 나 있어 거주구역을 동서로 양분하는 구분선 역할을 하며, 북쪽에는 대불사(大佛寺)라는 사원지가 위치한다. 성의 북쪽과 동쪽 구역에는 탑이 즐비하게 남아 있다. 중앙에는 큰 탑이 있고 작은 소탑이 가로세로 5열씩 25개가 배치된 채로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도 대규모 집과 광장, 도기 가마 등의 장소가 발견되었다.

현재 이 지역의 기후가 건조하고 성지 또한 수원(水源)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야르호토 고하고성은 B.C. 108년~A.D. 450년에 존재했다. 한때 한나라와 공존했던 투루판 일대의 고대국가였으며 당대에는 교하현으로 편입되어 서역으로 통하는 주요 본거지 중 하나로 번성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실크로드 무역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야르호토



아르호토의 유적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다국어 표기 交河故城(중국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b/Turpan-jiaohe-ruinas-d28.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事業管理局 外, 『新疆文物古迹大觀』, 烏魯木齊: 新疆美術攝影出版社, 1999.
新疆維吾爾自治區文物局 編, 『新疆維吾爾自治區第三次全國文物普查成果集成』新疆古城遺址(下冊), 北京: 科學出版社, 2011.

I E232 | 야를릭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소분류1 사건 ● 유형소분류2 문서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Jarlig

‘야를릭’은 몽골의 칸이 예속된 군주나 종교지도자에게 발행하는 칙령이나 면제 증서로서, ‘칭기즈 칸’의 법전 야사(Яса), 또는 13세기~15세기에 공국에 발행한 신임장을 지칭한다. 대략 폭 20cm, 길이 1.5m의 한 장 또는 여러 장의 종이에 검은색과 붉은색, 금색으로 쓰였다.

킵차크 칸국에서 야를릭을 사용했을 때는 수령자의 언어로 번역해 사용했다. 몽골의 첫 세대 카논이 야를릭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낭독했으나 이후 위구르인들로부터 전래되면서 문서 형태로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인지 야를릭의 형태와 유형은 10세기~11세기 위구르 공후들의 야를릭과 매우 닮아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13세기~15세기 몽골-타타르의 지배하에 있던 루스인들에게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당시 오르다(Orda)의 칸이 주교나 고위 사제들에게 발행했던 대부분의 야를릭은 그 자체로 세금 면제권이나 사면권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를릭은 칭기즈 칸의 증손자 ‘멘구-티 무르 칸’ 시대에 모든 세금을 면제받은 오르다 영내의 루씨 교회 종교시설들의 지위와 비슷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야를릭
- 다국어 표기 Yarliq(아제르바이잔어), Ярлык(러시아어), Зарлиг(몽골), یرلیغ(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킵차크 칸국, 티무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кгауза и Ефрона : в 86 т. (82 т. и 4 доп.). — СПб., 1890—1907.

I E233 | 야만 우수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Yamaan us

야만 우수 유적은 ‘우엔치’와 ‘알타이 솜’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야만 우수 협곡에서 북서쪽으로 높이 30m 정도 되는 곳에 바위 그림이 그려져 있다. 청동기 시대부터 흉노 시기 및 고대 투르크 시대까지 오랫동안 그려져 있던 이 바위 그림은 몽골-소비에트 공동 탐험대가 1973년에 발견했다.

바위그림 주변에는 흉노 탐가 문양이라고 불리는 씨족의 상징이 많이 그려져 있으며 암각화는 높은 바위 절벽의 햇빛이 비치는 앞면에 그려져 있다. 주로 산양, 사슴, 전투하는 전사의 장면 등 흉노시기 이전의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그림과 유연 시기 이후로 추정되는 갑옷을 장착한 기마병 등의 암각화도 함께 확인된다.

흉노 시대의 암각화 중 가장 잘 알려진 그림은 귀족 계층의 대형무덤에서 출토된 마차와 비슷한 양산을 씌운 마차 그림이다. 첫 번째 그림은 말과 마부가 뒤의 마차를 몰고 있는데 마치는 한 마리 말이 끌고, 마차에 탄 사람의 표현이 분명치 않다. 두 번째는 마차 앞과 뒤에 말과 말을 탄 마부가 그려져 있고, 중앙에서 마차를 호위하는 그림으로 첫 번째와 달리 마차를 모는 사람도 그려져 있다. 마차는 총 세 마리의 말이 끌고 마차의 바퀴는 8개의 살(輻)이 표현되었다. 마차 앞뒤에 서 있는 마부는 무기를 착용해서 마치 마차를 호위하는 장면을 묘사한 듯하다. 그리고 말은 다리가 굽혀진 자세로 표현되어서 실제로 달리는 효과를 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야만 우스

● 다국어 표기 Ямаан ус(러시아어), Yamaan us(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Новгородова Э.А., Древняя Монголия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хронологии 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й истории). М.: ГРВЛ. 1989. 384 с.

I E234 | 야샤르 가라예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비평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Yaşar Qarayev



야샤르 가라예브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20세기 저명한 문학평론가이자 비평가인 야샤르 가라예브(Yaşar Qarayev)는 1936년 3월 5일 아제르바이잔의 도시 새키(Şəki rayonu)에서 태어났다. 그는 바쿠에서 중등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Universiteti, 지금의 바쿠 국립대학교)의 아제르바이잔어문학과에서 수학했다.

그의 모든 학술 활동은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Azərbaycanın Milli Elmlər Akademiyası)의 나지미 갠재비 문학연구소(izami Gəncəvi adına Ədəbiyyat İnstitutu)와 관련되어 있다. 그는 대학 재학시절 이미 문단에 데뷔했으나 이후 학술 활동에 꾸준히 매진하여 위 문학 연구소의

소장직까지 역임한다. 그가 남긴 학술활동의 업적으로는 1964년에 쓴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비극 장르(Azərbaycan ədəbiyyatında faciə janrı)」라는 석사 학위논문과 1980년에 완성한 「아제르바이잔의 현실주의의 단계들(Azərbaycan realizminin mərhələləri)」이라는 박사 학위논문이 있다. 그는 1985년에 교수직을 받았으며 2002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müxbir üzvü)으로 선출됐다.

그는 창작한 다양한 작품들, 즉 『참사와 영웅(Faciə və qəhrəman, 1965)』, 『우리의 무대와 우리의 현대인들(Səhnəmiz və müasirlərimiz, 1972)』, 『비평: 문제, 자화상(Tənqid: problemlər, portretlər, 1976)』, 『시와 산문(Poeziya və nəsr, 1979)』, 『현실주의: 예술과 진실(Realizm: sənət və həqiqət, 1980)』, 『므르재 패탈리 아쿤도브(Mirzə Fətəli Axundov, 1982)』, 『휘세인 자비드(Hüseyn Cavid, 1982)』, 『시의 완벽성(Poeziyanın kamilliyi, 1985, 공저)』, 『일야스 애펬디예브(İlyas Əfəndiyev, 1987)』, 『기준은 개인적이다(Meyar şəxsiyyətdir, 1988)』,

『하르 나이팅게일의 동화(Xarı bülbülün nağılı, 1994)』, 『가까이에서, 멀리서 보는 역사(Tarix: yaxından və uzaqdan, 1996)』, 『아제르바이잔의 문학: 19세기와 20세기(Azərbaycan ədəbiyyatı: XIX və XX yüzillər, 2002)』 등은 아제르바이잔 문학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귀중한 비평서들이다.

2002년에 발표한 그의 마지막 작품인 『아제르바이잔의 문학: 19세기와 20세기(Azərbaycan ədəbiyyatı: XIX və XX yüzillər)』는 19세기~20세기에 걸친 문학의 진화를 주제로 문학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식을 담아내며 시기별 문학인들의 예술작품을 분석해냈다. 이를 통해 그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문제들에 대해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견해를 표현했다. 야샤르 가라예브의 문학비평과 문학론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은 그를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창작 영역을 정립한 몇 안되는 작가 중 하나로 남게 했다.

그는 2002년 8월 25일 바쿠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제2 명예의 묘지(II Fəxri Xiyaban)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야샤르 가라예브

● 다국어 표기 Yaşar Karayev(튀르키예어), Яшар Караев(러시아어), Yashar Garaev(우즈베크어), Yashar Garaýew(투르크멘어), Яшар Гаpaев(카자흐어), گارایېۋ یاشار(위구르어), Yaşar Qarayev(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az/7/7b/Ya%C5%9Far_Qarayev.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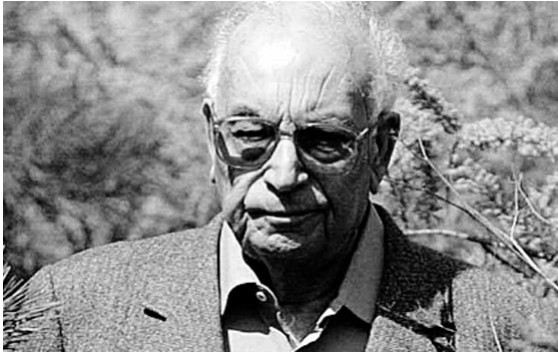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Bayramov Qurban, Jalə Qurbanqızı, “Yaşar Qarayev: milli yaddaş təlimi – Azərbaycançılıq”, Bakı, BDU nəşriyyatı, 2001. *Müasir Azərbaycan ədəbiyyatı (dərslik)*, İki cildə, II cild, Bakı: BDU nəşriyyatı, 2007.

Qarayev Yaşar, *Yaxından Və Uzaqdan (Məqalələr Və Xatirələr)*,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6.

I E235 | 야샤르 케말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YAŞAR KEMAL



야샤르 케말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야샤르 케말은 1923년 아다나(ADANA)시의 헤르미테(HERMITE)라는 마을에서 출생했으며, 본명은 '케말 사드크 괴으젤리'이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가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 온갖 잡다한 일을 전전하며 자랐는데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1944년 「추한 얘기」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공산당을 조직하는데 가담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후 1951년에야 다시 작품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쭈무리예트(Cumhuriyet)> 신문사에서 르포타주 기자로 일하며 「아이」, 「가게 주인」, 「땡별」 등 여러 작품을 발표했다. 그리고 1952년~1954년 사이에 아나톨리아 민속자료를 채집하여 훗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작 『의적 메메드』과 『아나톨리아의 세 가지 신화』를 집필했다. 그중 1956년에 완성된 『의적 메메드』는 <와르륵(Varlık)> 문학지 공모 대상을 받으면서 국제 펜클럽의 추천으로 불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한편 야샤르 케말은 정치 활동에 주력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1962년 튀르키예 노동당(TIP)에 입당 후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 오랫동안 몸담아 일했던 <쭈무리예트> 신문사를 사직하는가 하면 1969년 발표한 『이슬람 사원의 겨울』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다. 그때쯤 야샤르 케말은 튀르키예 작가협회 회장, 튀르키예 작가 노조위원장 등을 맡고 있었다.

수상 경력으로는 『철공소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으로 마다라르 소설상을, 『불노초』로 프랑스에서 '최고의 외국 문학상'을, 『바람 부족의 연대기』로 '그 해 최고의 작품상'을 받는 등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날렸다. 여기에는 그의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고 출판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아내 틸다의 역할이 컸다.

그는 평생을 휴머니즘에 입각한 투철한 인권 투쟁 정신으로 가난한 서민들과 소수 민족의 보호를 주제로 다루는 작품을 쓰는 데 주력했으며 인권운동에 헌신했기에 그 공을 인정받아 1982년 국제 DELDUCA 상을 받기도 했다. 1987년에는 스웨덴 한림원과 작가협회의 추천으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는데 당시 튀르키예 작가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로 선정된 것이어서 튀르키예 문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했다.

튀르키예 근현대 문학을 주도한 국민작가 ‘야사르 케말’의 대표적인 소설은 다음과 같다. 『의적 메메드(Ince Memed I, 1955)』, 『양철통(Teneke, 1955)』, 『중산층(Ortadirek, 1960)』, 『땅은 쇠 하늘은 구리(Yer Demir Gök Bakır, 1963)』, 『불노초(Ölmezotu, 1968)』, 『의적 메메드II(Ince Memed II, 1969)』, 『아라라트 산의 신화(Ağrı Dağı Efsanesi, 1970)』, 『바람 부족의 연대기(Binboğalar Efsanesi, 1971)』, 『비에 젖은 새(Yağmurcuk kuşu, 1980)』, 『씩은 나무(Ağacın Çürüğü, 1980)』, 『의적 메메드III(Ince Memed III, 1984)』 『의적 메메드IV(Ince Memed IV, 1987)』.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케말 사딕 괴의젤리
- 다국어 표기 Kemal Sadık Göçcel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tr/d/df/Ya%C5%9Far_kemal.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Çiftlikçi Ramazan, Yaşar Kemal: *Yazar-Eser-Üslup*, Ankara: T.C.Bakanlığı, 1997.
Kocatürk Vasfi Mahir, *Büyük Türk Edebiyatı Tarihi*, İstanbul: İstanbul Kültür Üniversitesi Yayinevi, 2016.

I E236 | 야시 조약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몰다비아,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조약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Treaty of Jassy

야시 조약은 몰다비아의 수도 야시에서 1792년 1월 9일 체결된 휴전조약으로, 이 조약이 체결되면서 1787년부터 1792년까지 이어진 러시아-오스만 전쟁이 비로소 종료되었다.

애초에 전쟁이 발발한 계기는 1783년 크림리아를 러시아가 병합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부터였다. 이후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의 동맹 자격으로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은 러시아 전선에서 오스만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오스만군은 자신들이 러시아군에 비해 훈련 및 장교의 지휘 능력에 이르기까지 확연히 뒤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협상 과정에서 내내 러시아가 우위를 차지했다.

야시 조약을 통해 오스만 제국은 1774년 ‘귀척 카이나르자 조약’의 내용을 모두 승인했으며, 카프카스 지역의 조지아를 러시아의 보호령으로 인정했다. 반면 러시아군은 영국과 프로이센의 압력에 의해 왈라키아와 몰다비아에서 철수했고, 다뉴브강 삼각주의 요충지인 이스마일과 흑해 동안의 아나파를 양도했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이 외지(오차코프)를 차지하고 흑해 서안에 있던 러시아-오스만 국경이 부크강(江)에서 드네스트르강(江)으로 서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러시아는 몰다비아와 접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쿠반강(江)이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의 경계가 되었다. 이 조약을 통해 양측은 자발적으로 귀순하거나 개종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포로의 교환, 몰다비아와 왈라키아의 호스포다르들에게 정치적 및 재정적 특권을 주는 형태의 자치 강화, 러시아 상선을 북아프리카의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로 약속 등에 합의했다.

야시 조약은 장기적으로 러시아군에 대한 오스만군의 약체성을 부각시켜 ‘술탄 셀림 3세’ 치하(1789년~1807년)에서 군사 부문과 그에 관련된 산업을 서양식으로 개혁하려는 시도가 종합적이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러시아가 흑해 북쪽 부근에 입지를 공고히 다지게 되면서 러시아 해군이 흑해 지역에서 증강되었고 이는 오스만 치하의 발칸반도에 대한 많은 간섭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때까지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의 갈등을 방관하고 있던 영국에서 러시아의 발칸에의 개입에 대한 견제를 위해 오스만 제국을 지지하는 외교 노선이 대두한 것도 이 당

시의 변화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야시 조약
- 다국어 표기 Yaş Antlaşması(튀르키예어), Ясс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러시아어), Yassi tinchlik shartnomasi(우즈베크어), Яссы Бітім Шарты(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귀척 카이나르자 조약, 러시아-오스만 전쟁, 셸림 3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Andrew Robarts, “Jassy, Treaty of”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298.
Kemal Beydili, “Yaş Antlaşması” *TDV İslam Ansiklopedisi* Vol. 43, TDV, 2013, pp.343~347.

I E237 | 야쿠티야(사하공화국)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국가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Yakutiya(Republic of Sakha)

사하공화국은 러시아연방 안에 있는 투르크계 자치공화국으로 통칭 야쿠티야(Якутия, Yakutia)라고 불린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야)의 면적은 러시아연방 면적의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 육지 면적의 1/36 즉, 지구 면적의 약 3%에 해당한다. 러시아 극동지방의 중서부와 북서부에 걸쳐 위치하며, 모스크바(Москва, Moscow)에서 동쪽으로 약 5,000km 떨어져 있다. 이곳은 극동 연방 관구(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의 극동 경제지구(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айон)에 속하는 지역이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야)의 원주민은 투르크계인 야쿠트족(Якуты, Yakuts)이다. 이들은 본래 바이칼호(湖) 서부에 거주했으나, 13세기경부터 몽골의 침공을 피해 동북부로 이동하여 지금의 사하공화국에 해당하는 레나강(江) 유역에 정착했다. 17세기 초 카자크 탐험대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 러시아 제국의 북동 전초기지 확보를 위한 개척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에 따라 1632년 레나강 유역에도 야쿠티야 요새가 건설되었다. 이후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었다.



시베리아 별판에 있는 사하공화국(야쿠트) 땅 기념비

1638년 야쿠티야 군(郡)이 신설되었고, 1784년 야쿠티야 주(州)로 전환되었다. 1922년 4월 야쿠티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Якут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Советск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이 수립되면서 이 무렵부터 금을 비롯한 자원 채굴이 시작되었다. 1930년 북해 항로 개척사업의 일환으로 항구가 건설되면서 지역 경제가 발전했다. 특히 1950년대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과 금 광산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서 남(南)야쿠티야 탄전(Южно-Якутский Угольный бассейн)의 개발은 경제 부흥을 가져왔다.

1990년에 야쿠티야-사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Якутская-Саха Советск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으로 개칭되었고,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인 1992년, 신 연방 조약에 따라 러시아 연방의 독립된 연방 주체로서 현재의 사하공화국(야쿠티야)이 성립되



사하공화국(야쿠티아)의 어느 마을 풍경

었다. 2019년 기준, 사하공화국의 주민은 야쿠트인(49.9%)과 러시아인(37.8%)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에벤키인(2.2%), 우크라이나인(2.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야쿠티야, 야쿠티아, 사하공화국
- 다국어 표기 Якутия(러시아어), Саха(야쿠트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퍼내기, 1997.
강덕수, 『야쿠티아. 맘모스와 다이아몬드와 착한 사람들의 나라』, HUFs Books, 2011.

I E238 | 야쿠트어/사하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Saha Turkish/Yakut Turkish

야쿠트어/사하어(이하 야쿠트어)는 동부와 북동부 시베리아 러시아 연방 내의 사하공화국에서 사용되는 투르크어이다. 하지만 몽골어와 통구스 언어의 영향으로 인해 투르크어 계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야쿠트어에 관한 투르크 학자들의 의견 또한 분분하다. ‘레쉬드 라흐메티 아라트’는 야쿠트어가 초기 공통 투르크어에서 추바시어와 함께 분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타흐썬 반구올루’는 서부 훈 방언은 오늘날의 추바시어, 오늘날의 야쿠트어는 동부 훈 방언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니콜라스 포페’는 야쿠트어가 투르크어의 북방 계열의 언어로서 14세기 즈음에 현대 투바어를 기반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벤징’(Benzing)은 북시베리아 투르크 그룹의 돌간어를 야쿠트어에 포함했으며 ‘멘게스’는 투르크어 분류체계에서 야쿠트어를 북동쪽 혹은 동시베리아 또는 야쿠트 그룹으로 간주하고, 그 그룹 안에 돌간어, 사모예드 방언도 포함시켰다. ‘람스테드’와 ‘리게티’는 야쿠트어를 추바시어와 같은 별도의 투르크계어로 취급했으며, ‘포페’와 ‘레쉬드 라흐메티 아라트’는 투르크계어 중 가장 확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언어로 야쿠트어로 꼽기도 했다. ‘포페’에 따르면 야쿠트어는 다른 투르크계 언어처럼 /z/과 /s/의 언어로서, 야쿠트어, 추바시어 및 몽골어는 기타 알타이제어에서 나타나는 /r/과 /l/의 발음이 /z/와 /s/로 대응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야쿠트어는 19세기 초까지 문어와 알파벳이 없었다. 그 대신 러시아의 알파벳인 키릴 문자가 공식 및 종교 출판물 간행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공식 알파벳은 노브고로도브(S. A. Novgorodov)가 러시아어 키릴 문자를 기반으로 작성했으며 1923년에 발효되었다. 이 알파벳은 대문자와 문장부호를 추가하여 1924년에 수정되었지만 1929년 또 다시 라틴 알파벳을 기반으로 한 알파벳으로 대체되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야쿠트어 표기 문자는 1939년 도입된 키릴문자를 기반으로 한 야쿠트어 문자로서 Ы, Ҥ, Өө, hh, YY가 추가된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하튀르키예어, 야쿠트 튀르키예어, 야콧어
- 다국어 표기 Yakut/Saha Turkish(영어), Саха тыла(야쿠트어), Якутский язык(러시아어), Yakutç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 추바시어, 레쉬드 라흐메티 아라트, 타흐썬 반구올루, 니콜라스 포페, 투바, 알타이제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강정원, 「사하인의 민족정체성과 러시아 민족정책」, 『비교문화연구』 제10집 1호, 2004, pp.5~32.
Dilaçar, A. *Türk diline genel bir bakış*. Türk Tarih Kurumu Basımevi, 1964.
Kirişcioğlu, M. F. *Saha (Yakut) Türkçesi Grameri* (Vol. 594). Atatürk Kültür, Dil ve Tarih Yüksek Kurumu, 1994.

I E239 | 야쿠트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Yakuts

야쿠트인은 러시아 북부 시베리아의 야쿠티야 지역의 원주민인 투르크계 민족이다. 이들은 투르크 어족에 속하는 야쿠트어를 사용한다. 2010년 러시아 인구조사에 따르면 448,000명 가량의 야쿠트인이 현재 살고 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이 야쿠티야에 살고 있으나 일부는 이르쿠츠크 주(州), 마가단주(州), 하바롭스크 변경,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에도 거주하고 있다. 야쿠트인은 사하 공화국(야쿠티야)에서 가장 많은 과반수(49.9%)를 차지하는 민족이며 전체 시베리아 거주 민족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인종적으로는 북아시아 인종에 속하며 다른 시베리아 투르크계 민족과 비교해서 몽골계의 특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야쿠트인들은 스스로를 사하(saxa)라고 부르는데, 복수로는 사할라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우란하이(уранхай, ураанхай, ураангхай)라고 스스로를 불렀는데, 오늘날 이 단어는 노래나 연설체, 또는 올론호(олонхо)에서만 사용한다. 야쿠트인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은 이들의 뿌리가 14세기까지 바이칼 동쪽지대에 살던 흉노족의 후손인 유목민족 쿠리칸(курыканы)에 있다는 것이다. 이후 몽골 제국이 발흥하던 시기인 12세기~14세기에 야쿠트인이 지금의 야쿠티야 지역으로 대이주를 했고, 여기서 목축, 어업, 사냥, 상업, 용병업 등에 종사했다고 전해진다.

야쿠트의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선조는 가축을 뗏목에 태워 레나 강을 따라 투이마아다(Туймаада) 계곡으로 왔는데 이곳이 오늘날의 야쿠티야 지역이라고 한다.

러시아에 편입되기 전 그들의 주요 종교는 탱그리즘이었다. 야쿠트인들 스스로 자신들을 탱그리의 자손이라 여겼다. 그래서 예로부터 야쿠트인들은 매년 탱그리 신을 찬양하는 날인 이시아흐를 기념하는데, 여름 해가 가장 긴 하지(6월 21일)에 열리는 이시아흐에서는 태양을 맞이하는 행사를 치렀다. 현대에 등장한 야쿠트인의 새로운 종교 ‘아이이’ 역시 탱그리즘을 계승하면서 탱그리의 의례와 전통 대부분을 계승하고 있는데 2012년 러시아 정부에 의해 정식 종교로 인정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야쿠티, 사할라르
- 다국어 표기 Якуты(러시아), Сахалар(야쿠트어), Yakuts(영어), Yakutl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야쿠티야(사하 공화국), 사하 공화국(야쿠티야), 이시아오
- 참고문헌(온라인) <https://russia.rin.ru/guides/4702.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Ⅰ E240 | 야쿠프 카드리 카라오스만오을루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YAKUP KADRI KARAOSMANOĞLU

‘야쿠프 카드리’(Yakup Kadri)는 튀르키예의 공화국 시기 소설가이다. 1889년 이집트 카이로의 한 궁전에서 태어나 이집트 파샤 궁전에서 생활했고 6살 때까지 보모들 손에서 왕자처럼 자랐다. 아버지는 ‘압될카디르’, 어머니는 ‘이크발’이었는데 아버지 ‘압될카디르’가 뼈대 있는 카라오스만 오을루 가문의 후손이었기에 풍족한 귀족 가문에서 습득한 생활방식과 귀족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세가 기울면서 부모님의 고향인 튀르키예 마니사로 이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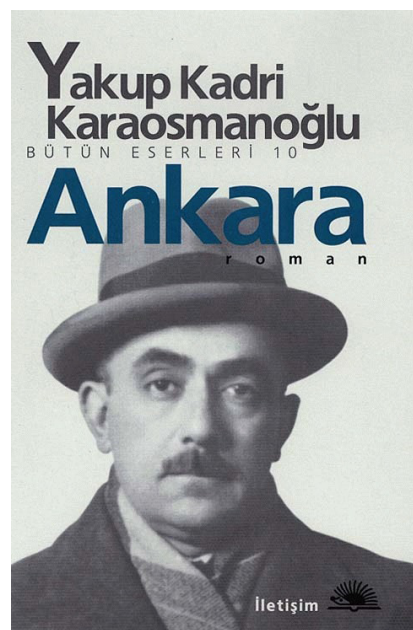
1895년 마니사에 온 야쿠프 카드리는 1901년~1903년에는 차이바쉬 페프지에 학교(Çaybaşı Fevziye Mektebi)를 다녔고, 1903년~1905년 이즈미르 고등학교(İzmir İdadisi)에서 잠시 공부했으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이집트로 향했다.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프랑스 학교(Fransız Frerler Mektebi)와 스위스 고등학교(İsviçre Lisesi)에서 중등교육을 마쳤다.

이집트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뇌샤텔 헨리 라몬’(Neuchatelli Henri Lamon)에게 작문 수업을 받으면서 도데(Daudet), 졸라(Zola), 공쿠르 형제(Goncourt)를 접하게 되었고, 모파상(Guy de Maupassant)과 입센(Ibsen)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청년 투르크 당원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미라라이 이스마일 하크(Miralay İsmail

Hakkı Bey), 미트하트 파샤의 손자 케말 미트하트(Kemal Mithat Bey), 알리 케말(Ali Kemal), 아흐메트 사이프(Ahmet Saip), 압둘라 제브데트(Abdullah Cevdet), 이스마일 가스프랄리(İsmail Gaspiralı), 사미 파샤자데 세자이(Sami Paşazade Sezai) 등을 만나게 되었다.

청년 투르크당과의 교류 이후 카드리의 정치사상은 정부를 반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정치인 ‘쉐라팻딘 마무미’(Şerafettin Mağmumi)가 카이로에서 발행하는 잡지 <튀르크(Türk)>에 프랑스로 번역한 카드리의 작품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집트 왕자 ‘메흐메트 알리(Mehmet Ali) 파샤’가 세상을 떠나자 1908년 어머니, 누나와 함께 이스탄불로 돌아온 아쿱 카드리는 법대에 입학했고, 3년 동안 학교에 다녔지만 졸업하지 않고 그만두었다.

이후 그는 파리에서 귀국한 야흐야 케말과 함께 문학에도 네브 그리스주의(Nev Yunanlılık) 도입을 시도했다. 네브 그리스주의는 하브자문학(Havza Edebiyatı)이라고도 불리는데, 특히 1912년 이후 서양식으로 사회를 만들어보려는 지식인들의 움직임으로 등장한 사상이다. 고대 그리스와 라틴 고전을 사례로 삼아 작품을 창작하려는 시도이다. 야흐야 케말과 야쿠프 카드리 카라오스만오울루가 튀르키예 문단에서는 네브 그리스주의를 선도하는 작가 그룹이었다. 그러



『양카라 (Ankara)』표지
Source: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

나 대중들의 주목을 끌거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외에도 동양 신화에도 흥미가 있던 그는 이스탄불 참르자에 있는 크스르 벡타쉬 테케(Kısıklı Bektaşî tekkesi)에 꾸준히 방문했는데 그때 자신이 살펴본 것을 참고하여 소설 『누르 바바(Nur Baba)』를 썼다. 하지만 출간했을 때 마주하게 될 대중의 반응에 미리 겁을 먹었던 데다 스위스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책으로 출간하지는 않았다.

그 후 1921년이 되어서야 그는 앙카라 정부의 부름에 따라 아나톨리아로 돌아왔다. 전쟁이 끝난 뒤 잔학행위 조사위원회(Tedkik-i Mezâlim Heyeti) 임무를 맡아 쿠타히야(Kütahya)의 시마브(Simav)와 게디즈(Gediz), 에스키셰히르(Eskişehir), 사카리아(Sakarya) 지역을 답사했다. 이후 야쿠프 카드리는 1923년~1931년에는 마르딘에서, 1931년~1934년에는 마니사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국회의원 재임 시절 신문 <하키미예티 밀리에(Hâkimiyet-i Milliye)>, <쥘후리에트(Cumhuriyet)>, <밀리예트(Milliyet)>와 잡지 <카드로(Kadro)>에 문학과 정치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야쿠프 카드리’는 제각각 다른 캐릭터 설정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산문시 형태로 수필을 썼다. 그의 작품을 통해 그가 수필의 지혜, 성경 이야기, 이우누스 엠레, 푸줄리, 카라자오울란과 같은 튀르키예 고전 시인뿐만 아니라 헨리크 입센(노르웨이), 모리스 마테를링크(벨기에), 프루스트(프랑스), 니체(독일), 베르손(프랑스)과 같은 서양의 작가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소설, 단편소설, 연극, 회고록, 논문 등 거의 모든 장르를 다룬 야쿠프 카드리 카라오스만오을루의 주요 작품은 다음과 같다.

그의 대표 소설은 『임대 저택(Kiralık Konak, 1922)』, 『누르 바바(Nur Baba, 1922)』, 『심판의 밤(Hüküm Gecesi, 1927)』, 『소돔과 고모라(Sodom ve Gomore, 1928)』, 『야생(Yaban, 1932)』, 『앙카라(Ankara, 1934)』, 『도주(Bir Sürgün, 1937)』, 『파나로마 2권(Panaroma 1-2, 1953)』, 『항상 그 노래(Hep O Şarkı, 1956)』 등이며, 단편소설집은 『모험(Bir Serencam, 1914)』, 『은총(Rahmet, 1923)』, 『독립 전쟁 이야기(Milli Savaş Hikâyeleri, 1947)』 등이다. 산문 시는 『에렌의 포도밭에서(Erenlerin Bağından, 1938)』, 『화살의 끝에서(Okun Ucundan, 1940)』가 대표작이다. 희곡으로는 「해탈(Nirvana, 1909)」, 「작별(Veda, 1909)」, 「소나기(Sağanak, 1929)」, 「동굴(Mağara, 1934)」 등이고, 회고록에는 『어쩔 수 없이 외교관(Zoraki Diplomat, 1955)』, 『어머니의 책(Anamın Kitabı, 1957)』, 『조국으로 가는 길(Vatan Yolunda, 1958)』, 『정치계

에서 45년(Politikada 45 Yıl, 1968)』, 『젊음과 문학의 기억(Gençlik ve Edebiyat Hatıraları, 1969)』 등이 있다. 이밖에도 단행본 『아흐메트 하심(Ahmet Haşim, 1934)』과 『아타튀르크 (Atatürk, 1946)』 등이 있다.

야쿠프 카드리의 소설은 프랑스 리얼리즘과 자연주의적 경향을 따랐다. 그는 당시 쇠퇴한 사회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고 현실에 실망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특히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 주인공의 삶은 비관적이고, 불만족스럽고, 정신세계가 이상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듯 그려지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74년 12월 13일 앙카라에서 눈을 감은 야쿠프 카드리는 이스탄불 베척타쉬에 위치한 야흐야 에펜디 묘지에 안장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야쿵 카드리 카라오스만오울루
- **다국어 표기** YAKUP KADRI KARAOSMANOĞLU(영어), YAKUP KADRİ KARAOSMANOĞLU(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청년 투르크당, 이스마일 가스프랄르, 앙카라,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S/compressed.photo.goodreads.com/books/1449246949i/11935876.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kı Niyazi. *Yakup Kadri Karaosmanoğlu* (İnsan- Fikir- Eser- Üslup), İstanbul, 1960.
Akman Eyüp, “Yakup Kadri Karaosmanoğlu Üzerine Bazı Düşünceler ve Unutulan Bir Makalesi: Kastamonu”, *Sosyalbilimler Dergisi*, Cilt: 3, Sayı:2, Temmuz 2013.
Akyüz Kenan, *Modern Türk Edebiyatının Ana Çizgileri (1860-1923)*, İnkılâp Kitabevi Yayınları, İstanbul, 1995.
Ayda Adile, *Böyle İdiler Yaşarken*, Ayıldız Matbaası, Ankara, 1984.
Enginün İnci, *Cumhuriyet Dönemi Türk Edebiyatı*, Dergâh Yayınları, İstanbul, 2005.
Aytaç Gürsel. *Çağdaş Türk Romanları Üzerine İncelemeler*, 2. Basım, Gündoğan Yayınları, Ankara, 1999.
Karaosmanoğlu Yakup Kadri, Bir Kısır ve Bir Hisse, *Kadro*, 14, Şubat 1993.
Karaosmanoğlu Yakup Kadri, İnkılâp Edebiyatı, *Kadro*, 25, Ocak 1934.
Karaosmanoğlu Yakup Kadri, *Bir Serencam*, Remzi Kitabevi, İstanbul, 1943.
Karaosmanoğlu Yakup Kadri, *Ergenekon*, Remzi Kitabevi, İstanbul 1964.
Karaosmanoğlu Yakup Kadri, *Anamın Kitabı*, Varlık Yayınları, İstanbul 1965.

I E241 | 야쿱 베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위구르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Yakup Beg



야쿱 베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야쿱 베그’(Яъқуб-бек, 1820년~1877년)는 코칸드 칸국 출신의 타지크인 군인, 탐험가로, 후일 카슈가르 공국의 아미르(Amir)가 되었다. 그는 청나라 말기인 1860년대~1870년대에 걸쳐, 동투르크িস탄(현재의 신장)을 중심으로 현지 무슬림들의 반란을 주도했다. 무슬림 봉기의 결과 야쿱 베그에 의해 동투르크িস탄은 통일되었지만, 결국 좌종당이 이끄는 청군에 패배하고 그까지 전사하면서 반란이 진압되었다.

1864년 동투르크িস탄 각지의 무슬림이 청나라 지배에 대한 반란(동간혁명)을 일으키자, 코칸드 칸국의 군인이었던 야쿱 베그는 이듬해 병사를 이끌고 타림 분지에 들어가 카슈가르, 옹기사르 등에 주둔하는 청군 주둔병을 제압했다. 1866년에는 아르칸드, 호탄을 점령하고 타림

분지 서쪽을 장악했으며 1870년에는 동부의 투르판, 심지어는 톈산산맥을 넘어 우루무치도 공략했다. 이듬해에는 일리 지방을 점령하고 청나라 세력을 동투르크িস탄 주요부에서 축출했다.

당시 대영제국과 러시아 제국은 중앙아시아의 지배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야쿱 베그는 영국령 인도에서 대량의 무기를 원조받았고, 1874년에는 영국과 조약을 맺었다. 조약 체결 이후 영국은 카슈가르에 영사를 상주시켰으며 이 조약에서 야쿱 베그를 두고 카슈가르와 아르칸드의 아미르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어로는 야쿱 베그의 왕국을 카슈가르 왕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는 또한 서투르크িস탄의 부하라 칸국과 오스만 제국과도 통교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은 야쿱 베그의 정권에게 오스만 제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신 무기의

원조와 군사고문의 파견하는 협상을 통해 오스만 제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아미르로 공인받는 등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야쿱 베그도 이슬람의 가치를 중시, 강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지지를 얻고자 동투르키스탄에서 모스크와 성자 묘에 대한 보호와 기부에 활발히 참여했다.

야쿱 베그가 건설했던 카쉬가르 공국은 당시 소위 '그레이트 게임'을 전개했던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완충국으로 역할을 했지만 좌종당이 이끄는 청군에 의한 패배와 그의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반란은 완전히 진압되고 말았다. 그의 사인은 불분명하지만 음독자살했다고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야쿱 벅, 야쿱 베크, 야쿱베크

● 다국어 표기 Яъқуб-бек(우즈베크어) 阿古柏(중국어), Yakup Beg(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코칸드 칸국, 호탄, 투르판, 텐산산맥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RebV7AZjdY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d/Veselovski-1898-Yakub-Bek.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Kim Hodong, *Holy War in China: The Muslim Rebellion and State in Chinese Central Asia, 1864-187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Yakub Beg". *Encyclopædia Britannica*. Retrieved 15 November 2019.

Kadeer Rebiya, Cavellus Alexandra, *Dragon Fighter: One Woman's Epic Struggle for Peace with China*, Kales Press, 2009.

I E242 | 야흐발라하 3세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기독교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Yahballaha III

'야흐발라하 3세'(Yahballaha III, 재위: 1281년~1317년)의 본명은 마르코스(Markos)이며 야흐발라하는 온구드(Ongud) 부족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러 기록에서 '동방 투르크', '위구르', '카타이 지방의 투르크' 등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 정확한 출신은 알기 어렵다.

그는 어린 나이에 네스토리우스 교파의 사제인 '라반 바르 사우마'(Rabban Bar Sauma,

1220년~1294년)의 제자가 되었고, 북경 서부의 수도원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1275년 스승인 ‘라반 바르 사우마’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야브랄라하 3세도 동행하게 되는데 그들은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을 통과했으나 정작 예루살렘에는 몽골과 맘루크의 전쟁으로 도착하지 못했다. 당시 총대주교 덴하 1세(Denha I. 재위: 1265년~1281년)는 그를 타카이와 온 그의 주교로 지명하며 ‘마르 야흐발라하라’는 이름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야흐발라하는 귀향하지 않고 약 2년간 모술 근처의 수도원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총대주교가 사망하게 되고 네스토리우스 교파 주교들은 일 칸국의 승인을 받아 야흐발라하를 그 후계로 선출했기에 1281년 11월 21일 코흐케의 교회에서 ‘야흐발라하 3세’로 봉헌되었다.

하지만 때마침 일 칸국에서 새로 제위에 오른 ‘테쿠데르’(Tekuder. 재위: 1282년~1284년)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몽골의 기독교와 불교도를 비난했고 야흐발라하 3세 역시 투옥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에 테쿠데르의 어머니인 ‘쿠투이 하툼’(Qutui Khatun)이 그를 구해 주었다.

이후 테쿠데르가 제위에서 내려오면서 새로 ‘아르군 칸’(Arghun Khan, 재위: 1284년~1291년)이 제위에 올랐는데 아르군 칸은 이집트 및 시리아에 대항하여 유럽과 동맹을 맺게 된다. 이때 대사로 그의 스승인 ‘라반 바르 사우마’가 유럽으로 건너가 여러 유럽 국가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당시 교황이었던 ‘니콜라스 4세’(Pope Nicholas IV, 재위: 1288년~1292년)은 야흐발라하 3세에게 ‘동방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장’으로 인정하는 칙서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 칸국 내에서 점차 이슬람 세력이 확대되면서 기독교는 다시 박해받게 되었고 야흐발라하 3세 역시 다시 투옥되었다. 이번에는 아르메니아의 왕 ‘헤툼 2세’(Hethum II, 재위: 1289년~1293년, 1295년~1296년, 1299년~1303년)가 나서서 야흐발라하 3세를 구했다. 그 후 야흐발라하 3세는 ‘마라게’에 머물렀고 ‘헤툼 2세’는 ‘가잔 칸’(Ghazan Khan, 재위: 1295년~1304년)에게 박해를 그만둘 것을 설득했다. 이에 가잔 칸은 1303년 수도원을 방문한 이후 그 곳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1302년 야하발라하 3세는 로마 가톨릭과 연합을 위해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고 교황을 받아들이려고 시도했으나, 정작 네스토리우스 주교들의 반발로 연합은 무산되었다. 더구나 1304년 가잔 칸을 이은 올제이투(Öljaitü, 재위: 1304년~1316년)까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다

시 시작하면서 1306년 그 역시 박해의 피해자가 된다. 그리고 1310년 기독교 학살 사건이 일어나자 크게 낙담한 그는 마라게 수도원을 떠났고, 1317년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야발라하 3세

● 다국어 표기 III.Yahballaha(튀르키예어), III.Yabalaxa(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Vine, Aubrey R., *The Nestorian Churches: a Concise History of Nestorian Christianity in Asia from the Persian Schism to the Modern Assyrians*, Independent Press, 1937.

Borbone, Pier Giorgio. "A 13th-Century Journey from China to Europe: the Story of MarYahballaha and Rabban Sauma", *Egitto e Vicino Oriente*. 31, 2008, pp.221-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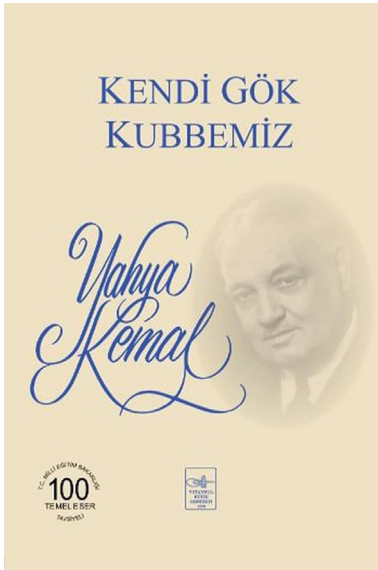
I E243 | 야흐야 케말 베야틀르

● 시기 A.D. 1800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YAHYA KEMAL BEYATLI

‘야흐야 케말’(Yahya Kemal)은 튀르키예 문학사에서 중요한 근대 시인이다. 그는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 영토였지만 지금은 마케도니아 국경 지역에 있는 위스퀴프(Üsküp)에서 1884년 12월 2일 귀족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명은 ‘아흐메트 아가흐’(Ahmet Agah)이다. 야흐야 케말은 어린 시절을 발칸반도 드넓은 초원지대인 라콥차(Rakofça)에서 보냈다. 겨우 5살이 되었을 때 위스퀴프에 있는 근대식 학교(Yeni Mektep)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며 ‘셀라니리 갈립’(Selanikli Galip)이라는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사에게 4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

야흐야가 창작한 첫 번째 시는 17살 무렵이었던 1901년 신문 <말루마트(Malumat; 정보)>와 <이르티카(İrtika; 부패)>에 실렸다. 그는 이 시 한편으로 단번에 문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가족은 야흐야 케말을 1902년에 유학보냈다.

그가 활동한 20세기 초는 사상가의 활동이 활발했던 시대다. 오스만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민족주의 이념이 제국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다. 야흐야 케말은 이스탄불에 머물면서 유



야흐야 케말 베야틀르의 『우리의 하늘 돛(Kendi Gök Kubbemiz)』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럽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후 ‘청년투르크(Genç Türklük)’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 그는 가족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파리로 떠난다. 파리에서 당대를 상징했던 중요한 시인 중 한 명인 ‘압둘라 제브데트’(Abdullah Cevdet)의 도움으로 1903년~1904년 모 콜레지(Meaux Koleji) 기숙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그곳에 일년 동안 머물면서 프랑스어를 배웠다.

1904년부터는 파지 정치대학(Institut d'études politiques de Paris)에 등록해 국제정치 강의를 들었다. 여기서 저명한 역사학자 ‘알베르트 소랄’(Albert Soral)의 수업을 들으면서 역사에 매료된다. 야흐야 케말은 이 경험을 토대로 역사를 소재로 자신의 시 세계를 구축하기로 마음 먹었다. 여기서 했던 활동들과 프랑스 혁명의 이념에 대한 이해로 그는 조국의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1919년에 시작된 독립 전쟁(Kurtuluş Savaşı)에 찬성을 한 것도 이러한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1908년 메쉬루티예트 혁명 이후 이스탄불로 돌아온 야흐야 케말은 <예니 메즈무아(Yeni Mecmua)>라는 잡지를 만들고 시를 실었다. 1912년에는 다류쉬사파카 고등학교(Darüşşafaka Lisesi)에서 역사와 문학 교사로 재직했는데 특히 문명사와 이슬람 문명 수업을 통해 여러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야흐야 케말의 문학관이 역사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독립전쟁 기간에 양카라 정부를 지지했던 야흐야 케말은 튀르키예 공화국이 출범하자 의회에서 일했다. 그리고 바르샤바, 리스본, 마드리드에서 대사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지리와 문학 사이의 관계를 엮는 재능이 뛰어난 예술가 중 한 명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 스페인에서 근무할 때는 음악, 사랑, 꽃을 주제로 한 시(詩)를 선보이기도 했다.

1947년에 파키스탄이 독립하자 야흐야 케말은 튀르키예 공화국 초대 대사로 파견됐다. 1948년에 은퇴한 이후에는 친구들과 문학으로 담소를 나누며 지냈다. 그는 훌륭한 시인이었고, 사상가였고, 정치가였다. 의회에서도 어떤 질문이든 답변에 막힘이 없었다. 그의 발언에는 깊

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사랑, 연인, 여성에 대한 시를 썼지만, 정작 결혼은 하지 않았다.

오스만 제국의 시 전통을 잘 알고 있던 야흐야 케말은 누구보다 역사에 대한 통찰력과 미학적 가치가 결합된 새로운 시를 창작했다. 그는 디반문학의 형식적이고 인위적인 것을 넘어서는 불멸의 그 무엇, 유행을 타지 않는 명작을 남기고자 했다. 그는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예술은 온전히 예술 그 자체여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스탄불은 야흐야 케말에게 각별한 곳이었다. 그는 이스탄불의 각 동네마다 다른 다양한 아름다움을 시로 옮겼다. 그 시들은 동료들과 후세대 시인에게 영향을 주었다. 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사상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는 1958년 11월 1일 눈을 감았고, 그가 사랑했던 이스탄불에 안장되었다.

● 다국어 표기 YAHYA KEMAL BEYATLI(영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m.media-amazon.com/images/I/61KRvNZY3BL_SL1500_.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eyatlı Yahya Kemal, *Çocukluğum, Gençliğim, Edebi ve Siyasi Hatıralarım*, (3.baskı), Fetih Cemiyeti Yayınları, İstanbul, 1986.

Çağlar Behçet Kemal, 'Yahya Kemal'in 4 Büyük Hizmeti', *Yirminci Asır*, 12.12.1957.

Süreya Cemal, *Folklor Şiire Düşman*, Can Yayınları, İstanbul, 1982.

Yücebaş Hilmi, *Bütün Cepheleriyle Yahya Kemal*, (5. Baskı), İstanbul, 1979.

| E244 | 약탈혼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ride kidnapping

신부를 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 존재했고, 투르크 문화권에서도 존재했다. 투르크 문화권에서 행해지는 납치혼은 국가별, 지역별, 가정별 상황에 따라 다르나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남성이 여성을 납치하거나 사기를 쳐서 여성을 데려와 여성과 여성 측이 원하지 않음에도 혼인을 하는 경우이다.
2. 여성 역시 상대 남성과 결혼을 원하지만, 각 가정 사이에서 결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남성의 납치에 동의하거나 함께 도망치는 경우이다.
3. 여성이 스스로 남성의 집으로 찾아가 눌러앉는 형태이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을 원하지만, 양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또는 여성 측 가정이 결혼식과 지참금을 준비할 만큼 부유하지 못할 경우 등에 발생한다. 이 경우 대부분은 남성 측은 여성 측의 명예를 지켜주거나 여성 측 가정과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인정한다. 여성이 자의로 남성의 집에 오는 것이지만, 명예나 기타 이유로 남성 측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납치혼이라고 말한다.
4. 실제 여성이 아닌 여성의 머리쓰개(히잡)와 같은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머리쓰개와 같이 여성의 몸에 닿는 물건을 훔치는 것은 여성을 훔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납치혼의 전후 처리 과정은 상황과 문화권 및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두 가문이 최종적으로 이 혼인을 용인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두 가문은 원수가 되어 큰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동일하다.

투르크 문화권에서 납치혼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과거 가부장제이자 유목을 하던 투르크 민족에게 용기와 힘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고, 신랑의 입장에서 약탈혼은 그 용기와 힘을 증명할 기회였다고 보기도 한다. 과거 투르크권에 전해 내려오는 일부 전설에서도 영웅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등에도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원치 않는 강제 결혼을 하게 된 여성의 입장에서는 큰 불행이었다.

또 다른 납치혼의 이유로는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일어나는 납치혼은 일반적으로 남성 측이 여성 측에 지불해야 할 신붓값과 연회비를 준비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경우, 이것을 생략하기 위하여 납치혼을 자행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신부 측 역시 신랑 측에 지참금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합의 하에 납치혼이나 여성 스스로가 남성의 집으로 가는 형식의 납치혼을 선택한다. 사회적인 이유로는 가정 내 불화로 인하여 집안의 어른이 나서야 하

는 정상적인 결혼이 어려울 경우 납치혼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는, 마을의 구성원들과 가문에 불화가 있어 정상적인 결혼이 불가할 경우 발생하기도 한다. 때로는 마을 구성원들이 흥미를 위하여 부추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대의 튀르크 국가에서 납치혼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화가 진행되지 못한 지역과 도시 내의 빈민층계에서는 여전히 납치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관습법에 따라 납치혼을 용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크즈 키츠르마

● 다국어 표기 Kız kaçırma(튀르키예어), Қыз алып қашу(카자흐어), qız qaçırma(아제르바이잔어), Kelin o'g'irlash(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신붓값

● 참고문헌(오프라인) Ömek, Sedat Veyis. *Türk halkbilimi*, Ankara : Kültür Bakanlığı, 2000.

Tezcan, Mahmut. “Türk Kültüründe Kız Kaçırma Geleneklerinin Antropolojik Çözümlemesi”, *Aile ve Toplum* Yıl: 5 Cilt: 2 Sayı: 6 Ekim-Aralık 2003.

| E245 | 야트스 нама즈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튀르크메니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형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Yatsı namazi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 예배(임사크(İmsak, 아랍어 파즈르 Fajr): 새벽예배(동 트기 전) 외올레(Öğle, 아랍어 주흐르 Zuhr): 정오예배 이킨디(İkinci, 아랍어 아스르 Asr): 오후예배 악시암(Akşam, 아랍어 마그립 Maghrib): 저녁예배 야트스(Yatsı, 아랍어 이샤 Isha): 밤 예배)를 행한다. 그중 ‘야트스 нама즈’는 5번째 예배로 밤 예배다.

튀르크 문화권에서 주로 따르는 하나피 법학파에 따르면 밤 예배는 하늘에 흰색 황혼이 사라졌을 때부터 동트기 전 사이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배 전에는 반드시 소정례(압데

스트)를 해야 하며 크게 오염된 경우에는 대 정례 후 소 정례를 해야 한다. 무슬림은 예배할 때 신을 향해 절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바로 서서 절을 하고 난 후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오는 일련의 동작을 ‘라크아’(rak‘a)라고 한다. 하루 예배를 하는 동안 하는 라크아는 모두 17번이다. 각 예배 당 규정을 따져보면 임사크: 2회, 윌레: 4회, 이킨디: 4회, 악시암: 3회, 야스: 4회로 나눠진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무슬림의 예배는 해의 움직임에 따라 매일 조금씩 예배 시작 시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밤 예배는 동트기 전 하는 새벽예배 전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 따른 해의 주기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밤 예배는 2021년 1월 1일의 경우 저녁 6시 53분에 시작하지만 이후로 계속 조금씩 늦어지다가 7월 1일 9시 44분을 기점으로 가장 늦어지고, 또 다시 이후부터 점점 빨라져 12월 10일에는 6시 42분이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야스 нама즈

● 다국어 표기 Salat al-Isha(아랍어 음사), Yatsı namazi(튀르키예어), Xufton namozi(우즈베크어), İsha namazi(아제르바이잔어), Қўптан намазы(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압테스트, 주마, нама즈, 윌레 нама즈, 이킨디 нама즈, 악시암 нама즈, 두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FucxwIHvAhk>

<https://www.youtube.com/watch?v=YPB11FKshW0>

● 참고문헌(오프라인) G. Monnot. “Ṣalāt.” In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 vol. 8, Leiden: Brill, 1995. pp. 925~934.

Ⅰ E246 | 어가히이 무함마드 리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Ogahiy

어가히이 무함마드 리저(Ogahiy Muhammad Rizo)는 우즈베크 작가이며, 역사학자이자 번역가다. 어가히이는 그의 필명이며, 무함마드 리저(Muhammad Rizo)가 그의 본명이다.

그는 1809년에 히바 근교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고전문학의 대가 나바이이(Navoiy), 푸줄리이(Fuzuliy), 베딜(Bedil) 등의 작품을 읽고, 그들의 작품을 모방하면서 습작했다. 어가히이는 히바 칸국 궁전에서 미러브(mirob: 관개 및 물 공급을 관리하는 감독)으로 일하던 삼촌이 사망하자 그의 직책을 물려받았지만,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자 그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고향 키여트(Qiyot)로 돌아가 작품 집필에 몰두한다.

그는 주로 우즈베크어와 타지크어로 작품을 썼는데, 주된 주제는 불의에 대한 항의, 위선에 대한 비난이다. 대표작으로는 『술탄국의 정원(Riyoz ud davla(Saltanat bog'lari))』, 『술탄국 사건 요약(Jomiy ul vakiati sultoniy(Sultonlik voqealarini jamlovchi))』 등이 있다. 또한 어가히이(Ogahiy)는 니자미이(Nizomiy), 아미르 후스라프 데흘라비이(Amir Husraf Dehlaviy), 사아디(Saadi), 저미이(Jomiy), 히롤리이(Hiloliy) 등 역사 및 고전(Saadi의 Guliston 포함) 예술 작품 20여편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어가히이는 1874년에 히바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가히이, 오가히

● 다국어 표기 Ogahiy (우즈베크어), Агахи (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알리셰르 나바이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o-zbek-ziyolilari/muhammadrizo-ogahiy-1809-1874>
<https://arboblar.uz/uz/people/mukhammad-riza-agak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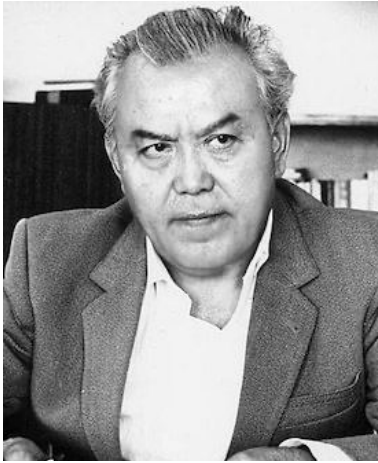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llaev Vohid, *Ozbek adabiyoti tarixi* (ikkinchi kitob), Toshkent: O'qituvchi, 1967.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Orzibekov Rahmonqul, *Ozbek adabiyoti tarixi XVII-XIX (I yarmi) asrlar o'quv qo'llanma*, Toshkent: O'zbekiston Yozuvchilar uyushmasi Adabiyot jamg'armasi nashriyoti, 2006.

I E247 | 어딜 요쿠버브

● 시기 A.D. 1800~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Odil Yoqubov



어딜 요쿠버브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작가 ‘어딜 요쿠버브’(Odil Yokubov)는 1926년에 카자흐스탄 심켄트(Shymkent) 투르키스탄(Turkistan) 인근 어타버이(Otaboy)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타슈켄트 국립대학교 어문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55년~1959년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근무를 시작으로 1959년~1963년과 1967년~1970년에 <문학신문(Literaturnaya gazeta)>, 1963년~1967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영화촬영위원회, 1970년~1982년에는 가푸르 굴롬(Gafur G'ulom) 문학예술 출판사, 1982년~1987년 <우즈베키스탄의 문학과 예술(O'zbekiston adabiyoti va san'ati)>신문사에서 근무했다. 이들 경력을 인정받아 1987년~1991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의 서기로 재직했다.

어딜 요쿠버브(Odil Yokubov)는 수필, 기사, 소설, 희곡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집필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희곡 『복잡한 선거(Murakkab saylov, 1956)』, 『마음이 타야 한다(Yurak kuymog'i kerak, 1957)』, 『사과나무꽃이 피었을 때(Olma gullaganda, 1960)』, 단편소설 『동갑내기(Tengdoshlar, 1951)』 등이 있다.

특히 그의 소설은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전쟁소설인 『남자에게 일이 생겼을 때(Er boshiga ish tushsa, 1965)』를 비롯해서, 1970년대 관료들의 위법행위와 위선, 자만 그리고 비리를 폭로한 소설 『양심(Diyonat, 1981)』을 썼다. 또한 부정부패와 관료주의가 뿌리내린 부조리한 1970년대와 1980년대 현실을 산 노동자를 순수하고 하얀 백조로 상징화한 소설 『하얀 백조, 새하얀 백조들(Oq qushlar, oppoq qushlar, 1986)』, 역사소설인 『울루그 베크의 보물상자(Ulug'bek xazinasini, 1973)』와 『고대 세계(Ko'hna dunyo, 1983)』 등도 그의 작

품이다. 그는 소설을 통해 사람과 세계, 양심과 의무, 사랑과 애정, 도덕과 윤리, 노동과 평화로운 삶을 다양한 주제들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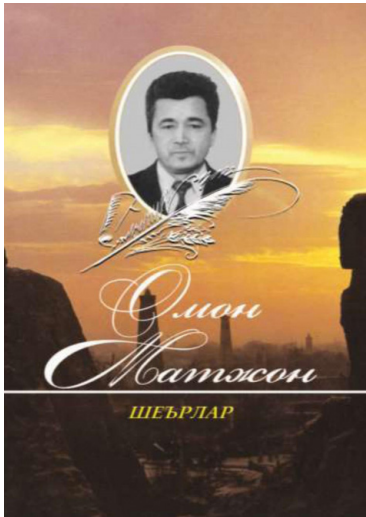
어딜 요쿠버브는 현대 우즈베크 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동적기(赤旗) 훈장(Mehnat Qizil Bayroq)’을 받았다. 또한 소설 『울루그베크의 보물상자(Ulug'bek xazinası)』로 우즈베키스탄의 함자(Xamza) 국가상을 수상했다. 그는 2009년 12월 21일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어딜 요쿠보브. 오딜 요쿠보브
- 다국어 표기 Odil Yoqubov (우즈베크어), Адыл Якубов (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울루그 베그, 타슈켄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en/6/61/Odil_Yoqubov.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nasri/odil-yoqubov-1926-2009>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zayev Saydulla, Said, Shermuhammedov, *Hozirgi zamon o'zbek adabiyoti tarixi*, Toshkent: O'zbekiston, 1993.
Normatov U., *Zamondoshlarimizning ma'naviy bisoti*, Toshkent: Yetuklik to'plamida, 1979.
Xudoyberganov Norboy, *Parvoz davom etadi, Odil Yoqubov ijodi sahifalari*. Toshkent: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80.
Sharafiddinov O., *Ijod dovonlari osha, Birinchi mo'jiza to'plamida*, Toshkent, 1979.

Ⅰ E248 Ⅰ 어떤 맛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Omon Matjon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시인 중 한 명인 ‘어떤 맛전’(Omon Matjon)은 1943년 2월 14일 호라즘(Xorazm)지역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사마르칸트 국립대학교 어문학과에 진학했으며, 소비에트 군대에서 복무했다. 이후 1969년~1980년에 ‘가푸르 굴림(G'afur G'ulom)



어떤 맛전 시집 표지
Source: <https://kitobxon.com/>

문학예술 출판사'에서 근무했다. 또한 잡지 <청년(Yoshlik)>의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실에서 관련 업무를 맡아 일한 적도 있다. 그리고 10여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후 1994년~1999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 언론위원회 부의장, 1999년~2001년에는 '출판(Cholpon) 출판사' 이사, 2001년에는 잡지 <굴한(Gulxan)>의 편집장을 지냈다.

그의 대표 시집은 『열린 창문들(Ochiq derazalar, 1970)』, 『카라반의 종(Karvon qo'ngirog'i, 1973)』, 『불타는 나무(Yonayotgan daraxt, 1977)』, 『상처 입은 번개(Yarador chaqmoq, 1979)』, 『해오라기의 비명(Haqqush qichqirig'i, 1979)』 등이다. 특히 『해오라기의 비명(Haqqush qichqirig'i, 1979)』은 호라즘의 전설을 독특한 기법으로 해석한 작품으로 소비에트 국

가의 독립 이전과 이후의 상반된 풍경과 그로 인한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헌정된 시집이다.

'어떤 맛전'의 서사시집 『말하는 시간(Gaplashadigan vaqtlar)』과 『호라즘(Xorazm)』에는 호라즘 출신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찬가가 담겨 있다. 그 밖에도 '나버이이'(Navoi)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천 한 개의 빛(Ming bir yog'du, 1982)』에서는 과거 불멸의 인물들의 삶과 현재의 문제들을 서사시적 특징을 능숙하게 살려 묘사했다. 그 밖에 의미 있는 작품으로는 「사막에서(Cho'ldagilar)」와 같은 연대기적 서사시와 소설 「말하는 시간(Gaplashadigan vaqtlar)」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에 시도된 새로운 형태의 어조와 표현방식은 독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작품들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고귀한 인간적 신념, 영성 및 가치에 대해 다루었고, 학살 전쟁과 억압을 비판했다.

'어떤 맛전'은 특히 우즈베크 시에 호라즘(Xorazm) 지방 방언의 특징인 어휘와 톤을 사용했고, 서정시와 서사시적 요소들을 결합해 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1983년에 출간된 『너를 사랑한다(Seni yaxshi ko'raman)』에서는 사랑을 주제로 한 그의 대표적인 시를 모았는데, 인간의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과 아름다움을 다채로운 은유와 매력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

그는 많은 외국 문학작품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특히, '프리드리히 실러'나 '샤를 보들레르'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했다. 이런 그의 업적을 인

정받아 ‘청년상(Yoshlar mukofoti)’과 ‘함자(Hamza)상’을 받았으며 1993년에는 국민 작가라는 칭호를 받았다.

어떤 맛전은 2020년 10월 29일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몬 맛존
- 다국어 표기 Omon Matjon (우즈베크어), Омон Матжон (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kitobxon.com/img_knigi/3858.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o-zbek-ziyolilari/omon-matjon-1943>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 Shokirova Rixsiya, *O'zbek adiblari*, Toshkent: Fan, 2007.

| E249 | 어순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언어현상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Word order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는 대표적인 문장 성분인 주어(S), 서술어(V), 목적어(O) 세 요소를 배열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순의 유형으로 나뉜다.

1. SVO
2. SOV
3. VSO
4. VOS
5. OVS
6. OSV

이렇게 배열한 문장 성분의 순서를 각각 해당 언어의 기본 어순이라 한다.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의 대 부분은 이 가운데 제1, 제2, 제3 유형에 속한다. 그 가운데서도 SVO 과 SOV에 전 세계의 75%의 언어가 포함된다.

알타이어군에 속하는 한국어, 일본어, 튀르키예어, 몽골어, 헝가리어 등은 제2유형인 SOV에 속한다. 이 언어들의 기본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이지만 문장성분들은 문장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언어를 자유 어순의 언어라고 한다. SOV 언어들은 주로 활용 어미와 조사에 의해 여러 문법 기능을 실현하기 때문에 비교적 어순이 자유롭다.

또 다른 SOV 언어의 가장 고정적인 문장 성분은 서술어다. 서술어의 위치가 문장의 맨 끝 위치로 기본적인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서술어가 문장 끝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독립어를 포함한 나머지 문장 성분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주어는 문장의 가장 앞에 위치하며, 목적어는 서술어인 타동사 앞에 위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다. 그리고 독립어는 문장 가장 앞이나 가장 뒤에 위치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워드 오더
- 다국어 표기 語順(한자어), Word order(영어)
- 연관 검색어 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권재일, 「알면 쉬워지는 우리말 어순」, 『새국어생활』, 16(1), 2006, 193-202.

Ⅰ E250 | 어썩 가립과 셔흐사남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라칼팍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Oshiq G'arib va Shohsanam

서사시 「어썩 가립과 셔흐사남(Oshiq Gharib va Shohsanam)」은 「가립과 셔흐사남(G'arib va Shohsanam)」, 「가립 셔흐사남(G'arib Shohsanam)」, 「어썩 가립(Oshiq G'arib)」이라는 이름으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라칼팍스탄 등 투르크 국가들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서사시 중 하나이다.

이 서사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유래한 후 점차 우즈베크, 투르크멘, 카라칼팍 족에게로 전파되어 전승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쇿(oshıq, 우즈베크어; aşıq, 아시옥, 아제르바이잔어)’은 일종의 음유시인이나 명창을 뜻하는데, 우즈베크의 바흐쉬(baxshi), 카자흐와 카라칼팍의 지라우(Жырау)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의 유래와 무관하게 『어쇿 가립과 셔흐사남(Oshiq Gharib va Shohsanam)』은 16세기 ~17세기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과 억압에 대한 항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이 처음 등장한 곳은 우즈베키스탄의 호라즘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원전인 아제르바이잔의 작품의 배경인 아루즘이나 테브리즈(타브리즈, 태브리즈) 대신에 고대 호라즘 도시인 바인곤(Vayngon) 등 새로운 지역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딸 셔흐사남(Shohsanam)과 가난한 가정의 아들이자 어쇿(아시옥)인 가립(G’arib)의 사랑 이야기이다. 두 사람이 어려운 사랑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가립의 예술성에 감탄하고, 그의 사랑을 응원한다. 그리고 주인공을 자기 자녀처럼 아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운명이 내린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서사시에서 주인공들과 보통 사람인 주변 인물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청자(독자)가 자유와 번영, 문화적인 발전과 평등과 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의지를 심어준다.

『어쇿 가립과 셔흐사남(Oshiq Gharib va Shohsanam)』은 1880년 이스탄불에서 오스만어로, 1902년 간자에서 아제르바이잔어로 출간되었으며, 1906년 부하라와 1907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크어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1956년에 다시 한번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 언어문학 연구소에 의해 서사시 채록편집본이 출판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쇿 가립 와 쇼흐스남, 아쉬크 가립 와 셔흐스남, 아쉬크 가립, 어쇿 가립
- **다국어 표기** Oshiq G’arib va Shohsanam (우즈베크어), Aşıq Qerib dastanı (아제르바이잔어), Ашық-Гаріб (카자흐어), Âşık Garip (튀르키예어), Şasenem-Garyp (투르크멘어), Ашик-Гариб(러시아어), Ashiq Qarib (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더스틴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llaev V. A., *O'zbek adabiyoti tarixi-17 asrdan 19asming ikkinchi yarmigacha ikkinchi kitob*. Toshkent: O'qituvchi, 1967.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I E251 | 어시퍼브 봉기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봉기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Osipov isyoni

‘어시퍼브 봉기’는 1919년 1월, 투르키스탄 공화국 군사위원 콘스탄틴 어시퍼브(Konstantin Osipov)가 이끄는 타슈켄트에서 일어난 반(反)소비에트 봉기이다. 1918년 말 콘스탄틴 어시퍼브의 지도하에 반(反)소비에트 임시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봉기는 1919년 1월 18일 밤에 시작되었다.

만하루가 지난 1월 19일 밤, ‘콘스탄틴 어시퍼브’의 명령으로 투르키스탄 ASSR 중앙 집행위원회 의장 보틴체프(В.Д.Вотинцев), 타슈켄트 협의회 의장 슈밀로프(Н.В.Шумилов), 부의장 핀켈스타인(В.Н.Финкельштейн), 투르키스탄 긴급위원회 의장 포멘코(И. Фоменко)를 비롯하여 기타 여러 위원들이 총살당했다. 이어 거의 타슈켄트를 봉기대가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판단할 무렵 붉은 군대가 봉기를 진압하고 말았다. 놀라운 점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타슈켄트의 구시가지(Eski shahar) 지역 주민들은 군사적 충돌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시퍼브가 내세운 가치였던 투르키스탄 민주공화국 건립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가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봉기를 일으켰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월 21일, 반란이 진압된 이후 어시퍼브는 페르가나 인근으로 퇴각했다. 코컨(Qo'qonqishloq) 시골 마을에서는 타슈켄트에서 가져온 소비에트의 조폐기로 돈을 발행하여 사람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부하라 토후국으로 피신했다가 결국 1920년에는 해외로 다시 도주했다. 정확히 어느 나라로 도피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인도로 갔다는 설도 있다. 한편 소비에트 정권은 어시퍼브 봉기를 진압한다는 핑계로 소비에트 체제에 불만을 품은 많은 이들을 탄압하고 대적으로 숙청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시포브 봉기, 오시포프 봉기
- 다국어 표기 Osipov isyoni(우즈베크어), Осиповский мятеж(러시아어), Osipov rebellion(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Abdullaev R.M. va boshqalar, *Turkestan v nachale XX veka: k istorii istokov nasionalnoy nezavisimosti*. Toshkent: Sharq, 2000.

I E252 | 어이딘

● 시기 A.D.1800~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Oydin

우즈베크 작가 ‘어이딘’(Oydin)은 1906년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본명은 만주라 서비로바(Manzura Sobirova)이다. 1919년 타슈켄트 여자 대학교에 입학했고, 1923년 대학 졸업 후에는 교사로 임용되었다. 그녀가 문학 세계에 입문하고 활동하게 된 것은 신문사, 잡지사에 작품들을 게재하면서이다. 그녀는 특히 1927년~1933년에 여타전 허침이 설립한 사마르칸트 교육아카데미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만난 ‘하미드 올림전’(Hamid Olimjon)과 ‘우이군’(Uyg’un)의 영향을 받았다.

그녀의 대표적인 시집은 『혁신을 향한 발걸음(Yangilikka qadam(1925))』, 『새벽의 노래(Tong qo’shig’i, 1931)』, 『기계의 포옹에서(Mashina quchog’ida, 1932)』, 『다리 위에(Ko’prik ustida, 1933)』, 『오늘 밤(Bu kecha, 1933)』, 『숨쉬있는 손(Chechan qo’llar, 1932)』, 『어이딘 시선집(Oydin she’rlari, 1937)』 등이다.

어이딘은 1930년대 후반부터는 만담 형식의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노동의 역할과 노동에 대한 우즈베크 여성들의 의식 변화를 드러낸 『기억하기 또는 견책하기(Eslash yoki vigovor)』를 1933년에 출간했고, 이어 새로운 의미에서의 가족과 사랑 그리고 헌신에 대한 주제를 다룬 『신생아를 위한 베넷저고리(Chaqaloqqa chakmoncha)』와 『부끄러웠나봐, 땅만 바라보네(Uyaldi shekilli, yerga qaradi)』와 같은 작품을 내놓았다. 특히 어이딘(Oydin)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소재로 『옷 수선사가 가 버렸네(Yamoqchi ko’chdi)』, 『이게 농담이라고?(Hazil etmish?)』, 『굴사남(Gulsanam)』과 같은 작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는 작가의 우

즈베크 민족의 삶과 낡은 구세대적 편견과 악습에 대한 저항은 물론 증오감까지 더해져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또한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와 전후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애국심과 영웅주의를 『용감함과 영원함(Mardlik mangulik, 1947)』, 『단편과 수필(Hikoya va ocherklar, 1952)』, 『단편집(Hikoyalar, 1954)』 등에 담아냈다.

수필가로도 활동한 어이딘(Oydin)의 대표적 에세이집으로는 『나는 여전히 그 위대한 분을 기억한다(Hamon yodimda o'shal ulug' zot)』, 『사막이 번창하고, 손이 자유로운 나라에서(Cho'llari obod, qo'llari ozod bo'lgan elda)』, 『민족의 기쁨(Ei quvonchi)』, 『검은 집들이 하얗졌다(Qora uylar oqardi)』, 『축복(Muborak)』, 『위대한 사람들(Katta kishilar)』, 『나의 영웅(Mening qahramonim)』, 『조국을 위한 희생(Vatan uchun jon fido)』 등이 있다.

그녀는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사무총장,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1946년~1953년) 사무관, 잡지 <우즈베키스탄 여성들(O'zbekiston xotin-qizlar)>의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어이딘(Oydin)은 우즈베크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명예 훈장(Hurmat belgisi ordeni)과 메달을 받았으며, 1958년 5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이딘

● 다국어 표기 Oydin (우즈베크어), Айдын (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하미트 올림전(Hamid Olimjon), 우이군(Uyg'un)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boblar.uz/uz/people/ojdin-manzura-sobirova>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Sultonova Mashhura, *O'zbek sovet adiblari*, Toshkent: Qizil O'zbekiston, Pravda Vostoka, O'zb-ni Surx, 1963.

I E253 | 어이벡

- 시기 A.D. 1800~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Oybek

‘어이벡’(Oybek)은 1905년 1월 10일에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1930년에 중앙아시아 국립대학교 사회과학과를 졸업한 이후, 동대학에서 1935년까지 정치·경제 과목을 가르쳤으며, 1933년~1937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언어문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어서 1941년까지 우즈베키스탄 국영출판사의 문학 번역가 및 편집자로 근무했다. 이어 과학아카데미 사회과학부장 및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회장을 지냈다.

어이벡은 현대 우즈베크 근현대 문학사 1세대 작가이다. 그는 1922년 「악기의 노래(Cholgotovushi)」를 문예지<아르무곤(Armug'on)>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어이벡이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것은 「노동자들에게(Ishchiga)」라는 시를 발표한 1925년이다.

그의 대표적인 시집은 『감정들(Tuygular, 1926)』, 『마음을 울리는 나이 연주소리(Ko'ngil naylari, 1929)』, 『마살라(Mash'ala, 1932)』, 『딜바르-시대의 여인(Dilbar - davr qizi, 1932)』, 『복수(O'ch, 1932)』, 『드네프로스트로이(Dneprostroy, 1930)』, 『학술적 행보(Fanga yurish, 1931)』, 『우즈베키스탄(O'zbekiston, 1927)』, 『산골소녀와 대학생(Qishloq qizi- student, 1933)』, 『표파는 여인(Pattachi xotin, 1929)』, 『콜호즈의 대장장이(Kolhoz temirchisi, 1935)』, 『대장장이 조라(Temirchi Jo'ra, 1933)』, 『소녀영웅(Qaxramon qiz, 1936)』, 『나버이이



어이벡 동상(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어이베크 기념 우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Navoiy, 1937)』 등이다.

어이베크는 전쟁 중 우즈베크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시를 지었다. 「적에게 죽음(Yovga o'lim)」, 「조국을 사랑하라(Vatanni sev)」, 「그날이 오면(Kunlar kelar)」, 「승리는 우리의 것(Zafar bizinki)」, 「어머니의 말씀(Ona so'zi)」, 「이별(Xayrlashuv)」, 「라이사(Raisa)」, 「조국에 대하여(Vatan haqida)」, 「청년들에게(Yigitlarga)」, 「레닌그라드(Leningrad)」, 「어이샤 아주머니(Oysha xola)」, 「군인의 편지에서(Jangchi xatidan)」 등 그의 시는 100여 편 정도가 전해진다. 그 밖

에도 역사소설 『나비이이(Navoiy, 1944)』는 우즈베크의 위대한 시인이자 사상가인 나비이이의 삶을 통해 15세기 당시 우즈베크인들의 삶과

역사적 사건들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이 소설은 『거룩한 피(Qutlug' qon, 1940)』와 더불어 어이베크의 걸작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그는 『함자(Xamza, 1947)』, 『소녀들(Qizlar, 1948)』, 『자파르와 자흐러(Zafar va Zahro, 1950)』, 『정직한 사람들(Haqgo'ylar, 1954)』, 『나의 할아버지(Bobom, 1957)』, 『내 시대의 부상(Davrim jarohati, 1965)』, 『굴리와 나비이이(Guli va Navoiy)』, 『버부르(Bobur, 1968)』 등의 소설을 썼다.

우즈베크 근현대 문학 모든 장르에 걸쳐 그의 공로는 높이 평가된다. 1943년 설립된 우즈베크스탄 학술원은 어이베크를 정회원으로 선출했고, 1965년 그는 우즈베크스탄 명예 국민작가상을 수상했다. 세 차례에 걸쳐 레닌 훈장을 수여했으며, 명예 훈장도 두 차례 받았다. 또한 1963년 소설 『나비이이(Navoiy, 1944)』와 단편소설 『어린 시절(Bolalik)』로 우즈베크스탄 국가상을 수상했다. 우즈베크스탄의 많은 학교와 공원, 거리는 물론 지하철역 등이 어이베크(Oybek)의 이름을 따 명명될 만큼 그에 대한 우즈베크스탄 국민들의 존경심이 컸다. 그는 1968년 7월 1일에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이베크, 오이베크
- 다국어 표기 Oybek (우즈베크어), Айбек (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타슈켄트, 알리셰르 나비이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b/b6/Stamps_of_Uzbekistan%2C_2005-05.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Naim, *Oybek: Ajoyib kishilar hayoti*, Toshkent: Yosh gvardiya, 1985.

Mirzayev Saydulla, Shermuhammedov Said, *Hozirgi zamon o'zbek adabiyoti tarixi*, Toshkent: O'zbekiston, 1993.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Oybek, *Mukammal asarlar to'plami 20 jildlik*, Toshkent: Fan, 1979.

Yoqubov H., *Oybek*, Toshkent: O'zbekiston,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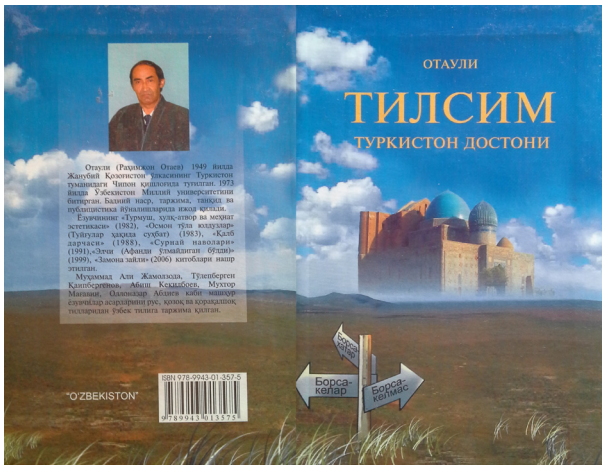
I E254 | 어타올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Otauli

1949년 4월 3일 카자흐스탄 남부 투르키스탄 지역에서 태어난 '어타올리'(Otauli)는 작가, 번역가, 사회평론가, 비평가 등 여러 역할로 활동했다. 그는 1973년 타슈켄트 국립대학교 문헌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1976년부터는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에서 일했고, 1981년 우즈베크 언론 정보사에서 자문 겸 편집장을 맡았다. 1983년~2010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에서 문학자문관으로 일했고, 1992년~2009년에는 사무총장도 겸임했다. 현재 알리쉐르 나버이언어문학대학교 민속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1973년 연구논문으로 『무러드헌(Murodxon) 연구』를 학술지에 게재했고, 『신비로운 세상(Sirli olam)』을 1977년 문예지 <굴리스트탄(Guliston)>에 발표했다. 이어 단편과 장편소설, 에세이, 서사시 및 문학비평서를 연이어 출간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하늘은 별들로 가득하다(Osmon to'la yulduzlar, 1983)』, 『감정에 대한 대화 (Tuyg'ular haqida suhbat, 1983)』, 『마음의 창(Qalb darchasi, 1988)』, 『수르나이의 멜로디(Surnay navolari, 1991)』, 『사신(Elchi)』, 『아판디는 죽지 않는다(Afandi o'lmaydigan bo'ldi, 1999)』, 『영적 피라미드(Ruhyat ehromi, 2006)』, 『마법, 투르키스탄 서사시(Tilsim, Turkiston dostoni, 2009)』, 『말의 하얀 반점(Otning qashqasi, 2010)』, 『연설의 예술수업(So'z san'atidan saboqlar, 2012)』, 『귀중한 말들(Ko'zlarga to'tiyo so'zlar, 2013)』, 『빌가 하칸의 서사시(Bilga



『마법, 투르키스탄 서사시(Tilsim, Turkiston dostoni)』 표지
Source: <https://faruhjon.narod.ru/>

xoqon dostoni)』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또한 어타울리는 번역가로서도 이름을 알렸다. 이란의 작가 ‘무함마트 알리 자말 자데흐’(Mohammad-Ali Jamalzadeh) 나 이탈리아의 작가 ‘디노 부자티’(Dino Buzzati)와 압하지야의 작품 ‘파질 이스칸데르’(Fazil Iskander), 카자흐스탄의 작가 ‘무흐토르 마가빈’(Мұхтар Магавин)의 작품 등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특히 우즈베크의 영웅이자 카라 칼팍스탄 명예 국민작가 ‘토렘베르겐 카

입벨게노브’(Tólepbergen Qayıpbergenov)의 작품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해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

한편 그는 자신의 작품을 러시아어로 집필하기도 했다. 러시아어로 집필한 작품은 <동방의 별(Звезда востока)>과 <민족어(Народное слово)> 등의 신문과 잡지에 게재되었다. 이후 『마법, 투르키스탄 서사시(Tilsim, Turkiston dostoni, 2009)』로 1995년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에서 상을 받았으며, 1989년 ‘노동상(Mehnat veterani)’과 2000년 ‘명예(Shuhrat)훈장’을 수상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타울리
- 다국어 표기 Otavli (우즈베크어), Отаули (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faruhjon.narod.ru/images/tilsim.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uzbek-nasri/otavli/>
<https://arboblar.uz/uz/people/ataev-rakhimdzhah-otavli>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valiyev S., *O'zbek adiblari*,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2016.

I E255 | 어타전 허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Otajon Hoshim

20세기 우즈베크 문학연구의 1세대이자 저명한 학자 ‘어타전 허쉬’(Otajon Hoshim)은 1905년 타슈켄트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마드라사와 러시아식 학교에서 수학했다. 그리고 1922년~1924년에는 모스크바 부하린 노동자 단과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이어 마르크스학(Marxist Social Sciences)을 주요 학문으로 전공하는 볼셰비키 붉은교수 대학교(The Institute of Red Professors of the All-Union Communist Party; Bolsheviks)을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우즈베키스탄 교육위원회 산하 학술위원장을 거쳐 우즈베키스탄 과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마르칸트에 우즈베키스탄 교육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소련의 저명한 학자들을 이 대학으로 모았다. 이후 1929년부터 1933년까지는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 레닌그라드 동양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그후 1934년~1937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과학위원회 위원장과 과학아카데미 언어문학 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더불어 당대 학자인 ‘피트랏’(Fitrat), ‘거지 얼림 유누서프’(G‘ozi Olim Yunusov), ‘폴리와너브’(Ye. D. Polivanov)와 함께 석박사 학생들에게 철학, 정치경제학 및 기타 과목을 가르쳤다.

그가 저술한 「우즈베키스탄의 학문적인 작업들(O‘zbekistonda ilmiy ishlar)」, 「푸쉬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의 번역에 관하여(A. S. Pushkinning «Yevgeniy Onegin» tarjimasi haqida)」, 「변증법과 변증법적 사고(Dialektika va dialektik usulda o‘ylash)」, 「우즈베크 민속학에 관하여(O‘zbek folklori haqida)」, 「문학유산(Adabiy meros)」과 같은 글은 20세기 초에 태동하여 형성된 우즈베크 인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그의 주도로 다양한 고전과 현대 문학 사전이 출간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타전 허쉬는 스탈린 정부의 대숙청 시기에 희생된 우즈베크 지식인 중 한 명이다. 1937년 8월 2일에 체포되어, 1938년 10월 4일에 ‘인민의 적’이라는 혐의로 사형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오타존 호심
- 다국어 표기 Otajon Hoshim (우즈베크어), Отажон Хошим (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uzbek-ziyolilari/otajon-hoshim/>
- 참고문헌(오프라인) Rahmonov Bahodir, *O'zbek adabiy tanqidchiligi*, Toshkent: Yangi asr avlodi, 2004.

I E256 | 얼림 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Olimxon

히바 칸국의 칸 ‘나르보타비이’(Narbo'ta biy, 재위: 1764년~1801년)의 장남인 ‘얼림 칸’은 제위에 오른 이후 확장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갔다. 그는 주로 타지크 고원 출신의 사람들로 군대를 용병 군대를 구성했는데 이 용병 세력이 중앙집권화를 노리던 얼림 칸의 지지 세력이 되었고, 이후 더 큰 군대 형태로 성립되어 얼림 칸 군대의 핵심 세력이 된다.

얼림 칸은 이들과 함께 안그렌 계곡(Angren valley), 침켄트(Chimkent), 사이람(Sayram), 투르케스탄(Turkestan)과 같은 투르키스탄 지역 전체를 정복했다. 이 지역은 모두 러시아로 향하는 대상 경로의 주요 지점이었다.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러시아와 열린 무역 관계를 잘 이끌어가지는 못했고 특별한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무역이 크게 발전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부하라 토후국으로부터 어라팁페(Oratippe), 지작(Jizzak), 후잔드(Khojend)와 같은 도시를 빼앗아 오는 소기의 업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1805년 얼림 칸은 지금까지 선조들이 비(by 또는 베이bey)의 칭호를 썼던 것과 달리 정식으로 ‘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코칸드 칸국이 얼림 칸 시대부터 정식으로 ‘칸국’이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한편 얼림 칸은 종교 정책을 위한 조처를 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대표적으로 이산(ishan) 제도를 폐지했고 빈자와 칼란다르(kalandar)라고 불리던 은둔자들에게 사회 참여를 위하여 토지와 가축을 제공했다. 또한, 모스크에서 기도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했고, 종교적으로 이탈한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성

직자들이 반발을 일으키게 되면서 1810년 얼림 칸이 타슈켄트에 있는 사이 그가 살해당했다는 거짓 소문이 퍼졌다. 갑작스럽게 그의 형제 우마르 칸(Umarxon, 재위: 1810년~1822년)이 칸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얼림 칸은 서둘러 코칸드로 출발했지만, 이미 반란 세력은 길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살해해 버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림 칸, 알림 한

- **다국어 표기** Olimxon(우즈베크어), Alim Khan(영어), Âlim Han(튀르키예어), Âlim Narbotauly(카자흐어), Алим хан(키르기스어)

- **연관 검색어** 나르보타비이, 코칸드 칸국, 우마르 칸

- **참고문헌(오프라인)** Alpargu, M.,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957~1045.
Bababekov, H. N., "The khanates of Khiva and Kokand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khanates and with other powers. Part Two: Ferghana and the khanate of Kokand",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 UNESCO, cop. 2005, pp.71~82.

Dubovitskii, V., Khaydarbek Bababekov, "The Rise and Fall of the Kokand Khanate", *Ferghana Valley: the heart of Central Asia*, London ; New York : Routledge, 2015, pp.29~68.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사업명

토대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과제번호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

연구기간

2018.7.1. ~ 2023.6.30.

연구수행기관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 대표집필자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Azerbaijan)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National Academy of Science(Azerbaijan) 교수
 Nükhe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Turke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Balkans-Eurasia Turkish Literature Institute)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Azerbaijan) 교수

멀티미디어 자문위원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Uzbekistan) 관장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과 교수
 연규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 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Қайрат Жадыра(카이라트 자디라) L.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Kazakhstan) 교수

감수

김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박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객원교수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연상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Turkey) 박사수료

Leyla Masi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DB 전문가 자문 및 실무 작업

전정훈 동덕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 교수

김현정 서울대학교 언어학 박사

이성지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행정 담당 조교

유경혜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홍한해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이연정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한국의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비교문학과 튀르키예 문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연구하면서 박사 후 과정(Post-doc)을 마쳤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구비문학 연구로 인문학 국가박사학위(Doctor of Science)를 취득했다.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니자미 사범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강의했다. 현재는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이며,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소장이다. 주요 저서는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베일 속의 여성 그리고 이슬람』, 『튀르키예 한국전쟁문학론(튀르키예어)』, 『20세기 튀르키예와 한국 소설 속의 여성(영어,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한국과 우즈베크 영웅서사시·신화, 주몽과 알퍼므쉬 비교(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이다.

<집필진>



강덕수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양어 대학 노어과 명예교수이자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교 교수이며, 한국사학 친선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는 『예벤어의 형태와 구조 (한국의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8.1)』, 『The Sakha (Yakut) language: An Analytic Grammar (with G. Torotoev). H Press. 2023』 등이다.



강인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및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소장이자이다. 유라시아와 고조선의 고고학이 그의 전공이다. 『우리의 기원: 단일하든 다채롭든』, 『옥저와 읍루』, 『북방고고학개론』, 『강인욱의 고고학 여행』, 『테라 인코그니타』, 『유라시아 역사 기행』 등의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이 있다.



김근식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교수와 한국노어노문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논문으로 『아이트마토프 작품의 주제발달 연구(박사학위 논문)』, 『전환기 러시아 문학출판 연구』, 『90년대 러시아 문학의 개성화 연구』, 『러시아 문학 이데올로기의 향방 연구』, 『러시아 정교회와 반체제 및 민족주의』 등이 있으며, 저서로 『이동 동사를 활용한 러시아어 작문』(1999), 역서로 『하얀 배』(1983, 아이트마토프), 『공산주의의 종언』(1992, 야코블레프, 공역), 『아버지 金』(1994, 아나톨리 김) 등이 있으며, 러시아어로 번역한 『천둥소리』(1999, 김주영)가 있다.



김재윤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졸업 후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부교수이다. 주요저서는 『접경의 아이덴티티: 동해와 신석기문화』, 『교과서 밖의 역사: 유라시아 초원 스키타이 문화의 미래와 여신상』, 『환동해 문화권 북부지역의 선사문화: 연해주선사고고학개론』 등이 있다. 역서는 『러시아연해주와 극동의 선사시대』(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수상), 『러시아 연해주의 성(城)유적과 고대 교통로』가 있다.



김흥중

중앙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게르첸 러시아 국립사범대학 러시아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은 「러시아 모더니즘 문학과 몽타주」, 「러시아 각색영화의 특수성과 문화적 의미」, 「자마찐의 '예술 산문 기술 강의: 연상의 시학과 세계 인식」, 「러시아-소비에트 튀르크 문학 연구의 성과와 의미」, 「일본 태양의 근원과 소비에트 오리엔탈리즘」 등이 있다. 2004년부터 러시아 문학, 지역학, 예술 이론 관련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박현도

서강대(종교학, 학사), 캐나다 맥길대(이슬람학 석사, 박사수료), 이란 테헤란대(이슬람학, 박사)에서 공부했다. 현재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국가개항정보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전문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 Studies in Islamic Historiography(공저, Brill, 2019), 『이슬람의 모든 것: 이슬람에 관한 122개의 질문과 대답』(공역, 바오, 2020) 등이 있다.



송경근

한국의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졸업했고, 이집트 알 아즈하르 대학교 역사와 문명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이슬람학회 회장,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학과장, 동 대학 부학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중동지역 연구』(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케임브리지 이슬람사』(공동번역, 시공사, 2002), 『고등학교 아랍 문화』(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2003),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성장, 투쟁, 사회적 역할 및 제도권 진입에 관한 연구」, 「오만의 이슬람과 그 전망」, 「몽골의 동부 이슬람 세계의 침입」, 「한국의 이슬람사」, 「중국의 이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적 관계」 외 다수가 있다.



양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교에서 터키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학교 터키어문학과에서 투르크민속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중해 지역원 산하 인문학 센터장을 맡고 있다. 지중해 지역 문명교류 및 투르크 민속에 대해 연구 중이다. 『터키를 가다(공저, 2018)』, 『투르크 지역 연구(공저, 2018)』, 『지중해문명교류사전(공저, 2020)』, 『7인의 전문가가 본 시칠리아의 문명 교류(공저, 2021)』, 『동지중해 결혼 문화와 전통(공저, 2022)』, 『아시아 카펫문화 연구(공저, 2022)』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우덕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어(터키어)전공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아시아사 개설』, 『지역연구와 세계 단위론』, 『지역연구의 방법』, 『터키어 표준교재 A2』, 『터키어 표준 교재 B2』, 『튀르키예어 속어사전(TÜRKÇE DEYİMLER SÖZLÜĞÜ)』 등 10여 편의 저역서와 60편의 논문이 있다.



이수정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동·아프리카학 박사를 취득했다. 육군3사관학교에 강의전담 교수로 근무했고, 현재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의 무슬림 역사와 이주 무슬림을 주로 연구한다. 대표 저서로는 『타인을 기록하는 마음』이 있고, 대표 논문으로는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관점으로 본 한국 내 이주 무슬림의 생존 전쟁」, 「난민의 식탁(Refugee Cuisine): 안보를 넘어 공존의 범주로」가 있다.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터키언어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튀르키예 앙카라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로 터키어를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지의미론, 대조언어학, 외국어로서 튀르키예어 교육이며, 『Kavramsal Metafor Ve Metonimi Üzerine Uygulamalar (2023)』의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처음 배우는 튀르키예(터키)어 (한국외대, 2023)』가 있다.



이영희

동의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튀르키예 앙카라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특임강의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된 연구는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베지리아잠(Vezir-i a'zam) 관련이며, 현재 일 칸 붕괴 이후 중동지역의 국제정치적 변화 과정 및 오스만 제국-사파비 제국 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다.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스만 제국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이며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Guild Dynamics in Seventeenth-Century Istanbul: Fluidity and Leverage (Leiden: Brill, 2004)』,『오스만 제국 시대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민음사, 2018)』, 역서로는『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 유럽, 이슬람, 세계사 다시보기(사계절, 2006)』,『메흐메드 알리: 오스만 제국의 지방 총독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일조각, 2016)』가 있다.



이주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의 동양사학과에서 석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전공은 중앙아시아사이며, 그중에서도 페르시아어로 된 사료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박사과정 중에 이란 테헤란 대학교 부설 어학기관인 데흐호더에서 어학 과정과 문학 과정을 수료했으며, 박사논문으로 14세기 후반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점령했던 아미르 티무르의 역사서, 『승전기』를 역주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하제테페대학교에서 튀르키예어-한국어 비교언어학으로 석사, 동 대학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언어학(고대 투르크어)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우송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고대 투르크어, 튀르키예어, 언어학이다. 저서로는『나 혼자 간다! 여행 터키어(문예림, 2016)』,『평등한 언어 세상을 위한 시작 터키어 첫걸음(언어평등, 2020)』,『단단한 언어 성장 튀르키예어(터키어) 초중급(언어평등, 2023)』이 있다.



조성금

중앙아시아 불교회화 및 불교 도상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2003),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연구'로 박사(2013)를 마쳤다. 현재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미술학과 등에서 불교회화 및 동서 미술 교섭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왕국의 불교회화(진인진, 2019)』가 있다.



최선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에서 미술사로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에 출강하고 있다. 주로 건축사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문명 교류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투르크-알타이: 터키 중앙아시아 몽골의 사회와 문화(공저)』, 『투르크-중앙아시아: 투르크민족의 문화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추영민

카자흐스탄의 L.N 구밀료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지역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과 특임강의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Model of Interethnic Communication of Kazakhstan-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APK)』, 『South Korea and Kazakhstan: Particularities of Cultural and Humanitarian Cooperation』, 『소련 붕괴 이후 KVN 변천 및 확대 과정을 통해 본 21세기 중앙아시아 방송 대중문화 현상의 특징과 변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이 있다.



황영삼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러시아학술원 산하 러시아역사연구원(모스크바) 객원연구원(1996),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알마티) 초빙교수(2005년~200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1999년~2005년)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지신허에서 모스크바까지 -고려인 동포 쉽게 이해하기 (ebook, 유페이퍼, 2023)』,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독립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 (공저, 2020)』 등이 있다. 현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역사와 고려인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Mihrayeva Guzal
Nuralievna

구잘 미흐라예바 누르알리에브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졸업했다.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201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2019), 현재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배드리한 애흐메들리. 바쿠 슬라브 대학교 아제르바이잔 문학 교수이며, 아제르바이잔 국립아카데미 니자미 갠재비 문학연구소 아제르바이잔-아시아 센터장이다. 『사비트 레흐만의 풍자성 연구(Sabit Rehmanın satirası)』, 『아제르바이잔 풍자문학 발전의 과제들(Azərbaycan satirasının inkişaf problemləri)』,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사(X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의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성격(Azərbaycan mühacirət ədəbiyyatı. Təşəkkülü, problemləri, şəxsiyyətləri)』의 문학이론과 아제르바이잔 문학에 관한 다수의 저술과 논문이 있다.



Əli Şamil

엘리 샤밀. 1973년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저널리즘 학부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국립 과학 아카데미 민족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07년부터 대외관계부서장을 맡고 있다. 『북사이프러스(Quzey Kıbrıs, 2001)』, 『위구르, 가가우즈, 북사이프러스 투르크인들의 민족과 문학(Uyğur, qaqauz, Quzey Qafqaz türklərinin folkloru və ədəbiyyatı, 2011)』, 『카쉬가이 민족과 민족(Qaşqaylar və onların folkloru, 2020)』외에도 전 세계 20여개 국에서 20편의 저서, 100편이 넘는 학술 논문 그리고 200여 편의 칼럼을 집필했다.



Nükhət Okutan
Davletov

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프. 하제테페 대학교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카파도키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샤머니즘, 고대 투르크 비문, 이슬람 이전 투르크 문화, 투르크 및 그리스 신화에 대한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권 사르으 한: 하카스 여성 서사시 번역(Kün Sarıǵ Han: Bir Hakas Kadınının Destanı adlı destan çevirisi, 공저, 2021)』, 『하카스 투르크 족의 샤머니즘과 죽음(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 2021)』 등이 있다.



Metin Turan

메틴 투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키예프 국립대학교에서 투르크 문학을 강의했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튀르키예 이을드즈(Yıldız) 공과 대학교 예술과학부에서 민속문학을 가르쳤다. 현재는 KIBATEK(사이프러스·발칸·유라시아·튀르키예 문학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아시옥 웨이셀의 삶과 예술(Aşık Veysel-Yaşamı ve Sanatı, 1992)』, 『민속 문화(Halk Kültürü, 2005)』, 『코르오울루의 삶과 시(Koroğlu Hayatı-Şiirleri, 2017)』, 『카르스 민속문화와 문학(Kars Halk Kültürü ve Edebiyatı, 2019)』 등이 있다.



Vaqif Sultanlı

와기프 술탄르.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 문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바쿠 국립대학교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학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메메트 에민 레슬자데의 문학세계(Mehmet Emin Resulzade'nin edebi dünyası, 1993)』, 『어려운 길을 걷는 자(Ağır yolun yolçusu, 1996)』, 『자유의 지평선(Azadlığın ufukları, 1997)』,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Azərbaycan mühaceret edebiyatı, 1998)』, 『문학이론 단면(Edebi nazari illüstrasiyalar, 2000)』, 『아제르바이잔 문학비평(Azərbaycan edebi tenkidi, 2012)』 등이 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V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V

1쇄 인쇄 2023년 12월 11일

1쇄 발행 2023년 12월 11일

저자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Əli Şamil, Nükhet Okutan Davletov, Metin Turan, Vaqif Sultanlı

편집위원

오은경(위원장), 류수, 장주영, 최선아

편집·교정·교열

류수(총괄), 심명석, 하윤정, 박세화, 유현우, 이주희, 전기준

표지 & 북 디자인

이재성

발행처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디자인·인쇄

위애드컴

출판등록

제 2017-000010호

전자책 ISBN

발권 979-11-985841-6-8 (05030)

세트 979-11-961536-3-2 (05030)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

-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의 재사용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 잘못된 내용 수정이나 보완 요청 등 이 책에 관한 모든 문의는 이메일 eurtur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매품



9 791198 584168 05030
ISBN 979-11-985841-6-8 (PDF)
ISBN 979-11-961536-3-2 (세트)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